周易·正易

易學原理總論　易經大意　正易

韓長庚　著

삶과 꿈

編輯 序

近來 周易은 占書的인 側面으로서 一般人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 해도 過言이 아닐만큼 그 方面으로 學問하는 이들이 많고 著述 또한 그러하다 할 수 있겠으나 易經의 根本되는 보다 큰 原理를 學問한 이들은 世上에 잘 알려지지 않고 著述 또한 別無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三和先生은 周易을 硏究하시면서 크고 멀게는 宇宙 萬物로부터 가깝게는 人間, 人間事의 生長成藏하는 原理를 糾明하는데에 三十餘年을 힘쓰셨고 처음에는 「易學原論」을 著述하여 生存法則 과 政治理論을 다루셨고 다음에 「易學原理總論」을 著述하여 易學으로 본 人生問題를 다루신 바 있다.

이 冊은 三和先生의 遺稿를 세 部分으로 나누어 編輯하였다.

人生問題의 어떤 方向을 찾는 이들은 「易學原理總論」, 深度있는 周易을 學問하는 이들은 「易經大意」, 그리고 未來의 哲學을 追求하는 이들은 「正易」이 아마도 新境地로의 機微를 얻을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이 遺稿를 三十餘年 保管만 하고 있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編輯發行하는 것은 萌動하는 斯學의相 等 世態의 여러 片面에서 符合되는 時期가 아닐까 생각되어서이며 編輯過程에서 未盡한 感이 남는 部分은 肉筆原稿를 그대로 活字化하면서 淺學非才의 所致로 因하여 或 字句의 誤植이 있지 않을까 저어함이다.

易學原理總論 11

易經大意 125

正易 691

易經原文 597 正易原文 815

易學原理總論

- 易學으로본 人生問題 -

目次 < 易學原理總論-易學으로본 人生問題 - >

第一章 天地의 組織 ——— 11

第一節 陰陽과 生命 ——— 11

■ 運動은 陰陽에서 일어난다 ——— 11

■ 陰陽의 互根 ——— 12

■ 陰陽의 互先互後 ——— 13

■ 陰陽의 互易 ——— 14

■ 陰陽의 互大互小 ——— 14

■ 生命體의 組織 ——— 15

第二節 生命의 形化 ——— 18

■ 無形과 有形 ——— 18

■ 生命의 氣精形變化 ——— 20

■ 八卦는 生命의 運動 ——— 22

註 ●易學의 八卦原理 ——— 23

●八卦의 象은 다음과 같다 ——— 24

■ 太陽과 달의 生成 ——— 27

註 ●序卦의 日月生成 ——— 29

第三節 씨의 發生 ——— 32

■ 씨는 日月에서 生한다 ——— 32

■ 植物 動物 사람의 發生 ——— 34

註 ●序卦의 生物 發生順序 ——— 37

■ 男女의 分化 ——— 38

■ 生長成의 時運 ——— 40

第二章 사람의 精神作用 ——— 43

第一節 天性의 組織 ——— 43

■ 生命과 天性 ——— 43

■ 天性의 生成 ——— 43

■ 觀察 思慮 判斷 記憶等 作用 ——— 45

■ 祈禱의 原理 ——— 46

第二節 心情의 組織 ——— 47

■ 心情은 天性에서 發한다 ——— 47

■ 心의 體는 仁禮義知 ——— 49

註 ●三顯一藏의 理 ——— 50

■ 生育 生殖 長壽의 三情은 萬物의 本能 ——— 51

註 ●天地萬物의 情 ——— 51

■ 心과 情의 調和 ——— 53

第三章　神과 人間 ——— 54
第一節　人間은 神의 創造 ——— 54
■ 神의 存在하는 原理 ——— 54
■ 神은 永遠無窮 ——— 58
■ 神은 太陽에 位居 ——— 60
第二節　死生과 鬼神 ——— 62
■ 萬物은 神의 分身 ——— 62
■ 死後 鬼神의 理 ——— 63
■ 人間世界와 鬼神世界 ——— 66
■ 鬼神의 盈虛消長 ——— 67
第四章　사람의 生生 ——— 69
第一節　生生의 圜運動 ——— 69
■ 宇宙는 圓狀組織 ——— 69
■ 動植物과 사람의 差異 ——— 71
■ 神과 사람의 相祐 ——— 75
第二節　自由意志와 善惡 ——— 78
■ 善惡이 모두 自由 ——— 78
●自由의 本質 ——— 80

●善惡의 標準 ——— 80

■ 지금의 人間은 자라는 過程에 있는 未成品 ——— 81

●性惡說 ——— 84

■ 天命은 一生의 使命 ——— 84

第三節 孝 忠 義는 三大倫 ——— 87

■ 孝忠義는 神道이다 ——— 87

■ 孝의 原理 ——— 87

註 ●孝의 理 ——— 88

■ 忠의 原理 ——— 91

註 ●忠의 理 ——— 91

■ 義의 原理 ——— 93

註 ●義의 理 ——— 93

●生活의 體用 ——— 94

第五章 未來의 成의 時運 ——— 95

第一節 世上의 變化 ——— 95

■ 先天과 后天의 時運 ——— 95

■ 地球 달 사람의 變化 ——— 96

註 ●胎宮 二十四數 ——— 98

■ 物質文明의 沒落과 精神文明의 發達 ——— 99

第二節 새 宗敎의 出現 ——— 104

■ 宗敎는 神道의 敎 ——— 104

■ 佛敎의 敎理 ——— 106

■ 儒敎의 敎理 ——— 109

■基督敎의 敎理 ——— 109

■三敎 敎理의 相互關聯 ——— 111

■ 三敎一體의 새 宗敎 ——— 116

第三節 未來의 政治 ——— 118

■ 師傅政治 ——— 118

註 ●易學의 父子 國家 師傅의 道 ——— 120

■日月運行法則이 政治의 原理이다 ——— 122

易學原理總論 - 易學으로 본 人生問題 -

第一章 天地의 組織

第一節 陰陽과 生命

■ 運動은 陰陽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天地間에는 萬物이 가득히 차 있는데, 이 萬物들은 하나도 運動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또 暫時도 運動을 繼續치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다 하고 易學에는 이것을 生生이라 한다. 生生이라 함은 萬物이 모두 살아 있어, 空間的으로는 無限히 뻗어 나가는 擴大運動을 行하고, 時間的으로는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하는 生長成의 作用으로써 無窮히 이어나가는 繼承運動을 行하여. 空間的 時間的으로 恒久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말함이다. 易學에서는 宇宙라는 말과 天地라는 말을 아울러 쓰고 있는데, 宇宙라 함은 上下 四方의 空間과 古往今來의 時間을 總稱하는 말이오 天地라 함은 太陽을 中心한 太陽系의 宇宙를 말하는 것이니, 宇宙와 天地는 말뜻이 大體로 同一하며 다만 空間과 時間을 總稱할 때에는 宇宙라하고 萬物의 生生하는 現象을 말할 때에는 天地라 하는 것이다. 天地間에 空間的 時間的으로 運動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易學에는 이 運動體를 太極이라 하는데, 太極의 運動은 能動과 受動, 發顯과 收斂等 相反하면서 또한 相合하는 對待作用에 依하여 作用과 反作用의 運動이 일어나며, 能動 發顯等 動的作用을 陽이라하고, 受動, 收斂等 靜的作用을 陰이라 하니, 陰陽은 易學이 天地萬物의 生生하는 原理를 說明하는 用語로서, 萬物의 組織 運行 生成 變化等 온갖 狀態를 陰陽이라는 두마디의 말속에 包括치 아니함이 없는 特殊한 用語이다. 지금 科學의 電氣에 陰電 陽電이 있고, 磁氣에 陰極陽極이있고, 原子에 電子陽子가 있는 것 等이 모두 이 陰陽의 理에 依한 것이다.

이제 天地間에서 陰陽의 運動하는 狀態를 보건대, 陰과 陽은 서로 對待하

여 相合하지도 못하고 相離하지도 못하여, 陰이 있는 곳에 반드시 陽이 있고 陽이 있는 곳에 반드시 陰이 있으며, 陰陽은 對待作用으로써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면서 스스로 運動치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그 運動은 한번 닫히고 한번 열리고 하는 鼓動運動이 되는 것이니, 心臟의 躍動, 潮水의 往來같은 것이 바로 이 陰陽의 鼓動運動이다.

■ 陰陽의 互根

萬物은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반드시 어떠한 形態로든지 그 組織體를 가지고 그 組織體에는 반드시 運行力이 있어 그 組織體를 運營하여 이에 運動이 繼續하는 것이다. 天地間의 萬物은 모두 地의 形質에 依着하고 地의 形質은 天의 引力에 根柢하니, 天의 引力은 氣의 流行함이오 地의 形質은 精의 凝做함이라, 그러므로 天地間에 生生하고 있는 萬物은 모두 天의 氣와 地의 精을 聚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繫辭에 「精과 氣가 物이 된다」함은 이를 말함이다. 精이라 함은 萬物의 形體를 組織하는 本質로서 곧 水火의 精을 말함이오 氣라 함은 萬物의 運行하는 힘으로서 곧 雷風의 氣를 말함이니, 精은 承受 包含 收藏 凝聚 等의 陰性作用을 行하고, 氣는 發施 流行 出顯 鼓動 等 陽性作用을 行하므로, 萬物을 組織한 精氣의 두 作用은 곧 陰陽의 對待이다. 萬物은 精의 組織體만 있고 氣의 運行이 없으면 生生作用이 行치 못하고 또 組織體가 없이는 氣의 運行이 있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萬物은 生生하기 爲하여 반드시 組織體가 있고 그 組織體는 스스로 運動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도록 構成되어 있는 것이오 이것을 陰陽의 互根이라 한다. 互根이라 함은 陽이 陰에 依着하여 能動作用을 行하고 陰은 陽의 鼓動을 承受하여 受動作用을 行하여 相離하지도 못하고 相合하지도 못하고 二하면서 一하고 一하면서 二함이다. 互根하고있는 兩物은 하나는 動作하려하고 하나는 靜止하려하며, 하나는 出顯하려하고 하나는 收斂하려하여 거기에 스스로 作用과 反作用에 依한 動作이 生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이가 곧 運動이다. 天地는 太極이라는 運動體에서 陰과 陽의

두 作用이 生하고 그 陰陽의 交互作用에 依하여 運動이 일어나서 無限無窮한 生生作用을 行하니, 太極과 陰陽은 物의 組織體가 作用과 反作用의 두 作用을 生한 然後에 運動이 일어난다고 하는 一體兩用의 理이다.

■ 陰陽의 互先互後

萬物의 體를 組織運行하고 있는 陰陽의 兩作用은 一物의 兩面作用 卽 一體兩用으로 되어 物의 生하는 때에 陰陽의 作用이 함께 生하는 것이오 陰이 먼저 聚凝한 然後에 陽이 스스로 生하는 것도 아니오 또 陽이 먼저 發動한 然後에 陰이 스스로 生하는 것도 아니다. 陰陽의 組織에는 先後의 別이 없는 것이나, 그 組織에서 運動이 生하는 때에는 스스로 先後의 別이 있으니, 物의 能動하는 것은 陽의 作用이오 受動하는 것은 陰의 作用이라, 萬物이 運動하는 때에는 반드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先하고 受動이 後하는 것이므로 物의 運動에는 能動하는 陽이 先하고 受動하는 陰이 後하는 것이며, 이 理에 依하여 一年中에는 春夏가 陽이오 秋冬이 陰이므로 一年의 節序는 春夏의 陽이 先하고 秋冬의 陰이 後하는 것이다. 그러나 運動이 일어나는 때에 비록 能動하는 陽이 先하고 있으되, 그 陽은 靜止하고 있는 陰속에서 發生하는 것이니, 이는 陰이 先에 있고 陽이 後에 있음이다. 그러므로 萬物의 運行하는 作用으로써 볼 때에는 能動하는 陽이 先하고 受動하는 陰이 後하며, 萬物의 組織된 本體로써 볼 때에는 形質인 陰이 先하고 氣力인 陽이 後하는 것이며, 이가 陰陽의 互先互後하는 것이오 陰陽이 互先互後하는 까닭에 先하던 것이 後하고 後하던 것이 先하면서, 平等한 作用으로써 無限無窮한 運動을 繼續하고 그 運動은 알이 닭을 낳고 닭이 알을 낳음과 같이 圓狀을 圜行하는 形態로 되는 것이다.

■ 陰陽의 互易

陰陽이라 함은 萬物의 對待하는 體用關係에 따라서 生하는 것이오 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萬物의 組織과 運行이 모두 陰陽의 兩面을 가지고 있으므로 物과 物이 相對하는 때에 能動하는 者는 陽이 되고 受動하는 者는 陰이 되는 까닭이다. 事物의 現狀은 受動作用을 行하므로 陰이되고 事物의 變通은 能動作用을 行하므로 陽이 되는지라, 一年中의 陰陽體用關係로써보면 冬至에 一陽이 生한 以後에는 陰은 受動하는 現狀이 되고 陽은 能動하는 變通이 되므로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며, 夏至에 一陰이 生한 以後에는 陽은 受動하는 現狀이되고 陰은 能動하는 變通이 되므로 陽이 體가되고 陰이 用이되는 것이니, 이것은 陰陽이 서로 體가되고 서로 用이 되어 陰陽이 互易하는 것이다.

萬物은 모두 陰陽兩面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物이 있는 때는 반드시 그 속에 陰과 陽이 있고, 또 陰의 속에도 陰과 陽이 있고 陽의 속에도 陰과 陽이 있어, 樹枝狀의 陰陽이 限없이 分布하고 있는 것이니, 精氣의 關係로써보더라도 氣는 陽이오 精은 陰인데, 同一한 氣의 속에도 雷는 陽이오 風은 陰이며, 同一한 精의 속에도 水는 陰이오 火는 陽인 것이 그 一例이다.

天地間에는 至大至廣한 者로부터 至細至微한 者에 이르기까지 모두 陰陽이 分布되어 있으므로 或은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여 限없는 運動을 繼續하고 或은 陰이 陽으로 變하기도하고 陽이 陰으로 變하기도하여, 陰陽의 互易作用에 依하여 萬物의 不測한 變化가 生하는 것이다.

■ 陰陽의 互大互小

萬物의 運動은 陰陽의 交互作用에 依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陰陽의 差等과 平等의 두 가지 作用이 있는 것이다. 陰陽은 一物의 兩面作用

이므로 交互로 作用하여 그 機能이 平等한 것이니, 萬一 陰陽에 優劣과 强弱의 差等이 固定되어 있다고 하면 優强한 者가 常勝하고 劣弱한 者가 常敗하여 그 運動過程에 스스로 偏勝偏敗가 生하여 마침내 運動이 終止되는 것이다. 그러나 陰과 陽에 아무런 差等이 없고 固定的으로 平等하다고 하면 或은 兩勢가 相敵相持하여 交互作用이 行치 못하여 스스로 運動이 停止되고 或은 兩勢가 相觸하는 때에 衝突만 있고 調和가 없어서 모두 破壞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은 그 本體는 서로 差等하면서 그 運行은 平等한 것이니, 이것을 水火로써 보건대 水는 陰이오 火는 陽이라 同量의 水火를 서로 接觸하면 水가 能히 火를 滅하니, 이는 陰大陽小함이오 水는 비록 火의 近處에 있더라도 서로 接觸치 아니하면 能히 火를 滅치 못하되, 火는 水의 近處에 있으면 熱을 照射하여 能히 水를 말릴 수가 있으니, 이는 陽大陰小함이다. 水火는 그 組織體로는 水의 힘이 大하고 火의 힘이 小하며, 그 運行作用으로는 火의 힘이 大하고 水의 힘이 小하니, 이가 陰陽의 互大互小이오 陰陽은 互大互小로써 서로 平等한 것이다.

萬物의 生生作用은 大小長短等의 差等이 없으면 組織體를 構成치 못하는 것이므로 그 體는 各其 獨自한 形態를 가지고 스스로 差等이 있는 것이오, 그 運行은 偏勝偏敗가 있으면 交互作用이 行치 못하여 生生이 끊어지는 것이므로 그 作用은 互大互小하여 差等하면서 平等한 運動을 行하는 것이다. 人體로써 보면 男體는 陽이오 女體는 陰이라 男體의 體軀와 體力은 女體보다 大하니, 이는 陽大陰小함이오, 女體는 胎宮을 有하고 모든 人類는 이 胎宮中에서 길러서 出生하니, 이는 陰大陽小함이며, 男體와 女體는 互大互小하여 서로 平等한 까닭에 易理에는 男女平等을 原則으로 한 一夫一婦制를 말한 것이다.

■ 生命體의 組織

天地는 一太極의 運動體로서 그 속에 陰陽의 兩作用이 있어 一體兩用의 象

이되고, 陰陽은 互根 互易 互先 互後 互大 互小의 여러 가지 作用으로써 不斷히 運動을 일으켜서 萬物을 生生하니, 陰陽의 서로 作用하는 힘이 곧 生命이오, 그러므로 陰陽은 生命元이 되어 陰陽運動의 行하는 곳에 반드시 生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生命의 없는 곳에는 運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오, 生命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스스로 運動을 일으키는 때에 陰陽의 두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太極이라 함은 天地를 一統한 하나의 生命體이므로 太極의 運動에서 陰陽作用이 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運動과 生命은 어느 것이 先하고 어느 것이 後한다는 先後의 別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宇宙의 組織으로써 보면 陰陽組織이 있는 까닭에 生命이 流行하는 것이므로 陰陽이 先하고 生命이 後하며, 宇宙의 運行으로써 보면 生命이 있는 까닭에 陰陽의 運動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生命이 先하고 陰陽이 後하는 것이며, 易經은 先天運行의 理를 말한 까닭에 太極이 陰陽兩儀를 生한다 하여 太極이 陰陽보다 先한다 한 것이오, 이 글은 先天과 后天을 合한 原天組織을 말한 까닭에 陰陽을 生命의 元이라하여, 陰陽이 生命보다 先하다 한 것이다.

陰陽은 萬物의 生命元이 되고 陰陽의 交互作用하는 힘이 生命인데, 陰과 陽은 비록 하나의 生命을 生하고 있으되 本是 對待되는 두 作用이므로 生命의 속에도 스스로 陰元과 陽元의 두 元이 合하여 있으니, 이는 父母가 相交하여 한 아이를 生하되 그 아이에게는 父母의 두 元이 合하여 있음과 같음이다. 陽은 能動하여 萬物을 創始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이 創始作用을 陽元이라 하고 陰은 受動하여 陽元을 承受하여 萬物의 形質을 創生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이 創生作用을 陰元이라 한다. 陰陽은 陰元과 陽元으로써 相交하는 것이므로 陰元이 陽元을 承受하여 物을 作成하는 것이 곧 生命體의 創造이니, 그러므로 모든 生命體는 陰陽二元의 妙合한 運行에 依하여 生生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一體二元의 理이다.

物의 生生에 一體二元의 理가 있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이는 萬物의 生生에 陰陽의 體用對待가 있는 까닭이다. 萬物의 生生에는 반드시 組織의

體와 運行의 用이 있으니 組織의 體라 함은 여러 個體를 合하여 하나의 生命體를 構成하는 것이오 運行의 用이라 함은 組織體를 統一的으로 움직이는 作用이며, 모든 組織體는 運行의 用이 있은 然後에 비로소 그 生生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物이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반드시 運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또 暫時도 運行을 繼續치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또 그 組織이 스스로 運行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도록 構成되어 있으니, 組織의 體는 陰의 象이오 運行의 用은 陽의 象이라, 그러므로 萬物의 生生은 모두 陰陽의 一體二元의 理로 되는 것이다.

陰陽의 交互作用하는 힘이 生命이오 原天의 陰陽이 交互作用하는 때에 宇宙의 生命이 나타나는 것인데, 萬物의 生生에는 一體二元의 理가 있으므로 宇宙의 生命도 單獨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對待作用을 行하는 어떤 物과 合體되어 있는 것이다. 宇宙를 사람의 一身이라고 하면 사람의 一身에 生命體로 되어 있는 形質과 그 形質을 움직이는 精神이 있음과 같이 宇宙에도 또한 生命體와 精神作用이 있는 것이니, 이는 生命이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는 반드시 自體의 生生을 營爲하는 精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繫辭에 「形而上한 者를 道라 이르고 形而下한 者를 器라 이른다」하고 또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함을 道라 이르고 陰하고 陽하고 하여 測치 못함을 神이라 이른다」하니, 有形而下하는 器는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는 生命이오 形而上하는 道는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여 그 變化함을 測할 수 없는 神이며 神은 宇宙의 精神인 唯一神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神과 生命은 形而上과 形而下로써 對待하여 生命은 形質의 生生이 되고 神은 精神의 運行이 되어 陰陽의 있는 곳에 스스로 神과 生命이 있는 것이며, 神과 生命은 天地太一體가되어, 神은 모든 生命體의 主宰가되고 生命은 神의 指令을 承行하여 萬物을 生하는 것이니, 神과 生命은 또한 一體二元의 理이다.

神과 生命은 모두 無形하여 外形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造化의

迹은 萬物에 나타나고 있으니, 光明은 神의 作用이오 萬物의 躍動은 生命의 作用이며, 物의 永遠繼承은 神의 作用이오 物의 生滅은 生命의 作用인 것 等이 그 一例이오 이는 모두 形而上과 形而下의 區別에서 生하는 差異이다.

科學者의 말 = 生命體는 無機物質에서 起源하였다고 한다. 지금에 科學者들은 化學的으로 生命의 起源을 究明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化學的으로 말하는 生命은 生命體의 分子組織을 究明함이오 生命의 究明이 아니니 이는 化學的生命論은 生命體를 오직 物質的으로만 보고 神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모든 生命體는 化學的으로 分析하면 거의 同一한 物質로 이루어지고 모든 生命體가 同一한 化合物로 이루어졌다는 事實은 모든 生命體의 起源이나 또는 化學的으로 본 根本的인 設計가 同一하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第二節 生命의 形化

■ 無形과 有形

物의 生生하는 것은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이 生하여 空間的으로는 無限히 擴大하고 時間的으로는 無窮히 繼承하는 것인데, 陰陽生命元에는 形이 없으니, 形이 없으면 또한 生生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命元은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스스로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하는 運動을 行하는 것이니, 이는 天地間 萬物은 各其 自體의 生生法則을 가지고 自體의 法則을 따라서 生生하고 있는 것이므로 生命元도 또한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自體의 生生法則을 따라서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하는 運動을 行하는 것이다.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함에는 반드시 生命 氣 精 形의 順序를 밟는 것이니, 이것을 사람의 生殖作用으로써 보면 男體와 女體는 生命元의 象이오, 처음에 兩體의 氣가 相感하여 愛戀의 마음이 動하는 것은 氣化의 象이오 다음에 兩體의 水火作用이 行하여 陰精과 陽精이 相合하는 것은 精化의 象이오, 그 다음에 胎兒의 形이 成하는 것은 形化의 象이니, 사람의 生殖作用은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하는 運動이므로 또한 生命 氣 精 形의 順序를 밟는 것이오, 이것이 萬物의 形化作用의 原理와 相合하는 것이다.

天地間의 萬物은 無形과 有形으로 大別되어있고 有形은 모두 無形에서 生한 것이므로, 이 有形한 物은 다시 無形으로 돌아가는 理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萬物에는 生하고 滅하고 하는 現象이 있어, 無形에서 生한 有形物은 반드시 生滅이 있는 것이오, 처음부터 形이 生치 아니한 者는 形이 滅할 것이 없는 까닭에 無形한 生命元은 生滅함이 없이 恒久히 繼續하는 것이다. 萬物의 生命體는 恒久繼承하는 生命元을 包하여 써 本을 삼고, 生滅하는 有形한 바탕을 얻어서 써 形質을 삼고 있으므로 萬物에는 世世로 繼承하여 恒久存存하는 作用과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하여 生生變化하는 作用과의 두 作用이 함께 行하여 이 天地間에는 萬物의 生生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天地間에 無形만 있고 有形이 없으면 비록 陰陽生命元은 流行한다 하더라도 萬物의 生生이 없어서 이 天地는 한 暗黑한 空殼에 不過한 것이오, 또 萬一 有形만 있고 恒久存存하는 無形이 없으면 萬物은 한번 消滅한 뒤에 다시 繼生하는 것이 없어서 또한 暗黑한 空殼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間에는 無形한 生命元과 有形한 形質이 아울러 存在하여 恒久하면서 變化하고 變化하면서 恒久한 것이며, 萬物은 그 形態는 서로 다르되 모두 同一한 生命元에서 出生하여 無形으로부터 有形이 生한 것이므로 그 本源은 모두 同一한 것이다.

■ 生命의 氣精形變化

陰陽生命元이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는 氣精形의 順序를 보건대, 陰陽生命元은 無形한 것이오, 萬物의 生生하는 運動은 모두 無形에서 有形을 生하기 爲한 것이므로 陰陽生命元은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有形運動을 일으키는 때에 雷風의 氣가 生한 것이다. 生命元의 形化運動에서 雷風이 生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生命元은 陽元과 陰元으로 되는데, 陽元에는 奮動하는 作用이 있고 陰元에는 牽入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陽元과 陰元이 形化運動을 行할 때에는 奮動作用을 行하는 氣와 牽入作用을 行하는 氣가 生하는 것이오, 宇宙를 運行하는 氣로서 奮動作用을 行하는 者는 電氣이오 牽入作用을 行하는 者는 磁氣이므로 生命元의 形化運動은 電氣와 磁氣를 生하는 것이며, 電氣와 磁氣는 처음으로 氣化하고 아직 形化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生命도 아니오 物質도 아니오, 生命과 物質의 中間性을 띠고 있는 氣이다. 電氣와 磁氣는 生命元에서 第一 먼저 出生하여 陰陽對待關係를 가지는 것이므로 陽元과 陰元의 두 性을 具有하여 電氣에는 陰電陽電이 있고 磁氣에는 陽極陰極이 있는 것이며, 電氣와 磁氣는 天地間에 가득 차서 萬物의 運行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으므로 電氣의 動하는 때에 雷의 鼓動作用이 生하고 磁氣의 行하는 때에 風의 施行作用이 生하는 것이니, 이가 生命元이 雷風의 氣로 더불어 一體가되어 天地間을 流行하고있는 氣化生命體의 생긴 始初이다. 生命元의 運動에 依하여 電氣와 磁氣가 먼저 生한 것이므로 電氣의 있는 곳에 반드시 磁氣가 있어 磁氣中에 電氣를 含하고 電流가 通하면 그 周圍에 磁場을 生하는 것이며 太陽系宇宙의 中心이 되고 있는 太陽에도 또한 電氣와 磁氣가 있어 이 電氣와 磁氣가 太陽을 運行하고 모든 引力의 中心이 되고 있는 것이니, 太陽光明의 光波와 電波의 運動法則이 同一한 것은 太陽의 光明이 電氣로 되어 있는 까닭이오, 地上의 온갖 風의 變化는 太陽에서 오는 磁場風의 作用에 依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雷風의 氣가 또한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有形運動을 일으키는 때에 氣와 形의 中間性을 띤 精이 生하니, 精이라 함은 聚하면 有形이

되고 散하면 無形이 되는 것이며, 宇宙間에서 有形도 되고 無形도 되면서 그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萬物을 生生하는 精은 水火이니, 그러므로 雷風의 形化運動에 依하여 먼저 生한 것은 水火의 精이다. 雷風의 形化運動에서 水火의 精이 生하는 것은 雷의 衝擊에 依하여 電火가 일어나고 風의 零下二百餘度의 冷凝에 依하여 水液이 生하는 것이 그의 한 形態이며, 雷風의 氣는 無形하여 아무런 막힘이 없는 것이므로 雷風에서 生한 水는 透明하고 火는 光明한 것이다.

水火는 陰陽對待關係를 가지고 天地間을 流行하면서 氣가 聚하면 凝結하여 有形한 精이 되고 分하면 發散하여 無形한 氣로 化하여 恒常 流動狀態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水火는 無形과 有形의 中間狀態로 되고 萬物이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하는 過程과 또 有形으로부터 無形으로 變하는 過程에는 반드시 水火의 聚散作用이 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水火의 精이 또한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有形運動을 일으키는 때에 精이 凝固하여 비로소 形質이 되는 것이오 精의 凝固한 形은 山澤이다. 水火의 精이 山澤의 形으로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水는 流下하는 것이오 火는 炎上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水火에는 聚散作用만 있는 것이 아니오 또한 上下로 오르내리는 升降作用도 있는 것이다. 水는 流下하는 것이로되 水가 流下치 아니하고 蓄貯하여 위로 升하여 넘쳐흐르면 水의 形體가 成하여 澤이 되는 것이니, 人體의 血液 植物體의 津液같은 것이 모두 澤의 象으로서 水의 形化한 것이며, 火는 炎上하는 것이로되 火가 炎上치 아니하고 收斂하여 아래로 降하여 地中에 갈무리하면 火가 土로 더불어 形體를 成하여 山이 되는 것이니 山이 地上에 솟아 있는 것은 火의 升降作用을 因하여 山의 土石이 생기고 火가 그 속에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며, 人體의 骨肉 植物體의 木質같은 것은 모두 山의 象으로서 山의 形化한 것이다. 山澤은 形으로서 體가 凝固하고 있으되 서로 陰陽對待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凝固한 體의 속에서 그 氣가 相通하는 것이오 山澤의 속을 通하는 氣는 雷風이니, 이는 雷風의 氣는 山澤의 形에 依附한 然後에 萬物

을 生生하는 原動力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山澤의 形은 內部에 雷風의 氣를 갈무리한 然後에 萬物의 奮動과 牽入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 八卦는 生命의 運動

生命元의 形化하는 氣精形의 順序는 바로 易學의 乾 坤 雷 風 水 火 山 澤의 八卦象의 順序로 되니, 이는 易學의 八卦가 天地萬物의 生生하는 原理를 밝히는 가장 根本되는 圖像인 까닭이다. 八卦는 本是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인데, 여기에 天地를 말하지 아니하고 乾坤을 말하는 것은, 天地라 함은 萬物을 生生하는 位를 말함이오 乾坤이라 함은 萬物을 生生하는 主體를 말하는 것으로서, 生命元인 陽元과 陰元도 乾元과 坤元으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萬物의 生生主體의 象을 取하기 爲하여 乾坤을 말한 것이다. 生命에는 時間的으로 無窮히 繼續하는 繼承性이 있고 空間的으로 無限히 擴大하는 流行性이 있는 것인데, 易理에 雷에는 世世로 繼承하는 作用이 있고 風에는 四方으로 流行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生命의 形化運動에는 스스로 世世繼承作用을 行하는 雷와 四方流行作用을 行하는 風이 生하는 것이며, 生命雷風의 合體한 것이 곧 氣化生命體이다. 萬物은 聚하면 形이 生하고 散하면 形이 滅하는 것인데, 氣化生命體가 形化하고저 하면 먼저 聚하여야 하는 것이오 天地間에서 聚散作用을 行하고 있는 것은 水火의 精이므로 雷風의 形化運動에는 스스로 水火의 精이 生하는 것이오 氣化生命體에 水火의 精을 合한 것이 곧 精氣의 合體한 精化生命體이다.

水는 流下하는 것이오 火는 炎上하는 것이라, 水火의 精의 形化運動에는 반드시 그 對待勢力을 遇하여 氣가 靜하고 精이 凝한 然後에 形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流下하는 水는 上升하여 澤이 되고 炎上하는 火는 下降하여 土中에 갈무리하여 山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水火의 形化運動에는 스스로 山澤의 形이 生하는 것이오, 山澤의 形이라 함은 모든 生物의 形質을 構成한 要所이다.

山澤은 이미 有形한 形質로 되고 있으므로 그 속에 無形한 雷風의 氣를 갈무리한 然後에 能히 運動을 行하는 것이니 이는 八卦의 象에 山澤과 雷風이 서로 反易하여 雷風은 山澤에 依附하고 山澤은 雷風에 依하여 서로 通氣하는 理이다.

註 ●易學의 八卦原理

萬物의 生生은 반드시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고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함에는 陰陽生命元 雷風의氣 水火의精 山澤의形의 順序를 밟고 있는 것이오, 이 形化運動은 반드시 어떠한 生生原理의 속에서 어떠한 象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가 옛적의 伏羲氏라는 聖人이 天文 地理 鳥獸의文 草木의地宜等 形象과 人身 萬物의 生生하는 理를 보고 비로소 八卦를 劃하여 그 生生하는 原理를 밝히니, 그러므로 八卦는 天地萬物의 生生하는 原理를 圖像으로써 表示한 學問이다.

八卦의 劃象은 生命元인 陰陽에서 始하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반드시 男女 雌雄等의 陰陽兩性이 있고 萬物의 組織에도 반드시 剛柔 長短 曲直等의 陰陽兩性이 있고 萬物의 運行에도 반드시 消長 聚散 往來等의 陰陽兩性이 있는 까닭이다. 物의 陰陽性을 表示함에 陽을 ㅡ로 劃하고 陰을 --로 劃하니 이는 陽의 象은 奇하고 陰의 象은 耦하여 奇의 象은 專一하고 耦의 象은 兩分하고 한 까닭이며, 모든 生物이 陽體의 生殖器는 奇하고 陰體의 生殖器는 耦하며 陽性인 馬의 蹄는 奇하고 陰性인 牛의 蹄는 耦하고 한 것이 그 一例이다.

奇와 耦는 物의 陰陽組織이오, 陰陽의 組織體가 相交하여 새로 一物을 生하는 것은 物의 陰陽運行인데 物의 陰陽運行은 반드시 三數로써 하니, 父와 母가 子를 生하는 것도 父母子의 三數의 運行이오 相反되는 두 運動의 속에서는 새로운 한 運動이 生하여 三數의 運動이 되는 것이오, 陰陽이 相交할 때에는 처음에 陰陽의 氣가 相感하고 다음에 陰陽의 精이 相聚하고 그 다음에 次世代의 形이 成하는 것도 氣精形의 三數運行이니, 그러므로 三數는 萬物의 始生하는 數로 되고, 物의 始生한 者는 씨이므로 三數는 또한 씨의 數로 되는 것이다.

易卦는 物의 生生을 象하여 劃한 것이므로 生命元의 象인 陰劃과 陽劃을 서로 交錯하여 陰陽相交의 形態를 짓고 物의 始生하는 數인 三劃으로써 卦象을 作成하니, 卦는 모두 乾☰ 坤☷ 震☳ 巽☴ 坎☵ 離☲ 艮☶ 兌☱의 八卦로 된 것이다.

三劃과 八卦는 三數와 八數이오 天地自然數에 一二三四五는 生數이오 六七八九十은

成數인데, 三은 生數의 中數이오 八은 成數의 中數이니, 그러므로 萬物은 三數에서 發顯하여 八數에서 體가 定하는 것이오, 易卦의 三劃과 八卦는 또한 物이 三에서 生하여 八에서 體가 成한다는 原理를 象한 것이다. 이 三八의 數를 生成의 理로써 보면 三은 精化의 씨의 象이오, 八은 精化의 씨가 열매를 맺아서 體가 定하는 象인데, 天地는 한 개의 씨의 生成하는 象으로서 天地自然數의 生成中心이 되는 三八의 數에 當하므로 易卦의 三劃八卦는 또한 한 個의 씨의 象으로 되어 그 속에 天地의 道를 彌綸하고 있는 것이다. 天地自然數는 一에서 八까지가 總三十六이오 易 八卦의 奇劃 一 耦劃 二의 合計가 또한 三十六이니, 그러므로 八卦라는 八數는 易理의 體가 定하는 數이오 지금 原子學에 八이 安定數로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이 理에 基한 것이다.

●八卦의 象은 다음과 같다

☰乾은 純陽이므로 天의 運行하는 象이 되고 純陽은 光明의 象이므로 太陽의 象이 되어 乾字를 쓰니, 乾은 倝과 乙로 되어 倝은 太陽이 비로소 나와서 光明하다는 뜻이오 乙은 物의 發展하는 形容이다. 그러므로 乾은 太陽의 光明이 비친다는 뜻이오 사람에 있어서는 男體의 象이 되며, 天地間의 모든 運動은 乾陽의 能動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므로 乾은 生命元이 되는 것이다.

☷坤은 純陰이므로 地와 달의 陰質의 聚凝한 象이 되고 純陰은 物의 形質을 生하는 象이 되므로 坤字를 쓰니, 坤은 土와 申으로 되어 土氣가 伸하여 萬物의 形質을 生한다는 뜻이다. 坤陰은 반드시 乾陽을 承受하여 物을 生하는 것이므로 受動作用으로써 乾陽을 받아서 內部에 陽氣를 含하고 外面에 光明을 生하여, 그 作用은 乾과 함께 生命元이 되고 그 形質은 地와 달이 된 것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女體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六子

乾은 男體의 象이오 坤은 女體의 象이므로 乾坤을 父母로 하여 六卦가 生하고 이 六卦를 六子라 한다. 坤이 乾을 交하여 一陽을 得한 震☳ 坎☵ 艮☶의 三卦는 二陰一陽이 되고 이것을 陽卦라하며, 乾이 坤을 交하여 一陰을 得한 巽☴ 離☲ 兌☱의 三卦는 二陽一陰이 되고 이것을 陰卦라 하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旣成한 속에 次世代로 될 新生命이 生하면 그 新生命이 物의 主가 되는 것이므로 坤이 乾을 交하여 一陽을 得한 것은 그 一陽이 主가되어 陽卦가 된 것이오, 乾이 坤을 交하여 一陰을 得한 것은 그 一陰이 主가되어 陰卦가 된 것이다. 萬物이 地上에서 生生함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生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乾坤의 相交에 依하여 所得한 六子는, 이것을 長中少로써 나누면 下劃이 主가 된 것은 長이 되고 中劃이 主가 된 것은 中

이 되고 上劃이 主가 된 것은 少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震은 長男이오 坎은 中男이오 艮은 少男이며, 巽은 長女이오 離는 中女이오 兌는 少女이다. 또 萬物의 生生함에는 氣精形의 順序를 따라서 처음에 氣가 生하고 다음에 精이 生하고 내종에 形이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長男長女인 震巽은 氣가되고 中男中女인 坎離는 精이 되고 少男少女인 艮兌는 形이 되는 것이다.

☳震은 처음에 生한 氣이오 一陽이 重陰中에 있어 奮出하려하여 鼓動作用을 行하는 象이 되니, 陽氣가 重陰中에서 鼓動作用을 行하는 것은 電氣의 陰陽相激하는 雷의 作用에 依한 것이므로 震은 雷의 象이 되는 것이다. 萬物의 陽體의 씨인 陽子는 반드시 陽體에 있어 生命이 鼓動하고 恒久히 繼承하는 것인데, 三男中에서 오직 震雷가 氣로 되어 恒久性이 있고 또 鼓動作用으로써 能動作用을 行하여 運動이 繼續하고 있으므로 震卦에 生命의 繼承作用이 있어 陽子의 元인 乾元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學에는 오직 震卦에는 長子 또는 子를 말한 것이오 子라 함은 乾坤을 繼世하는 震子라는 뜻이다. 震卦에는 雷動과 繼世의 象이 있고 震字가 또한 雷霆 과 姙娠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卦名을 震이라 한 것이오 사람에 있어서는 男體의 精子의 象이 되는 것이다.

☴巽은 처음에 生한 氣이오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여 서로 牽引하는 磁氣의 象이며 磁氣의 힘에 依하여 風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巽은 風의 象이 되는 것이다. 巽의 磁氣는 비록 氣이로되 陰性의 氣이므로 陽子의 象이 없고, 震子의 依附하는 바의 體로 되어 震의 陽氣와함께 恒久한 것이다. 巽字는 本是 巟으로서 己와 丌로 되고 己는 物을 具하는 形象이므로 巽은 丌上에 庶物을 具하여 薦한다는 뜻이니, 이는 地가 天의 陽氣를 順承하여 萬物을 生함을 象함이오 사람에 있어서는 女體의 股의 象이 되어 陰陽相薄의 象이 있는 것이다.

☵坎은 氣의 다음에 生한 精이니 精이라 함은 氣와 形의 中間에 있어 그 性이 流動하여, 散하면 氣로 되고 聚하면 形으로 되는 것이라, 坎은 坤陰中에 乾陽을 含하여 外暗內明한 精이오 水가 또한 流動하는 精으로서 內가 透明함으로 坎은 水의 象이 되는 것이며, 坎은 또한 달의 組織의 象이 되니, 이는 달은 坤陰의 속에 乾陽을 含하고 乾陽의 氣에 依하여 運行함이 水와 같은 까닭이다. 坎字는 土와 欠으로되어 陷穴이라는 뜻인데, 水는 地와 서로 떠나지 못하고 반드시 地의 卑陷한 곳에 고이는 것이므로 坎이라 한 것이오 사람에 있어서는 男體의 陽精水의 象이 되는 것이다.

☲離는 氣의 다음에 生한 精이오 乾陽이 坤陰에 依附하여 內暗外明한 精인데 乾의 純陽은 光明의 象이 되고, 純陽의 속에 一陰을 得하면 陽氣가 激化하여 火를 生하는 것이므로 離는 火의 象이 되는 것이며, 離는 또한 太陽의 組織의 象이 되니 이는 太陽은 乾陽이 坤陰에 依附하여 光을 發함이 火와 같은 까닭이다. 離字에는 兩麗라는 뜻과 鳥라는 뜻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離는 火를 發하는 陰宮으로서 陰體의 子宮의 象이 되므로 陽精의 附麗하는 兩麗의 象이 되고 또 陽體의 陽精水가 陰體의 子宮

으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兩體의 사이에 있는 空間의 絶處를 飛越하여야하고 空間의 絶處를 飛越함에는 반드시 火의 發揚作用과 水의 流通作用이 倂行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는 水火가 通明하여 絶處에 逢生하는 理이다. 陽體의 陽精이 陰體의 子宮으로 넘어감에는 水火의 作用으로써 空間의 絶處를 飛越하는 것이므로 坎의 陽精水에는 習飛의 象이 있어 坎을 習坎이라 하는 것이오, 離의 子宮에는 飛越하는 精을 承受하는 鳥의 象이 있어 鳥名의 離字를 쓴 것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女體의 子宮의 象이 되는 것이다.

☶艮은 내종에 生한 形이니 地氣가 上升하여 天을 接하고 아래의 二陰에 附하여 止하므로 山의 象이 된 것이다. 艮은 震子가 反顚하여 陽氣가 위에 뭉치고 氣가 形을 이룬 것이므로 씨가 生長하여 열매를 맺는 象이 되는데, 三男中에 가장 幼少하여 아직 成實치 못한 果實이 되고 後日의 長成하기를 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果字의 半字를 써서 艮이라 한 것이다. 山은 위의 陽氣가 아래의 陰質에 附하여 萬物을 終하고 萬物을 始하는 곳이므로 艮은 사람에 있어서는 物의 終始作用을 行하는 男體陽根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兌는 내종에 生한 形이니 內部에 陽氣를 含하여 發宣하는 作用을 갈무리하고 外部에 陰精이 엉기어 形을 이루고 있는 것은 水가 갑아서(고여서) 上溢하는 것이므로 澤의 象이 된 것이다. 萬物의 陰體의 씨인 陰子는 形質의 作成作用을 行하는데 天地間에 처음으로 形이 나타난 것이 水이오 水의 成形한 것이 澤이며 六子中에 最後에 成形한 것이 또한 兌澤이니, 그러므로 兌澤에는 形質을 作成하는 作用이 있어 陰子의 元인 坤元이 된 것이다.

兌는 一陰이 二陽을 包하고 陰陽이 嘉會하여 모든 生物의 血液 津液等이 되므로 說(悅)의 象이 되는데, 三女中에 가장 幼少하여 口의 象이 있으되 아직 言을 發宣치 못하고 後日의 長成하기를 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說字의 言을 덜어서 半字인 兌를 쓴 것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女體의 卵子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八卦中에서 乾坤은 陽物과 陰物로서 陰陽不測하는 神의 作用을 行하며, 陰陽의 交互作用하는 力이 곧 生命이오 乾坤은 바로 生命元이니, 그러므로 神과 生命은 一體二元의 理가 되는 것이며, 神은 無形하여 永遠不窮하고 生命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는데 生命의 속에는 반드시 神이 갈무리되어 있으므로 八卦의 속에는 無形한 神作用과 有形한 萬物의 本能作用이 있어 그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이가 易學에 伏羲氏가 비로소 八卦를 劃하여 써 神明의 德을 通하고 萬物의 情을 類한다고 한 것이며, 그러므로 易卦象에는 모두 神作用과 萬物本能의 作用의 象이 있는 것이다.

■ 太陽과 달의 生成

生命이 氣化 精化하여 처음으로 有形物을 生한 것은 太陽이다. 이것을 易理로써 보건대 乾坤生命元이 運行하여 雷風의 氣를 生하고 雷風의 氣가 運行하여 水火의 精을 生하고, 그것이 乾坤의 統天作用과 水火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乾坤 雷風 水火가 合하여 生命 氣 精의 有形體가 結成되니, 이가 곧 太陽이다. 生命의 運動에는 陰陽이 互根하여 先後의 別이 없는 것이나 그 처음에 發生할 때에는 스스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先하여 陽이 되고 受動이 後하여 陰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間에서 有形한 組織體의 始生한 것은 能動作用을 行하는 陽物인 太陽이다. 그러므로 太陽系宇宙에서는 太陽이 가장 먼저 出生한 것이다.

太陽이 이미 生하여 能動作用을 行하면 반드시 受動作用을 行하는 陰物의 組織體가 生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오, 또 萬物은 獨陰獨陽으로서는 運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太陽은 陰體를 얻은 然後에 運動이 行하고 生命이 繼繼生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의 始生하는 때에 陰體가 太陽에서 分離하여 한 陰性의 組織體를 이루는 것이오, 이가 곧 地球이다. 太陽은 陽體이오 地球는 陰體인데 地球가 어떻게 하여 太陽에서 生하는가 하면, 이는 原始生物이 自體의 分裂에 依하여 繁殖하고 또한 男體의 속의 精子에서 女體가 出生하는 理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男女는 모두 陽體의 精子에서 生하는 것인즉 이는 女體가 男體에서 生하는 것이오 사람은 日月에서 生한 것이므로 사람의 女體가 男體에서 生하는 것은 地球가 太陽에서 出生하는 原理에서 發源한 것이오, 그러므로 地球는 太陽속에서 生한 것이다.

太陽에서 地球가 生하면 地球는 陰體이오 陰體는 그 組織이 偶하므로 地球의 內部에서 偶하려는 作用이 일어나서 스스로 水土의 一部가 分離하여 半空中에 逆上하는 것이오, 八卦中에서 土의 上升한 것이 山이오 水의 上升한 것이 澤이니, 그러므로 半空中에 逆上하여 組織體를 이룬 것은 山澤의

象인 달이다. 地球와 달과의 關係를 易理로써 보면 地球는 女體의 象이오 달은 女體의 胎宮의 象이며, 달이 生한 以後에 비로소 太陽과 달의 陰陽의 義가 맺아져 萬物의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太陽이 水火의 精을 얻어서 비로소 有形物이 된 것이므로 太陽과 地球 달의 사이에서 出生한 萬物은 모두 水火로써 體를 삼는 것이오, 地球와 달도 또한 水火로써 體를 삼아서 有形化한 것이다. 그러나 同一히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으되, 陽物과 陰物의 組織形態는 서로 同一치 아니하니, 陽物은 陰을 體로하고 陽을 用으로 하는 까닭에 太陽은 內部에 水가 있고 外部에 火가 發揚하는 것이며, 地球와 달은 內部에 火를 갈무리하고 外部에 水가 流行하는 것이다. 太陽은 內水外火하고 地球와 달은 內火外水하므로 日月이 相交하는 때에 水火의 聚散作用이 行하여 萬物의 生滅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太陽은 雷風의 氣化體가 精化體로 된 것이므로 太陽에서는 雷風의 氣가 宇宙運行의 原動力이 되어 電氣 磁氣 및 火精이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달은 精化體가 山澤의 形化體로 된 것이므로 달에서는 山澤의 形이 萬物胎育의 胎宮이 되어 山澤 및 水精이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달은 地에서 水土가 逆上한 것으로서 달의 山澤과 地上의 山澤은 그 源이 同一하므로 달과 地上潮汐과의 사이에 密接한 引力作用이 있는 것이며, 달의 山澤은 六子中에 最少하여 長의 時運에는 아직 未成하고 世上에 出生치 아니하여 胎中에서 자라고 있는 胎兒의 象이며, 또 달은 地의 胎宮으로서 山澤으로써 形質을 삼고 있으니, 胎育中의 山澤과 달의 形質인 山澤은 別個의 두 山澤이 아니라 全然 同一한 山澤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長의 時運에는 山澤이 最少하여 여물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도 또한 여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地上의 萬物은 日月의 作用에 依하여 生生하고 있는데 달이 아직 여물지 못하고 있으므로 萬物도 또한 여물지 못하고, 사람도 人類全體가 아직 자라는 過程에 있는 것이다.

乾坤生命元은 乾元과 坤元으로 되어 있고, 乾元과 坤元은 實際로 萬物을 生生하고 있는 日月속에 있으니, 太陽은 男體의 象이오 雷風의 氣가 太陽의 運行을 主하는데, 雷가 乾坤六子中에 가장 먼저 生하여 陽性作用을 行하므로 震子인 雷가 乾元이 되어 萬物을 資始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달은 女體胎宮의 象이오 山澤의 形이 달의 組織을 主하는데, 澤이 乾坤六子中에 가장 내종에 生하여 陰性作用을 行하므로 陰精인 兌澤이 坤元이 되어 萬物을 資生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氣精形의 順序에는 氣가 먼저 生하여 始하고, 形이 내종에 生하여 成하는 것이므로 物을 始하는 乾元은 六子中 먼저 生한 陽氣인 雷를 用하고 物을 作成하는 坤元은 내종에 生한 陰精인 澤을 用하는 것이니, 乾元坤元이 모두 氣精形의 生生하는 陰陽의 自然秩序이다. 乾元과 坤元을 人身으로써 보면 乾元은 男體의 精子의 象이오 坤元은 女體의 卵子의 象이다.

註 ●序卦의 日月生成

序卦로써 日月의 生成하는 象을 보건대 乾卦의 大明은 太陽의 光明을 말함이오 坤卦의 牝馬는 달의 作用을 말함이니 이는 乾坤이 日月의 象으로 되고 있음을 總論한 것이다. 需訟卦에 乾陽과 水와 雷風의 象이 있어 비로소 太陽의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오 需訟卦의 다음인 師比卦는 水土의 象인데 水土가 地球에서 分離하여 天空中에 올라가서 달이 되니, 이가 곧 比卦의 顯比와 小畜卦의 密雲이며 密雲이라 함은 土가 逆上하여 山이 되고 水가 逆上하여 澤이 된 것으로서 空中의 山澤이 곧 달의 組織體이다.

序卦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天地는 一個生命의 有機體로서 모두 自體안에 自體의 生成法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萬物各個의 生長成에는 모두 同一한 起源과 共通한 法則이 있어 어느 한 部分에 變化가 發生하면 全有機體가 반드시 그것을 因緣하여 連鎖的變化가 일어나며, 또 그 變化形態는 各其自體의 生生法則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十四卦의 卦序는 이미 乾男이 있으면 반드시 坤女가 있고 乾坤男女가 있으면

또 반드시 六十二卦의 子女生殖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緣緣生生이오 易學은 이生命體의 緣緣生生의 理로써 六十四卦를 序定하여 時運의 生長成하는 象을 말하고 그것으로써 天地人事 및 萬物의 運行變化하는 象을 밝힌 것이다.

序卦는 易學의 가장 主要한 組織이니, 이것을 人身으로써 보면 人身의 耳目口鼻頭腹手足等은 身體를 構成하는 原材이오 이 原材가 各各 그 位置에 當하여 配列된 까닭에 사람에게 生命이 있고 性情이 生하는 것이다. 易學은 天地의 組織과 準似하여 하나의 生命體로 되어 그 속에 神明의 作用이 行하고 萬物의 性情이 動하는 것이니, 이는 六十四卦라는 原材가 各各次序대로 그 位置에 當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易學을 지은 聖人이 그 次序의 錯亂될 것을 念慮하여 特히 序卦 一篇을 지어서 한 生生體系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序卦의 組織을 人身으로써 보면 人類의創生 男體의組織 女體의組織 胎宮의組織 및 胎兒의生成의 다섯 部分으로 되어 있고, 宇宙로써 보면 日月의創生 日月의光明 日月의相互關係 달의陰精作用 后天月의胎育의 다섯 部分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宇宙萬物의 變化에는 變易 反易 交易의 三易이 있으니,

變易이라 함은 物의 發展過程에 그 作用이 對待物로 變하는 形態이니, 寒이 暑로 變하고 暑가 寒으로 變하면서 陰陽이 互易하여 物을 生生하는 것等이 곧 變易이오 지금에 어느 一物이 異質의 他物로 轉變하는 것을 化學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變易의 한 形態이며, 易卦의 次序中에 變易하는 形態의 卦는 모두 八卦이다.

反易이라 함은 物의 發展過程에 現狀의 속에서 그 對待되는 物이 發用하는 때는 그 對待物은 반드시 本體되는 現狀과 倒逆하여 反生하는 形態이니, 舊事物의 속에서 新事物이 生하는 때에는 그 新事物의 作用은 반드시 舊事物의 形態와 相反하는 것으로서, 母體中에서 胎兒가 母體와 逆生하여 있고 그믐달이 初生달로 倒生하는 것等이 곧 反易이오, 지금에 生物體에서 生生

作用의 變化가 일어나서 새로운 作用을 生하는 것을 生理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反易의 한 形態이며, 易卦의 次序中에 反易하는 形態의 卦는 모두 五十六卦이다.

交易이라 함은 物의 運動過程에 그 位置가 對待物로 換易하는 形態이니, 太陽이 上에 있고 地가 下에 있어 上下의 位置가 定하여 있으되 物을 生生함에는 太陽의 陽氣가 地에 下하여 光熱로 되고 地의 水氣가 上하여 雲雨로 되는 것等이 곧 交易이오 지금에 物의 本質은 變치 아니하고 오직 相與하는 形態만 變하는 것을 物理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交易의 한 形態이며, 易卦의 次序中에는 交易하는 形態의 卦는 없다.

萬物의 生生한 次序를 보건대 最初에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여 天地日月을 生한 것은, 陰陽의 相易하는 化學的變化인 變易의 理에 依하여 비로소 有形이 生한 것이오, 그 다음에는 父母가 子를 生하는 生理的變化인 反易의 理에 依하여 世世로 繼生하는 것이며, 오직 物理的變化인 交易으로서는 物이 繼生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序卦에는 變易과 反易만으로써 次序를 定한 것이다. 序卦六十四卦中에 變易하는 次序는 八卦로서 全卦의 八分의 一이오 反易하는 次序는 五十六卦로서 全卦의 八分의 七이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八分의 一이 化學的變化인 變易의 形態로써 生生을 繼世하는 것이오, 八分의 七이 生理的變化인 反易의 形態로서 生生을 繼世하는 것이다. 宇宙創生의 初에는 無形에서 有形이 始生하는 때이므로 父傳子受하는 反易의 象이 없고 오직 無中生有하는 變易의 象이 있으므로 序卦는 變易하는 象의 乾坤으로써 首卦를 삼은 것이며, 今後에도 天地萬物의 生生에는 八分의 一이 恒常 變易의 形態인 化學的變化로써 生生하고 八分의 七이 恒常 反易의 形態인 生理的變化로써 生生하는 것이다. 이것을 物의 生生의 例로써 보면 生理的變化의 繼世는 胎生의 象이오 化學的變化의 繼世는 化生의 象이니, 植物이나 動物이 父母가 子를 生함과 같은 것은 胎生의 象이오, 先天月이 變하여 后天月이 되는 것 같은 것은 化生의 象이다.

第三節 씨의 發生

■ 씨는 日月에서 生한다

天地間을 流行하고 있는 生命은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空間的으로는 無限히 擴大하고 時間的으로는 無窮히 繼承하고 하는 作用을 行하는데, 이 作用을 行하기 爲하여는 반드시 萬物의 씨를 生하여 空間的으로는 子孫을 蕃殖하여 그 生生하는 境域을 넓혀야 하고 時間的으로는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하여 世世로 이어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天地間에 無限히 擴大하고 無窮히 繼承하고 하는 作用을 가진 有形物로서 地上에 가장 큰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오직 太陽의 光明이니, 太陽의 光明은 地上에 下施하여 空間的으로는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時間的으로는 비치지 아니하는 때가 없으므로 萬物의 씨는 반드시 太陽에서 生한 然後에 無限無窮한 것이다.

太陽의 光明속에 있는 乾元은 萬物을 創始하는 作用이 있는데 乾元은 곧 生命의 繼承作用을 가지고 있는 震子이오 震子는 또한 乾坤의 六子의 長으로서 物의 創始되는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太陽속에 있는 震子가 씨의 創始의 元이 되는 것이다. 萬物이 形을 가지고 있는 者는 그 形體에 모두 一定한 限度가 있어 消費하면 盡하는 것이로되 오직 火는 燒着할 物體만 있으면 空間的으로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가 있고 時間的으로 얼마든지 繼續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火에 無限無窮한 作用이 있는 까닭이오, 火의 無限無窮한 作用은 太陽의 光明中의 震子에서 오는 것이며, 그러므로 太陽속의 震子는 繁殖하고 繼世하고 하는 作用을 行하여 씨의 元이 되는 것이다.

乾坤의 生命元은 震子로써 씨의 創始의 元을 삼는데, 씨는 無限無窮히 擴大繼承하기 爲하여 반드시 陰體인 地上에 下施되는 것이니, 이는 太陽은 陽氣로서 씨를 創生하는 作用이 있고 地는 陰體로서 씨를 承受하여 기르는 作用이 있는 까닭이며, 씨의 元은 震子인 雷이오 씨를 地上에 下施하는 力

은 天氣를 地上에 施行하는 磁氣인 風이니 그러므로 雷와 風은 乾坤生命元의 運行하는 氣로 되는 것이오 太陽이 또한 乾坤生命元과 雷風의 氣를 合하여 氣化의 生命體로 되는 것이며, 乾卦에는 이것을 象하여 天行健이라 하니, 天은 生命元인 乾坤이오 行은 天氣가 空間的으로 施行하는 風이오 健은 生命이 乾父를 닮아서 時間的으로 繼世作用을 行하는 震子이다. 天行健의 세 作用은 그 이름은 서로 다르나 모두 乾坤生命元이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運動을 일으켜서 雷風의 氣를 生하고 乾坤雷風이 統一된 作用으로써 하나의 氣化生命體를 이룬 것이니, 이 氣化生命體는 形이 생기기 以前의 天地混沌體의 象이오 또한 萬物의 생기기 以前의 無形한 氣化의 씨의 象이다. 어떠한 生命體이든지 그 生命體에는 반드시 自體運動의 作用과 空間的으로 長成하는 作用과 時間的으로 永續하는 作用과의 세 가지 作用이 있으니, 이는 三用一體의 形態이라. 天行健은 바로 이 三用一體의 組織을 말함이니, 天은 自體運動의 作用이오 行은 空間的 長成의 作用이오 健은 時間的 永續의 作用이다.

氣化의 씨는 無形한 生命體로서 有形化할 것을 前提로 한 것이오, 無形에서 有形의 生하는 것이 곧 萬物의 生하는 始初인데, 萬物中에서 無形으로부터 有形을 生하여 物의 生成作用을 行하는 것은 水火의 精이다. 水火는 分散하면 氣로 化하여 無形이 되고 氣가 聚하면 精이 되어 形體를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水火의 精은 有形의 始가 되는 것이오, 無形한 氣化의 씨는 水火의 精을 얻어서 體를 삼아 비로소 形을 生하니 이가 곧 精化의 씨이오 繫辭에 「精과 氣가 物이 된다」 함은 生命元이 雷風의 氣와 水火의 精을 合하여 萬物의 形體를 이룬다 함을 말함이다. 氣化의 씨가 精化의 씨로 되는 作用은 日月에서 行하는 것이니, 太陽의 火精속에는 氣化의 씨가 있고 氣化의 씨에는 씨의 創始의 元인 乾元震子가 있으며, 달에는 坤陰의 水精속에 坤元인 兌澤이 있어 乾元震子를 承受하는 作用을 行하고 乾元震子와 달의 坤元兌澤이 合하여 精化의 씨를 作成하는 것이니 坤卦에 「至하다 坤元이여 萬物이 資하여 生한다」 함은 달에서 萬物의 씨가 生함을 말함이다. 天地의 生成順序는 太陽에서 地球가 生하고 地球에서 달이 生하여,

太陽과 달은 그 根源이 同一하므로 乾元과 坤元이 또한 그 根源이 同一하고 다만 그作用이 相異할뿐이니, 作用이 相異한 까닭에 自身에게 無한 것을 相對方에게서 얻기 爲하여 二元이 相求하여 陰陽의 義가 되는 것이오, 本是 根源이 同一한 까닭에 서로 合하여 一體가되어 씨를 作成하는 것이다.

달에서 精化의 씨가 生하면 이에 달 속에 있는 山澤의 形을 얻어서 形化의 씨를 이루는 것이니, 山澤은 六子中에 最後에 生한 形으로서 形質을 作成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萬物의 씨는 모두 달의 山澤으로써 形質을 삼는 것이다.

■ 植物 動物 사람의 發生

萬物의 씨의 發生하는 順序를 易序의 理로써보건대, 萬物의 씨의 元은 震子로서 男體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씨의 發生하는 順序도 또한 三男의 順序로 되어, 먼저 長男 震의 形이 生하고 다음에 中男 坎의 形이 生하고 내종에 少男 艮의 形이 生하는 것이다. 震은 陽이 地中에서 反生하여 雷의 象이 되니 雷는 萬物의 씨의 元이오 또한 植物의 體가 土中에서 反倒하여 根이 地中에 着하고 幹이 地上에 出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植物의 씨가 萬物의 씨의 元으로서 먼저 生한 것이며, 坎은 陽이 陰中에 陷하여 橫平하여 水의 象이 되고 能히 스스로 流行하니, 이것은 動物의 體가 橫平하여 自由로히 運動하는 象이오 그러므로 植物의 다음에 動物의 씨가 生한 것이다. 艮은 火의 炎上作用에 依하여 陽이 地上에 솟아서 山의 象이 되어 天을 接하니 이것은 사람이 直立하여 天地를 縱貫하는 象이오 그러므로 動物의 다음에 사람이 生한 것이다.

植物 動物 사람은 그 形態와 生理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源이 太陽과 달에서 나온 것이므로 本質은 서로 同一하여 植物體의 속에 이미 動物의 發

生할 要素가 있고 動物體의 속에 이미 사람의 發生할 要素가 있는 것이다. 植物 動物 사람의 構成要素의 本質이 同一한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처음에 植物의 씨가 생길 때에 어느 한 種類의 植物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種類가 잇따라 생기고 한 것이 아니라 神의 主宰하고 있는 生命體가 數多한 植物의 種類로 分身되어 有形化하는 것이오 그 數多한 植物의 種類의 作用을 綜合하면 도루 統一된 天地生命體의 作用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物의 始生을 象한 乾元坤元에 「萬物이 資始資生한다」 하여 씨가 始生할 때에 萬物의 씨가 모두 創生되었음을 말한 것이오, 生命體는 神의 主宰에 屬하므로 生命體의 分身이 곧 神의 體의 分身이니, 그러므로 植物의 全種類는 모두 神의 體의 分身으로 되어 專혀 天地의 自然法則을 順從하는 것이다.

植物이 이미 發生한 뒤에는 數多한 種類의 植物要素를 體로하여 數多한 種類의 動物이 發生하니, 動物은 植物보다 한 次元 더 높은 生物이라, 動物은 植物보다 그 構成要素가 增加하고 있으므로 植物에는 運動의 自由가 없고 動物은 運動의 自由가 있으며 動物의 本能生活은 植物보다 自由로이 行하고 植物의 全種類를 體로 한 까닭에 植物을 그 生養資料로 하고 있는 것이며, 動物도 어느 한 種類의 動物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種類의 動物이 잇따라 생긴 것이 아니다.

植物이나 動物은 처음 創生當時에 各種類의 씨가 모두 따로따로 생기고 그 뒤에는 다만 各種類의 族屬이 蕃殖할 뿐이다.

사람은 植物의 全種類의 要素와 動物의 全種類의 要素를 體로 하여 植物과 動物을 그 生養資料로 하고 全地球上에 單一種類로 되어 있는데, 植物과 動物은 數多한 種類로 나뉘어 있으므로 種類와 種類의 사이에는 서로 크게 差別되고 있으되 同一種類는 그 性品이 大體로 同一하며, 사람은 同一種類로 되어 있으므로 世界人類의 生理는 大體로 同一하되 各人의 個性은 서로 크게 差別되고 있으니 生理가 同一한 까닭에 世界人類는 모두 共同生活을 할 수가 있고 個性이 差別한 까닭에 人間社會의 複雜한 生活을 各其 分業

하여 遂行할 수가 있는 것이다.

植物 動物 사람의 發生한 要素가 무엇인가를 보건대 乾元震子와 坤元兌澤이 相交하면서 震子가 水精을 合한 水雷組織은 草木의 씨로 된 것이니 이는 雷(震子)는 씨의 元이오 水는 有形의 始이라, 씨의 元이 有形의 始와 合하는 때에 生物의 最初인 植物의 씨가 生하는 것이며 저 元素의 생길 때에 原子의 陽子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質이 變化하여 여러 가지 種類의 元素가 생기는 것이니, 이 理에 依하여 씨의 생기는 때에도 太陽에서 氣化의 씨가 달에 下施되고 氣化의 씨의 要素의 많고 적음과 달에서 化合하는 物의 要素에 依하여 여러 가지 種類의 씨가 생기는 것이며 水雷組織은 太陽에서 氣化의 씨가 달에 下施되고 氣化의 씨의 要素가 달의 水精의 要素를 合하여 植物의 씨가 생긴 것이오 이는 精化의 씨의 始初이다. 氣化의 씨의 要素의 많고 적음에 依하여 그것이 精化하는 때에 質이 變하여 여러 種類의 草木의 씨가 生한 것이다.

植物의 씨의 各種類가 이미 發生한 뒤에는 植物의 씨의 要素인 震子와 水精에 다시 土質의 要素를 合한 것이 곧 動物의 씨이니, 土는 形質의 成하는 것이므로 動物의 씨는 精化의 씨의 形化한 것이오 이는 水土組織의 禽이다. 禽이라 함은 鳥獸의 總名이니, 植物의 씨의 數多한 種類의 要素에 土質의 要素를 合하는데, 그 要素들의 많고 적음에 依하여 여러 種類의 動物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土에는 火精을 含한 山과 水精을 含한 地와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水精의 土質을 合한 씨는 冷血動物이 되고 火精의 土를 合한 씨는 溫血動物이 되는 것이다.

溫血動物中에서 火精을 가장 많이 含有한 者는 虎이니 그러므로 虎는 눈에 火光을 發하고 神作用이 있는 것이며, 虎의 씨의 要素에 다시 太陽의 火精의 要素를 合한 것이 사람의 씨이다. 虎의 씨의 要素에 太陽의 火精을 合한 것이 사람의 씨이라 함은, 虎가 變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오 또 所謂 進化論과 같이 獸가 變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니 이는 獸가 한번 形體를 이루면 그 外部의 光色같은 것은 變할 수가 있으되 그 基

本體인 臟腑組織이나 雌雄의 씨같은 것은 變할 수가 없는 까닭에 所謂 進化論은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虎의 씨는 震子와 水精에 火氣있는 土質을 合하여 構成되고 사람의 씨는 虎씨의 要素인 震子 水精 火氣의土 等을 合하여 體를 삼고 거기에 太陽의 火精 要素를 더 合하여 構成된 것이라 함이니 虎씨의 要素에 太陽의 火精을 더 合한 것이 곧 虎씨의 質이 變하여 사람의 씨로 되고 사람의 火가 天의 火를 應하여 몸이 直立하고 사람의 體中에서 火氣가 發揚하여 言語를 發宣하고 火氣의 烹湯作用에 依하여 사람의 얼굴과 몸에 털이 生치 아니하는 것이다. 天地間에 먼저 植物이 생기고 植物을 體로 하여 動物이 생기고 植物과 動物을 體로 하여 사람이 생기고 함은 바로 神의 創造事業에 屬하는 일로서 神의 計劃한 바의 自然法則이다.

註 ●序卦의 生物 發生順序

震子가 水精을 合한 水雷組織은 屯卦의 象이니 屯卦는 草木의 씨의 始生하는 象이오, 震子와 水精에 다시 土質을 合한 水土組織은 師卦 比卦의 象이니 師卦 比卦는 禽의 始生하는 象이다. 山澤의 氣가 密雲으로 되어 天空中에서 成形하고 그것이 乾陽의 光明을 受한 것은 履卦의 象이므로 履卦에 달의 象과 虎의 象이 있고, 虎씨의 組織에 太陽의 火를 合하면 사람의 씨로 되는 것이므로 履卦에 사람이 虎尾를 履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同人卦는 달의 陰精이 乾陽과 太陽의 火를 承受하여 사람의 씨를 作成하는 象이 있으므로 人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同人卦에 先號咷而後笑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虎의 씨를 體로 하여 사람의 씨가 생겼다는 뜻이 있는 것이니, 號咷는 虎의 大號함이오, 笑는 모든 生物中에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獨特한 行動이다. 이는 먼저에 虎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다는 뜻으로서 虎는 動物中에서 가장 사람의 體의 組織과 近似한 動物이며, 그러므로 虎字가 虍와 人으로되고, 사람에게 神과 相通한 善行이 있는 때에 虎가 와서 保護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體의 組織은 虎의 體와 近似하므로 革卦에는 大人虎變 君子豹變이라 하니, 이는 大人은 虎의 눈과 같이 火光을 發하고 君子는 豹의 文彩와 같이 光彩를 發한다 함이다.

모든 生物의 體를 水火의 象으로써 보건대 動物의 體는 坎水의 橫平한 象이오 사람의 體는 艮山의 高와 火의 炎上하는 直立한 象이라 有形한 無生物中에서 스스로 動作하는 것은 水火이오 萬物의 體는 水火의 氣에 依하여

運動하는 것인데, 植物體의 組織은 水火의 氣가 모두 不足하므로 스스로 動作하는 氣가 없고 氣의 動作에 依한 精神作用도 거의 없으며, 그 씨의 組織體에 水氣는 勝하고 火氣가 不足한 者는 體가 水의 象과 같이 橫平하여 스스로 動作하는 氣가 있고 氣의 動作에 依한 精神作用이 있으니, 이것이 動物의 씨로 되는 것이며, 씨의 組織體에 水火의 氣가 調和한 者는 火의 炎上作用에 依하여 體가 直立하여 縱橫自在한 動作을 行할 수가 있고 水火通明한 精神作用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의 씨로 되는 것이다. 動物의 씨가 사람의 씨보다 먼저 生하는 것은, 太初에 無形에서 有形이 生할 때에 水가 먼저 現形하여 自然數의 一이 되고 다음에 火가 現形하여 自然數의 二가 되고 한 理에 依한 것이다.

植物은 反倒하고 動物은 橫平하고 사람은 直立하니, 이는 物이 처음에 天에서 下來하여 反倒한 體가 되고 그것이 地의 平面에 와서 橫平한 體가 되고 그것이 다시 天을 向하고 上升하여 直立한 體가 되고 하는 象이오, 이것이 萬物이 天에서 生하고 地에 내려와서 長하고 成한 然後에 다시 天으로 圜行한다는 理이다. 그러므로 植物 動物 사람은 生長成의 象이 되고 있으니, 植物은 意志現象이 없고 純全히 自然法則에 依하여 살고 있으므로 이는 物이 始生하여 幼穉한 生의 時運의 象이오, 動物은 意志도 있고 自由로이 行動도 하여 本能生活로써 서로 生長競爭을 行하고 있으니 이는 物이 勢力으로 相勝하는 長의 時運의 象이오, 사람은 兩足이 地를 履하고 頭가 天을 向하여 天地를 縱貫하여 直立하고 本能生活 以外에 또한 理性으로써 人類共同體生活을 營爲하니, 이는 天性이 여물어서 天으로 圜行하는 成의 時運의 象이다.

■ 男女의 分化

사람의 男女分化의 理를 보건대 사람의 씨는 乾元인 震子와 坤元인 兌澤으로써 構成된 것이므로 男體와 女體가 모두 震子와 兌澤으로써 組織된 것이

오 男體의 精子와 女體의 卵子도 獨陰獨陽이 아니라 元素가 모두 震子와 兌澤의 乾元坤元의 合體한 것이니, 男女의 組織原體는 조금도 相異함이 없는 것이다. 다만 男女의 相異한 바는 男體는 坤이 乾陽을 얻은 陽卦의 象으로서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니, 陽이 用이 된 까닭에 震子가 用이 되어, 男體는 陽性인 精子를 保有하는 것이오 女體는 乾이 坤陰을 얻은 陰卦의 象으로서 陽이 體가되고 陰이 用이 되니, 陰이 用이 된 까닭에 兌澤이 用이 되어 女體는 陰性인 卵子를 保有하는 것이다. 男女는 同一한 天行健의 씨이면서 男女의 分化가 生하는 것은 乾坤生命元의 交互作用과 八卦의 互相對待와 및 雷霆 風雨 日月 寒暑의 作用에 依하여 乾道는 男體가되고 坤道는 女體가 된 것이니, 繫辭에「剛柔가 相摩하고 八卦가 相盪하여 鼓하기를 雷霆으로써하고 潤하기를 風雨로써하고 日月이 運行하고 한번 寒하고 한번 暑하여 乾의 道는 男을 成하고 坤의 道는 女를 成한다」함은, 이 男女分化의 理를 말한 것이며, 乾道坤道의 道는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함을 말함이오, 陰陽이 均等하여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對待作用의 道가 서로 調節되어 있으므로 地上의 男女數도 大體로 自然調節이 되어 있는 것이다.

男體의 精子는 震子가 用이 되고 震子는 太陽에서 와서 달의 光明中에서 生成한 것이므로 精子는 太陽의 光明과 같이 恒常한 것이오 女體의 卵子는 兌澤이 用이 되고 兌澤은 달의 陰精中에서 太陽光明을 받아서 生成한 것이므로 卵子는 달의 陰精과 같이 盈虛가 있는 것이니, 卵子가 달로 더불어 盈虛하는 것은 이 까닭이며, 사람은 그 씨가 日月에서 내려온 까닭에 男女體中의 精子卵子는 不斷히 日月變化의 作用을 받고 있는 것이다. 人體는 精子와 卵子가 合體하여 構成되는 것이므로 乾元과 坤元의 二元運行으로 되어 氣와 精 精神과 肉體等의 分別이 있으며, 光明의 象인 震子는 氣로서 永遠히 存續하고 陰精의 象인 兌澤은 形質로서 生滅이 있으니, 그러므로 光明과 陰精의 合體에 依하여 組織된 人體는 一體二元의 象이 되어, 光明한 氣로써 構成된 天性은 永遠히 存續하는 것이오 陰精인 形質로써 構成된 肉體는 死生이 있는 것이다.

萬物의 씨가 처음에 發生할 때에는 各其 種類대로 모두 創生된 것이오, 한번 創生된 後에는 地上에서 世世繼承과 種族蕃殖의 作用을 行할 뿐이오 다시는 創生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씨가 生의 時運에만 創生되고 長의 時運에는 다만 자라기만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易學에는 生의 時運에만 사람의 씨를 始生하는 象이 있고 그 뒤에는 地上에서 男女가 分化하여 子孫을 生하는 象만 있는 것이다.

■ 生長成의 時運

時運이라 함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天地間 萬物은 모두 自體의 生生法則을 가지고 있어, 그 個體가 時間的으로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 하는 生長成의 運動을 行하므로, 이 萬物을 統一하고 있는 天地에도 또한 生長成의 象이 있어, 時間的으로 生의時運 長의時運 成의時運等 時運의 別이 있는 것이오 萬物은 各 個體가 그 一生 동안에 生長成하면서 또한 萬物 全體가 그 時運을 따라서 함께 生長成의 運動을 行하는 것이다. 個體의 生長成과 時運의 生長成의 象을 사람의 生生의 例로써 보건대, 男女體의 精子 卵子의 組織은 生의 象이오, 男體의 精子가 女體의 卵子와 相交하여 胎兒가 生育하는 것은 長의 象이오 胎兒가 完成되어 母體에서 出産하는 것은 成의 象이니, 이것은 個人의 生長成이다. 生長成이라 함은 生에서 長으로 넘어가고 長에서 成으로 넘어갈 때에 모두 劃期的 變化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出生以後에 幼少 青壯 老衰같은 順序는 生長成의 象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人類全體가 原始時代에는 人類의 創生되는 原始人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生의 時運의 사람의 象이오 生의 時運의 末에 地上에 水의 衝激하는 變化가 生하여 神明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原始人의 大部分은 水中에 瀆하고 神明한 사람의 씨만 이地上에 着生하여 자라고 그것이 現在의 人類가 되니, 이것은 長의 時運의 사람의 象이오, 現在의 人類는 비록 原始人에 比하여 發達하고 있으나 아직 天性이 여물지 못하여 人間本然의 姿

態에 비춰보면 한 未成品이 되고 있으며, 다시 이 地上에 雷火의 變化가 일어나서 善한 사람을 여물게 하는 것이므로, 善한 사람은 天性이 여물어서 神과 相和하고 天性이 여물지 못한 사람은 火의 火熱로 因하여 쭉정이가 되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이니, 이는 成의 時運의 사람의 象이다. 萬物의 자라는 것은 水로써하고 여무는 것은 火로써 하는 것이므로 長하는 때에는 水의 變化가 있고 成하는 때에는 火의 變化가 있는 것이다.

時運이 變할 때마다 地上의 人事가 變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時運이라 함은 天地가 萬物을 生成하는 行政作用이므로 時運이 變하면 먼저 地運이 變하고 地運이 變하면 萬物의 生成이 變하고 人事가 따라서 變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原始人의 살던 生의 時運의 前地運과 現在人類의 살고 있는 長의 時運의 現地運과 今後의 成의 時運의 未來地運은 비록 同一한 地球이로되 그 作用은 서로 다른 것이다. 物의 生長成의 理로써 보면 生의 時運의 前地運은 열매의 組織體와 같이 地球가 保合作用을 行하고 長의 時運의 現地運은 열매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와 가지가 뻗음과 같이 地球가 發顯作用을 行하고 成의 時運의 未來地運은 열매가 여뭄과 같이 地球가 收斂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人類의 生長成하는 時運의 年數는 어떠한가 하면 地球에는 太陽의 光明을 받아서 萬物을 生成하는 節候의 마디가 있다. 太陽은 周天의 度를 運行하면서 一晝夜에 地球를 한번씩 돌고 있으니, 이것은 地上의 一日이다. 太陽은 一日에 地球를 一周하면서 또한 春分點에서 다시 春分點으로 되돌아오고 그 되돌아오는 日數는 三百六十五日 五時間餘로서 이것은 地上의 一歲이며, 이 一歲동안에는 氣候의 寒暑 晝夜의 長短으로 因하여 四時와 萬物의 온갖 變化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春分點은 해마다 그 位置가 同一한 것이 아니라, 每年에 조금씩 東에서 西로 移動하여 約 一萬二千八百餘年 後에는 지금의 春分點이 秋分點으로되고 約 二萬五千七百餘年 後에는 다시 最初의 春分點으로 돌아와서 每攝 二萬五千七百餘年을 一週期로 하여 循環하는 것이며, 一歲동안에 四時와 같은 變化가 있으므로 이 週期

동안에 萬物의 生成에 적지 아니한 變化가 있는 것이다. 太陽이 一歲에 春分點으로 되돌아오는 期間은 四時의 形態로서 風土가 一寒一暑하면서 萬物個體의 生長成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二萬五千七百餘年에 春分點으로 되돌아오는 期間은 時運의 形態로서 天地가 一闔一闢하면서 萬物統體의 生長成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人類의 生長成하는 時運은 萬物統體의 生長成의 理에 依하여 이 二萬五千七百餘年을 마디로 하여 行하는 것이오 人類가 創生以後에 生의 時運과 長의 時運을 經過한 동안은 最少로 五萬數千年이 걸린 것이다.

人類의 生長成하는 時運의 年數는 여러 萬年이 걸리고 있으므로 同一한 時運中에도 또한 生長成의 時期의 區分이 있으니, 그러므로 原始人의 生의 時運에도 生의 時期 長의 時期 및 成의 時期가 있어, 人類의 創生은 生의 時運中의 生의時期에 當하고 水中의 濱은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는 것이며, 現在人의 長의 時運에도 生의 時期 長의 時期 및 成의 時期가 있어 지금은 長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고 있는 것이다.

註 ●河圖 洛書 및 八卦圖의 時運象徵 (內容 未記述)

第二章　사람의 精神作用

第一節　天性의 組織

■ 生命과 天性

사람은 그 씨가 日月에서 와서 乾坤生命元과 雷風의 氣와 水火의 精으로써 構成되고 그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반드시 生生을 營爲함에 必要한 天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天性은 씨로 더불어 一體二元의 組織이 되고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天性도 또한 씨와 같이 乾坤 雷風 水火로써 構成되는 것이며 다만 씨와 天性의 相異한 바는 씨는 形而下한 것이오 天性은 形而上한 것이다. 天性의 發하는 때에는 心과 情의 作用이 生하는 것인데, 지금에 精神이라는 말은 이 天性心情을 總稱한 것이다. 乾卦에는「性命」「性情」을 말하니, 이는 天性이 乾坤에 本源하고 있다 함이오, 繫辭에「한번 陰하고 한번 陽함을 道라 이르고 繼하는 者가 善이오 成하는 者가 性이라」하니 이는 乾坤生命元의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道에서 善이 繼生하고 善의 여문 것이 곧 性이므로 天性은 乾坤에 本源하여 善의 여문 것이라 함이오(易卦中에 오직 雷風恒卦의 恒字가 心으로써 構成된 것은 天性에서 生한 心이 雷風의 氣로써 運行되고 있음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天性은 사람의 씨와 같이 乾坤과 雷風을 合한「天行健」의 象이 되는 것이며, 天性과 씨는 形而上과 形而下의 相異이므로 天性은 一陰一陽하는 形而上한 道에서 繼生하는 것이오 씨는 形而下한 器의 內部에 形而上한 道를 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 天性의 生成

天性이라 함은 善이 一陰一陽하는 道에서 繼生하여 여문 것이니 善과 性은 어떻게 서로 關聯되어 있는가 하면, 乾卦에는 元을 仁이라 하고 仁에서 發

하는 作用을 善이라 하는데, 萬物의 씨는 元의 象이 되므로 씨의 알맹이는 仁이 되며, 씨의 알맹이를 仁이라 하므로 씨에서 發生하는 새싹은 善이 되는 것이며, 天性과 씨는 그 組織形態가 同一하므로 天性의 알맹이는 또한 仁이 되고 仁에서 發生하는 作用은 善이 되는 것이니, 天性에 仁과 善을 말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仁은 天性의 알맹이이오 善은 天性의 仁에서 生하는 새싹이라,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아서 여무는 때에 다시 알맹이인 仁이 생겨서 天性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곧 善이 繼生하여 여문 것이 天性이라 함이오 만일 새싹이 繼生하더라도 그것이 여물지 못하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어 生生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天性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天性은 반드시 善하여 새싹이 繼生하는 것이므로 天性을 善하다고 하는 것이오 사람이 萬一 肉體를 기르기에만 힘쓰고 不善을 行하면 不善은 쭉정이의 象으로서 알맹이가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天性을 이루지 못하고 本能生活만을 하는 動物性이 되고 마는 것이다.

草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花이오 花에는 色과 香과 蜜이 있는데, 色은 光이오 光은 目에 屬하여 離卦의 象이 되고 香은 臭이오 臭는 鼻에 屬하여 巽卦의 象이 되고 蜜은 味이오 味는 口에 屬하여 兌卦의 象이 되니 花의 아름다운 것은 이 三陰卦의 象을 因함이오 人體의 肉體美가 主로 面上에 있는 것은 面上에 目鼻口의 三陰卦의 花象이 있는 까닭이다. 花는 三陰卦의 形質로써 組織된 까닭에 그 아름다움이 外形에 나타나고 있으나 花의 形質은 오래 持續되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老衰하여 떨어지는 것이며, 花에 열매가 맺힌 然後에 그 열매의 美가 새로 나타나서 그것이 永遠히 繼承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花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花의 形質에 있는 것이 아니라 花의 속에서 열매가 맺혀서 여무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 理에 依하여 사람도 그 形質은 百年人生으로 되어 있으되 그 天性이 여문 것은 生死를 超越하여 永遠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形質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天性이 여물지 못하면 結局 쭉정이의 人間이 되고 마는 것이다. 天性의 組織은 씨와 같으므로 또한 씨와 같이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 하는 生長成의 作用이 있는 것이오, 씨는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

데, 水火의 精은 氣와 形의 中間性으로 되어 有形도 되고 無形도 되고하여 萬物의 體內를 流行하면서 變化無常한 聚散作用을 行하고, 萬物의 體는 精氣가 聚하면 生하고 精氣가 散하면 死하는 것이므로 萬物의 生長成의 變化는 모두 萬物의 體內를 流行하고 있는 水火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며 天性도 씨와 같이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으므로 또한 生長成의 運動이 있어 仁에서 善이 繼生하여 여문 然後에 天性이 되는 것이다. 씨의 生長成하는 過程에는 나무에 水液이 오르고 내리고 枝葉이 生하고 마르고 하는 變化가 있으므로 天性의 生成하는 過程에도 또한 이러한 變化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乾道의 躍進變化하는 理로써 보면, 天性이 자라는 것은 사람의 精神生活의 躍進이오 天性의 여무는 것은 사람의 精神生活의 變化이라, 사람의 一生中에 한번은 精神生活의 躍進이 있은 然後에 天性이 자라는 것이오, 사람의 一生中에 한번은 精神生活의 變化가 있은 然後에 天性이 여무는 것이니, 이는 자라는 때에는 반드시 下段에서 上段으로 뛰어 올라가는 躍進이 있고 여무는 때에는 반드시 外向이 內向으로 되어 光明을 갈무리하는 變化가 있고 한 까닭이다.

■ 觀察 思慮 判斷 記憶等 作用

天性은 無形하여 方所도 없고 形體도 없고 한 까닭에 能히 無限한 空間을 周行하면서 萬事萬物을 接應하고 또 能히 無窮한 時間의 過去와 未來를 推想하고하여 모든 計劃을 세워서 그 生生을 營爲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天性이 形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一偏의 器官으로 局限되어 그 器官의 맡은 바의 任務以外에는 全혀 接應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天性은 形而上한 道에서 繼生하여 上에 形하고 있으므로 비록 無形하되 그 氣가 반드시 어떠한 形態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 形態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天性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또 天性과 形質은 하나는 形而上하고 하나는 形而下하여 二元運行의 理가 있으므로 天性은 이 理에 依하여 마치 火가 物體의 頂上에 依附하여 火炎體를 이루고 光을 發하고 있음과 같이 天性의

火氣가 水精에 依附하여 無形한 火炎形態로 되어 有形한 肉體의 頭腦에 依附하여 陽光을 發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天性은 人身中의 陰中의 陽이오 사람의 頭腦가 또한 人身의 陽氣의 總會處로서 陰中의 陽이 되어, 天性의 陽氣와 頭腦의 陽氣가 同一身의 同一陽氣이므로 天性은 火炎體의 形態로써 人身 最上部인 頭腦에 依附하여 天을 向하고 있는 것이며, 天性의 火炎體가 天을 向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肉體가 또한 天을 向하여 直立하고 있는 것이다.

天性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水는 透明하고 收斂作用을 行하여 受動的으로 物을 映寫하는 作用이 있고, 火는 光明하고 發顯作用을 行하여 能動的으로 物을 照射하는 作用이 있는지라, 天性의 光明은 火의 照射作用으로써 모든 事物의 相을 觀照하고 天性의 透明은 水의 映寫作用으로써 光明의 觀照한 事物의 相을 寫來하여 한 圖像을 이루니 이 圖像에는 萬事萬物의 形態, 事物相互의 關係, 生成消長하는 動態等 그 生生하는 온갖 모양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이 그 光明으로써 이 圖像을 살펴보는 것은 觀察이 되는 것이오, 圖像의 모든 事物을 觀察하여 그 利害得失을 밝히는 것은 思慮가 되는 것이오, 이 觀察과 思慮를 通하여 生生의 最善한 길을 擇하는 것은 判斷이 되는 것이오, 觀察 思慮 判斷한 것과 經驗 學問한 것等을 이 圖像속에 收藏하는 것은 記憶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耳의 聰은 水의 透明作用에서 生하고 目의 明은 火의 光明作用에서 生하는 것인데, 天性의 照射映寫作用도 水火의 光明透明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天性의 聰明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觀察 思慮 判斷 記憶等 作用은 모두 天性의 聰明에서 生하는 것이다.

■ 祈禱의 原理

水火에는 또 升降作用이 있으므로 萬物의 氣가 上下로 升降作用을 行함에는 반드시 水火의 氣를 쓰는 것이오, 萬物의 生殖作用에 陽體의 精이 陰體

로 넘어갈 때에도 반드시 水火의 升降作用이 生하여 兩體의 空間을 飛越하는 것이니, 이것을「水火通明이룬 곳에 絶處逢生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天地間에는 太陽의 火精속에 水가 있고 달의 水精속에 火가 있어 日月의 水火가 不斷히 大空間의 上下를 升降하면서 天地의 氣를 相通하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도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으므로 天과 사람과의 사이에 水火가 升降하여 氣가 相通하고 있는 것이며, 天과 사람과의 氣가 相通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天에 祈禱를 올리는 때에 그 祈禱가 天에 通하고 天이 사람에게 靈感의 氣를 내리는 때에 그 靈感이 또한 通하는 것이니, 이가 祈禱의 原理이다. 鼎卦에「聖人이 烹하여 써 上帝를 享하시면 大烹하여 聖賢을 養하신다」하니, 이는 聖人이 水火를 烹하여 그 氣를 神에게 올리시면 神은 그것을 받으시고 大水火의 氣를 烹하여 사람에게 내리어 써 聖賢을 養하신다는 뜻으로서 水火의 升降作用에 依하여 天人間에 祈禱와 靈感의 相通하는 理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天性은 水火로써 構成되어 天으로 더불어 氣의 升降作用을 行하고 있으므로 天性이 善하여 사람을 爲하는 일을 하면 天이 그 氣를 받고 그 사람에게 善을 내려서 善이 싸이며 天性이 不善하여 사람을 害하는 일을 하면 天이 그 氣를 받고 그 사람에게 不善을 내려서 不善이 싸이는 것이니, 이는 日常生活하는 中에 天과 사람과의 水火가 相通하는 理이오 祈禱라는 것은 特히 發願하는 일이 있는 때에 誠을 表示하는 行動이며, 祈禱하는 때에 水火를 烹치 아니하더라도 誠만 있으면 天性의 水火가 能히 升降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第二節　心情의 組織

■ 心情은 天性에서 發한다

人身은 精과 氣로써 構成된 것이오 精의 속에도 다시 精과 氣가 있고 氣의 속에도 다시 精과 氣가 있는 것이므로 形而上한 天性의 속에도 또한 精과 氣의 作用이 있어, 氣의 作用은 心이 되고 精의 作用은 情이 되니, 心과

情은 理性과 感情과의 關係와 같은 것으로서 天性은 사람의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반드시 發生치 아니할 수 없는 精神作用이다. 心이라 함은 사람이 生生하기 爲하여 天性의 光이 發하여 空間과 時間을 비추어 萬事萬物을 接應하는 光明이니, 그러므로 復卦에는 天行하는 一陽의 光明이 陰體中을 出入하여 光明을 비추는 것을「天地之心」이라 한 것이오 情이라 함은 個體의 形質이 生生하기 爲하여 天性의 生氣가 動하여 스스로 發하고 있는 本能이니, 그러므로 易卦에는 씨의 構成要素인 震子와 兌澤이 生物의 本能을 發하는 것을「天地萬物之情」이라 한 것이다.

天性에서 心과 情의 作用이 生하는 것은 天地間에서 太陽과 달의 運行하고 있는 理에 依한 것이니, 天性은 日月光明의 象이오 心은 日月光明의 運行하는 象이오 情은 日月의 震子와 兌澤의 象이며, 이는 사람이 天地間의 日月에서 出生한 까닭에 天性과 心情에 日月의 象이 있는 것이다. 天性이 日月光明의 象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日月의 光明은 天地를 範圍하여 그 形이 圓하고 空間을 統하여 그 氣가 深하고 水火의 精을 體로 하여 그 光이 水通火明하니, 이는 日月의 光明이 圓深通明하여 天地間을 無限無窮히 照明하는 것이오 사람의 天性은 純 粹 精하니 純은 包全한 것으로서 圓의 象이 되고 粹는 聚一한 것으로서 深의 象이 되고 精은 水火의 精으로서 通明의 象이 되어 純 粹 精이 또한 圓深通明의 象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사람의 天性이 또한 圓深通明하여 萬事萬物을 周行하여 接應하니, 이 까닭에 天性은 日月光明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元來 사람의 天性은 神에게서 稟受한 것인데 天性이 또한 日月光明의 象이 된다 함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神이라 함은 天地의 光明이 萬物을 生한다는 뜻으로서 神의 作用이 곧 光明이므로 天性은 神에게서 稟受하고 日月光明의 象이 되는 것이다.

心이 日月光明의 運行하는 象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萬物은 日月光明의 運行에 依하여 生生하고 사람의 心은 事物을 照明하여 사람의 生生을 主宰하니 復卦의 天地之心은 달의 光明이 陰質中을 出入하면서 照明한다는 뜻으로 되는 것이며, 이 까닭에 心은 日月光明의 運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情이 日月의 震子 兌精의 象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日月의 震子와 兌澤이 合하여 萬物의 形質을 生하고 사람의 情은 自體形體의 자람을 爲하여 發動하니, 이 까닭에 情은 日月의 震子 兌澤의 象이 되는 것이다.

■ 心의 體는 仁禮義知

天性은 日月光明의 象이 되는데, 天地에는 日月의 運行에 依하여 春夏秋冬의 四時가 生하고 그것이 元亨利貞의 四道가 되는 것이므로 天性에도 또한 四道의 象과 같은 仁禮義知의 四德이 있으며, 德은 心의 體이므로 四德의 發用하는 것이 心으로 되는 것이다. 易學의 元亨利貞에는 仁禮義幹의 象을 말하고 知를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繫辭에는 人性에 仁知 또는 禮知를 말하니, 이는 四道中의 幹이 곧 四德中의 知가 된다 함이며, 四道中의 貞은 變通의 幹이 되고 四德中의 知는 心의 發生하는 源이 되고 있으므로 四道中의 貞을 그 形態로써 보면 幹이 되고 그 作用으로써 보면 知가 되는 것이다. 四時의 運行이라 함은 春에 生하고 夏에 자라고 秋에 여물고 冬에 갈무리하고 하는 生長成藏의 象을 말함이오 四德이라 함은 春에 生한 것은 元으로서 仁의 象이 되고, 夏에 자라는 것은 亨으로서 禮의 象이 되고, 秋에 여무는 것은 利로서 義의 象이 되고, 冬에 갈무리하는 것은 貞으로서 事의 幹의 象이 되는 것이다. 仁이라 함은 內로부터 外에 顯하여 善의 生하는 象이니, 天性에 이러한 作用이 있는 것을 仁이라 하는 것이오, 禮라 함은 物이 衆會하여 秩序가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는 象이니, 天性에 이러한 作用이 있는 것을 禮라 하는 것이오, 義라함은 物이 다 자라서 陽氣가 內部에 들어가고 모든 對待가 調和되어 여무는 象이니, 天性에 이러한 作用이 있는 것을 義라 하는 것이오, 知라 함은 陽氣가 內部에 갈무리하여 外面은 어두우되 內部가 光明하여 仁의 發生하는 源이 되는 象이니, 天性에 이러한 作用이 있는 것을 知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四時에는 易學의

顯藏原理로 되어 있는 三顯一藏의 理가 있어, 春의 生하는 것이 發展하여 夏의 자라는 것이 되고 夏의 자라는 것이 發展하여 秋의 여무는 것이 되니,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하는 세 가지는 物의 形現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三顯이라 하고 冬은 物의 갈무리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一藏이라 하는 것이다. 四德에도 또한 三顯一藏의 象이 있으니, 仁이 發展하여 禮가되고 禮가 發展하여 義가되어, 仁禮義의 三德은 모두 行動의 形現한 것이므로 三顯이 되는 것이오 知는 內部에 深藏되어 外面에 나타나지 아니하되 人間의 모든 行動計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一藏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四德은 春顯冬藏의 象으로써 보면 仁과 知가되고 天施地育의 象으로써 보면 仁과 禮가되고 春生秋成의 象으로써 보면 仁과 義가되고 夏長秋收의 象으로써 보면 禮와 義가 되는 것이다.

三顯一藏의 理는 物의 生長成藏하는 原理로 되어 現用치 아니하는 一藏이 生命의 源을 畜養하여 가장 大用하는 庫藏의 任務를 다하는 것이니, 사람은 天性이 光明하고 心의 光明이 萬事萬物에 運行하여 能히 幽深을 洞察하고 未來를 先見하고 하는 一藏의 知가 있은 然後에 仁이 生하여 三顯하는 仁禮義로 되어 天性이 여무는 것이다.

註 ●三顯一藏의 理

三顯一藏에 對한 原理는 邵康節의 學說에서 取하고 邵康節의 學說은 八卦의 反易의 象에서 나온 것이다.

八卦中에서 乾坤坎離 四卦는 反易이 없으므로 原數대로 四가 되고 震과 艮은 反易하여 兩象一卦가 되므로 一이 되고 巽과 兌는 反易하여 兩象一卦가 되므로 一이 되어, 모두 合하여 六이 되니, 體가 八이오 用이 六이라, 八數中에서 六이 用하고 二가 不用하며 六과 二는 三과 一의 比가 되니 三用一不用이 곧 三顯一藏이다. 天의 四時에 冬이 退藏하여 歸勞하고 地의 四方에 極地가 氷結하여 萬物이 生育치 못하고 人身에 上下前後가 있는데 上下前이 모두 홀로 運動하고 있으되 오직 背는 홀로 運動치 못하니 이가 모두 三顯一藏이다. 그러나 이 一藏部는 모두 庫藏의 役을 行하고 있으니,

冬은 明春의 生育作用에 對待하여 太和한 氣를 保合하는 庫藏이오 大地의 極地는 地力의 生生作用을 爲하여 地軸의 極에 精氣를 蓄積하는 庫藏이오 背는 臟腑의 主要器官의 係屬하는 本據가 되어 一身의 生理를 主管하는 庫藏이다. 사람의 一日中의 動作과 睡眠같은 것도 대체로 四分之三을 動作하고 四分之一을 睡眠하여 精氣를 蓄養하여 다음날의 活動에 對備하고 精力의 使用같은 것도 또한 四分之一程度의 餘蓄을 두지 아니하면 用力이 過度하여 甚大한 疲勞를 느끼는 것이니, 이가 모두 三顯一藏의 理이다. 物의 生生에 一藏의 庫藏이 없으면 事物의 終하는 때에 本源이 枯渴하여 다시 始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心에는 知가 一藏의 庫藏이 되는 것이다.

■ 生育 生殖 長壽의 三情은 萬物의 本能

情은 日月의 震子 兌澤의 象이 되는데, 天地에는 天風山地의 空間의 四層秩序가 있으니, 天風山地라 함은 天地間에는 上에 天이 있고 下에 地가 있고 天氣의 下降한 것은 風이 되고 地氣의 上升한 것은 山이 되어, 空間의 上下秩序는 天風山地의 四層으로 되어있다 함이다. 이 空間의 사이를 太陽의 震子와 달의 兌澤이 運行하여 天風의 上層에는 震子가 行하고 山地의 下層에는 兌澤이 行하여 正大 恒久 感應 萃聚의 四情이 된 것이다.

註 ●天地萬物의 情

天地의 定位한 天地否卦의 本卦와 互卦가 바로 天風山地의 秩序로 되는 것이다. 天은 上에 있고 風은 天氣의 下降한 것이므로 天風은 上에 屬하며 地는 下에 있고 山은 地氣의 上行한 것이므로 山地는 下에 屬한다. 萬物의 씨의 基本組織은 震子와 兌澤인데 震子는 氣이오 兌澤은 形이라 그러므로 天風의 上層에는 氣의 象인 雷가 行하여 雷와 天이 合한 雷天大壯卦는 天地의 正大의 情이 되고, 雷와 風이 合한 雷風恒卦는 天地萬物의 恒久의 情이 된 것이며, 山地의 下層에는 形의 象인 澤이 行하여 澤과 山이 合한 澤山咸卦는 天地萬物의 感應의 情이 되고 澤과 地가 合한 澤地萃卦는 天地萬物의 萃聚의 情이 된 것이다.

天地는 日月의 相交에 依하여 震子와 兌澤으로써 物을 作成하는 것이므로 天風의 震子와 山地의 兌澤에 物의 生生하는 本能인 正大 恒久 感應 萃聚의 四情이 있는 것이다.

萃聚의 情이라 함은 地가 兌澤을 合한 澤地의 象으로서 母體가 陰子를 包하고 陰子가 形質을 聚하여 生育하는 것이 곧 萃聚의 情이며, 萬物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스스로 形質을 聚合하여 生育치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萃聚의 情은 天地萬物의 本能이 되는 것이다. 澤地는 天地秩序의 最低位에 있어 形質을 聚凝하는 作用을 行하므로 모든 生物에 있어서는 營養을 聚하여 形質을 生育하는 生育本能이 되니, 生育本能은 모든 生物이 그 體를 維持하기 爲한 가장 基本되는 情이다.

四情과 卦象

雷	震子	天	雷天 大壯	正大의 情
雷	震子	風	雷風 恒	恒久의 情
澤	兌澤	山	澤山 咸	感應의 情
澤	兌澤	地	澤地 萃	萃聚의 情
◯	長壽本能	生殖本能		生育本能

感應의 情이라 함은 地勢가 上升하여 兌澤을 合한 澤山의 象으로서 山澤이 通氣하여 男女의 二氣가 相感하여 生殖作用을 行하는 것이 곧 感應의 情이며, 萬物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스스로 生殖作用을 行치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感應의 情은 天地萬物의 本能이 되는 것이다. 澤山은 모든 生物에 있어서는 子孫을 繁殖하는 生殖本能이 되니, 生殖本能은 비록 生育本能과 같이 形質의 欲求에 依한 것이로되 山의 一陽이 上으로 天을 接하여 光明을 받고 있으므로 心이 感치 아니하면 男女間의 情이 動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心이 日月光明의 運行하는 象이 되는 까닭이다.

恒久의 情이라 함은 天氣가 下降하여 震子를 合한 雷風의 象으로서 雷風이 相與하여 天行健한 陽子가되고 陽子의 世世繼承하는 것이 곧 恒久의 情이며, 萬物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스스로 恒久히 繼承치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恒久의 情은 天地萬物의 本能이 되는 것이다. 雷風은 天氣가 地에 接하는 位에 있고 氣는 永久繼續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모든 生物에 있어서는 生命을 永久히 繼續하려는 長壽本能이 되니, 長壽本能은 飮食을 取하고 氣를 呼吸하여 形質을 補强함에 힘쓰고 있는 것이나, 地에 接한 形質에는 死生이 있고 雷風의 氣는 恒久하여 神作用이 行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長壽는 飮食 呼吸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는 神作用의 힘이 가장 큰 것이다.

正大의 情이라 함은 正은 完全하고 偏치 아니하다 함이오 大는 備有하고 局치 아니하다 함이니, 天이 生命의 繼承作用을 行하는 震子를 合한 雷天의 象으로서 萬物의 씨를 保有하는 源이 되는 것이 곧 正大의 情이며, 天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스스로 萬物의 씨를 生치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正大의 情은 天地의 本能이 되는 것이오 雷天은 大한 者가 壯한 것으로서 大哉乾元의 여무는 象이므로 萬物의 씨를 保合하는 理가 있는 것이다. 萬物은 各其 自體의 씨만을 保有하여 個體의 情만이 있는데 天地

는 天地萬物의 有機的 統一的 生命體이므로 天地에는 萬物의 씨가 全部 保有되어 統體의 情이 있으니, 그러므로 正大한 統體의 情은 天地에만 있고 萬物에는 없으며, 이가 萬物이 모두 天에서 生한 所以이다.

天性의 四德에 三顯一藏의 理가 있으므로 四正에 또한 三顯一藏의 理가 있으니 萃聚感應 恒久의 三情은 天地에도 있고 萬物에도 있어 外面에 形現한 것이므로 이는 三顯의 象이 되는 것이오 正大의 情은 天에 갈무리하여 外現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는 一藏이 되는 것이니, 天에 萬物의 씨를 保有하는 一藏의 情은 萬物의 三顯하는 情의 發源이 되는 것이다.

■ 心과 情의 調和

사람의 本能은 個體形質의 生生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本能生活은 個體를 中心으로하여 行하고 個體以外의 社會生活에는 어두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天性에는 心과 情의 兩面이 있어 心의 光明은 理性이 되어 萬人公共의 社會生活을 營爲하고, 情의 本能은 感情이 되어 個性特殊의 個體生活을 營爲하여 兩者가 서로 調和하는 것이다. 情의 本能이 억세면 心의 光明이 어둡고 心의 光明이 밝으면 情의 本能이 和하는 것이니 心은 光明함을 主하고 情은 氣和함을 主하는 것이다. 心과 情에는 또한 時間과 空間의 象이 있으니, 心은 仁禮義知 四德의 發用하는 것으로서 四時流行의 象이 되니, 四時는 時間이오 情은 萃聚 感應 恒久 三情의 作用으로서 天地의 上下秩序의 象이 되니, 天地의 上下는 空間이다. 時間은 過去 現在 未來를 統稱함이오 仁禮義知는 사람의 마땅히 行하는 道德인데 사람은 心의 光明으로써 過去를 돌아보고 現在를 살피고 未來를 내다보아 道德에 合하는 生活을 하는 것이 곧 四時流行하는 時間의 理에 맞는 것이다. 空間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現實이오 三情은 本能으로서 그때그때의 現實에 應하여 發露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情이 勝하여 空間의 現實만을 보고 時間의 過去와 未來를 보지 못하면 心의 光明이 어두워져서 動物生活에 墮落하는 것이오 이는 動物은 專혀 現實生活과 本能生活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第三章　神과 人間

第一節　人間은 神의 創造

■ 神의 存在하는 原理

天地間의 모든 生物은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이 生하는데, 有形한 形質에는 生하고 滅함이 있으되 그 生滅의 속에는 또한 生滅의 없는 長存하는 것이 있으니, 草木의 例로써 보면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면 싹이나 줄기나 열매는 生滅이 있으되 그 씨의 속에 있는 世世繼承하는 作用은 永遠히 滅치 아니하여, 지금의 草木의 씨는 몇 億千萬年 前의 宇宙創生時에 發生한 씨가 傳來한 것이니, 이 形質의 生하고 滅하고 하는 것은 生命의 作用이오 永遠히 滅치 아니하는 것은 神의 作用이다. 이제 이 宇宙間에 天地萬物의 生生을 主宰하고 있는 神의 계시다는 것을 易理로써 보건대

첫째로 사람은 天地의 自然法則속에서 出生하여 乾坤生命元 雷風의氣 水火의精으로써 構成되고, 이 生命 氣精으로써 構成된 生命體는 自體의 生生을 營爲하기 爲하여 반드시 天性作用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람은 天性을 가지고 心情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이 生命氣精은 사람만이 獨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出生하기 以前에 天地間에는 이미 生命氣精의 大自然이 있어 天地의 統一的 生命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天地의 體와 사람의 體와는 大小의 差와 形態의 相異가 있을 뿐이오 그 本性은 全然 同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의 統一的 生命體는 사람의 所自出한 本源으로서 이미 사람의 天性과 같은 心情作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易卦에「天地之心」「天地之情」이라 함은 天地의 統一的 生命體의 心情作用을 말한 것이다.

둘째로 사람은 自身의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스스로 自身의 行動을 主宰하는 天性이 있고 이 天性은 一身의 生生에 必要한 計劃을 세우고 있는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生物이 모두 그러하여 虫魚같은 微物도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그 生生에 必要한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生理가 조금 더 複雜한 高等動物은 虫魚보다 조금 더 高等한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고 動物보다 次元의 越等한 生理를 가지고 있는 人間은 또한 그에 適應하는 越等한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生物이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는 것은 天地萬物의 生生하는 自然法則이다. 天地는 萬物을 包有하는 統一的 生命體로 되고 있으므로 萬物의 生生이 곧 天地의 生生이라 天地는 自體의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반드시 天地의 生生을 統一的으로 主宰하는 天性이 있는 것이오 이 天地의 主宰는 또한 스스로 自體의 生生에 必要한 自然法則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의 主宰는 곧 天地의 天性으로서 天地의 創始와 함께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間에는 사람의 出生하기 以前에 이미 天地의 生生을 主宰하는 天性이 있어 心情作用으로써 意識的 計劃的으로 萬物을 創造한 것이오 사람의 心情作用은 이 天地의 心情作用에서 稟賦된 것이다.

셋째로 天地間의 모든 生物은 반드시 生命과 精神과의 一體二元의 理로써 構成되어 同一體內에서 運動하는 힘이 곧 生命이오 運動을 일으키는 힘이 곧 精神이다. 이것을 人身의 例로써 보면 生命은 無形이 有形으로 化하여 生命體가 되는 것이므로 形而下한 器가 되는 것이오 精神은 無形그대로 있어 形化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形而上한 道가 되는 것이라, 사람은 自身의 生生을 爲하여 반드시 그 生生에 適應하는 無形한 精神을 가지고 萬事萬物을 接應하여 自體의 生生하기 爲한 모든 言行動作을 主宰하고 耳目口鼻手足等 肉體에 對하여 그 任務를 命令하며, 有形한 肉體는 受動作用을 行하므로 다만 感覺器官에 依하여 얻어진 所感을 精神에 呼訴하고 精神의 設計한 生生計劃에 對하여 筋肉을 움직여서 그것을 實踐할 뿐이니, 그러므로 人身의 生生을 主宰하는 者는 有形한 肉體가 아니라 곧 無形하여 萬事萬物을 接應하는 作用을 가진 精神이다. 生命과 精神과의 理를 天地로써 보면 天地間의 萬物은 至極히 繁多하고 至極히 錯雜하되 모두 秩序整然한 運動으로써 共通한 法則속에서 그 生生을 營爲하여 하나도 生生作用으로부터

遺棄됨이 없고 또 萬物相互間에는 相互克制와 相互扶助의 두 作用이 自然스럽게 行하여 모두 調和된 狀態로써 그 生生을 完遂하고 있으니, 이는 萬物이 여기저기에서 偶然忽然히 單獨的으로 생겨서 各其 獨自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系統의 法則밑에서 有機的으로 서로 關聯되고 統一되어 어느 一物도 이 有機的 系統의 圈外에서 單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間의 萬物은 空間的으로는 有機的으로 서로 連結되어 있고 時間的으로는 統一的으로 永續不絶하는 運行을 하고 있으니, 이는 天地間 萬物이 하나의 有機的 統一的 生命體를 이루고 있음이오 乾卦에 「大하다 乾元이여 萬物이 資하여 始하니 이에 天을 統하도다」 함은 萬物이 乾坤의 生命元에서 始生하여 하나의 統一的 生命體를 이루고 있다 함을 말함이다. 天地 生命體는 이와 같이 無限大 無窮遠하므로 그 自體의 生生을 主宰하는 精神作用도 또한 거기에 適應하여 無限大 無窮遠하여 宇宙의 大空間의 極點과 大時間의 未來를 通觀하고 天地萬物의 生生을 意識的 計劃的으로 主宰하고 있는 것이니 所謂 自然法則이라 함은 天地主宰者의 生生計劃書를 말함이다.

以上 세 가지의 理에 依하여 天地에는 萬物의 生生을 主宰하는 精神作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오 說卦에는 「神이라 함은 萬物을 妙하게하여 言을 하는 者이라」 하고 繫辭에는 「變化의 道를 知하는 者가 神의 所爲를 知한다」 하여 天地間에 物의 生生變化를 主宰하는 者를 神이라 하니, 그러므로 天地의 精神作用이 곧 神이다. 天地 生命體의 精神作用과 天地主宰인 神은 全然同一한 것으로서 이것을 自然現象의 面으로써 볼 때에는 精神作用이라 하고 天地主宰의 面으로써 볼 때에는 神이라 하는 것이다.

天地間 萬物은 모두 神의 意識的作用에 依하여 計劃的으로 創造되어 生生하는 것이므로 어느 一物도 偶然忽然히 發生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至精至妙한 計劃밑에서 有機的 統一的으로 創造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人間도 無形한 神의 自然法則 속에서 出生하여 神의 子孫이 되고 사람의 天性도 神의 作用을 稟受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神은 無形하여

볼 수가 없으므로 그 有無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人身으로써 보면 사람이 他人을 對하는 때에 그 相對人에게 精神作用이 있고 없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나 그에게 精神作用이 있는 줄은 우리의 體驗으로써 確的히 알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自身에게 精神作用이 있으므로 他人에게도 精神作用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며 이 體驗을 더 推衍解釋하여 보면 人間은 반드시 사람마다 精神作用이 있고 또 그 精神作用은 모두 共通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사람마다 各其 獨自的으로 偶然忽然히 오다가다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同一한 源으로부터 稟受한 것임이 分明한즉 人間의 精神作用의 本原은 반드시 어느 한곳에 있는 것이오 이 精神作用의 本原은 곧 天地의 精神作用인 神이다. 그리고 神은 無形한 까닭에 能히 天地間의 萬事萬物을 創造하시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天性이 無形한 까닭에 能히 無限無窮한 空間과 時間을 周遍하여 萬事萬物을 接應함과 같은 것이다.

神이라 함은 天의 光明이 萬物을 生한다는 뜻인데 易學에는 神을 帝 또는 上帝라하고 또한 祖考라하니 上帝祖考는 그 名稱은 서로 다르되 모두 神을 말한 것으로서 다만 神과 사람과의 對稱을 달리한 것뿐이다. 上帝라 함은 天上에서 光明을 下垂하여 萬物을 生한다는 뜻으로서 上帝와 民衆과의 上下의 分을 對稱한 것이오 祖考라 함은 萬物을 始生하는 祖上父母라는 뜻으로서 祖上父母와 子孫과의 系統의 序를 對稱한 것이다.

神은 萬物의 上帝 祖上으로서 萬物을 創造하신 것인즉 神은 萬物 以前에 어디에서 創造된 것인가 하면, 創造라 함은 無形에서 有形物을 造出하는 일이니 天地太初의 無形中에서 비로소 有形物의 生한 것이 곧 萬物의 創造이다. 天地間에는 天地의 생기는 처음에 乾坤生命元이 있어 無形한 中에 스스로 統一的으로 運動하여 生命이 되는 것이며, 이 生命은 形이 生치 아니하여 無形으로 되어 있으되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스스로 그 生生을 主宰하는 神이 있어, 生命과 神은 一體二元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命과 神은 先後의 別이 없고 形而上과 形而下의 두 作用이 되어 形而上한 作

用은 神이 되고 形而下한 作用은 生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物의 有形하기 以前에 이미 神이 存在하여 有形한 萬物을 創造하시니, 天地의 始가 곧 神의 始이오 神의 始가 곧 萬物生生의 始이다.

■ 神은 永遠無窮

神이 有形한 萬物을 創造하는 順序를 氣精形의 象으로써 보면 天地間에 陽氣가 먼저 陰中에서 動하여 雷가되고 雷의 衝激作用에 依하여 火를 生하였는데, 火는 依附할곳이 없어서 形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다음에 陰氣가 受動的으로 動하여 磁氣인 風이 되고 風의 凝收作用에 依하여 水液을 生하니, 이것이 天地有形의 始이다. 有形의 始인 水가 生한 然後에 火가 水에 依附하여 光明을 發하니, 그러므로 水火는 萬物創生의 始가되고 萬物의 生生함에는 모두 水火를 體로 하는 것이며, 水火에도 形而上한 것과 形而下한 것이 있는데 形而上한 水火는 神의 體가되고 形而下한 水火는 萬物의 體가 되는 것이다. 이미 水火가 生한 뒤에는 無形한 神은 有形한 水火를 物의 體로 하여 萬物을 創造하시고 스스로 水火의 속에 갈무리하여 有形한 萬物로 나타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間萬物은 모두 神이 有形으로 表現된 것으로서 萬物의 內部에는 神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萬物創造의 順序를 生命元 雷風 水火라고한 것은 다만 그 無形과 有形의 順序를 말함이오 實際에 있어서는 生命元과 生命도 先後의 別이 없고 生命과 神도 先後의 別이없고 生命元과 雷風 水火도 또한 先後의 別이없고 乾坤生命元이 있는 때에 그 속에 스스로 生命이 있고 神이 있고 雷風 水火가 있어 한 個의 天地生命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天地間에 包含되어 있는 萬物은 그 形質에 모두 生滅이 있고 사람도 그 形質에 死生이 있어 모두 有限有窮하며, 사람의 精神도 生前에는 天性이 되고 死後에는 鬼神이 되어 늘 變化하고 있고, 天地間에서 오직 神만이 永遠無窮하니, 이는 天地의 有機的 統一的 生命體의 精神의 象인 神은 사람의

共同生活體인 國家社會의 有機的 統一的精神作用과 同理한 까닭이다. 사람은 各個人이 自體의 生生을 爲하는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는 同時에 그 여러 個人의 共同生活體인 國家社會에도 또한 여러 個人의 有機的 統一的인 精神作用이 엉키어 있어 그 國家社會의 生生을 營爲하고 있는 것이며, 各個人은 반드시 死生이 있으되 共同生活體인 國家社會는 個人들의 世代交替에 依하여 恒久히 存續하는 것이니, 우리 人類社會가 有史以來로 綿綿히 連續하는 것이 그 一例이오 그러므로 國家社會를 運營하는 有機的 統一的 精神作用도 또한 恒久하여 國家社會를 永遠한 未來까지 存續시켜 나가는 것이다. 國家社會의 有形한 行政施設은 사람의 肉體의 生存하는 作用의 象이 되고 無形한 政治計劃은 사람의 精神作用의 象이 되어 無形한 政治計劃이 不斷히 行한 然後에 有形한 行政施設이 實施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政治計劃은 永遠히 繼續되는 것이오 政治計劃의 行치 못하는 날은 그 國家社會의 敗衰하는 날이다. 이 理에 依하여 天地의 有機的 統一的 生命體도 그 生物의 個個體는 生滅이 있으되 天地生命體는 永遠無窮히 繼承하고 天地生命體의 生生을 運營하는 精神作用도 또한 永遠無窮하여 天地生命體를 永遠한 未來까지 繼繼生生시켜 나가는 것이니, 이가 神의 永遠無窮하신 所以이다. 或은 생각하기를 萬物은 宇宙의 自然法則에 依하여 스스로 生成하는 것이오 神의 所爲가 아니라고 하나, 自然法則이라 함은 하나의 生生計劃書에 不過한 것이오 生生計劃書가 저절로 萬物을 生生하는 것이 아니라 能動하는 精神作用이 있어 그 計劃書대로 活用하는 때에 萬物이 生生되는 것이니 神이라 함은 이 能動하는 精神作用을 말함이오 自然法則이라 함은 神의 마련한 生生計劃書를 말함이오 生生計劃書를 活用한다함은 神이 自身의 마련한 自然法則을 自身이 能動하여 몸소 實施하는 것이다. 마치 人間社會의 모든 建設에는 建設計劃書가 있는데, 이 建設計劃書가 저절로 物을 建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能動하는 精神作用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計劃書대로 活用하는 때에 비로소 建設이 이루어짐과 같은 것이다. 人間社會의 모든 建設이 사람의 無形한 精神作用에 依하여 이루어짐과 같이 天地間의 萬物도 또한 無形한 神의 뜻에 依하여 生生하는 것이다.

天地生生의 精神作用인 神은 萬物을 生生하기 爲하여 天地의 大空間에 가득히 차 있는 萬物을 하나도 周知치 못하심이 없고 또 그들 萬物을 永遠히 繼承시키기 爲하여 萬物의 生生發展하여 나가는 天地의 大時間의 永遠無窮한 未來를 先知치 못하심이 없으니 이는 神의 知이며 神은 또 그들 萬物에게 自體의 生生法則을 賦與하시어 어느 一物도 空間的 時間的으로 그 生을 完遂치 못함이 없게 하시니 이는 神의 能이다. 繫辭에 「乾은 易(이)로써 知하고 坤은 簡으로써 能하다」 하니 乾의 知와 坤의 能은 乾坤生命元이 萬物을 生生하기 爲한 知能으로서 이가 곧 神의 知能이니 神은 乾知坤能으로써 天地의 生生을 主宰하고 계시는 것이다.

■ 神은 太陽에 位居

天地의 神과 사람의 天性은 그 本性이 同一한 것인데, 사람의 天性이 無形하고 모든 事物에 周遍하여 一定한 居處가 없는 것이로되 또한 人身의 頭腦에 依附하여 모든 作用을 行하는 것인즉 神도 天地를 統括하여 비록 在치 아니하신 곳이 없고 行치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되 또한 반드시 位居하시는 곳이 있는 것이다. 神은 生命과 一體二元이 되니 形而上한 天行健의 象이 되고 水火의 形而上한 氣를 合하여 體를 삼는 것이오 天地間의 光明의 本源이되는 太陽이 또한 乾坤과 雷風을 合한 天行健의 象으로서 水火의 有形한 精을 合하여 有形體로 된 것이니, 無形한 神과 有形한 太陽은 그 組織의 象이 同一하므로 神은 太陽에 位居하시어 生生의 政을 行하시는 것이다. 神字가 天上의 光明이 下垂하여 萬物을 伸出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또한 神이 太陽의 光明에 位居하시어 萬物을 生生하시는 象을 말한 것이오, 太陽의 光明을 달에 施하여 萬物의 씨를 作成한다는 것도 또한 神이 太陽의 光明에 位居하시어 萬物의 씨를 創造하시는 理를 말한 것이며, 이가 곧 神이 먼저 水火를 創造하여 光明을 發하게 하시고 그 水火를 物의 體로 하여 萬物을 創造하시고 萬物로 하여금 光明속에서 살게 하시는

理이다. 光明이라 함은 水火가 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宇宙間의 大水火를 體로하고 있는 神은 宇宙間의 大光明이 바로 그 體로 되는 것이오 그러므로 宇宙間에서 光明을 發하고 있는 모든 恒星은 한덩어리의 光明體로서 사람의 頭腦와 같은 組織體로 되어 神의 位居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며, 太陽도 恒星의 하나이므로 太陽系의 宇宙에서는 太陽이 神의 位居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다. 神과 生命은 一體二元의 理로 되고 生命이 有形化하여 처음으로 太陽을 構成한 것이므로 神이 또한 太陽에 位居하시는 것이오 神이 萬物生生의 政을 行하시므로 萬物의 씨의 元이 또한 太陽에서 나오는 것이다.

神의 位居하시는 太陽에는 水火가 있고 水火에는 聚散作用이 있어 生滅의 現象이 있는 것이나, 天地統一神은 唯一 絶對하여 統體와 個體를 超越하고 그 統一體內에 비록 聚散作用이 行하고 있으되 聚하여도 그 體內에 聚하고 散하여도 그 體內에 散하여 聚와 散을 超越하고 있으므로 天地의 神은 永遠不窮한 唯一神이 되는 것이다.

神이 太初에 모든 生物을 生하실 때에 植物은 土中에 着根하여 스스로 水土의 營養을 攝取하고 살며, 動物은 天然物을 아무런 加工도 없이 그대로 먹고 몸에는 毛皮와 甲皮같은 것을 두르고 衣服을 입을 必要가 없는 것이나, 사람은 그와는 달라서 天然物을 그대로만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人工을 加하여 먹으며, 몸을 保護하기 爲하여는 반드시 衣服을 입어야 하며, 또 生活에 必要한 온갖 器具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처음으로 發生할 當時에는 人智가 열리지 못하여 自體의 智力으로써 自體의 生活을 營爲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創造하신 神은 自體를 人身으로 化하여 神人이 되어 사람들의 모든 生活을 指導하시니 이 神人은 地上에 人類의 形象이 나타난 始初이며 神이 사람을 創造하실 때에 神의 形象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도 이 神人과 人類와의 關係를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神人은 곧 神이오 사람이 神에서 出生하였다 함은 곧 神人에서 出生하였다 함이다. 神은 太陽에 位居하시면서 太初에 神人으로 化하여 地上에 내려와서는 어

느 곳에 坐定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易理로써 보건대 地의 上升한 것은 艮山이오 艮山의 一陽은 天에 接하고 있으므로 神이 地上에 내려와서 神人으로 化身하는 때는 반드시 艮山上에 坐定하시어 人類의 大始祖가 되신 것이며, 그러므로 艮이 上卦로 되는 卦의 上爻에는 모두 神과 光明의 象이 있는 것이다.

第二節　死生과 鬼神

■ 萬物은 神의 分身

神이 萬物을 創造하심에는 어떻게 創造하시는가 하면 그 象은 氣精形의 象에 나타나고 있다. 天行健한 雷風의 氣는 神의 象이오 雷風의 反易한 山澤의 形은 萬物의 象이니, 이는 萬物의 山澤의 形은 神의 雷風의 氣에서 生하는 까닭이며 無形한 雷風의 氣가 有形한 山澤의 形으로 化함에는 반드시 그 中間에 無形도 되고 有形도 되고 하는 水火의 精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이 理에 依하여 無形한 神이 有形한 萬物의 個體를 創造하심에는 天地統一神이 統一體 그대로는 萬物의 個體로 形化치 못하고 반드시 水火의 聚散作用과 같은 分身作用이 行하여야 하는 것이며, 神의 分身한 것이 곧 鬼神이니, 神이라 함은 天地統一神을 말함이오, 鬼라 함은 個體의 本能의 魂을 말함이오 鬼神이라 함은 個體의 本能과 理性의 魂을 말함이다. 神의 分身作用이 鬼와 神의 두 가지로 나뉘우는 것은 사람의 天性이 發用하는 때에 스스로 心과 情의 두 가지로 나뉘움과 같은 것이니, 神은 光明한 本體인 天性의 象이오 鬼는 震子 兌精의 作用인 情 卽 本能의 象이오, 鬼神은 光明한 天性의 運行作用인 心의 象이다.

神의 分身에 依하여 個體가 생기는 때에 鬼神이 生하는 것인데, 萬物個體의 씨가 달에서 生하므로 神의 分身하는 作用도 또한 달에서 行하는 것이

니, 이는 太陽이 震子를 달에 發施하고 달의 兌精이 그것을 承受하여 萬物의 씨를 承受함과 同一한 理로서, 太陽에 位居하신 神이 그 陽氣를 달에 施하면 달의 陰氣는 그것을 承受하여 神의 分身인 個體의 神을 作成하여 鬼神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萬物의 씨는 반드시 鬼神을 體로하고 鬼神은 달에 依附하여 地上萬物의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萬物의 씨가 처음에 創生될 때에 오직 生의 時運에만 發生하고 長의 時運에는 그 이미 發生한 씨가 地上에서 자라서 蕃殖함과 같이 神의 分身作用에 依하여 萬物이 發生하는 것도 또한 生의 時運에만 植物의 數多한 種類, 動物의 數多한 種類가 모두 그 種類대로 생기고 사람도 生의 時運에 神의 形象대로 한 種類가 생기고, 長의 時運에는 種類가 느는 것이 아니라 各種類가 地上에 내려와서 그 種類의 族屬이 느는 것이니 그러므로 神의 分身作用은 오직 生의 時運에만 行하고 神의 全體가 모든 生物의 各種類로 分身되는 것이다.

■ 死後 鬼神의 理

사람은 神의 分身作用에 依하여 鬼神을 體로 하여 生하는 것인데, 死後에는 鬼神이 어떻게 하여 生하는가 하면, 萬物에는 死生이 있고 그 死生은 生物의 씨를 組織한 氣精形의 聚散作用을 因함이다. 萬物은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고 精과 氣가 聚하여 物의 形質을 이루는 것이므로 物의 死하는 때에는 聚한 것이 散하면서 形質이 消滅하여 다시 無形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物이 形質을 이루는 것은 生함이오 形質이 滅하는 것은 死함이다. 雷風의 氣는 無形하고 氣 그대로는 形質이 生치 아니하니, 처음부터 生치 아니한 者는 또한 滅할것이 없으므로 雷風의 氣는 生滅이 없이 恒存하는 것이오 水火의 精은 無形도 되고 有形도되어 聚散이 있으되 그 本體는 水火대로 恒存한 것이오, 山澤의 形은 有形한 것으로서 山은 地가 炎上하는 火를 갈무리하여 形이 生한 것이오 澤은 流下하는 水를 멈추어서 形이 生한 것이므로 山澤은 生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씨의 속에 있는 雷風의 氣는 死生이 없이 恒存한 것이오 씨에서 싹이 生하여 形質이 있은 然後에 死

生이 있는 것이니, 이가 곧 聚한 者는 반드시 散하고 生한 者는 반드시 死한다 하는 理이다. 이것을 樹木의 열매로써 보건대 열매의 속에 있는 天行健한 씨의 氣는 恒久히 繼生하여 死滅치 아니하는 것이오 열매에서 싹이 나서 枝葉이 자라면 그 枝葉은 有形한 까닭에 生滅이 있는 것이니, 싹의 트는 것이 곧 將來에 싹의 死하는 張本이 되는 것이다. 死生의 理를 사람의 一身으로써 보면 肉體는 有形한 形質로서 열매의 싹의 象이오 天性은 無形한 氣로서 씨의 속에 있는 天行健한 氣의 象이라 그러므로 肉體에는 死生이 있으되 天性은 恒久히 繼生하여 滅치 아니하고 肉體의 死한 뒤에도 游魂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人死後에 鬼神이 存在하는 原理이다.

사람은 精氣가 聚하면 生하고 精氣가 散하면 死하는 것인데, 처음에 聚하여 生할 때에 이미 天性과 肉體의 二元運行의 理가 있으므로 내종에 散하여 死하는 때에도 또한 二元分離의 理가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人死後에는 天性이 肉體로부터 分離하여 獨自히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物의 聚한 者는 반드시 散하는 것이오 그 散하는 때에는 또한 그 聚한 바의 期間의 長短久速과 그 聚한바의 形體의 大小厚薄에 따라서 그 散하는 期間에도 遲速이 있는 것이니, 이는 物의 生長成原理가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天性은 長久한 期間에 精氣가 聚하여 자라고 여문 것이므로 사람이 死하여 精氣가 分散하는 때에는 그 死하는 卽時로 아무런 形迹도 없이 消散하는 것이 아니라 水火를 體로한 火炎體는 肉體와 分離된 뒤에 어느 期間동안은 消散치 아니하고 獨自히 存在하는 것이니 이것을 游魂이라 한다. 繫辭에 「精과 氣가 物이 되고 魂이 游하여 變이 되는지라 그런 故로 鬼神의 情狀을 知한다」 하니, 이는 水火의 精과 雷風의 氣가 聚合하여 사람의 形質이 되고 精氣의 分散하는 때에 天性이 肉體와 遊離하여 游魂이 되고 游魂이 變化를 行하는 것이 곧 鬼神의 情狀이라 함이다. 사람의 生前의 天性에 心과 情의 分別이 있으므로 死後 游魂의 變化에도 鬼神의 情狀이 있으니, 情은 鬼의 作用이오 狀은 神의 作用이라 生前의 本能인 情은 鬼의 作用으로 되고 生前의 心의 光明은 神의 作用으로된 것이다.

사람의 天性에는 여물고 여물지 못하고 한 差異가 있으므로 死後의 鬼神에도 또한 이와 같은 差異가 있어, 天性이 여물면 鬼와 神의 作用이 아울러 있고 天性이 여물지 못하면 生前의 情의 象인 鬼의 作用은 있으되 心의 象인 神의 作用은 없는 것이다. 死後에 鬼와 鬼神의 作用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하면 사람의 生前에 本能에서 發한 感情은 個體의 獨自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獨自한 感情에 그치는 것이오 生前에 心의 光明에서 發하는 理性은 萬人公共한 것으로서 人類共通의 理念이 되는 것인데, 生前의 感情이 死後의 鬼로 되고 生前의 理性이 死後의 鬼神으로 되는 것이므로 鬼와 鬼神의 作用은 바로 感情과 理性의 狀態로 發現되는 것이다. 死後의 鬼神作用은 人類共通의 理念과 같은 것으로서 唯一神의 作用과 相通하는 것인데, 이것을 神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鬼字를 붙여서 鬼神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사람의 死後 鬼神이라 하는 神과 唯一神은 그 作用이 同一하여 高低의 分도 없고 不合하는 分도 없고 正邪의 分도 없고 完全히 相通하고 있으나 唯一神은 天地間 統天의 神으로서 個體가 統體를 超越하고 있으나 사람의 鬼神은 個體에 붙어있던 游魂으로서 비록 神의 作用은 있으되 한편에 個體의 本能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鬼의 作用인 個體性을 離脫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鬼神은 人間의 大人의 格이 되어 大人으로 더불어 그 吉凶을 合하고 있으되 亦是 鬼와 神의 合體狀態를 離脫치 못하는 것이다. 繫辭에 「天地의 數가 五十五이니 이것이 써 變化를 成하고 鬼神을 行하는 바이라」 하니 이는 天地自然數는 十에서 成하는 것이므로 一로부터 十까지를 合한 五十五數에서 天地의 變化가 이루어 萬物이 여물고 萬物의 여무는 때에 鬼神의 作用이 行한다 함이다. 이것을 樹木으로써 보면 열매가 익어서 씨가 여문 然後에 生命이 世世繼承하는 것이오 씨가 여물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어 그것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여 生命이 끊어지는 것이며, 樹木에는 心情作用이 없으므로 死後의 鬼神은 없으나 씨의 世世繼承하는 作用이 곧 鬼神의 作用이오 그러므로 萬物은 十數에서 여물면 變化를 成하여 鬼神의 作用을 行한다 한 것이다. 이 理에 依하여 사람의 天性도 善이 繼生하여 여문 然後에 鬼神의 作用이 行하고 死後에도

鬼神이 있는 것이며, 天性이 여물지 못하면 生前에 本能生活을 하던 感情만이 남아서 鬼만 있고 鬼神이 없는 것이다. 生前의 本能인 情은 死後에도 游하여 鬼가 되는데, 動物은 純全히 本能生活을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動物의 死後에도 반드시 鬼가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사람과 動物이 死後에 서로 幻生하여 사람의 鬼가 動物로 태어나기도 하고 動物의 鬼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다.

■ 人間世界와 鬼神世界

神의 分身作用에 依하여 사람은 鬼神을 體로 하여 生하고 그 死後에는 도루 鬼神이 되어 다시 無形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間에는 無形한 鬼神作用이 行하여, 마치 人間社會에 數多한 心情作用이 行함과 같은 것이며, 이 까닭에 天上에는 無形한 神世界가 있어 地上의 人間世界와 類似한 組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易經에「況於人乎況於鬼神乎」아 하여 每每사람과 鬼神을 併稱한 것은 有形한 人間世界와 無形한 神世界가 이 天地間에 併存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天上의 神世界와 地上의 人間世界가 그 組織이 類似하고 그 禍福도 또한 類似하므로 謙卦에는「鬼神 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이라 하니 이는 鬼神과 사람의 두 世界가 서로 通하여 共通한 生理를 가지고 그 미워하고 좋아하고 함이 相同하다 함을 말함이다. 또 사람의 死後의 鬼神은 生前에 天性의 여문 사람이라, 그러므로 死後의 鬼神이 天命을 받들어 施命作用을 行하고 人間世界에 對하여 害와 福의 權能을 行使하는 것이니, 人間社會에서 古來로 驕盈한 者가 亡하고 謙讓한 者가 興하는 것은 모두 鬼神의 害福作用에 依한 것이다.

天上의 神世界組織은 人間社會와 같은 高下階級이 있는데, 人間社會의 長의 時運에는 그 高下階級이 人格의 高下로써되지 아니하고 主로 生長競爭

에 依한 勢力强弱으로써 決定되는 것이나, 神世界에는 生長競爭이라는 것이 없고 唯一神의 至嚴하신 主宰下에 專혀 善惡의 程度로써 그 階級의 高下가 決定되는 것이다. 宗敎를 創設하신 釋迦 孔子 예수 같은 聖人은 神道로써 敎를 設하시고 生長成의 時運에 맞춰서 民衆을 가르쳐서 唯一神의 事業을 直接 代行하였으므로 이는 바로 唯一神의 體의 一部로 되어 있는 것이오 鬼神이 아니며 그러므로 三聖人같은 이는 달에 居하시는 것이 아니라 神의 位居하시는 太陽을 中心으로하여 圜行하고 있는 어느 至近한 별에 居하시는 것이며, 그 外의 賢哲들은 鬼神이 되어 달에 依附하는 것이오, 生前에 惡을 行한 者는 鬼로 되어 地上에 依附하지 못하고 地下에 있으니, 地下는 火山의 갈무리하여 있는 곳이라 이가 곧 宗敎에서 말하는 바의 熱火가 끓는 地獄이오, 그 外의 平凡한 者는 또한 鬼性이 勝하여 地上에 依附하는 것이다. 이 四層의 階級은 空間의 天風山地의 階層과 비슷한 것이오, 人間의 禍福을 主管하는 者는 달에 依附하고 있는 鬼神이오, 人間社會에서 平凡한 사람들과 相接하는 者는 主로 地上의 鬼이니 繫辭에 人謀鬼謀라든가 旣濟未濟卦에 伐鬼方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地上의 鬼를 말한 것이다.

■ 鬼神의 盈虛消長

사람의 씨는 日月에서 生하는데 日月에는 盈虛하는 理가 있고, 사람의 天性은 水火로써 體를 삼는데, 水火에는 聚散의 理가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天性에 日月水火의 盈虛聚散하는 理가 있고 사람으로 더불어 本性이 同一한 鬼神에 또한 盈虛聚散하는 理가 있는 것이다. 豐卦에 「日이 中한즉 昃하고 月이 盈한즉 食하나니 天地의 盈虛도 時로 더불어 消하고 食하고 하건대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鬼神이라오」 하니 이는 天地日月도 그 時를 따라서 盈虛消息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나 鬼神이 어찌 盈虛消息하는 時가 없으리오 함이다. 消息이라 함은 終하고 새로 生한다 함이라, 사람은 生死하는 것이 곧 消息이오 鬼神은 聚散하는 것이 곧 消息이다.

사람과 鬼神은 日月에서 生하는 것인데, 日月에 運行하는 度가 있어 晝夜晦望의 盈虛消息이 있으므로 사람의 生長成에도 度가 있고 鬼神의 聚散에도 時가 있어, 사람과 鬼神이 時로 더불어 消息하는 것이다. 사람과 鬼神의 消息이라 함은 사람이 죽어서 鬼神이 되고 鬼神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 곧 消息인데 이 消息에는 幻生과 長存의 두 가지 形態가 있는 것이다.

天地가 盈虛하여 日月의 光明이 消息하면서 晝夜晦望이 循環하니, 이것은 光明의 幻生하는 象이오, 光明은 비록 消息하되 光明의 本體는 恒常하여 生滅이 없으니, 이것은 光明의 長存하는 象이다. 日月의 光明에 幻生과 長存의 象이 있으므로 日月에서 生한 사람과 鬼神에도 또한 幻生과 長存의 象이 있으니, 鬼神은 달에서 사람의 씨의 體로 되고 사람의 死後에 다시 鬼神이 되어 鬼神에 消息이 있는 것은 鬼神의 幻生하는 象이오 鬼神의 形態에는 消息이 있으되 鬼神의 本源은 恒存하여 生滅이 없는 것은 鬼神의 長存하는 象이다. 鬼神의 幻生과 長存의 象은 사람의 生長成하는 形態에도 나타나고 있으니, 사람이 無形한 鬼神에서 生하여 有形으로 化하는 것은 곧 鬼神이 無形으로부터 有形으로 化한 것이므로 사람의 出生하는 것은 鬼神幻生의 象이 되는 것이오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鬼神의 作用이 生하는 것은 곧 鬼神이 有形中에 갈무리하여 恒存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여무는 것은 鬼神長存의 象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鬼神은 그 本源이 同一하며 다만 肉體의 死生과 形의 顯藏이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死의 속에 生의 原이 있고 生의 속에 死의 本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生하는 것은 鬼神幻生의 象이오 사람의 여무는 것은 鬼神長存의 象인데, 사람의 자라는 것은 生과 成의 中間에 있어 鬼神의 作用을 內部에 包含하고 形質이 外面에 나타나서 有形한 形質을 기르기 爲하여 物質生活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生하면 반드시 자라야하고 또 사람이 여물기 爲하여는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이니, 이 자라는 期間中에 잘 자라면 天性이 여물어서 有形속에 鬼神의 作用이 生하여 그 死後에도 鬼神이 長存하는 것이다.

第四章　사람의 生生

第一節　生生의 圜運動

■ 宇宙는 圓狀組織

萬物의 生生에는 終하고 始함이 있어, 終하는데서 다시 始하여 循環하는 것이오, 循環하여 끝이 없은 然後에 그 生生이 永遠하여 窮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을 圜運動이라하며, 天地는 自體가 永遠不窮히 生生하기 爲하여 반드시 圜運動을 行하는 것이오「乾은 圜이 된다」함은 天地의 圜運動을 말한 것이다.

圜運動에는 空間運動과 時間運動의 두 가지 形態가 있다. 天地의 空間은 한 光明體로 되어 光明의 비치는 範圍안이 곧 天地의 空間인데, 光明은 日暈 月暈과 같이 圓狀으로 되어 있으므로 空間도 또한 圓狀으로 되어 있고, 空間이 圓狀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空間을 돌고있는 地球와 달도 모두 圜轉하는 圜運動을 行하는 것이다. 空間과 時間은 天地太一體의 兩作用으로서 時間의 推移하는 區間이 곧 空間이오 空間을 歷行하는 期間이 곧 時間이다. 空間에 圜運動이 있으므로 時間에도 또한 圜運動이 있어 地球와 달의 空間的 圜運動은 또한 晝夜 四時 晦望과 같은 時間的 圜運動으로 되는 것이오 따라서 天地間에 生生하고 있는 모든 生物의 生生에도 반드시 空間과 時間의 圜運動이 있어, 끝없는 生生을 繼續하는 것이니, 草木의 열매에서 싹이 나고 싹이 줄기로 되고 줄기에 다시 열매가 맺히며 虫類의 卵에서 幼虫이 나고 幼虫이 成虫으로되고 成虫이 다시 卵을 生하며, 鳥類가 卵을 生하고 卵에서 다시 鳥가 生하고 함과 같은 것은, 모두 空間的 圜運動과 時間的 圜運動의 兩象을 兼하여 世世로 繼承하여 窮치 아니하는 것이다. 天地가 萬物을 生生함에는 天地와 生物과의 사이에 또한 圜運動이 있어야 하고, 萬一 圜運動이 없으면 直線運動이 되고 直線運動은 어느때든가 또는 어느곳에서든가 반드시 끝나는데가 있고, 끝나는데가 있으면 窮함이 있어 永遠치 못한 것이다.

天地의 生生運動은 모두 圜運動을 行하고 있으므로 萬物의 構造도 모두 圓狀으로 되어 있으니, 저 日月 地球의 形態가 圓狀을 띠고 있음은 勿論이오, 地上에서 우리 人間을 비롯하여 鳥獸 虫魚 植物等의 構造가 모두 圓狀으로 되어 圓柱狀의 體幹 肢屬 莖葉等과 平圓狀의 顔面 木葉等과 圓球狀의 眼球 子卵 果實等과 圓孔狀의 耳孔 鼻孔 口腔等 無數한 圓狀物이 羅列되어 있고 甚至於 우리의 周圍를 둘러싼 山峰이 모두 圓狀이오 草木의 葉上에 맺힌 水滴도 圓球狀이오 水銀이나 鐵屬의 鎔液을 散布하면 또한 圓球狀이 되니, 이는 天地의 運動이 모두 圓空中을 圜行하여 暫時도 쉬지 아니하는 까닭에 萬物이 모두 그 作用을 받아서 圓狀을 띠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天에서 씨를 地에 下施하면 그 씨는 生物이 되어 어떠한 形態로든지 다시 天으로 圜行하는 것이오, 生物이 天으로 圜行한다 함은 父母가 子를 生하고 子가 父母를 닮아서 世世繼承하는 것이 곧 空間的 圜運動과 時間的 圜運動을 通하여 天으로 圜行하는 象이다. 萬物은 神에서 生하여 神을 父母로 하므로 萬物이 長成하여 神을 닮는 것이 곧 神과 萬物의 圜運動인데 神은 無形하니, 萬物이 어떻게 神을 닮을 수가 있는가 하면 神이라 함은 宇宙生命體의 精神이라 萬物의 精神이 神의 形像과 一致하는 것이 곧 神을 닮는 것이며 地上에 出生한 生物中에서 植物과 動物은 비록 神을 父母로하고 있으되 그 精神作用이 神을 닮을 수가 없으므로 世世繼承하는 子가 되지 못하는 것이오 오직 사람은 神의 子孫으로서 그 天性이 神을 닮아서, 天性에 神作用이 있고 死後에 다시 鬼神이 되는 것이므로 神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空間的 時間的으로 圜運動이 行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의 神은 自體가 永遠히 生生하시기 爲하여 사람을 生하여 함께 圜運動을 行하는 것이오, 여기에 사람의 靈貴性이 있는 것이다.

■ 動植物과 사람의 差異

動物에도 精神作用이 없는 것은 아니나, 動物의 精神은 神을 닮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과 動物은 모두 그 씨의 發生當時에 이미 그 體의 組織이 全然 相異하고 있는 까닭이다. 生物의 組織은 모두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사람의 體는 水火의 調和된 胎宮에서 胎育되므로 寒熱이 調節되어 頭部는 寒하고 寒한 部分에는 털이 生하며, 얼굴이나 몸같은 것은 水火의 烹湯作用에 依하여 熱하고 熱한 部分에는 털이 生치 아니하여 革이 되는 것이니, 胎宮 革卦의 「水火相息」과 「革面」은 이 뜻을 말한 것으로서, 水火相息이라 함은 烹湯作用이 行함이오 革面이라 함은 動物의 面上에는 털이 있어 毛皮가 되고 사람의 面上에는 털이 없어서 革이 된다 함이다. 사람은 몸에 陽氣가 盛하여 火氣가 炎上하므로 身體는 火의 炎上體와 같이 三角形으로 直立하여 天地를 貫通하고 天性이 또한 火炎體로 되어 頭腦에 依附하여 天을 向하며 天性은 水火가 調和되어 水는 透明하고 火는 光明하므로 透明作用과 光明作用으로써 事物을 接應하여 神作用이 行하며 火의 陽氣의 發揚作用으로 因하여 言語를 發宣하며, 身體가 直立한 까닭에 手指를 써서 器物을 工作하며, 言語와 手工이 있는 까닭에 文字를 發明하여 師傅의 敎가 行하니, 師傅의 敎는 神道이라 사람이 神道를 行하는 것이 곧 神을 닮는 所以이다. 動物은 그 씨의 發生하는 때에 이미 水氣가 勝하고 火氣가 적어서 火炎과 같은 炎上體가 되지 못하므로 그 胎宮에 水火의 烹湯作用이 行치 못하여, 소위 高等動物들도 얼굴이나 全身에 털이 生하여 毛皮에 싸여 있으며 水의 形은 水平으로 되어 地面을 橫平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水氣가 勝하고 있는 動物의 體는 모두 橫平하여 背를 하늘로 하고 腹을 땅으로 하여 天地를 直立치 못하며 사람은 그 體가 直立하므로 그 家族系統도 위의 祖上父母로부터 아래의 子孫에 이름과 같은 縱系와 夫婦 兄弟와 같은 橫系와의 兩系가 同居하여 水火의 調和를 이루고 있는데, 動物은 그 體가 平橫하므로 그 새끼를 乳養하는 期間 以外에는 縱系族屬이라는 것이 없고 오직 雌雄相從하는 橫系만이 있는 것이오, 사람이 天地의 神을 祖考로 모시는 것도 또한 縱系의 理에 依한 것이다. 動物은 火氣가 不足하

여 火의 光明이 弱하므로 精神作用이 어두우며, 陽氣가 적어서 發宣하는 힘이 없으므로 言語를 發치 못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食物은 大槪 水火로써 加工하여 그 精을 攝取하고, 飮用水는 到處에 있는 것이로되 오직 生命體인 土中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 生命水로 되어 물의 最精한 것이므로 飮用水는 井泉을 파서 마시는 것인데, 動物의 食料는 水土에서 生하는 天然物을 加工함이 없이 그대로 粗食하고 있으니, 動物은 火氣가 적어서 光明치 못하고 水氣가 비록 勝하되 水가 濁하여 透明치 못하고 한 까닭에 精神作用이 어둡고 濁하여 神을 닮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는 永遠不窮한 圜運動을 行하고 生生을 世世繼承하기 爲하여 먼저 植物을 生하고 그 植物을 生養資料로 하여 한 次元의 높은 動物을 生하고, 다시 植物과 動物을 生養資料로 하여 더 한 次元의 높은 사람을 生하고 사람의 天性으로 하여금 神을 닮게 하여 神과 사람이 함께 圜運動을 行하고 있으니, 이것이 天地가 사람을 生한 所以이오, 사람은 天地의 永遠한 生生作用의 一役을 맡기 爲하여 이 世上에 出生한 것이다. 動物이 植物을 生養資料로하고 사람이 動植物을 生養資料로하는 것은 萬物의 자라는 때에 相生과 相克의 作用을 어울러 行하는 天地의 自然法則이니 이는 動物과 植物은 陽氣가 不足하고 形質이 勝하고 天性이 여물지 못하여 神을 닮지못하는 것이므로 植物은 自體의 形質을 犧牲하여 神에게 바쳐서 윗 次元의 動物의 形質로 化하고, 動物이 또한 自體의 形質을 犧牲하여 神에게 바쳐서 윗 次元의 사람의 形質로 化하는 것으로서 모든 生物이 一聯이 되어 相生과 相克으로써 神을 닮는 作用을 行하는 運動이다.

植物 動物 사람의 一聯의 關係는 天地의 創造될때에 이미 定하여진 것이니, 이것을 生長成의 象으로써 보건대, 神이 처음으로 生物을 創造할 때에 生物의 基本組織인 形質을 먼저 만들고 純全히 神의 뜻인 自然法則을 따르게 하고 行動의 自由를 주지 아니하니, 이는 生物의 基本組織이 行動의 自由를 가지고 있으면 神의 自然法則을 어겨서 스스로 自體의 組織을 破壞하는 일이 있는 까닭이오, 生物의 基本組織은「生」의 象인데, 基本組織을

破壞하는 것은 곧 自體의 生을 破壞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物의 基本組織에는 自由가 없고 오직 自然法則을 順從할뿐이며, 이것이 最初로 創造된 植物이다.

萬物의 生生에는 모두 組織과 運行의 兩象이 있는데 植物은 行動의 自由가 없으므로 그 運行이라고는 土中에 着根하여 周圍에 있는 營養을 取하고 他力에 依하여 生殖作用을 行하는等의 本能生活을 營爲할뿐이니 이는 物이 다만 組織體를 가지고 살고만 있는 生의 象으로써 自然法則을 어기는 일이 없이 神의 뜻을 順從하고 있으나 行動의 自由가 없는 까닭에 또한 神에게로 還行하는 作用도 없는 것이다. 植物에는 草木의 數多한 種類가 있어 그 數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繁雜하니, 이는 植物이 各其 神의 體의 作用을 一部分씩을 나누어 받아서 그 個體를 삼는 까닭에 神의 體의 全體가 모두 部分으로 나뉘어서 數多한 植物種類가 생긴 것이오, 이 植物의 全種類의 作用을 하나로 綜合하여 놓으면 또한 神의 體의 全體作用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植物의 全種類는 곧 神의 體의 全體로서 地上의 모든 生物의 基本組織이 되는 것이다.

植物의 다음에는 植物의 基本組織인 形質을 바탕으로 하여 그 形質에는 亦是 組織을 變改할만한 行動의 自由가 없고 神의 自然法則을 따라서 生하고 자라고 老하고 죽고하면서 다만 그 形質을 유지여서 生育 生殖 長壽의 세 本能을 遂行할 수 있는 行動의 自由를 가지는 한 生物이 創造되니, 이가 곧 動物이다. 그러므로 動物은 植物의 形質을 그 體의 基本組織으로하여 自然法則을 順應하고 거기에 本能生活을 遂行할 수 있는 行動의 自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本能生活의 自由는 生物이 자라기 爲하여는 가장 基本되는 自由인데, 動物은「長」의 象이되므로 자라는 동안의 本能生活을 營爲하기 爲하여 行動의 自由가 있는 것이다. 다만 動物에는 天性中의 本能인 情만 있고 天性의 여무는 作用이 없으므로 神에게로 還行하는 作用이 없으며, 動物에도 數多한 種類가 있는 것은 動物이 各其 神의 情의 一部分씩을 나누어 받아서 그 本能을 삼는 까닭에 神의 情의 全體가 나뉘어서 數

多한 動物種類가 생긴 것이오, 이 動物의 全種類의 本能을 하나로 綜合하여 놓으면 또한 神의 情의 全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物의 全種類의 本能은 곧 神의 情의 全體로서 이것이 모든 生物의 本能의 源이 되는 것이다.

動物의 다음에는 植物의 形質을「生」의 基本組織으로하여 自然法則을 따르고 動物의 本能을「자라는 作用」으로하여 自由로이 行動하고 그 위에 神에게로 圜行하기 爲하여 그 形象은 神의 形象을 닮고 言語의 自由를 가지는 한 生物이 創造되니, 이가 곧 사람이다. 사람은 天地唯一神의 形像대로 되어 있으므로 世界人類가 單一種類로 되고 言語는 天性의 여무는 作用을 가진 者만이 使用할 수 있는 것인데, 說卦에「神이라 함은 萬物을 妙하게하고 言을 하는 者이라」하여 神이 萬物을 創造하고 사람에게 言語를 주어 서로 酬酌한다 함을 말함이니 이는 사람은「成」의 象으로서 植物의 形質과 動物의 本能을 合하고 또 神의 言語를 배워서 天性의 여무는 作用을 行한다 함이며, 사람이 言語를 通하여 神으로 더불어 酬酌할 수 있는 것이 곧 能히 神에게로 圜行하는 所以이다.

世人中에는 흔히 사람을 動物의 一種類로 보는 일도 있으나 사람과 動物은 그 生生하는 次元이 全然다르다. 사람은 植物의 形質로써 肉體의 組織을 삼고 그것이「生」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肉體는 植物과 같이 神의 自然法則을 따라서 生長老死하고 있으니, 人體中에 自然法則을 順從하는 것은 오직 이 肉體이며, 人體가 植物의 要素를 가지고 自然法則을 따라서 生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植物을 取하여 自體生養의 資料를 삼는 것이며, 사람은 動物의 自由行動하는 本能으로써 生活의 本能을 삼고 그것이「長」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肉體는 動物과 같이 本能을 따라서 行動하고 있으니 이 까닭에 人間의 本能生活은 모두 動物的이며, 人體가 動物의 要素를 가지고 本能生活을하여 자라고 있으므로 動物을 取하여 自體生養의 資料를 삼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生活이 本能生活에 그친다고 하면 이는 動物과 別로 差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사람은 그 形像이 神을 닮고 言語를 通하여 神으로 더불어 酬酌할 수가 있으므로 사람의 肉體中에 動物의 要素가 들어 있을 뿐이오 動物의 一種類는 아니다. 사람과 動物의 生長成하는 象을 比較하여 보더라도 天地自然數에 陽數의 終인 九數는 자라는 極數가되고 陰數의 終인 十數는 여무는 極數가 되는데, 사람은 男體는 九竅가 열리고 女體는 十竅가 열려서 陰陽長成의 極數를 가지고, 男女가 모두 女體의 十竅에서 九合朔을 지낸 十朔만에 出生하므로 自然數 五十五가 具全하여 陰陽이 調節되고 神의 作用이 行하는 것이며, 動物은 비록 高等動物이라 하더라도 九竅만이 열리고 十竅가 되지 못하므로 肉體만 자라고 天性이 여물지 못하는 것이니, 이가 사람이 動物보다. 한 次元 높은 位에 있는 所以이며, 이 까닭에 動物은 自體를 犧牲하여 사람을 生養하는 資料가 되는 것이 自體의 形質을 한 次元 높은 사람의 形質로 化하여 神에게로 한 次元 接近하는 所以이다. 神은 사람으로 더불어 圜行하기 爲하여 사람을 生하고 사람을 기르기 爲하여 動植物을 犧牲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天性이 여물어서 神을 닮는 修養을 쌓은 然後에, 自體를 犧牲하여 사람을 生養하고 있는 動植物에 對하여 그 恩德을 報答함이 되는 것이오, 만일 사람이 그 天性을 여물게 하지 못하고 한갓 자기 肉體가 살찌기 爲하여 다른 生物만을 犧牲하여 없애면 이는 無故殺生이 되어 天地生生의 大德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 神과 사람의 相祐

天地는 永遠不窮히 生生하기 爲하여 사람을 生하고 사람은 神을 닮아서 世世繼承한 然後에 生生의 任務를 다하는 것이니, 사람이 神의 法則을 본받아서 神의 事業을 祐하는 것이 곧 神을 닮는 일이다. 祐라함은 天佑神助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神을 돕고 神이 사람을 돕고 함을 祐라 하는 것이니, 繫辭에 「可히 더불어 神을 祐한다」 함은 사람이 神을 祐함을 말함이오 大有卦에 「天으로부터 祐한다」 함은 神이 사람을 祐함을 말함이다. 사람이 神을 祐한다 함은 神의 事業을 祐함이오 神의 事業이라 함은 神이 天地의

永遠한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사람을 生養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圜運動을 行하는 것이 곧 神의 事業이다. 그러므로 天地間에는 사람을 生養하는 일보다 더 큰 事業이 없고 萬物中에는 사람이 가장 靈貴한 것이며, 人間社會의 生生事業은 모두 神이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으로서 政治 學術같은 것도 비록 그것이 사람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營爲되고 있으되 그 事業은 神의 計劃에 依한 事業으로서 사람들이 神의 뜻을 받들어서 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自由意志가 있어서 神의 事業을 祐할 수도 있고 또 害할 수도 있는지라, 사람이 神의 뜻을 받들어서 神의 事業을 祐하는 것은 天을 順하는 것이오 天을 順하는 者는 天의 祐를 받는 것이며, 神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不善을 行하여 도리어 사람의 生生을 害하는 것은 天을 逆하는 일이오 天을 逆하는 者는 天의 祐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神의 子孫으로서 神으로 더불어 圜運動을 行하고 神의 事業을 祐하는 것이 곧 神을 닮는 것이니, 圜함과 祐함과 닮음과는 同一한 일에 對한 表現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것을 生生運動하는 面으로써 보면 圜運動이 되고, 世世繼承하는 面으로써 보면 神을 닮음이 되고, 事業을 行하는 面으로써 보면 神을 祐함이 되는 것이다. 乾文言에 「大人은 鬼神으로 더불어 그 吉凶을 合한다」 하니 이는 大人이 吉하다 하는 것을 鬼神도 吉하다하고 大人이 凶하다하는 것을 鬼神도 凶하다 한다는 뜻으로서 大人이 神을 닮아서 그 天性에 神作用이 있으므로 大人과 鬼神이 完全히 合致한다 함이다.

사람은 그 日常生活에 쓰고 있는 物資와 器具는 天然物을 그대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반드시 人工을 加하여 쓰며, 사람의 共同生活에 必要한 모든 制度는 天然物로는 全然 存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람이 自然法則을 본받아서 새로 制定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이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天地의 未成한 天工을 代行하고 天工은 사람을 待하여 完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繫辭에는 天地人을 三才라하니 才라함은 物을 創生하는 才能을 말함이라, 天은 萬物의 씨를 創生하여 地에 施하고 地는 天의 下施한 씨를 承受하여 形質을 創生하고 사람은 天然物에 人工을 加하여 그 所

用하는 物資를 生産하니 이는 天地人이 모두 物을 創生하는 才能이 있으므로 이것을 三才라 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이 地上에는 天地가 創生한 天然物과 사람이 加工한 人工物이 全域을 차지하고 그 以外에는 鳥類의 巢 蜂蟻의 집 거미의 그물 같은 것이 있을 뿐이며, 사람이 三才의 位에 있는 것이 곧 天地로 더불어 圜行하는 地位에 있는 所以이다.

人工物의 創製와 制度의 制定같은 것은 空間에 屬하는 일이오 時間의 運行에도 또한 天工과 人工과의 關係가 있으니, 이는 곧 사람이 天時를 順하는 일이다. 天時라 함은 一年의 四時나 生長成의 時運과 같은 것이니, 例컨대 봄이 오면 萬物은 發生하는 것이로되 百穀같은 것은 人工으로써 土壤을 耕起하고 씨를 심은 然後에 그 發育이 正常한 것이오 가을이 되면 百穀은 成熟하는 것이로되 여름에 人工으로써 培養한 然後에 가을의 結實이 完全한 것이니, 이가 人工으로써 天時를 順함이다. 天地의 時의 變化에는 時運이 있는데, 時運이 變할 때마다 사람은 그 時運에 맞춰서 制度를 새로 만들고 生活樣式을 變改한 然後에 各其 適宜함을 得하는 것이니, 生의 時運인 原始社會의 人間生活과 지금의 長의 時運의 人間生活의 相異한 것은 이 까닭이다. 그러므로 時運이 變할 때마다 반드시 先覺者가 나와서 새 時運에 맞는 새 生活을 指導 하는 것이니, 이는 비록 봄이 되어도 人工으로써 百穀을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完全한 結實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비록 時運의 變하는 때라 하더라도 사람이 人工으로써 그 時運에 맞는 事業을 行치 아니하면 그 時運에 맞는 天祐를 받지 못하는 까닭이다. 時運의 變化는 天工이오 時運에 맞는 事業을 行하는 것은 人工이니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 先覺者가 나와서 다음 時運을 豫見하고 그 時運에 맞는 事業을 人工으로써 創設하는 것이 또한 物을 創生하는 三才의 일이며 時運의 變하는 때가 오면 天工은 또한 반드시 人工으로써 天工을 代成할 수 있는 先覺者를 이 世上에 보내는 것이다.

第二節　自由意志와 善惡

■ 善惡이 모두 自由

사람의 天性이 發用함에는 自由가 있어 그것이 自由意志가 되는 것이니. 이는 사람은 各其 居住를 달리하고 그 居住하는 곳의 地宜 氣候 食物等이 同一치 아니하므로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自體의 生生을 適宜히 裁成할 수 있는 自由意志를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은 神을 祐하여 모든 生活資料를 生産하고 共同生活에 必要한 制度를 만들어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行하고 함에는 그 計劃을 세우고 才能을 發揮하여 人工을 行할 수 있는 自由意志를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自由意志는 그 出生하는 때에 天地로부터 稟受한 天賦의 自由이니 繫辭에「天下가 무엇을 思하며 무엇을 慮하리오 天下가 同歸하되 길은 다르고 一致하되 慮는 百이라」하니 同歸一致라함은 神에게로 歸一함을 말함이오 길이 다르고 慮가 百이라 함은 各自의 天性에 自由가 있다 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天性의 自由는 自體가 生生하고 또 사람을 生養하기 爲하여 天으로부터 받은 바의 自由로서 이것은 神을 祐하는 自由이오 天工을 代行하는 自由이다.

사람은 自由意志와 生을 營爲하는 知能이 있고 또 사람의 天性은 善의 繼生하여 여문 것이므로 天性은 善한 것인데 사람에게 惡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먼저 善惡이라는 것을 易理로써 보면 天性은 씨의 組織과 같은 것으로서 씨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곧 善인즉 씨가 여물지 아니하고 쭉정이로 되어 싹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善을 害함이 있는 까닭이오, 善을 害하는 것이 곧 惡이니, 이는 生生하여 發育함은 善이 되고 生生을 害하는 것은 惡이 된다함이며, 그러므로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돕는 것은 善한 일이오, 生養事業을 害하는 것은 惡한 일이니, 이가 善惡을 判別하는 標準이 되는 것이다.

或은 말하기를 神이 사람을 創造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自由意志

와 知能을 주어서 惡을 行하게하고 또 그 惡을 防止치 아니하는가 하는데, 神이 萬物을 創造하실 때에 먼저 植物을 지어서 行動의 自由와 知能을 주시지 아니하고, 다음에 動物을 創造하심에 行動의 自由만을 주시고 知能을 주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람을 創造하심에 天地唯一神의 形像대로 짓고 神 自身이 가지고 있는 自由意志와 知能을 그대로 주시고 神의 말하는 言語를 주어서 神과 사람이 서로 酬酌하게 하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고 여물어서 神에게로 還行하도록 하시었으므로, 사람은 人工으로써 天工의 未成함을 代成하고 天性이 여물어서 神作用이 生하여 天으로 還行하는 것이니, 사람의 自由는 사람의 자라는 동안 아무런 制限을 받지 아니하는 天賦의 自由이다. 神과 生命은 一體二元의 理로 되는데 神은 永遠한 生生을 主宰하므로 萬物의 씨를 創造하심에 모두 永遠性을 賦與하여 世世로 繼承케 하시니, 그러므로 萬物의 生長成運動에 있어서, 生의 象인 씨의 創造와 成의 象인 열매의 여무는 것은 神이 直接主宰하시고 씨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形質의 자라는 동안은 有形을 主宰하는 生命體가 그 任務를 맡고 있는 것이며, 物의 有形하는 동안에는 神은 形質中에 갈무리하여 다만 그를 따라 가실 뿐이다. 이것을 사람의 生生으로써 보면 사람의 씨의 始生하는 일과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神에게로 還行하는 일은 神이 主宰하시고, 사람의 出生以後에 肉體를 生養하고 精神을 修鍊하는 等 자라는 동안의 일은 하나의 獨立된 生命體로 되어있는 사람 自身의 任務로 되는 것이다.

神이 사람을 創造하실 때에 神의 形像대로 지은 까닭에 神에게 自由意志와 知能이 있음과 같이 사람에게도 自由意志와 知能을 賦與하신것인데, 사람은 자라는 동안에 그 自由意志와 知能을 마음껏 行使하여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도 있으며, 神은 다만 사람의 行爲의 結果에 대하여 害福을 주실 뿐이다. 害福이라 함은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善을 行하든지 惡을 行하든지 그것은 모두 사람의 自由이오 善이 쌓이면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神을 닮아 알맹이가 되고 惡이 쌓이면 天性에 神作用이 없어서 쭉정이가 되는 것이니, 이가 곧 害福이오 이것을 自然法則面으로써 보면 應報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自己의 自由意志대로 行한 行爲에 對하여 그 自身이 責任을 지는 것이다.

사람은 自身이 자라는 自由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을 자라게 하는 能力의 自由도 있어 能히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行할 수가 있는 것이오 여무는 일은 그렇지 아니하여 自身의 여무는 것도 神의 主宰에 屬하는 것이므로 남을 여물게 할 수는 없으며, 다만 師傅가 弟子의 天性을 여물게 하는 것은 師傅自身의 自由能力이 아니라 聖人이 設하여 놓은 神道의 敎로써 가르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神作用에 依하여서만 天性이 여물수가 있는 것이다.

●自由의 本質

사람에게는 자라는 동안에 自由意志가 있고 또 자라는 동안에 生長競爭이 있으므로 사람의 자라는 동안에는 各人으로부터 生長競爭의 自由가 發動하여 온 人類世界는 모두 競爭이오 모두 自由이니, 그러므로 이 世上에는 自己의 生存作用을 行하는것도 發揮하는것도 自由이오, 남의 生存作用을 侵害하는것도 自由이오, 勢力을 가진 者가 民衆을 抑壓하여 政權을 行使하는것도 自由이오 民衆들이 自體의 利益을 護衛하기 爲하여 政權에 對抗하는것도 自由이다. 過去의 資本主義 社會의 弱小民族侵略도 資本主義들의 自由이었고 지금의 共産主義者들이 民衆을 奴隸化하고 自體가 勞動貴族化하는 것도 共産主義者들의 自由이다. 自由라는 것은 本質이 이러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自由에 對하여 所謂 사람의 自由를 尊重하여 이러한 自由도 尊重하고, 저러한 自由도 尊重한다면, 이 世上에는 强者만이 살고 弱者는 살 수 없어서 이 世上에는 自由라는 것이 全然抹殺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自由를 行使하는 行爲에는 스스로 남의 生을 爲하는 行爲와 남의 生을 害하는 行爲가 있고 남의 生을 爲하는 行爲는 善이 되고 남의 生을 害하는 行爲는 惡이 되는 것이다.

●善惡의 標準

善惡이라는 것을 人體로써 보면 健康은 善이오 疾病은 惡이니 이는 健康은 사람을 生하게하므로 善이 되고 疾病은 사람의 生을 害하므로 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

람은 獨立한 個體로 되어 있어 그 모든 行爲는 徹頭徹尾 自己個體의 生을 爲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오, 決코 남을 爲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行爲가 어떻게 남의 生을 爲할 것인가 하면, 사람의 自由行爲에는 體와 用이 있다. 사람은 個體로 되어 있어 그 行爲는 반드시 個體의 生을 爲하는 것이므로 個體의 生을 爲하는 行爲는 自由行爲의 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共同生活을 營爲하기로 되어 있는 까닭에 自己가 自己個體의 生을 爲하는 方法은 두 가지 길이 있으니 卽 自己가 남을 爲하지 아니하고 오직 自己個體만을 徹底히 爲하는 個人主義를 通하는 길과 自己가 남을 爲하고 그 남들로 하여금 또한 나를 爲하게 하는 共同體를 通하는 길이 있다. 自己가 남을 爲치 아니하고 오직 自己個體만을 徹底히 爲하는 個人主義의 길은 結局이 넓은 社會안에서 自己를 爲하는 사람은 自己 혼자 뿐이며, 自己가 남을 爲하고 그 남들이 또한 나를 爲하는 共同體의 길은 結局 이 넓은 社會가 모두 나를 爲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넓은 社會가 모두 서로 爲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人類社會의 本然의 姿勢이오 사람이 남을 爲하는 行爲가 곧 自己의 生을 爲하는 行爲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남을 爲하는 行爲는 自由行爲의 用이 되는 것이다. 이 體와 用의 理를 要約하면 사람의 自由行爲의 體는 自身이 直接으로 自己個體의 生을 爲하는 것이오 自由行爲의 用은 남을 爲하여 間接으로 自己個體의 生을 爲하는 것이니, 사람의 自由行爲에 이 體와 用이 具備한 然後에 能히 그 生을 完遂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體만 있고 用이 없으면 제 自身 혼자만이 自身을 爲하는 사람이 되고 이 世上에서 남과 相接할 수 없는 孤身隻影이 되고 易理에는 이러한 사람을 器局의 좁은 小人이라 하고 惡을 犯하는 者는 남의 生을 爲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小人들이라고 한 것이다.

器局의 좁은 小人들은 그 眼界가 적으므로 그 個體의 生을 營爲할 때에 저 혼자가 제 生을 爲하드래도 社會에 큰 害가 없는 것이나, 만일 그러한 小人들이 社會의 支配權을 가지는 때는 社會로 하여금 自己의 個體를 奉養케 하여 드디어 큰 惡에 빠지는 것이다.

■ 지금의 人間은 자라는 過程에 있는 未成品

사람의 天性은 善한 것인데 지금에 人間社會에서 惡이 자주 發生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사람의 天性이 善하다 함은 天性의 여문 것을 말함이오 사람의 자라는 過程에는 아직 天性이 여물지 못하여 온전한 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자라는 過程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未成品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지금은 長의 時運에 當하여 사람들이 모두 未成品으로 되

어있어, 사람들의 天性이 또한 未成品으로 되어 있으므로 善이 되지 못하고 惡이 發生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모든 生物은 個體를 가지고 生育하는 本能이 있으므로 個體의 자라는 때에는 반드시 生長競爭을 行하여 他를 克制하는 것이오 特히 長의 時運中에 있어서는 그 生長競爭의 結果가 惡에까지 發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樹木의 例로써 보건대 樹木은 아무 意識이 없으되 또한 生長競爭作用을 가지고 서로 排斥하면서 自體의 生長을 期하고 將且 열매를 맺고 여물어서 世世繼承하여 永遠不窮히 生生하려 하는 것이며, 만일 生長競爭에 敗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 世世繼承의 作用이 끊어지는 것이므로 樹木은 열매를 맺기 爲하여 生長競爭을 行하는 것이다. 그러나 樹木에는 自由意志가 없고 全혀 自然法則을 順하여 神의 生生事業을 害하는 일이 없으므로 惡은 發生치 아니하는 것이다. 動物같은 것은 自由意志를 가지고 生長競爭을 行하고 있으나 그 것은 相互間의 衝突에 不過하고 意識的 計劃的으로 神의 生生事業을 害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惡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은 生長競爭을 行하는 때에 意識的 計劃的으로 他를 克하여 神의 生生事業을 害하는 일이 있으므로 生長競爭의 激甚한 長의 時運에 惡이 發生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惡의 生하는 것을 人體의 組織으로써 보건대 사람의 精神과 肉體는 一體二元의 理로 되는데, 精神에는 神作用이 있어 萬人公共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理性이 있고 惡이 없으며, 肉體는 個人마다 各各 私有한 個體로서 거기에는 本能의 感情이 있고 感情에는 彼我의 區別이 强하고 個體의 私가 生하는 까닭에 흔히 理性이 밝지 못하고 和氣를 傷하여 惡이 生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善을 쌓으면 天性이 여물어서 알맹이가 되고 惡을 쌓으면 天性이 여물지 못하여 쭉정이가 되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인데, 惡이 쭉정이로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神은 사람의 自由로운 生生을 爲하여 또 自由로이 자라게 하기 爲하여 사람의 자라는 동안에 사람에게 自由意志를 賦與하고 사람은 自由意志에 依하여 모든 所願을 成就하는 것이므로 神은 사람

이 自由意志를 行使하는 동안은 善惡間에 사람의 行爲를 그대로 許하고 사람의 所願하는대로 따라가시는 것이니 이는 사람에게 自由意志가 있은 然後에 充分히 자랄 수 있는 까닭이며, 사람의 言行은 天地圜行의 理에 의하여 善惡間에 모두 神에게로 올라가고 神은 그것을 받으시는 대로 모두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어 그 사람의 所願을 成就시키시는 것이다. 卽 사람은 善을 行하면 善이 쌓여서 자라고 惡을 行하면 惡이 쌓여서 자라는 것이며, 善의 자란 것은 열매가 여물어서 永遠한 씨가 되는 것이오 惡의 자란 것은 쭉정이가 되어 生生이 끊어지는 것이니, 사람이 善을 行하는 者는 열매가 되기를 願하는 者이오 惡을 行하는 者는 쭉정이가 되기를 願하는 者이라, 自身의 自由意志로써 善惡을 行하여 열매가되고 쭉정이가 되고 하는 것은 모두 그 所願을 成就하는 일이다.

坤卦에 「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이라 하니 이는 사람이 自由意志로써 善惡을 積하여 그 所願하는 慶殃을 받음을 말함이며, 여기에도 또한 圜運動의 象이 있으니, 自家에서 善함이 나가면 반드시 善의 應報가 돌아오고, 自家에서 不善함이 나가면 반드시 不善의 應報가 돌아오는 것인데, 自家에서 나가서 自家에 돌아오는 것은 空間的 圜運動이오, 지금에 나가서 後日에 돌아오는 것은 時間的 圜運動이다. 여름에 草木의 자랄 때에는 어느 열매가 알맹이로 되고 어느 열매가 쭉정이로 되고 할 것을 分別할 수가 없는 것이나, 가을이 되면 알맹이와 쭉정이가 스스로 選別되어 알맹이만 남고 쭉정이는 消滅되는 것이니, 이는 天地의 生生法則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라는 때에 自由意志의 길을 바르게 向하여 充實히 자라면 알맹이가 또한 充實히 여무는 것이오 充實히 자라지 못하면 비록 成의 時運이 到來하더라도 充實한 알맹이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지금의 人間은 長의 時運에 處하여 아직 여물지 못한 未成品이 되고 있으므로 惡을 行하는 일이 있어 쭉정이로 되는 者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人體로써 보면 健康은 사람의 生命을 完全히 하는 것이므로 善하여 알맹이의 象이 되고 疾病은 사람의 生을 害하여 死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惡하여 쭉정이의 象이 되는 것이다.

人間社會안에 사람의 生을 害하는 惡人이 있는 것은 사람의 身體에 疾病이 있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身體의 疾病을 治療하여 그 生을 完全하게 하는 것은 비록 疾病治療中에 그 사람에게 苦痛을 주고 身體一部를 手術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善이 되고 惡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理에 依하여 社會안의 惡人의 自由를 拘束하고 嚴刑을 加하고 하는 것은 社會의 疾病을 治療하여 그 社會의 生을 完遂하기 爲함이니, 그러므로 이것은 善이 되고 惡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革卦에「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이라 함은 天時와 人心에 順應하여 社會안의 惡政治를 除去하고 社會의 生을 完遂하는 事業을 行함을 革命이라 한 것이다. 여기에 革命이라 함은 順天應人하는 革命을 말하는 것이므로 革命은 善한 것이며, 長의 時運에 勢力의 强弱으로써 서로 政權을 爭奪하는 것은 비록 政權을 奪取하되 그것은 社會를 生生하는 運動이 아니므로 革命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性惡說

사람의 天性을 惡하다고하는 性惡說이 있는데, 天性은 사람의 모든 行爲를 主宰하여 人體의 健康함과 같은 것이므로 天性은 반드시 善한 것이며, 저 所謂 性惡說은 마치 世間에 疾病에 걸린 사람이 많음을 보고 사람의 몸은 疾病으로서 組織되었다 함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몸은 健康으로서 組織되고 疾病 같은 것은 一時的 不健康 現象에 不過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天性은 善한 것이오 저 惡같은 것은 生長競爭의 過程에서 天性이 疾病에 걸려서 一時的으로 發生하는 것이오 天性에는 惡이 없는 것이다.

■ 天命은 一生의 使命

사람에게는 自由意志가 있어 神의 自然法則을 어기고 惡의 發生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람은 그 出生하는 때에 自體의 生生을 營爲함에 必要한 天性을 天으로부터 稟受하는 同時에 또한 世上에 出生하여 어떠한 일을 한다는 使命을 天으로부터 아울러 稟受하니, 이가 天命이오, 乾卦에 「乾道가 變化

하여 各各 性命을 正한다」 함은 物이 天性과 天命을 바르게 行한다 함을 말함이다. 天性은 圓深通明하여 空間의 象이 되고 天命은 사람의 一生동안에 遂行할 바의 使命이므로 時間의 象이 되는데, 空間은 사람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그 一部를 變改할 수가 있으므로 天性에는 自由가 있어 能히 空間의 自然物에 對하여 人工을 加할 수가 있는 것이오 時間은 사람의 힘의 全然 미치지 못하는 境域이므로 스스로 旣定된 使命이 있어 사람은 天時를 奉行하면서 그 使命을 다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生物이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여 이 世上에 生한 者는 반드시 天命을 받고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生物이 世上에 나올 때에 다만 偶然忽然히 되는대로 오다가다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神의 體의 一部分을 나눠 받고 나온 까닭이다. 植物이나 動物은 數多한 種類로 나뉘어서 生하고 있는데, 이들은 形質을 主로 하고 있으므로 그 所謂 天命이라는 것은 그 種類의 形質의 生生繼承하는 일이니 그 一例로는 楊木은 楊木으로 生하여 楊木의 씨를 保有하는 것이 그의 天命이오, 桑木은 桑木으로 生하여 桑木의 씨를 保有하는 것이 그의 天命이오, 牛는 牛로 生하여 牛의 씨를 保存하는 것이 그의 天命이오 馬는 馬로 生하여 馬의 씨를 保存하는 것이 그의 天命이다. 그러므로 楊桑牛馬는 모두 그 種類대로 共通한 個性을 가지고 同一한 任務를 遂行하여 모두 自然스럽게 그 天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單一種類로 되어 共同生活의 社會를 組織하고 사람의 生活은 極히 複雜하여 반드시 分業協業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은 그 種類는 單一하고 있으되 그 性格 知識 技能 같은 個性은 實로 千差萬別한 것이니, 사람의 個性의 千萬가지 差異는 動植物의 千萬가지 種類의 差異와 匹敵하는 것이며, 사람의 自由意志에 依한 分業協業으로써 神의 事業을 祐하기 爲하여 各其 獨殊한 性格 知識 技能等 個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天命이다. 사람은 獨殊한 個性을 가지고 神의 事業을 祐하는 것으로써 一生의 使命을 삼고 있으므로 사람은 動植物과 같이 自體의 形質이 자라고 子孫을 繁殖하고 하는 것으로는 天命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動植物은 數多한 種類로 나뉘어 있으므로 그 種族保存이 한 使命으로 되어 있으나, 사람은 世

界人類가 모두 單一種類로 되고 있으므로 그 種族의 保存은 天命이 되지 아니하고 人類全體의 生生을 爲하는 事業이 天命으로 되는 까닭이며,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自由意志로써 그 使命을 다하는 것은 天命을 順함이되고 使命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天命을 逆함이 되는 것이다.

天命인 使命은 사람의 一生동안에 遂行하는 일이므로 어느 一面으로는 運命도 되는 것이니. 마치 動植物의 楊桑牛馬는 一生을 楊桑牛馬로 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完全히 運命으로 되어 있음과 같은 것이다. 이런 面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天命도 또한 運命이 되는 것이오, 또 사람의 살고 있는 時運도 時間에 屬하여 있으므로 또한 運命이 되는 것이니, 사람은 時運이라는 運命의 속에서 살면서 그 稟受한 바의 使命을 다하고 있으므로 그 一生의 活動은 스스로 運命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時間속의 人間의 實生活은 空間에 屬하니, 空間에 屬하는 일은 人工으로써 善하게 할 수도 있고 惡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비록 어떠한 時運이 到來하더라도 사람은 그 時運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오 空間에 屬하는 일은 最善의 人工을 加하여 人間生活에 利用하고 人工으로써 할 수 있는 人事를 다한 然後에 時運을 待하는 것이 곧 天命을 順함이다.

天性과 天命은 하나는 自由이오 하나는 運命으로서 서로 對立하고 있는듯하나, 두가지가 모두 天으로부터 稟受한 것으로서 그 本源이 同一하므로 사람은 그 自由意志로써 天性의 至善을 다하고 天命을 順하여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行하는 때에 天性의 自由와 天命의 運命이 스스로 一致하는 것이니, 說卦에「理를 窮하고 性을 盡하여 써 命에 至한다」함은 天性과 天命의 一致한 境地를 말함이오 天性과 天命의 一致한 者는 天性의 여문 者이다.

그러나 사람은 自身의 稟受한 天命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天命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가 이 世上에 태어난 使命을 다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비록 天命을 알지 못하고 있으되 人間으로 神을 祐하는 일을 行하면 또한 스스로 使命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 이는 人

類의 共同生活에는 여러 가지의 分業協業이 있으되 그 歸着하는 곳은 모두 神을 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第三節　孝 忠 義는 三大倫

■ 孝忠義는 神道이다

사람의 行動하는 倫理로서 神과 相通하는 三大倫이 있으니, 三大倫이라 함은 父子道의 孝와 國民道의 忠과 夫婦道의 義를 말함이다. 孝忠義의 三大倫은 神의 垂示하신 天倫인데, 長의 時運의 사람들은 자라는 過程에 있어 生長競爭을 行하여 自己의 自由意志를 主張하고 神의 뜻을 알지못하여 이 天倫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도리어 當時의 君主와 貴族들에게 잘못 利用된 일도 있는 것이며, 成의 時運에는 이것이 人間社會의 最大 倫理로 되는 것이다. 三大倫은 남만을 爲하는 것이 아니라 結果的으로는 自身의 生生을 爲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天地가 圜運動을 하여 自身에서 나간 善不善이 다시 自身에게로 돌아온다는 原理도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三大倫은 人間社會의 모든 道德의 發源이 되는 것이다.

■ 孝의 原理

孝는 天地의 生生原理의 中心이 되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生하고 자라고 함에는 神으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祖上父母의 天命의 줄을 通하여 天命을 받는 것이므로 天命의 줄을 連繼하는 것이 곧 孝이다.

註 ●孝의 理

萃卦에「王假有廟致孝享也」라 하여 子孫이 廟를 세워서 父母의 神을 奉享하는 것을 孝라 하고 그 다음에「用大牲順天命」이라하여 母가 子의 出生을 爲하여 自身은 犧牲하는 것을 天命이라 하니 이는 父母가 終하고 子가 父母를 繼承하여 天命을 잇는 것이 곧 孝라 한 것이다.

사람의 살고 있는 이 地球는 太陽을 中心으로하여 公轉하고 神이 또한 太陽에 位居하심으로 사람은 地球와 함께 太陽을 公轉하면서 또한 神을 中心으로하여 圜行하는 것이오, 太陽과 地球와의 사이에 電氣와 磁氣를 因한 引力의 줄이 있으므로 神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또한 天行健의 雷風의 氣를 因한 天命의 줄이 있어 祖孫系統의 줄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圜運動은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으로 되어 있는지라, 사람이 無形한 天祖神에서 出生하여 有形으로 되어 子子孫孫이 한 世代씩 늘어 나가는 것은 中心에서 멀어지는 遠心運動이오 사람의 遠心運動은 各人마다 그 位置가 다르고 世代마다 그 軌道가 늘어나서 同一한 位置 同一한 軌道를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사람은 얼굴이나 性質의 全然 同一한 者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오, 사람의 出生한 以後에 그 向하여 나가는 길은 有形으로부터 다시 無形으로 되어 天祖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는 中心을 찾아가는 向心運動이며, 그러므로 사람은 그 出生하는 날부터 一生동안의 걸어가는 行路는 神의 계신 곳으로 向하여가는 것이다.

사람은 神을 中心으로하여 間斷없이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을 아울러 行하고 있으니, 遠心運動을 行하는 것은 空間的으로 無限히 擴大하기 爲하여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여 中心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形質의 자라는 運動이오, 向心運動을 行하는 것은 時間的으로 無窮히 繼承하기 爲하여 遠心의 終點에서 未來의 始點을 찾아서 無形한 中心을 向하여가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天性의 여무는 運動이다. 天地의 生生運動은 모두 圜運動으로 되고 直線運動은 없는지라, 사람이 祖上으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 生生運動이므로 반드시 圜運動이오 直線運動이 아니며, 圜運動에 連結되어 繼續하는 生生運動은 또한 圜運動이므로 사람이 向하여가는 길도 또한 直線이 아니오 반드시 圜運動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圜運動을 行하여가는 길은 그것의 圓形이거나 螺旋形이거나를 勿論하고 반드시 始發하는 中心을 向하여 圜行하는 것이다.

사람이 神을 中心으로한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은 스스로 神과 사람과의 사

이에 連繼되어있는 줄을 通하여 行하는 것이오 이 줄은 사람의 祖上이 神에서 出生하여 世世로 繼承하여 내려오는 줄이므로 이것은 天命의 줄이 되는 것이다. 地球와 太陽과의 引力의 줄은 遠心運動의 줄과 向心運動의 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相反되는 두 運動을 한 줄로써 行하고 있음과 같이, 神과 사람과의 天命의 줄도 또한 한줄로 되어 있어 祖上으로부터 世世連續하는 遠心運動의 줄이 곧 사람이 神에게로 圜行하는 向心運動의 줄이 되어, 사람이 神에게로 돌아감에는 반드시 祖上父母의 내려오신 줄을 도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다. 神과 사람과의 天命의 줄에는 祖上父母의 位도 있어 神을 向하는 向心運動은 반드시 同一한 줄에 位하신 여러 祖上父母의 마디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므로 神을 向하는 마음이 곧 祖上父母를 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神의 事業을 祐하는 때에 비로소 天命의 줄이 連繼되어 神에 對한 孝가 되는 것이오, 神을 向하는 마음이 곧 祖上父母를 向하는 마음이므로 神에 대한 孝가 바로 祖上父母에 對한 孝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神에 對한 孝가 없이는 祖上父母에도 孝가 되지 못하며, 또 祖上父母에 對한 孝가 없이는 神에도 孝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神에 對한 孝라함은 사람이 神의 事業을 祐하는 일이라, 사람이 神을 祐하면 神은 圜運動의 理에 依하여 사람의 祐를 받으시는 대로 天惠를 내리어 사람을 祐하시는 것이니, 이는 사람이 神을 祐하는 일이 또한 自身이 神의 祐를 받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神에게 孝하는 것은 또한 自身의 生生을 爲하는 일이오 神이 天惠를 내리어 사람을 祐하시는 것은 또한 그 子孫을 生養하여 永遠한 生生事業을 行하시기 爲함이니 이와 같이 神과 사람이 相祐하여 天地가 永遠不窮히 生生하는 것이 孝의 原理로 되는 것이다.

孝의 原理로써 보면 子孫이 祖上父母를 爲하는 것은 곧 自身의 生生을 爲하여 自身과 神과의 天命의 줄을 連繼하는 일이오 祖上父母가 子孫을 愛育하는 것은 또한 自身의 世世繼承하는 生生을 爲하여 自己子孫과 神과의 天命의 줄을 連繼하는 일이다. 子孫이 祖上父母를 爲하고 祖上父母가 子孫을

愛育하고 하는 것은 모두 自己의 生生을 爲하는 일이면서 또한 子孫은 祖上父母의 功德을 報答하고 祖上父母는 神의 子孫을 生養하여 神의 事業을 祐하는 것이니 祖上父母와 子孫과의 사이는 自와 他를 超越하여 同一한 天命의 줄위에서 生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孝라는 것은 다만 生存한 父母를 爲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天性을 여물게하고 神의 사업을 祐하여 神을 向하는 마음과 이미 作故하신 祖上父母를 向하는 마음이 一致하고 아울러 手下의 子孫들에게 善言善行을 垂範하여 祖上父母와 手下子孫들과의 사이에 天命의 줄이 連繼되게하는 것이 곧 作故하신 祖上父母에 對한 孝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祖上神에서 出生하여 時間的 繼承으로는 祖上과 子孫의 繼世하는 系統이 되고 空間的 擴大로는 世界人類의 連枝하는 兄弟의 誼가 되는데, 사람이 神의 事業을 祐하여 사람을 生養한다 함은 別다른 남이 아니오 곧 자기의 世界兄弟를 生養하는 것이다. 世界人類는 비록 皮膚色이 서로 다르고 言語風俗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모두 同一神에서 出生하여 同一祖上을 모시고 있는 兄弟이오 비록 寸數의 늘고 발고 한 差異는 있다 하더라도 各自 分離된 남남이 아니며 소위 同民族과 異民族의 差異라는 것은 다만 寸數의 늘고 발고 함과 婚姻을 通하고 通치 아니하고 한 差異 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람이 有形한 肉體로써 서로 接觸하는 것은 極히 局限되어 있으되 無形한 天性에는 神의 作用이 있어 全人類가 모두 共通한 것이니, 易卦에는 달에서 사람의 씨의 生함을 象한 卦名을「同人」이라 하고 거기에 또「天下의 志를 通한다」고한 것은, 人類의 씨가 모두 달에서 出生하여 그 本源이 同一하고 天下사람의 志가 서로 通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人類가 兄弟의 誼로써 서로돕고 서로 親和하는 것은 神의 生生事業을 祐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神에 對한 孝가 되는 것이다.

■ 忠의 原理

忠은 사람은 自體가 生生하기 爲하여 心의 體인 德을 光明케하여 自體가 所屬하여 있는 社會의 生生을 돕고 事業을 修하는 것이 곧 忠이다.

註 ●忠의 理

乾文言에 「忠과 信이 써 德을 進하는 바이라」 한바 德이라 함은 사람이 物을 生養하는 마음의 體를 말함이니, 忠은 中心으로부터 物을 愛育하는 마음이 솟아나옴을 말함이오 마음이 忠하면 能히 物을 生養한다 함이다.

사람은 國家社會의 共同生活體의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 共同體의 生生을 爲하여 中心에서 나오는 共同生活 精神이 곧 忠이다. 사람은 그 社會에 出生하는 날에 스스로 그 國家社會의 一員이 되어, 國家社會의 生生이 곧 自身의 生生과 直結되는 것이므로 國民은 國家의 生生을 爲하여 忠하는 것이 곧 自身의 生生을 爲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自身의 生生을 爲하여 各其職務를 通하여 自己를 利하고 아울러 社會를 利하여 사람을 生養하는 일에 參與하는 것은 國家社會의 生生을 爲하는 忠이 되는 同時에 또한 神의 事業을 祐하여 神에 對한 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生活에는 形質로된 肉體의 生活과 天性作用인 精神의 生活과의 二元作用이 있는데, 肉體는 有形한 個體로 되어 個個人의 獨自한 것이므로 肉體生活은 個體를 中心으로하여 行하는 것이니, 이가 곧 本能生活이오 精神은 無形한 氣로서 人類共通한 것이므로 精神生活은 全人類의 所自出한 神을 中心으로 하여 行하는 것이니, 이가 곧 理性生活이다. 사람의 精神은 神을 中心으로하여 生活하고 있으므로 祖上父母에 對한 孝가 또한 神에 對한 孝가되고 國家社會에 대한 忠이 또한 神에 對한 忠이 되는 것이며 同一히 神을 祐하는 일에 孝와 忠의 分別이 있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이것을 繼繼生生하는 祖孫傳承關係로써 볼 때에는 孝가되고 共同生活하는 上

下組織關係로써 볼 때에는 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植物의 形質을「生」의 基本組織으로하여 自然法則을 따르고, 動物의 本能을「자라는 作用」으로하여 自由로이 行動하며, 또 이들 植物과 動物을 生活資料로 하여 生生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生生法則이 植物動物과 同一하고 사람의 忠孝의 理도 또한 植物動物의 生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草木이 뿌리로부터 漸次로 生長하여 本末의 次序가 있는 것은 사람이 祖上으로부터 代代로 繼承하는 形態와 같고 草木의 生長에 節이 있는 것은 사람의 祖孫傳承하는 寸數의 形態와 같으니 根本은 祖上父母의 象이오 枝葉은 子孫의 象이라 草木의 枝葉은 그 所自出한 根本을 庇護하기 爲하여 枝葉을 뿌리의 伸張한 範圍만치 伸張시켜 뿌리가 日光에 乾燥됨을 防止하고 뿌리는 水分과 營養을 吸收하여 枝葉에 傳達하여 根本과 枝葉이 모두 그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서로 庇護하고 서로 養育하니 이는 사람의 祖上父母와 子孫이 서로 그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天命의 줄을 連繼함과 같은 것이며, 草木의 枝葉이 그 根本을 爲하는 것은 孝의 象이 되므로 사람이 祖上父母를 爲하는 孝는 草木의 孝의 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動物體의 各器官은 順次的으로 生長分岐하는 草木과는 달라서 그 出生하는 때에 統體가 이미 組織되고 있는 것은 사람이 出生하면서 스스로 그 所屬한 共同生活體의 一員이 됨과 같고 動物體의 各器官이 그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共同으로 그 統體의 生生을 營爲하는 것은 사람이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그 所屬한 國家社會의 生生을 돕고 있음과 같은 것이며, 動物體의 各器官이 그 統體를 爲하는 것은 忠의 象이 되므로 사람이 國家社會를 爲하는 忠은 動物體의 忠의 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間의 모든 生物의 生生은 모두 孝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序卦에「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이라 하니 父子는 植物體의 象이오 君臣의 權力組織인 國家道는 動物體의 象이오 上下道는 自然秩序인 禮義의 錯하는 人道의 象이니, 이는 植物이 있은 然後에 動物이 있고 動物이 있은 然後에 사람이 있다하

는 象이다. 父子道는 父母가 全力을 다하여 子女를 生養하여 國家社會에 바치는 것으로서 이는 植物이 自體를 犧牲하여 動物體를 生養하는 象이오 國家道는 國家가 全力을 다하여 사람을 生養하여 그 天性을 여물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動物이 自體를 犧牲하여 사람을 生養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自體를 生養하여주는 植物動物의 恩德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自體를 生養하여주는 父母 國家의 恩德을 잊지 아니하는 行爲와 相通하는 것이오 이 自體를 生養하여주는 恩德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곧 孝忠의 길이다.

■ 義의 原理

義는 義라함은 陰陽兩物이 서로 和合하여 하나의 새로운 合同體를 이루는 것이오 그러므로 一夫一婦의 配合하는 것을 天地의 大義라 한 것이다

註 ●義의 理

家人卦에「男女正天地之大義」라 하고 歸妹卦에「天地之大義」라 하니 이는 夫婦의 陰陽和合을 義라 한 것이다.

사람의 社會生活은 家庭을 基本單位로 하여 行하는 것이므로 家人卦에는「家를 正하매 天下가 定한다」하여, 各個의 家庭이 社會組織의 基本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또 「男이 外에 正位하고 女가 內에 正位하여 男女가 正함은 天地의 大義」라 하여 夫婦라 함은 一男一女가 서로 和合하고 各其 內外의 位가되어 한 家庭을 이루는 것이므로 一夫一婦가 相配하는 것이 곧 大義라 함을 말하고, 損卦에는「三人이 行하면 一人을 損하고 一人이 行하면 그 友를 得한다」하여, 二人相配하는 一夫一婦制가 天地의 道라 함을 말한 것이다. 天下의 衆男衆女中에서 오직 一男一女가 相合하여 夫婦가되

니 그 夫婦의 義가 大한 것이오 夫婦가 된 然後에는 一生동안에 夫는 一婦를 爲하고 婦는 一夫를 爲하여 함께 살고 있으니, 그 夫婦의 義가 和한 것이며, 男女가 一夫一婦의 義를 지키는 것은 서로 그 相對便을 爲하는 일인 同時에 또한 서로 그 自身의 生生을 爲하는 일이다.

易卦에는 男女의 婚姻 夫婦의 家庭 童蒙의 出生의 세곳에 모두 神道를 말하니, 이 세 가지는 家庭生活의 主要한 일이오 그 中에서도 家庭의 秩序를 세우는 夫婦의 義가 그 中心이 되고 있어 家道를 正한 然後에 國家社會의 生生事業도 行할 수가 있고 孝忠한 子孫도 이러한 家庭에서 出生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夫婦間에 義의 和한 家庭은 또한 사람을 生養하는 神의 事業을 祐하여 神道가 行하는 것이다.

●生活의 體用

世間에는 個人主義思想을 가지고 自己의 個體의 生만을 爲하고 他人의 生을 不顧하는 일이 許多한데 이것은 生活의 體用을 알지못하는 까닭이다. 自體의 生을 爲하는 것은 生活의 體이오 他人의 生을 爲하는 것은 生活의 用이니, 사람은 내가 남을 爲하는 때에 남이 또한 나를 爲하여 비로소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것이라, 사람이 自體의 生만을 爲하고 남의 生을 爲하지 아니하면 이는 生活의 體만있고 生活의 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남으로 더불어 共同生活을 營爲하지 못하고 孤立 獨存한 生活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오 人間은 孤立獨存으로서 生活할 수는 없는 것이다. 忠孝義의 原理도 實은 生活의 體用에서 生한 것이다.

第五章　未來의 成의 時運

第一節 世上의 變化

■ 先天과 后天의 時運

지금 이 時點은 萬物의 자라고 있는 長의 時運이오, 物의 자라는 者는 반드시 여물어서 成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오는 未來時運은 成의 時運이다. 옛적에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올 때에는 生의 時運을 先天이라 하고 長의 時運을 后天이라 하였는데 지금에는 長의 時運으로부터 장차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先世 乾坤으로부터 次世代의 乾坤이 生하는 것이므로 生과 長의 두 時運을 合하여 모두 先天이라 하고 成의 時運을 后天이라 한다. 后字는 後라는 뜻과 女王이라는 뜻과 先世를 繼體한다는 뜻과의 세 가지 뜻이 있으므로 長하는 陽運의 後에 成하는 陰運이 繼하고 陰運은 女의 象이라 하여 未來의 成의 時運을 后天이라 한 것이다.

時運의 長과 成의 象을 樹木의 生生으로써 보면 여름에 樹木의 陽氣가 內部로부터 外部에 發宣하고 水液이 뿌리로부터 위로 逆上하고 無形에서 有形한 줄기 가지 잎사귀가 나와서 여러 갈래로 나뉘우고 하는 것은長의 時運의 象이오, 가을에 外部의 陽氣가 樹木의 內部에 들어가서 收斂하고 水液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뿌리로 돌아가고 열매가 여물어서 次世代의 씨로 되고하는 것은 成의 時運의 象이다. 지금의 長의 時運의 일을 옛적의 生의 時運의 일에 比하여 보면 人間界의 일만으로써 보더라도 無形에서 有形이 生한 것과 少에서 多가 生한 것이 그 大部分이니, 옛적보다 人文이 發達하고 人口가 膨脹한 것도 長의 象이오 사람들의 各種 生活資料와 여러 가지 器物이 새로 發明된 것도 또한 長의 象이다. 그런데 生의 時運에서 長의 時運으로 넘어올 때에는 一年으로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때와 같아서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갈 때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와 같아서 生長하던 것이 모두 收斂으로 變하고 이제까지 茂盛하던 잎사귀가 서리를 맞아

서 떨어지고 여문 열매와 쭉정이가 分別되는 것이다.

■ 地球 달 사람의 變化

宇宙의 天體는 그 組織이 陰陽의 二元作用으로 되어 收斂作用과 發散作用이 있으므로 그 生生하는 過程에는 스스로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여 收斂하는 時運과 發散하는 時運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系의 宇宙도 時運의 變化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地球도 不斷히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地球는 發生하는 當時에 單番에 完成된 것이 아니오 거기에도 生長成의 象이 있어 生의 時運에 生하고 長의 時運에 자라며 지금에는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이다. 地球가 長의 時運에는 樹木生成의 理와같이 內部에 있는 陽氣가 外部로 發宣放出되어 陰陽이 調和치 못하므로 氣候의 極寒과 極暑가 있고 南北極의 地가 凍結하는 것이오 成의 時運에는 陽氣가 外部로부터 內部에 入하여 地熱이 높아지고 極寒과 極暑가없어 氣候가 溫和하고 南北極地方의 얼음이 풀리는 것이니 지금에 南北極의 얼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은 地球가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徵兆이다.

地球에 어떠한 變化가 生하면 地球의 胎宮으로 되어있는 달에도 또한 變化가 生하는 것이다. 달의 組織은 艮山과 兌澤으로되고 艮兌는 乾坤의 六子中에 最少하므로 母體의 胎宮中에서 자라고 있는 胎兒의 象이 되는데, 胎中의 胎兒는 반드시 여물어서 母腹外로 出産하는 것이라 成의 時運이되면 胎中에 있는 달도 또한 여물어서 變化하고 달이 變化하면 그 軌道가 또한 變化하는 것이다. 달의 變化하는 象을 生成의 理로써 보건대, 사람의 胎兒가 母腹中에 있을 때는 母體와 逆行하여 倒生의 象이 되는 것인데 胎兒가 出産하면 母體와 같이 頭가 天을 向하고 足이 地를 밟는 것이니, 이 理에 依하여 지금에는 달의 表面이 地球를 向하고 裏面은 늘 裏面대로 있는 것인데 달이 여물어서 軌道가 變化하면 月體가 뒤집혀서 지금의 表面이 안으

로 숨어버리고 지금의 裏面이 地球를 向하게 되는 것이다. 달의 消하는 그믐에는 달이 太陽의 앞에 있고 달의 始生하는 初生에는 달이 太陽의 뒤에 있는 것이니 이 理에 依하여 成의 時運에 달이 出生하는 때는 달이 太陽의 앞에서 太陽의 뒤로 돌아가는 象이 되어 日月地球의 軌道의 相互關係가 모두 變하는 것이다.

달의 軌道는 어떻게 變化하는가 하면 易學에는 乾坤의 正策數가 三百六十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周天의 正度數 三百六十度와 一歲의 正日數 三百六十日을 象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周天度數는 三百六十五度餘가 되고 一歲의 日數는 三百六十五日餘가 되어 度數는 正度數보다 五度餘가 더 많고 日數는 正日數보다 五日餘가 더 많으니 이 五日餘는 正日數보다 늘어나는 閏日이다. 閏이라 함은 懷妊生殖하여 數가 늘어난다는 뜻이라, 지금은 長의 時運이므로 天時에도 每歲 五日餘의 閏日이 生하는 것이며 每歲에 五日餘의 閏日이 生하는 까닭에 日月의 運行을 標準한 太陰曆에는 五歲에 約兩次의 閏日을 두고 閏月이 드는 해는 十三月이 되어 이것을 閏歲라하고 閏歲의 總日數는 平均 三百八十四日인데 이것은 一歲의 正日數 三百六十日보다 二十四日이 더 많으니, 그러므로 二十四日은 閏日數의 象이 되는 것이다. 母胎中의 胎兒는 閏生의 象이므로 胎兒의 數는 二十四로 되고 지금의 地球가 約 二十四度를 傾斜하고 있는 것도 또한 母胎中에 胎兒의 閏數 二十四가 보태어 있는 까닭이다. 胎中에서 자라고 있는 胎兒는 자람이 끝나면 반드시 여물어서 母腹外로 出産하는 것이오, 胎兒가 出産하면 胎兒의 閏數 二十四가 줄어서 母體는 三百六十의 正數가 되는 것이므로 地球의 胎宮에서 달이 여물어서 軌道가 變하면서 出産하면 地球에서 二十四의 閏數가 줄고 正數 三百六十이 되어 地球의 傾斜가 바로 서는 것이니, 이가 地球와 달의 變化하는 때이다. 地球가 바로 서고 달의 軌道가 變하면 海洋과 潮汐에 큰 變化가 일어나서 水가 北地에서 汐하고 南天에서 潮하고 또 水가 萬折하여 東으로 向하는 것이니, 이가 成의 時運의 始로서 閏없는 三百六十日曆이 나오는 때이다.

註 ●胎宮 二十四數

易卦數는 六十四卦인데 六十卦는 父母數이오 四卦는 胎宮數이니 一卦 六爻로써 計算하면 六十卦는 三百六十으로서 正數가되고 四卦는 二十四로서 閏數가 되는 것이다. 易卦 六十四卦의 總爻數는 三百八十四數로 되어 閏歲 三百八十四日數와 同一하고 乾坤正策數 三百六十보다 二十四가 더 많으니 이 二十四는 胎宮 四卦의 爻數로서 그것이 胎宮에서 자라고 있는 胎兒의 閏數이다. 易經의 上經은 百八十爻이오 下經은 二百四爻로서 上下 傾斜의 象이 되는 것은 下經속에 胎宮 二十四爻가 들어 있는 까닭이니, 地球의 傾斜 約 二十四度도 이 理에 依한 것이다.

天地의 時運이 變化하면 사람의 生理에도 또한 變化가 生하는 것이니, 長의 時運에는 사람의 心氣가 主로 外向하여 權勢 財利 名譽等 外的 生活에 置重하고 生長競爭이 甚하며, 또 時運의 象을 生物로써 보면 長의 時運은 動物의 象이오 動物은 專혀 本能生活을하고 거의 全部가 個體生活을 하는 것이므로 사람도 長의 時運에는 本能生活과 個體主義生活이 主生活로 되고 極端的으로는 動物生活에 墮落하는 者도 없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成의 時運이되면 사람들의 生理가 一轉하여 天性이 여물고 神作用이 生하여 能히 空間의 幽深과 時間의 未來를 通觀할 수가 있고 個體主義가 變하여 天下가 同人하고 世界人類는 모두 한 家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長의 時運에는 天地自然數가 九數까지만 자라고 十數의 자리가 열리지 아니하여 暗黑속에 싸여 있으므로 사람마다 그 뱃속에 獨自한 秘密을 감추고 있어 사람과 사람사이에 서로 信賴할 수가 없고 서로 利害關係로서 다투고 있어 이 世上은 公明할 날이 없는 것이다.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면 十數가 열려서 自然數가 具全하여 神의 作用이 行하고 사람들의 天性에 神의 作用이 行하면 이 世上에는 秘密이라는 것이 存在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光明하여 惡을 行하는 秘密을 뱃속에 두지도 아니하여 이 世上은 光華한 神世界를 이루는 것이다.

■ 物質文明의 沒落과 精神文明의 發達

사람의 生理가 時運을 따라서 變化하므로 사람의 學問의 傾向도 또한 時運을 따라서 變化하는 것이다. 萬物의 生生에는 모두 生命과 神의 二元이 있는데, 生命의 運動은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이 生하여 物質이 되고, 神은 無形하여 有形한 物質속에 갈무리하여 있고 사람의 天性 心情等 精神은 形質속에 갈무리하여 있는 神作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形質이 자라기는 物質로써 하고 精神이 여물기는 神作用으로써하며, 또 사람은 자라는 일만을 自由意志에 依하여 行하고 生하고 여무는 일은 神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므로 그 形質이 자라기 爲하여 物質生活을 營爲함에는 사람마다 그 個體의 自由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動物들은 天然物에 對하여 아무런 加工도 없이 그대로 먹고살지만 사람은 반드시 天然物에 人工을 加하여 그 所用하는 物資를 創製하는 것이니 이가 人工이 天工을 代成함이오 이는 사람에게 物을 創製하는 才能과 自由가 있는 까닭이다.

지금은 長의 時運이오 長의 時運은 形質의 자라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自體가 자라기 爲하여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硏究하기에 心力을 다하고 있는데, 長의 時運의 初期에는 사람들의 生活이 單純하고 그 精神作用이 또한 어리므로 그 生活에 必要한 事物에 대한 硏究가 部分的으로는 進步와 發明이 깊지 아니하였으나 그 原理를 體系的으로 짜 놓은 學問은 없었으며, 사람들의 精神이 漸次 자람을 따라서 비로소 事物을 硏究하는 여러 가지 方法이 案出되고 그中에서도 特히 分析과 實驗에 依하여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찾아내는 學問이 생기니 이가 곧 科學이다. 科學이라 함은 分析과 實驗에 依하여 物質의 組織運行되는 原理를 證明하는 學問이오 分析이라 함은 草木의 자랄 때에 枝葉이 漸漸 나뉘움과 같은 것이니 科字도 草木이 자라서 가지가 나뉘운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科學은 長의 時運에 사람들이 自體가 자라기 爲하여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案出하여 系統的으로 그 原理의 體系를 세운 學問이다. 長의 時運의 初期에는 비록 科學이라는 學問은 없었으나 사람들이 人工으로써 天工을 代行하여 그 生活資料를 創製하여 살

아온 것이오 이들 創製物은 賢哲한 先知者들이 나와서 發明發見한 것이니 이는 科學以前의 人工이나 그 以後의 人工이나가 모두 그 때와 環境에 따라서 사람의 精神에서 案出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에 온 世人이 科學의 偉大함을 敬歎하여 科學萬能時代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決코 科學의 偉大함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精神發達의 偉大함에 基因한 것이다. 사람의 精神에는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 하는 發展이 있고 長의 時運의 사람의 精神은 時運과 함께 자라고 있으므로 사람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能히 事物을 分析 實驗하여 形質의 자라는 原理인 科學이라는 學問을 發見한 것이니 그러므로 科學은 사람의 精神의 자라는 過程에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研究하는 方法으로서 案出된 産物에 不過한 것이오 이는 사람의 精神이 偉大하여 그 자라는 때에 物質文明을 建設하기 爲하여 科學이라는 한 用具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은 長의 時運의 人類社會에 燦爛한 物質文明을 建設한 功績은 적지 아니하나 거기에는 스스로 一定한 限度가 있고 그 限度에 達하면 그 以上 더 자라지 못하고 도리어 病的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萬物에는 物質과 精神의 兩面이 있어 生長成의 運動을 行하고 있는데 사람은 精神이 善하기만 하면 無限性을 가지고 生하고 자라고 여물어서 神과 相通하는 것이지만 物質로 된 形質은 자라기만하고 여물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形質이 자람을 極하면 여무는 것이 아니라 老衰하여 消滅하는 길로 向하는 까닭이다. 이것을 草木으로써 보면 여름에 草木의 枝葉이 繁盛하여 青綠이 滿地하면 그 榮華한 景致는 可謂 絶勝이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의 交代하는 어느 하루아침에 이르러 氣候의 變化로 因하여 秋風이 일어나면 이제까지 繁榮을 極하던 枝葉의 榮華는 一時에 枯落하고 여문 열매만이 가지의 사이에 남게 되는 것이니, 枝葉의 榮華는 사람의 形質의 象이오 여문 열매는 사람의 여문 精神의 象이다. 人類社會는 宇宙의 時運에 應하여 長의 時運과 成의 時運이 있으므로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이제까지의 物質文明은 사람의 形質과 같이 또한 草木의 枝葉과 같

이 반드시 자람을 停止하고 老衰枯落하는 것이오 그 뒤에는 사람의 여문 精神이 神作用을 行함과 같이 또한 草木의 열매가 여물어서 世世繼承하는 作用을 行함과 같이 반드시 한 次元 더 높은 神作用의 文明이 發生하는 것이다.

그러면 科學은 그 자람을 極하고 한 次元 높은 새 文明을 낳을 수가 없는가 하면, 科學은 分析實驗하는 方法을 通하여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찾아내는 學問이니 形而下學的인 物質의 面은 이러한 方法으로써 硏究할 수가 있으나 分析實驗의 領域外에 있는 形而上的 事物 例컨대 萬物의 씨는 처음에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여물어서 宇宙創造 當時에 생겨난 씨가 지금까지 世世繼承하여 傳來하는가 하는 原理라든가 萬物에는 그 生長成하는 自然法則과 整然不亂한 秩序가 어떻게 생겨서 各自가 獨立的으로 生成하면서 또한 全體가 有機的으로 함께 生成하고 있는가 하는 作用이라든가에 對하여는 一言半句의 答案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科學은 사람이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찾기 爲하여 案出된 學問이므로 科學으로서는 物質의 자라는 原理밖에는 硏究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形質의 자라는 동안에만 自由意志를 行使하고 科學은 사람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案出된 學問이오 사람의 精神의 여무는 것은 神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므로 科學으로써 事物을 硏究함에는 오직 形質의 자라는 範圍에 그치고 그 以上의 여무는 領域에 對하여는 거의 無知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萬物은 모두 宇宙神에서 創造되고 神을 中心으로하여 그자라는 때는 遠心運動을 行하여 形質이 자라고, 그 여무는 때는 向心運動을 行하여 精神이 여물면서 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科學은 形質의 자라는 原理를 찾는 物質學으로서 遠心運動을 行하고 있으며, 遠心運動을 行하는 者는 神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므로 科學은 發達하면 發達할수록 神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내종에는 全然神을 忘却하게 되는 것이니, 이 遠心運動에서 向心運動으로 넘어가는 轉換點이 곧 科學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限度로서 한次元 더 높은 文明을 誕生할 수 없는 所以이다.

萬物에는 生長成의 運動이 있어 자라면 반드시 여물기로 되어 있으되 形質과 같은 것은 자람이 極하면 老衰하여 消滅의 길로 向하는데 이消滅의 길로 걸어가는 過程에 病的症狀이 일어나는 것이니, 老人들의 老衰가 곧 이 病의 症狀이다. 科學文明은 物質文明으로서 人間社會의 道德이나 善惡같은 것은 全然關涉하지 아니하고 오직 物質生活의 一層向上을 爲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人類生活의 向上을 爲하여 案出한 科學이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原子武器를 만들어 가지고 瞬息間에 이 地球도 破壞할 수 있을만치 橫暴하여 人類의 生存을 威脅하고 있으니, 이는 科學이 老衰病에 걸린 症狀이다.

人口의 生産은 사람의 形質의 자라는 象이오 人類의 生生運動은 반드시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여 陰陽이 調和한 然後에 過度한 것도 없고 不及한 것도 없고 適當히 生하고 適當히 자라는 것인데, 長의 時運에 사람들의 氣가 모두 外向하고 그 崇尙하는 學問인 科學이 또한 자라는 方面으로 突進하여 發散하는 것만을 알고 內收할 줄을 알지 못하므로 形質이 過度히 자라서 人口의 生産이 急激히 膨脹하여 도리어 人類自體의 生活을 威脅하고 있으니, 이는 形質이 너무 자라서 老衰病에 걸린 症狀이다. 原子武器의 橫暴와 人口生産의 過剩은 科學이 形質의 자라는 일에만 偏向하고 여무는 原理를 알지 못하는 所致로 생긴 病的症狀이며, 이 病은 科學속에는 아무런 治療方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精神에는 生長成의 發展이 있는지라, 長의 時運에는 形質의 자라는 原理의 學問인 科學을 發明하여 燦爛한 物質文明을 建設한 것이오 科學에는 자라는 原理만 있고 여무는 原理가 없으므로 老衰하여 病的症狀이 생기고 있지만, 사람의 精神은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여물기 爲하여 자라기를 求하지 아니하므로 時運으로 더불어 함께 여물려고 하는 人類에게는 科學은 쓸 곳이 없는 묵은 學問이 되는 것이오 또 여문다는 일은 자라는 原理의 學問인 科學에게는 全然 想像조차 不到하는 未知의 境域이다. 그러므로 여물기를 求하는 사람에게는 여무는 原理의 學問이 必要한 것이오 이 學問은 곧 精神을 여물게 하는 神作用의 原理인

神學이다. 成의 時運에는 오직 神學만이 사람의 精神을 여물게 하여 過度히 자란 科學의 病的症狀을 克服하고 陰陽의 調和作用으로써 自然스럽게 人口의 生産을 調節하여 人類社會에 物質文明보다 한 次元 더 높은 精神文明을 建設하는 것이다.

神學에 依하여 精神文明이 建設되면 사람들은 精神이 여물어서 지난날에 形質의 자람을 爲主하던 物質文明을 다시 追求하는 者가 없어서, 物質文明은 秋風이 일어난 뒤의 枝葉과 같이 枯落하고 神學에 依한 精神文明이 枯落한 枝葉사이의 열매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神學이라 함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佛敎의佛經 儒敎의易學 基督敎의聖經과 같이 宇宙神과 사람과의 關係를 말한 學問이 곧 神學이오 神學에 依한 精神文明이라 함은 從來의 科學은 사람의 精神이 모두 外向하여 外的知識을 求하므로써 事物에 對한 知識은 廣汎하게 얻을 수가 있었으나 自身의 精神은 昏暗하여 靈的으로는 하나의 無知한 人間이 되고 있는 것인데, 神學은 精神이 內向하여 스스로 內明하므로 神作用이 生하고 神과 相和하여 肉眼으로 볼 수 없는 事物도 能히 靈眼으로써 볼 수가 있고, 肉耳로써 들을 수 없는 일도 能히 靈耳로써 들을 수가 있고 未來의 事物을 豫觀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가 神學에 依한 精神文明이다.

長의 時運에는 사람들이 自由意志로써 形質의 자람을 爲하여 生長競爭을 行하고 그 까닭에 形質의 자라는 原理의 學問인 科學을 至上 學問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精神의 光明이 모두 形質에 掩蔽되어 昏暗하게 된 것이오, 成의 時運에는 사람들이 神으로부터 善惡에 對한 審判을 받고 비로소 精神이 內向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昭明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靈이 通明하는 것이며, 이 長과 成의 時運이 바뀌우는 때에 지금까지 繁榮을 자랑하던 科學文明이 물러가고 한 次元더 높은 神學文明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易理로써 보면 人類의 科學時代의 生活은 蠱의 幼虫生活과 같고 神學時代의 生活은 蠱의 幼虫이 成虫인 蝶으로 化한 生活과 같은 것이다.

第二節　새 宗敎의 出現

■ 宗敎는 神道의 敎

宗敎라 함은 무엇인가, 易經에「聖人이 神道로써 敎를 設하매 天下가 服한다」한 것이 宗敎의 本旨를 말한 것이다. 神道라 함은 易經에「觀天之神道而四時不忒」이라 한바와 같이 神이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道로써 物을 生하고 자라게 하고 여물게 하고 하는 四時의 生長成作用을 行함을 말함이니 宇宙間의 萬物은 모두 神道에 依한 生長成의 作用으로써 生하고 자라고 여물고 하며, 사람도 이 生長成의 作用에 依하여 無形한 神으로부터 有形한 形質을 받아서 生하고 生한 然後에 自由意志로써 人工을 行하여 자라고 자란 然後에 天性이 여물어서 다시 神에게로 還行하는 것이다. 聖人은 이 神道의 生長成하는 作用을 본받아서 사람이 바르게 生하고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여물고 하는 敎理를 삼고 그것으로써 敎를 設하여 사람을 가르치시니 이에 天下의 사람이 모두 이 敎理에 服從하여 神道의 속에서 生活하게 된 것이오, 이 神道의 敎理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敎育이 곧 宗敎이다.

神은 宇宙生成의 主宰로서 唯一無二하여 宇宙生命體를 統率하고 있으므로 宇宙의 生命體組織이 곧 神의 體이며 그러므로 宇宙生命體가 萬物을 生生함에,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을 造出하는 生의 作用과 陽氣가 發動하여 物을 자라게 하는 長의 作用과 陰氣가 收斂하여 物을 여물게 하는 成의 作用이 있음과 같이 神의 體에도 또한 이 生長成의 세 가지 作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唯一神이 生長成의 어느 한 作用만을 行하신다고 하면 이는 한 個體의 作用이 되고마는 것이며, 統體는 個體의 作用을 行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聖人을 이 世上에 내시어 各其 神의 體의 一部分씩을 맡게 하고 聖人은 神의 計劃한 自然法則에 依하여 生長成의 理로써 敎를 設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며 自然法則의 生長成作用에는 스스로 時運의 區別이 있으므로 神道의 敎에도 또한 生에 對한 敎理, 長에 對한 敎理, 成에

對한 敎理의 區分이 있는 것이니, 이가 宗敎가 各立하여 그 敎理를 달리하는 所以이다.

神의 體가 生長成作用을 行하는 象을 天地日月로써 보면 太陽속의 有形한 陰質은 宇宙無形中에서 始生한 有形體로서 生의 象이 되는데, 太陽의 組織은 陽氣인 天과 陰氣인 地와 電氣인 雷와 磁氣인 風과 및 水火의 精으로써 構成되고, 그 中에서 地風水火의 陰質이 太陽에서 分離하여 地球가 된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속의 陰質과 地球는 同質의 有形體로서 生의 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萬物은 形質이 있으면 스스로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반드시 陽性과 陰性의 兩性이 있고 이 兩性의 交互作用에 依하여 生長成의 作用을 行하는 것인데 太陽에서 나오는 光明은 陽性으로서 陽氣의 發施作用을 行하고 陽氣는 長의 象이되며, 地球에 屬하여 있는 달은 地球의 胎宮인 陰性으로서 陰氣의 收斂作用을 行하여 太陽에서 오는 陽氣를 承受하여 物을 여물게 하고 陰氣는 成의 象이 되는 것이다. 또 神의 體의 生長成作用을 人身으로써 보면 사람의 形質은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여 마치 太陽속의 陰質과 같은 것이므로 이것은 生의 象이 되고 男體의 陽氣는 자라서 發施作用을 行하여 마치 太陽의 陽氣가 地球와 달의 陰質에 發施됨과 같은 것이므로 이것은 長의 象이 되고 女體의 胎宮에서 胎兒가 長成하여 母腹外로 出産하는 것은 마치 달이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여 物을 여물게 함과 같은 것이므로 이것은 成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이라 함은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의 始生함을 象함이오 長이라 함은 陽氣가 運行하여 物을 始하여 形體가 자람을 象함이오 成이라 함은 陰精이 陽氣를 包含하고 義가 和하여 次世代를 作成함을 象함이다.

宇宙의 主宰인 神의 體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作用이 있고 이 세 가지 作用은 各其 生長成의 세 가지 時運과 合致하는 것이므로 聖人의 敎도 또한 세 가지 作用을 區分하여 세 가지 時運에 合致하는 敎를 設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처음에 나온 佛敎는 神의 體의 生하는 作用과 生하는 時運을 象

하고, 다음에 나온 儒敎는 神의 體의 長하는 作用과 長하는 時運을 象하고, 내종에 나온 基督敎는 神의 體의 成하는 作用과 成하는 時運을 象한 것이다. 世間에는 여러 가지 形態의 宗敎가 있으나 이 神道의 세 가지 作用中에서 어느 한 作用을 敎理로 한 然後에 聖人의 敎가 되는 것이오 그렇지 못한 者는 聖人의 敎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佛敎의 敎理

佛敎가 神의 體의 生하는 作用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天地間에서 最初로 無形에서 有形이 生한 것은 太陽속에 있는 地風水火의 陰質인데, 佛敎는 地水火風의 四大로써 形質組織의 要素를 삼으니 이는 佛敎가 形質의 始生함을 象하여 生의 象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佛敎는 色이 그대로 空이오 空이 그대로 色이라 하여 萬物의 自性은 生도 없고 滅도 없다하니, 이는 萬物의 形質이 空에서 生하여 色은 空을 떠나지 아니하고 空은 色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無形에서 有形한 形質의 生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地水火風의 陰質이 太陽의 속에 있을 때에는 늘 太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을 發하고 있으나 그것이 太陽에서 分離하여 地球로 되는 때에는 陰質이 陽光을 가리워서 光明을 發치 못하는 것이며, 사람은 地水火風의 陰質과의 因緣에 依하여 地上에서 生하고 자라는 것이니, 이 陰質은 我도 아니오 我의 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의 陰質이 자라는 때는 스스로 光明을 가리워서 無明이 되는 것이오 無明이 되면 「我」 「我의 것」이라는 主觀的 執着이 生하여 貪嗔癡라는 三毒作用이 일어나서 一生을 煩惱와 苦의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佛敎의 修行에 依하여 我라든가 我의 것이라든가 하는 主觀的 執着을 없이하면 비록 形質은 있으되 形質의 生이 生 그대로 있고 자라지 아니하여, 마치 太陽속에 있는 陰質이 陰質그대로 있으면서 光明을 發揚함과 같은 것이오 形質이 光明을 發하면 스스로 貪嗔癡의 모든

煩惱를 解脫하고 生老病死의 苦가 없는 것이니, 이것을 草木으로써 보면 草木의 씨의 組織이 자라지 아니하고 組織된 그대로 있는 象이며 組織된 그대로 있는 者는 內部에 光明을 갈무리하고 그 作用이 寂然히 靜하므로 佛敎는 그 修行의 極致를 光明과 寂靜에 두는 것이니, 이가 佛敎의 根本敎理이다.

太陽속의 陰質과 地球의 陰質과는 모두 地水火風으로 되어 그 本質이 同一하고 사람의 씨는 太陽의 光明에서 오고 있으되 그 陰質은 또한 地水火風으로 되어 地上의 陰質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佛敎에서는 사람의 生前에 잘 修行하여 天性이 씨의 組織과 같이 組織그대로 있고 자라지 아니하면, 死後의 鬼神이 天上의 光明한 곳에서 生한다 하고 이 光明한 곳을 極樂世界라 한다.

極樂世界는 光明이 燦爛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나무와 宮殿이 모두 七寶로 되어 있다 하니 七寶라 함은 燦爛한 七色光明으로서 이것이 바로 太陽光明의 七色의 象이다. 天上의 光明體는 太陽과 달이오 달은 地球에서 分離하여 달의 陰質과 太陽속의 陰質은 그 本質이 同一하고 太陽의 光明과 달의 光明이 또한 그 本質이 同一한 것인데, 太陽은 陽性이므로 發散作用을 行하여 生함을 主하고 달은 陰性이므로 收斂作用을 行하여 여무는 것을 主하니 그러므로 사람의 死後鬼神은 發散作用을 行하는 太陽에는 가지 못하고 收斂作用을 行하는 달로 가는 것이며, 이 까닭에 太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을 發하고 있는 달이 곧 極樂世界이오 이는 鬼神이 달에 依附한다는 理에 依한 것이다. 地球의 陰質과 달의 陰質은 그 本質이 同一하므로 사람은 地上에도 生하고 天上의 달에도 生하여 死後에 極樂世界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佛敎는 生을 象하여 자라지 아니하는 修行을 쌓기 爲하여 「我」「我의 것」이라는 執着을 없애는 同時에 또한 사람의 主要한 本能을 抑制하고 있으니, 그 敎人들이 生産業을 營爲치 아니하고 乞食을 하는 것은 飮食本能을 抑制함이오 婚姻을 하지 아니하여 家庭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生殖本能

을 抑制함이다. 사람의 本能에는 飮食本能 生殖本能 및 長壽本能의 세 가지가 있는데, 我 我의것에 執着치 아니하고 自身의 形質을 私有치 아니하여 精神的으로 長壽本能을 抑制하고 또 肉體的으로 飮食本能과 生殖本能을 抑制하니, 이는 徹底히 자라지 아니하는 修行이다. 그러나 宇宙의 時運變化는 人力의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佛敎에도 時運變化에 順應하는 일이 있으니, 釋迦가 前生의 善慧菩薩로부터 人世에 出生할 때에 「모든 사람이 佛法에 들어올 根性이 익었는가, 人間界에서 부처될 때가 되었는가」하는 것을 觀察하고 人間에 태어난 것인즉 釋迦 以前의 사람들은 아직 佛法에 들어올 根性이 익지 못하여 비록 修行을 하더라도 人間에서 부처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오, 이가 時運變化의 證據이다.

佛敎는 神의 體의 生하는 作用을 象한 것인데, 그 敎理에 宇宙 唯一神을 말하지 아니하고 數多한 天神을 말하니 이는 形質의 始生함을 象한 까닭이다. 物의 形質이 生하는 者는 모두 個體로 되어 空間에 布列하는 狀態로 되고 始生한 童蒙과 같아서 能動的인 統一運行이 行치 못하니 統一運行은 唯一神의 作用인데, 形質의 始生을 象한 佛敎에는 統一運行이 없으므로 唯一神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佛敎에도 唯一神이 없는 것은 아니다. 儒敎에서는 唯一神을 上帝라하고 基督敎에서는 唯一神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世界人類는 모두 唯一神의 子孫, 唯一神의 百姓으로서 서로 兄弟가 되고 있으며 神의 最大事業은 그 子孫인 世界人類를 生養하는 일이오 따라서 사람의 最大事業과 最大道德이 또한 自身의 兄弟인 世界人類를 生養하는 일이니, 이 까닭에 儒敎에서는 仁을 行하여 百姓을 사랑하라 하고 基督敎에서는 博愛로써 네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며 佛敎에서는 慈悲로써 衆生을 濟度하라하니 衆生을 濟度하는 것이 곧 儒敎 基督敎와 같이 自身의 世界兄弟를 生養한다는 原理에서 나온 일이오 世界人類를 自身의 兄弟로 생각하는 것이 곧 宇宙唯一神을 모시고 있는 證據이다.

■ 儒敎의 敎理

儒敎가 神의 體의 長하는 作用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儒敎의 原文은 易經이오 易經에는 太陽에서 오는 陽子인 震子가 자라서 달의 陰精과 相交하는 象을 말하고 있으므로 長의 時運을 象한 敎理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經序卦의 初頭에는 天地의 創生하는 때의 日月의 生하는 原理를 말하고 中間에는 달의 자라는 原理를 말하고 終端에는 달이 여물어서 變化하는 原理를 말한 것이며 易經은 日月의 變化로써 時運의 生長成하는 原理를 말한 까닭에 易經이라는 易字가 日月로 되고 거기에 變易 遷易한다는 뜻을 寓한 것이다.

易經에 말한 日月相交는 太陽의 震雷와 달의 兌澤이 陰陽作用으로써 相交하는 것인데 震은 長男이오 兌는 少女이며 易理에 二長二少의 相合을 正이라 하고 長과 少의 相合을 不正이라 하는 것이므로 震長男과 兌少女의 相交는 不正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長의 時運에는 사람이 自由意志를 가지고 相克을 主하여 반드시 陰陽이 正치 못하고 서로 生長競爭을 行하여 惡이 發生하는 것이며, 이 까닭에 易經에는 人類가 始生한 곳에 惡을 막고 善을 揚함을 말한 것이며 惡을 막고 善을 揚하는 것이 儒敎의 根本敎理이다. 物의 자라는 것은 將且 여물기 爲함이오 物이 여물면 內部에 神作用을 包含하는 것이므로 儒敎에는 佛敎나 基督敎와 같은 死後의 極樂 天堂의 理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地上에 人類世界가 있고 天上에 神世界가 있고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神에게로 還行한다는 原理를 말한 것이다.

■基督敎의 敎理

基督敎가 神의 體의 成하는 作用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太陽에서 오는 震子는 달의 陰精中에 入한 然後에 萬物의 形質을 作成하여 여무

는 것이오, 震子가 달에 入하면 마치 사람의 生殖作用에서 男體의 精子가 女體의 卵子를 決하여 入하고 卵子는 自體를 犧牲하고 그 血이 精子를 包하여 精子와 卵子의 相交하는 때에 萬物을 妙하게 하는 神作用을 받고 있음과 같이 달의 陰精도 震子를 承受하는 때에 陰精이 決하고 血이 違去하는 理가 있는 것이며, 예수가 十字架에서 몸을 犧牲하고 保血의 作用으로써 그 弟子들를 包하고 聖靈을 내려서 弟子들의 天性을 여물게 하여 死後에 天堂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달의 陰精이 震子를 育成함과 같은 것이니, 이 保血로써 弟子들의 天性을 여물게 하여 神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基督敎의 根本敎理이다.

예수는 무슨까닭에 自身을 犧牲하여 弟子들을 育成하는가 하면 예수는 宇宙神의 自然法則을 따라서 自體의 生成을 爲하여 그 弟子들의 天性을 여물게 하는 것이니, 이는 예수는 神의 體의 成하는 作用을 行하는 象으로서 神의 子孫들을 여물게 하는 任務를 맡고 있으므로 自體를 犧牲하고 그 保血로써 弟子들을 育成하는 것이 곧 神의 生成作用을 代行하는 同時에 또한 自體의 生成을 完遂하는 길이 되는 까닭이다. 陰精이 陽氣를 受하여 胎育함에는 반드시 陰精의 犧牲과 血去作用이 行하는 것이므로 예수의 十字架犧牲과 保血은 바로 이 任務를 遂行하여 神의 自然法則을 完成한 것이다.

萬物의 生長한 者는 반드시 死하고 物의 死하는 것은 罪를 짓고 死刑을 當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生長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出生하면서부터 原罪를 짓고 있는 것이며, 사람이 死하지 아니하고 永生하게되면 이는 原罪를 贖하는 象이다. 聖經에는 世界人類가 모두 아담 해와의 子孫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 해와가 善惡果를 따먹고 生長한 까닭에 老死하는 罪를 짓고 그 子孫들은 모두 반드시 자라서 죽는다는 原罪를 지은 것이오, 예수의 弟子들은 예수의 保血에 依하여 聖靈을 받고 救援을 받아서 永生하게 되는데 永生하는 것은 原罪를 免한다는 뜻이라, 이는 예수가 그 保血로써 弟子들의 原罪를 贖한 象이 되는 것이다.

달의 陰精이 太陽의 震子를 承受하여 物을 作成하는 것은 樹木의 接木하는

理인데, 예수의 弟子가 예수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그 保血作用에 依하여 聖靈을 받는 것은 또한 接木의 象이 되므로 聖經에는 이것을 葡萄나무에 가지를 接함과 같다고 한 것이니 이는 예수가 달의 象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달이 처음에 出生한 것은 宇宙父母의 相交에 依하여 出生한 것이 아니라 그 母體인 地球에서 自然發生하여 分離하여 나온 것이오 地球는 달의 母體의 象이니 이는 달이 母體에서 童貞女誕生한 것이며 예수가 母胎中에서 童貞女誕生한 것은 달이 그 母體인 地球에서 自然發生한 것과 같은 것이다. 聖經에는 예수의 出生에 對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肉身이 되었다」 고하니, 이것을 易理로써 보면 말씀은 澤精의 象이오 澤精은 또한 달의 象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太陽에서 分出한 달이라는 뜻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肉身이 되었다 함은 달의 澤精이 예수의 肉身이 되었다는 뜻이니 달이 예수의 肉身으로 된 것이 곧 예수의 童貞女誕生의 理이다. 예수는 달의 象으로서 陰體의 作用을 行하므로 男子이면서 妻를 聚하지 아니하고 남의 子女인 弟子를 包容하여 接木作用을 行한 것이다. 예수의 弟子들은 天性이 여물어서 死後에 天堂으로 가는데 死後의 鬼神은 반드시 收斂作用을 行하는 달로 들어가는 것인즉 天堂도 또한 달을 말함이니 이는 佛敎의 極樂과 基督敎의 天堂이 모두 달을 말한 것이다. 佛敎 儒敎 基督敎의 세 宗敎는 神의 體의 세作用中에서 各其 한 作用을 取하여 敎理를 삼아서 人類를 敎化한 것이므로 세 宗敎는 모두 唯一神의 一部分씩을 象하고 設敎의 目的이 또한 모두 사람이 神을 닮는데에 있는 것이니, 이제 그 敎理의 異同한 바를 例擧하여 본다.

■三敎 敎理의 相互關聯

佛敎는 太陽속의 陰質을 象하고 儒敎는 太陽의 陽氣가 地球와 달의 陰精을 相交함을 象하고 基督敎는 달을 象하며 佛敎는 生함을 象하고 儒敎는 長함을 象하고 基督敎는 成함을 象한 것이 그 相異한 바이다.

이 生長成을 易理로써 보면 佛敎는 伏義八卦圖의 象이오 儒敎는 文王八卦圖의 象이오 基督敎는 正易八卦圖의 象이다.

佛敎의 生死解脫의 理는 聖經의 아담 해와의 理와 相通하니 佛敎는 生을 象한 宗敎이오 씨의 生한 것이 生 그대로 있어 자라지 아니하고 모든 感覺에서 生하는 貪嗔癡의 煩惱를 끊으면 苦에서 解脫되어 天上에서 生하고 다시 人間世上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天上에서 永生하는 理이며, 基督敎의 創世記에는 아담 해와가 비로소 有形한 人間으로 出生하여 生命나무의 열매만 먹고 善惡을 아는 善惡果를 먹지 아니하면 天上에서 永生하는 것인데 蛇의 誘惑을 받아서 善惡果를 따먹은 까닭에 에덴 동산에서 몰려나고 마침내 生活의苦 死의苦 孕胎의苦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서로 比較하여 보면 佛敎가 貪嗔癡의 마음을 끊는다 함은 자라지 아니한다는 뜻이오 基督敎가 善惡을 모른다 함은 또한 자라지 아니한다는 뜻인데 蛇의 誘惑을 받고 善惡果를 따먹은 것은 곧 자라기 始作한 象이다. 그러므로 만일 아담 해와가 善惡果(生長成)를 따먹지 아니하고 자라지 아니하여 天上에서 永生하면 이는 바로 佛敎의 敎理가 되는 것이며, 아담 해와가 蛇의 誘惑을 받은 까닭에 자라고 또 여물어서 基督敎의 敎理가 生한 것이다.

蛇는 陰氣의 자라는 象이니 이것을 易理로써 보면 易學은 長을 象한 學問이오 上經은 陽의 長함을 말하고 下經은 陰의 長함을 말한 것인데, 上經 首卦의 陽에 龍의 象이 있고 下經 首卦의 陰陽相交에 龍蛇의 象이 있으니, 이는 陽의 長하는 象을 龍이라 하고 陰의 長하는 象을 蛇라 한 것이며 해와가 蛇의 誘惑을 받았다 함은 해와는 女體로서 陰精의 자라는 衝動을 받고 있는 象이다. 지금 基督敎의 一派에서 神父 修女의 獨身制度가 있는데, 이것은 아담 해와가 善惡果를 따먹기 以前의 象으로서 佛敎의 獨身出家의 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佛敎는 사람의 生前에 煩惱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몇生동안 人間에 幻生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니, 이가 輪廻의 理이며, 만일 生前에 煩惱를 끊으면

天上에 나서 다시 이 世上에 오지 아니하는 것이며, 基督敎에서는 天性이 여물어서 天堂에 가면 天堂에서 永生한다 하니, 이것도 兩敎의 永生敎理가 相同한 것이다. 다만 佛敎는 生을 象하므로 몇生동안 天上과 人世를 往來하여 다시 人世에 와서 修行하고 修行이 되지 아니한 者는 畜生地獄과 人世를 輪廻하지만 基督敎는 成을 象하므로 長에서 成으로 넘어갈 때에 審判을 받고 永生과 쭉정이가 決定되어 있으므로 다시 畜生地獄等으로 輪廻하는 일은 없고 다만 天上과 人世를 往來하는 것이다. 地獄은 佛敎와 基督敎가 同一히 地中을 말한 것이니 地中은 熱湯이 끓고 있는 곳인데 罪를 지은 사람의 鬼는 이 地中熱湯속에 居하는 것이니 地獄은 달의 極樂天堂과 對照되는 것이다. 佛敎에서는 天上에 난 사람이 그 所願에 따라서 이 世上에 幻生하여 衆生을 濟度하는 일이 있고 基督敎에서도 엘리아가 요한으로 幻生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天上 人世를 往來하는 한 形態이다.

佛敎는 神의 體의 形質의 始生함을 象한 것이므로 神의 體에서 發揚하는 陽氣의 作用과 收斂하는 陰氣의 作用이 모두 그 속에 包含되어 있어 한편에서는 不斷히 發揚하고 한편에서는 不斷히 收斂하여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이 倂行하고 鬼神과 사람이 서로 循環生生하여 人世에도 나고 天上의 極樂에도 나고 畜生地獄에서도 나는 것이다.

儒敎의 原文인 易學은 神의 體의 陽氣가 發揚하여 物의 長함을 象한 것이오 物의 長하는 者는 遠心運動을 行하여 神에서 漸漸 멀어지는데, 遠心運動을 行하는 物은 비록 神과 相離하지는 못하되 또한 神과 相和하지도 못하여, 自由意志로써 自身을 行動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自由意志의 善惡이라는 것은 그 長하는 동안에 遠心運動을 行하는 때에만 있는 것이오, 이 自由意志에 依한 行爲의 善惡에 따라서 天性이 여물기도하고 쭉정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天性이 여무는 것은 神으로부터 福을 받는 象이오 쭉정이가 되는 것은 神으로부터 害를 받는 象이니, 이가 自身의 行爲에 對하여 自身이 責任을 지고있는 原理이다. 사람이 長하는 동안은 生과 成의 中間에 있어 死와 關聯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易學에는 極樂地獄의 理

가 없고 다만 害福의 理가 있는 것인데 그 實은 害가 地獄으로 가는 길이오 福이 極樂으로 가는 길이다.

基督敎는 神의 體의 陰氣가 收斂하여 物의 成함을 象한 것이오 物의 成하는 者는 向心運動을 行하여 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람이 向心運動을 行하면 天性이 여물어서 神에게로 돌아가고 向心運動을 行치 아니하면 天性이 여물지 못하여 神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 鬼神이 消滅치 아니하고 永生하는 것이니 이가 基督敎의 永生의 理로서 天堂으로 간다는 것이다.

儒敎와 基督敎는 神의 體內의 陰陽關係로서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는 道이므로 儒敎의 易學과 基督敎의 聖經은 一神의 兩面으로 되어 두 글이 모두 神의 啓示로 되어있는 것이다. 易學은 聖人이 河圖와 洛書를 則하고 蓍法을 用하여 지은 글인데, 河圖는 伏羲氏때에 龍馬가 圖를 등에 지고 河水에서 나온 것이오 洛書는 堯舜때에 龜가 書를 등에 지고 洛水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두 神의 啓示하신 그림이오 蓍法은 聖人이 神明을 幽贊하여 生한 것이며, 聖經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記錄한 글로서 神의 啓示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 天地日月의 變化가 있으므로 神은 그 子孫들의 向할 바의 길을 가르치시는 同時에 또한 그 時運에 處할바의 方法을 알리시기 爲하여 學問으로된 易學과 信仰으로된 聖經을 啓示로써 이 世上에 내리신 것이다. 佛敎의 經典에 神의 啓示가 없는 것은 佛敎는 唯一神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生을 象하여 童蒙의 象이 되는데 童蒙은 神의 啓示를 알지못하고 童蒙의 敎育에는 스승의 말이 가장 有效한 것이므로 그 글은 主로 스승인 부처의 敎訓으로 된 것이다. 易經과 聖經은 모두 神의 啓示로 된 글로서 서로 表裏가 되고 있으므로 易經序卦의 初頭와 聖經創世記의 初頭는 서로 깊이 通하고 있는 것이다. 序卦 初頭의 乾坤卦는 天地의 始로서 創世記 初頭의 「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하심」이오 序卦의 屯蒙卦는 水가 始生하고 昏昧의 속에서 光明이 始發하는 것으로서 創世記 첫날의 「神이 水

面에 運行하시고 晝夜가 나뉘음」이오 序卦의 需訟卦는 天이 水中에 있다가 天과 水가 나뉘우는 것으로서 創世記 둘째 날의「穹蒼이 생기고 穹蒼아래의 물과 穹蒼위의 물로 나뉘음」이오 序卦의 師比卦는 水土가 合하여 땅이 始成하는 것으로서 創世記 셋째날의「天下의 물이 한곳으로 모여서 땅과 바다가 되고 草木이 生함」이오 序卦의 小畜履卦는 달이 비로소 생겨서 日月의 光明이 地上을 비치는 것으로서 創世記 넷째날의「두 큰 光明이 생기어 큰 光明은 낮을 主管하고 작은 光明은 밤을 主管함」이오 序卦의 泰否卦는 위의 天과 下의 地가 相交하여 萬物이 通하는 것으로서 創世記의 다섯째날의「물과 땅위에 生物이 蕃盛함」이오 序卦의 同人大有卦는 人類가 始生하여 天으로부터 天佑神助를 받는 것으로서 創世記 여섯째 날의「하나님의 形狀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地上 空中 물속의 모든 生物을 다스리게 하심」이오 序卦의 謙豫卦는 달에서 發生한 사람의 씨가 비로소 地上에 내려와서 有形한 人間이 되는 것으로서 創世記 일곱째날의「天地와 萬物이 다 이루어짐」이다. 그런데 序卦에는 謙豫卦의 다음인 隨蠱卦에 山澤의 水土氣가 合하여 사람의 形質이 생기고 거기에 風을 넣어서 蠱를 生하고 이에 男女가 分化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聖經도 일곱째날의 創造完成은 天上에서 사람의 씨를 完成함이오 地上에서 有形한 人間形質을 完成한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일곱째날이 지난 뒤에 비로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生命을 불어넣어 아담을 創造한 것이오 사람은 男女가 모두 男體속의 精子에서 出生한다는 理에 依하여 아담의 몸의 一部를 떼어서 해와를 創造하였다고 한 것이다.

易經에는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갈 때에는 原始人의 大部分이 水中에 瀆하고 오직 最初로 出生한 震子가 天地 雷風 水火 山澤의 八象을 具하여 着生하여 瀆치 아니하고 비로소 上帝가 人類의 祖上임을 알 것인대 聖經에 노아 洪水는 또한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로서 오직 當代의 義人이라하는 노아 家族 八人만이 살고 그 外의 사람은 全部 水瀆하였으니 이가 두 글이 서로 表裏가되는 곳이오 노아 家族의 父母 三男 三婦의 八人은 바로 易經의 父母 三男 三女의 八卦의 象이

다.

易學의 陰陽二元은 一體二元의 理인데, 基督敎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生命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도 또한 一體二元이며 佛敎의 因緣도 모두 相對性을 띄어 一體二元의 象이 되니 佛 儒 基督의 三敎는 神의 體의 象인 日月地球의 組織原理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두 一體二元의 理로 되는 것이다.

■ 三敎一體의 새 宗敎

사람은 神의 子孫으로서 世上에 태어나서 바르게 生하고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여물고 한 然後에 다시 神에게로 돌아가서 神을 祐하여 宇宙의 生成事業을 行하는 것이니, 이가 사람이 世上에 태어난 目的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라는 동안에는 그 自由意志에 依하여 善惡間에 마음대로 行하고 神을 믿고 믿지아니하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의 自由意志에 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神은 그 子孫되는 世界人類에게 바르게 生하고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여물고하는 길을 가르치시기 爲하여 聖人을 世上에 보내어 神道로써 生長成의 原理를 가르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佛敎는 生의 原理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形質을 가지고 있으되 太陽 속의 陰質과 같이 生그대로의 狀態로 있어 光明을 잃지 아니하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敎理로 한 것이오, 儒敎는 長의 原理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形質은 비록 자라고 있으되 太陽의 光明이 陰質에 掩蔽되지 아니하고 그 性情이 光明을 發揚하는 것을 敎理로 한 것이오 基督敎는 成의 原理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보낸 聖靈을 받고 天堂으로 올라가는 것을 敎理로 한 것이니, 이 세 宗敎는 神의 세 가지 作用으로서 셋이면서 하나이다.

釋迦 孔子 예수 세 聖人은 비록 그 敎理는 生長成의 세 가지를 各其分擔하여 設하고 있으되 모두 長의 時運에 出生하고 있으므로 그 敎理에는 長의

時運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原理가 共通으로 들어 있으니, 이는 佛敎의 慈悲와 儒敎의 仁과 基督敎의 博愛이다. 萬物의 자라는 것은 將且 열매를 맺아서 씨가 永遠히 繼繼生生하기 爲함이오 사람의 자라는 것도 또한 天性이 여물어서 알맹이가 생겨서 神作用을 行하기 爲함인데 알맹이는 仁의 象이오 사람의 天性에 仁이 있은 然後에 善이 發育하여 天性이 여무는 것이니, 儒敎는 자람을 象한 것이므로 알맹이가 되는 仁을 말한 것은 當然한 일이오 佛敎의 慈悲와 基督敎의 博愛도 모두 仁이라는 뜻이며, 이는 세 聖人이 모두 長의 時運에 出生하고 그 時運의 사람들이 모두 자라는 過程에 있으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天性이 仁을 行하여 자라면서 여물게 하기 爲하여 仁과 慈悲와 博愛를 根本敎理로 한 것이다.

지금은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向心運動으로써 神에게로 돌아가는 때이며, 神에게로 돌아가면 스스로 神의 體의 陰氣의 收斂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오, 神의 收斂하는 속은 곧 예수의 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佛敎를 믿든지 儒敎를 믿든지 其他 어떠한 宗敎를 믿든지를 勿論하고, 宇宙唯一神을 믿고 神의 事業을 祐하는 者는 모두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서 結果的으로 基督敎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經의 아담 하와 記錄에 生의 時運을 象한 佛敎의 敎理가 있고 노아方舟記錄에 長의 時運을 象한 儒敎의 敎理가 있고 또 三敎의 經典中에는 오직 聖經에 宇宙唯一神인 하느님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바르게 여물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바르게 生하여야하고 또 반드시 바르게 자라야 하는 것이므로 宇宙唯一神의 生長成의 세 作用을 法하여 佛敎의 敎理대로 生하고 儒敎의 敎理대로 자라고 基督敎의 敎理대로 여문 然後에 能히 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오 后天의 새 宗敎는 이러한 原理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第三節　未來의 政治

■ 師傅政治

長의 時運은 遠心運動의 形態로서 사람이 神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神作用이 行치 못하고 사람들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政治를 行하므로 生長競爭이 激甚하여 善惡이 뒤섞여 있고 勢力의 强한 者가 勢力의 弱한 者를 壓制하고 政權을 잡고 民衆의 위에 臨하고 있으므로 政治形態가 君主政治이든지 資本主義의 政治이든지 또는 民主政治이든지를 不問하고 모두 權力政治로 되어 權力으로써 民衆을 支配하는 것이니, 이가 長의 時運에 行하는 政治의 特徵이다. 權力政治의 制度下에서는 스스로 權力을 잡은 者가 權力없는 民衆을 支配하게되어 옛적의 君主政治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近世의 所謂 民主政治라는 것도 實際에 있어서는 權力이 民衆을 支配하는 政治이오 民衆을 國家의 主權者로 모시는 政治가 아니니, 이는 長의 時運의 人間들은 자라는 過程에 있는 한 未成品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生生事業을 遂行한다는 생각보다 그 權力을 自由意志대로 行使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앞서는 까닭이다.

近世 所謂 共産主義라는 政治가 나와서 資本主義 打破를 標榜하고 資本主義下의 植民地를 解放시킴에는 一助가 되고 있었으나, 宇宙의 唯一神을 알지못하고 唯物思想에 빠져서 階級獨裁로써 民衆을 奴隸化하는 政治를 行하니 이 政治는 人間社會에 絶對로 容納할 수 없는 虐政이다.

政治라 함은 國家最大의 生生事業이오 어느 執權者의 私利를 爲하는 일이 아니니, 그러므로 爲政者는 民衆의 飢寒하는 것을 自己家族의 飢寒함과 같이 여기고 民衆의 病苦하는 것을 自己家族의 病苦함과 같이 여긴 然後에 國家의 生生事業이 完遂되는 것이니, 이것은 蜂蟻社會의 例로써 알 수 있는 일이다. 蜂蟻社會는 그 多數한 群衆이 自然스럽게 和合하고 各自가 모두 그 職務에 忠實하여 秩序가 自然스럽게 維持되고 있으니, 이는 그 社會의 統率者가 바로 父母이오 社會의 構成員이 모두 子息으로서, 父母와 子

息의 한 家族이 한 集團을 이루어, 社會員이 곧 한 家族인 까닭이다. 人間社會는 그렇지 아니하여 數多한 家族으로써 構成되고 있으므로 그 統率者는 自己의 家族과 他人의 家族을 差別하여 民衆을 自己의 家族과 같이 생각치 아니하고 權力으로써 支配하며, 그 民衆이 또한 그 統率者를 自家의 尊長과 같이 생각치 아니하고 하나의 權力支配者로 여겨서, 이에 蜂蟻社會와 같은 自然스러운 秩序가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神은 萬物의 創造主로서 사람의 始祖가 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神을 모시고 神의 뜻에 合하는 나라를 세우면, 神은 비록 無形하되 스스로 그 나라의 天祖가 되고 世界人類는 모두 天祖一神의 밑에서 一祖의 子孫이 되어 한 家族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蜂蟻社會의 形態이다. 그러나 神은 無形하므로 사람들이 神을 모시는 것은 精神의 面을 말함이오 政治는 아니며, 成의 時運에 實際 政治를 行함에 있어서는 神의 뜻을 받들어 行하는 師傅制度가 行하는 것이다.

師傅制度라 함은 師傅가 政治의 任에 當하여 神道로써 사람을 가르쳐서 知識을 열고 天性을 여물게 하고 國家의 政治機關은 權力機關이 아니라 한 敎場으로 되어 있고 國家機關에 從事하는 官員은 모두 師傅의 일을 行하고 民衆들은 權力에 支配되는 것이 아니라 師傅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制度이다. 萬物中에서 言語와 文字를 使用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니, 사람은 言語로써 複雜한 意思를 表示하고 온갖 事物의 狀態를 說明하며, 文字는 모든 言語를 記錄하여 空間과 時間을 超越하여 遠隔地에서도 서로 意思를 傳達할 수가 있고 몇 千百年前의 일이라도 文字의 記錄에 依하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言語와 文字가 있는 까닭에 師傅의 道가 行하여 人間의 오랜동안의 經驗과 硏究를 弟子에게 傳達하여 能히 그 天性을 여물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師傅와 弟子와의 關係는 비록 他人과 他人의 사이라 하더라도 그 恩誼가 父母子息間의 사이와 같아서 師傅는 그 弟子를 子息과 같이 생각하고 弟子는 그 師傅를 父母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니, 師傅制度下의 政治는 蜂蟻社會의 形態와 거의 同一한 作用을 行할 수가 있는 것이오, 비록 蜂蟻社會와 同一치 아니하다 하드래도, 저 長의 時運의 權力

支配의 社會와 같이 師傅가 弟子를 欺瞞하거나 搾取하거나 陰害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理에는 成의 時運에 師傅政治가 行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다. 지금의 先天時代에도 사람을 敎育하는 師傅의 道가 없는 것은 아니나 先天의 敎育은 長의 時運에 處하여 사람들의 心氣가 外向하여 外的知識의 獲得에 專力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자라게 하기는 하되 사람을 여물게 하지는 못하여, 비록 敎育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天性에 쭉정이가 많고 알맹이가 적은 것이다. 成의 時運에 神道가 行하는 師傅政治의 行하는 社會에서는 唯一神을 大始祖로 모시고 國家의 統率者인 師傅는 神과 相通하여 父母의 格이 되고 全社會가 한 家族으로 되어 和平한 生活을 享有하는 것이다.

註 ●易學의 父子 國家 師傅의 道

天地自然數로써 構成된 河圖洛書 및 正易數에 父子의道 國家의道 師傅의道 가 있으니, 河圖의 數는 五行이 相生으로 되어 父傳子受의 象이 되므로 父子의 道가 되는 것이오, 洛書의 數는 五行이 相克으로 되어 勢力으로써 相勝하는 象이 되므로 勢力으로써 權力을 爭奪하는 國家의 道가 되는 것이오, 正易의 數는 五行이 克成으로 되어 師傅가 弟子의 天性을 여물게 하는 象이 되므로 師傅의 道가 되는 것이다.

五行의 相克과 克成은 그 象이 同一하면서 그 運行은 判然히 相異하니, 相克이라 함은 長의 時運에 自身이 자라기 爲하여 他를 克하여 自身의 자라는 資料를 삼고 自身이 被克者의 世代繼承者가 되는 것이오, 克成이라 함은 成의 時運에 他를 克하여 그 天性을 여물게하고 他로 하여금 克者의 世代를 繼承하는 者로 삼는 것이니, 이는 長의 時運에는 사람이 自由意志를 가지고 生長競爭을 行하여 他를 克하고 克者의 生長을 圖하는 것이오, 成의 時運에는 神이 사람의 天性을 여물게 하는 때이므로 그 克이라는 것은 克者의 生長을 爲함이 아니라 他를 克制하여 그 天性의 속에 神作用을 갈무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河圖五行의 相生하는 生의 時運에는 父子의 道가 行하고, 洛書五行의 相克하는 長의 時運에는 國家의 道가 行하

고 正易五行의 克成하는 成의 時運에는 師傅의 道가 行하는 것이다. 또 互卦에도 父子 國家 師傅의 道의 象이 있으니 互卦라함은 卦中의 人位를 相互하여 卦를 지은 것이다. 三劃卦는 中劃이 人의 象이오 六劃卦는 三爻와 四爻가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六劃卦에서는 三爻四爻와 中劃인 二爻五爻가 모두 人의 象이오 이 人象의 爻를 모두 中爻라 한다. 中爻의 四劃을 相互하여 三四五로써 上卦를 삼고 二三四로써 下卦를 삼아서 六劃卦를 만든 것이 곧 互卦이니, 그러므로 互卦는 天地間에 人類가 生生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며 互卦에 父子의道 國家의道 師傅의道 가 있는 것은 趙柯汀의 學說에서 取한 것이다. 序卦의 首에 있는 乾卦의 互卦는 亦是乾卦이오 坤卦의 互卦는 亦是 坤卦이니 이는 第一世 乾坤이 第二世 乾坤을 生하는 것으로서, 父母가 子女를 生하여 世世生生하는 父子傳承의 道가 되는 것이다. 序卦의 終에 있는 旣濟卦의 互卦는 未濟卦이오 未濟卦의 互卦는 旣濟卦이니 이는 第一世 旣濟가 第二世 未濟를 生하고 第一世 未濟가 第二世 旣濟를 生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子를 바꿔서 他子로써 자기의 繼承者인 子를 삼아 「子를 바꿔서 가르친다」는 師傅傳承의 道가 되는 것이다. 乾 坤 旣濟 未濟의 四卦를 除하면 그 나머지의 六十卦는 모두 父子가 隱藏하고 子女가 홀로 出現하니 이는 子女가 父母를 離脫하여 國家社會로 進出하는 것으로서 國家社會의 世世傳承하는 道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生長成은 生하기를 父子의 道로써하여 父傳子受하는 相生으로써 繼承하는 것이오, 자라기를 國家의 道로써하여 勢力의 相勝하는 相克으로써 繼承하는 것이오 여물기를 師傅의 道로써하여 스승이 弟子를 敎育하는 克成으로써 繼承하는 것이다. 序卦는 互卦의 象으로써 이 세 가지를 말하니, 사람의 生함은 父子에서 始하는 것이므로 父子의 道인 乾坤으로써 首를 삼은 것이오, 父子가 있으면 國家社會가 組織되는 것이므로 屯卦에서 建侯한 以後는 國家社會의 道로써 序한 것이오 國家社會가 있으면 모든 對待를 調和하기 爲하여 師傅의 道로써 易簡의 理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師傅의 道인 旣濟 未濟로써 序卦를 終한 것이다.

■日月運行法則이 政治의 原理이다

師傅政治는 神道에 依한 政治인데, 神道라함은 天에 있어서는 日月의 運行이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 神道이오 人間에 있어서는 聖人의 設한 宗敎가 神道이다. 佛敎 儒敎 基督敎는 세 聖人이 神道로써 사람을 가르친 宗敎이니, 先天時代의 長의 時運에는 사람들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政治를 行하고 있으므로 神道로써 部分的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宗敎는 設할 수가 있으나 神道로써 全民衆을 다스리는 政治는 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면 政治도 또한 神道로써 行치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며, 神道政治는 日月運行의 法則을 取하여 그 原理를 삼는 것이니, 正易에 「日月의 政이 至神至明하다」 하고 또 「雷風이 位를 正하고 政을 用한다」 하여 日月의 運行을 政이라고 한 것은 日月에 政治原理가 있다 함을 말함이오, 이는 사람의 씨가 日月에서 生한 까닭에 日月의 運行法則이 바로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인 政治原理가 되는 것이다. 正易은 近世에 우리 나라의 易學者 一夫先生이 天의 啓示를 받아서 지으신 글로서 長의 時運의 學問인 易經을 後繼하여 成의 時運에 日月軌道의 變化하는 象을 豫示한 學問인데, 正易의 理에 依하면 長의 時運에는 萬物이 자라서 閏餘가 生하는 象이오 日月의 行度에도 스스로 閏餘가 生하여 지금의 一歲日數가 三百六十五日餘가 되니 一歲의 日數는 三百六十日이 正한 것이므로 지금의 每歲 五日餘는 閏數로 되는 것이다. 日月行度에 閏餘가 있으므로 日月의 行度가 서로 差錯하여, 몇해에 한번씩은 閏日이나 閏月을 두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을 日月行度의 不正이라고 하며 日月이 不正하므로 萬物의 자라는 것도 또한 正치 못하여 人口가 過度히 膨脹하고 人心이 바르지 못한 일이 많은 것이다.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면 周天度數는 꼭 三百六十度가 되고 一歲의 月數는 꼭 十二月이 되고 一月의 日數는 꼭 三十日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日月의 正한 것으로서 一夫先生이 正易에 發表한 后天正曆이다. 后天正曆은 閏이 없고 正하므로 그 時運에는 陰陽의 調和에 依하여 人口가 自然調節되고 萬物도 여물어서 그 形이 正하고 人心도 正을 向하고 政治도 이 日月正度의 理를 取하는 것이다. 日月正

度라함은 易經에 말한 易簡(이간)이오 易簡이라 함은 易字가 日과 月로써 構成됨과 같이 太陽이 陽氣를 달에 發施하여 物을 創始하는 作用이 極히 平易함을 易라하고, 簡字가 月로써 構成됨과 같이 달이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여 物을 作成하는 作用이 極히 簡約함을 簡이라 하는 것이며, 易簡은 곧 日月의 政이다. 日月이 天地間을 運行하여 晝夜와 四時를 生하고 萬物을 生成함이 至公無私하여 萬物은 日月의 運行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生하고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여물면서 스스로 富有하고 스스로 日新하니 이가 日月의 易簡의 政이다. 저 愚妹無知한 鳥獸虫魚도 能히 交精의 作用을 行하여 生長成하고 아무 意識이 없는 草木도 能히 交配의 機能을 다하여 生長成하고 있는 것은 모두 日月易簡의 政에 依한 것이다. 사람이 政治를 行함에 發施하는 政令이 平易하여 人心에 合치 아니하는 것이 없으면 이는 易가 되는 것이오, 承受하는 民心이 簡約하여 政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簡이 되는 것이니, 政令과 民心이 서로 感應하여 生物들의 生成作用과 같이 自然스럽게 行하는 것이 곧 易簡政治이다.

先天의 長의 時運에는 사람들의 天性이 여물지 못하고 政治가 未成品인 人間들의 自由意志에 依하여 行하고 政治를 行하는 者가 日月易簡의 理를 알지못하니, 그러므로 政治가 險阻하기만 하여 千章萬條의 法令을 만들고 複雜多歧한 機構를 만들며, 나라의 爲政層이 權力을 잡고 모든 法令을 만들고 있는데 實際로 나라의 法令을 어기는 者는 無勢無力한 民衆이 아니라 法令을 만든 者가 도리어 自身의 만든 法令을 어기는 것이 거의 大部分이니, 이 까닭에 政治가 易簡치 못하여 日月의 運行法則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日月의 運行法則을 原理로한 后天政治는 어떠한가하면 后天에는 日月의 運行하는 自然法則을 본받아서 師傅가 弟子를 가르치듯 하면서 사람을 生養하는 事業을 行할 뿐이오 아무런 虛僞 私慾이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千條萬項의 强制法令이 必要치 아니하고 複雜盤錯한 權力機關이 쓸곳이 없고 온 世上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곧 政治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釋迦 孔子 基督의 세 聖人의 敎는 日月의 運行하는 神道에 依하여 設한 것이오 后天에는 三敎의 合一된 새 宗敎가 나와서 사람들을 敎育하는데, 敎育과 政治는 元來 한가지이오 두가지가 아니며, 또 사람의 씨가 日月에서 生하였으므로 敎育과 政治가 모두 日月의 運行하는 自然法則을 原理로 하고 있어 또한 敎育과 政治가 그 本源이 同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一夫先生의 提示한 正曆의 原理가 바로 后天宗敎와 后天政治의 原理로 되는 것이오, 이 正曆原理에 依하여 새 宗敎와 새 政治가 實行되면 이 世上에는 지금 사람들의 意思의 全然 想到치 못하는 社會가 展開되는 것이다.

尾

易 經 大 意

易經大意

卦爻彖象의 辭 ——— 143
卦辭 ——— 143
爻辭 ——— 143
彖辭 ——— 144
象辭 ——— 145
文言 ——— 146
序卦 ——— 146
序卦 ——— 150
四維와四正의 互卦 ——— 151
乾 ——— 160
乾元亨利貞 ——— 160
彖辭와 文王八卦圖 ——— 161
爻辭와 文王八卦圖 ——— 162
初九 潛龍勿用 ——— 162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 164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無咎 ——— 164
九四 或躍在淵無咎 ——— 165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 166
上九 亢龍有悔 ——— 167
用九 見群龍無首吉 ——— 167
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 168
雲行雨施 品物流形 ——— 170
大明終始 六位時成 ——— 171

時乘六龍 以御天 ——— 172

乾道變化 各正性命 ——— 173

保合太和 乃利貞 ——— 174

首出庶物 萬物咸寧 ——— 176

乾彖과 文王八卦圖 ——— 177

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 ——— 177

潛龍勿用 陽在下也 見龍在田 德施普也 終日乾乾 反復道也 或躍在淵 進無咎也
飛龍在天 大人造也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用九 天德不可爲首也 ——— 179

文言曰 元者善之長也....故曰乾元亨利貞 ——— 181

初九曰 潛龍勿用 何謂也.... ——— 183

九二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 184

九三曰 君子終日乾乾...雖危無咎矣 ——— 186

九四曰 或躍在淵...故無咎 ——— 187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 187

上九曰 亢龍有悔 何謂也... 動而有悔也 ——— 189

潛龍勿用下也 見龍在田時舍也 終日乾乾行事也 或躍在淵自試也 飛龍在天上治也
亢龍有悔窮之灾也 乾元用九天下治也 ——— 190

潛龍勿用陽氣潛藏 見龍在田天下文明 終日乾乾與時偕行 或躍在淵乾道乃革 飛龍
在田乃位乎天德 亢龍有悔與時偕極 乾元用九乃見天則 ——— 191

乾元者 始而亨者也...雲行雨施天下平也 ——— 192

君子 以成德爲行....君子弗用也 ——— 193

君子 學以聚之....君德也 ——— 194

九三 重剛而不中....雖危無咎矣 ——— 194

九四 重剛而不中....故無咎 ——— 195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況於鬼神乎 ——— 195

四時日月 ——— 197
亢之爲言也.....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 198
坤 ——— 200
坤 元亨利牝馬之貞. . . . 安貞吉 ——— 200
彖辭와 文王八卦圖 ——— 201
爻辭와 文王八卦圖 ——— 201
彖曰 至哉坤元 萬物資始 乃順承天 ——— 202
坤厚載物 德合無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 203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 君子攸行 ——— 204
先迷失道 後順得常 ——— 205
西南得朋 乃與類行 東北喪朋 乃終有慶 (安貞之吉 應地無疆) ——— 206
安貞之吉 應地無疆 ——— 206
應地無疆 ——— 207
坤彖과 正易八卦圖 ——— 207
象曰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 208
初六 履霜堅氷至 象曰 履霜堅氷陰始凝也 馴致其道至堅氷也 ——— 208
六二 直方大. . . .不習無不利 地道光也 ——— 209
六三 含章可貞 . . . . 或從王事 知光大也 ——— 210
六四 括囊無咎無譽 象曰 括囊無咎愼不害也 ——— 211
六五 黃裳元吉 象曰 黃裳元吉文在中也 ——— 212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象曰 龍戰于野 其道窮也 ——— 212
用六 利永貞 象曰 用六永貞 以大終也 ——— 214
坤文言 ——— 214

文言曰 坤至柔而動也剛 . . . .承天而時行 —— 215
積善之家 必有餘慶 . . . .蓋言順也 —— 216
直其正也 方其義也 . . . . 不疑其所行也 —— 217
陰雖有美含之 以從王事 . . . . 代有終也 —— 217
天地變化草木蕃 . . . . 蓋言謹也 —— 218
君子黃中通理 . . . . 美之至也 —— 218
陰疑於陽必戰 . . . . 天玄而地黃 —— 219
屯 水雷 —— 220
序卦 —— 223
大象 —— 224
蒙 山水 —— 228
序卦 —— 231
大象 —— 232
需 水天 —— 233
序卦 —— 235
大象 —— 235
訟 天水 —— 237
序卦 —— 239
大象 —— 239
師 地水 —— 241
序卦 —— 243
大象 —— 243
比 水地 —— 245

序卦 248
大象 248
小畜 風天 249
序卦 252
大象 252
履 天澤 253
序卦 255
大象 255
泰 地天 256
序卦 259
大象 260
否 天地 260
序卦 263
大象 263
同人 天火 264
序卦 266
大象 267
大有 火天 268
序卦 271
大象 271
謙 地山 272
序卦 276
大象 277

豫 雷地 278
時義大矣哉 281
序卦 282
大象 283
隨 澤雷 285
序卦 287
大象 289
蠱 山風 290
序卦 294
大象 294
臨 地澤 296
序卦 299
大象 299
觀 風地 300
序卦 302
大象 303
噬嗑 火雷 303
序卦 308
大象 308
賁 山火 309
序卦 312
大象 312
剝 山地 313

序卦 315
大象 315
復 地雷 316
序卦 319
大象 319
無妄 天雷 320
序卦 322
大象 323
大畜 山天 323
序卦 325
頤 山雷 327
時大矣哉 329
序卦 331
大象 331
大過 澤風 332
時大矣哉　頤卦下 333
序卦 334
大象 335
習坎 重水 335
時用大矣哉 336
序卦 338
大象 338
離 重火 340

序卦 342
大象 342
咸 澤山 344
天地萬物之情 346
序卦 348
大象 349
恒 雷風 350
日月四時 352
天地萬物之情　　咸卦下 352
序卦 353
大象 353
遯 天山 354
時義大矣哉　　豫卦下 355
序卦 356
大象 356
大壯 雷天 356
序卦 358
大象 358
晉 火地 359
序卦 361
大象 361
明夷 地火 362
序卦 364

大象 ——— 364
家人 風火 ——— 365
序卦 ——— 368
大象 ——— 369
睽 火澤 ——— 370
時用大矣哉　　習坎卦下 ——— 371
序卦 ——— 372
大象 ——— 373
家人 睽 蹇解의 變易現象 ——— 375
蹇 水山 ——— 376
時用大矣哉習坎卦下 ——— 378
序卦 ——— 379
大象 ——— 379
解 雷水 ——— 379
時大矣哉　頤卦下 ——— 380
序卦 ——— 381
大象 ——— 381
損 山澤 ——— 382
序卦 ——— 386
大象 ——— 386
益 風雷 ——— 388
序卦 ——— 391
大象 ——— 391

夬 澤天 ——— 392
序卦 ——— 394
大象 ——— 395
姤 天風 ——— 396
時義大矣哉豫卦下 ——— 398
序卦 ——— 399
大象 ——— 399
萃 澤地 ——— 400
天地萬物之情　咸卦下 ——— 403
序卦 ——— 403
大象 ——— 404
升 地風 ——— 405
序卦 ——— 406
大象 ——— 406
胎宮夬姤萃升과 困井革鼎 ——— 407
困 澤水 ——— 409
大象 ——— 412
井 水風 ——— 412
大象 ——— 415
革 澤火 ——— 415
時大矣哉　頤卦下 ——— 417
鼎 火風 ——— 421
序卦 ——— 424

大象 424

震 重雷 425

序卦 428

大象 429

艮 重山 430

序卦 432

大象 432

漸 風山 433

序卦 435

大象 435

歸妹 雷澤 437

序卦 440

大象 440

豐 雷火 441

序卦 443

大象 443

旅 火山 445

時義大矣哉　豫卦下 446

序卦 447

大象 448

巽 重風 448

序卦 450

大象 450

兌 重澤 451
序卦 453
大象 453
渙 風水 454
序卦 456
大象 457
節 水澤 458
序卦 460
大象 460
中孚 風澤 461
序卦 465
大象 465
小過 雷山 465
序卦 468
大象 468
既濟 水火 469
序卦 472
大象 472
未濟 火水 473
序卦 475
大象 475
繫辭 上 477
一. 天尊地卑章 477

天尊地卑乾坤定矣 ----在地成形變化見矣 ——— 477
是故剛柔相摩 ---- 坤道成女 ——— 478
乾知大始 ---- 成位乎其中矣 ——— 480
二. 聖人設卦 章 ——— 481
聖人設卦觀象 ---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 481
是故君子所居而安者 --- 自天祐之吉無不利 ——— 482
三. 彖者言乎象 章 ——— 483
彖者言乎象者也 --- 無咎者善補過也 ——— 483
是故 列貴賤者存乎位 --- 辭也者 各指其所之 ——— 483
四. 易與天地準 章 ——— 484
易與天地準 --- 知鬼神之情狀 ——— 484
與天地相似故不違 --- 安土敦乎仁故能愛 ——— 486
範圍天地之化而不過 --- 神無方而易無體 ——— 486
五. 一陰一陽 章 ——— 487
一陰一陽之謂道 --- 君子之道鮮矣 ——— 487
顯諸仁 ..... 日新之謂盛德 ——— 488
生生之謂易 ..... 陰陽不測之謂神 ——— 489
六. 易廣矣大矣 章 ——— 490
夫易廣矣大矣 ... 是以廣生焉 ——— 490
廣大配天地 .... 易簡之善配至德 ——— 491
七. 易其至矣 章 ——— 491
子曰易其至矣乎 ... 成性存存道義之門 ——— 491
八. 擬言議動 章 ——— 492
聖人有以見天下之賾 ... 擬議以成其變化 ——— 492

鳴鶴在陰其子和之 ... 493

同人先號咷而後笑 ... 494

初六藉用白茅無咎 ... 495

勞謙君子有終吉 ... 496

亢龍有悔 ... 496

不出戶庭無咎 ... 497

子曰 作易者其知盜乎 497

九. 大衍數 章 499

天一地二 ..... 成變化而行鬼神也 499

大衍之數五十 ... 當萬物之數也 500

四十九數의 分掛揲扐의 順序 揲세어가질설 扐끼울륵 502

是故 四營而成易 ... 其知神之所爲乎 504

十. 聖人之道四焉 章 505

易有 聖人之道四焉 ... 以卜筮者尙其占 505

是以君子將有爲也 ... 非天下之至精其孰能與於此 505

參伍以變 ... 非天下之至變 其孰能與於此 506

易無思也無爲也 ...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507

夫易聖人所以極深而研幾也 ... 此之謂也 508

十一. 開物成務 章 508

子曰 夫易何爲者也 ... 是故蓍之德圓而神 ... 是故闔戶謂之坤 .. 是故易有太極 .. 是故法象莫大乎天地 ... 是故天生神物 .. 易有四象 ... 易曰自天祐之 .... 是以自天祐之吉無不利 508

十二. 易有四象 章 512

易有四象所以示也 繫辭焉所以告也 ... 不言而信存乎德行 512

繫辭 下 ——— 515

一. 八卦成列 章 ——— 515

八卦成列 ... 剛柔者立本者也 .. 夫乾確然 ... 聖人之情見乎辭 ——— 515

二. 天地大德 章 ——— 517

天地之大德曰生 ... 古者包犧氏之王天下 ... 作結繩而爲網罟 ... 是故易者象也象也者像也 ——— 517

三. 彖者材也 章 ——— 521

彖者材也 ——— 521

四. 陽卦多陰 章 ——— 521

陽卦多陰陰卦多陽 ... 陰二君而一民小人之道也 ——— 521

易曰憧憧往來朋從爾思 ... 窮神知化德之盛也 ——— 522

易曰 困于石據于蒺藜 ... 妻其可得見邪 ——— 524

易曰公用射隼于高墉之上 ... 語成器而動者也 ——— 525

子曰小人不恥不仁 ... 屨校滅趾無咎此之謂也 ——— 527

善不積不足以成名 ... 易曰何校滅耳凶 ——— 528

子曰危者安其位者也 ... 易曰其亡其亡繫于苞桑 ——— 529

子曰德薄而位尊 ... 言不勝其任也 ——— 530

子曰知幾其神乎 ... 知微知彰知柔知剛萬夫之望 ——— 531

子曰顔氏之子其庶幾乎 ... 不遠復無祗悔元吉 ——— 533

天地絪縕萬物化醇 ... 言致一也 ——— 534

子曰君子安其身而後動 ... 立心勿恒凶 ——— 535

五. 乾坤易之門 章 ——— 537

子曰乾坤其易之門邪 ... 夫易彰往而察來 ... 其稱名也 ... 井以辨義巽以行權 — 537

六. 九德 章 ——— 538

七. 易不可遠 章 ——— 540

易之爲書也不可遠 ... 其出入以度 ... 道不虛行 ——— 540

八. 原始要終 章 ——— 541

易之爲書也原始要終 ... 若夫雜物撰德 ... 二與四同功而異位 ... 其剛勝邪 ——— 541

九. 易三才 章 ——— 543

易之爲書也廣大悉備 ... 道有變動 ... 文不當故吉凶生焉 ——— 543

十. 殷之末世 章 ——— 543

易之興也其當殷之末世 ... 是故其辭危 ... 此之謂易之道也 ——— 543

十一. 易簡險阻 章 ——— 544

夫乾天下之至健也 ... 是故變化云爲 ... 八卦以象告 ... 將叛者其辭慙 ... 失其守者其辭屈 ——— 544

十二. 八卦以象告 章 ——— 545

說卦 ——— 547

一. 幽贊神明 ——— 547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 ... 易六位而成章 ——— 547

二. 順性命 章 ——— 548

三. 天地定位 章 ——— 549

天地定位山澤通氣 ... 數往者順知來者逆 ... 乾以君之坤以藏之 ——— 549

四. 數往知來 章 ——— 550

五. 帝出乎震 章 ——— 551

帝出乎震 ... 萬物出乎震 ... 故曰成言乎艮 ——— 551

六. 神也者 章 ——— 554

神也者妙萬物而爲言 ... 故水火相逮 ... 旣成萬物也 ——— 554

七. 乾健也 章 ——— 556

乾健也坤順也 ... 乾爲馬坤爲牛 ... 乾爲首坤爲腹 ... 乾天也故稱乎父 ... 兌三索而得女故謂之少女 ——— 556

八. 乾爲馬 章 ——— 556

九. 乾爲首 章 ——— 557

十. 乾天也 章 ——— 557

十一. 乾爲天 章 ——— 557

乾 ——— 557

坤 ——— 559

震 ——— 561

巽 ——— 563

坎 ——— 566

離 ——— 569

艮 ——— 571

兌 ——— 573

序卦와 雜卦 ——— 575

文王八卦圖와 大過互卦圖 ——— 576

字句解 ——— 580

序卦와 六十甲子 ——— 595

易經原文 ……597

易 經 大 意

卦爻彖象의 辭

卦辭

卦名下에 辭를 繫한 것은 卦辭이다. 卦는 掛함이니 事物의 象을 懸掛하여 示한다는 뜻이며, 卦는 天道의 陰陽變化를 觀하여 효한 것이므로 卦辭는 天道의 陰陽變化를 말한 것인데, 元亨利貞이라는 辭는 天道의 運行을 表示하는 말이므로 卦辭는 主로 元亨利貞으로써 表示한 것이다.

爻辭

各 爻下에 辭를 繫한 것은 爻辭이다. 爻는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運動變化하고 있는 象을 示한다는 뜻이며, 爻는 地道의 剛柔를 發揮하여 生한 것이므로 爻辭는 地道로써 萬物의 情僞의 相感함을 말한 것이다.

爻의 陰陽을 表示하기 爲하여 陽爻는 九라하고 陰爻는 六이라 하니, 이는 乾坤九六의 뜻이다. 天地自然數에 一, 三, 五, 七, 九는 陽數이오 二, 四, 六, 八, 十은 陰數인데 陽은 生長作用을 行하고 生長作用은 物의 先端에 있는 것이므로 陽爻는 陽數의 先端인 九를 쓰고, 陰은 收斂作用을 行하고 收斂作用은 物의 中央에 있는 것이므로 陰爻는 陰數의 中央인 六을 쓴 것이다. 또 自然數中의 成數는 六, 七, 八, 九인데 七, 九는 陽의 成數이오 六, 八은 陰의 成數이며, 陽의 生長은 七로부터 上하여 九에 極하므로 七은 少陽이 되고 九는 老陽이 되며, 陰의 收斂은 八로부터 下하여 六에 極하므로 八은 少陰이 되고 六은 老陰이 되니, 九와 六은 生長과 收斂의 極數이므로 모든 變動은 極數에서 일어난다는 理에 依하여 九, 六에서 變動이 일어나는 것이오, 卦의 乾坤은 老陽과 老陰의 象이므로 乾은 九로 되고

坤은 六으로 되어 乾坤에서 天地의 一闔一闢하는 運動과 變通이 生하는 것이다. 爻라 함은 天地가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變動한다는 뜻이오, 이 變動한다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九와 六을 쓴 것이다.

乾坤卦 以外의 卦에도 陽爻를 九라하고 陰爻를 六이라 하니, 이는 各 卦는 비록 父母子女의 別이 있으나 모두 乾坤의 六子로 되어 그 陽爻 陰爻가 乾坤에서 生한 것이므로 陽爻에 乾의 數인 九를 쓰고 陰爻에 坤의 數인 六을 쓰는 것이다. 九와 六은 그 數爻에는 大小의 差가 있으나 그 作用은 平等하니, 例컨대 사람에게 九竅가 있으되 九竅의 體는 耳, 目, 口, 鼻, 前陰, 候陰의 六官이오, 九竅가 곧 六官이므로 九, 六은 平等한 것이다.

彖辭

各 卦下에 彖曰이라 한 것은 彖辭이다. 彖이라 함은 豕가 走함이니 豕는 坎의 象이오 坤이 乾의 中氣를 交하여 坎이 되는 것이므로 豕가 走한다 함은 地가 天을 承하여 運行한다는 뜻이오, 彖辭라 함은 地道가 天道인 卦辭를 承受하는 辭이라 함이다. 그러므로 彖辭는 地道로써 天道인 卦辭를 承受하여 說明한 것이오, 다만 卦辭만을 解釋한 註疏나 傳이 아니며, 主로 地의 承受하는 日月 四時 晝夜의 象으로써 萬物의 生長成하는 象을 말하니, 그 까닭에 彖辭에는 卦辭以外의 辭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彖辭는 爻辭와 直接 關聯되어 있으므로 繫辭에는 爻辭의 解釋에 對하여 「知한 者가 그 彖辭를 觀하면 思가 半을 過하리라」 한 것이다. 彖辭는 全卦의 材를 總論한 것이오 爻辭는 그 爻가 上을 交하고 下를 交하여 運動變化함을 말한 것으로서 하나는 全體이오 하나는 部分이니, 그러므로 彖辭는 全體와 部分이 서로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그 相異한 바는 彖은 卦 全體를 材로 하여 天道와 地道를 말한 것이므로 上 二爻는 天의 位로 되고 下 二爻는 地의 位로 되고 中 二爻는 人의 位로 되어 天地組織의 象

이 되니 그러므로 먼저 卦 組織의 主爻의 뜻을 말하고 다음에 地承天의 理에 依하여 天位인 上卦의 爻로부터 말하여 漸次로 人位와 地位에 及하니, 그 까닭에 元, 亨, 利, 貞도 元亨은 上卦의 象이 되고 利貞은 下卦의 象이 되는 것이다. 爻辭는 各爻의 處하여 있는 位로써 物의 生生變動하는 象을 말한 것인데, 地가 萬物을 生함에는 반드시 下로부터 生하여 上升하는 것이므로 爻辭는 下爻를 初로 하고 初로부터 上하여 初, 二, 三, 四, 五, 上의 順序가 되며, 그 生成의 象으로는 下卦의 中爻는 生의 中心이 되고 上卦의 中爻는 成의 中心이 되는 것이다.

또 彖辭는 卦의 組織을 말한 것이므로 天의 發施한 씨를 地가 承受하여 作成한다는 象을 取하니, 이는 天地의 組織된 空間을 象함이오, 爻辭는 爻의 運行을 말한 것이므로 地가 物을 生하여 上升한 것을 天이 果實로 여물게 한다는 象을 取하니, 이는 天地의 運行하는 時間을 象함이니, 天은 씨와 果實을 主하고 地는 形質의 長함을 主한 것이다. 元, 亨, 利, 貞은 氣이오 天道는 氣의 流行이므로 彖辭는 天氣의 下降함을 象하여 上으로부터 下로 下하는 順序를 取한 것이며, 生, 長, 成은 形質이오 地道는 形質의 凝做이므로 爻辭는 形質의 上升함을 象하여 下로부터 上으로 上하는 順序를 取한 것이다.

象辭

各卦下와 各爻下에 象曰이라 한 것은 象辭이다. 各卦下의 象辭는 全卦의 象을 말한 것이오 各爻下의 爻(象)辭는 各爻의 象을 말한 것이다. 易經에는 모든 事物이 어느 하나도 象이 아닌 것이 없으나 여기에 特히 象曰이라 한 것은 繫辭에 「象也者像也」라 하고 또 易簡(이간)의 뜻을 말함에 「象也者像此者也」라 함과 같이 像은 人과 象으로 되어 사람의 行하는 바의 人道를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象辭는 人道를 말한 것이다.

文言

文言이라 함은 繫辭에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卽聖人之意 其不可見乎」아 하여 辭와 變과 象과 神으로써 易理를 알 수 있음을 말하니 辭變象神은 곧 聖人의 盡言하는 書와 盡意하는 言이오 書와 言이 곧 文言이다. 乾坤은 易의 門이오 또 易의 緼이므로 乾坤에 特히 文言을 두어 易學解釋의 方法을 示한 것이다.

序卦

序卦는 六十四卦의 生生하는 序次를 排列한 것이다.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의 八卦는 宇宙間을 運行하면서 萬物의 生長成作用을 行하는 根本 要素인데, 萬物의 運動하는 現狀을 보건대, 모두 八卦의 上下 內外의 相互接觸에 依하여 運動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八卦를 上下로 因重하여 六劃의 六十四卦를 지은 것이다. 三劃卦는 物의 組織의 象이오 六劃卦는 物의 生하고 또 成하는 象이라 그러므로 六劃卦를 上下의 位로써 보면 上 二劃은 天의 象이 되고 下 二劃은 地의 象이 되고 中 二劃은 人의 象이 되니, 이는 사람이 天地의 사이에서 三才의 位를 이루고 있는 象이오 이 象에 依하여 易學에는 天道가 있고 地道가 있고 人道가 있는 것이며, 天道로서는 萬物의 씨가 天에서 生하여 地에서 形質을 成하고, 地道로서는 萬物의 씨가 地에서 싹이 生長하여 天에서 열매를 成實하는 것이다.

天地는 一個 生命의 有機體이오 各 部分의 萬物도 또한 各個 生命의 有機體로서 모두 自體안에 自體의 生成法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萬物 各個의 生長成에는 모두 同一한 起源과 共通한 法則이 있어, 어느 한 部分에 變化가 發生하면 全有機體가 반드시 그것을 因緣하여 連鎖的 變化가 일어나며, 또 그 變化形態는 各其 自體의 生生法則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十四卦의 卦序는 이미 乾이 있으면 반드시 坤이 있

고 坤이 있으면 또 반드시 屯蒙以下의 六十二卦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緣緣生生이오, 易經의 序卦는 이 生命體의 緣緣生生의 理로써 時運의 生長成하는 象을 말하고 그것으로써 天地, 人事및 萬物의 運行變化하는 象과 原因을 밝힌 것이다.

序卦는 易學의 主要한 組織이니, 이것을 人身으로써 보면 人身의 耳, 目, 口, 鼻, 頭, 腹, 手, 足等 百體는 身體를 構成하는 原材이오 이 原材가 各各 그 位에 當하여 配列된 까닭에 사람에게 生命이 있고 性情이 生하는 것이며, 易學은 天地와 準似하여 하나의 生命體로 되어 그 속에 神明의 德을 通하고 萬物의 情을 類하여 鬼神을 行하고 있으니, 이는 六十四卦라는 原材가 序次를 定하여 各各 그 位에 當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易學을 지은 聖人이 그 序次의 錯亂될 것을 念慮하여 特히 序卦 一篇을 지어 한 生生體系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易卦는 二卦가 一宮으로 되어 모두 三十二宮이 되는데 各 宮은 變易卦와 反易卦로 되어 있는 것이다. 萬物의 變化에는 變易, 反易, 交易의 三易의 象이 있고 易卦에도 三易의 象이 있다. 變易이라 함은 物의 發展過程에 그 作用이 對待物로 變하는 形態이니, 寒이 暑로 變하고 暑가 寒으로 變하면서 陰陽이 互易하여 物을 生生하는 것 等이 곧 變易이오 지금에 어느 一物이 異質의 他物로 轉變하는 것을 化學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變易의 한 形態이며 易卦에 乾이 坤으로 變하고 坤이 乾으로 變하여 乾坤이 同宮함과 같은 것이 變易卦의 宮이다. 反易이라 함은 物의 現狀의 속에서 그 對待되는 物이 發用하는 때에 반드시 그 本體되는 現狀과 倒逆하여 反生하는 形態이니 舊事物의 속에서 新事物이 生하는 때에는 그 新事物의 作用은 반드시 舊事物의 形態와 相反하는 것으로서 母體中에서 胎兒가 母體와 逆生하여 있고 그믐달이 初生달로 倒生하는 것 等이 곧 反易이오 지금에 生物體에서 生生作用의 變化가 일어나서 새로운 作用을 生함을 生理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反易의 한 形態이며, 易卦에 屯이 蒙으로 反하고 蒙이 屯으로 反하여 屯蒙이 同宮함과 같은 것이 反易卦의 宮이다.

交易이라 함은 物의 運動過程에 그 位가 對待物로 換易하는 形態이니, 太陽이 上에 있고 地가 下에 있어 上下의 位가 定하여 있으되 物을 生生함에는 太陽의 陽氣가 地에 下하여 光熱로 되고 地의 水氣가 上하여 雲雨로 되는 것 等이 곧 交易이오, 지금에 物의 本質은 變치 아니하고 오직 相與하는 形態만 變하는 것을 物理的變化라 하는 것은 또한 交易의 一形態이며 易卦에 需가 訟으로 變하고 訟이 需로 變하여 需訟이 同宮함과 같은 것이 交易卦의 宮이다. 萬物의 生生은 主로 父母가 子를 生하는 生理的變化인 反易의 理에 依하여 世世繼生하고 無에서 有가 生하는 때에는 陰陽의 相易하는 化學的變化인 變易의 理에 依하여 비로소 有形이 生하며 오직 物理的變化인 交易으로서는 物이 繼生치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序卦는 變易宮과 反易宮만으로써 序次를 定한 것이다. 序卦中에 反易으로써 序하는 卦는 五十六卦 二十八宮이오, 變易으로써 序하는 卦는 八卦 四宮이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八分之七이 生理的變化인 反易의 形態로써 生하여 繼世하고 八分之一이 化學的變化인 變易의 形態로써 生하여 繼世하는 것이다. 宇宙創生의 初에는 無에서 有가 始生하는 때이므로 父傳子受하는 反易의 象이 없고 오직 無中生有하는 變易의 象이 있으므로 序卦는 變易하는 天地卦인 乾坤으로써 首卦를 삼고 乾坤卦가 易의 門이 되어 六十四卦의 理를 統括하고 또 文王八卦圖와 서로 表裏가 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六十四卦中에서 오직 乾坤 二卦를 揭하여 文王八卦圖의 解說을 삼는 것이다. 生理的變化의 繼世는 胎生의 象이오 化學的變化의 繼世는 化生의 象이니 宇宙는 創生初에 無中生有하는 化生(乾坤의例)이 있은 候에도 八分之七이 胎生하고 八分之一이 化生하는 것이다.

萬物은 乾元坤元의 二元作用에 依하여 生生하고 있으므로 序卦도 二元의 理에 依하여 上下 二經으로 나누고 上經은 乾道를 象하고 下經은 坤道를 象하며, 物의 生生運動에는 生長成의 象이 있고, 生長成의 作用은 生長과 收成의 形態로써 行하고 있으므로 易卦에도 生長卦와 收成卦가 있어 生長卦는 上經의 乾道에 屬하고 收成卦는 下經의 坤道에 屬하는 것이다. 生長과 收成의 象을 草木으로써 보면 草木이 下에서 生하여 上으로 上升하는

것은 生長하는 것이므로, 生長하는 者는 下部가 먼저 生하고 다음에 上部가 生하는 것이오 草木의 水液이 上部로부터 下로 下降하는 것은 收成하는 것이므로 收成하는 者는 上部가 먼저 收成하고 다음에 下部가 收成하는 것이며 이 理에 依하여 長中少의 象이 있는 六子卦로서 下卦가 長하고 上卦가 少한 者는 下로부터 上하는 生長의 象이 되고 이러한 卦는 屯 ,蒙, 隨, 蠱, 噬嗑, 賁, 頤, 大過, 困, 井, 革, 鼎의 十二卦이며 上卦가 長하고 下卦가 少한 者는 上으로부터 下하는 收成의 象이 되고 이러한 卦는 家人, 睽, 蹇, 解, 漸, 歸妹, 豊, 旅, 渙, 節, 中孚, 小過의 十二卦이다. 易經의 上經은 生長을 象하므로 生長卦는 上經에 있고 下經은 收成을 象하므로 收成卦는 下經에 있는데 오직 生長卦인 困, 井, 革, 鼎 四卦가 一團이 되어 下經의 中央에 있으니 이는 이 四卦가 母體中의 胎宮으로 되어 收成作用을 行하는 母體中에서 홀로 生長作用을 行하는 胎兒宮이 되는 까닭이다.

上經의 生長卦는 그 序卦의 次序가 모두 分散 되고 있으되 下經의 收成卦는 家人, 睽, 蹇, 解 四卦가 한곳에 聚合하고 漸, 歸妹, 豊, 旅, 渙, 節, 中孚, 小過 八卦가 巽, 兌를 中心으로 하여 또한 한곳에 聚合하고 있으니 이는 物의 生長하는 때는 各其 分散하고 收成하는 때는 서로 어울려서 한곳에 聚合하고 하는 理에 依한 것이다.

上經과 下經의 卦는 또한 各各 生長成의 象이 있으므로 스스로 三 五 七의 數로써 區分되어 있으니, 三 五 七이라 함은 洛書中段의 東三, 中宮五, 西七의 數로서 三은 物의 始形하는 象이오 五는 物의 精氣를 蓄하는 象이오 七은 物의 成熟하는 象이다. 洛書의 上段 一 六 八은 乾道의 位가 되고 下段 二 四 九는 坤道의 位가 되고 中段 三 五 七은 人道의 位가 되는데, 人道의 位는 또한 萬物의 位이므로 三 五 七의 數는 萬物의 生하고 長하고 成하고 함을 象한 것이오 그러므로 萬物의 生長成을 象한 序卦의 順序도 또한 三 五 七의 數로써 區分되는 것이다.

序卦

易의 序卦는 反易과 變易을 取한 것인데 同宮卦에 反易과 變易을 兼한 것은 泰 否, 隨 蠱, 漸 歸妹, 旣濟 未濟 八卦이다. 序卦로써 보면 泰否는 天地가 처음으로 相交하는 卦로서 河圖宮의 中心이 되고 그것이 反易 變易하여 天地가 開闢하면 이에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長의 時運의 始는 生의 時運의 一大 變化이라 그러므로 그 첫 宮에 反易 變易을 兼한 生長卦인 隨,蠱가 當하는 것이다. 泰,否의 속에도 互卦 漸, 歸妹가 있고 隨, 蠱의 속에도 互卦 漸, 歸妹가 있으니 漸, 歸妹는 收斂卦이라. 이는 生長의 속에 스스로 結實하는 收斂이 있는 理이며 序卦의 漸, 歸妹는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一大變化期이므로 漸, 歸妹가 또한 反易變易의 象이 있는 것이다. 漸, 歸妹에서 收斂하기 始作하면 그 結實로서 互卦 旣濟 未濟가 出生하니 旣濟 未濟는 天地가 交互하고 日月이 往來하고 反易과 變易을 兼하고 한, 天地 日月의 一大 變化이며 泰, 否에서 天地가 日月로써 相交한 以後에 旣濟 未濟에서 第二世의 天地日月이 出生하는 것이다. 變易繼世하는 卦는 圜轉하여도 그 形이 變치 아니하므로 그 狀이 圓하여 萬物의 씨의 流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萬物의 流動하는 者는 반드시 圓狀을 띠는 것인데, 萬物의 씨는 世世繼承의 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能動作用을 가지고 不斷히 流動하는 까닭에 動物의 卵, 草木의 子實等의 形이 圓狀을 띠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는 新生命인 씨는 圓狀으로 된 然後에 能히 圜轉하여 다음 段階로 넘어가는 까닭이다. 易卦中에 繼世作用을 行하는 卦도 그것이 新生命인 씨로서 다음 段階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圓狀을 띠고 있는 變易繼世卦로 되는 것이니 序卦의 首卦 乾坤은 天地의 大 씨로서 圓狀卦로 되고 上經의 陽體로부터 下經의 陰體로 넘어가는 씨인 頤, 大過가 또한 圓狀이 되고 이 頤, 大過를 運行하는 水火가 또한 圓狀의 坎離로 된 것이며 下經에는 胎宮에서 胎育된 后天의 씨가 后天으로 넘어가는 때에 또한 中孚小過의 圓狀卦가 運行하고 있는 것이다.

繼世하는 씨는 반드시 震艮의 陽卦로 되고 씨의 形態는 圓狀을 띠고 있는데 그 圓狀은 文王八卦圖의 震艮에 나타나고 있어 震에서 艮으로 圜行하여 圓狀이 되고 있는 것이니 天地의 大 씨인 乾坤에서 生한 屯蒙은 震으로부터 艮하여 圓狀이 되고 上經의 陽體로부터 下經의 陰體로 넘어가는 頤가 또한 震으로부터 艮하고 胎宮에서 生育되는 胎兒가 또한 震艮으로서 序卦의 震으로부터 艮하며, 后天으로 넘어가는 未濟는 樹木에 附着되어 있는 六月 果實로서 그 속에 鬼方을 伐하는 震만 있고 艮果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는 艮果는 未成한 少男으로서 后天에 넘어가서 여무는 까닭이다.

四維와四正의 互卦

文王八卦圖는 天地山風이 四維에 있어 九六七八의 成數가 되는데, 天이 地에 接하여 風이 되므로 天과 風은 天에 屬하고, 地가 天에 接하여 山이 되므로 地와 山은 地에 屬하며 水火雷澤이 四正에 있어 一二三四의 生數가 되는데 火는 太陽의 象이오 火가 下行하여 雷가 되므로 火와 雷는 太陽에 屬하고 水는 달의 象이오 水가 上行하여 澤이 되므로 水와 澤은 달에 屬하는 것이다.

天地의 相交는 地天泰의 形態로써 하고 四維卦를 모두 地天泰의 形態로써 하여 地와 山이 上卦로 되고 天과 風이 下卦로 되면 그 卦는 地天泰, 山風蠱, 山天大畜, 地風升으로 되고 이 四卦의 互卦는 모두 雷澤歸妹로 되니 雷와 澤은 乾元과 坤元이오 歸妹는 收斂卦로서, 雷澤歸妹는 天地의 속에 日月의 作用이 行하여 씨가 生하는 象이다. 地天泰는 文王八卦圖에 地와 天이 西方 兌를 包하고 兌는 妹의 象이므로 六五爻에 帝乙歸妹가 있으니 이는 달에서 사람의 씨의 生하는 것이오 山風蠱는 山과 風이 東方震을 包하고 震은 十干의 甲의 象이므로 彖辭에 先甲後甲이 있으니 이는 씨에서 싹이 生하여 男女의 分化하는 것이오 山天大畜은 山과 天이 北方 坎을 包하고 坎은 豕의 象이므로 六五爻에 豶豕之牙가 있으니 이는 男體中에서 씨

의 生長하는 것이오 地風升은 地와 風이 南方離를 包하고 離는 南方의 卦이므로 彖辭에 南征吉이 있으니 이는 女體의 子宮에 胎兒를 胚胎하는 것이다. 이 四卦는 天地相交의 象이 되고 그 속에서 日月이 運行하여 씨의 生成作用이 行하는 것이다.

水火의 相逮는 雷澤歸妹의 形態로써 하고 四正卦를 雷澤歸妹의 形態로써 하여 火와 雷가 上卦로 되고 水와 澤이 下卦로 되면 그 卦는 雷澤歸妹, 火水未濟, 雷水解, 火澤睽로 되고 이 四卦의 互卦는 모두 水火旣濟로 되니 水火는 物의 聚散作用을 行하는 것으로서 水火旣濟는 水火가 相逮하여 物의 旣成하는 象이다. 雷澤歸妹는 上下의 二元이 不交하면서 또한 收斂하여 相待하며 火澤睽는 上下의 火澤이 相睽하면서 또한 收斂하여 相同하며, 雷水解는 冬春이 相離하여 凍結하면서 또한 收斂하여 相解하며, 火水未濟는 上下가 相違하면서 또한 相應하여 相濟하는 것이다. 이 四卦는 日月의 作用에 依하여 水火가 相逮하여 萬物의 씨가 여물어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象이니 그러므로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으로부터成의 時運으로 넘어감을 象한 것이다.

序卦에는 三十六數의 理가 있으니 三十六數는 生長과 收成을 象한 數이다. 三十六은 六十卦를 乾策과 坤策의 數로써 나눈 數이니 乾策 三十六은 生長의 象이 되고 坤策 二十四는 收成의 象이 되는 것이며 또 洛書數는 九에 止하고 九個數가 各自 互相對立하면 그 對立數는 三十六이 되니 (九人이 各各 二人이 相拜하면 모두 三十六拜가 됨과 같음이다) 이는 九는 奇數의 終으로서 生長數의 極이 되고 洛書는 生長을 象하여 九數를 用하는 것이므로 乾策의 三十六數와 洛書 用數의 三十六은 서로 暗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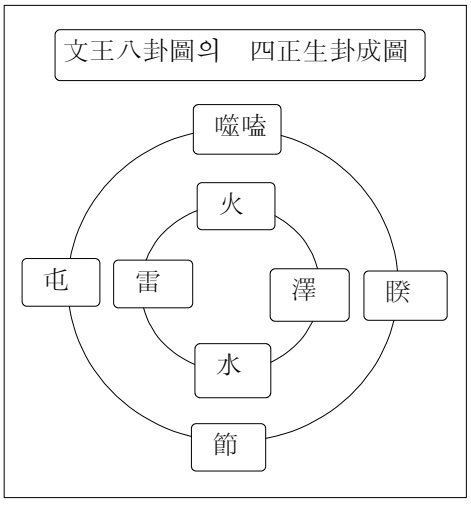
序卦 三十六數의 例는 乾은 易의 首卦로서 大明의 象이 있고 그 三十六卦째의 晋, 明夷에 大明이 初登天後入地의 象이 있으며, 小畜은 陰의 畜하는 卦로서 달의 生하는 始이오 그 三十六卦째의 姤는 小畜의 交易으로서 次世代의 달의 生하는 象이며 蠱는 洛書의 始가 되는 生長卦로서 先甲三日 後甲三日이 있고 그 三十六卦째의 巽은 收斂八卦의 中心이 되어 先庚三日 後

庚三日이 있는 것 等이다. 洛書는 九數로서 八을 用하면 一로부터 八까지가 모두 三十六이오 八卦는 陽劃이 十二이오 陰劃이 十二인데 이것을 參天兩地로하면 陽劃은 三十六이 되고 陰劃은 二十四가 되며 正易의 金火正易圖의 字數가 外圓 二十四字, 內方八字, 中央四字 合三十六字이니 이는 모두 三十六은 生長數로서 收成으로 넘어가는 뜻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三十六數는 生長의 終하는 數이므로 生長數 三十六數의 中에 生長에서 收成으로 넘어가는 中間變化 段階가 있으니 乾과 明夷의 大明出入의 中間에 蠱三日이 있고 小畜과 姤의 달의 生成의 中間에 大畜의 日新이 있고 蠱와 巽의 甲庚의 中間에 晋 明夷의 三日이 있는 것 等이 그 一例이며 이는 모두 生長에서 收成으로 넘어가는 中間變化 形態이다.

文王八卦圖의 四正卦를 그 隣接卦로써 作卦하되 乾元坤元인 震兌를 下卦로 하고 物의 聚散作用을 行하는 水火를 上卦로하면 東에는 生長卦인 水雷屯과 火雷噬嗑이 있고 西에는 收斂卦인 火澤睽와 水澤節이 있으니 이 四卦의 序는 또한 三十六 數의 順으로 되어 屯으로부터 睽에 이르기가 三十六이오 그 中間點에 噬嗑이 있으며 噬嗑으로부터 節에 이르기가 三十六이오 그 中間點에 睽가 있는 것이다.

이 生長收斂의 四卦는 震子와 兌精이 水火를 合하여 된 것인데, 震子는 東에 있으므로 北의 水에서 生하고 南의 火에서 成하니, 그러므로 水와 震子의 合한 屯은 序卦의 生長卦의 始에 있어 震子의 生하는 象이 되고 火와 震子의 合한 噬嗑은 南中卦로서 序卦의 生長卦의 終에 있어 震子의 長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頤, 大過의 生長卦는 顚倒하여 陽이 陰中에 入하는 것이다. 兌精은 西에 있으므로



南의 火에서 生하고 北의 水에서 成하니 그러므로 火와 兌精의 合한 睽는 序卦의 收斂卦의 始에 있어 兌精의 生하는 象이 되고, 水와 兌精의 合한 節은 子中卦로서 序卦의 收斂卦의 終에 있어 兌精의 長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中孚, 小過의 收斂卦는 顚倒하여 陽이 陰中에서 出産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經의 生長은 震子를 主로 하여 屯에서 生하고 噬嗑에서 長成하고 頤, 大過에서 顚倒하여 陰體에 入하는 것이며 下經의 收斂은 兌精을 主로 하여 睽에서 生하고 節에서 長成하고 中孚, 小過에 顚倒하여 陽을 出産하는 것이다.

四正의 生長收斂卦圖의 屯, 噬嗑, 睽, 節은 三十六數의 理로써 排列되고 있으므로 屯으로부터 噬嗑까지, 噬嗑으로부터 睽까지, 睽로부터 節까지는 모두 十七 或은 十八이 되고 있는데 節로부터 屯까지는 七數밖에 되지 아니하니, 이는 易經은 物의 生長成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節의 子中에서 物이 收成하여 第二世의 生하는 象만 있고 다시 屯으로 循環하는 象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噬嗑의 午中과 節의 子中으로써 보면 天地의 顯藏作用은 子午線으로써 闔闢運動을 行하는데, 午中의 生長卦인 噬嗑에서 門을 闢하여 貴에서 萬物이 顯하고, 子中의 收斂卦인 節에서 門을 闔하고 渙에서 萬物이 藏하니, 生長할 때에는 먼저 門을 闢하고 然後에 萬物이 顯하는 것이므로 卦序에 噬嗑이 先하고 貴가 後하며 收斂할 때에는 먼저 萬物을 藏하고 然後에 門을 闔하는 것이므로 卦序에 渙이 先하고 節이 後하는 것이다.

天地에는 生長과 收斂의 兩作用이 있어, 生長은 陽上陰下하는 天地否의 象이 되고, 收斂은 陰上陽下하는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이니, 河圖時運은 物의 자라기 以前의 生의 時運이므로 아직 收斂中에 있어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이오, 物의 자라는 洛書時運은 天地否의 象이 되는 것이오, 物의 여무는 后天時運은 다시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이다. 이 理에 依하여 噬嗑, 貴의 生長卦에서 午門이 闢하고 萬物이 出生하여 生長의 時運인 天地否의 象이 되는 것인즉 卦序에 噬嗑 以前은 地天泰의 收斂하는 象이 된 것이오, 渙 節의 收斂卦에서 萬物이 閉藏하고 子門이 闔하여 收斂의 時運인 地天泰

의 象이 되는 것인즉 卦序에 渙, 節 以前은 天地否의 生長의 象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賁의 生長은 泰의 收斂으로부터 變하여, 地天泰의 上六의 陰이 二에 來하고 九二의 陽이 上에 往하여 山火賁가 된 것이니, 陽上陰下는 곧 天地否의 象이라, 이는 天地生成의 象으로써 보면 泰가 變하여 賁가 된 것이오 時運의 象으로써 보면 泰가 變하여 否가 된 것이며, 이로부터 洛書生長의 時運이 된 것이오 賁卦의 柔來와 分剛上은 泰가 賁와 否로 變함을 말함이다. 渙의 收斂은 否의 生長으로부터 變하여 天地否의 九四의 陽이 二에 來하고 六二의 陰이 四에 上하여 風水渙이 된 것이니, 陰上陽下는 곧 地天泰의 象이라, 이는 天地生成의 象으로써 보면 否가 變하여 渙이 된 것이오 時運의 象으로써 보면 否가 變하여 泰가 된 것이며, 이로부터 后天收成의 時運이 된 것이오 渙卦에 剛來柔外는 否가 渙과 泰로 變함을 말한 것이다.

噬嗑과 節은 子午線上에서 天地生成의 變化點으로 되고 있으므로 兩卦의 中間에 睽의 南北極의 象이 있어 序卦 收斂作用의 始가 되어, 午中의 生長에서 子中의 收斂으로 넘어가는 轉換點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節卦는 秋로부터 冬하여 一年의 節이 되는 同時에 또한 否로부터 泰하여 生長時運의 節이 되고, 이 節은 循環하는 것이 아니라 節에서 次世代가 胚胎되어 后天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正易에 太陰太陽의 倒逆生成하는 戊位 己位도 이 節卦에 있는 것이다.

序卦 三十六數의 理에 蠱로부터 巽까지의 三十六卦와 噬嗑으로부터 節까지의 三十六卦에는 모두 四卦가 빠져 있으니, 이는 胎宮의 困 井 革 鼎을 除外한 까닭이다. 序卦는 모두 六十四卦이로되 胎宮은 아직 胎中에 있으므로 卦가 運行할 때에는 胎宮卦는 반드시 除外되는 것이오, 이것은 序卦 六局의 象에도 나타나고 있다. 六局이라 함은 上下經의 組織에서 胎宮을 除外하고 各各 三局으로 나누어 天地日月의 運行을 象한 것이니, 上經의 一局은 天地의 象인 乾坤을 首로 하고 二局은 天地相交의 象인 泰 否를 首로 하고 三局은 日月이 午中하여 生長作用을 行하는 象인 噬嗑 賁를 首로 한

것이며, 下經의 一局은 天地의 變形한 夫婦의 象인 咸 恒을 首로 하고 二局은 天地의 變形한 夫婦相交의 象인 損, 益을 首로 하고 三局은 日月이 盈虛하여 收斂作用을 行하는 象인 豊 旅를 首로 한 것이니, 이 下經二局에서는 胎宮이 除外된 것이다.

上下經 六局의 數는 各 宮이 모두 乾坤의 合으로 되어 陰陽劃의 數가 調和하니, 이는 天地의 生生은 반드시 天地日月의 運行으로써 하고 天地日月의 運行은 반드시 陰陽의 調和로써 하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陰陽의 調和는 乾坤易簡의 道이다.

易經의 序卦에는 또한 互卦의 理가 있으니, 互卦라 함은 卦中의 人位를 相互하여 卦를 지은 것이다. 三劃卦에서는 上劃은 天의 象이오 下劃은 地의 象이오 中劃은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三劃卦를 因重하여 六劃卦를 만들면 六劃卦의 二와 五는 곧 三劃卦의 中劃이므로 二와 五는 모두 人位로 되는 것이오, 또 六劃卦는 五와 上은 天의 象이오, 初와 二는 地의 象이오, 三과 四는 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六劃卦의 二三四五는 모두 人의 位로 되는 것이오, 이것을 中爻라 한다. 中爻의 四劃을 相互하여 三四五로써 上卦를 삼고 二三四로써 下卦를 삼아서 六劃卦를 만든 것이 곧 互卦이니, 그러므로 互卦는 天地間에 人類가 生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오, 六十四卦의 互卦는 다음의 十六卦로 되는 것이다.

乾, 夬, 姤, 大過는　　互乾이오

坤, 剝, 復, 頤는　　互坤이오

屯, 比, 觀, 益은　　互剝이오

蒙, 師, 臨, 損은　　互復이오

需, 小畜, 井, 巽은　　互睽이오

訟, 履, 困, 兌는　　互家人이오

泰, 蠱, 大畜, 升은　　互歸妹이오

否, 隨, 无妄, 萃는　　互漸이오

同人, 咸, 遯, 革은　　互姤이오

大有, 恒, 大壯, 鼎은　　互夬이오

謙, 貴, 明夷, 艮은　　互解이오

豫, 噬嗑, 晋, 震은　　互蹇이오

坎, 渙, 節, 中孚는　　互頤 이오

離, 豊, 旅, 小過는　　互大過이오

家人, 蹇, 漸, 旣濟는　　互未濟이오

睽, 解, 歸妹, 未濟는　　互旣濟이다.

六十四卦는 萬物을 象한 것이오, 六十四卦中에서 中爻 人位의 互卦 十六卦는 萬物中의 人類를 象한 것이니, 六十四와 十六은 三顯一藏의 數로서, 六十四中의 十六은 一藏하는 人類의 象이오, 그 나머지의 四十八은 三顯하는 萬物의 象이며, 人類를 一藏이라 하는 것은 萬物中에서 오직 人類가 天地日月의 象을 法하여 易簡의 道를 行하는 것인데, 人類 十六卦인 乾, 坤, 剝, 復, 夬, 姤, 頤, 大過, 家人, 睽, 蹇, 解, 漸, 歸妹, 旣濟, 未濟의 속에만 天地日月의 互卦인 乾, 坤, 旣濟, 未濟가 藏하여 있고 그 나머지 四十八卦

의 속에는 天地日月의 互卦가 없으므로 이 十六卦의 象으로 되어 있는 人類를 萬物中의 一藏이라 하는 것이다.

人類 十六卦의 속에는 다시 다음의 四互卦가 있으니

乾, 夬, 姤, 大過는　　互乾이오

坤, 剝, 復, 頤는　　互坤이오

旣濟, 漸, 蹇, 家人은　　互未濟이오

未濟, 歸妹, 解, 睽는　　互旣濟이다.

十六卦는 人類를 象한 것이오, 十六의 中에서 中爻 人位의 互卦 四卦는 人類中의 賢人을 象한 것이니, 十六과 四는 또한 三顯一藏의 數로서, 十六中의 四는 一藏하는 賢人의 象이오 그 나머지의 十二는 三顯하는 人類의 象이며 賢人을 一藏이라 하는 것은 人類中에서 오직 賢人이 天地日月의 象이 되고 있는 것인데, 人類十六卦中에서 乾, 坤, 旣濟, 未濟의 四卦만이 天地日月이 되고 있으므로 이 四卦의 象으로 되어 있는 賢人을 人類中의 一藏이라 하는 것이다.

物이 八卦의 象으로써 運行함에는 天地는 天地日月을 用하고 天地日月은 天地日月 雷風山澤을 用하고 天地日月 雷風山澤은 六十四卦를 用하니, 이는 物의 第一世의 生生하는 順序이오, 第一世가 第二世를 生하는 順序는 六十四卦의 中爻에 十六卦의 互卦를 藏하고 十六卦의 中爻에 乾, 坤, 旣濟, 未濟의 四互卦를 藏하니, 乾, 坤, 旣濟, 未濟는 곧 天地日月이라 이는 第二世의 天地日月을 藏하고 있는 것이다. 一世의 天地의 속에 二世의 天地를 互하여, 一世乾의 互卦에 二世乾을 生하고 一世坤의 互卦에 二世坤을 生하니, 이는 父母가 子女를 生하여 世世生生하는 父子傳承의 道가 되는 것이

다. 一世日月의 속에 二世의 日月을 互하여 一世旣濟의 互卦에 二世未濟를 生하고 一世未濟의 互卦에 二世旣濟를 生하니, 이는 서로 그 子를 바꿔서 他子로써 自己의 繼承者를 삼는 것으로서 「子를 바꿔서 가르친다」는 師弟傳承의 道가 되는 것이다. 乾, 坤, 旣濟, 未濟의 四卦를 除하면 그 나머지의 六十卦의 互卦는 모두 父母가 隱藏하고 子女가 홀로 出現하니 이는 子女가 父母를 離脫하여 國家社會로 進出하는 것으로서 國家社會의 世世傳承하는 道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生長成은, 生하기를 父子의 道로써 하여 父傳子受하는 相生으로써 繼承하는 것이오, 長하기를 國家의 道로써 하여 勢力의 相勝하는 相克으로써 繼承하는 것이오, 成하기를 師弟의 道로써 하여 弟子를 敎育하는 克成으로써 繼承하는 것이다. 易經의 序卦는 互卦의 象으로써 이 세 가지를 말하니, 사람의 生함은 父子에서 始하는 것이므로 乾坤으로써 首를 삼아, 始하기를 乾道 父子의 道로써 하여 乾道八宮에 生하는 時運의 象을 말한 것이오, 父子가 있으면 國家社會가 組織되는 것이므로 屯에서 建侯한 以後는 國家社會의 道로써 序하여 자라는 時運의 象을 말한 것이오, 國家社會가 있으면 모든 對待를 調和하기 爲하여 師弟의 道로써 易簡의 理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終하기를 旣濟未濟에서 子를 바꾸는 師弟의 道로써 하여 여무는 時運의 象을 말한 것이다. 序卦의 始의 乾坤과 終의 旣濟未濟는 곧 天地日月로서 一藏한 賢人의 象이니, 그러므로 人類가 처음으로 生하는 時運과 자라는 時運에서 여무는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반드시 賢人이 出生하여 人類의 나가는 길을 指示하는 것이다.(原理取於趙柯汀說)

八卦之用六卦 = 三顯一藏

六十四卦之互卦 = 三顯一藏

乾

乾坤有先后天也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乃先后天之意也 如坤之先迷後得主也

乾은 純陽卦로서 陽氣의 運行하는 天의 象이다. 乾이 三劃의 原卦인 때에는 天의 象이 되는 것이나 上天下天의 六劃卦로 되는 때에는 單純한 天의 象이 아니오, 天에 上에도 있고 下에도 있어, 天이 地를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乾은 純陽으로서 光明의 象이 되고 天의 光明은 곧 日月이므로 乾에 大明이 있는 것인데, 乾陽은 太陽의 象이 되므로 太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을 發하고 있는 달도 太陽과 함께 大明이라 한 것이다. 乾에 大明의 象이 있으므로 乾字는 倝(해돋을간)와 乙로 되어, 倝 은 太陽이 始出하여 光明하다는 뜻이오 乙은 物의 發展하는 形이니, 純陽卦인 乾은 陽氣와 光明이 天地間을 運行하는 象이므로 乾字를 取하여 卦名을 삼은 것이다. 乾에 大明인 日月이 있고 또 統天作用이 있으므로 日과 月로 된 易字도 乾卦에서 나오고 거기에 生生變化하는 象을 寓한 것이다.

乾元亨利貞

元亨利貞이라 함은 生하고 長하고 成하고 正하고 함을 象한 것이오, 또 春夏秋冬의 四時의 象도 되는 것이며, 乾은 統天卦이므로 生長成正의 全象을 말하고 他辭가 없는 것이다.

乾은 地를 包하고 圜行하는 統天卦로 되어 萬物의 生長成正하는 全象을 具하여 있고, 文王八卦圖가 長의 時運을 象하면서 또한 生長으로부터 成正으로 넘어가는 象을 말하여 乾卦와 文王八卦圖는 서로 表裏가 되어 있으므로 乾卦의 卦辭와 이 卦辭를 解釋한 彖辭는 文王八卦圖의 流行하는 順序와 相

照하여, 乾卦와 文王八卦圖는 함께 易經의 基礎原理로 되어 있는 것이다.

乾卦 彖辭의 元亨利貞은 天으로부터 地에 下하는 順序로 되고, 爻辭에 또한 元亨利貞의 象이 있는데, 이것은 地로부터 天으로 上升하는 順序로 되니, 이는 彖辭는 太陽의 順行하는 道를 象하고 爻辭는 달의 逆行하는 道를 象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彖辭는 文王八卦圖를 順行하여 震 巽 離 坤 兌 乾 坎 艮의 序次를 行하고, 爻辭는 文王八卦圖를 逆行하여 初九坎 九二乾 九三坤離 九四巽 九五震 上九艮의 序次를 行하는 것이니, 이는 日月의 運行이 太陽은 順行하고 달은 逆行하는 理에 依한 것이오, 또한 彖辭는 太陽에서 씨가 發生하여 달에 下施하는 것을 象하여 順行이 되고, 爻辭는 달이 太陽에서 오는 씨를 承受하여 物을 作成하고 物이 下로부터 生長하여 上하는 것을 象하여 逆行이 되는 것이다.

說卦에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라 하니, 數往者順이라 함은 過去의 生의 時運에 太陽에서 씨가 地에 順下함을 말함이오, 知來者逆이라 함은 未來의 長의 時運에 달이 太陽에서 오는 씨를 承受하여 物을作成 逆上하여 자란다 함을 말함이다. 長의 時運을 象한 文王八卦圖의 易은 物이 자라서 逆上하는 理를 말한 것이므로 易은 逆數라 한 것이다

彖辭와 文王八卦圖

彖辭는 太陽運行의 象이니, 太陽이 帝出乎震에서 始하여 順行하여 四時의 象으로써 萬物을 生成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大哉乾元 一節　帝出乎震

雲行雨施 一節　齊乎巽

大明終始 一節　相見乎離　致役乎坤

時乘六龍 一節　說言乎兌

乾道變化 一節　戰乎乾

保合太和 一節　勞乎坎

首出庶物 一節　成言乎艮

爻辭와 文王八卦圖

爻辭는 달의 運行의 象이니, 달이 勞乎坎에서 晦하여 逆行하여 朔望의 象으로써 光明의 盈虛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上九亢龍　成言乎艮

九五飛龍　帝出乎震

九四或躍　齊乎巽

九三終日　致役乎坤　相見乎離

九二見龍　戰乎乾

初九潛龍　勞乎坎

初九 潛龍勿用

易學은 長을 象함으로 首卦에 言龍蛇也

龍蛇는 長을 象한 生物인데 龍은 陽物이오 蛇는 陰物이므로 上經首卦의 乾

에 龍의 象이 있고 下經首卦의 咸에 蛇의 象이 있고 咸은 陰精이 陽氣를 受하는 象이 되므로 龍蛇를 兼言한 것이다.

龍이라 함은 水中에 居하여 能幽 能明 能小 能大하는 變化를 行하여 春에 登天하고 秋에 潛淵하고 하는 生物을 말함이니, 이는 陽氣의 圜轉飛動함을 象함이며, 萬物의 씨의 元으로 되는 震子는 陽氣가 陰中에 包在하여 自體의 光明을 가지고 能動作用을 行하고 水液中에 潛하여 있는 것이므로 震을 龍이라 하고, 乾은 震으로써 世世繼承하는 씨를 삼고 있으므로 乾劃이 모두 龍의 象이 되는 것이다. 三男卦中에 오직 震에만 繼世作用을 行하는 長子의 象이 있고 坎艮에는 子의 象이 없으므로 震은 震子의 象이 되는 것이다.

初九潛龍은 時間的으로는 物의 生하는 始初이오 空間的으로는 物이 地下의 水中에 潛한 것이다. 乾卦 各劃은 震子인 龍을 象하고 初九는 地下의 位에 있으므로 潛龍이라 하니 이는 初九가 彖에 말한 保合太和로서 貞의 位에 當하고, 文王八卦圖의 勞乎坎에 當하여, 陽氣가 地下에 隱在하므로 坎水의 象이 되어 潛龍이라 한 것이다.

勿用이라 함은, 物은 成한 然後에 用하는 것인데 初九는 陽이 下에 潛하고 成치 못함으로 用치 못하는 것이니, 달로써 보면 晦하고 있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의 幼少한 象이다.

乾卦는 天을 象하고 自然數의 天數가 一三五七九인데, 爻는 物의 生長을 象하여 下로부터 逆行하여 上으로 올라가고 自然數의 生長도 또한 逆行하여 下로부터 上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爻와 自然數가 서로 合當하여, 初九는 一에 當하고 九二는 三에 當하고 九三은 五에 當하고 九四는 七에 當하고 九五는 九에 當하는 것이오 上九는 窮하여 位가 없는 것이며, 爻와 自然數와의 合當하는 關係는 오직 純陽純陰의 乾坤卦에만 있는 象이다. 初九는 自然數의 一에 當하므로 陽이 微小하여 用치 못하는 것이다.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二는 地上의 位로서 龍이 地上에 見하는 象이므로 見龍이라 한 것이오, 田은 穀의 生하는 土이니, 九二가 地上에서 萬物의 生하는 中心이 되고 있음을 象함이다. 九二는 天數의 三에 當하고 三은 萬物을 生하는 數이므로 田이 天德을 承受하여 物의 生하는 象이 있는 것이오, 文王八卦圖의 戰乎乾에 當하여 陽이 陰體中에 있어 陰陽이 相薄하여 內部에서 鼓動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九二는 龍이 地上에 現하되 地를 離치 못하고, 달로써 보면 달의 體의 始現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 陽子의 始形하는 象이다.

大人이라 함은 天地間에 有形의 最大 한 것은 光明이오, 光明보다 더 遠及하는 것이 없으므로 光明의 至大한 사람을 大人이라 하는 것이오, 이 까닭에 太陽의 光明 속에 있는 乾元震子를 象하여 大人이라 하며, 利見大人이라 함은 九二의 生의 中心에서 乾元震子를 見하면 陰陽의 義가 和한다 함이다.

九二는 地의 中心으로서 爻位로는 生의 中心이 되고 天道의 四德으로는 乾道變化하는 位인 利가 되니, 生은 物의 始生함이오 利는 陽이 陰中에 入하여 成함이라, 生과 成은 서로 엇갈리는 듯 하나 이는 同一事物의 兩面이다. 九二가 地의 位로서 上으로 天位의 乾元震子를 承受하여 陰陽의 義가 和하는 것이 곧 成이오, 九二가 承受한 震子를 田에서 生育하는 것이 곧 生이니, 그러므로 陰陽이 嘉會하여 萬物이 모두 相見한다는 뜻을 取하여 見龍이라 한 것이다.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無咎

乾의 六爻는 六龍의 象이 되는 것인데, 九三, 九四에 龍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文王八卦圖에 九三은 離坤에 當하고 九四는 巽에 當하며 離坤巽은 모두 陰卦로서 震龍의 象이 되지 못하므로 龍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九三은 天地間의 人位이오 또한 地上의 地平線上에 있어 文王八卦圖의 離坤에 當하여, 太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는 大明終始의 位가 되므로 終日이라 한 것이오 君子는 달의 象이다.

乾乾이라 함은 上乾下乾 또는 先乾后乾이라는 뜻이니, 太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는 것이 곧 乾乾이다. 夕은 太陽이 終하여 昏暗한 象이오 惕은 心과 易으로 되는데 光明이 陰에 掩蔽되어 心이 憂懼하되 스스로 그 心을 光明케 하는 것이 곧 惕 이오 厲는 陰中을 涉하여 危함이오 咎는 陰陽이 서로 異各함이니, 夕惕若厲無咎는, 九三은 太陽의 終하는 位에 있어 光明이 掩蔽되므로 昏暗中에 處하여 憂懼하는 象이 되고 있으나 그 心에 光明한 듯한 陽氣가 있으니, 비록 陰中을 涉하여 危하되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그 光明을 生하기 始하므로 太陽과 달의 陰陽이 異各치 아니한다 함이니, 이는 日月이 往來하여 光明의 不息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九三은 달로써 보면 光明의 始生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가 光明을 生하여 生殖의 機能을 發하는 象이다. 女體의 陰子가 달의 陰精의 盈虛를 따라서 消長하고 있음과 같이 男體의 陽子도 달의 光明을 받아서 生成하는 것이니 사람의 씨가 달에서 生하므로 男女의 陽子陰子가 모두 달의 作用을 받아서 生成하고 消長하고 하는 것이다.

九四 或躍在淵無咎

躍은 龍의 足飛하는 象이오 淵은 地穴의 囲(?)水의 象이니 九四는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여 巽股의 象이 되고 巽은 또한 달의 象이 되므로 淵은 달의 陰精의 穴을 象함이니 訟卦의 入于淵이 또한 巽股의 象이다. 或이라

함은 陰體의 陰精에는 消長이 있어 躍하는 時도 있고 躍치 못하는 時도 있으므로 或이라 한 것이니 或躍이라 함은 龍이 陰淵의 時를 보아서 躍한다 함을 말함이다.

九四는 달로써 보면 上乾에 進하여 光明의 漸滿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가 長成하여 生殖作用을 行할 수 있는 象이다.

九四에는 巽月의 象이 있는데 巽月은 少陰八數이오 또 自然數의 天數 七에 當하는데 七은 少陽數이니, 少陰八의 달이 少陰七의 陽을 受하여 陰陽相遇하는 象이 되므로 龍이 或躍하여 淵에 在한다고 한 것이다. 九三과 九四에 無咎를 말한 것은 九三과 九四가 文王八卦圖의 離坤과 巽의 陰卦에 當하여 달이 太陽의 光을 承受하는 象이 되므로 陰陽이 異各치 아니하여 無咎의 象이 된 것이다.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九五는 天位이오 陽의 聚結한 곳이니, 달로써 보면 望月이 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가 成實하여 生殖作用을 行하는 象이다. 九五는 文王八卦圖의 帝出乎震에 當하고 自然數의 九에 當하여 陽의 極大한 象이니, 이는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陽을 聚結하여 光明을 生하고 光明의 속에 震子가 있는 象이니, 이가 利見大人의 象이다. 飛라 함은 陽精이 陰體로 넘어감에는 水火가 通明하여 絶處逢生하는 것이므로 飛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乾九五의 飛龍은 乾元用九의 象이 되어, 萬物이 이것을 資하여 始하는 것이니, 習坎의 習龍, 明夷의 于飛, 小過의 飛鳥는 모두 乾의 飛龍을 因하여 말한 것이다.

乾九五는 天의 大明의 位이므로 太陽과 달의 光明의 兩象이 있어, 彖辭에는 九五의 位에 太陽의 象을 말하고, 爻辭에는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光明을 生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上九 亢龍有悔

亢은 人頸으로서 陽이 頸上에만 있는 象이니 亢龍이라 함은 陽氣가 上에 極하여 將消함을 象한 것이다. 上九는 陽極의 位에 있고 또 文王八卦圖의 成言乎艮에 當하여 成終成始의 象이 되므로 陽體가 次世代로 된 陽子를 陰體에 施하고 스스로 喪하는 것이니 이가 亢龍의 象이다.

悔라 함은 陽이 過度히 動하여 陰中에 陷하여 心의 疾함이오 有悔라 함은 陽의 生을 害함이니 亢龍有悔라 함은 上九가 乾陽의 上에 極하여 將終하는 象인 亢이 되므로 陰中에 陷하여 生育치 못하는 것이다. 上九는 달로써 보면 望을 지나서 虧缺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가 陽子를 施하고 스스로 喪하는 象이다.

用九 見群龍無首吉

九와 六은 乾과 坤의 象인데, 九와 六을 用한다 함은 陽體와 陰體의 生殖器를 用한다 함을 말함이다. 自然數 中에서 九는 陽數의 先端이므로 陽體의 陽器의 象이 되고 六은 陰數의 中央이므로 陰體의 陰器의 象이 되는 것이며 또 五行의 理로써 보면, 九는 乾象의 陽金이오 乾金은 燥하므로 燥는 陽體의 陽器가 되는 것이오, 六은 坤象의 陰水이오 陰水는 濕하므로 濕은 陰體의 陰器가 되는 것이니, 乾文言에 「水流濕火就燥」는 乾坤九六의 象을 말한 것이다.

用九의 位는 九五爻이니, 九五에 位乎天德의 象이 있고 用九에 天德不可爲首의 象이 있어 九五天德과 用九天德이 同一한 天德이므로 九五爻가 用九

의 位로 되는 것이다.

群은 陰의 象이니, 易卦中에 말한 否六二의 不亂群, 漸九三의 離群醜, 貴上九의 群疑亡의 群은 모두 陰의 象이며, 群龍이라 함은 陰龍인데, 乾卦에는 九四에 群의 象이 있고 九四는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여 股의 象이 되니, 群龍은 九四의 巽股를 말함이오, 巽股는 陽이 犯하면 반드시 喪하는 것이다.

首는 象의 首出庶物의 首로서 自然數의 陽數의 首인 九를 말함이오, 吉은 生命의 繼生함이다.

天地가 生生作用을 行함에는 반드시 陽體가 九의 象인 首를 用하여 陽精을 陰體에 施하는 것이니, 이가 乾象의 首出庶物의 뜻이며, 用九의 位는 九五이오, 九五의 成의 中心에 陽精이 있으므로 九五의 陽精은 그 應爻인 九二의 田에 施하여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만일 群龍인 巽股에 用하면 陽이 陰에 陷하여 喪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九를 用함에는 群龍을 見하고서는 首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易卦中에 巽股를 應하고 接하고 한 陽爻에는 반드시 戒辭가 있는 것이니, 坤初六의 弑父弑君은 陽이 巽股를 犯하여 殃함이오, 姤 九四의 包无魚, 恒九四의 田无禽, 鼎九四의 鼎折足, 大過九四의 有他吝은 모두 初六의 巽股를 應한 凶禍이오, 小畜初九의 復自道, 家人初九의 閑有家, 中孚初九의 有他不燕은 모두 六四의 巽股를 應한 警戒이오, 小畜九三의 夫妻反目, 家人九三의 婦子嘻嘻, 漸九三의 夫征不復은 六四의 巽股를 接한 喪失이니, 用九에 見群龍無首吉은 陽九의 爻와 巽股와의 關係를 表示한 것이다.

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元이라 함은 物을 始生하는 原이오 元에는 乾元과 坤元이 있다.

乾元資始와 坤元資生을 卦象으로써 보건대, 宇宙에는 生命의 鼓動하는 一極이 있고 이것을 太極이라 하니, 生生하는 것이 易이오 易에 太極이 있으므로 生生하는 生命의 一鼓動體가 곧 太極이며, 太極의 運動은 陰陽의 兩儀로 分하여 一陰一陽하면서 能動과 受動, 闔과 闢等 對待作用을 行하니, 그 能動하고 闢하고 하는 作用을 象하여 乾이라 하고, 受動하고 闔하고 하는 作用을 象하여 坤이라 하며, 乾坤은 生命의 鼓動하는 太極에서 生하는 까닭에 乾坤을 生命元이라 하는 것이다. 宇宙는 그 自體가 永遠無窮하기 爲하여 生命이 반드시 生生하여야 하고 生命이 生生함에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生命의 世世繼承하는 씨는 반드시 運行自在하는 氣로서 能動的으로 鼓動하는 繼承力을 有하고 自體內에 光明이 있고 하는 것인데, 三男卦中에서 오직 震雷가 이러한 作用을 具有하므로 震에 繼世의 象이 있어 易學에는 三陽卦中에서 오직 震을 子라 稱하고 坎艮은 男이라고만 하고 子를 稱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震子는 씨의 元이 되어 乾元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男體의 陽子(精子)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가 萬物의 씨는 반드시 陽體에만 있는 理이다. 乾元大明之火性也 坤元月之水性也 故萬物始於火生於水也

萬物의 形質을 成하는 物質은 반드시 陰精의 膏澤으로서 內部에 陽氣를 會하고 口가 있어 外部로부터 營養을 取하고 內部로부터 氣를 發宣하고 하는 것인데, 三女卦中에 오직 兌澤이 이러한 作用을 具有하므로 兌에 形質을 成하는 象이 있어 形質의 元이 되어 坤元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女體의 陰子(卵子)의 象이 되는 것이다.

乾坤은 日月의 象이므로 乾元震子와 坤元兌澤에 또한 日月運行의 象이 있는 것이다. 太陽의 組織은 離火의 象이오 달의 組織은 坎水의 象이며 火는 炎上하고 水는 就下하는지라 太陽의 氣와 달의 精이 相交하면, 炎上하는 離火는 坎水의 就下作用을 受하여 炎上하는 上爻 陽이 陰으로 變하면서 震雷로 되어 下向하니, 이는 太陽의 光明이 地와 달에 行하여 震子의 電氣로 化하는 理이오, 就下하는 坎水는 離火의 炎上作用을 受하여 就下하는 下爻

陰이 陽으로 變하면서 兌澤으로 되어 上行하니, 이는 兌澤이 天空에서 行하여 달의 陰精으로 되는 理이다. 震子와 兌澤의 理는 또한 日月의 出生하는 方位에도 있으니, 文王八卦圖에 震은 東方이오 兌는 西方이라, 太陽은 東方 震에서 生하므로 震子는 太陽의 속에서 乾元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달은 西方 兌에서 生하므로 兌澤은 달의 속에서 坤元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大哉라 함은 陽은 發動을 主하고 陰은 收斂을 主하므로 陽을 象하여 大라 하고 陰을 象하여 小라 하는데, 乾은 純陽으로서 그 氣의 運行은 無限大하므로 乾에 大의 象이 있고, 乾象으로 된 大有, 大畜, 大壯, 大過, 泰 夬의 諸卦名에 모두 大의 象을 말한 것이며, 乾元震子는 萬物의 씨의 元이 되어 無限히 擴大하는 것이므로 大哉라 한 것이다. 天地라 함은 萬物의 가득 차 있는 位이오 天地間 萬物은 모두 씨에서 生하고 있으므로 씨의 元인 震子는 天을 統하고 있는 것이다.

大哉乾元 一節은 卦辭의 元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帝出乎震의 象이니, 乾元의 統天은 帝의 作用이오 乾元의 萬物資始는 萬物出乎震이다. 爻로서는 九五의 飛龍在天이니, 그러므로 九五는 乾元의 象이오 在天이 곧 統天이다.

雲行雨施 品物流形

雲行雨施品物流形은 卦辭의 亨의 解釋이니, 亨이라 함은 陰陽의 嘉會함이며, 雲行雨施라 함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면 巽象이 되고, 巽이 天空中에 있는 때에 雲雨의 象이 되어 달의 體를 이루는 것이오, 그러므로 달에 雲雨를 行施하는 作用이 있어, 地上의 風雨는 太陽의 陽氣와 달의 陰精의 作用에 依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品物이라 함은 品은 三口로서 同類라는 뜻과 三圓形이라는 뜻이 있다. 乾

象에 萬物, 品物, 庶物의 세 가지가 있는데, 萬物은 天地間에 存在하는 모든 物을 總言한 것이니, 乾元은 天地間 萬有의 物을 資始하는 까닭에 萬物이라 한 것이오, 庶物은 庶字가 屋下의 光明으로 되어 人衆의 蓄庶함을 象한 것이니, 萬國에는 人衆이 蓄生하고 있으므로 庶物이라 한 것이다. 品物은 雲이 行하고 雨가 施하여 空中에서 流形한 것이므로 달의 象이 되니, 이는 小畜卦의 密雲이 旣雨하여 달의 體를 成한 것과 同一한 理이며,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帝乎巽에 當하고 乾卦中의 帝乎巽은 바로 小畜卦의 象이므로 品物은 달을 象한 것이니, 地에서 雲雨가 行施하여 달이 되고 달이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太陽, 地로 더불어 三圓物의 象이 되니 이가 곧 品物流形이다. 易經에 乾 坤 姤의 三卦에 品物이 있는데, 乾은 大明의 終始하는 卦이오 坤은 달의 運行하는 卦이오 姤는 后天달의 生하는 卦이므로 이 三卦에 特히 品物을 말한 것이다.

易經序卦에는 風天小畜에서 달의 體가 비로소 生하고 天風姤에서 后天달이 生하는데, 乾坤에 달이 生하고 또 後得主하는 后天달을 말한 것은 乾坤은 易卦 全象을 總言한 까닭이다.

이 一節은 爻로서는 九四의 淵이니 淵이 또한 달의 陰精이다.

大明終始 六位時成

大明이라 함은 日月의 光明을 말함이니, 乾의 속에 太陽의 象이 있고 坤의 속에 달의 象이 있는데, 太陽은 스스로 光明을 發하고 달은 太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을 發하니, 日月의 光明은 모두 太陽의 光明으로서 이가 곧 大明이며, 晋卦의 大明도 또한 太陽의 光明과 달의 光明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天地가 上下에 位하고 日月이 그 사이를 運行하면 太陽은 西쪽의 地平線上에서 終하고 太陽의 終하는 곳에서 달이 生하니 이것을 大明이 終하고 始한다고 한 것이다.

大明終始 於晋明夷之三十六宮也 三十六乃六龍六位也 晋明夷之次爲家人睽 家人睽乃后天收斂之始 而예수神道之行 於是乎人性成而人道行 人道行故六位時成也

六位라 함은 卦의 六劃으로서 天地人 三才의 位를 象한 것이니, 初二는 地의 位이오 三四는 人의 位이오 五上은 天의 位인데 달이 또한 天地의 사이에 있어 人의 位와 同一하므로 달이 또한 天地로 더불어 六位가 된다 하여 六位時成이라 한 것이다. 時라 함은 달에는 盈虛消長의 時가 있으므로 달이 盈하고 長한 때에는 天地로 더불어 六位를 成하고 虛하고 消하고 한 때에는 六位를 成치 못하여, 成하는 時와 成치 못하는 時가 있으므로 時成이라 한 것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와 致役乎坤이니, 太陽이 離에서 明하고 坤에서 昃하며, 달은 太陽의 昃하는 곳에서 生하므로 離坤에 終始의 象이 있는 것이오, 爻로는 九三의 終日과 夕惕이니 終日은 太陽의 終함이오 夕惕은 달의 始함이다.

時乘六龍 以御天

龍에는 空間六虛의 位를 따라서 潛龍 見龍 飛龍 亢龍 等의 區別이 있고 乾은 純陽卦로서 空間的으로 볼 때에는 一陽劃이 一震子의 象이 되고 一震子가 一龍의 象이 되어, 六劃이 곧 六龍의 象이 되니 六龍이라 함은 空間六虛를 上下運動하는 乾陽을 象한 것이다.

時乘六龍者 坤元之承乾元也 御天者坤元之乃順承天也 此一節至哉坤元乃順承天也

時乘이라 함은 乘하는 時와 乘치 아니하는 時가 있다 함이니, 이는 前節의 時成과 同一한 理로서 달의 盈虛消長하는 時가 있음을 말함이오 御天이라 함은 馬를 驅使하여 天을 달린다는 뜻이다. 달은 乾陽을 乘하여 運行하고 時로 光明을 發하니, 이는 時로 六龍을 乘하는 象이오, 달은 牝馬의 象으

로서 乾陽을 乘하고 天空中을 行하므로 馬가 天을 달리는 象이 된 것이다. 乾의 六龍이 各各 六位를 行한즉 모두 三十六位가 되니, 三十六位는 陽氣의 運行하는 數이며 乾卦에 三十六位의 象이 있으므로 陽氣는 三十六數에서 變하는 理가 있으니, 乾의 大明이 序卦 第三十六의 明夷卦에서 日入地中이 되고 蠱卦의 先甲后甲이 序卦 第三十六의 巽卦에서 先庚后庚이 되고 하는 것이 그 一例이다. 三十六卦의 爻數는 二百十六으로서 乾策의 數가 되니 乾象에 六龍六位를 말한 것은 乾卦의 統天作用에 三十六位와 二百十六策의 理가 있음을 表한 것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說言乎兌이니, 兌는 달의 陰精인 兌澤이오, 兌澤이 正西에 있어, 正東의 出乎震하는 太陽의 震子와 相對하여 光明을 受하는 것이 곧 乘龍의 象이오, 달이 西로부터 東으로 向하여 天空을 逆行하는 것이 곧 御天의 象이다. 달의 乘龍御天은 地上의 物이 여물어서 天으로 圜行하는 理가 되는 것이니,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神을 닮아서 天으로 圜行하는 것은 달의 乘龍御天의 理에 依한 것이다.

乾道變化 各正性命

乾道變化라 함은 天道가 元亨으로부터 利貞으로 變하고 生長으로부터 收成으로 變하는 것이며, 變이라 함은 靜에서 動으로 向함이오, 化라 함은 動에서 靜으로 向함이니, 그러므로 現狀의 體를 改하는 것은 變이 되고 새로운 體를 成하는 것은 化가 되는 것이다.

性命이라 함은 天性과 天命으로서 萬物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는 것인데 사람으로써 보면 사람은 出生하는 때에 天으로부터 天性과 天命을 받으니, 天性은 사람이 生生하기 爲하여 그 가진 바의 精神作用을 말함이오 天命은 사람의 生命과 그 맡은 바의 使命을 말함이다. 사람의 精神作用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動作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스스로 意志의

自由가 있고 使命은 그 出生하는 때에 이미 天으로부터 賦與된 것이므로 거기에는 스스로 運命이 있는 것이니, 自由意志와 運命은 서로 對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兩者는 모두 天으로부터 받아서 그 本原이 同一한 것이니 說卦에 「窮理盡性 以至御命」이라 하고 또 「昔者 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라 한바 理는 對待를 調和함이라 天命은 그 사람의 一生 進路中에 最善한 길이오 天性은 이 最善한 길을 行하기 爲하여 稟受한 바의 精神作用이니 사람은 天命과 天性의 對待를 調和함을 窮究하고 天性의 至善을 다 하여 天性이 成하면 그것이 스스로 天命과 一致하는 것이니 이가 性命의 正함이다. 草木같은 것은 生長에서 收成으로 變化하여 次代의 果實을 成하는 것이 곧 性命의 正함이니, 이는 草木은 果實을 成하여 世世繼承하는 것이 그의 使命이라 未成한 果實은 陽이 陰中에 入하지 못하여 子仁이 成치 못하고 있으므로 次代의 芽를 發生치 못하여 그 使命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物은 乾道가 變化하여 元亨이 利貞으로 變化하는 때에 비로소 그 天性과 天命이 正하여 本來의 使命을 다 하는 것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戰乎乾이니 西北의 乾에서 陰陽이 相薄하고 陽이 內部에 入하여 物이 收成하여 本性이 成하고 또 序卦의 無妄 大畜에 當하여 陽이 外로부터 來하여 內에서 主가 되어 天命이 되니, 이가 各正性命의 뜻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乾에 當하므로 特히 乾字를 쓰니 이는 坤彖의 坤厚載物 一節이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므로 特히 坤字를 쓴 것과 同一한 뜻이다. 爻로는 九二의 見龍이니, 物이 成하여 形體가 現하다 함이다.

保合太和 乃利貞

保合은 陽氣가 內에 入하고 陰이 外를 包함이오 太和는 物이 여물어서 陰陽의 義로 和하여 一한다 함이니, 保合太和라 함은 物이 生長으로부터 收成으로 되어 陽氣가 內部에 收藏되고 陰陽이 調和하여 統一됨이니 이는 利

貞의 象이다.

文言에「利貞은 性情이라」 한바 乾道가 變化하여 性이 正하고 性이 正하면 情이 또한 和하여 太和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사람으로써 보면 利貞이라 함은 性情의 正하고 和함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勞乎坎에 當하니 萬物이 坎水에 歸하여 勞하는 것이 太和의 象이오 爻로는 初九의 潛龍이니 潛이 곧 坎水에 歸함이다.

利貞은 乾道變化와 保合太和를 合하여 말한 것으로서, 이것을 區分하여 말하면 乾道變化는 利이오 保合太和는 貞이다. 易經中의 太字는 乾卦의 保合太和와 繫辭의 易有太極의 두 곳뿐인데, 乾卦가 太極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乾象에 太字를 말한 것이다. 太極이라 함은 天地의 統天作用의 어느 一極致點을 말함이니 天地自然數는 一로부터 十까지인데 十數를 布하면 十無極이 되고 十數를 統하면 一太極이 되는지라, 乾卦에는 統天의 象이 있고 貞에는 全體를 統和하는 太極作用이 있으므로 거기에 太和의 太字를 말하여 乾卦에 太極의 作用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元亨利貞의 四德에는 三顯一藏의 理가 있으니, 이 理는 邵康節說에서 取한 것이다. 八卦中에서 乾 坤 坎 離 四卦는 反易하여도 卦가 變치 아니하므로 本卦數대로 四卦가 되고 震艮과 巽兌는 反易하면 서로 變하므로 震艮이 一卦로 되고 巽兌가 一卦로 되어, 八卦는 모두 六卦로 되니 이는 八數中에서 六數가 顯하고 二數가 藏하여 六顯二藏 卽 三顯一藏이 되는 것이다. 이 理에 依하여 萬物의 生生에는 반드시 三顯一藏의 象이 있어, 그 一藏이 生生變通의 幹이 되는 것이니, 天의 四時에는 萬物이 春夏秋가 顯하고 冬에 藏하여, 그 四分一되는 一藏이 庫藏의 任務를 가지고 生生의 源을 蓄하여 다음의 顯用에 對備하며, 사람의 一日中 動作과 睡眠時間을 大別하면 大槪 四分三을 動作하고 四分一을 寢息하여 精氣를 길러서 다음날의 活動에 備用하니, 이러한 것을 三顯一藏이라 한다. 乾象의 元亨利貞도 그러하여 資始, 流形, 變化하는 元亨利는 三顯이 되고 太和하는 貞은 一藏이 되는 것

이다.

首出庶物 萬物咸寧

首는 乾의 象인데, 乾이 生生作用을 行하기 爲하여 所用하는 首는 乾自體가 아니라, 自然數로는 陽數生長의 極인 九를 用하고, 卦로는 陽卦生長의 極인 艮을 用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艮에 碩, 顙等의 首의 象이 있는 것이오 이는 陽體가 生殖作用을 行함에 陽體의 全體를 用하는 것이 아니라 陽體의 陽器를 用함과 同一한 理이다. 그 生生의 順序를 文王八卦圖로써 보건대 乾體의 陽器인 艮首가 陽精水인 坎水中에 陽子인 震子를 含하고 坤體의 巽股에 入하여 震子를 施하면, 艮首는 스스로 喪하여 終하고, 震子는 子宮인 離火宮에 入하여 陰體의 陰子인 兌精과 合하면 이에 胎兒의 形이 生하면서 震子가 反易하여 艮童이 되어 形體가 成하니, 이는 先艮이 終하고 後艮이 始하는 成終成始의 象이오 이가 首出庶物의 뜻이다.

庶物은 人衆의 蓄生함이오 國은 圍와 域으로 되어 土地의 境界를 分하고 區域을 定함을 말함이니 國과 邦의 相異한 바는 國은 土地의 區域을 말함이오 邦은 邑과 丰(풀성할봉)으로 되어 邑은 人居이오 丰은 草의 生盛한 模樣으로서 사람의 集居하는 人間社會를 말함이다. 咸은 골고루 라는 뜻과 男女相感한다는 뜻이 있고 寧은 男女가 合하고 飮食한다 함이니, 家庭의 夫婦生活의 安定하다는 뜻인데 寧과 安의 相異한 바는 寧은 男體를 主하여 말하고 安은 女體를 主하여 말하는 것이다.

萬國咸寧이라 함은 人衆이 蓄生하여 土地의 區域을 나누어 國을 세우고 夫가 婦와 和合하여 安定한 生活을 한다 함이니 이는 艮에서 成終成始하여 萬物을 生育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一節은 文王八卦圖의 成言乎艮이오 爻로는 上九의 亢龍이니, 艮의 成終은 上九亢龍의 象이오 艮의 成始는 彖의 首出庶物의 象이다.

乾象과 文王八卦圖

乾象은 地道가 天道의 元亨利貞을 承受하여 運行함을 象한 것이오 文王八卦圖가 또한 長의 時運의 地道로서 物의 長育함을 象한 것이므로 彖辭의 順序는 바로 文王八卦圖의 順序로 되어 乾象과 文王八卦圖가 서로 表裏가 되는 것이다. 乾象과 文王八卦圖의 順序는 또한 上經序卦의 乾道七宮의 順序로 되어 東方震은 隨蠱이오 東南巽은 臨觀이오 南方離는 噬嗑 賁이오 西南坤은 剝復이오 西方兌에는 序卦가 없고 西北乾은 无妄 大畜이오 北方坎은 頤 大過이오 東北艮은 習坎離인데, 噬嗑 賁의 日中卦가 太陽의 象으로서 南方離에 있고 剝復은 달의 盈虛消息하는 象으로서 西南坤에 있으니, 이는 달이 太陽의 앞에 있어 先迷한 先天달이 되는 象이오 이 까닭에 復卦에 迷復의 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卦에서 生한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의 先迷한 달의 象이 되고, 長의 時運의 洛書가 太陽의 象인 九金이 南方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西南에 있어 또한 先迷의 달의 象이 되는 것이다.

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

天行이라 함은 天의 上下運行하는 象이다. 八卦中에서 天地日月인 乾坤坎離는 上經에 있는데, 그 大象에는 天行地勢水洊至明兩作이라 하여, 먼저 天地水火의 本體를 말하고 다음에 行, 勢, 洊至, 兩作의 作用을 말하며, 雷風山澤인 震艮巽兌는 下經에 있는데, 그 大象에는 洊雷, 兼山, 隨風, 麗澤이라 하여 먼저 그 作用인 洊, 兼, 隨, 麗를 말하고, 다음에 雷山風澤의 本體를 말하니 이는 上經의 天地日月은 易卦의 本形四象이므로 먼저 그 本體를 말하고 다음에 그 變化하는 用을 말하며, 下經의 雷山風澤은 天地日月의 變形이므로 먼저 그 變化하는 用을 말하고 다음에 그 本體를 말한 것이다.

健은 乾의 德이니, 他卦의 大象에는 모두 卦名을 말하고, 오직 乾卦 大象에만 乾의 德인 健을 말하니, 이는 乾에는 天行의 象이 있고 天行은 天下의 至健한 것인데 乾은 統天卦로서 宇宙萬象을 具有하고 天行의 象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乾字를 쓰지 아니하고 健字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 外에 또 다른 큰 뜻이 있으니, 乾은 萬物創造의 卦로서 萬物의 씨를 創造하는 象이 있으니 天行健이라 함은 萬物의 씨의 組織을 말한 것이다. 天은 宇宙를 主宰하는 乾父의 象이오 行은 天命을 施行하는 巽風의 象이오 健은 乾을 世世繼承하는 震子의 象이니 震子는 그 究가 健이 되는 것이며, 天이 至大한 氣로써 運行하면 스스로 空間的으로 擴大하는 作用과 時間的으로 繼承하는 作用이 生하니, 空間的擴大作用은 巽風의 行이오 時間的 繼承作用은 震雷의 健이라 乾生命元이 雷風의 氣를 合하여 三用一體의 氣化生命體로 된 것이 곧 萬物의 씨의 象이니, 그러므로 天行健은 萬物의 처음으로 創造된 氣化의 씨의 象이다.

彊은 弓과 畺(지경강)으로 되어 弓이 有力하여 近으로부터 遠境을 窮한다는 뜻이니, 自彊이라 함은 君子의 進德修業하는 努力을 말함이오, 不息은 明夷卦 六五의 明不可息과 升卦의 不息之貞의 뜻이니, 明夷는 乾의 大明이 地中에 入하는 象으로서 日月이 往來하여 光明의 不息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升卦는 舊月이 終하고 新月이 始하여 日月의 運行이 不息함을 말한 것이다.

乾大象은 九三爻의 君子終日乾乾의 뜻이니, 이는 사람이 天地의 사이에 成位하고 九三은 人位에 當하고 있는 까닭이다.

君子라 함은 乾君의 子라는 뜻으로서, 乾은 宇宙를 主宰하고 君子는 乾을 繼하여 用事하는 者이니, 그러므로 天에 있어서는 달의 光明을 君子라하고 人間에 있어서는 마음이 光明하고 政事를 用하는 位에 있어 天意를 奉行하는 者를 君子라 하는 것이다. 易卦中에 君子를 말함에는 달과 사람의 兩象이 있으니, 卦辭 彖辭 爻辭는 天道와 地道를 말한 것이므로 거기에 말한

君子는 달을 象함이오, 그 外의 人道를 말한 곳에는 모두 사람을 말함이며, 이는 사람의 씨가 달에서 下來하여 달과 사람의 生理가 相似한 까닭이다.

易經에는 君子와 賢人의 區別이 있으나, 君子와 賢人은 同一人의 兩面이다. 賢人이라 함은 그 人格이 光明하여 昏暗을 明照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人才를 養成하는 것을 養賢尙賢이라 한 것이오, 君子라 함은 用事하는 位에 있는 賢人을 말함이다.

潛龍勿用 陽在下也 見龍在田 德施普也 終日乾乾 反復道也 或躍在淵 進無咎也 飛龍在天 大人造也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用九 天德不可爲首也

卦爻象象에 陰陽을 말한 것은 乾初九의 陽在下와 坤初六의 陰始凝과 泰象의 內陽外陰과 否象의 內陰外陽과 中孚九二의 鳴鶴在陰이니, 이는 다만 陰陽을 陰陽으로 表示한 것이 아니라, 陰陽의 義는 日月에 配하는 것이므로 이 五卦에 日月의 合德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乾에 大明이 있고 坤에 牝馬인 달이 있으니 乾의 陽在下는 달의 光明이 地下에 있음이오 坤의 陰始凝은 달의 陰精의 凝한 것이며, 泰否는 乾坤의 交不交이므로 日月光明의 消長을 象함이오, 中孚는 달의 合朔하는 象이므로 달의 陰精에 后天달의 자라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陽在下也는 初九爻의 象이다. 陽이 最下爻인 地下에 있으므로 潛의 象이 된 것이다

德施普也는 九二爻의 象이다. 九五의 天德을 地에 下施하여 天施地生함에 遠邇가 모두 同一하다는 뜻이니 陰體가 陽體의 震子를 承受하여 生育하는 象을 말함이오, 그러므로 百穀의 生育하는 田의 象이 된 것이다.

反復道也는 九三爻의 象이다. 復卦에 反復其道의 象이 있는데 이것은 달이 剝하고 復하여 다시 光明을 生한다는 뜻이므로 九三의 反復道도 또한 太陽의 終하는 位에서 初生의 달이 生한다 함이다. 그런데 復卦의 달은 太陽의 앞에 있는 復上月로서 先天의 天心月이 되니, 이는 先迷의 달이오 乾九三은 天地間의 人位인 皇極에 當하고 또 天數의 中數인 五에 當하므로 五皇極의 象이 되어 日月의 相遇하는 中宮이 되고 거기에서 大明이 終始하여 달이 一陰一陽하는 道를 反復하니, 이는 先乾으로부터 后乾으로 乾乾하여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皇極의 中心에서 나오는 皇心月이 되는 것이니, 이가 後得主의 달이다. 그러므로 復卦의 反復其道는 先天달의 剝復하는 天行의 道를 말함이오 乾九三의 反復道는 先天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一陰一陽하는 道를 말함이다. 復은 乾으로부터 二十四卦 百四十四爻의 坤策數에 當하여 坤이 乾大明의 震子를 受하여 先天달이 되는 象이므로 先天달을 復上에서 起하는 天心月이라 하는 것이다.

進無咎也는 九四爻의 象이다. 九四는 巽陰의 位에서 乾陽을 承受하는 것이므로 進하여 乾陽을 遇하면 서로 異各치 아니한다 함이다.

大人造也는 九五爻의 象이다. 大人造는 大人의 作興함이니 乾元震子가 飛龍으로서 天에 在하여 萬物을 創造하는 것은, 人事로써 보면 人間社會에 大人의 作興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盈不可久也는 上九爻의 象이다. 盈이라 함은 盈하면 昃한다 함이니, 上九는 乾陽의 上에 極하므로 盈의 象이 되는 것이다. 物은 窮極하면 變하고 變하면 通하고 通하면 久한 것인데, 上九는 窮極하되 陽이 過高하여 變通치 못하고 昃하여 그 生을 喪하여 久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乾卦는 初九, 九二에 龍德이 있고 九三, 九四에 進德이 있고 九五에 天德이 있어 諸爻에 모두 德이 있으되 오직 上九에 德이 없는 것이다.

天德不可爲首也라 함은 用九爻인 九五爻의 象이다. 天德이라 함은 益卦九

五의 惠我德, 蠱卦六五의 承以德의 뜻으로서 乾體의 陽精을 陰體에 施하여 天施地生하는 天地生生의 大德을 말함이니, 天地의 生生은 반드시 天의 中心인 五爻와 地의 中心인 二爻가 相應하여 行한 然後에 天地生生의 大德인 天德이 되는 것이오, 만일 陰陽이 中心에 있지 아니하고 陽이 巽股를 犯하면 陽의 喪亡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天德의 位에서는 巽股인 群龍에게 陽首인 九를 用치 말라고 한 것이다.

文言曰 元者善之長也....故曰乾元亨利貞

乾文言은 本卦의 卦辭, 爻辭, 彖辭, 小象辭의 順序에 依하여 지은 것이니, 처음의 元者善之長也 一節은 卦辭의 文言이오, 다음의 初九曰乃至上九曰 一節은 爻의 文言이오, 다음의 潛龍乃至天下治也 一節은 爻의 空間的 變化를 말한 文言이오, 다음의 潛龍乃至乃見天則 一節은 爻의 時間的 變化를 말한 文言이오, 다음은 乾元子始而亨 一節은 彖辭의 文言이오 다음의 君子以成德爲行乃至亢之爲言 一節은 小象辭의 文言이다 乾以外의 六十三卦는 모두 卦辭 다음에 彖辭를 두고 그 다음에 大象辭 爻辭 小象辭의 順序로 두었는데 오직 乾卦는 卦辭 爻辭 彖辭 大象辭 小象辭의 順序로 두니, 이는 乾卦 文言의 順序와 同一한 順序로 두기 爲함이다. 卦辭의 元亨利貞에 對하여, 彖辭는 大始 流形 變化 太和의 天道로써 解釋하고, 文言은 人禮義幹의 人道로써 解釋하니, 이는 彖辭는 地道로써 天道를 承함을 말하고 文言은 人道로써 人事를 말하고 한 까닭이다.

元이라 함은 天地로써 보면 天에서 萬物의 씨가 始生하는 象이 되고 四時로써 보면 春에 物이 始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萬物이 처음으로 出生하는 때는 善치 아니함이 없으므로 繼之者善하고 그 善이 長하여 物이 되는 것이니, 이는 善이 仁에서 生하는 까닭이다. 仁이라 함은 萬物의 씨와 같은 것이므로 열매의 씨를 또한 仁이라 하는 것이며, 仁에 새싹의 나오는 것이 곧 善이니, 그러므로 仁과 善은 모두 生命의 繼生하는 象으로서, 內

部에서 體가 되는 것을 仁이라 하고 外部에 發現하여 用하는 것을 善이라 하며, 仁의 體에서 善의 長하는 것이 곧 元이다.

人道로서는 仁을 體로 하여 사람을 기르는 善을 元이라 하는 것이다. 四德中에 오직 元에 仁善을 兼言한 것은 仁體善用이 合하여 元이 되는 까닭이니 復卦初九에 以下仁有不善의 仁善을 兼言하고 繫辭에 繼之者善 仁者見之의 仁善을 兼言한 것이 모두 그 까닭이다.

亨이라 함은 天地로써 보면 天에서 下降한 씨가 地에서 자라는 象이 되고 四時로써 보면 夏에 物의 자라는 象이 되는 것이다. 萬物이 처음으로 자라는 때에는 潔齊치 아니함이 없고 潔齊가 곧 嘉美이며 物은 이 嘉美가 合하여 體를 이루고 있으니 이것을 嘉의會라 한다. 人道로서는 사람의 嘉會하는 禮가 곧 亨이니 亨이라 함은 人間社會의 自然스러운 秩序인 禮로서 사람의 天性과 人情에 어그러짐이 없이 嘉美하게 相會하는 禮를 亨이라 하는 것이다.

利라 함은 天地로써 보면 天의 씨를 받아서 地에서 자라는 物이 여무는 象이 되고 四時로써 보면 秋에 物의 여무는 象이 되는 것이다. 物의 여무는 때에는 陽이 陰體의 속에 入하여 陰陽이 和合하면서 그 物의 本來의 性情을 具有하는 것이니, 이것을 義의 和라하며, 義라 함은 異質의 兩物이 調和하여 一하는 것이니 君臣有義, 夫婦大義, 義兄弟 같은 것이 그 一例이다. 人道로서는 人間社會의 모든 矛盾對立을 調和하여 一로 和하는 作用을 利라 하는 것이다.

貞이라 함은 天地로써 보면 物이 여물어서 地에 閉藏하는 象이 되고 四時로써 보면 冬에 物의 收藏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物이 여물어서 閉藏하는 것은 다음의 時機에 다시 變通發生하기 爲하여 그 精氣를 蓄하는 것이니, 이것을 事의 幹이라 하니, 事는 通變함이오 幹은 後日에 새싹의 所自出하는 幹體이며, 그러므로 貞은 變通의 所自出하는 幹體이다. 人道로서는 心의 體가 堅固하고 內部에 光明을 藏하여 萬變하는 世事에 應하는 것을 貞

이라 하는 것이다.

仁禮義幹의 四德에도 三顯一藏의 理가 있으니, 仁禮義는 春夏秋의 三顯이오 事의 幹은 冬의 一藏이다. 一藏의 幹이라 함은 地의 仁과 對待하는 天의 知를 말하는 것으로서, 四德은 仁禮義知로 되는 것인데, 文言에는 知를 말하지 아니하고 事의 幹을 말하니, 이는 知가 모든 通變의 所自出하는 幹體가 되고 있으되 그것이 收藏함이 貞固하여 外現치 아니하는 까닭에 外現하는 通變의 現象만을 말하고 內部에 深藏한 知를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初九曰 潛龍勿用 何謂也....

初九以下 上九까지의 一節은 爻辭의 文言이다.

子曰이라 함은, 易經에는 乾元 震을 子라하고 震子를 사람에 擬한 것을 大人이라 하고 大人이 師傳의 任에 當한 것을 聖人이라 하니 그러므로 師傳의 任에 當하고 있는 聖人의 말을 子曰이라고 하는 것이다.

初九와 九二에 特히 龍德을 말한 것은 이 兩爻가 地에 있어 龍의 體가 되는 까닭이니, 德이라 함은 心의 體이다. 乾卦下五爻가 모두 易簡의 盛德을 말하였는데, 九五는 天位이므로 天德이 되고 九三九四는 文王八卦圖의 陰卦의 位에 當하고 또 人位가 되므로 龍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修養하는 進德을 말하고, 地位에 있는 初九九二에는 龍德을 말한 것이다.

龍德의 隱한 者라 함은 陽氣의 圜轉飛動하는 陽體가 地中에 있어 坎象이 되므로 潛隱한 象이 된다 함이며, 그러므로 世를 移易치 아니하며 自身의 名을 外現치 아니하며 陽이 陰中에 있어 人世를 遯하되 煩悶치 아니하니, 遯은 遯卦의 陽退의 뜻이오 悶은 心의 閉鎖되어 있는 象이다

是는 古字의 昰이오 昰는 光明의 中天함이며 是는 또한 是非의 是로서 直

하다는 뜻이니, 是는 光明과 直으로서 太陽光明의 動直한 象이며, 初九는 太陽光明을 見치 못하되 煩悶치 아니하는 것이다. 是字는 未濟卦 上九爻辭의 失是의 是와 相照하니 이는 終卦의 終爻와 首卦의 首爻에 모두 是字를 두어서 終한 者가 始에 連한다는 뜻을 表한 것이며, 그러므로 未濟의 是字는 上九爻辭의 最終에 있고 乾의 是字는 初九爻辭의 龍德而隱으로부터 不可拔潛龍也까지의 中央에 있어, 先天陽運의 終이 后天陰運의 始의 中心에 들어옴을 象한 것이다.

樂은 上으로 天을 向하여 喜함이오, 憂는 頭의 下垂함이니, 初九는 下에 있어 潛하되, 生의 過程에 있어 生意가 動하고 있으므로 上을 向하는 樂은 行하고, 陽이 陰中에 陷하여 垂頭하는 憂는 違하는 것이다. 確乎라 함은 乾의 德行이 確然하여 恒易한 것이며, 拔은 泰否의 拔茅茹의 拔로서 男體의 陽子를 陰體에 施하는 象이니, 初九는 龍德이 確乎하여 易簡하되 아직 幼少하여 用치 못하므로 茅茹를 拔치 아니하고 潛隱한다 함이다.

九二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龍德은 陽氣의 圜轉飛動하는 陽體이오 正中은 統體에서 그 中이 되는 것이니, 九二는 生의 中心에 龍이 見하고 있으므로 龍德의 正中한 象이 되는 것이다.

九二는 元亨으로부터 利貞으로 넘어가는 中心으로서 乾道가 變化하여 各各性命을 正하는 象이 있으므로 庸言庸行을 말하니, 庸은 庚과 用으로 되어 事를 變更하여 用한다는 뜻이다. 乾道가 變化하는 때에는 用事를 變함에 言을 信하게 하고 行을 謹하고 비뚤어짐을 막고 誠을 두고 世를 善하게 하니 善이라 함은 繼之者善의 뜻이라 世를 變通하여 새로운 善한 世上이 繼한다 함이오 自己를 자랑하기 爲하여 남을 攻伐하지 아니하고 九五의 天德을 承受하여 地上에 普及하여 사람들이 化하는 것이니, 이가 見龍在田의

象이오 乾君의 德이다.

六爻文言中에 오직 九二에만 「易曰」이라 하고, 坤文言과 繫辭의 各爻 解釋에도 「易曰」을 特言한 곳이 있으니, 易이라 함은 日月의 運行法則이오 거기에 變化한다는 뜻을 寓한 것이라, 爻의 文言과 爻의 解釋에 「易曰」을 말한 것은, 그 爻에 日月의 變化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며, 九二爻는 달의 始生하는 位이므로 庸과 時舍의 象이 있어, 日月의 變化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爻辭에는 九五와 九二에 모두 利見大人을 말하였는데, 文言에는 九五에만 大人을 말하고 九二에는 大人이 없고 君德을 말하니, 이는 九五는 天德의 位로서 成의 中心이므로 大人의 象이 되고, 九二는 地上의 生의 中心으로서 九五의 天德을 承受하는 것이므로 德의 施함이 普하고 德이 博하고 化하여, 地上의 人君의 德의 象이 되는 것이며 九五의 大人과 九二의 大人은 各異한 二 大人이 아니라, 九二는 始生하는 大人이오 九五는 成德한 大人이니, 그러므로 天位의 大人은 乾元資始하는 陽氣를 陰體에 施하는 象의 大人이 되는 것이오 地上의 大人은 天德을 承受하여 人間社會에 普施하는 君德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을 正함에는 三顯一藏의 象이 있으니, 心은 內部에 있어 一藏이 되고 言語는 사람의 意思를 外部에 發하여 三顯이 되는 것이다. 庸言의 信은 人言이니, 人言은 사람의 말의 有信한 것이오 庸行의 謹은 董 言이니 董은 時의 뜻이라, 時에 맞는 말이 謹이 되는 것이오, 閑邪存誠은 成言이니 誠實한 말이 誠이 되는 것이라, 이 信 謹 誠은 言語의 三顯이오 世를 善하게 하되 伐하지 아니하고 德이 博하고 化함은 心의 一藏이다. 言語의 三顯이 信謹誠하고 心의 一藏이 善하고 한 것이 곧 사람의 天性의 正함이다.

九三曰 君子終日乾乾...雖危無咎矣

君子의 進德修業은 易簡의 道이니, 繫辭에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이라 하고 또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이라 하고 또 「易 聖人所以崇德 而廣業也」라 한바 이 德과 業은 모두 易簡을 말한 것이므로 九三과 九四의 進德修業은 또한 易簡을 말한 것이다. 易簡이라 함은 易는 太陽의 作用하는 法則이오 簡은 달의 作用하는 法則이라, 九三九四에 日月의 相遇하는 象이 있으므로 特히 易簡의 理를 말한 것이다.

德을 進함은 忠과 信으로써 하고 業을 修함은 修辭와 立誠으로써 하는데, 여기에도 九二와 같이 心의 一藏과 言語의 三顯의 理가 있다. 忠은 中心의 忠함이니, 이는 心의 一藏이오 信은 人言의 有信함이오 修辭는 言語의 正함이오 立誠은 言語의 誠實함이니 信, 修辭, 立誠은 言語의 三顯이다. 君子는 一藏한 心이 忠하고 三顯하는 言語가 信하고 修하고 立하고 하면 德을 進하고 業에 居하여 易簡을 體得하는 것이다.

幾라 함은 繫辭에 「幾는 動의 微함이오 吉의 先見함이라」하니 吉은 朔이라 易經의 月幾望은 모두 달이 비로소 太陽의 光을 받는다는 뜻이며 義는 繫辭에 「陰陽의 義는 日月에 配한다」하니 易經의 義字는 모두 陰陽相配의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九三의 幾와 義는 또한 日月相遇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九三은 太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고 하는 大明終始의 位이므로 달은 그 至할 데를 知하여 거기에 至한 까닭에 太陽과 비로소 相望하여 光을 받아서 朔日이 된 것이오, 太陽은 그 終할 데를 知하여 거기에서 終한 까닭에 달과 相遇하여 陰陽의 義를 存하는 것이니, 可與幾可與存義가 곧 日月의 易簡이다. 日月과 易簡은 同一物의 體用으로서 日月은 易簡의 體이오 易簡은 日月의 用이니 體되는 日月은 天道이오 用이 되는 易簡은 人道이라, 그러므로 繫辭에는 「陰陽의 義는 日月에 配하고 易簡의 善은 至德에 配한다」하여, 먼저 天道의 日月을 말하고 다음에 人道의 易簡에 미쳐서 사람의 崇德

廣業이 天道를 본받는 것임을 말하고, 文言의 九三에는 먼저 進德修業하는 人道의 易簡을 말하고 다음에 可與幾可與存義하는 天道의 日에 미쳐서 사람이 易簡을 體得하여 天으로 圜行하는 天人圜行의 理를 말한 것이다.

上位와 下位는 上乾下乾의 乾乾을 말함이오 驕는 高亢함이오 憂는 頭의 下垂함이니 在上位不驕는 上位에 있는 太陽이 地中에 入함이오 在下位不憂는 下位에 있는 달이 地平線上의 天에 있음이다. 사람은 在上不驕在下不憂하면 日月의 可與幾可與存義함과 같이 能히 易簡의 德業을 進修한다 함이다.

九四曰 或躍在淵...故無咎

九四는 雲行雨施의 位이니, 雲은 上하고 雨는 下하며, 上함은 進이오 下함은 退이므로 上下進退의 象을 말한 것이다. 進德은 德을 높이는 것으로서 天에 屬하여 上進의 象이 되고 修業은 業을 넓히는 것으로서 地에 屬하여 下退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進德과 修業이 곧 雲行雨施하여 上下進退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無常이라 함은 主를 得치 못하여 陰陽의 常道가 없음이니, 九四가 陽龍으로서 巽股의 位에 當하여 上하고 下하고 하여 陰陽의 常道가 없으되 비뚤어진 軌道를 行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或躍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恒이라 함은 雷風相與하는 恒卦의 뜻이므로 無恒은 震龍과 巽股가 相與치 아니 함이니 進하고 退하고 하여 雷風이 相與치 못하되 光明이 陰精에서 離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在淵의 象을 말한 것이다. 달의 陰精에는 光明을 受하는 時와 受치 못하는 時가 있으므로 雲上雨下하면서 그 時에 及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陰陽이 異各치 아니하는 것이다.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九五는 飛龍 用九의 位이므로 同類가 相從하고 陰陽이 相交하여 時運의 變

通되는 理가 있는 것이다. 時運의 變하는 것은 반드시 天에서 變하고 六十四卦中에서 乾九五가 天德의 位이므로 乾九五에 時運變化의 象이 있어 生의 象인 伏羲八卦圖가 長의 象인 文王八卦圖로 變한 象을 말한 것이다.

物의 生長하는 것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되고 다시 無形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伏羲八卦圖가 文王八卦圖로 變하는 順序를 보건대, 聲氣應求는 無形한 氣이오 水火燥濕은 形의 始生하는 精이니 이는 無形한 氣에서 有形한 精으로 變하는 것이오 風雲龍虎는 風雲의 精氣가 龍虎의 形을 從하는 것이니 이는 形의 成함이며 氣精形이 이미 生成하면 이에 萬物中의 最靈한 聖人이 作하여 三才가 成하며, 本天本地하는 乾坤은 神이니 이는 物이 여물어서 有形에서 無形으로 變하는 것이다.

同聲相應이라 함은 震은 雷이오 離는 霆으로서 雷霆이 同一한 雷聲인데 伏羲八卦圖의 東北의 震이 東方의 離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東方 震으로 되니 이는 同聲의 相應함이오 同氣相求라 함은 坎은 水이오 兌는 澤으로서 水澤이 同一한 水氣인데 伏羲八卦圖의 東南의 兌가 西方의 坎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西方 兌로 되니, 이는 同氣가 相求함이다. 水流濕이라 함은 水는 坎이오 濕은 坤의 水土의 象이라, 伏羲八卦圖의 西方 坎이 北方의 坤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北方 坎으로 되니, 이는 水가 濕에 流함이오, 火就燥라 함은 火는 離이오 燥는 乾金의 象이라 伏羲八卦圖의 東方 離가 南方의 乾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南方 離로 되니, 이는 火가 燥에 就함이며, 陰體陽體의 生殖器를 濕과 燥로 名한 것은 이 坤의 水土와 乾의 金의 象에 基한 것이다.

雲從龍이라 함은 坎水에 雲雨의 象이 있고 또 天氣와 地氣의 相接한 巽艮에 雲의 象이 있어 小畜과 小過에 密雲의 象이 있는 것이며, 龍은 震象이니 伏羲八卦圖의 西北의 艮이 東北의 震位에 移居하여 文王八卦圖의 東北艮으로 되는 것이 곧 雲이 龍을 從함이오 風從虎라 함은 달에 虎의 象이 있는데 乾陽은 달의 光明이 되고 兌澤은 달의 陰精이 되므로 乾과 兌에 虎의 象이 있는 것이며, 風은 巽象이니 伏羲八卦圖의 西南의 巽이 東南의 兌

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東西巽으로 되는 것이 곧 風이 虎를 從함이다.

時運의 推移에 依하여 聲氣 水火 雷風의 六子가 類를 從하여 萬物을 生하는데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는 사람의 生活도 또한 變化하는 것이므로 天은 반드시 聖人을 生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生活을 指導하는 것이니 이가 聖人作而萬物睹의 뜻이다. 九五에는 大人과 聖人의 兩象이 있는데 그 相異한 바는 光明의 大한 사람을 大人이라 하고, 大人으로서 師傅의 任에 當한 사람을 聖人이라 한 것이다.

天에 本한 者는 純陽인 乾이오, 下에서 上하는 者는 地氣의 上升하여 天에 接하는 艮山이니, 그러므로 純陽의 乾은 接天하는 山上에 있어 伏羲八卦圖의 南方의 乾이 西北의 艮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西北乾으로 되니, 이는 天에 本한 乾이 下에서 上하는 山을 親함이오, 地에 本한 者는 純陰인 坤이오 上에서 下하는 者는 天氣의 下降하여 地에 接하는 巽風이니, 그러므로 純陰의 坤은 接地한 風下에 있어 伏羲八卦圖의 北方의 坤이 西南의 巽位에 移하여 文王八卦圖의 西南坤으로 되니, 이는 地에 本한 坤이 上에서 下하는 風을 親함이다.

八卦는 各各 그 類를 從하여 運行하는데, 伏羲八卦圖의 生의 時運과 文王八卦圖의 長의 時運이 또한 類를 從하여 運行하는 象이 있으므로 그것을 乾九五에 말한 것이다.

上九曰 亢龍有悔 何謂也... 動而有悔也

貴는 乾의 象이니 上九는 乾體로서 貴의 象이 되는데, 過亢하여 陽이 依附할 곳이 없으므로 無位라 한 것이오, 上九는 純陽卦의 上爻에 있으므로 高의 象이 되는 것이오, 民은 陰의 象인데, 陽의 高亢은 곧 陰을 遇치 못함을 象한 것이므로 無民의 象이 되는 것이다. 賢人이라 함은 달의 光明을

象한 것이니, 上九의 相應하는 爻인 九三의 君子가 곧 賢人이며 上九는 上에 窮하고 文王八卦圖의 東北艮에 當하여 달의 消하는 象이므로 달의 光明이 下位의 九三에서 生하고 있으되, 上九의 消함을 輔치 못하는 것이다.

動而有悔라 함은 動하면 無位 無民 無輔의 길을 行하여 陽이 陰中에 陷하여 疾하여 生育치 못하는 것이다.

潛龍勿用下也 見龍在田時舍也 終日乾乾行事也 或躍在淵自試也 飛龍在天上治也 亢龍有悔窮之灾也 乾元用九天下治也

이 一節은 空間의 位로써 陽氣의 運行하는 象을 말한 文言이다. 初九에 下라 함은 그 位가 最下에 있음이오 九二에 舍는 廢止함이오 時舍라 함은 九二는 달의 體로서 天의 陽氣를 承受하는 時와 承受치 못하는 時가 있어 時로는 廢止한다 함이니, 初九의 下와 九二의 時舍는 井卦 初六小象의 下및 時舍와 同一한 뜻이며, 九三에 行事라 함은 大明이 終하고 始하여 變通을 行함이오 九四에 自試라 함은 時에 及하기 爲하여 或進함이오 九五에 上治라 함은 治는 上에서 水를 下施하여 陰陽의 和하는 것인데 九五의 飛龍에 陽精을 施하는 象이 있어 上에서 下를 治함이오 上九에 窮之灾라 함은 灾는 天火로서 屋이 火災함이니, 消滅하는 運을 象함이오 純陽卦의 上九는 陽의 消하는 곳이므로 窮의 灾가 된 것이며 用九에 天下治라 함은 九五는 乾元과 用九의 位이므로 九五에는 上治라하고 用九에는 天下治라 하니 兩者가 同一한 位의 同一한 뜻인데, 다만 九五는 天位이므로 治者의 位를 말하고 用九는 萬物의 陰陽相交하는 것이므로 萬物의 生生하는 位인 天下를 말한 것이다.

潛龍勿用陽氣潛藏 見龍在田天下文明 終日乾乾與時偕行 或躍在淵乾道乃革 飛龍在田乃位乎天德 亢龍有悔與時偕極 乾元用九乃見天則

이 一節은 時間의 推移로써 陽氣의 運行하는 象을 말한 文言이다. 初九에 陽氣潛藏이라 함은 陽氣가 地下에 藏하여 出顯치 못함이오 九二에 文은 陰物과 陽物이 相雜하여 形質에 光彩가 生함이오 明은 光明의 發함이니 天下文明은 地가 天으로부터 陽光을 受하여 光明을 生함이오 九三에 與時偕行이라 함은 달이 太陽의 뒤에 있어 光明을 生하여 運行하는 時를 當함이오 九四에 革이라 함은 革卦 己日의 뜻으로서 九四가 巽陰의 位에 當하여 乾陽의 氣를 內部에 包함이오 九五에 天德이라 함은 天德은 天에서 씨를 生하여 地에 施하고, 地에서 生한 物을 天에서 成하여 生生不已하는 天地의 大德을 말함이니 初九 九二의 龍德과 九三九四의 進德은 모두 九五의 天德에서 承受한 것이다. 上九에 與時偕極이라 함은 陽氣가 上極하는 位에 當하여 消하는 時가 됨이다.

用九에 則이라 함은 聖人則之의 則으로서 天의 垂示한 法則을 坤이 效法하여 物을 作成하는 것을 말함이니 天地가 物을 生生하는 自然法則이 곧 天則이며 乾元의 用九는 物을 生生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므로 用九에서 天則을 見한다고 한 것이다.

以上 二節은 乾各爻를 다시 空間의 位와 時間의 推移로써 解說한 것이다. 爻라 함은 事物의 變動하는 狀態를 象한 것이오 事物의 變動은 空間의 位와 時間의 推移를 따라서 生하는 것이니 繫辭에 「六爻相雜 唯其時物」이라 함은 時는 時間의 推移를 말함이오 物은 空間의 等位(爻有等故曰物)를 말함이다. 그러므로 乾文言에는 各爻를 解釋하고 다시 空間의 位와 時間의 推移로써 爻辭를 解釋하여 易經爻辭解釋의 凡例를 삼은 것이다.

乾元者 始而亨者也...雲行雨施天下平也

이 一節은 彖辭의 文言이다.

物의 元亨 段階는 먼저 形質의 發育이 있고 아직 本然의 性情을 具치 못하는 것이므로 乾元이라 함은 物이 始하여 그 形이 長하는 것이며, 利貞段階는 形質이 이미 定하고 本然의 性情이 成하는 것이다. 彖辭에는 性命을 말하고 文言에는 性情을 말하니, 命은 天의 賦與한 使命이오 情은 天性에서 發하는 生生本能이라 彖은 天道를 말한 까닭에 性命이라 하고 文言은 人道를 말한 까닭에 性情이라 한 것이다.

乾始라 함은 乾元의 始함이오 美라 함은 嘉의 會하는 亨이오 利라 함은 義의 和함이니 乾元이 物을 始하고 美와 利로써 그것을 個個히 長育하고 統一的으로 義和하여 天下의 萬物을 모두 裁成하되 乾元의 統天作用은 自然스럽게 行하여 그 統一하는 形跡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不言의 뜻)萬物의 生生은 모두 同一한 自然法則에 統一되고 있으되 各自의 物은 各其 獨立生活을 하는 것으로 되어 自然法則에 裁成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가 乾元의 大矣哉한 所以이다

大哉乾乎라 함은 乾의 全象을 말함이오 乾에는 卦辭의 元亨利貞의 四德과 爻辭의 潛 見 惕 躍 飛 亢의 六龍이 있으니, 四德과 六龍이 곧 大哉한 所以이다. 剛 健 中 正은 元亨利貞의 四德을 말함이오 六爻發揮는 潛見惕躍飛亢의 六龍을 말한 것이며, 卦辭는 天道이오 爻辭는 地道이라 사람의 天性은 日月光明의 圓深通明한 作用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天道에 屬하고 情은 달에서 震子가 兌精의 相合하는 作用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地道에 屬하니, 그러므로 純粹精은 圓深通明한 天性을 말함이오 旁通情은 震子兌精의 生生하는 情을 말함이다.

純은 糸와 屯으로 되어 屯卦의 經綸의 뜻으로서 盤桓하여 圓한 象이오 粹는 米와 卒로 되어 草와 卒을 合한 萃卦의 뜻으로서 澤이 聚하여 深한 象

이며, 精은 水火의 合한 것으로서 水通火明한 象이니, 純粹精이라 함은 사람의 天性이 圓하고 深하고 通明하다 함을 말함이오 旁通이라 함은 日月暈과 같이 中心으로부터 圓形으로 外向하여 發하는 것이니 生生의 本能이 天性에서 發하는 것을 旁通情이라 한 것이다. 文言은 人道를 말한 까닭에 卦辭의 四德을 天性으로 解釋하고 爻辭의 六龍을 情으로 解釋하니 이는 또한 仁 禮 義 知는 性이오 潛見惕躍飛亢은 情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彖辭에는 雲行雨施를 먼저 말하고 다음에 御天을 말하며 文言에는 御天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雲行雨施를 말하니 이는 彖辭는 大明의 生成을 말한 까닭에 雲行雨施品物流形한 뒤에 乘龍御天하는 것이오 文言은 사람의 性情을 말한 까닭에 사람의 天性이 成하여 天에 還行한 뒤에 神의 事業을 祐하여 天下가 平하는 것이다.

君子 以成德爲行....君子弗用也

이는 初九小象의 陽在下也의 文言이다.

日可見之라 함은 日用한다는 뜻도 되고 太陽의 光明을 見한다는 뜻도 되니, 爻辭文言의 不見是의 是와 相照하는 것이오 陽이 下에 있으므로 隱而未見行而未成이 되는 것이다.

爲言이라는 말은 潛之爲言也 亢之爲言也 妙萬物而爲言이 있으니, 乾初上의 爲言도 또한 神의 爲言이다.

乾五有鬼神之象 故初上之言 潛言亢亦皆神之言也

君子 學以聚之....君德也

이는 九二小象의 德施普也의 文言이오 爻辭文言의 德博而化와 同一한 뜻이다.

君子가 德을 修함에는 學聚 問辨 寬居 仁行의 네 가지가 있으니, 이는 四情에서 나온 것이다. 九二에 性命의 象이 있으므로 또한 性에서 發하는 情의 象이 있으니, 學以聚之는 萃聚의 情이오 問以辨之는 感應의 情이오 寬以居之는 恒久의 情이오 仁以行之는 天地에만 있는 正大의 情이다. 彖辭의 文言에 「利貞者性情也」라 한 것도 九二가 利貞의 位로 되어 性命과 性情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君德이라 함은 乾君의 德이오 德施普의 德이니, 이는 九五 天德의 位에서 下施하는 德이며, 君德의 下施가 곧 利見大人의 象이다.

九三 重剛而不中....雖危無咎矣

이는 九三小象의 反復道也의 文言이다.

重剛이라 함은 上乾下乾의 境界에 있음을 象함이오 中치 못하고 不在天不在田하여 天地間의 人位에 있으므로 下乾上乾하여 一陰一陽하는 道를 反復하는 것이며 陰體가 陽을 遇하는 時와 遇치 못하는 時가 있음을 因하여 그 心을 光明케 하면 비록 陰中을 涉하여 危하되 陰陽이 異各치 아니 하는 것이다.

九四 重剛而不中....故無咎

이는 九四小象의 進無咎의 文言이다.

上乾下乾의 境界에 있어 中치 못하고 不在天 不在田 不在人하여 天空中에 있으니 이는 進退不定의 象이다. 或이라 함은 不安定함이오 疑라 함은 心의 枝疑未定함이니 九四는 天空中의 安定치 못한 位에 있으므로 스스로 試하여 進한 然後에 陰陽이 相遇하여 異各치 아니하여 時에 及하는 것이다.

六爻中에 오직 九三과 九四에만 爻位를 말한 것은 重剛不中한 爻位에서 君子가 進德修業하여 九三에서 反復하고 九四에서 進退하고 함을 말하기 爲함이다.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況於鬼神乎

이는 九五小象의 大人造也의 文言이니, 夫大人은 「저大人」 또는 「그大人」이라는 뜻으로서 大人造의 大人을 指함이다.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는 그 事象이 外面에 나타난 三顯이오 與鬼神合其吉凶은 無形無體한 一藏이다. 鬼神이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天地에는 唯一神이 있고 神이 萬物의 生生作用을 行함에는 마치 사람이 生生作用을 行함에 耳 目 口 鼻 手足等이 各其 任務를 나누어 部分的으로 動作함과 같이 神도 神全體가 行하는 것이 아니라 神의 여러 分身이 各其 맡은 바의 任務를 行하는 것이오, 이 分身이 곧 鬼神이다.

鬼는 個體 獨有의 作用이오 神은 天地 統體의 作用이니 天地 唯一神은 天地 統體의 作用이므로 거기에는 神만 있고 鬼가 없으며 神의 分身은 이미 個體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鬼와 神의 두 作用이 아울러 있는 것이다. 與鬼神合其吉凶이라 함은 大人의 吉凶이 곧 鬼神의 吉凶이오 鬼神의 吉凶

이 곧 天의 吉凶이므로 大人은 鬼神으로 더불어 그 吉凶을 合하고 또 天으로 더불어 그 吉凶을 合하여 天에 先하되 天이 違치 아니 하는 것이다. 여기에 天이라 함은 神의 居하시는 位를 말함이니 그러므로 天이 違치 아니한다 함은 곧 神이 違치 아니 한다는 뜻이다.

鬼神의 吉凶이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謙卦에 「鬼神害盈而福謙」이라 한 바 鬼神의 福하는 것은 吉이 되고 害하는 것은 凶이 되는 것이다. 鬼神은 무슨 까닭에 사람을 福하고 害하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神에서 生하여 神의 生長成法則에 依하여 生生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生生하는 法則은 곧 神의 分身인 鬼神의 運行法則이며 그러므로 鬼神의 吉凶은 또한 사람의 吉凶과 一致하니 이가 鬼神이 사람을 福하고 害하는 象이다. 그런데 鬼神이 사람에 對하여 福害의 作用을 行함에는, 善한 者를 卽時로 福하고 惡한 者를 卽時로 害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繫辭에 「善不積不足以成名 惡不積不足以滅身」이라 하니 이는 善도 많이 行하여 積한 然後에 福을 받는 것이오, 惡도 많이 行하여 積한 然後에 害를 받는다 함을 말함이다. 萬一 善을 行하되 조금 行하고 다시 行치 아니하여 善이 積치 아니하면 成名하는 福이 오지 아니하고 惡을 行하되 조금 行하고 다시 行치 아니하여 惡이 積치 아니하면 滅身하는 害가 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物의 生長成의 理에 依하여 善을 積하면 善이 長成하여 鬼神으로부터 福을 받아서 生氣가 繼續하는 것이니 이가 鬼神의 吉하다 하는 것이오 惡을 積하면 惡이 長成하여 鬼神으로부터 害를 받아서 쭉정이가 되는 것이니 이가 鬼神의 凶하다 하는 것이다. 謙卦의 盈과 謙은, 이것을 人事로써 보면 盈은 驕盈함이오 謙은 謙讓함이다. 惡의 積한 것이 곧 盈이오 善의 積한 것이 곧 謙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驕盈한 者는 鬼神으로부터 害를 받아서 凶하고 謙讓한 者는 鬼神으로부터 福을 받아서 吉한 것이다.

九五爻의 大人은 小象의 大人造의 大人이오 造는 天造의 뜻으로서 乾陽을 陰體에 施하는 作用이 곧 天造이니 天造는 物을 創造한다 함이다. 天에 先하되 天이 違치 아니한다 함은 天의 開闢하기 以前에 大人이 物을 創造하

되 天道에 違치 아니한다 함이오 天에 後함에 天時를 奉한다 함은 天의 開闢以後에 天時를 奉行하여 物을 創造하면 天時에 合한다 함인데 九五에 天의 開闢以前과 開闢以後의 象으로서는 生의 時運의 象인 伏羲八卦圖와 長의 時運의 象인 文王八卦圖가 있다. 伏羲八卦圖는 天의 開闢하기 以前의 天地渾沌한 象을 圖寫한 것이니 이는 天에 先함이오 伏羲八卦圖가 天에 先하되 天地의 運行하는 天道가 卦圖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으니 이가 天不違이다. 文王八卦圖는 天이 開闢한 以後의 萬物生長하는 象을 圖寫한 것이니 이는 天에 後함이오 文王八卦圖가 天에 後하여 天地의 運行하는 天時가 卦圖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으니 이가 奉天時이다. 伏羲八卦圖는 天에 先하므로 先天의 象이 되고 文王八卦圖는 天에 後하므로 后天의 象이 되니 이는 長의 時運에 있어서는, 生의 時運은 先天이 되고 長의 時運은 后天이 되는 것이며 時運이 變하여 生長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生長時運은 모두 先天이 되고 成의 時運은 后天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經(周易)은 先天易이 되고 正易은 后天易이 되는 것이다.

況於鬼神乎의 鬼神은 與鬼神合其吉凶의 鬼神이니 天도 大人의 創造한 卦圖의 理를 違치 못하므로 神의 分身인 鬼神도 또한 卦圖의 理를 違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伏羲八卦圖의 理와 文王八卦圖의 理는 天도 違치 못하고 사람도 違치 못하고 鬼神도 違치 못하여 天 人 鬼神이 모두 그 生長成의 原理를 따라가서 生長成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이가 易이 天地로 더불어 準하고 天地로 더불어 相似하고 한 所以이다.

四時日月

四時의 象은, 文王八卦圖의 四正으로써 보면 震은 正春이오 離는 正夏이오 兌는 正秋이오 坎은 正冬이며 易卦中에 四時를 말한 것은 統天卦인 乾 以外에 五卦가 있으니 豫와 觀에는 「四時不忒」이라 하고 恒에는 「四時變化」라 하고 革과 節에는 「四時成」이라 하니 卦象과 序卦로써 보면 豫는

春이오 觀은 夏이오 恒은 夏秋의 交이오 革은 秋이오 節은 冬이다. 革과 節에 四時를 말한 것은 革은 南의 離로부터 西의 兌로 옮기는 正秋이오 節은 西의 兌로부터 北의 坎으로 옮기는 正冬인 까닭이다. 坎으로부터 震하는 解와 震으로부터 離하는 噬嗑에는 春과 夏의 四時를 말하지 아니하고 豫와 觀에 四時를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四時라 함은 生長成의 理이오 春과 夏의 生長은 반드시 雷風의 氣가 乾坤生命元을 運行하여 地上에 流行하여 地力을 吸取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文王八卦圖의 流行이 東과 東南의 雷風에서 始하는 것이오 이가 雷風이 地에 行하는 豫와 觀에 四時를 말한 所以이다. 秋冬에 物을 成함에는 地力을 吸取하지 아니하고 이미 吸取한 膏澤을 資賴하여 太陽의 光熱과 雨露等을 받아서 凝成하는 것이므로 水火 및 澤으로 된 革과 節에 四時를 말한 것이다. 恒은 雷風의 卦이라 春豫夏觀의 雷風이 合하여 生命元을 運行하는 力이 되어 生長에서 成으로 넘어가는 生成의 變化를 行하고 있으므로 恒에 四時의 變化를 말하고 序卦로는 豫觀의 生長과 革節의 成의 中間에 位한 것이다. 卦中에 日月을 말한 것은 統天卦인 乾以外에 오직 豫 恒 및 離이니 離는 上離下離인 까닭에 繼明의 象이 있어 日月의 麗天이 된 것이오 豫와 恒은 四時卦인데 四時는 日月의 運行에 依하여 生하고 日月의 光明은 震子의 作用에 依하여 生하며 四時卦中에서 震子를 合한 卦는 오직 豫와 恒이므로 이 두 卦에만 日月을 말한 것이다.

亢之爲言也.....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이는 上九小象의 盈不可久의 文言이다.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은 모두 盈의 象이오 盈한 者는 반드시 虧하여 久치 못한 것이다. 聖人을 거듭 말한 것은 前者는 進退 存亡 得喪을 知함을 聖人이라 한 것이오 後者는 不失其正함을 聖人이라 한 것이다. 먼저에는 進退 存亡 得喪을 말하고 뒤에는 進退 存亡만을 말하니

이는 不失其正의 失이 곧 喪의 뜻인 까닭이다.

繫辭에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皇帝堯舜垂衣裳 而天下治盖取諸乾坤」이라 하니 乾坤에는 窮變通久의 道가 있는데 皇帝堯舜은 이 乾坤의 道를 法하여 變通한 까닭에 久한 것이오 上九는 窮之災의 象인데 이 乾坤變通의 道를 知치 못한 까닭에 盈하여 久치 못한 것이며 其唯聖人乎라 함은 窮變通久의 道를 知하여 不失其正한 皇帝堯舜을 指한 것이다.

正이라 함은 乾의 剛健中正의 正으로서 貞하여 保合한다는 뜻이니 上九는 陽極의 位에 있으므로 保合한 然後에 喪亡치 아니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動하면 悔가 있다 한 것이다.

坤

先迷 = 先하면 迷하고, 後得主 = 後하면 主를 得하여 利하고, 先天에는 迷하고, 後天에는 主를 得하여 利하고, 土中은 戊申이다. 戊申爲月之胎宮故月復於戊申也(正易)

坤은 純陰卦로서 形質의 元을 象하고 天을 順承하여 順行하는 것이다. 坤이 三劃인 原卦인 때에는 地의 象이 되는 것인데 上坤下坤의 六劃卦로 되는 때에는 上에도 地가 있고 下에도 地가 있고 하여 地와 달의 象이 되는 것이오 坤字는 土와 申으로 되어 土氣가 伸하여 萬物을 生育하는 象이 되니 이는 萬物이 地와 달에서 生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坤 元亨利牝馬之貞. . . . 安貞吉

乾卦에는 太陽의 象이 있어 象辭가 文王八卦圖를 順行하고 있는데 坤卦는 乾을 順承하는 地와 달의 象이 있어 象辭가 또한 文王八卦圖를 圜行하고 있으되 太陽의 行道는 順하고 달의 行道는 逆하니 이는 坤卦는 陰이오 陽이 陰中에 있으면 逆行하고 坤象辭는 天道로서 달의 光明의 象이 되어 陽에 屬하므로 달의 光明이 坤陰 中에서 逆行하고 있는 까닭이며 또 乾은 統天卦이므로 그 象辭가 文王八卦圖의 全體를 順行하고 있으되 坤은 純陰으로서 天을 統치 못하므로 文王八卦圖의 陰卦만을 逆行하는 것이다. 太陽은 震에서 出하므로 震이 乾元으로 되어 乾卦의 乾元은 文王八卦圖의 震에서 始하는 것이오 달은 兌에서 生하므로 兌가 坤元으로 되어 坤卦의 坤元은 文王八卦圖의 兌에서 始하는 것이다.

彖辭와 文王八卦圖

彖辭는 달이 太陽의 光明을 承受하는 象이니 달의 光明이 說言乎兌에서 始하여 逆行하여 光明의 生成하는 理를 말한 것이다. 乾卦 爻辭의 달의 光明은 陽氣의 處地에서 본 光明이오 坤卦 彖辭의 달의 光明은 달의 處地에서 본 光明이다.

至哉坤元萬物資生乃順承天----------說言乎兌

坤厚載物德合無疆含弘光大品物咸亨----------致役乎坤

牝馬地類行地無疆柔順利貞君子攸行----------致役乎坤 相見乎離

先迷失道後順得常----------相見乎離

西南得朋乃與類行東北喪朋乃終有慶--------- ---------齊乎巽

安貞之吉應地無疆----------帝出乎震

爻辭와 文王八卦圖

爻辭는 달의 陰精이 陽氣를 承受하는 象이니 달의 陰精이 齊乎巽에서 始하여 順行하여 陽氣를 受하는 理를 말한 것이다.

上六----------戰乎乾

六五----------說言乎兌

六四----------致役乎坤

六三----------致役乎坤 相見乎離---------用六

六二----------相見乎離

初六----------齊乎巽

坤卦는 달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彖辭는 달의 光明의 象이 되어 陽이 陰中에 있어 그 길이 逆行하고 爻辭는 달의 陰精의 象이 되어 陰이 陰中에 있어 그 길이 順行하니 그러므로 彖辭는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逆行하여 兌坤離巽의 序次로 되고 爻辭는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順行하여 初六巽 六二離 六三離坤 六四坤 六五兌의 順으로 된 것이다. 爻辭가 이와 같이 順行하면 上六은 반드시 六五兌를 지나서 西北의 乾卦로 行하는 것이오 西北乾은 陽卦로서 陰陽이 相薄하여 戰하고 있는 位이므로 上六에 龍戰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曰 至哉坤元 萬物資始 乃順承天

이 一節은 卦辭의 元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兌에 當하는 것이다.

天地가 相交하여 萬物을 生함에는 天은 太陽으로써 陽氣를 삼고 地는 달로써 陰精을 삼아 太陽의 陽氣속에 있는 震子가 달의 陰精 속에 있는 兌澤과 合하면 그것이 化醇하여 精化의 씨를 生하는 것이다. 震子는 乾元이오 兌澤은 坤元이니 坤元이라는 用語는 地와 달을 合하여 말한 것으로서 地의 胎宮中에 物의 形質을 生하는 元인 兌澤이 있다 함이오 마치 女體의 陰股의 속에 陰子인 卵子가 있음과 同一한 理이다.

乾元에서 物이 資始하고 坤元에서 物이 資生하니 資始라 함은 씨의 氣化함이오 資生이라 함은 씨의 精化함이니 이는 繫辭에 「乾知大始 坤作成物」의 뜻이다.

至는 飛鳥가 高處로부터 下하여 地에 至한다는 뜻이다. 至哉라 함은 天에서 地에 下하여 어느 極致處에 이른 것이니 坤元은 달의 兌澤으로서 人身에 있어서는 女體의 陰子의 象이 되고 陰子는 女體가 男體의 陽子를 承受하는 陰宮의 極致處에 있는 것이므로 坤元을 至字로써 表한 것이다.

坤의 順은 乾의 健과 對稱함이니 健은 乾의 德行의 恒易함이오 順은 坤의 德行의 恒簡함이라 乾坤은 至健至順한 易簡의 德行이 있어 能히 資始資生하므로 坤元은 順하여 天을 承한다고 한 것이다.

坤元 一節은 또한 六五爻의 黃裳元吉이오 序卦의 下經의 咸恒이다.

坤厚載物 德合無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이 一節은 卦辭의 亨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므로 特히 坤字를 쓰고 坤의 載物의 德을 말한 것이니 乾象이 乾에 當하는 곳에 乾道라는 乾字를 쓴 것과 同一한 理이다.

坤의 體는 地이므로 重土의 뜻을 取하여 厚라 한 것이오 物을 載한다 함은 地는 天을 承하여 運行하는 것이므로 大輿가 物을 載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無疆이라 함은 境界가 없음이니 圓狀의 物이 圓軌道를 還行하여 形體와 運行이 모두 境界가 없음을 象한 것이오 이는 坤德을 말함이다. 德合無疆이라 함은 地는 厚하여 萬物을 載하고 그 體가 圓狀으로 되어 無疆으로 된다 함이다. 含弘은 坤이 乾으로부터 萬物의 씨를 承受하여 包含生育함이 弘廣한다 함이오 光大는 坤이 乾으로부터 陽氣의 光을 承受하여 光明을 發

揚함이 大하다 함이니 含弘光大는 坤이 乾을 受하는 象을 말함이다. 品物은 地와 달과 太陽의 三圓形을 竝稱한 것이니 坤이 乾을 受하여 含弘光大하므로 地와 달과 太陽이 골고루 서로 感하여 모두 嘉會한다 함이다.

自至哉坤元 至品物含亨之 元亨은 太陽 地 및 달의 嘉會하는 象을 말함이오 牝馬地類 以下는 利貞으로서 달의 光明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이 一節은 또한 六四爻의 括囊이오 序卦의 遯 大壯이다.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 君子攸行

이 一節은 卦辭의 利牝馬之貞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中의 坤과 離에 當하여 달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地面을 비추면서 運行함을 말한 것이다.

乾은 馬象이오 坤은 牛象인데 乾坤을 陰陽關係로써 볼 때에는 馬와 牛는 陰陽의 義가 없으므로 坤을 牝馬라 한 것이다. 牝馬는 地의 類이오 地가 아니며 地의 類로서 地를 行함이 無疆한 것은 오직 달이니 行地無疆이라 함은 달이 地의 周圍의 圓軌道를 圜行함을 말함이다. 柔順이라 함은 柔는 坤의 體이오 順은 坤의 用으로서 坤이 乾의 發施하는 陽氣를 承受하는 作用이 곧 柔順이니 이는 乾의 剛健과 對稱하여 말한 것이다. 易卦에 柔順이라는 말은 坤과 明夷에만 있고 剛健이라는 말은 乾 需 大有 大畜에만 있는데 剛健은 모두 乾의 陽氣를 施하는 卦에 있고 柔順은 坤이 乾陽을 承受하는 坤과 明夷에만 있으며 晉 明夷의 錫馬 拯馬는 또한 坤의 牝馬와 相照하여 달의 象이 되는 것이다.

卦辭의 利貞을 象辭에서 解釋함에 利貞 그대로 쓴 것은 乾象의 乃利貞 坤象의 柔順利貞 兌象의 說以利貞 中孚象의 以利貞 小過象의 過以利貞의 五卦뿐이오, 이는 모두 坤의 簡能作用을 말함이며 易卦의 天道와 地道에 君子를 말한 것은 모두 달의 象이니 柔順利貞君子攸行은 달이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여 運行하는 作用이 簡能하다 함을 말함이다.

이 一節은 또한 六三爻의 含章이오 序卦의 晉 明夷이다.

先迷失道 後順得常

이 一節은 卦辭의 先迷後得主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의 位에當하여 太陽과 달의 互易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卦辭에는 君子有攸往을 先迷의 上에 連하고 彖辭에는 君子攸行을 牝馬의 下에 連하니 이는 君子는 달의 象이라 卦辭와 彖辭에 君子 一句로써 或은 上에 連하고 或은 下에 連하여 牝馬一節과 先迷一節이 모두 달의 象이라 함을 發明한 것이며 다만 相異한 바는 君子攸行은 달의 運行함을 말함이오 君子有攸往은 달이 太陽을 相遇함을 말함이다.

卦辭에는 後得主利라하고 彖辭에는 後順得常이라 하고 文言에는 後得主而有常이라 하니 이는 得主가 곧 有常이라 함을 서로 發明한 것이다.

달의 行함이 太陽의 앞에 있는 것을 先한다 하고 太陽의 뒤에 있는 것을 後한다 하는데 달의 行함이 太陽에 先하면 後望이 되어 光明이 漸消하는 것이니 이가 곧 先迷이오 先迷는 先天달의 象이며 달의 行함이 太陽에 後하면 前望이 되어 光明이 漸生하니 이가 곧 後得主이오 後得主는 後하면 順하여 主를 得하는 後天달의 象이다 道라 함은 一陰一陽하는 것인데 달의 光明이 先迷하면 消하여 日月이 一陰一陽하는 道를 行치 못하니 이가 곧 失道이다. 後得主利라 함은 달이 太陽의 後로 넘어가서 后天달이 되면 長의 時運이 成의 時運으로 變하는 것이니 成의 時運이 곧 天道의 利의 段階가 된다 함이다.

이 一節은 또한 六二爻의 直方이오 序卦의 家人 睽이다.

西南得朋 乃與類行 東北喪朋 乃終有慶 (安貞之吉 應地無疆)

이 一節은 卦辭의 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니 巽은 달의 體이므로 여기에 得朋喪朋 (安貞)의 象을 말한 것이다.

朋은 陰體의 光明이니 곧 달의 光明이며 光明은 光明으로써 類를 삼는 것이므로 달의 光明의 類는 곧 太陽의 光明이며 乃與類行이라 함은 달의 體가 西南에서 그 類인 太陽을 從行하여 光明을 生한다 함이니 여기에 類라 함은 乾九五에 雲從龍 風從虎 各種其類也의 類이다. 그러므로 西南得朋乃與類行은 달이 西南에서 太陽을 從行하여 光明을 生한다 함이오 이는 後得主의 달을 말한 것이다.

달은 晦에 이르면 地의 東北을 行하여 消하는 것이므로 달의 消하는 것을 東北喪朋이라 하며 이는 先迷의 달을 말한 것이다. 달의 消하는 때는 地와 달과 太陽이 一直線으로 되어 合朔이 되는데 달은 地의 胎宮이므로 母體인 地와 胎宮인 달이 太陽과 一直線이 되는 때에 모두 一體가 되어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고 달의 光明이 復生하는 것이오 달의 光明의 復生하는 것이 곧 有慶이니, 慶이라 함은 善한 子의 生함이다. 달은 每月에 晦하고 朔하고 하여 有慶의 象이 되는 것이다. 坤彖의 先迷後得主는 每月의 晦朔의 理로써 先天 달과 后天 달의 象을 말한 것이오 先天의 달이 太陽과 合朔하고 太陽의 뒤로 넘어가서 后天 달로 되는 것이 곧 乃終有慶이다.

安貞之吉 應地無疆

이 一節은 卦辭의 安貞吉의 解釋이오 文王八卦圖의 震에 當하니 震은 太陽에서 오는 乾元으로서 달이 그 內部에 承受하여 保合하여 生育함이다.

이 一節은 또한 序卦의 益이니 安定吉應地無疆은 益卦의 動而巽日進無疆이다.

訟卦九四의 (復卽命渝)安貞吉이라 함은 地에 發施할 震子의 生育을 말한 것이므로 坤象의 安貞吉도 또한 坤의 承受한 震子를 말하는 것이다. 安은 女가 深屋中 에 있어 靜하다 함이오 貞은 保合함이니 安貞吉은 달이 陽氣를 承受하고 保合하면 善한 子가 生한다 함이다. 安字와 寧字의 相異한 바는 寧은 男이 女를 得하여 陰陽相從함이오 安은 女가 男을 承하여 陰陽相從함이다.

應地無疆

安貞吉을 文王八卦圖의 震이라 하는 것은 陰中에 安貞한 乾元震子가 地를 應하여 無疆한 圓軌度를 圜行한다 함이다. 文王八卦圖의 四維에 東南巽은 달의 體이오 西北乾은 달에 陽氣를 施하는 乾陽이오 西南坤은 달의 光明의 生하는 곳이오 東北艮은 달의 光明의 消하는 곳이니 西南得朋은 달이 西南의 坤方에서 西北의 乾陽의 뒤를 따라 行하여 光을 生함이니 이는 後得主의 象이오 東北喪朋은 달이 東北의 艮方에 行하여 西北乾陽의 앞에 있어 光을 喪함이니 이는 先迷의 象이다. 西北乾陽은 곧 初六爻의 堅氷이다.

이 一節은 또한 初六爻의 履霜堅氷이오 序卦의 蹇解이니 그러므로 蹇解에 또한 西南東北의 象이 있어 坤陰이 乾陽의 光을 受하여 朋來朋至의 象이 되는 것이다.

坤象과 正易八卦圖

坤象은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逆行하여 下經 序卦의 坤道五宮의 順序로 되

니 至哉坤元 一節은 西方 兌로서 序卦의 咸恒이오 坤厚載物 一節은 西南 坤으로서 序卦의 遯 大壯이오 牝馬地類 一節은 西南 坤과 南方 離로서 序卦의 晉 明夷이오 先迷失道 一節은 南方 離로서 序卦의 家人 睽이오 西南得朋 一節은 東南 巽으로서 序卦의 蹇 解이다. 晉 明夷는 大明인 太陽이 晝하고 晦하고 하는 象으로서 南方에서 西南으로 가서 沒하는 象이 되고 家人 睽는 달의 象으로서 明에 麗하여 南方에 있으니 이는 晉 明夷의 太陽이 西南에 있고 家人 睽의 달이 南方에 있어 달이 太陽의 뒤로 돌아간 象이 된 것이며, 太陽이 西南하고 달이 南한 것이 곧 金火가 正易하여 後得主하는 后天달이 된 象이다. 坤道五宮의 序卦는 先天의 噬嗑 賁 剝 復의 先迷한 달이 金火가 正易하여 後得主하는 后天 달이 되고 家人 睽의 三女卦가 收斂하여 坤道의 陰精이 여물고 蹇 解의 三男卦가 收斂하여 坤陰이 乾陽을 受하여 달의 光明을 生하니 이는 바로 正易八卦圖 金火正易의 象이다. 그러므로 正易八卦圖는 坤卦의 後得主의 理에서 生하여 序卦의 坤道五宮의 象으로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되는 것이다.

象曰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地勢라 함은 地가 運行하여 萬物을 生育하는 力을 말함이다. 重卦의 大象은 모두 重疊한 뜻을 取하여 洊雷 隨風 水洊 至明 兩作 兼山 麗澤의 象을 取하고 오직 乾坤에는 天行地勢라하여 그 運行하는 力을 取하니 이는 乾坤은 生命元으로서 生命元의 交互作用하는 力에 依하여 萬物을 生生하는 것이므로 行과 勢의 力을 말한 것이다. 厚德載物은 彖辭의 坤厚載物이니 地는 形質을 主하므로 厚載의 象을 取한 것이다.

初六 履霜堅氷至 象曰 履霜堅氷陰始凝也 馴致其道至堅氷也

坤卦는 地를 象하고 自然數의 地數가 二 四 六 八 十인데 爻는 物의 生長

을 象하여 下로부터 逆上하고 自然數의 生長이 또한 逆上하는 것이므로 爻와 自然數가 서로 合當하여 初六은 二이오 六二는 四이오 六三은 六이오 六四는 八이오 六五는 十이오 上六은 位가 없는 것이다.

坤初六은 陰의 始가 되고 또 自然數의 二에 當하여 陰始凝의 象이 되고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니 巽은 달의 體로서 그 色이 白하니 陰이 始凝하여 白하므로 霜이라 하고 또한 霜의 殺陽의 뜻을 取한 것이다. 履는 달의 生光하는 卦이니 履霜이라 함은 初六에 달의 體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氷은 乾象이니 乾은 外陰內陽한 金의 象이므로 또한 至陰中에 陽氣를 包한 氷의 象이 되는 것이며 坤初六 巽은 또한 序卦의 蹇解에 當하고 蹇解의 陽精水는 乾의 陽精水로서 冬寒中에 있으므로 氷이라 하니 이는 初六巽이 蹇解에 當함을 表하기 爲함이다. 또 霜은 殺陽의 象이 되는데 文王八卦圖에 乾巽이 相對하여 乾陽은 喪치 아니하는 것이니 霜中에서 喪치 아니하는 陽은 氷陽이므로 乾陽에 氷象을 取한 것이다. 堅은 坎의 堅多心 艮의 堅多節의 堅으로서 乾陽의 再索三索하는 陰陽相交 作用이 곧 堅이다. 履霜堅氷至라 함은 달의 體가 비로소 生하고 乾陽이 달의 陰精과 相交한다 함이다. 坤은 牝馬卦이오 初六은 巽股의 位이므로 初六에서 坤陰이 비로소 凝收하여 여물고 乾陽이 至하여 陰陽이 相交한다 함이다. 馴은 馬順이니 馴致其道至堅氷이라 함은 坤順한 牝馬가 一陰一陽하는 道를 致하여 乾陽을 至하게 함이며 爻辭의 堅氷至는 乾陽이 陰體에 下施함을 말함이오 小象의 至堅氷은 陰體가 乾陽을 順承함을 말함이니 이는 陰陽의 交互作用을 象한 것이다.

六二 直方大. . . .不習無不利 地道光也

六二는 地의 生의 中心으로서 그 德이 方하고 自然數의 地數의 四에 當하므로 陰體方形의 組織의 象이 되는 것이다. 直이라 함은 乾其動也直으로서 陽의 動하는 象이오 方이라 함은 併船으로서 陰의 偶하는 象이니 直方은

太陽과 달의 相交하는 象이오 大라 함은 光明이 大하여 萬物을 生함을 말함이다. 習은 習坎의 陽水이니 六二는 文王八卦圖의 離位에 있어 太陽으로부터 陽精水를 承受하여 陽直陰方하므로 卦中에 習坎의 陽精水의 象이 없으되 스스로 象의 後得主의 象이 되어 利한 것이다. 陽精水의 飛越하는 것을 習이라고 하는 것은 飛는 鳥의 象이오 習은 鳥數飛로서 雛의 象이니 陽精水中의 震子는 雛의 象이므로 그 飛越하는 것을 習이라 한 것이다. 六二의 動이라 함은 乾其動也直坤其動也闢으로서 달의 陰體가 太陽의 光을 受하여 動함이오 地道光이라 함은 달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一陰一陽한다 함이다.

直方大는 直方하여 大하다고 讀하는 것이니 이는 坤六爻가 履霜 直方 含章括囊 黃裳 玄黃의 押韻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六三 含章可貞 . . . . 或從王事 知光大也

章은 文采의 뜻인데 草木으로써 보면 花가 華榮하여 實을 生하는 것이 곧 章이니 陰體中에 陽의 光을 受하여 陰精이 美한 것을 章이라 한다.

六三은 自然數의 地數의 六에 當하니 六은 用六宮의 數이므로 坤六三이 또한 用六宮의 象이 되는 것이며 六三은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와 致役乎坤에 當하는데 乾卦는 太陽의 象이 되는 까닭에 離坤에 當하는 九三에 光明이 地中에 入하는 終日의 象이 있고 坤卦는 달의 象이 되는 까닭에 離坤에 當하는 六三에 地中에 光明을 包하는 含章의 象이 있는 것이다.

草木에서 가장 章美한 것은 花이오 花에는 色과 香과 蜜이 있는데 色은 光이오 光은 目에 屬하여 離卦의 象이 되고 香은 臭이오 臭는 鼻에 屬하여 巽卦의 象이 되고 蜜은 味이오 味는 口에 屬하여 兌卦의 象이 되니 花의 章美함은 이 三女卦의 象을 因함이오 人體의 美가 主로 面上에 있는 것은

面上에 目鼻口의 三女卦의 象이 있는 까닭이며 陰體의 用六宮은 巽의 股와 離의 子宮과 兌의 陰子와의 三女卦로써 이루어진 까닭에 用六宮의 爻에 章美를 말한 것이다.

可貞이라 함은 保合하여 그 發할 時에 及하여 發한다 함이니 이는 陰體의 兌澤에는 盈虛消長이 있어 그 發하는 時와 發치 아니하는 時가 있는 까닭이다. 王이라 함은 一이 三을 貫하여 天地人 三才를 通하는 象이니 乾陽이 三才의 主가 되어 陰精을 交하여 次世代를 生하는 때에 乾陽을 王이라 하는 것이오 王事는 乾坤의 相交作用이오 或從王事는 陰體가 그 發하는 時에 乾陽을 順從함이니 이는 六三의 用六宮에 陰陽相交하는 象이 있고 六三이 象의 牝馬와 序卦의 晉 明夷에 當하므로 從王事의 象이 있는 것이다.

成이라 함은 坤作成物의 뜻이오 無成有終이라 함은 坤의 用六宮이 自體가 物을 成하는 것이 아니라 乾陽을 受하여 그것을 胎育하여 終을 成한다 함이오 이는 物을 生成함에 陽은 成始하고 陰은 成終하고 함을 말함이다. 自然數는 一에서 始하여 十에서 終하는데 陽數는 一에서 起하여 九에서 止하므로 陽은 始만 있고 終이 없으며 陰數는 二에서 起하여 十에서 終하므로 陰은 始가 없고 終이 있는 것이니 이가 六三의 無成有終의 뜻이다.

知光大라 함은 光의 大함을 知한다 함이니 달이 太陽의 뒤로 돌아가서 太陽의 光을 受하는 作用이 곧 光의 大함을 知하는 象이다.

六四 括囊無咎無譽 象曰 括囊無咎愼不害也

括囊은 陰宮을 闔하는 象으로서 陰宮이 陽氣를 包하고 胎育하는 象을 말함이니 解卦上六은 달이 陽을 受하는 象이므로 動而不括이라 한 것이다.

六四는 文王八卦圖의 致役乎坤에 當하므로 坤의 闔戶의 象이 있고 自然數의 地數의 八에 當하고 八은 少陰數로서 形質의 長育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彖辭의 坤厚載物의 象이 되는 것이며 또 序卦의 遯 大壯에 當하니 遯은 陽의 退隱함이오 大壯은 陽의 止함이므로 또한 括囊의 象이다.

無咎는 陰陽이 異各치 아니 함이오 無譽는 子의 生한다는 稱聲이 없음이니 陰陽이 交合하여 異各하지도 아니하고 子가 生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은 胎兒를 胎育하는 象이다. 愼不害라 함은 愼은 括囊의 뜻이오 不害라 함은 여물어서 쭉정이가 되지 아니한다 함이니 이는 坤의 致養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六五 黃裳元吉 象曰 黃裳元吉文在中也

黃은 地의 正色이오 裳은 乾衣坤裳의 뜻이니 黃裳은 地가 下에 있어 上으로 乾을 承受한다 함이오 元吉은 陽이 陰에 附하여 生育함을 象함이니 六五는 文王八卦圖의 兌에 當하여 달의 生하는 位가 되고 象의 至哉坤元에 當하여 坤元과 乾元이 合德하므로 元吉의 象이 되는 것이오 序卦의 咸恒에 當하여 萬物의 化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六五는 成의 中心으로서 또한 自然數의 地數의 十에 當하여 后天의 成의 象이 되므로 乾元坤元이 合德하여 次世代를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文이라 함은 陰物과 陽物이 相雜하여 形質에 文彩가 生하는 것이니 坤元인 兌澤이 乾元인 震子의 陽氣를 承受한 것이 곧 文在中이다.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象曰 龍戰于野 其道窮也

龍은 乾卦의 龍이니 乾陽의 子인 震子의 象이오 戰은 陰이 外에서 收斂하고 陽이 內에서 動하여 相薄하는 象이오 野는 乾陽의 運行하는 廣大한 地이니 坤은 靜翕動闢하여 廣이 生하므로 坤의 翕闢함을 野라 한 것이다.

坤上六은 陰極의 位이오 天地生生의 理에 陰의 極한 곳에는 반드시 陽이 生하는 것이므로 上六의 속에는 震子가 있는 것이오 陰이 極하면 收斂이 極하고 收斂속의 震子는 또한 鼓動함이 極하므로 收斂과 鼓動의 相薄이 곧 戰의 象이오 震子가 坤陰中에서 戰하므로 龍戰于野라 한 것이다. 上六은 文王八卦圖의 乾에 當하여 「戰乎乾」의 象이 있는 까닭에 龍戰于野가 된 것이다.

上六의 속에는 乾坤의 所生하는 子인 震龍이 있고 震龍은 無形한 氣化體로서 사람의 靈眼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無形한 龍이 有形化 할 때에는 먼저 血이 生하는 것이오 血은 陰中含陽한 坎水의 象이니 이는 乾坤의 所生하는 子는 長子 震龍이로되 그 形體는 中男 坎水의 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오 이가 곧 龍血이다.

震龍은 氣이오 坎血은 精이니 無形한 雷風의 氣가 有形한 水火의 精으로 化하는 것이 곧 龍血의 理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生하는 때에 乾坤의 下施하는 龍血을 받는 者는 乾坤의 神을 닮을 수 있는 賢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龍血의 色은 玄黃하니 玄黃은 天玄地黃이라 이는 震龍이 天地의 氣를 合하여 生하므로 天玄地黃의 色이 된 것이다.

賢貴한 乾坤의 子는 龍血을 받고 生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生하는 象의 屯上六과 需六四에 泣血漣如와 需于血이 있고 달의 生하는 象의 小畜六四와 渙上六에는 血去가 있으니 이는 달도 水로써 體를 삼고 있으되 달을 構成하는 水는 坎血의 水가 아니라 水의 上行하는 兌澤의 水로써 構成되어 坎下劃의 陰이 陽으로 變한 것이니 坎水가 變하여 兌澤이 되므로 坎血이 去한다고 한 것이오 血去는 兌澤의 象이 있음을 表示하는 말이다.

其道窮이라 함은 陰의 속에 陽을 包하므로 乾坤의 一陰一陽하는 道가 窮한 것이다.

用六 利永貞 象曰 用六永貞 以大終也

用六은 自然數의 地數의 中央이니 陰體의 陰器는 中央에 있으므로 陰器를 用함을 象하여 用六이라 하며 六三은 男女交情의 位에 當하므로 六三이 用六宮으로 되는 것이다. 永貞이라 함은 陰中에서 震子가 生育함을 象함이오 以大終이라 함은 用六의 位인 六三爻의 光大와 有終의 뜻이다. 用六宮이 王事의 光大함을 知하여 有終하는 것이 곧 永貞이오 震子가 陰中에서 生育하여 陰陽의 義가 和하는 것이 곧 利이다.

用九用六의 爻位는 乾의 用九는 九五에 있고 坤의 用六은 六三에 있으며 또 乾은 乾元과 用九가 함께 九五에 있고 坤은 坤元은 六五에 있고 用六은 六三에 있어 兩方에 나뉘우고 있으니 이는 乾의 陽氣는 太陽으로 되어 한 곳에 聚結하고 있으므로 乾元과 用九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오 坤의 陰精은 地와 달의 두 곳에 나뉘우고 있으므로 坤元과 用六은 두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사람도 男體는 九竅로 되고 女體는 十竅로 되니 이는 男體는 乾元과 用九가 하나로 되고 女體는 坤元과 用六이 둘로 되는 理에 依한 것이다.

坤文言

乾卦 各爻의 文言을 비롯하여 繫辭에 있는 各爻의 解釋에는 모두 「子曰」의 辭가 있는데 오직 坤 各爻의 文言과 損六三 및 噬嗑上九의 解釋에 子曰의 辭가 없다. 子曰이라 함은 師傅의 任에 當하는 聖人의 말이라는 뜻이라. 坤各爻는 女陰에 關한 일이오 損六三은 男女構精의 일이오 噬嗑上九는 男體의 陽精水의 일이니 이는 聖人이 男女陰事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天地 自然數는 一로부터 十까지인데 長의 時運의 數는 九에 極하여 文王八卦圖의 數는 乾九에 止하며 成의 時運의 數는 十에 至하는 것이므로 正易八卦圖의 數는 十數가 具全한 것이니 이 까닭에 物의 長하는 것은 陽

水의 終인 九를 쓰고 物의 成하는 것은 陰數의 終인 十을 쓰는 것이다. 사람은 耳目口鼻의 七竅와 前陰後陰의 二竅를 合하면 九竅가 되고 九竅는 사람의 生育에 必要한 竅數이니 이는 長하는 數를 象한 것이오 홀로 女體에는 次世代를 生産하는 第十竅가 있으니 이는 后天의 成하는 數를 象한 것이다. 易學을 지은 當時는 長의 時運으로서 九數만을 쓰고 十數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十數에 當하는 第十竅의 일에 對하여 師傅가 全혀 口筆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가 男女相交에 關한 爻의 文言과 解釋에 子曰의 辭가 없는 所以이다.

九數와 十數의 象을 日月로써 보면 太陽의 光線에는 七色에 紫外赤外의 二線을 合하여 九線이 되니 九線은 陽의 生長하는 數이오 太陽의 光이 地上의 萬物에 비치는 것은 九線이로되 그 九線이 統一的으로 달에 비치어 달의 光으로 되어 地上의 萬物에 反映되니 달의 光은 太陽의 九線 以外의 第十線이다. 달의 光에 第十線이 있으므로 달의 象인 女體에도 또한 第十竅가 있고 사람은 第十竅에서 生하는 까닭에 九數까지 生長한 後에 그 天性이 十數에서 여무는 것이니 그러므로 長의 時運은 九數까지 生長하는 陽運(男體의 象)이오 成의 時運은 十數가 具全한 收成하는 陰運이며 이 까닭에 易經의 長의 時運의 最終卦인 未濟에 「未濟는 男의 窮함이라」 한 것이다.

長의 時運에는 十數가 열리지 아니하여 男女의 第十竅의 일이 모두 秘密에 묻혀 있는 것이므로 달의 第十線의 일도 또한 秘密에 묻혀 있는 것인데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면 男女의 第十竅의 秘密이 公開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口筆하게 되고 달의 第十線의 秘密도 또한 열리는 것이다.

文言曰 坤至柔而動也剛 . . . .承天而時行

이 一節은 坤卦辭와 彖辭를 合한 文言이다.

至柔而動也剛이라 함은 地와 달은 그 本質은 柔하되 그 運動하는 力은 天과 함께 圜行하여 乾과 같이 剛하다 함이오 至靜而德方이라 함은 地와 달은 陰體로서 受動作用을 行하여 靜하고 形이 偶하여 陽을 包한다 함이오 後得主而有常이라 함은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서 后天달이 되어 太陽主를 得하고 一陰一陽하는 常道가 있다 함이오 含萬物而化光이라 함은 地가 萬物을 含하여 化成하여 여물게 하고 光이 生한다 함이니 地와 달의 坤道는 順하여 天을 承하여 行하는 것이며 時行이라 함은 陰體에는 陽을 受하는 時와 受치 못하는 時가 있으므로 陽을 受하여 時로 行한다 함이다.

積善之家 必有餘慶 . . . .蓋言順也

이는 初六爻의 文言이다. 初六은 純陰卦의 最下에 있고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므로 巽股의 象이 되며 巽股는 陽을 承하여 受胎하는 位이므로 震子는 巽股에 入하여 生하는 것이며 震子는 善의 繼生하는 것이므로 積善之家 必有餘慶의 象이 되는 것이다. 生殖作用에 있어서 陽體의 陽器가 陰股를 犯하면 陽精을 施하고 自體가 喪하는 것이니 이가 積不善의 象이오 初六에 霜의 象이 있는 것도 또한 霜이 萬物을 죽이는 作用이 있는 까닭이다. 陽器는 乾象으로서 君道가 되고 陰股는 坤象으로서 臣道가 되는데 陽器가 陰股에 入하여 喪하는 것은 臣弑其君의 象이 되는 것이오 또 陽器를 有한 者는 父이오 父體의 陽子는 子인데 陽器가 陽子를 陰體에 施하고 自體가 喪하는 것은 子弑其父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가 必有餘殃의 象이다. 積이라 함은 積多함이니 善不善은 반드시 積多한 然後에 慶殃이 있는 것이므로 善을 積多한 然後에 善한 子의 生하는 慶이 있고 不善을 하되 다시 하지 아니하여 積多치 아니하면 殃이 없는 것이다.

一朝一夕이라 함은 朝는 東에서 日出하는 震의 象이오 夕은 西에서 日入하는 兌의 象이니 弑害의 事故는 震兌의 陽子陰子의 相交하는 事故가 아니라 陽이 巽股를 犯하는 事故이다. 震兌의 相交하는 것은 隨卦의 象인데 隨는

東에서 日出하고 西에서 日入하여 出門 相交하는 것이므로 事故가 없으니 雜卦에 「隨無故也」라 함은 이 뜻을 말함이다. 陽이 喪함을 事故라하니 豐卦는 日中則昃月盈則食하여 陽氣의 消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事故라하여 雜卦에 「豐多故也」라 한 것이다. 漸은 漸卦의 九三艮陽이 六四巽股를 接하여 夫征不復함을 말함이오 辨은 復卦의 辨於物의 뜻이니 事故의 由來는 漸卦와 같이 陽이 巽股를 接한 까닭이며 復卦와 같이 陽이 下에 復하면 巽股의 殃을 早辨하여 弑害의 事故가 生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順이라 함은 文王八卦圖의 巽陰이 그 相對方의 乾陽에 順함을 말함이오 小象의 馴도 또한 順의 뜻이니 陰의 順함은 積善의 象이 되고 陰의 不順함은 積不善의 象이 되는 것이다. 坤文言에 初六爻와 六四爻에 「易曰」을 말한 것은 이 兩爻에 乾 九二爻와 같이 日月의 變化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直其正也 方其義也 . . . . 不疑其所行也

이는 六二爻의 文言이다.

直은 乾陽의 動하는 象이오 正은 保合의 正이며 方은 陰의 偶함이오 義는 陰陽의 和함이며 敬은 嘉會하는 禮이오 義는 陰陽의 義이니 敬以直內라 함은 陽이 陰中에 入하여 嘉會함이오 義以方外라 함은 陰이 陽을 包하여 和一함이다. 敬과 義가 立하면 陰陽이 合德하여 서로 孤立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卦辭의 後得主利의 뜻을 말함이다.

不疑其所行이라 함은 陰陽의 運行이 枝異치 아니하여 得主의 象이 됨을 말함이다.

陰雖有美含之 以從王事 . . . . 代有終也

이는 六三爻의 文言이다. 美는 爻辭에 말한 章이니 陰陽이 嘉會하여 陰精이 陽의 光明을 承受하는 것이 곧 陰의 美이오 內에 美를 含한 것이 곧 章이다. 敢은 進取함이다. 六三의 陰은 章美를 含하여 王事를 從하되 自身이 進取하여 成하는 것이 아니라 陽을 承受하여 事를 行하는 것이니 이는 六三이 用六宮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地道 妻道 臣道는 모두 陰이 陽을 順承하는 象을 말한 것이니 天地로써 보면 地道가 되고 夫婦로써 보면 妻道가 되고 君臣으로써 보면 臣道가 되는 것이다. 六三은 地道이오 牝馬이므로 自身은 成치 못하고 乾을 代하여 物을 成終하는 것이다.

天地變化草木蕃 . . . . 蓋言謹也

이는 六四爻의 文言이다. 六四는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여 致役乎坤의 象이 되므로 夏秋의 交에 當하여 天地變化의 象이 되는 것이오 蕃은 震의 蕃鮮의 뜻으로서 震子가 內部에서 生育하는 象이니 이는 六四에 胎育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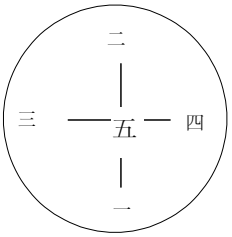
天地閉賢人隱은 震子胎育의 뜻이니 賢人은 光明한 사람이오 隱은 陽이 陰中에 入하여 伏함이다. 小象에는 愼이라 하고 文言에는 謹이라 하니 愼은 心으로 되어 囊中을 善護한다는 뜻이오 謹은 言으로 되어 囊口를 善閉한다는 뜻이니 모두 胎育의 뜻을 말함이다.

君子黃中通理 . . . . 美之至也

이는 六五爻의 文言이다. 乾衣坤裳의 理에 依하여 天氣가 下하여 縱이 되고 地形이 偶하여 橫이 되어 縱橫이 相交하여 十字形으로 되고 ㄨ 交叉點

이 中央의 位로 되어 美가 그 中에 있는 것이니 이가 六五文言의 大意이다.

六五在無極中之五皇極此胎宮也黃中者中央五土也四支者一二三四之縱橫也



黃中이라 함은 黃은 地의 正色이오 中은 交叉點의 中央이니 交叉點의 中央은 五十土의 位이므로 黃中이 되는 것이오 理라 함은 陰陽의 對待를 義로 和함이니 黃中通理는 交叉點의 中央에서 乾의 陽氣가 坤의 陰精을 交하여 義로 和한다 함이다. 正位라 함은 陰陽이 各各 그 位를 正함이오 居體라 함은 坤陰이 乾陽을 體로 하여 여무는 것이니 六二의 直其正也가 六五의 正位이오 六二의 方其義가 六五의 居體이다. 美在其中은 小象의 文在中의 뜻이오 美가 中央에 있으므로 十字의 四方인 四支에 暢達하는 것이다. 事業이라 함은 事는 變通함이오 業은 富有의 大業이니 坤元이 乾元을 交하여 物을 資生하고 그것이 時運을 通變하여 富有의 大業으로 發하는 것이 곧 美의 至함이오 至는 至哉坤元의 뜻이다.

陰疑於陽必戰 . . . . 天玄而地黃

이는 上六爻의 文言이다.

陰疑於陽이라 함은 陰陽의 枝異함이니 秋冬의 交에 陰陽이 서로 枝異하여 一陰一陽하는 道가 窮하는 때에는 陽은 반드시 陰體中에 入하여 陰이 收斂하고 陽이 鼓動하여 陰陽이 相薄하는 것이니 陰陽相薄이 곧 戰이다. 上六에는 龍의 象이 없으나 天地生生의 理에 陰中에는 반드시 陽이 있는 것이므로 陽이 없다는 것을 꺼려하여 龍이라 稱한 것이다.

陽이 坤陰中에 入한 것은 坎象인데 坎은 陽卦이면서 陰中에 陷하여 流下하는 水가 되어 坤陰의 類를 離脫치 못하므로 陽物인 龍에 陰精인 血을 稱한

것이니 이는 震龍은 乾陽과 坤陰의 合으로써 體를 成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血에도 또한 乾坤의 合德하는 象이 있어 天玄地黃의 相雜한 玄黃을 말한 것이다.

屯　水雷

屯은 蒙과 同宮하여 三男의 生長卦로서 震子가 水中에 있다.

震坎艮 三男은 坤陰이 乾陽을 交하여 所得한 男體이오 三男中에서도 震에 世世繼承하는 陽씨의 元의 象이 있고 陽씨는 반드시 男體의 水液中에 싸여 있어 生長作用을 行하는 것이므로 屯卦는 乾坤이 相交하여 처음으로 所得한 씨로 되어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屯은 物之 始生」이라 한 것이다. 陽씨는 母體가 父體로부터 承受하고 다시 男子를 生하여 그 씨를 世世繼承하는 것이니 이는 萬物의 씨는 반드시 能動作用을 行하여 永遠不滅하는 陽氣에 있고 陽氣의 體는 곧 男體이므로 씨는 男體에 있는 것이다 다만. 震子가 冬寒의 象인 坎水中에 싸여서 아직 出生치 못하므로 象에는 「剛柔始交而難生」이라 한 것이다. 震子는 文王八卦圖의 東에 있으므로 北의 水에서 生하고 南의 火에서 成하니 그러므로 水와 震子의 合한 屯蒙은 震子의 生하는 象이 되어 序卦의 生長卦의 始에 있고 火와 震子의 合한 噬嗑 賁는 震子의 成하는 象이 되어 序卦 生長卦의 終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屯은 三男이 生長하여 震子의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씨의 元인 震子에는 草木의 象이 있으므로 易經에는 씨의 生長成의 象을 흔히 草木으로써 象하는 것인데 屯字도 一과 草로 되어 草木이 처음으로 出生함을 象하니 一은 地이오  은 草木이 地를 貫하되 伸치 못하여 尾曲한 것이며 屯은 冬寒中의 씨로서 地上에 出生치 못한 象이므로 屯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天地의 生生作用은 처음에 乾坤生命元이 運動을 일으켜서 長男長女의 雷風의 氣를 生하여 天行健의 象이 되어 無形한 氣化體가 되니 天行健의 氣化體가 形而上한 것은 神의 運行이 되고 形而下한 것은 氣化의 씨가 되며 天行健의 氣化體가 運動을 일으켜서 無形에서 有形으로 發展하는 때에 中男中女의 水火의 精이 生하는데 屯은 長男中男의 水雷로 되어 氣精의 合一한 體로 되니 彖에 「雷雨之動滿盈」이라 함은 이 뜻을 말함이오 그러므로 屯卦는 天地創生 初에 無形에서 有形이 生한 始初로서 三男 創始의 卦에는 스스로 風火의 女가 相配되어 있으므로 屯卦中에는 乾坤 雷風 水火의 象이 있고 乾坤 雷風 水火의 合一한 體는 그 形而上한 것은 神의 運行하는 體가 되고 形而下한 것은 精化의 씨가 되고 天上에 形하여 象을 成하는 것은 太陽의 光明이 되는 것이니 이 까닭에 屯卦에는 神이 雷雨中에서 萬物을 創造하는 象과 光明 暗昧의 始分하는 象이 있어 彖에는 이것을 天造草昧라 한 것이다.

屯卦는 隨卦로 더불어 서로 關聯되어 있다. 屯과 隨는 元亨利貞의 四德이 있는 生長卦인데 彖에는 그것을 大亨貞으로 解釋하니 易卦 彖에 四德을 大亨貞으로 解釋한 것은 오직 屯 隨 二卦이며 屯의 陰位 陰爻에 乘馬班如의 象이 있고 隨에 또한 服牛乘馬의 象이 있으며 屯이 隨의 卦象과 相異한 것은 오직 六四一爻로서 屯은 雷가 水中에 있고 隨는 雷가 澤中에 있어 그 象이 相似한 것인데 屯四에 求而往明也라하고 隨四에 在道明功也라하여 모두 光明의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屯과 隨는 모두 天地의 長子卦로 되어 있는 것이다. 屯은 三男 生長卦로서 震子가 水液中에 싸여 있으므로 天地의 長子인 씨의 象이 되고 씨가 水液中에 保合되어 있으므로 大亨貞이라 한 것이오 隨는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生長卦로서 震子가 兌澤中에 入하므로 雷澤相合하는 人體構成의 象이 되고 震子가 兌澤中에 保合되어 아직 人身이 出現치 아니하므로 大亨貞이라 한 것이다. 屯은 씨의 創生되는 生長卦로서 萬物의 씨의 象이 되므로 乾坤의 다음에 序한 것이오 隨는

人體의 構成되는 生長卦로서 人類의 始生하는 象이 되므로 長의 時運의 始卦가 된 것이다. 不寧은 太陽이 月을 遇치 못함이니 그러므로 屯에는 不寧이라 하고 比에는 不寧이 方來라 한 것이다.(盤桓太陽也)

屯卦는 震子가 水液中에 있어 씨의 象이 되고 씨의 알맹이는 初九震子인데 初九에 建侯라 하니 侯는 君長의 子가 先世를 繼하여 君長이 된다는 뜻이오 初九震子는 씨가 水中에서 創生되는 象이므로 乾坤을 繼하는 長子라하여 建侯라 한 것이며 萬物의 씨는 太陽의 震子에서 出하는 것이므로 盤桓이라 함은 太陽을 象한 것이다. 盤은 또한 磐으로 되는데 盤은 圓形이라는 뜻이오 磐은 넓게 퍼진다는 뜻이오 桓은 圜行한다는 뜻이니 盤桓은 太陽의 圓體와 光明의 照布함을 象함이오 雖盤桓志行正也라 함은 그 形은 비록 圓하되 그 氣는 直射하여 그 動함이 直하다 함을 말함이다.

二 四 上之乘馬 = 馬象震子 乘馬者 巽離兌之 股 子宮 卵子也 二則長女巽乘馬 故曰匪寇婚媾也 四則中女離 故曰明也 上則少女兌而陽缺卵子 故曰泣血也 乘馬班如者 如原子核在中 而陰電氣圜於其外也

六二 六四 上六의 陰位陰爻에 모두 乘馬班如의 象이 있으니 易理에 乘이라 함은 陰이 陽을 乘함을 말함이라. 陰은 形質이므로 自體에 運動하는 氣가 없고 반드시 陽氣를 乘하고 運動하는 것이며 그 陽氣라 함은 太陽의 氣를 말함이니 屯 初九에 太陽의 象이 있으므로 陰位陰爻에 乘馬班如하는 象이 있는 것이오 班如라 함은 地가 太陽을 圜轉함을 象함이다. 乾象의 乘龍과 屯 諸爻의 乘馬는 모두 乾陽의 長子인 震子를 乘함을 말함인데 乾은 純陽卦이므로 純陽物인 龍을 象하고 屯은 坤陰이 乾陽을 承受한 卦이므로 坤牝馬와 乾馬를 相對시켜서 馬를 象한 것이다.

不寧이라 함은 太陽의 陽氣가 陰을 得치 못함을 象함이니 屯은 天造草昧의 初에 太陽의 光明이 비로소 生하고 아직 달이 生치 아니하므로 不寧의 象이 된 것이다. 不寧은 卦辭의 勿用有攸往의 뜻이다.

剛柔始交라 함은 坤體가 乾陽을 受하여 三男을 生함인데 아직 天地가 渾沌하고 있으므로 難이라 한 것이며 六二와 九五는 物의 生成의 中心이므로 六二와 九五에만 屯字가 있으며 六二가 陽을 承受하여 생긴 씨는 반드시 發育하여 出生하는 것인데 六二가 陽을 乘하여 光明을 掩蔽하므로 씨가 發育치 못하고 十年을 待하여야 하니 十年이라 함은 坤母가 震子를 胎育하여 出産하는 時間을 말함이다. 天地自然數는 十에서 成하고 十數가 찬 然後에 第二世가 出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坤母가 震子를 包하고 있는 屯 復 頤 諸卦에 十年의 象이 있는 것이오 年은 禾穀의 여문다는 뜻으로서 物의 生成함을 象한 것이니 十年이라 함은 陰體가 震子를 胎育하여 여물게 하는 時間을 말함이다. 洛書 時運의 數는 九에 止하고 后天에 넘어가서 十年의 數가 차는 것이니 復 頤는 先天月이므로 모두 洛書時運에만 쓰고 后天에는 쓰지 못하며 오직 天地의 長子인 屯의 震子는, 太陽의 震子가 六二에 包胎된 것이므로 后天에 넘어가서 乾坤의 第二世로 出生되는 것이다. 사람이 兒를 生함에 十竅에서 生하고 胎育 十朔만에 出生하는 것이 모두 十數의 理이다.

九五는 冬寒의 中心에 있어 水液인 陰精을 生하고 있으되 陽氣는 陷하여 大貞凶의 象이 되니 이는 地의 北方寒冷한 中心에는 씨가 生育되지 못한다 함을 表한 것이다.

序卦

屯은 乾坤이 始交하여 天地의 混沌한 中에 水中에서 씨가 始生하여 有形의 始가 되고 씨의 元인 震子는 乾元으로서 坤元과 相合하여 씨가 된 것이니 그러므로 屯이 乾坤에 次하는 것이다.

天地가 相交하면 三才의 理에 依하여 人을 生하니 侯는 人의 賢한 者이다. 乾九五에 飛龍在天大人造也라하여 天과 造로써 創造의 뜻을 表하고 또 乾

德인 健字는 建人으로서 建侯의 뜻이 되니 天造草昧宜建侯라 함은 天이 萬物을 創造하고 賢人을 建하여 人間生活의 萬般을 가르침을 말함이다. 屯 豫의 建侯 蠱의 王侯 晉의 康侯가 모두 建人의 뜻이다.

卦辭 爻辭에는 利建侯라하고 彖辭에는 宜建侯라 하니 利는 義의 和함이오 宜는 地를 得하여 安함이라 卦辭 爻辭는 初九의 陽을 主하여 陽이 陰과 義化하는 象을 말한 것이오 彖辭는 天地創造의 時를 主하여 天의 陽이 地를 得하여 安定함을 말한 것이다.

大象

彖에는 雷雨라하고 大象에는 雲雷라 하니 彖은 剛柔相交하는 象을 因하여 雷雨의 動이라 하고 大象은 險의 未解한 現象을 因하여 아직 雨치 아니하는 雲雷라 한 것이다.

經綸은 織布의 象이니 經은 縱線으로서 氣候의 寒暑하는 南北線이오 綸은 橫線으로서 日月의 運行하는 東西路이다. 坎은 地의 南北寒暑의 北極基點이므로 經의 象이 되고 震은 日月의 東西運行하는 日出點이므로 綸의 象이 된다. 屯은 本坤體로서 乾陽을 承受하여 坎과 震이 되어 寒暑와 日月이 運行하여 萬物을 生成하는 것이므로 南北의 經과 東西의 綸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人間社會에서 天地의 道를 法하여 生生事業의 計劃을 세우는 것을 經綸이라 하는 것이며 屯은 天造의 象이므로 計劃의 象인 經綸이 되는 것이다.

卦辭에 元亨利貞 四德을 모두 말한 卦는 乾 坤 屯 隨 臨 無妄 革의 七卦이다. 四德은 生長成의 全象을 말한 것이므로 物의 生命을 始하는 震子나 物의 形質을 生하는 澤精이나를 包含하여 生長하는 象이 있는 卦에만 말하니 乾에는 萬物을 資始하는 乾元이 있어 天을 統하므로 四德이 있는 것이오

坤은 萬物을 資生하는 坤元이 있어 天을 承하므로 四德이 있는 것인데 坤은 地와 달로 나뉘어 있으므로 四德의 속에 牝馬인 달이 끼어 있는 것이다. 乾父가 震子를 包한 것이 無妄이오 坤母가 澤精을 包한 것이 臨이니 그러므로 無妄과 臨의 卦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오 三男 生長卦는 屯 蒙인데 屯에 震子가 있고, 三女 生長卦는 革 鼎인데 革에 澤精이 있으니, 그러므로 屯과 革의 卦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오 震子와 澤精의 相合한 生長卦는 隨이므로 隨의 卦辭에 四德이 있는 것이다. 乾坤과 他五卦의 四德은 同一한 元亨利貞이로되 乾坤은 父母卦이므로 四德이 全하여 各其 生長成固의 作用을 具한 것이오 他五卦는 그 德이 偏하여 大亨貞 또는 大亨以正으로 된 것이다.

初九의 貴賤은 上下의 等分을 말함이니 易卦中에 上下의 等分이 있는 卦가 많으되 오직 屯 初九에 貴賤을 말한 것은 三男 生長卦의 震初九가 乾坤의 長子가 되어 天行健의 健象이 되므로 또한 建侯의 象이 있는 것이니 天行健의 健은 乾父의 長子의 象이므로 貴가 된 것이오 民은 坤의 象이오 坤은 乾에 對하여 賤의 象이 되는 것이며 屯의 坤陰이 모두 初九의 盤桓을 從하여 그 周圍를 旋回하고 있으므로 貴로써 賤에 下하여 大得民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班에는 旋回와 雜色의 兩意가 있으니 陰이 陽을 乘하여 天地의 玄黃한 雜色이 되어 陽을 中心으로 하여 旋回하므로 班이라 한 것이다.

寇는 夜昏을 乘하여 擊하는 者이니 陰이 陽精을 奪하여 陽이 陰에 陷한 卦에 寇象이 있는 것이다. 易卦에 匪寇 婚媾를 말한 것은 屯 賁 睽의 三卦인데 寇와 婚을 對稱한 것은 寇는 夜昏한 때에 行하는 것이오 婚禮는 陽往陰來의 理를 取하여 日入後의 夜昏에 行하는 것이니 婚字가 女와 昏으로 된 것은 이 까닭이며 모두 夜昏에 行事하여 그 象이 相似하므로 兩者를 對稱한 것이다. 寇와 婚에 모두 昏冥과 光明의 兩象이 있어 寇는 陰이 陽을 陷하여 光明을 傷하는 것이오 婚은 陰이 陽을 從하여 光明을 承受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坎水의 陰이 陽을 陷하는 象이 있는 것은 寇가 되어 蒙上 漸

三 需三 解三의 寇는 모두 이에 屬하고 屯二 賁四 睽上에는 匪寇 婚媾의 象이 있으니 屯은 上經의 生長卦의 始이오 賁는 上經의 生長卦의 終이오 (頤 大過는 生長의 顚倒)睽는 下經의 收斂卦의 始이라. 이 三卦는 文王八卦圖의 四正生成卦인 屯 蒙 噬嗑 賁 家人 睽로서 모두 北方 坎水와 陰陽相交하는 象이 있어 寇의 象이 되고 있으되 또한 모두 陽氣가 發하여 光明의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陰이 陽을 陷하여 寇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陰이 陽과 婚媾하여 光明을 受하기 爲함이다.

女子는 子와 相接한 女이니 家人三의 婦子와 같은 것이다.

字는 子를 生하여 乳育한다는 뜻이다.

六三의 卽鹿, 易經에 麗字는 罹와 鹿으로 되고 罹는 旅行한다는 뜻이니 卽鹿은 麗字의 뜻으로서 陰陽이 相麗한다 함이다.

屯의 二四上의 陰爻는 모두 陽爻를 乘하여 乘馬班如의 象이 있으므로 陽爻도 또한 「日月麗乎天」과 같이 附麗하는 곳이 있는 것이니 六三은 陽을 乘應함이 없고 初九 九五의 二陽의 中間에 있어 陽의 來麗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다른 陰爻에 모두 陽性動物인 馬를 乘하는 象이 되므로 六三의 陰爻에도 또한 動物의 象을 取하여 陽이 來麗하는 陰性動物인 偶蹄의 鹿의 象이 되는 것이다.

> 獸類有角者 雌雄皆有角 無角者 雌雄皆無角 唯鹿類 雄有角而雌無角 猶人之男 有鬚髮而女無鬚髮也 屯萬物始生之卦 而六三當人位 故以鹿擬人 以陰無應陽 故言鹿無虞(震子)此乃人尙不生之象也 人位亦月位而月無應陽 故曰君子幾(動)不如舍(止)也 此言月之時不至也

林中은 草昧의 象이오 鹿에 卽하여 林中에 入하면 林과 鹿이 合하여 麓이 되니 麓은 山足이라 六三의 位가 草木의 出生하는 山下土中에 있어 草穿地上出하는 象과 百穀草木麗乎土의 象이 있으므로 麓字의 象을 取한 것이다.

虞는 大聲의 虎로서 震子의 象이니 六三은 陽을 乘應함이 없으므로 無虞가 된 것이오 禽은 水中에 包在한 씨의 元인 震子를 象함이다.

君子는 달의 象이오 幾는 달이 太陽을 始望함이오 舍는 陰의 胎育의 時에 及치 못하여 乾九二의 時舍와 같은 것이다. 屯에는 太陽의 象이 있으되 아직 달의 象이 없으므로 六三의 坤中爻에 달이 太陽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뜻을 말한 것이다.

六二는 乘馬班如 匪寇婚媾가 되고 六四는 乘馬班如 求婚媾가 되니 六二는 乘剛하여 初九의 陽을 蔽한 까닭에 昏과 光明의 兩象이 있어 寇와 婚媾의 兩象이 있고 六四는 初九를 應하고 乘치 아니하므로 昏치 아니하고 光明이 있어 寇가 없고 婚媾가 되는 것이다.

膏는 動物肉體의 肥澤함과 五穀의 滑潤한 것이 모두 膏이니 動植物의 體의 凝成한 水火의 精을 말함이오 鼎九三의 雉膏도 또한 水火의 精이다. 屯은 冬寒中에서 剛柔始交而難生하므로 屯其膏의 象이 되어 陽氣의 施가 光明치 못한 것이다. 九五는, 冬寒의 水液은 陰으로서 收斂하므로 小의 象이 되고 또 太陽의 卦로서 陽의 光明의 發施하는 位에 있으므로 大의 象이 되는 것이다. 屯은 大亨貞의 卦로서 九五爻는 大亨의 位에 있으면서 또한 그 時가 冬寒을 遇하여 貞의 保合하는 象이 되니 이는 九五에 大亨과 貞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陰精의 保合하는 것은 草木을 生하여 비록 難하되 吉하고 陽의 光明의 保合하는 것은 光이 發施치 못하여 陽이 陷하여 凶한 것이다.

上六은 九五의 陽을 乘한 것이 곧 乘馬班如이다. 泣이라 함은 人身의 最上部에 있는 光明한 眼竅에서 水液이 流下함이다. 上六은 屯이 極하여 解하

고 九五의 馬를 乘하여 班如하는데 九五의 冬寒의 水液이 解하여 九五의 陽竅에서 流下하므로 이것을 泣이라 하고 上六은 冬寒險極한 水이므로 險水를 象하여 血이라 한 것이다.

泣者 = 嗟目淚也 陰在上爲兌象 而缺出血 故泣血也

漣은 水와 連으로 되어 九五의 水液과 上六의 血이 連하여 流下함이니 上六에 乘馬班如의 象이 있으므로 九五의 水와 上六의 血의 連流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何可長也라 함은 上에 極하여 現狀대로 繼續치 못하고 반드시 變한다 함이니 上六은 草가 穿地出하는 極에 있고 坎震의 未明期에 當하여 반드시 變하여 光明이 되는 것이므로 何可長也라 한 것이다.

屯上六의 血은 坤上六의 玄黃한 血과 關聯되어 있으니 坤上六의 血은 달의 水液中에 潛한 震子이며 屯卦도 水液中의 震子로서 屯이 反易하면서 童蒙의 달이 生 하는 것이므로 屯의 上六에 또한 血을 말하여 將次 달의 生함이 있다 함을 表한 것이며 渙은 先天月의 消하는 卦이므로 上六에 坤上六 屯上六의 血과 小畜 六四의 血去를 合하여 渙其血去라고 한 것이다.

蒙　山水

蒙은 屯과 同宮한 三男生長卦로서 屯의 씨의 反易한 것이니 씨의 反易한 것은 胎兒의 反生하는 象이다. 蒙은 山과 水로 되어 있는데 三男生長卦로서 生長發育하여 水의 精과 山의 形을 合하고 있어 無形에서 有形으로 發展하고 있으므로 屯의 씨가 胎兒를 成함을 象하여 蒙이라 하니 蒙은 童蒙이라는 뜻으로서 胚胎하는 穉兒를 象한 것이다.

蒙은 草와 冢으로 되고 冢은 豕를 冡함이니 上卦 艮은 山이오 下卦 坎은 豕이라 艮山에 草木의 生하는 象이 있고 下卦 坎豕는 陽이 陰에 掩冡되는 象이 되므로 上下卦를 合하여 蒙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며 屯蒙에 모두 草木의 象을 取한 것은 사람과 草木의 生長成하는 理가 相同하고 그 生生하는 形態도 相似한 바가 있는 까닭이다. 사람은 精神의 依附하고 있는 頭로써 本을 삼아 天을 向하므로 사람은 天에 根하고 草木은 根으로써 本을 삼아 地에 附着하므로 地에 根하여 倒生하여 사람과 相反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도 母體中의 胎兒는 母體와 反易하여 頭가 下로 向하여 草木의 倒生함과 같고 또 草木과 같이 自由意志가 없으니 그러므로 屯蒙에서 始生하는 胎兒는 草木과 같다 하여 草木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오 萃卦도 母體內에서 胎兒가 生育하는 象이므로 草木字인 萃字를 쓴 것이다.

屯蒙은 三男 生長卦로서 氣精形이 混沌되어 있으므로 아직 形을 成치 못하고 乾坤의 속에서 生育되고 있는 씨와 胎兒의 象이 되는 것이며 山下有險險而止蒙이라 함은 艮山의 形의 속에 陽水의 精이 있고 陽水의 精이 少男으로 되는 것이 곧 童蒙이라 함이다.

屯은 씨의 象이오 씨는 太陽의 震子에서 出하는 것이므로 屯에 太陽의 象이 있고 屯의 盤桓은 太陽의 象이며 蒙은 胎兒의 象이오 胎兒는 地의 胎宮인 달에서 生育되는 것이므로 蒙에 달의 象이 있고 蒙의 童蒙은 달의 象이다. 그러나 屯蒙은 天地의 渾沌中에서 光明과 暗昧의 分別되는 過程에 있고 또 屯에 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蒙에 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屯蒙에는 다만 日月의 本質만 있고 日月의 形體는 없는 것이며 日月의 形體가 없으므로 씨와 胎兒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씨와 胎兒로 될 氣와 精이 있는 것이다.

蒙은 艮山의 形의 속에 陽水의 精이 있어 胎兒의 象이 되므로 달의 象이 되는데 달은 太陽으로 더불어 陰陽의 義가 있으므로 蒙의 달은 屯의 太陽의 陽氣를 受하니 이가 日月이 嘉會하여 行함이오 달이 太陽의 陽氣를 受

함에는 時成 時乘 時行과 같은 時가 있고 또 中宮의 中位에서 受하니 이가 곧 時에 中함이다.

蒙은 달이 太陽과 嘉會하는 象이오 달은 少男少女인 山澤으로써 組織되어 童蒙의 象이 되는데 달이 太陽과 嘉會함에는 地球와 함께 太陽의 周圍를 圜行하면서 太陽의 陽氣를 受하는 것이니 이는 太陽이 달을 求함이 아니라 달이 太陽을 求하는 것이며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匪我求童蒙 童蒙求我라 한 것이다. 我라 함은 사람의 所自出한 神을 말함이니 彖辭의 筮字는 蒙卦에 神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오 童蒙은 神에서 出生한 것으로서 神을 모시고 神人相應한 然後에 神으로부터 내리시는 氣를 받는 것이니 마치 달과 地球가 太陽에서 出하여 太陽을 圜行하면서 그 陽氣를 承受함과 같으므로 神이 童蒙을 求하는 것이 아니라 童蒙이 天氣를 承受하기 爲하여 神을 求한다고 한 것이다.

六五爻에 神의 象이 있으므로 童蒙之吉 順以巽이라 하니 順은 天을 順承한다 함이오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한다 함인데 順以巽은 곧 神道이므로 觀卦에도 「順以巽」과 「神道」를 말한 것이다. 蒙卦는 달의 象인데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고 또 神의 分身인 鬼神이 달에 依附하여 사람의 씨를 生하니 달과 鬼神과 사람의 씨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蒙에 달과 神과 童蒙의 象이 있는 것이다.

筮字는 竹과 巫로 되고 또 神과 사람이 相應한다는 卜筮의 뜻이 있는데 竹은 震象이오 巫는 兌象이며 震兌의 合體한 雷澤歸妹는 씨의 象이니 九二는 生의 中心에 있는 陽으로서 蒙卦中의 씨의 象이 되고 씨는 神으로부터 出生한 것이므로 九二에 竹巫로 된 씨라는 뜻과 神과 相應하는 卜筮라는 뜻과를 아울러 取하여 筮의 象을 말한 것이며 告는 下가 上에 알린다는 뜻이므로 初筮告는 神이 童蒙에게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九二의 속에 包蒙되어 있는 長子 震인 씨가 地에 着하여 生한다는 뜻이다.

天地創生初에 童蒙始生之卦 而最初出生之震子는 神明着生하고 其外之再三

之子瀆而不着生沒於水中也 屯男女之生殖作用 先出精子者 入於卵子而着生再三之精子皆瀆而不着生也之理也

九二는 剛中한 陽이므로 씨로 되어 着生하는 것이오 六三과 六四는 再索한 坎의 陰과 三索한 艮의 陰으로서 水土가 混合하여 瀆이 된 것이므로 씨가 되지 못하여 着生치 못하는 것이다.

易理에 婦는 巽象이오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하는 것이 또한 巽象이니 九二는 生의 中心의 陽으로서 地의 位에 있어 天氣를 順承하므로 納婦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九二는 비록 坎體이나 씨의 象이 되어 震子의 象이 되므로 子克家라 한 것이니 子克家는 震子가 巽婦를 納하여 剛柔가 相接함을 말함이다.

蒙은 사람의 씨가 始生하는 理를 말한 卦이므로 初爻에 發蒙이 있으니 發은 씨에서 싹이 처음으로 튼다는 뜻이오 刑人은 사람의 모양의 型을 成한다 함이오 正法은 法度에 맞도록 作成한다 함이니 이는 蒙卦의 水土로써 사람의 形質을 作成한다 함이다. 桎은 足械로서 震足의 着生하는 象이오 梏은 手械로서 艮手의 着生하는 象이니 씨에는 반드시 屯의 震陽의 씨의 元과 蒙의 艮陽의 土의 形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가 곧 刑人桎梏의 象이며 만일 六三 六四의 陰과 같이 陽이 없으면 瀆蒙이 되어 着生치 못하고 陰의 收斂이 過度하여 進路가 窮한 것이다. 그러므로 人類의 始生하는 때에는 聖人이 神道로써 사람의 正氣를 養하여 法度에 맞게 하는 것이니 이가 곧 聖人이 時運을 變通하는 功業이다. 易學에 「養正」의 卦는 蒙과 頤인데 蒙도 震艮의 着生하는 卦이오 頤도 또한 震艮의 生養하는 卦이니 이는 易學이 震子가 生長成하여 艮果로 되는 歷史를 말한 글이므로 蒙에는 蒙以養正이 聖功이라 하고 頤에는 天地養萬物 聖人養賢以及萬民이라 하여 두 卦에 모두 聖人의 養正하는 神道를 말한 것이다.

序卦

蒙은 屯의 씨가 反易하여 童蒙이 된 것이므로 屯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泉은 水의 原이니 水流成川한 形을 象한 것이다. 水를 泉으로써 表한 것은 蒙은 사람의 처음 出生하는 童蒙의 卦이오 水가 처음으로 地中에서 出生하는 것은 泉이니 그러므로 泉으로써 童蒙을 象한 것이다.

筮에는 雷澤歸妹의 씨 八卦象 卽 八數는 씨의 成한 것, 神明相通의 세 가지 뜻이 있다.

果는 艮山의 象이오 行은 水流의 象이며 育은 水가 物을 滋養하는 象이오 德은 土가 厚하여 物을 生하는 象이다. 果行이라 함은 山下에서 出한 泉은 반드시 海에 至한다 함을 象함이오 育德이라 함은 水土에서 生한 草木은 반드시 長成한다 함을 象함이다. 德과 行은 乾坤易簡의 德行을 말함이다.

包는 사람이 裹姙하되 子가 形成치 아니함을 象함이오 九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包蒙이라 하니 泰二의 包荒 否二의 包承 姤二의 包魚가 모두 同一한 象이다.

六三은 再三瀆不告의 爻이니 上九의 陽과 應하고 있으나 瀆蒙인 까닭에 陽이 着生치 못하여 蒙六爻中에 오직 六三에 蒙字가 없는 것이다. 有躬은 懷妊의 뜻이오 金夫는 上爻의 接天한 乾陽의 뜻이니 金夫를 見하되 有躬치 못함이 곧 瀆不告이다. (躬은 自己自身이다.)

困은 剛揜의 뜻이니 蒙의 出生하는 卦에 六四가 陽을 承應함이 없으므로 困하여 遠實의 象이 된 것이다.

擊은 古代에 覡(男巫)과 通用하므로 擊蒙에는 擊傷과 男巫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擊傷은 寇를 爲함이오 男巫는 筮의 뜻과 相通하는 것이다. 上九의 寇는 六三의 瀆蒙의 女이니 上九는 險에 止하는 位에 있으므로 六三의 險과 相應하여 止하면 寇에게 擊傷되는 것이오 神道로써 六三의 寇를 禦하면 上九와 六三이 上下가 順한 것이니 上下順은 六三의 行不順과 對稱한 것이다. 六五의 順以巽이 神道이므로 上九의 上下順의 「順」이 또한 神道이다 易理에 利用이라 함은 神道를 用함을 말함이다.

需 水天

需는 乾이 正北의 水中에 있어 北極의 天位에 一天의 大水가 있는 象인데 水는 天上에 恒存하는 物이 아니므로 需卦의 水는 天上에서 始生하는 水의 象이 되고 天上에서 始生하는 水는 곧 乾坤에서 始生하는 屯蒙의 水이니 그러므로 北極 天位에는 萬物의 씨를 含有한 一天의 生命水가 있는 것이다.

需字는 雨와 而로 되고 而는 頰毛이니 乾首가 坎水中에 있으므로 頰毛가 水中에 濡하고 있는 象의 需字를 쓴 것인데 首가 水에 濡한 것은 本是 濡字이오 濡는 首가 水中에 陷하는 象이 되는 것이므로 旣濟 未濟卦에 濡首의 辭가 있는 것이오 需卦는 乾首가 비록 水中에 있으되 乾이 剛健하여 陷치 아니하고 乾의 中心에 있는 九二爻는 비록 險中에 收斂하고 있으되 陽氣의 發宣하는 言이 있으므로 陷치 아니하고 上으로 前進하는 時機를 待하고 있어 濡首의 象이 없으며 九五의 陽은 天位에 있어 陽氣가 뭉쳐서 光明하니 그러므로 濡字의 水邊을 省하여 需字를 쓰고 거기에 時機를 須待한다는 뜻을 寓한 것이다.

乾은 天이므로 險中에 있으되 剛健하여 陷치 아니하니 陽이 陰中에서 健在

하여 陷치 아니하는 것은 震雷이므로 需에 震雷의 象이 있는 것이오 需가 反易하여 訟이 되면 天과 水가 違行하여 天氣가 地에 下降하여 巽風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需訟에는 雷風의 象이 있는 것이오 그 까닭에 需 初九에 雷風 恒을 말한 것이며 需訟에는 天이 雷風을 合한 天行健의 象이 있고 天行健의 雷風은 相薄相悖치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그 陰陽의 義가 和하여 陰이 陽을 揜하여 困하거나 陽이 陰에 陷하여 窮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가 其義不困窮의 뜻이다.

需訟에는 水와 天의 圜行하는 象이 있고 또 需의 震雷는 下에서 鼓動하여 奮起하는 作用이 있고 訟의 巽風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入하는 作用이 있어 奮起와 下降이 서로 因하여 天地의 圜轉運動을 行하니 需訟의 水天의 圜行이 또한 需訟의 雷風의 圜行하는 氣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九二爻의 衍은 百川이 海로 朝宗한다는 뜻이니 百川의 水는 泉이 聚하여 成한 것이오 泉은 萬山下에서 出하는 것으로서 大海水의 湧出한 것이므로 海와 泉과 川은 地上水의 圜行하는 形態이오 이것이 곧 衍의 뜻이다. 地上에서 水의 圜行하는 衍運動도 또한 天行健의 雷風의 氣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九五는 天位에 있어 水가 天上에서 圜行하는 中心이 되고 있으므로 九五에는 雲雨가 物을 養하는 象이 있어 酒食의 象이 된 것이니 酒는 興奮하고 食은 生養하여 陽精水의 作用을 象한 것이다.

九二는 地位에 있어 水가 地上에서 圜行하는 中心이 되고 있으므로 九二에는 衍在中의 象이 있어 비록 險中에서 收斂하여 小하고 있으되 陽氣의 發宣함이 있어 善이 生하는 것이니 有言이라 함은 陽氣의 發宣함을 말함이다.

有言을 陽氣의 發宣이라 함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言이라 함은 陽氣가 形質을 通하여 外部에 發宣하여 言이 되는 것이므로 易經에는 艮兌의 山澤의

形質에 成言과 說言이 있으며 이 成言과 說言은 山澤의 反易한 雷風의 氣에 依하여 發宣되는 것이니 陽氣의 發宣이라 함은 곧 雷風의 氣를 말함이며 그러므로 九二의 衍運動과 有言作用은 雷風의 氣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大衍數의 衍字도 需 九二의 衍의 뜻을 因함이니 大衍數의 用이 一二三四五로 分하여 六七八九의 四象을 이루면서 그 四象이 또한 統一的으로 動하는 것은 海에서 萬山下의 泉이 分出하고 그 泉이 衆川으로 되어 다시 海로 歸함과 같으므로 百川朝宗於海한다는 衍字를 쓴 것이다.

需는 乾이 生命水를 生하여 坤體에 施하는 象이므로 利涉大川의 象이 있는 것이다. 川은 水의 器이니 坤의 穿地通流함을 象한 것이오 大川은 乾의 陽精水가 坤川에 流함을 象함이니 陽體가 陰體를 交하여 陽氣를 發施하는 때는 水火通明 絶處逢生의 理에 依하여 반드시 水가 生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需卦의 乾이 坤體에 陽精水를 發施하는 것은 大川의 象이 되는 것이다. 涉은 足行하여 水를 濟함이오 足은 震의 象이며 利는 陽이 陰中에 入하여 陰陽의 義가 和함이다. 그러므로 利涉大川이라 함은 乾이 陽精水를 坤體에 施하면 陰陽의 義가 和한다 함이며 이는 需의 陽精水가 將且 天과 違行하여 水土의 地가 된다는 뜻을 表한 것이다.

序卦

萬物의 씨는 반드시 水液中에 含有되는 것인데 屯蒙에서 發生한 씨는 需의 天位의 生命水中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需가 蒙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屯蒙需의 水는 天地創生初의 水이므로 三卦의 水는 모두 水의 精이오 通流하는 水가 아니니 그러므로 三卦의 大象에는 水를 말하지 아니하고 屯과 需는 雲이라 하고 蒙은 泉이라 한 것이다 需의 生命水는 物을 生養하므로 飮食宴樂의 象이 된 것이다 雲이 天에 上한 것은 雲行雨施의 作用을 行함이니 天地의 雲行雨施는 사람에 있어서는 飮食과 男女相交의 象이 되는 것이다 宴字는 宀와 日과 女로 되고 宀는 家의 象이오 日은 陽精으로서 男體의 象이니 宴樂이라 함은 家中에서 男女가 和合하여 喜樂한다는 뜻이다 飮食과 男女相交는 곧 食色으로서 萬物의 生生하는 本能이니 需는 雲行雨施하여 物을 生養하는 象이 되므로 거기에 萬物의 生生하는 食色本能을 말한 것이다

九三의 泥와 寇는 象의 險在前을 말함이오 九三은 剛健不陷하는 乾體의 先頭에서 險體를 接하고 있으므로 險을 犯하면 陷하고 만일 陽이 內에 動하여 敬하고 直하면 陰에 陷치 아니하는 것이다

需六四의 坎水에 血을 말한 것은 需의 雲上天의 水가 違行하여 師比의 水가 되고 師比의 水가 逆行하여 小畜六四의 密雲의 달이 되니 需六四와 小畜六四는 直接 關聯되어 있으므로 兩爻에 모두 血을 말하여 그 서로 關聯되어 있음을 表한 것이다

穴은 土室이오 坎陷中에 사람이 居하고 있음을 말함이니 六四에 말한 出自穴은 六四가 九三의 穴에서 出한다 함이다

需는 險在前의 卦인데 上六은 險의 極으로서 自身이 곧 險이므로 六爻中에 오직 上六에 需가 없는 것이다

上六은 九三의 穴을 應하므로 入于穴의 象이 되고 九三의 穴에 入하여 스스로 乾陽을 遇하므로 不速之客三人來라고 하니 이는 九三穴中에 이미 來客三人이 있는 것이며 來라 함은 外로부터 內卦에 來함을 말하는 것인데 乾三陽은 內卦인 九三에 居하여 있으므로 不速이라 하고 來라고 한 것이다

自然數의 三은 씨의 象이오 三人은 사람의 씨라는 뜻이니 需卦의 震雷는 사람의 씨의 象이 되므로 九三에 三人의 象을 말한 것이다

訟 天水

訟은 需卦의 反易이니 乾은 上進하는 性이 있고 水는 下行하는 性이 있으므로 天과 水가 違行하여 上天下水의 分이 定하는 것이며 需訟은 天上에 비로소 水가 生하여 生의 時運의 象이 되는데 物의 자라는 때에는 반드시 分派分枝하여 空間的으로 擴大되는 것이라 天水의 違行하는 것은 水의 分派作用으로서 物의 자라는 象이 되므로 需訟은 生의 時運中에서 長의 時期로 되는 것이다

訟字는 公과 言으로 되어 公言으로써 曲直을 辯한다는 뜻이다 需訟은 北極의 天位를 中心으로 하여 水와 天이 上하고 下하고 하는 圜轉運動을 行하는 象이니 物이 中心을 圜轉하는者는 스스로 遠心 向心의 두 가지 運動이 있어 外圜은 曲線이 되고 內徑은 直線이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需訟의 圜轉運動에도 또한 遠心 向心의 運動과 外圜內徑의 曲直이 있으니 水가 天에서 違行하여 반드시 分離하고자 하는 것은 遠心運動이오 天位의 中心과 外圜을 連結하는 半徑의 直線이 있고 그 直線에는 牽引하는 引力이 있어 水를 遠離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近着하지도 못하게 하여 水로 하여금 永遠히 天位의 中心을 向하여 그 外圜을 돌게 하는 것은 向心運動이다 訟卦의 九二의 水가 天에서 下來한 것은 遠心運動의 訟이오 九二가 訟을 成치 아니하고 歸하여 逋하는 것은 向心運動의 不克訟이다

遠心運動은 外圜의 曲線上을 돌고 向心運動은 中心의 半徑線上에 얽매어 이 曲과 直은 永遠히 相爭하는 形態를 띠고 있으니 이가 訟卦의 原理이오 曲線圜轉의 中央點에 天位의 中心이 있어 直線으로써 曲形을 辨理하는 象이 있는 까닭에 卦名을 訟이라 한 것이다.

訟에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이 있는 것은 需와 함께 雷風作用이 있는 까닭이니 雷風에는 引力作用이 있는 까닭에 太陽의 天行健의 象에는 至大한 引力이 있어 一天水로 하여금 遠心과 向心의 作用을 行하게 하는 것이오 訟에 天氣가 下降하여 天水가 違行하는 것은 거기에 天氣降地의 象인 巽風이 있는 까닭이다

彖에는 「上剛下險險而健이 訟」이라 하니 卦의 組織으로는 上이 剛하고 下가 險하며 卦의 運行으로는 下가 險하고 上이 健하여 剛健과 險이 서로 圜轉하는 까닭에 遠心向心의 訟은 終止치 아니하는 것이다

訟은 天의 生命水가 下卦의 地에 下施되고 있어 바로 涉大川의 象이 되고 있으나 水의 下施되는 九二의 位는 天水가 地穴에 下하여 天氣下降하는 巽風의 象이 되고 水가 巽股에 下하므로 淵이라 하니 乾九四의 淵도 巽象을 말한 것이며 天水가 陰淵에 入하는 象이 되어 窒하고 窶하므로 特히 陰陽의 義의 和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故訟卦爲巽風之象也

九五爻는 天의 中心으로서 訟을 辨理하는 位가 되고 九二와 九四의 二陽은 遠心運動의 主力이 되어 上을 訟하고 九二는 初六爻와 六三爻의 陰을 誘하여 함께 訟을 하는데 사람을 誘하여 함께 惡을 하는 것을 竄掇이라 함으로 九二가 二陰을 誘 한 것을 또한 鼠掇이라 한 것이다 水가 天과 違行하여 父母를 訟하므로 不親이라 한 것이다 遠心運動은 또한 向心運動이 되는 것이므로 九二와 九四는 「不克訟」의 象이 되어 向心運動을 行하고 二陽이 向心運動을 行하므로 二陰의 運動이 또한 스스로 終止된 것이다

天位에서 下來한 生命水는 空間의 어느 一點에 聚合하여 陽氣가 뭉치고 거기에 生物의 씨를 施하는 것이니 九二爻의 「其邑人三百戶無眚」은 生物의 씨의 下來하는 象을 말함이다 邑은 사람이 聚團하여 사는 四境內를 말함이오 戶는 地와 사람을 合하여 말함이오 三은 需上六爻의 三人이라는 뜻이오 百은 天地自然數의 終數인 十을 自乘한 平方으로서 地域의 全面을 말한 것

이오 無眚은 光明의 가리움이 없다 함이니 邑人三百戶無眚은 사람의 씨가 天으로부터 地上全面에 내려와서 聚團하여 居하고 天의 光明을 받아서 生育한다 함이다 需訟의 時代는 아직 사람의 씨가 生치 아니하고 다만 씨로 될 氣精이 水中에 含有되어 生命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氣精을 사람에게 비겨서 말한 것이다.

序卦

訟은 需의 水中의 乾이 反易하여 天과 水가 違行하여 上天下水의 分이 定하여진 것이므로 需에 次하는 것이다.

乾坤屯蒙需訟은 天道三宮으로서 天地가 開闢하는 象이다.

大象

水가 天에서 違行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天과 水가 違行한다고 한 것은 兩者가 圜轉運動을 行하고 있어 서로 各行함이 아니라 함을 말함이다.

事는 通變함이오 作은 坤作成物의 뜻이오 始는 乾知大始의 뜻이오 謀는 天地設位하여 人謀鬼謀한다는 뜻이다. 天水가 違行하여 天과 水의 分別이 생기고 物의 生生이 始하는 것이므로 作事謀始의 象이 되는 것이다.

下卦坎水가 遠心運動을 行하는데 初六은 遠心運動의 終點이오 向心運動의 始初이므로 違行通變하는 事를 繼續치 아니하는 것이다.

初六은 下險의 位에 있어 陰이 收斂하고 있으나 遠心向心의 運動의 直線이 天位와 連結되어 陽氣가 內로부터 發宣하므로 雖小有言의 象이 되는 것이다. 初六은 收斂하여 昏暗의 象이 있으되 또한 陽과 直結하여 光明의 象이

있으므로 그 有言의 辯이 光明한 것이다.

訟은 本坤體에 天氣가 下降하여 巽股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坤卦와 같이 六三에 用六宮의 象이 있어 坤六三의 或從王事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四와 九二의 二陽이 違行하여 上을 訟하다가 모두 不克訟하는데 九二는 坎體에 있으므로 歸而逋라하고 九四는 九五天位의 乾體에 있으므로 復卽命이라 한 것이다.

需訟의 水는 生命水가 震子를 含有한 陽精水이오 天에서 地로 下來한 씨는 渝라는 물융덩이에서 生育하여 生物이 되는 것이니 訟九四 豫上六 隨初九의 渝는 모두 天에서 下來한 씨를 生育하여 生物로 化하는 물융덩이이다. 如人男體之陽精水也

鞶帶는 大帶로서 身을 繫束함이니 或錫之鞶帶라 함은 身을 繫束하여 違行치 못하게 함이다. 九五를 天位로 하고 그 以下의 四爻는 下로부터 上을 訟하는 象이 되는데 上九는 天水違行의 極에 있어 陽精水를 陰體에 施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服은 馬가 車에서 離脫치 못하게 하는 裝束이므로 鞶帶는 馬의 服帶이다 終朝는 晝日의 象이오 三褫는 씨를 發施함이다. 需訟의 水는 正北에 있어 陽體의 陽精水의 象이 되고 需訟의 相對는 正南에 있는 晉明夷의 陰火宮으로서 需訟의 陽精水를 承受하여 胎育하는 것이니 晉의 用錫馬는 訟의 馬服帶와 相照하고 晉의 晝日은 訟의 終朝와 相照하고 晉의 三接은 訟의 三褫와 相照하는 것이다.

上九는 訟의 中心을 離脫하여 晉의 陰體와 三接하여 陽精을 施하므로 敬以直內가 되지 못하고 陽이 陷하니 이가 곧 訟이 成하여 終凶한 象이다. 萬物의 生生作用에는 반드시 陰陽이 相交하여 陽精水를 施受하는 것인데 이 施受作用은 반드시 成의 中心에서 行한 然後에 陽이 陰體에 附하여 生育되어 元吉의 象이 되는 것이니 訟九五의 利見大人元吉中正은 이 뜻을 말함이오 上九는 位가 中正치 못하고 亢極의 地에 있으므로 陽이 陷하여 終凶의

象이 된 것이다.

師　地水

師는 一陽이 中爻에 있으니 一陰이나 一陽이 中爻에 있어 外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者는 生의 時運의 象이오 內部에 있는 一陰이나 一陽은 반드시 자라서 外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卦는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師는 生의 時運의 長成期에 當하여 衆物의 形의 始生하는 象의 卦이다.

師는 生의 時運에 水土가 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水土가 처음으로 凝成하여 低處에는 水가 聚하고 高處에는 陸地가 나타나서 山澤의 象이 된 것인데 地中에 水가 있는 것은 需訟天位의 生命水가 下來하여 精化의 씨를 坤陰中에 施하여 生育하는 象이다. 師之人衆居地上 征不服之卦也 故毒天下民從之 九二爲將帥之象 亦爲師保之象

師字는 　𠂤와 帀으로 되는데 　𠂤는 堆이니 聚土한다는 뜻이오 帀은 地의 周함이니 師라 함은 天位에서 下來한 生命水가 地의 周匝聚土한 속에 聚하여 萬物生育의 始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師는 艮山의 象이 되어 萬物을 成始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六五爻의「田有禽」은 地上에 動物의 着居함을 象함이니 禽은 鳥獸의 胎卵으로서 將且 精神作用을 가지고 있는 動物의 出現할 것을 象한 것이며 動物은 精神作用을 가지고 能動作用을 行하여 長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長의 時運의 最初에 蠱라는 動物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師의 地中水에는 萬物의 씨로 되는 生命體를 含하고 있어 陽體의 陽精水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九二爻의 「承天寵」「懷萬邦」은 陰體가 需訟의 天位로부터 陽精水를 承受하여 地上의 萬邦에 施하여 生育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九二의 陽은 生의 中心에서 天命을 받

아서 衆을 統率하는 者가 되는 것이오 六五의 陰은 成의 中心에서 衆을 統率하는 位를 有하여 丈人과 可以王의 象이 되는 것이다

寵은 女가 男의 貴愛를 받음이니 地가 上으로 天을 接한 것이 곧 寵의 象이므로 山附於地하는 剝山에 寵의 象이 있는데 師도 陸地가 나타나서 山의 象이 되므로 寵을 말한 것이다.

天에서 生命水가 地에 下來한 것이 곧 王三錫命이다.

執言은 陽氣(九二)의 發宣함을 執持함이니 剛中而應之意也

丈은 又와 十으로 되어 十을 持한다는 뜻인데 十은 天地自然數의 成終한 陰數이오 또한 土의 成한 數이니 六五는 坤陰이 水土卦의 成의 中心에 있어 成德한 사람의 象이 되므로 丈人이라 한 것이오 王은 乾陽이 三才의 主가되어 物을 生함을 象함이니 水土가 創成되어 萬物이 始生하는 때에 六五가 天의 陽精水를 受하여 衆을 生하고 있으므로 王事를 代한다는 뜻을 取하여 可以王이라 한 것이다 易理에 「行險」이라는 辭는 易簡의 道를 行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彖의 「行險而順」은 또한 易簡의 道이니 이는 水土創成의 初에 六五가 坤陰과 乾陽의 兩象을 兼하고 丈人과 可以王의 兩格을 具하여 乾易坤簡의 易簡의 道가 行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師는 易簡의 道로써 險을 行하는 까닭에 天下를 毒하는 象이 되니 毒이라 함은 사람을 害하는 草와 行實의 없는 사람이 往往히 生 한다는 뜻이라 水土의 創成되는 初期에 險과順 吉과害가 倂行하여 害人하는 草와 無行한 사람이 往往히 있어 人類生活의 毒이 되는 것이오 毒을 治함에는 毒을 用하는 것인데 易簡의 道로써 險을 行하는 것이 곧 毒을 用함이니 이가 「天下를 毒한다」는 뜻이며 民衆은 그 毒이 害人無行한 毒이 아니오 易簡으로써 險을 行하는 毒이라 함을 아는 까닭에 마음으로 順從하여 잘 生育하는 것이다.

師

豫卦의 順動과 行師의 象은 師卦의 行險而順의 象이므로 豫卦의 刑罰이 곧 師卦의 毒이오 豫卦의 民服이 곧 師卦의 民從이다. 豫卦의 震의 雷는 威하여 刑罰의 象이 되는데 師卦에는 雷가 없고 險이 있으므로 毒이라 한 것이다.

上六爻에는 水土의 完成되는 象이 있어 「開國承家」를 말한 것이다. 開國이라 함은 社會를 組織하여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國家의 道이오 承家라 함은 家庭의 世代를 繼承하는 父子의 道이며 또 卦名의 「師」字와 彖辭의 「丈人」에는 師傅라는 뜻을 寓하여 衆을 正하는 師傅의 道를 말하니 이는 사람이 聚團하여 生活함에는 반드시 父子의 道와 國家의 道와 師傅의 道가 있는 까닭이오 이 三道의 象이 師卦에 있는 것이다.

序卦

師는 地水이오 地水는 天水의 下來한 것이므로 師는 天水訟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地中의 水는 生命을 含有한 生命水이므로 地中의 生命水는 生物을 生育하는 象이 되고 그 까닭에 民을 容하고 衆을 畜함을 象한 것이다.

律이라 함은 陽氣의 動하는 音樂이니 師出以律이라 함은 初六의 地中水는 九二의 陽氣의 動함을 따라서 動하는 것이오 만일 陽氣의 動함을 失하면 陷한다 함이다. 臧은 內에 隱함이니 臧과 藏의 相異한 바는 藏은 草로 되어 將且 出生하는 때가 있음을 象함이오 臧은 內에 隱하고 있음이다. 初六의 水는 九二의 陽을 따라서 動치 아니하면 陽과 陰이 天地否가되어 內에

隱하여 陷한다. 함이다.

輿는 物을 載하는 車이오 尸는 臥의 形으로서 骨節이 解舒함이니 輿尸라 함은 車輿가 體解된 것이다.

坎在下卦의 六三爻는 善이 少하니 이는 六三은 人位로서 險의 極에 處하여 있는 까닭이다.

六五의 田有禽은 九二爻를 象함이니 九二는 水土卦의 地上爻로서 生의 中心이 되므로 田을 象하고 禽은 生命水의 震子를 말함이다. 九二는 坎의 中爻이로되 坤이 乾陽을 承受한 것이므로 그 本性은 震子이니 그러므로 六五爻辭에는 九二爻에 長子(震)와 弟子(坎)의 兩象을 말한 것이다.

執은 物을 執持하는 手指를 말함이니 咸九三의 執其隨 遯六二의 執之用이 모두 艮의 手指의 象인즉 師六五의 執이 또한 艮의 象이다. 師六五는 水土卦의 成의 中心에서 上으로 天을 接應하고 있으므로 艮山의 象이 된 것이오 言은 艮의 成終成始하는 成言이니 利執言이라 함은 六五의 山이 九二의 禽을 執하여 生育成始한다 함이다.

上六은 師의 成한 位이므로 諸爻中에 오직 上六에 師가 없는 것이다.

亂이라 함은 水를 橫流하여 濟함이니 水의 橫斷兩分함이 곧 亂이다 人間社會도 橫斷分裂하는 것이 곧 亂이오 小人은 社會를 分裂케 하는 者이다.

地中의 水는 마침내 地上으로 出하는 것인데 地上의 水土의 成하는 位는 上六이오 地中水의 中心은 九二이니 그러므로 九二의 象이 上六에 나타나서 上六의 大君有命開國承家는 곧 九二의 王三錫命懷萬邦의 뜻이오 上六의 小人勿用은 곧 九二의 毒天下의 뜻이다.

王과 大君의 相異한 바는 王이라 함은 乾道를 象함이오 大君이라 함은 大는 陽의 象이오 君은 乾의 象이므로 大君은 陰體의 承受하는 陽氣의 象이

다. 上六은 水土가 成하여 萬物이 着生하므로 陽氣를 承受하는 象이 되니 이것을 地로써 볼 때에는 大君有命의 象이 되는 것이다.

比 水地

比는 師와 同宮하여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가 되는데 師의 地中水가 反易하여 比의 地上水가 되니 地中水라 함은 地中에 있는 水만이 아니라 地의 低處에 聚하여 地中水와 相通하는 河川 江 海가 모두 地中水가 되는 것이오 地中水의 反易한 比의 地上水는 就下하는 水가 아니오 地에서 逆行하여 上升한 水이니 그러므로 比는 天空中에 上升한 澤으로서 달의 象이 되는 것이다 九五爻에 「顯比」의 象이 있으니 顯은 頁과 㬎으로 되어 頭가 明하고 光하다는 뜻이며 天位에 一陽이 있어 水가 聚하고 人頭의 象이 되어 光의 明한 것은 달이다 易理에 賢人은 달의 光明을 象한 것인데 六四爻에 「外로 賢에 比한다」 함은 九五爻가 달의 象이 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比字는 親密하다는 뜻이오 또한 逆上한다는 뜻이니 二人이 从(從의 本字)이 되고 从을 反한 것이 比가 되는데 从은 順應한다는 뜻이오 比는 逆行한다는 뜻이니 比의 地上水는 地中水가 逆行하여 달이 된 것이므로 地와 달은 親密하면서 또한 逆行한다 하여 比字를 쓴 것이다

比는 水土卦로서 師의 水土의 一部가 天空에 逆上하여 달이 된 것이니 水의 上行한 것은 澤이오 比는 水가 地上에 있으므로 또한 澤의 象이 되며 師比는 山澤의 形이 空中에 出現하여 달이 된 것이므로 比에 달의 生하는 象이 있으니 彖辭에 「比吉也比輔也」라하니 吉이라 함은 달의 始生하는 朔日을 말함이오 輔라 함은 艮의 成言과 兌의 說言에 輔의 象이 있는 것인즉 輔는 艮山兌澤이 相比하여 달의 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함이다.

달에는 坤元兌澤이 있어 太陽으로부터 乾元震子를 承受하여 震子와 兌澤이 合하여 歸妹卦象의 씨가 形成되니 이가 蒙卦에서 말함과 같은 筮이오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比에는 人類의 原씨의 始하는 象이 있으니 이가 곧 原筮이며 이 原씨는 坤元作用과 坤用六의 永貞作用에 依하여 承受되는 것이므로 彖에는 이것을 (原筮를) 元永貞한다 한 것이오 九五爻의 王用三驅라 함은 王은 乾陽의 象이오 自然數의 三은 씨의 象이오 驅는 馬의 馳함인데 馬는 乾象이니 太陽의 乾陽이 原씨를 馳하여 달의 牝馬에 施하는 것이 곧 王用三驅이며 邑人은 訟九二爻의 邑人으로서 사람의 原씨가 天에서 下來한 것이다.

달과 太陽은 夫婦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달의 體가 生하기 以前에는 太陽의 陽氣가 陰을 得치 못하여 不寧이 된 것이며 不寧方來라 함은 太陽이 달을 得하여 兩船을 併한 象이 되어 와서 配匹이 된다 함이다 달은 太陽의 光을 順受하는 面과 太陽의 光을 背逆하는 面과의 兩面이 있으므로 반드시 明과 晦의 兩象이 있어 明의 面은 陽이 生하여 吉이 되고 晦의 面은 陽이 陷하여 凶이 되는 것이니 彖의 「後夫凶其道窮也」라 함은 上六爻가 晦의 面에 當하여 그 夫君인 太陽을 後로 하여 光明을 받지 못한 까닭에 陽氣가 陷하여 一陰一陽하는 道가 窮하다 함이다 六三爻의 「比之匪人」도 上六爻의 晦를 應함을 말함이니 사람은 光明한 것이므로 陰晦한 것을 匪人이라 하는 것이오 小象의 「不亦傷乎」는 明夷卦의 明傷의 뜻을 取하여 六三爻가 上六爻의 晦를 應한 까닭에 光明이 傷하였다 함이다.

사람의 씨에는 震의 竹과 兌의 巫로 된 筮字의 象이 있다 하여 蒙卦와 比卦에 筮字를 쓴 것인데 筮字는 卦爻著法의 用語이니 이는 蒙과 比에 또한 四象八卦의 象이 있음을 表하기 爲함이다. 繫辭에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가 兩儀를 生하고 兩儀가 四象을 生하고 四象이 八卦를 生하고 八卦가 吉凶을 定하고 吉凶이 大業을 生한다」 한바 八卦生成의 順序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八卦의 出生한 順序로는 天地가 父母가되어 雷風水火山澤의 長男長女 中男中女 少男少女의 順으로써 六子를 生한 것이오 八卦의 運行하

는 順序로는 天地日月이 法象 懸象으로 되어 雷風山澤의 作用을 行하는 것인데 太極 兩儀 四象 八卦는 八卦의 運行하는 順序를 말한 것이다. 太極은 乾의 象이니 그러므로 易卦中에 太字는 오직 乾卦의 太和뿐이며 乾은 天이오 坤은 地이라 天의 속에는 스스로 地가 있어 陰陽關係로 되고 天地를 兩儀라하니 이는 太極이 兩儀를 生함이오 屯의 盤桓은 太陽의 象이오 蒙의 童蒙은 달의 象인데 屯蒙이 乾坤을 繼하여 乾坤屯蒙 四卦가 天地日月이 되고 天地日月을 四象이라 하니 이는 天地의 兩儀가 天地日月의 四象을 生함이오 需는 雷의 象이오 訟은 風의 象이오 師는 山의 象이오 比는 澤의 象인데 需訟師比가 乾坤屯蒙을 繼하여 乾坤屯蒙 四卦는 天地日月의 四象이 되고 乾坤屯蒙需訟師比 八卦는 天地日月雷風山澤의 八卦가 되니 이는 天地日月의 四象이 天地日月雷風山澤의 八卦를 生함이다 또 乾에 大明의 太陽이 있고 坤에 牝馬의 달이 있고 屯의 盤桓은 太陽의 象이오 蒙의 童蒙은 달의 象이오 需訟의 雷風은 太陽의 象이오 師比의 山澤은 달의 象이니 乾坤屯蒙需訟師比는 모두 日月의 象으로서 比에서 달의 體가 始顯한 것이다.

筮라 함은 四象八卦를 세우는 著法인데 序卦에 蒙이 第四卦로서 四象數에 當하고 比가 第八卦로서 八卦數에 當하므로 蒙과 比에 筮字를 쓴 것이오 이는 易經序卦의 初頭에 天地日月雷風山澤의 八卦의 象이 있음을 表하기 爲함이다.

第八卦의 比에서 달의 體가 비로소 成하여 前面과 後面의 明晦의 象이 定하고 明晦는 吉凶의 象이니 이는 八卦가 吉凶을 定함이오 달의 體가 成하여 明晦하는 吉凶이 있는 까닭에 日月이 往來하면서 光明이 相繼하여 坤의 簡能의 效인 富有의 大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吉凶이 大業을 生함이다 坤의 簡能作用은 乾의 易知作用과 倂行하는 것이오 富有의 大業이 또한 日新의 盛德과 倂行하는 것이니 比에서 달 體가 始生한 까닭에 天地間에는 盛德大業의 易簡作用이 行하는 것이다.

序卦의 順序는 乾坤屯蒙需訟師比로 되고 雜卦의 順序는 乾坤比師臨觀屯蒙의 順序로 되고 있다 序卦는 乾坤이 屯蒙에서 사람의 씨를 始하여 水中에

含有하고 水가 需訟의 天位를 中心으로하여 圜轉運動을 行하여 師比의 달을 生하고 달에서 사람의 씨를 生하니 이는 先天의 天地의 創生初에 달과 사람의 生하는 順序를 말함이오 雜卦는 乾坤이 比에서 달을 生하고 師에서 水土를 定하고 臨觀의 神道를 中心으로하여 或與或求하는 圜轉運動을 行하여 屯蒙에서 사람을 生하니 이는 后天時運에 天地가 變化하여 달과 사람의 變化하는 順序를 말한 것이다.

序卦

比는 師의 反易으로서 地水師의 一部가 逆上하여 달이 된 것이므로 比는 師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地上有水는 陸地와 川海가 區別되어 人類가 定居하고 처음으로 國家를 建設하는 政治를 말한 것이다. 先王이라 함은 先世의 王이라는 뜻이오 親字는 侯字와 相照하여 親은 宗主國의 父母이오 侯는 子를 分封한 諸侯國이니 달이 地에서 分離하여 딴 體를 이루고 있으므로 親侯의 象을 말한 것이다.

比는 달의 始生하는 卦이므로 그 內部에 陽이 뭉쳐 있으니 初六은 內部의 最深處이므로 陽氣가 뭉쳐서 缶에 盈한다고 한 것이다 缶는 土鼓이니 坤土의 容器의 象을 말함이다.

他라 함은 大過九四와 中孚初九에 陽이 巽股를 應함을 有他라하니 股를 他라 하는 것은 他字가 人과 也로 되고 也는 女陰의 뜻인 까닭이며 地를 土也라 하는 것도 또한 地의 女陰이라는 뜻이다 달은 陰體의 胎宮이오 初六은 陽氣가 內部에 뭉쳐서 土器에 盈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女陰이 생기면

胎育作用을 行한다 함이다.

比의 六爻에 陰爻는 모두 比之라하고 오직 九五는 比라하니 比之라 함은 出하여 어느 對象에 比함이오 比라 함은 서로 應從한다 함이다.

六二의 比之自內는 象의 不寧方來上下應이다.

前禽과 後夫가 相照하여 九五는 上六을 前禽이라 하고 上六은 九五를 後夫라 한다. 前禽을 失한다 함은 上六이 太陽의 光明을 받지 못하여 晦하여 生命을 失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며 上六이 生命을 失한 것은 逆하여 先迷가 된 까닭이니 이가 곧 舍逆이다 順이라 함은 後順得常의 뜻이니 下諸陰爻가 光明을 受하는 것이 곧 取順이다.

首는 乾陽이니 上六이 乾陽의 光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곧 無首이다.

小畜　　風天

以畜爲名者 月體中包乾陽 此乃萬物之 씨之所自生故 象以動物而曰畜也 大畜亦然

小畜은 一陰이 中爻에 있어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는 卦이다. 生의 時運에 一陰이 天空中에 得位하여(巽은 天氣下降의 象이므로 天空中이라 한다) 天氣의 施를 承受하는 陰精이 되고 內에 乾陽을 包하며 巽風은 磁氣이오 乾은 金인데 磁氣가 金을 牽引하여 陰精의 組織體를 이루니 乾巽의 卦는 모두 磁氣가 金을 牽引하는 象이 있으므로 小畜에 牽復 姤에 柔道牽의 象이 있는 것이며 天空의 陰精組織體는 달이므로 小畜은 달의 陰精의

積畜하는 象이 된 것이오 陰은 小하고 달은 牝馬로서 畜物의 象이 되므로 卦名을 小畜이라 하니 大畜도 또한 달의 陽氣의 積畜한 象이므로 大畜이라 한 것이다.

小畜에 天空의 陰精이 달의 體를 이룬 象이 있고 比에 또한 水土가 逆上하여 山澤이 되어 天空中에서 달의 體를 이룬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小畜의 달은 곧 比의 水土逆行한 山澤의 달이며 象에는 이것을 「密雲不雨自我西郊」라 한 것이다.

달의 行度는 太陽과 같이 東으로부터 西로 가는 것이나 太陽과의 交合關係에 있어서는 달은 西에서 東을 向하여가는 것이니 이가 自我西郊의 象이다.

密字는 宓과 山으로 되어 山形의 安靜함을 말함이오 節卦에는 澤의 凝結한 것을 密이라 하며 比卦의 比字는 親密하다는 뜻이며 雲은 比의 水土逆上하는 象이니 密雲이라 함은 水土가 天空中에 上하여 山澤의 形이 된 것이오 天空中의 山澤은 곧 달의 體이며 이가 小畜의 달에 密雲의 象을 말하는 所以이다.

乾卦九四는 乾이 天空中에서 坤을 得하여 風天小畜의 象이 되므로 雲行雨施 品物流形의 象이 되어 小畜의 密雲과 相照하고 群 淵 進 退가 모두 巽象이다.

不雨라 함은, 水가 天空에 上한 것은 雲이오 水가 天空에서 下하는 것은 雨이니 小畜의 密雲은 달의 體로 되어 地에 下하지 아니하고 天空中에서 運行하는 까닭에 不雨의 象이 된 것이다.

달은 반드시 坤元인 兌에서 始하는 것이므로 兌方인 西에서 生하는 것이며 郊는 邑과 交로 되어 邑으로부터 地平線上을 바라보는 天地相交한 際를 말함이오 我라 함은 天을 統하는 乾을 말함이니 乾이 天의 西郊에서 坤을 得

하여 달을 生한다는 뜻이며 이는 또한 달은 누가 보든지 반드시 西郊에서 生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西郊는 兌의 陰方이오 密雲은 陰氣이니 이는 六四爻의 象이라 獨陰은 生生의 功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陰方으로부터 陽方인 東을 向하여 往하는 것이니 이가 달의 行道가 逆行하여 西로부터 東으로 行하는 所以이오 雜卦에 「小畜은 寡함이라」 함은 小畜의 달은 아직 陽을 遇치 못하여 寡婦로 되고 있다 함이다.

小畜은 달의 密雲體인데 六四爻의 一陰이 位를 得하고 (易理에 巽이 上卦에 있는 者는 六四爻가 得位하는 것이다) 陽을 相應하므로 陽氣가 뭉쳐서 坎險의 血이 去하고 夕夜의 惕이 出하니 이는 需訟의 天位에서 水가 違行하여 師比의 水土가 되고 比의 水土가 逆行하여 小畜의 密雲이 될 때에 需卦 六四爻의 險血과 訟卦九二爻의 險惕이 小畜의 陰精中에 混在한 것인데 六四爻의 陰과 九五爻의 陽이 合氣하여 陽氣의 뭉침으로 因하여 血이 去하고 惕이 出한 것이다.

小畜六四의 密雲의 달은 需六四의 雲上天의 水에서 由來한 것이므로 需六四와 小畜六四에 모두 血을 말하여 서로 關聯되어 있음을 表한 것이다.

九五爻는 成의 中心에 있어 六四爻의 陰과 合氣하고 九二爻의 陽과 牽攣하여 陽氣가 뭉쳐서 月體가 富成하므로 富有大業을 行하는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다.

繫辭에 「吉凶生大業」이라 함은 比卦의 吉凶이 달을 生하여 小畜의 富以其鄰하는 것이 곧 富有大業의 뜻이다.

六四爻의 一陰은 巽股의 象이 되므로 九三爻의 輿脫輻과 初九爻의 復自道의 象이 된 것이다 巽股라 함은 巽卦의 一陰이 女股의 象이 된다 함이오 男體의 用陽이 巽股를 犯하면 반드시 喪亡하는 것이다 九四爻의 陽으로서 初六爻의 巽股를 應한 者는, 姤 九四爻는 包無魚가 되고 恒 九四爻는 田無禽이 되고 鼎 九四爻는 鼎折足이 되어 모두 不善하고 大過 九四爻는 有他

흠이 되니 他는 巽股를 指함이오 흠은 陰이 收斂하여 進路가 窮함이다.

初九爻의 陽으로서 六四爻의 巽股를 應한 者는 初六의 巽股보다는 그 害가 적으니 小畜 初九爻는 復自道가 되어 復하면 咎가 없고 家人 初九爻는 閑有家가 되어 防閑하면 悔가 없고 中孚 初九爻는 有他不燕이 되어 他가 있으면 安定치 못하고 오직 益卦는 長男長女의 相配이므로 吉한 것이다.

九三爻의 陽으로서 六四爻의 巽股를 接한 者는, 小畜 九三爻는 輿脫輻이 되어 行치 못하고 漸 九三爻는 夫征不復이 되어 凶하고 家人 九三爻는 婦子가 嘻嘻하면 家節을 失하는 것이다.

小畜은 月體의 凝成된 象이오 上九爻에서 陰精이 積하여 月體가 完成되는 것이므로 陰이 陽을 遇하여 不雨하던 者가 旣雨하고 東으로 往하던 者가 旣處하고 脫輻한 輿가 物을 積載하고 이에 비로소 乾陽을 相望하여 光을 微生하니 幾라 함은 動의 微함이오 朔의 先現하는 者이라 月幾望이라 함은 달이 비로소 乾陽과 相望하여 微光을 生하여 朔日이 된다 함을 말함이다.

序卦

比와 小畜은 모두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는 卦인데 比에서 달이 始生하고 小畜에서 달의 陰精이 畜積하여 달의 體가 成하는 것이므로 小畜이 比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文德이라 함은, 小畜은 月體의 始生하는 卦이므로 月體가 光을 發함을 文德이라 하니 懿文德이라 함은 달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함과 같이 사

람의 心體도 文明하여 光을 發함을 말함이다.

小畜九五에 有孚攣如가 있고 中孚九五에 또한 有孚攣如가 있으며 小畜彖에 密雲不雨自我西郊가 있고 小過六五에 또한 密雲不雨自我西郊가 있으니 그러므로 小畜은 先天달의 生하는 卦이오 中孚小過는 后天달의 生하는 卦이다.

履 天澤

履는 小畜과 同宮한 卦인데 小畜에서 凝成된 月體가 反易하여 兌澤이 乾陽을 承受하니 兌澤은 달의 陰精이라 이는 달이 太陽의 光明을 받는 象이며 履는 足을 載하여 行步하는 신이오 足은 震의 象이니 달이 太陽의 後를 從하여 乾元震子를 承受하면서 天空을 履하여 行하는 것이 곧 履의 象이며 太陽과 달은 上下의 秩序로 되어 光明을 生하므로 履卦에 禮의 象이 있어 履를 또한 禮라하니 이는 禮라 함은 秩序가 있어 亂雜치 아니하고 光明하여 陰昧치 아니하고 한 然後에 禮가 되는 까닭이다.

履卦에는 履虎尾不咥人의 象이 있으니 虎는 兩眼에 火光을 生하는 動物이라 달은 太陽의 後를 履하여 光明을 生하는 것이므로 太陽과 달의 光明은 虎의 兩眼의 火光의 象이 되고 太陽의 光은 곧 乾의 陽氣이라 달이 乾陽을 履하여 行하면 乾陽은 虎首의 象이 되고 달은 虎尾의 象이 되는데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여 달에 捿居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람이 虎尾를 履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虎의 象을 卦象으로써 보면 光明을 發하는 乾陽을 虎라하고 兌는 澤精으로서 乾陽을 承受하여 달의 光을 發하므로 兌는 虎의 形質의 象이 되는 것이다.

咥은 口와 至로 되어 虎口가 至함이니 咥人은 虎口가 至하여 사람을 傷害함이다.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여 반드시 光明을 받아서 사는 것이므로

달이 太陽의 光을 받으면 사람도 또한 그 光明을 받아서 傷害를 입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가 不咥人의 뜻이다. 兌澤은 달의 陰精이오 乾은 太陽光明의 象인데 兌澤이 先하고 乾陽이 後하여 光明의 先迷의 象이 되고 있으나 履卦는 달과 乾陽에 先後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乾陽을 履하고 行하는 象이므로 先迷가 되지 아니하여 不咥人의 象이 된 것이다.

사람은 光明한 것이오 光明한 것이 사람이니 그러므로 光明이 있으면 人道가 있고 光明이 없으면 人道가 없는 것이오 比卦와 否卦의 匪人도 모두 光明의 傷함을 象한 것이다.

象之咥人 乃九二之幽人貞吉也

履則月始生人 爲禮也 歸妹則人之終始 故爲大義也

九五에는 「履帝位而不疚」의 象이 있으니 九五는 月體光明의 中心이오 帝라 함은 上에서 光明을 施하여 萬物을 創生하는 天地神을 말함이오 (帝는 神이오 人은 帝의 創造한 것이므로 九五有帝 人之象也) 九五에 乾陽의 光明이 來施하여 달의 光明을 生하므로 帝位라 한 것이오 疚는 單獨하다는 뜻이니 달이 乾陽을 履하여 應하므로 光明을 受하여 單獨치 아니한 것이오 이는 小畜卦에 寡婦의 象이 있으므로 履卦에 婦의 象인 달이 單獨치 아니하다 함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特히 帝를 말한 것은 上에서 光明을 施하여 萬物을 創生하시는 神을 帝라 하므로 說卦에는 萬物이 光明의 生하는 東方의 震에서 出하는 것을 「帝가 震에서 出하다」 한 것이며 履卦는 天地間에서 처음으로 달의 光明의 生하는 卦이므로 그 뜻을 表示하기 爲하여 九五에 光明을 施하는 帝位를 말한 것이다.

六三爻는 成卦의 主爻로서 달의 陰精의 象이 되므로 太陽의 光을 受하는 象이 되는데 달이 光을 受하여 光明을 生하는 것은 目視의 象이오 太陽을 履하여 運行하는 것은 足行의 象이다.

六三爻는 陰精의 位로서 兌口에 當하여 虎口의 象이 되고 乾陽에 先하여 先迷의 象이 되니 달이 先迷하여 光明의 한쪽을 喪한 것이 곧 眇이오 跛이며 歸妹의 달도 달이 震에게로 歸하여 先迷의 달이 되므로 初九에 眇의 象이 있고 九二에 跛의 象이 있는 것이다. 履 六三과 六四는 사람의 位이므로 兩爻에 履虎尾의 象이 있는데 六三은 先迷의 달이 되어 光이 明치 못하므로 咥人의 象이 된 것이다.

上九는 달의 體가 成하고 乾의 太陽의 光과 兌의 달의 光이 兩明하니 이는 虎의 兩眼의 火光이 兩明한 象이오 日月이 往來하여 明을 生하는 것을 「考祥其旋」이라 하니 考는 父로서 乾의 象이오 祥은 羊으로서 兌의 象이오 旋은 圜行함이라 이는 日月이 往來圜行하여 光明을 繼生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序卦

履는 小畜의 反易으로서 小畜의 月體가 履에서 비로소 光을 生하므로 履가 小畜에 次하는 것이다.

小畜의 卦辭는 처음에 亨을 말하고 履의 卦辭는 내종에 亨을 말하니 亨은 嘉會함이라 小畜은 月體의 組織의 象으로서 먼저 陰陽이 嘉會하고 그 後에 體가 成하는 것이므로 먼저 亨을 말한 것이오 履는 달의 光明의 象으로서 달이 太陽을 履한 然後에 그 光明을 受하여 陰陽이 嘉會하는 것이므로 내종에 亨을 말한 것이다.

大象

太陽과 달은 上下의 定位이라, 人間社會에도 반드시 上下의 位가 있는 것

이므로 上下를 辨하여 民志를 定하는 것이 社會의 秩序를 세우는 所以이다.

素는 文飾을 加치 아니한 바탕이니 初九는 履의 最下에 있어 月體의 바탕이 되므로 素履라 한 것이다.

履道는 兌와 乾의 一陰一陽하는 道이며 坦은 土와 旦으로 되고 旦은 日光이 地上에 나타나는 象이니 履道坦坦이라 함은 달의 體가 太陽의 光을 받아서 地上에 光明을 나타냄을 말함이다. 幽人이라 함은 달에서 生하는 사람의 씨를 말함이다.

武人은 先祖를 繼迹하는 後人이니 月體가 乾陽의 光을 受하여 光明을 生하면 달의 光明은 武人의 象이 되고 달이 太陽의 光明을 受하는 것은 大君의 象이 되는 것이니 달이 太陽과 같이 光明을 發하는 것이 곧 武人爲于大君이다.

履와 夬는 交易의 卦인데 夬는 乾陽이 澤精을 決하고 入하는 象이오 履九五는 乾陽이 澤精을 決하고 光明을 生하는 象이니 兩卦가 모두 陰精을 決하는 것이므로 夬履의 象이 되는 것이다.

泰 地天

乾坤의 合體한 卦는 泰否 咸恒 損益 旣濟未濟의 八卦인데 오직 泰否만이 乾坤의 原形을 有하여 天地創生의 象이 있고 그外의 六卦는 모두 乾坤의 變形된 것이며 泰否에는 乾坤이 相交하여 萬物을 生하는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泰否는 天地創生 初에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는 것이다.

泰는 地天으로 되어 地의 陰氣가 上升하고 天의 陽氣가 下降하니 이가 天地相交의 象이다. 人體로써 보면 人體의 組織은 火臟인 心臟이 上에 있고 水臟인 腎臟이 下에 있으니 이것은 定位的 秩序이오 人體의 運行은 火가 下降하여 腹이 熱하고 水가 上升하여 頭가 寒하니 이것은 交體的 秩序이며 이 水升火降하는 作用이 곧 人體의 陰陽相交이다. 그러므로 人體에는 地天泰卦의 象이 있으니 人中을 中心으로하여 上에 兩耳竅 兩眼竅 兩鼻竅의 六偶竅가 있어 坤象이 되고 下에 口와 前陰 後陰의 三奇竅가 있어 乾象이 되고 하여 上六竅와 下三竅는 스스로 泰卦의 象이 된 것이다.

泰字는 大水로 되는데 萬物의 相交함에는 반드시 水火가 通明하여 絶處에 逢生하는 것이므로 泰卦의 天地相交도 또한 水火가 通明하여 陽體에서 生命水가 生하여 陰體에 施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大水의 象인 泰字를 쓴 것이다.

泰는 乾陽이 內에 있고 坤陰이 外에 있으므로 彖에 「內陽而外陰」이라 한 것인데 天地에는 陰陽의 往來圜行하는 象이 있으므로 泰에도 往來圜行하는 象을 取하여 卦辭에 「小가 往하고 大가 來한다」 하니 大는 陽의 象이오 小는 陰의 象이다 陽이 來하고 陰이 往하는 것은 光明이 來하고 昏暗이 往하여 萬物의 生하는 象이 되므로 彖에 「天地가 交하여 萬物이 通한다」 하니 通은 物이 窮하여 變하고 發生한다는 뜻이며 泰는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여 天地의 乾元과 坤元이 相交하므로 窮함을 變하여 萬物이 發出하는 것이다 彖에는 「內健而外順」이라 하여 特히 健順을 말한 것은 健順은 乾坤의 易簡의 道인 까닭이니 繫辭에 「乾은 天下之至健也 德行恒易以知險 坤天下之至順也 德行恒簡以知阻」라하여 易簡作用은 乾坤의 健順한 德行에서 由來한 것임을 말하였는데 泰卦의 天地交는 곧 乾坤의 易簡作用이므로 特히 健順을 말한 것이다.

彖에 「內君子而外小人」이라 하여 君子의 道는 長하고 小人의 道는 消한다 하니 君子라 함은 光明을 象함이오 小人이라 함은 昏暗을 象함이라 天

地의 相交는 반드시 日月로써 하여 太陽光明中의 乾元震子와 달의 陰精中의 坤元兌澤이 相交하는 것이므로 泰卦에 달의 光明의 生하는 象이있어 下卦乾은 乾陽의 象이 되는 同時에 또한 달의 光明의 長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泰의 下卦乾을 乾陽이라 하고 上卦坤을 坤陰이라고 하는 것은 乾坤의 空間的相交함을 말함이오 泰의 下卦乾을 光明의 長함이라 하고 上卦坤을 光明의 消함이라 하는 것은 陰陽의 時間的消長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泰卦에는 空間的相交와 時間的消長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六五爻에는 帝乙歸妹의 象이 있으니 歸妹는 乾坤의 二元이 合하여 收斂하여 달로 되는 象이오 泰는 文王八卦圖의 四維卦로서 乾坤이 西方兌를 交하고 또 互歸妹가 있으므로 成의 中心인 六五爻에 帝乙歸妹를 말한 것이다. 帝乙歸妹라 함은 古代에 어느 帝王이 少女를 民間에 下嫁한 古事를 因한 것이나 또한 卦爻에 帝乙歸妹의 象이 있는 것이니 (文王八卦圖互歸妹之泰卦는 上爻陰下爻陽故爲天地相交之象而月體中生人씨之象也) 帝는 帝出乎震의 뜻이오 乙은 物의 上出하는 象이므로 帝乙은 震子의 上出함을 象함이오 妹는 少女兌의 象이니 이는 上出하는 震子에게 少女인 兌妹를 歸嫁하여 陽光을 受한다 함이라 泰는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여 天地交와 互歸妹의 兩象이 있고 乾陽이 先하고 坤陰이 後하여 달의 後得主의 象이 되므로 이것을 象하여 帝乙歸妹라 한 것이다 祉는 示와 止로 되는데 示는 神의 事이오 止는 草木의 初生하는 根幹이니 以祉는 陽精인 震子를 受胎한다 함이다.

歸妹者 震兌之收斂 故爲씨之組織也 隨者 震兌之生長 故爲씨之發育也 所以反易爲蠱也

六五爻와 相交하는 九二爻는 乾陽의 生의 中心으로서 生命水의 行하는 中心이 되고 있으므로 包荒馮河의 象을 말한 것이다. 荒은 草와 亢으로 되고 亢은 水의 廣함이니 包荒이라 함은 生命水中에 茅의 象인 震子를 包하고 있음이오 河는 水가 地上에 分布通流함이오 馮河라 함은 震子를 包含한 生命水를 廣施하는 것이니 乾의 九二爻의 陽精水가 坤陰에 施하므로 包荒馮

河의 象이 된 것이다.

九二爻에 包含된 初九爻의 震子에는 發茅茹以奇彙의 象이 있으니 茅茹는 地下莖의 草로서 節節이 生根相承하고 一部分을 分斷하여도 남은 部分이 또 繼繼生生하는 것인데 茅는 物을 包함에 쓰는 草이오 茹는 新生하는 싹으로서 震子를 象함이오 彙는 類의 聚함이오 震子는 男體의 陽子의 象이니 男體가 陽子를 한번 發施하면 다시 陽子가 새로 發生하여 繼承生生함이 茅茹의 繼生함과 같으므로 男體의 陽子發施를 象하여 拔茅茹以其彙라 한 것이다.

九三爻는 乾이 長하여 坤을 際하고 上六爻는 坤이 極하여 泰가 終하니 그러므로 이 兩爻에는 消長의 象이 있어 九三爻에 「無平不陂無往不復」의 象이 있고 上六爻에는「城復于隍」의 象이 있는 것이다.

無平不陂라 함은 平地가 傾陂치 아니한 것이 없어서 高平한 地는 반드시 低地로 變한다 함이니 下卦乾은 平의 象이오 上卦坤은 陂의 象이라 乾이 極하여 坤으로 變함을 말함이오 無往不復이라 함은 달의 消하던 者가 다시 光을 生하여 乾陽이 됨이니 復이라 함은 陽이 陰中에 來하여 入함이라 乾이 地中에 있음을 말함이다. 城復于隍이라 함은 城은 人衆의 聚居하는 邑을 保衛하는 築土이오 隍은 城下池에 水의 없는 곳이니 下卦乾은 城의 象이오 上卦坤은 隍의 象이라 乾이 下卦에 來하여 坤陰中에 있으므로 城이 隍의 속에 復한 象이 되고 上六爻는 泰가 極하므로 水가 없어서 隍이 되고 地中水가 없어서 泉物이 生치 못하며 下卦乾으로부터 生命水를 承受하는 것이다.

序卦

天地는 日月로써 相交하는데 小畜 履에서 달이 始生하므로 天地交하는 泰

가 履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后라 함은 後라는 뜻과 女王이라는 뜻과 先世를 繼體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므로 陰의 用事하는 卦에 달의 陰體가 太陽의 後를 承하여 光明을 發하는 것을 后라하니 泰와 姤에 달의 陰體가 乾陽을 承하여 光明을 發하는 象이 있으므로 女王繼體의 뜻을 取하여 后를 말한 것이다.

財는 사람의 生活資料를 말함이다. 泰는 天地가 交하면 사람을 生하고 사람이 生하면 또한 財를 生하여야 하는 것이니 繫辭에 「何以聚人曰財」라 함은 이 뜻을 말함이오 財成天地之道라 함은 財를 生하여 天地養人의 道를 이룬다 함이다 輔相天地之宜라 함은 風土에 適宜한 草木 畜物의 生育을 贊한다 함이다 左右尼이라 함은 易理에 陽之右 陰之左하니 天은 右하고 地는 左함이라 民을 天地의 道와 天地의 宜로써 生養한다 함이다.

泰는 九二에 水의 象이 있어 그 象이 地水師와 相似하므로 師 上六에 小人勿用이 있고 泰 上六에 小人道消와 勿用師가 있으며 師上六에 必亂邦이 있고 泰上六에 其命亂이 있는 것이다.

九四의 不富以其鄰은 달의 光明의 虧 하는 象이니 小畜九五의 富以其鄰이 달의 生하는 것이므로 不富以其鄰은 달의 虧하는 것이며 上卦 坤은 外陰의 位에 있어 달의 光明이 없으므로 六四에 그 象을 말한 것이다.

否 天地

否는 泰와 同宮하여 生의 時運中에서 成의 時期에 當하는데 乾이 上에 있고 坤이 下에 있어 三奇竅가 上에 있고 六偶竅가 下에 있으니 泰卦를 사람의 直立體라고 하면 否卦는 사람의 倒生體이오 사람의 倒生하는 것은 母體의 胎中에 있는 胎兒이니 그러므로 否는 母腹中의 胎兒의 象이며 이는 泰에서 天地가 相交하여 物이 通하고 否에서 受胎하여 胎宮을 閉하고 있는 象이다 泰는 天地의 사이에 互歸妹가 있어 달이 陽光을 受하는 象이 있고 否는 天地의 사이에 互漸이 있고 漸은 孕胎의 卦이므로 否에는 受胎의 象이 있는 것이다. 否字는 不과 口로 되어 口를 開치 아니한다는 뜻이니 이는 胎宮의 口를 閉함을 象함이며 卦辭의 匪人은 사람이 晦冥中에 있어 光明이 없다는 뜻으로서 胎兒가 胎中의 晦冥中에 있으므로 匪人이라 한 것이다.

匪人이라 함은 달의 晦冥함을 象함이니 이는 否卦가 陰이 長하고 陽이 消하여 달의 光明이 消하고 있음을 말함이오 易卦爻에 君子는 달의 光明을 象한 것인데 否卦는 달의 光明의 消하는 象이므로 君子가 保合하여 陰陽의 義가 和치 못하다 한 것이다. 泰와 否의 通과 不通의 象은 坤卦 六四爻 文言에 있으니 文言에 「天地가 變化하매 草木이 蕃한다」 함은 泰의 萬物의 通함을 말함이오 「天地가 閉하매 賢人이 隱한다」 함은 否의 萬物의 不通함을 말함이며 天下無邦이 곧 匪人의 뜻이다.

泰에 內健外順을 말한 것은 乾坤易簡의 理를 取한 것이오 否에 內柔外剛을 말한 것은 天道를 順承하는 地道를 말함이니 說卦에 「地의 道를 立함을 가로대 柔와 剛이라 한다」 함과 같이 柔剛은 地의 道이라 否는 地道로써 泰의 乾陽을 承受하는 象이므로 剛柔를 말한 것이다.

泰와 否는 그象이 相反하고 있으되 또한 서로 連繼되어 있으니 否初六의 拔茅茹는 저 泰初九의 拔茅茹이다. 泰初九는 男體의 發施陽子를 象한 것이

므로 出하면 吉하고 志가 外에 在함이라 한 것이오 否初六은 女體가 男體의 發施하는 陽子를 承受하는 것이므로 保合하면 吉하고 志가 乾君에 있음이라 한 것이다.

否六二의 包承은 泰九二의 包荒과 對照되는 것이니 泰九二는 乾陽의 生의 中心에 陽精水를 包함이오 否六二의 包承은 坤陰의 生의 中心에 陰子를 包하고 乾의 陽子를 承受함이며 小人吉은 坤의 陰子의 收斂하여 生育함을 象함이오 大人否亨은 乾의 陽子가 坤陰中에 孕胎되어 陰陽의 嘉會함을 말함이다.

六二의 大人否亨은 九五의 大人吉이 되는 것이니 六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大人孕胎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九五는 成의 中心이므로 孕胎된 大人이 生育하고 있는 象이 되는 것이다.

初六의 茅茹는 草木의 象을 取한 것이므로 九五의 成의 中心에 또한 草木의 象인 休와 苞桑을 取한 것이다 休는 人이 木에 依하여 庇蔭된다는 뜻이니 休否라 함은 乾의 陽子를 胎宮에 否하여 庇蔭한다 함이오 桑은 日出하는 東方의 木인데 乾의 陽子인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東方에 位하므로 震子에 桑의 象을 取하고 苞桑이라 함은 震子를 包하고 있다는 뜻이며 否의 上卦乾은 彖에 말한 「君子道消」의 象이 되므로 「其亡其亡」이라는 辭로써 警戒하는 뜻을 寓한 것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危할까 하는 者 그 位를 安하는 者이오 亡할까 하는 者는 그 存을 保하는 者이오 亂할까 하는 者는 그 治를 有하는 者이라 是故로 君子는 安하되 危를 忘치 아니하고 存하되 亡을 忘치 아니하고 治하되 亂을 忘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身이 安하고 國家를 可히 保한다 하니 이가 곧 其亡其亡의 戒이다 泰否에 茅와 草木의 象을 取한 것은 天地交의 卦에 乾策數의 象이 있음을 表하기 爲함이니 泰否에서 天地가 始交하고 萃升에서 天地가 終하는데 泰로부터 升까지는 三十六卦 二百十六爻로서 乾策數 二百十六에 當하고 乾策數는 物의 發展의 終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天地의 始交하는 泰卦에 拔茅茹의 象이 있고 泰와 升의 中間인 大過卦에 陰體가 白茅를 藉用하여 陽子를 受

하는 象이 있고 天地의 終하는 升卦에 地中에서 木이 生하여 次世代의 胎育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이는 天地가 次世代를 生成하는 順序를 茅와 草木으로써 表示한 것이다.

否卦는 否閉하는 象이 되고 있으나 그 本卦와 互卦는 天風山地의 天地秩序로 되고 天風山地는 易理에 正大 恒久 感應 萃聚의 四情의 順序로 되고 있으므로 否閉하는 속에 스스로 萬物의 生長하는 象이 있어 上九爻에 先否後喜의 象이 있는 것이니 喜라 함은 陽氣가 內에서 發하여 光明의 生함이다.

序卦

泰에서 天地가 交하고 否에서 乾陽의 震子를 受胎하므로 否가 泰에 次한 것이다.

大象

否는 坤體가 胎兒를 胎育하고 天地가 閉하는 象이다 儉은 斂約함이오 難은 昏昧함이니 儉德辟難이라 함은 心을 斂約하여 外昏內明함이오 榮과 祿은 榮華를 말함이니 不可榮以祿이라 함은 胎兒가 胎中에 隱하여 生育하고 外顯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羞는 恥이오 不仁이 恥가되니 小人은 不恥不仁이라 六三은 小人道長의 極에 位하므로 羞恥를 包하고 있는 小人의 象이 되는 것이다.

疇는 洛書九疇로서 長의 時運의 象이오 天地否卦가 또한 長의 時運의 象이므로 否의 乾體의 初에 九疇의 뜻을 말하여 草木의 初生하는 根幹이 神祐를 받아서 疇에 麗하여 자란다고 한 것이다.

同人　　天火

同人은 一陰이 中爻에 있어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여 萬物의 形이 始生하는 象인데 上에 乾陽이 있고 下에 離火가 있으니 乾陽은 太陽의 象이므로 離火는 太陽의 象이 아니라 달의 陰精이 太陽의 光을 받는 象이 되는 것이다. 달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物을 始生하는 것은 곧 달에서 사람의 씨가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同人卦에는 달이 太陽의 光을 받는 象과 달에서 사람의 씨가 生하는 象이 있어 달과 사람의 生理가 相似하다 하여 卦名을 同人이라 한 것이다. 또 同人卦를 天과 火의 象으로써 보면 地上의 火氣가 炎上하여 天을 應하고 있는데 炎上하는 火는 圓錐의 象으로 되어 三角形이 되는 것이오 사람이 地上에 立하는 것도 또한 頭가 天을 向하고 兩足이 地를 履하여 三角形이 되는 것이므로 同人卦는 사람의 直立한 象이 되는 것이다. 同人이라 함은 또한 사람의 씨가 달에서 生하여 天下의 사람이 모두 同一한 父母에서 出生한 同類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오 그러므로 地上의 人類는 모두 同一祖上의 子孫으로서 同原同氣한 兄弟이다. 사람은 同人卦의 日月光明中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사람은 반드시 光明의 있는 곳에서 光明을 받고 사는 것이오 이 까닭에 사람이라 함은 光明한 것이라 하는 뜻도 되는 것이며 사람은 光明한 것이므로 能히 天下의 兄弟로 더불어 그 氣가 相通하는 것이다.

同人卦는 乾陽과 離火로 되어 太陽과 달의 相會하는 象이 되는데 이것을 五行의 理로써 보면 乾陽은 金이오 離月은 火이니 이는 日月은 金火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乾의 陽金의 數는 九이오 離의 陰火의 數는 二이니 이는 日月은 九二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人과 大有의 日月에는 金火와 九二의 象이 있어 이것이 河圖와洛書의 金火와 九二의 理와 서로 關連되니

河圖와 洛書의 金火와 九二는 日月軌道의 變化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六二의 一陰은 同人成卦의 主로서 九五의 乾陽을 應하는데 全卦로써 보면 달의 陰精이 乾陽의 光을 受하여 光明을 發하므로 文明의 象이 되어 能히 天下의 志를 通하는 것이오 그 爻位로써 보면 一陰은 달의 陰精인 兌澤이오 九五의 陽은 乾陽中의 震子이며 震子와 兌澤은 歸妹의 象으로서 사람의 씨이라 이는 달에서 사람의 씨의 生하는데 六二의 陰이 震子를 應하여 收斂하므로 吝嗇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六二에는 通志와 吝道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上卦乾은 直立한 頭이오 下卦離는 兩足이 地를 履한 偶이다(離兩也) 同人九五에 雷澤이 있는 것은 同人은 否의 連續이오 (同人卦辭에 卦名을 따로 擧言치 아니한 것은 同人이 否의 連續인 까닭) 否는 泰의 連續이니 (否도 卦辭에 卦名을 擧치 아니하였다) 同人九五의 震兌는 곧 泰九五의 震兌이다.

九五의 先號咷는 震子의 象이오 后笑는 兌澤의 象이니 이는 雷澤歸妹의 象이오 雷澤歸妹는 달이 陽光을 受하는 象이면서 또한 사람의 씨의 組織이 되니 그러므로 先號咷而後笑는 成의 中心에서 사람의 씨의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大師라 함은 地中水인 師卦의 象으로서 乾陽에서 生하는 陽精水라는 뜻이니 彖의 利涉大川은 이 陽精水의 施行을 말함이오 相遇相克이라 함은 乾陽의 陽精水와 離陰의 火가 水精火精이 相合하여 사람의 씨를 精化한다는 뜻이니 이는 九五에서 사람의 精化의 씨의 生함을 말함이다. 사람은 太陽과 달이 相交하여 太陽의 陽精水와 달의 陰火가 相合하여 精化의 씨로 되어 生한 것이므로 人體는 水火로써 構成되고 사람의 天性도 또한 水火를 體로 하는 것이다.

繫辭에는 先號咷而後笑를 人事로써 말하여 君子의 道는 或은 出하고 或은 處하며 或은 默하고 或은 語하나 二人이 同心하면 그 利함이 金을 斷하고 同心하는 言은 그 臭가 蘭과 같다 하니 或出或處는 震雷를 말함이오 或默

或語는 兌口를 말함이다 金은 乾象이오 臭는 巽象으로서 天風姤卦의 象이오 姤는 달이 乾陽을 遇하는 卦이니 이는 九五에 달이 乾陽을 遇하는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九五의 相遇가 곧 姤의 柔遇剛이다

同人은 日月卦로서 文明한 象인데 火의 性은 外明內暗하여 透明치 못한 것이므로 初九 六二와 九五 上九는 外明의 位에 있어 서로 志가 通하여 同人의 象이 있는 것이오 中央에 있는 九三과 九四는 內暗의 位에 있어 서로 志가 通치 못하므로 六爻中에 오직 이 兩爻에만 同人의 象이 없는 것이며 사람은 志가 通치 못하면 서로 敵攻하는 것이니 九三, 九四에 伏戎, 乘攻의 象이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다.

同人은 人卦이므로 大象의 人道에는 九三 人位의 象을 말한 것이다. 九三의 伏戎于莽三歲不興은 天下의 志가 서로 通치 못한 까닭이오 天下의 志가 서로 通치 못한 것은 族과 物에 相異한 곳이 있는 까닭이다. 全人類가 모두 同人함에는 各其族屬을 分類하고 事物을 明辨하여 그 相異한 바를 調和한 然後에 모두 相同한 곳으로 歸一하는 것이다.

同人은 全卦로써 보면 野에서 同人하니 野는 乾의 運行을 象함이라 이는 九五의 天位에서 日月의 相會함을 말함이오 上九爻로써 보면 郊에서 同人하니 郊는 邑으로부터 地平線上을 바라보는 天地相際한 곳이라 이는 上九는 卦의 終에 있어 太陽이 終하고 初生의 달이 始生하는 郊의 位가되어 달의 光明이 始生함을 말함이다

序卦

泰否에서 天地가 交하여 사람의 씨가 生하는 象이 있고 同人에서 日月이 相會하여 사람의 씨가 精化하는 象이 있으므로 同人이 否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族은 叢生함이오 物은 等分의 있음이니 乾은 사람의 生하는 本原이 되어 類族의 象이 되고 離火는 明하여 辨物의 象이 된 것이다. 同人은 사람의 精化의 씨의 始生하는 卦로서 天下사람이 모두 同一祖의 子孫인 同一한 사람이라는 象이 있는데 그 居位하는 地理風土에 따라서 言語風俗 및 生活樣式을 달리하여 一定한 地域을 單位로 하여 叢生하는 族屬이 생기게 되는 것이오 이 族屬은 天下同人中의 分類이다. 이러한 族屬은 各其分類하여 各自의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것이 곧 各自의 生을 完遂하고 아울러 天下大同의 域으로 나가는 길이오 또 사람의 社會生活에는 스스로 上下의 等分이 있는 것이오 이 等分은 또한 天下同人中의 辨別이니 사람은 職分의 上下에 따라서 各其職分을 다하는 것이 곧 各自의 生을 完遂하고 아울러 天下大同의 域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各其 族屬이 分類하여 살고 各其 職分을 맡아서 살고하여 同의 속에 異가 있고 異하면서 同하는 것이 곧 同人의 類族辨物이다.

乾坤은 易의 門이오 易은 日月의 運行함이니 日月이 相交하여 사람의 씨를 生하는 象의 同人卦는 初九에 乾坤門이 있고 그 門은 또한 사람의 나오는 門이므로 初九에 同人于門이라 한 것이다.

宗은 祖宗이라는 뜻인데 易理에는 世世繼承의 作用을 行하는 震을 宗이라 한다. 九五에 震子가 있고 六二에 兌澤이 있어 震兌는 陰陽의 道로써 相交하니 이 相交는 男女二人의 相交에 局限되고 天下大同의 相交가 아니므로 吝嗇한 一陰一陽의 道가 되는 것이다.

九三은 下卦의 陰體가 上卦의 陽體를 交接하는 界에 位하므로 萃升의 陰卦

가 陽을 胎育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莽은 草深의 象이니 莽蒼한 近郊의 草色이오 近郊는 應爻인 上九의 郊와 對稱한 것이다 戎은 兵事이다. 萃卦의 萃字는 草中에 伏藏한 兵卒의 象이오 萃卦에 또 戎器가 있으므로 伏戎于莽은 萃卦의 象을 取한 것이오 升其高陵은 坤의 高升한 升卦의 象을 取함이니 萃升은 陰卦가 陽을 承受한 卦이므로 九三에 萃升의 象을 말한 것이오 伏戎은 陽의 下施의 象이오 升高는 陰의 上應의 象이며 三歲不興安行也는 安은 女가 深屋中에 있다 함이니 陽이 陰中에 深入하여 行함을 象함이다.

九四는 上卦의 陽體가 下卦의 陰體를 交接하는 位에 있으므로 剛揜하는 困卦의 象이 되는 것이다. 墉은 應爻인 初九의 門과 對稱한 것이니 九四의 乘墉이 곧 初九의 出門이다.

卦辭에는 同人于野라하고 上九爻辭에는 同人于郊라하니 野는 天地를 合하여 말한 것이오 郊는 天地相際處인 地平線을 말함이니 上九의 陽體가 九三의 陰體와 相交함을 象하여 同人于郊라 한 것이다.

大有　　火天

大有는 同人의 反易으로서 離火의 달과 乾金의 太陽으로되고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여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光明을 發하고 成의 中心에서 달의 陰精이 乾陽을 應하므로 사람의 씨가 精化하고 있는 象의 卦이다. 乾陽과 坤陰의 사이에는 太陽과 地가 먼저 生하여 天地를 이루고 天地의 사이에는 달과 사람이 最大한 것인데 大有卦에는 달이 光明을 發하고 사람의 씨가 精化하여 달과 사람의 大함을 有한다 하여 卦名을 大有라 한 것이다.

大有는 天上一陰乃萬物之씨之所生之處(生之時運)有其大也 故曰元亨也 大壯利貞者 萬物之씨之所成之處 故曰天地之情正大也

天地는 陰陽이 合德하여 달을 生하고 달은 日月이 合德하여 사람을 生하니 天地는 日月이 아니면 空殼이오 日月은 至人이 아니면 虛影이라 그러므로 大有卦에는 달의 光明의 發하는 象과 賢人의 生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씨의 精化는 사람이 비로소 個體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有形의 始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有와 無의 理가 있는 것이다. 有라는 것은 반드시 無에서 生하는 것이오 無라는 것은 天地間에 物이 無한 것이 아니라 物의 生하기 以前의 前生時代를 無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物의 씨는 無에서 有가 生한 것이오 씨의 前生時代를 無라고 하는 것이며 有의 象을 四德으로써 보면 元은 無에서 有가 始生한 것이오 亨은 有의 자라는 것이오 利는 有의 여무는 것이오 貞은 有의 갈무리하여 次世代의 前生時代로 되는 것이니 貞은 無의 象이며 그러므로 大有卦의 卦辭는 오직 元亨 二字만 있고 他辭가 없으니 이는 大有卦가 달의 大와 사람의 大를 有한 始이므로 元과 亨의 象만이 있는 것이다.

大有는 달의 光明의 發하는 卦이므로 有字가 月로써 構成되고 繫辭에는 달의 易簡(이간)作用에 小畜卦의 富以其鄰과 大有卦의 大字有字를 取하여「富有함을 大業이라 이른다」한 것이다. 彖辭에 「其德」이라는 其는 달의 德을 指稱한 것이니 易卦의 彖辭에 其德이라고 말한 것은 오직 大有와 大畜의 兩卦뿐인데 大畜의 「日新其德」도 또한 달의 德을 指稱한 것이다.

小畜卦의 六四는 陰이 得位하고 上下가 應하므로 小畜이 되고 大有卦의 六五는 陰이 尊位를 得하고 大中하여 上下가 應하므로 大有가되니 이는 小畜은 六四의 陰이 空中의 位에서 乾陽을 應하여 月體를 凝結하는 象이므로 陰精의 畜積하는 뜻을 取하여 小畜이라 한 것이오 大有는 六五의 陰이 大中의 天位에서 乾陽을 應하여 光明을 發하는 象이므로 陽氣의 發揚하는 뜻

을 取하여 大有라 한 것이며 小畜과 大有의 兩卦를 合한 것이 곧 大畜이므로 大畜에는 小畜과 같이 달의 陰精도 畜積하고 大有와 같이 光明도 發揚하여 輝光한 것이다 小畜 大有 및 大畜은 달의 運行하는 象이 되고 달은 乾陽의 氣에 依하여 運行하는 것이므로 이 三卦의 下卦乾陽에는 모두 車輿의 輪의 轉行하는 象이 있으며 다만 小畜 大畜의 乾陽은 畜積의 뜻이 있으므로 輿의 象이 되고 大有의 乾陽은 運行의 뜻이 있으므로 車의 象이 된 것이다.

六五는 달의 陰精의 位로서 乾陽의 光을 받아서 光明을 發하는 곳이므로 厥孚交如라하니 이는 下로 乾陽을 交하여 陽氣가 뭉쳐 있다 함이오 九二는 乾陽의 中心으로서 달의 運行하는 곳이므로 大車以載라하니 이는 乾陽이 달의 光明을 載하고 圜轉運動을 行하여 車輪의 轉行함과 같다 함이다.

大有는 사람의 씨의 精化하는 卦이오 九三은 人位에 當하므로 九三에 「公이 써 天子와 亨한다」하니 公은 地의 象이오 天子는 乾陽의 子인 震子의 象이라 이는 地가 乾陽의 震子와 嘉會하여 地上에서 光明한 賢人을 生하여 사람의 生生事業을 行한다 함이며 小人弗克이라 함은 小人은 昏暗한 사람을 象함이오 九三은 人位로서 賢人도 있고 小人도 있으므로 小人의 天性에는 善이 없어서 生生事業을 勝任치 못한다고 한 것이다.

上九는 生의 時運의 달의 長成하는 位에 있으므로 달의 光明의 長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사람의 씨가 달에서 生하므로 달의 光明이 長成하면 사람의 天性光明이 또한 長成하는 것이며 달의 光明의 長成하는 것은 乾陽으로부터 光明의 祐를 受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天性光明의 長成하는 것은 또한 天으로부터 光明의 祐를 受함이니 大有上九는 사람이 天으로부터 光明의 祐를 受하여 賢人이 出生한다 함이다.

易卦의 賢은 모두 달의 光明을 象한 것이니 乾卦의 賢人在下位는 九三의 달이오 比卦의 外比於賢은 九五의 달이오 大有卦의 尙賢 大畜卦의 尙賢 頤卦의 養賢 鼎卦의 以養聖賢은 모두 上九의 달의 光明을 말한 것이다.

序卦

同人은 사람의 씨의 精化하는 象이오 大有는 精化한 씨가 有形으로 되는 것이므로 大有가 同人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物의 始生하는者는 繼之者善하므로 大有에 善이 있는 것이오 生으로부터 長하는者는 生存競爭이 生하고 生存競爭에는 他의 生을 害하는 惡이 生하기 쉬운 것이니 그러므로 生에는 惡이 없고 오직 長에 惡이 있으며 大有의 元亨은 곧 生과 長이므로 거기에 善惡의 機가 있는 것이다. 火가 天上에 있으면 光明이 發하고 昏暗이 隱하는데 光明은 善의 象이오 昏暗은 惡의 象이므로 火在天上한 大有에 遏惡揚善의 象이 있는 것이다 順天休命이라 함은 天을 順하고 그 命을 庇蔭함이니 사람의 生함에 天命을 順受하여야 할 것을 말함이다.

同人은 火가 下卦에 있으므로 大象에 族과 物을 말하니 이는 形而下한 器이오 大有는 火가 上卦에 있으므로 大象에 善惡과 天命을 말하니 이는 形而上한 道이다.

大有는 사람의 生하는 卦이므로 人道를 象한 大象에는 九三爻의 人位의 象을 말하니 大象의 惡은 九三爻의 小人의 象이오 大象의 順天休命은 九三爻의 亨于天子의 象이다.

大有는 成의 中心에 一陰이 있어 五陽을 有하는데 初九는 最遠한 地中位에 있으므로 匪咎無咎의 咎를 두 번이나 말하고 比는 成의 中心에 一陽이 있어 五陰을 比하는데 初六은 最遠한 地下位에 있으므로 有孚를 두 번이나

말하니 이는 九五의 一陽卦와 六五의 一陰卦는 初爻와 遠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比의 初六은 孚가 있으면 比하고 孚가 缶를 盈하면 終來에 吉한 것이며 大有의 初九는 交함이 없으면 害하여 쭉정이가 되는 것이니 이는 陰陽의 異各하는 것이 아니므로 光明을 內部에 晦하면 陰陽이 交하는 것이다.

同人卦가 初九와 九四가 相應하고 九三과 上九와 相應함과 같이 大有卦도 初九와 九四와 相應하고 九三과 上九와 相應하는 것이다.

九四의 彭은 防牌이다. 初九는 艱하여 九四를 交하면 無咎하고 九四는 初九를 防하지 아니하여 無咎하니 그러므로 初九에는 匪咎라하고 九四에는 匪其彭이라 하여 兩匪字로써 그 相交하는 뜻을 表하고 兩爻에 모두 無咎를 말한 것이며 晳(제)는 星光이니 九四의 晳는 初九의 艱과 相對하여 艱은 그 明을 晦함이오 晳는 昏暗中에 光을 發함이다

公用亨의 亨字는 隨上六 升六四의 王用亨 困九二의 利用亨祀의 亨과 같이 嘉會하는 亨의 뜻이다. 九三과 上九는 天人의 相應하는 것이므로 九三의 公用亨于天子는 上九의 自天祐之의 뜻이다.

厥은 下를 向하여 發射한다는 뜻이다. 威는 戉과 女로 되고 戉은 陽氣가 下하여 地로 入하는 象이니 威如는 女體의 속에 陽氣가 入한다는 뜻이다.

謙　地山

師比 小畜履와 同人大有 謙豫가 陰陽相對하니 師比는 地의 生成 小畜履는 天上에서 달이 生하는 것이므로 이와 相對하여 同人 大有는 天上의 달에서

人씨의 生成, 謙豫는 地上에서 人의 形成이다.

故謙有天道地道鬼神人道而又謙豫制禮作樂也

謙은 一陽이 中爻에 있어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는데 山의 高로써 地의 卑의 속에 있으니 이는 地氣가 上升하고 天의 陽氣가 上으로부터 地上에 下來한 象이며 陽氣의 下來한 九三의 位는 地上의 人位로 되고 또한 日月의 終始하는 位로 되니 그러므로 謙卦는 달의 光明이 陰中에서 運行하는 象도되고 달에서 發生한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와서 사람의 形體를 이루는 象도 되는 것이다. 달이 陰中에서 運行하는 것은 晦間의 象이라 謙卦에는, 太陽의 光明은 下濟하고 달의 陰精은 上行하여 晦間의 象이 되므로 달이 生의 時運의 中宮을 開坼하고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려 하여 陰中을 行하여 朔日로 向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反易卦인 豫卦에 吉의 先見하는 朔日의 象이 있는 것이며 이것을 人事로써 보면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오는 것은 씨가 자라서 사람으로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謙卦는 달과 사람이 모두 生의 時運을 마치고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자라려고 하는 象이다. 달이 陰中을 行하고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오고하는 것은 모두 天의 高에서 地의 卑로 내려오는 것이므로 謙讓의 象이 되는 것이오 달과 사람이 자라는 것은 陽氣의 發宣함인데 易理에 陽氣의 發宣하는 것을 象하여 言이라 하니 謙字에는 謙讓과 言의 두 가지 뜻이 있는지라 달과 사람이 地卑에 내려와서 자란다는 뜻을 表하기 위하여 卦名을 謙이라 한 것이다.

謙卦는 生의 時運이 長의 時運으로 變하는 象이 되므로 거기에는 河圖가 開坼하여 文王八卦圖가 나오는 象이 있으니 河圖가 開坼하면서 成數가 順行하여 東北의 六은 坤이 되고 西南의 七은 艮이 되는데 坤과 艮은 謙卦의 組織이오 坤과 艮이 方位를 相易하여 文王八卦圖가 된 것이다. 河圖의 生의 時運이 文王八卦圖로 變할 때에 東北의 坤과 西南의 艮이 相易하고 伏羲八卦圖의 生의 時運이 洛書의 長의 時運으로 變할 때에 또한 東北의 二와 西南의 八이 相易하니 이 東北과 西南의 坤艮 二八의 相易은 生의 時運

에서 長의 時運으로 넘어오는 때에 天地日月의 變化가 일어나는 象이오 이 東北 西南의 變化는 바로 謙卦에서 生의 時運의 달이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形質이 자라고 하는 變化이다.

謙卦는 太陽의 陽氣가 아래에 下하여 달에 施하니 이는 彖辭의 天道가 下濟하여 光明하다 함이오 달의 陰精이 卑하되 太陽에게로 上向하니 이는 彖辭의 地道가 卑하되 上行한다 함이다. 太陽의 光明이 下濟하고 달의 精이 上行하면 달이 太陽의 光을 承受하여 그 光明이 자라는 것이며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오면 山川의 氣를 받아서 사람이 자라는 것이니 이가 彖辭의 天道는 盈을 虧하여 謙을 益하며 地道는 盈을 變하여 謙에 流하며 鬼神은 盈을 害하고 謙을 福하며 사람은 盈을 惡하고 謙을 好한다 함이니 盈한데를 줄여서 謙한데를 보태는 것이 곧 자라는 象이다. 太陽은 尊하여 光明하고 달은 卑하되 사람들이 可히 밟고 넘지 못하므로 달이 太陽의 陽精을 承受하여 사람의 씨를 作成하여 地上에 내려보내는 것이니 이가 곧「君子有終」이오 君子라 함은 달을 象함이오 有終이라 함은 坤文言의 「坤道代有終」의 뜻이다.

謙卦는 달에서 사람의 씨가 地上의 人位로 내려오는 象이므로 天에서 내려오는 天道가 있고, 달은 地의 胎宮이므로 地道가 있고 달에 鬼神이 依附하므로 鬼神이 있고 달에서 사람의 씨가 下來하므로 人道가 있는 것이다.

謙卦에 天道 地道 鬼神人道를 말한 것은 天地가 사람을 生하여 키우는 過程을 말한 것이다. 天地에는 神이 있어 天地의 生生을 主宰하는데 神은 그의 分身이 鬼神으로 되어 사람의 生生을 主宰하여 害하고 福하고 하는 것이니 謙卦에는 사람의 씨가 처음으로 地上에 내려와서 자라는 象이 있으므로 特히 天地人 三才와 鬼神의 作用을 말한 것이다.

天道 地道 鬼神은 尊嚴한 權能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能히 그 權能을 行使하여 虧하고 益하고 變하고 流하고 害하고 福하고 하는 것이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는 그러한 權能의 行使가 없는 까닭에 다만 惡하고 好하고 하

는 意思를 表示할뿐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人工으로써 社會를 組織하여 共同生活에 必要한 禮를 制定하여 盈함을 抑制하고 謙함을 補益하고 하는 作用을 行할 수가 있는 것이니 禮라 함은 共同生活의 秩序이라 그러므로 謙卦에 「制禮」의 象이 있고 禮를 制하여 쓰는 것이 곧 權能의 行使이다.

謙卦에 制禮의 象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天地의 運動은 天道는 下濟하고 地道는 上行하여 不斷히 圜行하면서 마치 저울이 物을 平衡하게 다루는 것과 같이 均衡作用을 行하는 것인데 九三爻는 天道地道의 上下하는 中間에 位하여 多함을 虧하고 少함을 益하고 하는 저울대의 支點과 같은 作用을 行하니 大象의 「裒多益寡稱物平施」는 九三의 均衡作用을 말함이오 九德卦에 「謙德之柄也」라 한 柄은 저울대를 말함이며 說卦에는 坤에 또한 柄과 均의 象이 있으니 坤의 柄이 곧 謙의 柄이오 坤의 均이 곧 謙의 均이라 謙卦에 均衡作用이 있으므로 能히 社會의 秩序인 禮를 制하는 것이니 이는 社會의 秩序는 萬民이 稱平均衡한 然後에 能히 安定되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九三爻의 小象에 萬民服을 말한 것이다.

繫辭에는, 勞謙을 人事로써 말하여 勞하되 伐치 아니하고 功이 있으되 德色을 내지 아니함은 厚의 至極함이라 그 功으로써 人에 下함을 말함이다. 德은 盛함을 言함이오 禮는 恭함을 言함이라 謙이라 함은 恭을 致하여 써 그 位를 存하는 者이라 하니 德과 盛은 艮의 象이오 禮와 恭은 坤의 象이며 厚는 艮坤의 土를 合하여 말한 것이다.

彖辭의 君子有終은 곧 九三爻의 君子有終이오 君子有終은 勞謙의 象을 因함이니 勞라 함은 勞乎坎의 뜻으로서 陽이 陰中에 入하여 精氣를 養하는 것이 곧 勞이오 萬物이 北方의 坎水中에 歸勞하고 東北의 艮土에서 成終成始하는 것인데 九三爻는 大坎과 艮陽의 두 가지 象이 되고 있으므로 달이 北方 陰中을 行하여 陽氣를 畜養하고 東北方에서 開坼하여 자라고 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地上으로 내려온 사람의 씨는 달로 더불어 함께 자라는 것이므로 九三爻에 달과 사람의 자라는 것을 아울러 말하여 勞謙君子라 한 것이다.

謙은 人씨自月下來於地 而爲男子畜精子之象 人居地上 故爲行師毒天下之象 故曰征不服也 盈者亢龍之象 謙之陽精水自上而下 故爲虧盈之象 益謙者 天施地生之意 乃自天而下於地也

天地의 下濟上行의 運動은 天의 中心인 六五에서 行하는 것이니 六五의 不富而其鄰은 彖辭의 「天道虧盈而益謙」으로서 不富가 곧 虧盈이다.

六二爻와 上六爻에 鳴謙의 象이 있으니 易說卦에는 震에 善鳴의 象이 있고 震은 物의 始生하는 象이라 謙卦의 鳴謙 豫卦의 鳴豫 中孚卦의 鳴鶴이 모두 震의 鳴으로써 달과 사람의 始生함을 象한 것이다. 모든 生物이 그 意志를 發表하는 소리에는 動物의 鳴과 사람의 言語가 있는데 사람이 胎中에서 出生하는 때에는 言語를 通치 못하므로 오직 鳴聲을 내는 것이니 鳴謙 鳴豫 鳴鶴等 鳴字를 쓴 것은 物의 始生하는 때의 意志發表하는 象을 말한 것이며 鳴은 意志를 發表한다는 뜻이므로 鳴字의 爻 小象에는 모두 心字와 志字를 쓴 것이다. 사람은 言聲을 내는 까닭에 사람의 始生하는 象에 鳴字를 쓰는 것이나, 人씨始着生於地 兒孩出産之象 故取兒啼之意而曰鳴也

謙卦의 六二와 上六에 鳴謙을 말한 것은 九三의 一陽이 生의 時運의 中宮에서 出生하는 때에 그 陽氣가 外로 發宣하여 鳴聲이 되는 것인데 中宮의 鳴聲은 外에 響應하여 들리는 것이므로 鳴의 象은 九三에 있지 아니하고 九三을 承하는 六二와 九三을 應하는 上六에 있는 것이다.

序卦

大有는 달에서 發生한 사람의 씨가 有形으로 化하는 것이오 謙은 달에서 生한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와서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謙이 大有에 次하는 것이다.

謙輕也 輕은 車의 行함이라 陽이 天에서 下하여 地上을 行하는 象이므로 坤이 乾을 受하여 坤艮이 된 것이오 坤의 大輿와 艮의 徑路를 合하여 輕이라 하니 六坤七艮이 交易하고 사람의 씨가 天에서 下來하여 地上에 行함이 곧 輕의 象이다

大象

謙이라 함은 多를 裒하여 寡를 益하여 均衡作用을 行함이 곧 謙이니 그러므로 卑와 尊의 兩象을 兼하여 上에서 下에 下하는 것이 謙의 象이다.

謙은 달에서 水液中에 含有된 사람의 씨가 地上에 下來하는 卦이므로 天道下濟의 濟字와 用涉大川의 涉字가 있는 것이오 이것은 上六의 地中水의 行師와도 關聯되는 것이다.

六五는 象의 天道虧盈益謙의 位로서 달의 虧하는 象이 되므로 泰六四와 같이 不富以其鄰이라 한 것이다.

六二는 象의 地道變盈流謙의 位로서 水의 流下하는 象이 되므로 上에 勞乎坎의 坎水가 있고 下에 用涉大川의 川水가 있는 것이다.

六四는 象의 鬼神害盈福謙의 位로서 權能으로써 사람을 禍福하는 象이 되므로 撝謙이라 하니 撝는 工力으로써 作爲한다는 뜻이다.

六三은 象의 人道惡盈好謙의 位로서 그 功으로써 사람에게 下하는 象이 되므로 勞謙이라 하니 勞謙이라 함은 功勞가 있으되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豫 雷地

豫는 謙과 同宮하여 一陽이 中爻에 있어 生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에 當하는 卦인데 震이 地上에 있으니 震이 地上에 있는 것은 文王八卦圖의 帝出乎震의 象이 되는 것이나 아직 一陽이 中爻를 出치 못하므로 奮出하는 過程에 있으니 그러므로 豫에는 帝와 春의 象이 있어 上帝와 四時를 말한 것이다. 豫는 謙卦의 달이 中宮에서 나오는 過程에 있고 사람의 씨가 地上에서 出生하는 過程에 있어 모두 자라기 始作하는 象이 되므로 生의 時運의 最終卦가되고 生의 時運의 달도 豫에서 終하는 것이다.

豫에는 喜樂한다는 뜻과 象을 推하여 未來事를 前知한다는 뜻이 있으니 萬物이 처음으로 發生하는 때에 氣가 鼓舞하여 가장 喜樂한 것인데 豫는 달과 사람이 처음으로 奮出하여 자라려는 것이므로 喜樂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오 豫는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轉換期에 當하는데 時運의 轉換하는 象을 보고 未來의 時運을 前知할 수 있는 것이므로 豫는 象을 推하여 未來를 前知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 豫卦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豫字를 取하여 卦名을 삼은 것이오 豫字의 予와 象이 곧 事物을 推象한다는 뜻이다.

豫者豫防豫備之意 而大變動之前提也 越於長之時運也 謙人씨下來於地 爲形生之人 豫는 地上人居 空中月行也 地上人居 乃建侯行師也 空中月行 乃日月不過也 冥者現時運之退去也 謙之益 豫之恒乃雷風之氣 爲引力 自天而下씨人씨着於地 而向天而長也 豫之薦上帝 乃隨蠱帝出乎震之前提也 蒙의 再三男은 瀆하는데 豫는 建侯行事하는 長子이므로 下交(下於地)하되 不瀆한다 聖人刑罰者 行師征不服也

豫는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轉換期에 當하여 震子가 地上에 出하여 次世代를 繼承하는 象이 되고 또 一陽이 地上에서 動하여 衆陰인 民衆을 統率하는 象이 되니 震子가 次世代를 繼承하는 것은 屯卦의

建侯의 象이오 震子가 長子로서 民衆을 統率하는 것은 師卦의 行師의 象이니 謙과 豫는 謙讓과 喜樂의 卦인데 거기에 行師의 象과 征伐刑罰의 象이 있는 것은, 사람은 神으로부터 地上에 出生하여 地上 海中 空中의 모든 生物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服從치 아니하는 것을 征服하고 하는 任務를 가진 까닭에 이 任務를 다하는 것이 곧 謙讓과 喜樂을 實現하는 所以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震子가 地上에서 動하는 것은 天地의 順動하는 象이 되므로 地上에 出生한 聖人도 또한 天地를 본받아서 順動하는 것이니 順動이라 함은 近하기는 氣의 呼吸, 心臟의 鼓動, 血液의 循環等과 遠하기는 潮汐의 干滿 日月의 出入等이 自然스럽게 往來하여 窮치 아니하는 것이 곧 順動이다.

建侯와 行師는 사람이 비로소 地上에서 자라는 것을 象함이라 天地가 順動하는 까닭에 天上에서는 달이 비로소 자라고 있으되 그 軌道를 過치 아니하여 四時가 忒치 아니한 것이오 聖人이 順動하는 까닭에 人間에서는 사람이 자라서 生長競爭을 行하되 刑罰이 淸하여 民心이 順服하는 것이다.

忒字는 心으로 되는데 特히 忒字를 쓴 것은 心性은 雷風에 根하고 心은 宇宙의 神에서 來하는 것이오 豫觀은 雷風의 氣가 地上에 行하여 神의 象이 되므로 豫觀에 모두 神을 말하고 忒字를 써서 雷風神心이 서로 關聯되어 있음을 表한 것이다.

豫에 刑罰을 말한 것은 自然界의 運行이 順動치 못하여 停滯와 不均衡이 生하는 때는 電氣와 雷威로써 打開하여 變通하고 人間社會의 運行이 사람들의 生長競爭으로 因하여 順動치 못하고 弊害가 生하는 때는 刑罰의 威嚴으로써 打開하여 變通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學에 말한 刑罰은 震雷에서 取象한 것이다.

豫는 震의 一陽이 地上에 出하여 衆陰을 應하니 이는 生命元을 運行하는 震雷가 鼓動作用으로써 萬物을 應함이오 一陽의 氣가 動하여 地上에 大行

하니 이는 志의 行함이오 그 鼓動하는 運動은 順으로써 動하여 豫의 喜樂前知의 象이 되니 豫의 順動함은 九四爻 一陽의 奮出하는 까닭이므로 由豫라하니 由는 木이 枝條를 生하는 象이오 이 一陽은 男體의 陽子의 發生함이다.

달의 나오는 動機는 生의 中心인 六二爻에 있으므로 六二에 見幾而作과 吉의 先見을 말하니 幾는 日月이 合朔하여 달의 光明이 微生함이오 吉의 先見은 朔日이 된다는 뜻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幾를 知함이 그 神한저 君子는 上을 交하되 諂치 아니하고 下를 交하되 瀆치 아니하니 그가 幾를 知한저 幾라 함은 動의 微함이오 吉의 먼저 現함이다. 君子는 幾를 見하여 作하여 終日하기를 俟치 아니한다 君子는 微함을 知하고 彰함을 知하고 柔함을 知하고 剛함을 知하니 萬夫의 望이라 하니 여기에 君子라고 함은 달을 象한 것이다.

六五는 成의 中心이오 豫는 天地日月四時의卦(乾文言九五爻下)이므로 六五에 日月不過 四時不忒의 象이 있는 것이다 恒은 恒卦의 뜻이니 四時卦中에 오직 豫와 恒에 天地日月四時의 象이 있는데 恒에는 日月이 天을 得하여 能히 久照하고 四時가 變化하여 能히 久成하는 象이 있은 즉 豫六五의 成의 中心에도 또한 이러한 象이 있으므로 恒하여 死치 아니한다 하니 이가 곧 彖辭의 不過이다.

彖의 不過를 爻에 不死라 한 것은 過라 함은 大過卦와 小過卦에 喪葬의 象이 있음과 같이 物이 過하면 死하는 것이므로 不過를 不死라 한 것이오 特히 死字로써 表한 것은 모든 物이 形質이 있는 者는 死生이 있고 形質이 없는者는 死生이 없는지라 謙卦 豫卦에서 사람이 나오고 사람은 神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謙에 鬼神이 있고 豫에 上帝가 있으며 觀卦에는 天의 神道가 있으므로 四時가 不忒하는 것인즉 豫卦의 四時不忒도 또한 神道가 있는 까닭이며 神은 恒久不已하여 死生이 없으니 豫卦에 神道가 있음을 表하기

爲하여 六五에 不死를 말한 것이다.

豫卦에 사람을 創造하신 神의 象이 있으므로 大象에 「殷薦之上帝 以配祖考」라하니 殷薦은 舞하여 神明을 다하여 上으로 神을 通한다 함이오 上帝는 物을 創造하신 神을 말함이오 配祖考는 上帝가 祖考에 當한다 함이니 사람은 神에서 生하고 祖考는 사람의 出生의 原이므로 上帝는 사람의 祖考에 當하는 것이다.

時義大矣哉

易經에 時義의 大함을 말한 卦는 豫 遯 姤 旅의 四卦이니 時라 함은 陰陽의 相與하는 時로서 陰에는 陽과 相與하는 時와 相與치 아니하는 時가 있다 함을 말함이오 義라 함은 震子와 그 配偶인 陰股와 相和하는 義이니 時義가 大하다 함은 震子가 陰股와 相與하여 物을 生成하는 時와 義가 大하다 함이다.

時義大矣를 震子와 巽股의 相與로써 解釋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易卦中에 震子의 原形을 가지고 있는 것은 復卦이니 復은 坤이 震子를 含한 一陽卦로서 卦全體가 또한 大震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四時義卦는 모두 復卦大象과 相照하는 象이 있고 또 時義卦에 震子가 陰股와 相與하는 象이 있으니 豫는 復의 交易으로서 豫의 重門擊柝은 復의 閉關과 相照하고 遯의 陰浸長은 復의 陽長과 相照하고 姤는 復의 變易으로서 姤의 后以施命誥四方은 復의 后不省方과 相照하고 旅의 旅行은 復의 商旅不行과 相照하는 것이다 그런데 復卦가 四時義卦와 相照하는 것은 四時義卦에 復卦와 相易하면서 또한 震子와 陰股의 相與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時義 = 豫는 陽體의 震子이오 遯은 陰體의 含陽이오 姤는 陰體의 相交이오 旅는 胎兒의 入胎이다 (旅者旅人也 = 震子之旅故爲入胎)

豫는 復의 交易인데 震子의 一陽이 陰質中에서 生하므로 스스로 巽陰과 相與하게 되는 것이니 豫六五의 恒不死의 恒은 雷風이오 震雷와 巽風이 相與하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다 遯은 肖巽卦로서 陽의 遯退하는 象이므로 震子가 巽陰中에 退하여 時義가 大한 것이니 遯에 震子와 巽陰을 말하는 것은 그 同宮한 大壯卦에 震이 止하고 肖巽의 反易인 肖兌의 羊象이 있는 까닭이다.(復剛長遯柔浸長)

姤는 大巽卦로서 復의 變易이 되어 陰이 陽을 遇하는 象이 되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다. 旅는 小亨順乎剛의 卦로서 重巽의 小亨順乎剛의 象이 되어 震子를 承受하는데 重巽에는 震子의 入하는 象이 없고 旅에는 震子의 旅次하는 象이 있으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다.

先天의 달은 小畜에서 形成되어 巽陰과 乾陽이 相接하여 復自道牽復하는 震子와 巽股의 相與의 象이 되는데 復은 長의 時運의 달이 光明을 始生하는 天心月이 되므로 復의 震子와 巽股에 時義의 大함을 말하니 이는 復이 天心月의 象으로서 天地의 長子가 되고 있으므로 易卦中에 震을 合한 卦가 많으되 오직 復卦의 交易 變易하는 卦와 復卦의 相與하는 肖巽 大巽 重巽의 巽股卦에 時義의 大함을 말한 것이다.

時義의 卦를 달로써 보면 巽陰은 달의 象이라 豫는 生의 時運의 달이 長의 時運의 달로 變하는 時에 震巽의 相遇함이오 遯은 長의 時運의 달이 形質의 자람이오 姤는 長의 時運의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서 后天달을 孕胎함이오 旅는 后天달이 胎中에서 生育함이다.

序卦

謙은 달과 사람이 生의 時運의 中宮에서 坼出하는 象이오 豫는 달과 사람이 地上에 奮出하여 形現하고 男體의 陽子의 發生하는 象이므로 豫가 謙에

次하는 것이오 天道五皇極宮에서 天地가 相交하여 萬物을 創生한 事功이 여기에서 終한 것이다.

大象

謙에는 制禮가 있고 豫에는 作樂이 있으니 禮는 天地의 自然秩序로서 自身을 謙卑함을 主하므로 地中有山하는 謙에는 制禮를 말한 것이오 樂은 天地의 律動運動으로서 和氣가 上向하여 鼓動함을 主하므로 雷出地奮하는 豫에는 作樂을 말한 것이다. 天地는 顯藏作用으로써 萬物을 鼓하여 生生의 大德을 盛하게 하는 것인데 聖人은 樂을 作하여 萬民의 心을 鼓動하여 生生의 氣가 天을 通하니 이가 作樂崇德의 뜻이다 雷의 鼓動 鳴聲과 坤의 土缶가 樂器의 象이 되는 것이다 殷은 月과 殳로 되고 月은 半身으로서 舞하면서 그 身을 轉旋한다는 뜻이오 殳는 舞하는 武器이니 殷이라 함은 律動運動으로써 舞하는 形狀을 말한 것이다. 草木같은 것도 顯藏하는 鼓動運動에 依하여 出生하면 반드시 律動運動으로써 舞하면서 자라는 것이니 豫의 樂과 殷은 生의 時運에서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 이러한 鼓動과 舞의 生長作用이 있음을 象한 것이다.

帝는 物의 創生하는 象의 卦에 말하는 것이오 上帝는 萬物의 祖上이라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上字를 加한 것이니 豫에는 사람이 비로소 創生되는 象이 있으므로 上帝를 말한 것이다.

사람이 作樂하고 舞하면서 天地生物의 功德을 讚揚하는 것이 곧 作樂崇德殷薦之上帝이오 以配祖考라 함은 上帝를 사람의 祖考로 모신다 함이다.

豫는 生의 時運의 最終卦로서 사람의 始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여기에 上帝는 사람의 祖考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石은 艮象이오 介는 界의 뜻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에서 坤母가 震子를 生

하는데 震子는 艮의 晦月에서 反生하여 初生의 달이 된다 함이다. 乾九三의 달은 日이 終하면서 달이 幾生하는데 豫의 달은 生의 時運의 終에 長의 時運의 달이 生하는 것이므로 終日을 俟치 아니하고 달이 新生한 것이다.

由는 木이 枝條를 生한다는 뜻이니 一陽이 衆陰中에서 奮出함을 象한 것이다. 朋은 달의 象이오 簪은 竹과 朁으로되고 朁은 潛의 뜻이며 震은 竹의 象이오 大坎水(謙豫의 全象이 大坎이다)의 속에 있는 震은 潛龍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簪은 九四의 震子를 象한 것이다.

彖辭의 刑罰淸而民服은 九四爻의 象인데 九四에 刑罰의 象이 있는 것은 豫와 噬嗑을 關聯시켜서 말한 것이오 그 까닭에 盍字로써 合한다는 뜻을 表하니 盍은 嗑字의 口를 省한 것이다 豫는 春에 生하여 夏로 向하고 噬嗑은 春에서 夏에 이르니 그 發展하는 길이 同一하고 豫는 春의 生으로서 繼之者善하므로 刑罰이 淸한 것이오 噬嗑은 生長競爭卦로서 上下의 陽이 過盛하여 口頤로써 他를 噬食하여 惡의 發生하는 일이 있으므로 用獄의 象이 있는 것인데 噬嗑의 上下頤를 罰하여 滅하면 豫卦로 되니 이가 또한 豫의 刑罰淸의 象이다.

冥字는 冖과 日과 六으로되고 冖은 上覆昏昧하다는 뜻이오 日은 十數의 뜻이니 冥字는 十六日에 月光이 虧하여 昏冥하다 함이다. 豫는 上經의 首卦乾으로부터 第十六卦인데 上爻에 冥豫가 있고 下經에는 升이 首卦 咸으로부터 第十六卦인데 또한 上爻에 冥升이 있으니 이는 豫는 生의 時運의 終卦이므로 生의 時運의 달의 虧하는象이 있어 上爻에 冥豫라하고 升은 長의 時運의 乾坤의 終하는 卦이므로 長의 時運의 달의 虧하는 象이 있어 또한 上爻에 冥升이라 한 것이다.

渝는 水가 變하여 물웅덩이가 된 것이니 달에서 내려온 사람의 씨는 이 渝에서 사람의 體로 化하는 것이다.

豫二之下交不瀆者 蒙卦之初筮告之理也 豫爲先甲三日之卦 故自生之時運 越

於長之時運 爲不瀆之象也(水之審判)

隨 澤雷

隨以後至坎離者 陽氣之長也(男體(含精子)之長也) 咸恒至乾解 陰精之長也(女體(含卵子)之長也)

隨震兌之生長卦 爲씨(男體)也 故反易爲腹中虫也 震兌之始現生長卦 故爲長之時運之始也

隨는 蠱와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陰陽相交하는 生長卦로서 乾元震子와 坤元兌澤의 相合하여 元亨利貞의 四德을 具有하므로 萬物이 씨에서 坼出하여 비로소 現形하여 자라는 象이 되는 것이니 이는 震子의 자라는 것이므로 震子가 來하여 陰에 下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사람으로써 보면 人體의 構造는 男女를 勿論하고 모두 震子와 兌澤으로 되어 있는데 震子와 兌澤의 卦는 歸妹와 隨의 二卦가 있으니 歸妹는 收斂卦이므로 사람의 씨의 組織의 象이 되고 隨는 生長卦이므로 씨에서 새 生命이 나와서 사람의 形을 이루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泰卦에서 사람의 씨의 發生하는 六五爻에 歸妹의 象이 있고 長의 時運中의 生의 時期에는 隨卦가 첫卦로 되어 있는 것이다. 隨字에는 隨從한다는 뜻과 楕圓하다는 뜻이 있으니 物이 서로 隨從하는 者는 我가 他를 隨하고 他가 또 我를 隨하여 楕圓形으로 往來하는데 隨卦는 震子의 陽이 兌澤의 下에 來하여 서로 楕圓隨從하는 象이 되므로 隨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文王八卦圖에는 震이 東에 있고 兌가 西에 있어 震兌에 日月運行의 象이 있는데 震이 下에 있고 兌가 上에 있어 朝로부터 夕하고 春으로부터 秋하

고 하는 象이 있으며 朝로부터 夕하면 光明이 地中에 沒하고 春으로부터 秋하면 陽氣가 陰中에 包藏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隨卦에 陽이 來하여 陰에 下한다는 象을 말한 것이며 이는 生의 時運의 달이 陰中에 入하여 晦하고 晦에서 長의 時運의 달이 싹트는 象이니 이 까닭에 大象에 嚮晦入이라고 한 것이다.

震子와 兌澤의 相合은 男體의 陽子와 女體의 陰子의 相合하는 象이오 男體의 陽子는 太陽의 象으로서 恒常한 것이나 女體의 陰子는 달의 象으로서 盈虛가 있어 生殖作用에 一定한 時가 있으므로 모든 生物의 生殖作用은 반드시 時가 있는 것이니 隨卦는 陽子와 陰子가 相交하여 새 生命의 자라는 것이므로 時를 隨하여 生殖作用을 行하는 象이 되고 彖의 「天下가 時를 隨한다」 함은 이 뜻을 말함이다.

隨는 震子가 兌澤下에 入하여 人體構成의 象이 되는데 天上의 달에서 地에 下來하는 過程의 象이 되므로 剛來而下柔大亨貞의 象이 된 것이며 兌澤의 달은 太陽을 中心으로하여 圜轉하므로 乘馬의 象이 된 것이오 兌澤이 震子를 包하여 人體를 構成하므로 時를 當하여 行하는 象이 되어 天下隨時라고 한 것이다.

時를 隨하는 義가 大하다 함은 모든 生物은 陰陽의 義로써 時를 隨하여 生殖作用을 行하여 乾元震子가 物을 資始하고 坤元兌澤이 物을 資生하므로 二元의 陰陽의 義가 大하다 함이다. 그런데 隨는 東方의 震이 西方의 兌에 下하여 太陽이 西山에 入하고 달이 晦에서 生하는 象이 되니 太陽과 달이 西山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時間的으로는 時가 되고 空間的으로는 義가 되니 日月이 時를 따라서 義가 和하여 時運이 變化하는 것이므로 時를 隨하는 義가 大하다고 한 것이다.

易卦中에는 六子의 三陰三陽의 隨蠱咸恒 및 貴渙에 剛柔上下하는 象이 있으니 이는 六子의 三陰三陽卦는 모두 天地相合의 象이므로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 陰陽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隨蠱는 生의 時運에서 長의 時運

으로 넘어가서 陽子와 陰子가 相合하여 자라는 卦인데 萬物이 씨로부터 싸 生命이 터져 나와서 形質이 자라는 때에는 반드시 反生하여 上下하는 象이 있으므로 長의 時運의 첫卦인 隨蠱에 剛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咸恒은 內乾外坤하고 二少二長이 各 相配하여 天地의 氣가 內向하여 收合하는 卦인데 萬物이 外向으로부터 內向으로 變하는 때는 반드시 反轉하여 上下하는 象이 있으므로 天地組織의 象인 咸恒에 剛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貴와 渙은 天地의 午中과 子中의 剛柔 分하는 곳에서 萬物의 顯藏하는 卦인데 萬物의 顯藏하는 때에는 반드시 出入하여 上下하는 象이 있으므로 萬物顯藏의 象인 貴와 渙에 剛柔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損益의 陰陽의 上下 損益도 또한 剛柔上下의 한 形態이다)

隨는 震子와 澤精이 相隨하는 生長卦로서 陰陽이 相隨하여 자라는 것이므로 各爻에는 陰陽의 相應하여 次世代를 生하는 象이 없고 陽이 陰에 下하여 相係하는 象이 되어 初九는 六二에 下하여 相係하고 六三과 九四는 相隨하여 相係하고 九五는 上六에 下하여 相係한 것이다. 六三과 九四는 上下卦의 界에 있어 兩卦의 相隨하는 것이므로 六爻中에 오직 六三과 九四에 隨의 象이 있어 上下의 陰陽이 異各치 아니하니 九四의 「何咎」는 곧 彖의 「無咎」이오 九四의 「其義」는 곧 彖의 「隨時之義」이다. 初九는 剛來下柔하는 乾元震子로서 六二와 相係하여 달을 資始하는 象이 되고 上六은 坤元兌澤으로서 九五와 相係하여 王事를 從하므로 九五에 西山의 山澤이 嘉會하여 달의 形質을 生하는 象이 되니 山澤은 달의 體이오 달이 始하고 形質의 生하는 것이 곧 長의 時運의 象이다.

序卦

豫는 生의 時運의 달이 終하고 사람의 씨가 비로소 地上에 形現하며 隨는 長의 時運의 달이 晦에서 싹트고 物의 始長하는 象이 되므로 隨가 豫에 次하여 洛書의 始가되어 天道七宮이 되는 것이다.

隨는 달로써 보면 달의 陽氣의 자라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의 자라는 象이니 그러므로 隨蠱卦以下 坎離에 이르기까지의 七宮은 모두 陽氣가 자라서 陰精과 相合하는 象이 되어 文王八卦圖의 震으로부터 八方을 順行하고 또 乾象의 順序가 되는 것이다.

隨蠱　　= 帝出乎震 =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臨觀　　= 齊乎巽　 = 雲行雨施 品物流形

噬嗑賁　 = 相見乎離 = 大明終始 六位時成

剝復　　= 致役乎坤 = 大明終始 六位時成

說言乎兌 = 時乘六龍 以於天

无妄大畜 = 戰乎乾　 = 乾道變化 各正性命

頤大過　 = 勞乎坎　 = 保合太和 乃利貞

坎離　　= 成言乎艮 = 首出庶物 萬國咸寧

卦에 說言乎兌가 없으니 隨蠱以下의 七宮은 男體의 陽子의 生長하는 象이오 兌는 女體의 陰子이니 男體에는 陰子가 없는 까닭에 說言乎兌가 없는 것이다

大象

澤中有雷라 함은 兌澤中에 震子가 들어 있는 象이다. 嚮晦라 함은 太陽이 東으로부터 西하여 晦하고 달의 光明이 兌澤속에 들어가서 晦함이니 隨의 震子와 兌澤은 日月運行의 象이되므로 晦字를 쓴 것이다

宴은 家屋中에서 男女가 同居한다는 뜻이오 息은 休息하고 다시 生動한다는 뜻이니 宴息이라 함은 男女가 家中에 居하여 子息을 生한다 함이다.

官은 宀과 吕로 되고 宀은 居屋이오 吕는 衆이니 官은 家屋中에 衆이 있다는 뜻으로 地水師의 容民畜衆의 象이다. 隨卦에는 澤中에 震子가 入하여 生長하는 象이 있는데 震子의 生長하고 있는 澤은 豫卦의 물웅덩이인 有渝의 象이니 그러므로 初九의 震子에 水中에서 人衆을 生養하는 有渝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出門交라 함은 太陽의 震子가 東方의 日月門을 出하여 兌澤을 相交함이오 有功이라 함은 易從則有功有功則可大하는 乾坤易簡의 事功이니 隨初九는 帝出乎震의 主爻로서 長의 時運의 始爻이므로 乾坤의 易簡을 말한 것이다.

六二는 剛來下柔의 柔爻이므로 初九와 六二의 相係함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肉身은 山澤의 形으로써 成하여 水土로써 質을 삼는 까닭에 土에서 生하는 穀으로써 主食을 삼는 것이며 肉身의 少長美醜가 모두 土의 作用이다.

上六 乃下柔之柔位也 初九 下於上六之柔也 故上六拘係從維也

拘는 物의 去하는 것을 手로 執하여 止함이오 係는 陰이 陽을 連繫함이오 維는 車盖維로서 掩覆한다는 뜻이다.

陽下來於初而 下於上六之柔 故王與上六之柔嘉會也

蠱　山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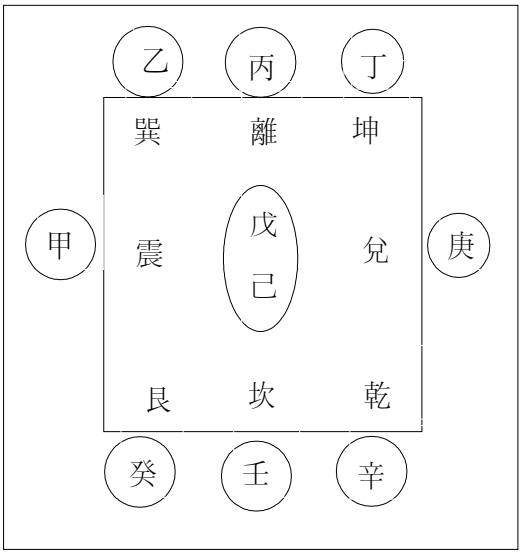
蠱는 隨와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陰陽相交하는 生長卦이므로 長의 時運中의 生의 時期에 當하여 長의 時運의 달의 陽氣가 隨蠱에서 長하는 象이다 上卦 艮은 地氣가 上升하여 天을 接한 것이오 下卦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한 것이므로 上九에는 首의 象이 있고 初六에는 股의 象이 있어 全卦가 上首下股로 되는데 上首下股는 人身의 直立한 象이므로 蠱에 人身의 始生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蠱는 長의 時運에 陽氣의 자라는 象으로서 사람의 男體가 비로소 形이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上首下股는 天의 一首에서 地의 兩支가 分하여 男體의 陽子에서 乾元坤元의 男女兩體가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蠱에는 사람의 男體의 씨가 男女로 分化하는 象이 있어 卦爻에 父母의 象을 말한 것이다.

蠱字는 蟲과 皿으로 되고 皿은 形而下한 器라는 뜻이므로 蠱를 또한 腹中虫이라 하니 腹中虫은 男體中의 陽子를 말함이오 蠱卦에 男體의 陽子의 象이 있으므로 卦名을 蠱라 한 것이다. 陽子를 特히 蠱字로써 表한 까닭은 蠱는 幼蟲이오 幼蟲은 地上을 기어다니면서 사는데 幼蟲이 蛹化하여 成蟲이 되면 空中을 飛行하여 幼蟲과는 그 次元을 달리한 生活을 하는 것이니 習坎卦의 習과 離卦의 離鳥와 漸卦의 鴻과 小過卦의 飛鳥는 모두 蠱의 飜生한 成蟲을 象한 것이며 사람도 長의 時運에는 蠱의 幼蟲과 같이 地上에서 살고 있으나 成의 時運이 되면 蠱의 化成한 飛鳥와 같이되어 長의 時運의 사람과는 全혀 次元을 달리한 生活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蠱字로써 卦名을 삼아 그 次元을 달리한다는 뜻을 寓한 것이다.

序卦에는 蠱를 事라하고 事라 함은 變通한다 함이오 變通이라 함은 現實의 窮極한 속에서 現實과 相反하는 新事物이 生하여 現實이 改新된다 함이니 그러므로 新事物은 반드시 現實과 逆行하는 것으로서 母體中의 胎兒는 새로 자라는 新生命이므로 그 體가 母體와 逆行하고 地上萬物의 자라는 者도

모두 地球와 反生하여 上을 向하여 자라고 있으니 이러한 것이 모두 變通의 象이다. 蠱는 隨와 함께 長의 時運의 첫 宮이 되어 生의 時運의 窮極한 現實을 變通하고 文王八卦圖의 始發點인 東方震에 當하므로 蠱를 또한 事라 한 것이다. 蠱에는 時運의 變通되는 象이 있으므로 剛上柔下라하여 陰陽上下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蠱는 文王八卦圖의 四維卦로서 艮巽이 東方震을 夾하여 陽子를 含한 象이 되고 또 歸妹를 互하여 生長의 속에 씨를 包하는 象이 되니 震은 東方甲木의 象이므로 彖辭에 先甲后甲의 甲木을 말하고 爻辭에 木幹을 말하며 木幹의 속에는 後日의 씨로 되는 互歸妹가 있는 것이다. 또 上卦艮은 果實의 象이오 下卦巽은 長木의 象이오 木上의 果는 곧 木果로서 乾의 象이 되니 이는 隨蠱가 乾彖의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의 位가 되므로 蠱에 乾元用九의 象이 있어 「元亨而天下治」라고 한 것이다.



蠱는 東方震을 夾하고 또 隨蠱는 文王八卦圖의 帝出乎震에 當하므로 甲木의 象이 있으니 甲은 十干의 首이다. 十干의 象을 보건대 甲은 草木이 孚甲을 戴하고 出生함이니 物의 長하는 時이오 乙은 草木이 土中에서 始出하는데 그 出來하는 象이 屯曲함이오 丙은 夏에 草木이 炳然함이오 丁은 陽氣가 內에 入하고 夏時에 萬物이 丁壯함이오 戊己는 中宮이니 戊는 陽이 入하여 草木의 枝葉이 茂盛함이며 己는 中宮에 陽을 包하여 草木의 果實의 形이 生함이오 庚은 秋에 陽이 陰中에 入하여 草木의 果實이 庚庚成實함이오 辛은 草木의 成熟함이오 壬

은 陰中에 陽이 生하여 懷妊한 象이오 癸는 水가 地中으로 流入하여 收藏함이다. 先甲三日은 辛壬癸로서 草木의 陰精이 收斂하여 陽을 懷妊한 果實의 象이오 後甲三日은 乙丙丁으로서 草木이 出하여 盛壯하는 象이다. 巽卦에는 先庚三日 後庚三日이 있으니 先庚三日은 丁戊己로서 草木이 壯하여 果實의 形을 生하는 象이오 後庚三日은 先甲三日과 같은 辛壬癸로서 陽을 懷妊하는 果實의 象이 되는 것이다.

> 甲庚丙壬의 陽干은 四正에 當하고
> 乙辛丁癸의 陰干은 四維에 當하니
> 이는 洛書의 一三七九의 陽數가 四正에 當하고 二四六八의 陰數가 四維에 當하는 것과 同一한 理이다

十干은 文王八卦圖에 配列되는데 甲은 八卦의 震이오 先甲三日은 八卦의 乾坎艮이니 乾에서果實이 成熟하고 坎에서 歸勞하여 精氣를 기르고 艮에서 成終成始하는 것이며 後甲三日은 八卦의 巽離坤이니 巽에서 草木이 地上에 齊하고 離에서 草木이 光華하여 모두 相見하고 坤에서 草木이 致養하는 것이다. 庚은 八卦의 兌이오 先庚三日은 八卦의 坤과 中央의 戊己이니 이는 坤의 丁에서 致養하고 中宮의 戊己에 入함이다. 文王八卦圖는 長男長女인 東方의 雷風에서 始하므로 中宮 戊己에 入하는 者는 곧 雷風이니 그러므로 戊己는 震巽에 當하여 金火正易圖에는 震巽이 戊己와 相配하고 後天九宮八卦圖에는 震巽이 中宮에 入한 것이다 後庚三日은 先甲三日과 같이 乾坎艮이니 後庚의 乾坎艮은 後天의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先甲三日은 乾坎艮의 三陽卦이오 (씨의象) 後甲三日은 巽離坤의 三陰卦(形質의 자라는象)이며 先庚三日은 坤中宮의 胎宮卦(胎中)이오 後庚三日은 乾坎艮의 三陽卦이니 胎宮에서 出生한 胎兒이다.

三은 物의 始形하는 數이므로 河圖와 洛書에 모두 三이 物의 始生하는 東方에 있는 것이며 日은 太陽震子의 運行함이니 三日은 太陽에서 發施하는 震子를 象함이라 甲은 震子의 生함이오 庚은 震子의 成함이니 震子가 生成하여 달의 形을 生하는 것을 三日이라 하니 先甲三日은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乾坎艮을 運行하고 成終成始하여 震甲에서 長의 時運의 달이 生하는 것이오 後甲三日은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巽離坤을 運行하여 坤의 陰體中에서

달이 始長하니 이가 復卦의 七日來復하는 달이며 先庚三日은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坤과 中宮을 運行하여 兌庚에서 달이 蛹化하는 것이오 後庚三日은 兌中의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乾坎艮을 運行하여 次世代의 子가 되어 여무는 것이니 이가 旣濟卦의 七日得의 달이며 復에서 旣濟까지는 三十六卦二百十六爻의 乾策數이다.

先甲三日의 乾坎艮 및 後甲三日의 坤과 先庚三日의 坤 및 後庚三日의 乾坎艮은 그 卦象은 同一하되 生成의 象은 相異하니 先甲后甲의 乾坤은 無形에서 有形을 生하여 物의 生長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先庚後庚의 乾坤은 說卦의 「神也者妙萬物而爲言」하는 乾坤으로서 有形에서 無形한 神으로 되어 物의 여무는 象이 되는 것이다.

彖辭의 蠱 元亨 利涉大川 先甲后甲은 모두 成의 中心인 六五爻의 象이므로 六五爻에 天下治 往有事 終則有始 天行의 象이 있는 것이다. 幹은 甲木이오 甲木은 芽를 生하고 果實이 없는 것이나 그 속에 스스로 果實을 맺는 本原이 있으므로 六五爻의 陰中에 陽氣가 入하여 陰이 陽으로 變하면 山風蠱가 重巽으로 變하여 九五爻가 先庚三日後庚三日의 象이 되는 것이다.

蠱에는 男女分化의 象이 있는데 男體의 陽子에서 子女가 分化하는 것이므로 一三四五의 各爻는 모두 父象이 되고 巽女의 生의 中心인 九二는 母象이 되는 것이다.

蠱는 男體의 陽子에서 子女가 分化하여 父傳子受의 象이 되므로 初六의 地에는 子와 考의 象이 있고 上九의 天에는 父의 象인 王과 子의 象인 侯가 있는 것이니 隨卦上九에 王의 象이 있고 蠱의 속의 震에 繼世作用을 行하는 侯의 象이 있으므로 王侯의 象을 取한 것이다. (上九剛上之位也 不事人間生殖之事也 只事씨之製造也 上九剛上者 地之高起接天故不爲地上之事也 乃事天上之事也)

六五는 成의 中心으로서 乾元用九의 位에 있으므로 承以德이라 하니 德은

乾元의 天德이며 上九의 陽은 巽而止의 主가 되어 用九의 象이 없으므로 諸爻中에 홀로 父母의 象이 없고 特히 父傳子受하는 王侯를 일삼는 用九의 象이 없다 함을 表하기 爲하여 不事王侯라 한 것이오 志可則이라 함은 乾元用九乃見天則의 則이니 비록 王侯를 일삼지는 아니하나 그 陽氣는 可히 乾坤이 合德할 수 있다 함을 말한 것이다.

序卦

隨는 物의 始長하는 象이 되고 蠱는 物이 자라서 父傳子受, 男女分化의 象이 되므로 蠱가 隨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振民이라 함은 乾坤卦의 「通其變使民不倦」의 뜻이오 育德이라 함은 蒙卦의 「蒙以養正」의 뜻이니 (蒙과 蠱의 大象에 모두 育德이 있다) 蠱는 長의 時運의 第一宮이므로 變通과 蒙養의 象을 말한 것이다.

幹은 貞者事之幹也의 幹이니 蠱는 生의 時運의 終에서 長의 時運이 始하는 것이므로 變通의 幹이 되는 것이다.

蠱 初六의 意(억)은 明夷六四의 心意(억)과 相照하고 蠱六四의 裕는 晉初六의 裕와 相照하고 蠱先甲三日後甲三日은 晉의 晝日三接 明夷의 三日不食과 相照하는 것이다.

蠱와 巽의 中間에 晉明夷가 있어 모두 三日의 象이 있으니 晉明夷의 三日은 蠱三日에서 巽三日로 넘어가는 轉換點이며 또 明夷는 乾으로부터 序卦三十六卦로서 乾의 大明이 明夷의 地中에 入하여 晝夜의 轉換點이 되는데

蠱甲三日이 또한 乾과 明夷의 中間에 있으니 乾 蠱 明夷 巽의 三日의 關聯은 太陽에서 發하는 震子의 運行함을 말함이다 (初六柔下之位也 巽之位入也 陽入陰中 故施精有子也 陽倒故爲考也) 後甲三日은 乙丙丁이오 先庚三日은 丁戊己로서 丁을 轉換點으로하여 甲과 庚이 相易하는데 明夷는 蠱巽의 中間에 있으므로 丁의 位에 當하고 丁은 八卦에 坤에 當하니 이는 明夷의 坤이 丁에 當하여 萬物致養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蠱와 明夷의 三日과 意과 裕가 相照하고 蠱와 晉의 康이 相照하고 乾大明과 晉大明이 相照하고 乾天下治와 蠱天下治가 相照하고 乾天行과 蠱天行이 相照하는 것이다.

隨蠱以下 坎離까지는 男體가 長하여 精子의 發生하는 象을 말함이다.

蠱의 文王八卦圖 互歸妹는 上爻陽 下爻陰이므로 天地間에서 人씨가 坼出(甲坼)하여 人體가 되는 象이다. 上爻는 天이오 天은 달 속에서 씨만을 創造하고 生殖의 事를 行치 아니하며 사람의 生殖의 事는 地上에서만 行하니 上九의 不事王侯는 天에서는 父子(王侯)相生의 事를 行치 아니한다 함이며 聖經의 에덴東山이 곧 天上의 달에서 사람의 씨를 創造하여 아담하와가 된 것이다. 아담하와가 蛇로 因하여 善惡果를 먹은 것은 生長成의 運動을 行하여 生殖作用의 機能이 發生하므로 天上의 東山에 居치 못하고 逐出되어 地上의 東方에 나가니 이는 萬物出乎震의 뜻이다. 蛇巳也 巳屬巽 巽爲股 蛇之誘惑者 女股之動也

蠱上에 不事王侯를 말한 것은 사람이 天上으로부터 地上에 下來하여 長하게 되는 緣由를 말한 것이오 또 蠱上九에 씨 創造의 象만이 있는 까닭이다.

臨 地澤

臨은 坤이 兌精을 包하여 坤母가 陰子를 包有한 象이므로 元亨利貞의 四德이 있는데 萬物의 體는 乾元과 坤元의 二元組織으로되어 陽氣와 陰精으로써 構成되는데 陽體는 四德卦인 天道卦 臨觀과 四德卦인 天命卦 無妄大畜으로써 組織되어 臨觀은 陰精이 되고 無妄大畜은 陽氣가 되는 것이며 (當於巽形質之潔齊也 臨觀當巽 乾之品物流形乃月體之長也) 易理에 陽體와 陰體가 모두 陽氣와 陰精의 二元組織으로 되어 있으되 陽體는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며 陰體는 陽이 體가되고 陰이 用이 되는지라 臨은 陰體의 속에서 二陽이 浸長하여 陰體陽用하므로 陽氣의 生長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坤과 兌精의 合한 것은 달의 象이오 陽의 浸長하는 것은 달의 陰精에서 陽氣의 生長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臨은 달의 陰精에서 陽氣가 生長하는 象이다 陽氣의 生長하는 卦이므로 天의 道가 되어 一陰一陽이 된 것이다. 臨字는 臣과 人 品으로 되어 坤卦의 臣道와 品物의 象이 되고 繫辭에 「如臨父母」라 함은 子가 父母를 對한다는 뜻이니 臨卦는 달이 臣道로써 太陽을 對하고 陰精中에서 陽이 자라서 父母를 對한다는 뜻이 되며 또 太陽이 달을 對하고 父母가 子를 對하는 것도 臨의 象이니 그러므로 臨觀之義 或與或求라하여 서로 臨한다 한 것이며 二陽이 四陰에 臨하고 四陰이 二陽에 臨하므로 卦名을 臨이라 한 것이다. 說而順이라 함은 坤이 陰子를 包하고 있다 함이오 剛中而應이라 함은 陽氣가 陰을 應하여 用이 된다 함이오 大亨以正은 四德을 具有하여 자란다 함이오 天의 道라 함은 天의 陽氣가 圜行하여 一陰一陽한다 함이다. 臨은 二陽이 下에 있고 四陰이 上에 있어 陰陽이 或與或求하여 서로 臨하고 있으므로 天의 陽氣의 圜行하는 象이 되어 天의 道라 한 것이다. 泰否는 天地의 卦인데 天地圜行의 象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物은 不安定하면 動하여 行하고 安定하면 靜하여 正한 것이라 臨觀은 偏하여 不安定하므로 圜行하고 泰否는 泰然後에 安하여 安定하므로 圜行치 아니하고 서로 消長하는 것이다.

萬物은 精과 氣로 되어 氣는 精神이 되고 精은 形質이 되는데 氣는 恒久하여 다만 顯藏이 있고 生滅이 없으며 精으로 된 形質은 生滅이 있어 그 生長함이 一定한 限度에 達하면 스스로 消滅하는 것이니 生物의 肉體에 死生

이 있고 女體의 陰子에 盈虛가 있고 함이 모두 精으로 된 形質인 까닭이다. 臨卦는 달의 陽氣의 자라는 象인데 陽氣는 陰精에 依附하여 자라고 陰精은 반드시 消長生滅이 있는 것이므로 陰精의 消滅하는 限度인 八月에 至하면 陽氣도 또한 陷함이 있는 것이다.

天地自然數에는 七을 少陽이라 하고 八을 少陰이라 하는데 三男卦에서 反易의 變化가 있는 震艮이 七少陽이 되고 三女卦에서 反易의 變化가 있는 巽兌가 八少陰이 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에는 艮土가 七이 되고 巽木이 八이 되고 있으나 生生作用을 行함에는 陽은 氣를 發始하고 陰은 形質을 作成하는 것이므로 物의 生成에는 氣로 된 震雷가 七少陽의 作用을 行하고 形質로된 兌澤이 八少陰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震은 乾元으로서 太陽의 運行하는 光明이 되고 兌는 坤元으로서 달의 組織되는 陰精이 되니 그러므로 易理에는 달의 光明을 象하여 七日이라 하고 달의 陰精을 象하여 八月이라 한다. 그런데 震을 合한 卦가 많으되 坤이 震을 合하여 大震이 되고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光明의 始生하는 復卦가 七日의 象이 되고 兌를 合한 卦가 많으되 形質이 重疊하여 달의 光明을 剝하는 重兌卦가 八月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는 달은 太陽의 光을 受하여 그 光明을 生하는 것이므로 少陽數의 陽物인 七日은 달의 光明의 生함을 象하고 少陰數의 陰物인 八月은 달의 光明의 消함을 象한 것이다 巽에 庚의 象이 있는데 巽兌가 同宮하여 文王八卦圖의 兌에 當하므로 八月은 또한 巽庚의 뜻이 되는 것이오 巽庚의 陽氣가 內에 入하는 것이 곧 달의 光明의 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復卦의 七日來復이라 함은 復卦自體에 달의 光明의 生하는 象이 있음을 말함이오 臨卦의 至于八月有凶이라 함은 臨에서 자라고 있는 先天의 달의 光明이 兌卦에 至하여 消한다 함을 말함이다.

(七日은 달의 光明이오 光明은 陽氣로서 生滅이 없고 顯藏이 있으므로 七日에는 復得을 말하고 八月은 兌澤이오 兌澤은 陰精으로서 生死가 있으므로 八月에는 凶을 말한 것이다)

臨으로부터 兌까지는 三十六卦이니 이는 또한 三十六卦 二百十六爻의 乾策

에 當하여 달이 生長을 極하고 消滅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一에서 八까지 三十六이다) 至于八月 有凶은 또한 至于八 月有凶도 되니 八이라 함은 一로부터 八까지가 모두 三十六數로서 三十六卦의 理와 暗合한 것이다 (乾之六位六龍 爲三十六 月之光明也)(正易 月之影生數 爲八也 此三十六數之理也)

臨은 陽氣의 자라는 天道의 卦이오 天道의 陽氣를 應하는 것은 成의 中心에 있는 六五爻이다. 知는 乾의 易知의 知로서 光明의 象이오 大君은 陰體가 乾의 陽氣를 受하는 象이오 宜는 陰體를 得한다는 뜻이니 六五는 元亨의 位이므로 天의 陽과 應하여 乾大君의 知가 臨하고 大君이 陰體를 得하여 陰中을 行하는 것이며 이 까닭에 六五에는 달의 光明이 자라는 象이 있는 것이다.

臨은 陽氣의 자라는 卦로서 陰陽의 相與하는 義가 있어 坤陰의 陰子로써 體를 삼고 있으니 이는 咸卦의 天地組織의 二氣感應以相與하는 象과 相似하니 그러므로 初九와 九二의 두 陽爻에 咸卦의 感應하는 뜻을 取하여 咸臨이라 한 것이다. 九二의 未順命은 陽의 浸長하는 象이다. 命이라 함은 陽이 內에 主가 됨을 말한 것이므로 臨의 交易인 澤地萃卦는 陽이 內에 入하여 順天命의 象이 된 것이오 臨은 陽이 浸長하여 外向하고 內에 入하지 아니하므로 未順命이라 한 것이니 이는 萃卦의 順天命과 對照하여 말한 것이다.

臨觀은 陰中에서 陽이 자라는 卦이므로 文王八卦圖의 齊乎巽에 當하니 齊乎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萬物의 陽氣가 形質속에서 자라는 象이다.

序卦

蠱는 生의 時運이 變하여 長의 時運이 되어 男體陽子의 生長하는 象이 되

고 臨은 形質의 속에서 陽氣가 자라서 大하는 것이므로 臨이 蠱에 次하는 것이다.

上經의 序卦는 陽의 生長을 말한 것인데 二陽의 浸長하는 臨이 先하고 一陽의 長하는 復이 後하니 이는 臨은 純陰의 陽長卦이므로 草木에서 芽의 發育하는 象이 되고 復은 震子를 合한 陽長卦이므로 形質의 속에서 子仁의 生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芽의 發育하는 臨卦가 先하고 子仁의 生하는 復卦가 後하는 것이다. 下經에 二陰의 遯卦가 先하고 一陰의 姤卦가 後하는 것도 또한 이 理와 같아여 遯의 二陰浸長은 陽의 退하는 象이 되고 姤의 一陰은 陰이 主하는 象이 되므로 遯의 二陰보다 姤의 一陰이 더 長한 것이다.

大象

澤上에 地가 있어 澤水가 聚하여 深한 것은 사람의 敎思의 深한 象이 되고 澤이 地底에 聚한 것은 地水師의 容民의 象이 되는데 地中水는 流行하므로 다만 容民이 되고 地底澤은 畜하여 保合하므로 容保民이 되는 것이다. 無窮은 時間의 大함이오 無疆은 空間의 大함이니 臨은 大함이라 敎思는 過去를 記憶하고 未來를 推想하고 하는 時間의 象이므로 無窮이라 하고 容保民은 民衆을 包容하는 空間의 象이므로 無疆이라 한 것이다.

甘은 坤土中을 流하는 澤의 味이니 臨六三은 澤이 坤中을 流하여 甘臨이 되고 節六五는 澤의 行流하는 水로서 坤中을 流하여 甘節이 된 것이며 兌口의 象을 因하여 甘字를 쓴 것이다. 臨은 澤을 容保하는 卦이로되 二陽이 浸長하여 流行하는 水가 되므로 陰陽이 義和하는 利가 되지 못한 것이다.

甘이라 함은 澤水가 止치 아니하고 流行함을 말함이다.

六四의 至臨의 至는 彖의 至于八月有凶의 至와 相照하니 至于八月有凶은

달의 光明이 重兌의 陰에 至하여 消한다 함이오 至臨은 坤의 陰氣가 下하여 初九의 陽과 相臨한다 함이며 至字는 陰을 表한 것이다.

敦은 瓜가 蔓에 繫한 象이니 草木의 莖蔓의 柔弱한 者에 果實이 上에 結함을 敦이라 한다. 臨은 陰體의 속에 陽氣가 浸長하여 果實을 生하는 象이므로 敦字로써 그 뜻을 表한 것이다.

觀 風地

觀은 巽의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하고 二陽이 上의 天位에 뭉치고 있으니 이는 形質의 머리에 陽氣가 뭉치고 그 陽氣의 光明이 地에 下垂하는 象이다. 觀이라 함은 上의 二陽의 光明이 下의 四陰에 觀示하고 下의 四陰이 上의 光明을 仰觀하는 것인데 觀은 門의 雙闕이오 艮에 門闕의 象이 있으니 觀卦는 肖艮의 象이 되므로 光明과 門闕의 兩象을 取하여 觀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天位의 二陽은 恒久不已하는 陽이므로 貞觀의 象이 있어 神道가 된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震巽의 雷風에서 始하여 雷가 地上에 있는 것은 豫가되고 風이 地上에 있는 것은 觀이 되니 雷地는 東方의 帝出乎震의 象이 되고 있으나 一陽이 中爻를 出치 못하므로 아직 出乎震은 되지 못하고 다만 帝와 春의 象이 되는 것이며 隨蠱에 이르러 비로소 東方의 帝出乎震이 되고 臨觀이 東南의 齊乎巽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豫에 春의 象이 있고 觀에 夏의 象이 있어 豫와 觀에 四時不忒을 말한 것이다.

盥은 潔手함이니 東南의 巽에 萬物潔齊하는 뜻이 있는 것은 初夏에 草木의 長育함이 淨潔하고 齊一하고 함을 말함이오 觀은 齊乎巽에 當하고 또 大艮

에 手의 象이 있으므로 潔齊와 手의 兩象을 取하여 盥이라 한 것이며 特히 盥字를 쓴 것은 形質이 地에서 生長하고 있으되 上의 陽氣를 受한 然後에 潔齊하는 것이므로 皿上白水의 字를 쓴 것이다.

豫와 觀이 雷風의 卦로서 春夏의 象이 되는데 豫에는 上帝에게 薦한다 하고 觀에는 薦치 아니한다 하니 薦이라 함은 神에게 올려 바친다는 뜻이라 觀卦는 陰精卦로서 上에 薦하면 반드시 上으로부터 光明을 受하여 月光을 生하는 것인데 觀은 달의 形質만 長하여 潔齊하고 아직 光을 受치 아니하므로 不薦이라 한 것이다. 顒은 大頭라는 뜻이오 顒若이라 함은 大頭를 仰觀한다 함이다. 觀은 달에 陽氣가 뭉치고 자라서 大頭의 象이 되어 天下에 觀示하고 天下는 그것을 仰觀하여 化함이니 上에서 觀示하고 下가 仰觀하고 함이 곧 陰陽이 或與或求하여 天의 陽氣의 圜行의 象이 되는 것이오 여기에 天의 神道가 있는 것이다.

易卦에 鬼神以外에 神을 말한 것은 오직 豫 觀 咸 三卦이니 神이라 함은 天地의 唯一神을 이름이다. 사람은 神에서 生하고 있으되 그 자라는 때에는 肉體가 遠心運動을 行하여 神으로부터 漸漸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日月의 運行, 四時의 往來, 萬物의 生成等이 모두 神의 所爲 卽神道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사람의 生生도 또한 神道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이다.

神은 太陽에 位하여 雷風의 氣로써 地上에 運行하므로 地上에 雷風이 있는 豫卦와 觀卦에 神의 象이 있는데 豫는 生의 時運에 一陽이 中爻를 出치 못하므로 神道는 行치 아니하고 다만 幾를 知함이 神하다 한 것이며 觀卦는 長의 時運에 天氣가 地에 下施하여 神道의 行하는 象이 되므로 天의 神道는 地上에 行하고 있으되 사람은 遠心運動을 行하여 神에 薦치 아니하는 것이며 또 神은 太陽에 位하고 있으되 神의 分身인 鬼神은 달에 居하여 神의 作用을 行하고 있으므로 (陽氣의 뭉치는 象의 觀卦에 神의 作用 卽 神道의 象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神道의 속에서 살고 있어 神을 祖考로 모시고 있는 것이므로 聖人이 神道로써 敎를 設하여 사람을 가르치니 神道의

敎는 사람이 遠心運動으로서 자라는 初期에 設하여진 것이며 咸은 雷風을 모두 內包한 澤山의 形質이므로 入神窮神이 된 것이니 이것을 神道의 敎로써 보면 咸恒時代는 神人이 合德하여 敎의 境域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九五는 天의 神道의 位로서 大觀하는 中心이 되고 陽氣가 뭉쳐 있어 萬物生生의 作用을 行하고 있으므로 我生卽神의 生生의 道를 下에 觀示하는 것이다. 九五와 六三에 觀我生의 象이 있는데 九五는 天位이므로 神道를 下에 觀示함이 곧 觀我生이오 六三은 地上의 人位이므로 天의 神道를 仰觀함이 곧 觀我生이며 進退라 함은 巽의 象이오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함이니 觀我生進退라 함은, 사람은 天의 神道를 仰觀하고 天의 神道는 下하여 地上의 人位에 接한다 함이며 그러므로 九五의 陽과 六三의 陰이 天人關係로써 一陰一陽하는 道를 失치 아니하는 것이다.

繫辭에 「天地之道貞觀者也」라 한바 이것은 乾坤이 사람에게 易簡의 道를 確然隤然히 示한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觀卦의 神道는 곧 易簡의 道이다.

序卦

臨은 달의 形質中에 陽氣가 자라서 大하는 象이오 觀卦는 形質에 陽氣가 뭉쳐서 달의 大觀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觀이 臨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天氣가 地上에 行하므로 地方風土를 省察하고 民衆에게 天道를 觀示하고

神道의 敎를 設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初六은 仰觀하는 位로서 最下最遠에 있고 形質의 最少한 것이므로 童象을 말한 것이오 또한 달의 光明이 비치지 못하여 小人道가 된 것이다.

觀은 四陰上進의 卦로서 下卦는 昏暗의 象이 되므로 初六에 君子吝 小人道라하고 六二에 闚觀이라 하니 闚는 頭를 傾하고 門中을 視함이라 豊 上六의 闚其戶와 觀六二의 闚觀은 모두 昏暗中에 處하여 家中을 視하는 것이다.

六三은 昏暗과 光明의 境界에 處하여 있는 사람의 象이므로 觀我生進退하는 것이다.

六四는 光明의 位에 上하므로 觀國之光이 되는 것이다. 觀은 大艮에 門闕의 象이 있고 九五의 陽이 門闕의 上에서 天下民을 觀하므로 王과 國의 象을 取한 것이오 賓이라 함은 民이 國王의 門에 入함을 象함이니 이는 六四의 陰이 門闕에 上한 象이다.

噬嗑　　火雷

噬嗑은 春의 震에서 夏의 離로 向하는 生長卦로서 陽氣의 極盛한 象이오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에 當하며 春夏에 物의 長함에는 반드시 他를 克하여 食物을 삼는 것이므로 他物을 食하는 뜻을 取하여 噬嗑이라 하고 頤中有物을 噬嗑이라 이른다고 한 것이다. 噬嗑의 象을 頤에서 取한 것은 두가지 象이 있으니 卦象으로써 보면 頤에 飮食하는 象이 있고 噬嗑에 또한 他를 食하는 象이 있으며 頤는 上止下動하고 噬嗑은 上麗下動하여 兩卦는

모두 飮食을 먹는 象이 되는 것이며 生成의 象으로써 보면 頤는 震으로부터 艮하여 生長의 極이 되고 噬嗑은 震으로부터 艮하는 中間에 離가 있고 離는 萬物이 모두 相見하는 象이니 이는 頤中에 萬物이 있는 象이다. 그러므로 頤와 噬嗑이 모두 生長卦이로되 頤는 冬至直前에 萬物이 終하고 다시 始하는 象이 되고 噬嗑은 春으로부터 夏하여 頤의 속에 萬物이 모두 나타나는 象이 되어 頤中有物이라 한 것이다.

噬嗑字는 모두 口로 되는데 噬는 씹어서 分解한다는 뜻이오 嗑은 合하여 먹는다는 뜻이니 이는 噬嗑에 分과 合의 兩象이 있는 까닭이다 噬嗑은 震으로부터 離하여 太陽의 午中한 象이 되므로 日中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噬嗑 貢는 乾象의 大明의 位에 當하는 것이며 午中은 上午 下午의 陰陽의 兩分하는 象이므로 이것을 剛柔分이라 한 것이오 節卦도 또한 子中에서 昨今兩日의 陰陽兩分하는 象이 되므로 剛柔分이라 한 것이다. 噬嗑은 또 雷電으로 되어 陰電氣와 陽電氣의 相衝하는 象이 되니 (噬嗑의 속에 豫와 같은 씨가 包含된다) 陰陽이 相衝하여 光明을 發하므로 이것을 雷電合而章이라 한 것이며 噬嗑에는 雷雨의 象이 없으므로 雷聲의 象을 取하지 아니한 것이다. 剛柔分과 雷電合而章이 곧 分하면서 合하고 合하면서 分하고 하는 象이니 사람의 飮食하는 것이 또한 分하면서 合하고 合하면서 分하는 것이므로 噬嗑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繫辭에 噬嗑의 象을 말하기를 「日中에 市를 만들어 天下의 民을 致하고 天下의 貨를 聚하고 交易하여 退하여 各各 그 所를 得케 한다」 하니 致와 聚는 合함이오 交易과 各得은 分함이다. 春夏에 草木이 자라서 枝葉이 各各 나뉘우는 것은 分이오 各各나뉘운 枝葉이 모두 嘉會하는 것은 合이니 그러므로 分과 合이 互根하는 것은 物이 春夏에 자라는 象이오 噬嗑은 春夏의 生長卦인 까닭에 分合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文王八卦圖의 四正生成卦의 理에 震子는 水에서 生하고 火에서 成하는 것이므로 水雷의 屯은 震子의 生하는 象이 되고 火雷의 噬嗑은 震子의 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噬嗑에 震子를 收合하여 여물게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噬嗑은 分과 合의 兩象이 있으므로 또한 生長과 收合의 兩象이 있으니 亨은 生長을 象함이오 利用獄은 收合을 象함이다. 그러므로 二 三 四 五의 中爻에는 모두 噬肉의 象이 있어 形質의 長育을 말하니 特히 噬肉을 말한 것은 頤中有物의 位가 바로 頤卦 虎視眈眈其欲逐逐의 位이므로 中四爻 口中의 位에 모두 虎의 噬肉의 象을 取한 것이오 初上의 兩爻에는 校의 象이 있고 校는 獄中에 木囚함이니 特히 木囚를 말한 것은 震木이 春夏에 徒長함을 制限하여 陽氣를 收合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噬嗑의 收合의 象을 草木의 例로써 보면 草木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世世로 繼承하는 것이오 열매를 맺기 爲하여는 陽氣를 內部에 包하여야 하는 것인데 初九의 雷動하는 陽과 上九의 火炎하는 陽은 外部로 發動하여 收合하지 아니하니 이는 草木이 生長하기만 하여 枝葉이 徒長하고 열매를 生치 아니함이다. 그러므로 草木은 生長作用을 行하면서 또한 收合作用을 行하여 陽氣를 內部에 包藏하는 것이니 六五의 陰은 成의 中心에 있어 陰精의 收合作用을 行하고 있으므로 初上二陽을 獄에 校囚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少年期는 發動을 主하는데 內的으로는 長育시키면서 外的으로는 收合시킨 然後에 天性이 여무는 것이오 少年期의 學校生活은 用獄의 한 形態이다.

獄字는 言과 兩犬으로 되는데 言은 陽氣의 發宣함이오 犬은 守家하는 物이니 兩犬이 陽氣를 守하여 發宣치 못하게 함이 곧 獄이다 噬嗑卦가 頤卦의 象을 取한 것은 頤卦에, 艮은 犬의 象이오 上下卦의 正艮倒艮은 兩犬의 象이오 또한 愼言語의 象이 있으니 頤卦는 兩犬이 陽氣를 守하여 獄의 象이 되므로 噬嗑卦는 陽氣를 收斂한다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獄字를 쓰고 또 兩犬이 言을 守하는 象이 있는 頤卦의 象을 取한 것이다.

噬嗑은, 離火가 上卦에 있는 卦는 모두 달의 象이 되므로 噬嗑에도 달의 象이있어 柔得中上行이라 하고 달의 陰精이 陽氣를 包合하므로 利用獄의 象이 된 것이다. 得黃金이라 함은, 黃은 坤土의 色이오 金은 乾象이니 六五가 收合하여 乾陽과 坤陰이 保合하여 달의 體가 長한다 함을 말함이다.

六五에 乾坤의 合하는 象이 있으므로 初上에 天地의 象을 말하니 六二는 生의 中心이오 初九震子를 包하는 位이니 噬膚滅鼻는 모두 震子가 六二의 形質中에 包在함을 象함이다. 膚는 皮膚이오 生의 中心에서 陽을 包하는 陰을 象함이오 噬膚는 初九의 陽이 六二의 陰中에 入함을 象함이다. 鼻는 사람이 形成되는 때에 鼻가 먼저 生하므로 始祖를 鼻祖라 하는 것이니 初九震子는 六子中에 가장 먼저 生하므로 鼻라하고 六二의 陰이 震子를 乘하여 包하므로 滅鼻라 한 것이다. 滅鼻滅趾는 모두 初九가 六二에게 包乘된 象인데 初九로써 보면 滅趾가되고 六二로써 보면 滅鼻가 되는 것이다. 初九의 屨는 下에서 載하여 地의 象이 되고 上九의 何는 上에서 覆하여 天의 象이 되는 것이다(睽三之天은 噬嗑上之何)

初九는 屨校滅趾가되니 屨는 足을 繫함이오 屨校는 木으로써 足을 繫하여 不行함이오 滅은 水와 戚(물께질혈)로 되어 火息의 뜻이니 陽이 陰中에 沒함이오 趾는 足이 一行一止하면서 行함이다.

初九의 震은 春夏生長卦의 陽으로서 陰中에 包藏되어 있은 然後에 世世傳承의 씨로 되는 것인데 만일 形質이 發揚하기만하고 그 속에 震子를 收保치 못하면 子仁이 生치 못하여 生生이 끊어지는 것이니 (噬嗑은 剛柔分의 卦이므로 달이 望한 後에 虧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달이 虧하면서 初九의 속에 震子를 包하므로 滅趾無咎의 象이 된 것이다) 噬嗑에 生長과 收合의 兩象이 있으므로 震이 發揚하면서 또한 收保不行하는 象이 되어 屨校滅趾라 한 것이다. 滅趾라 함은 足을 滅한 것이 아니오 足의 行함을 滅한 것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小人은 不仁함을 恥치 아니하고 不義함을 畏치 아니하고 利를 見치 아니하면 勸치아니 하고 威치 아니하면 懲치 아니하나니 小懲하고 大誡함이 이가 小人의 福이라 하니(噬嗑은 生長卦로서 여름에 自由意志를 濫用하여 生長競爭을 行하여 자라기만 하고 天性이 여물지 못한 者를 말함이다) 小人이라 함은 形質의 生長만을 主하고 精神의 여무는 것을 알지 못하는 者이오 恥畏勸懲은 모두 收合하는 象이오 福은 生命이 도움을 받는 일이다.

小懲大誡라 함은 小는 陰이니 形質의 象이오 大는 陽이니 精神의 象이라 肉體의 不仁不義함을 懲하여 精神을 여물게 하는 것이 곧 小懲大誡이니 이는 小人의 生命을 도와주는 일이라 함이다.

上九는 何校滅耳가되니 上九의 陽은 自體가 炎上하여 收合치 못하고 陽精水가 渴하여 科條가 枯하니 이는 離卦의 木의 科上槁의 象이오 科上槁가 곧 何校이며 耳는 坎象인데 水液이 渴하므로 坎의 耳痛이 되니 耳痛이 곧 滅耳이며 이는 上九에 生命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上九는 月虧의 極에 있으므로 聽不明하고 달의 虧가 貴의 天文時變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善은 積치 아니하면 足히 써 名을 成치 못하고 惡은 積치 아니하면 足히 써 身을 滅치 못하는지라 小人은 小善으로써 無益하다 하여 爲치 아니하고 小惡으로써 無傷하다 하여 去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惡이 積하여 可히 掩치 못하고 罪가 大하여 可히 解치 못한다」 하니 掩은 困卦의 剛掩의 뜻이니 不可掩이라 함은 陽이 陰中에 生育치 못한다 함이오 解는 解卦의 天地解 而雷雨作 雷雨作 而百果草木 皆甲坼의 뜻이니 不可解라 함은 百果草木이 枯하여 甲坼치 못한다 함이다.

乾坤文言에는, 坤文言에 子曰이 없고 繫辭에는, 各爻文言에는 오직 噬嗑上九와 損六三에 子曰이 없으니 子曰은 師傳의 말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易經은 長의 時運을 象한 것이므로 그 數가 洛書數 九에 止하고 十數가 열리지 아니하니 人身으로써 보면 十數는 女陰의 象이오 坤文言의 各爻와 噬嗑上九 및 損六三은 모두 女陰에 關한 일이므로 師傳는 아직 열리지 아니한 十數를 말하지 못한 것이다.

序卦

觀卦는 달의 形質에 陽氣가 뭉치는 象이오 噬嗑은 달의 陽氣의 生長이 盛하면서 또한 收合하여 陽氣를 包含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噬嗑이 觀에 次하는 것이다.

噬嗑

大象

大象의 例는 先에 上卦의 象을 말하고 次에 下卦의 象을 말하는 것이니 雷風恒 風雷益 같은 것이 그 一例이다. 噬嗑은 電雷라 하지 아니하고 雷電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雷鳴電閃하면서 雨하는 때에는 先에 電光을 見하고 다음에 雷聲을 聞하는 것이라 噬嗑卦는 下卦가 雷하고 上卦가 電하여 先雷後電하고 있으므로 雷電作雨하는 卦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雷와 電의 象이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文體의 表現을 先電后雷라고 하지 아니하고 先雷后電하는 雷電이라 한 것이다 豐卦는 上卦가 雷하고 下卦가 電하여 先電后雷하는 雷電作雨의 卦인데 만일 다만 雷電이라고 하면 文體가 先雷后電하는 뜻이 되어 雷電作雨하는 卦가 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雷電作雨하는 卦라는 뜻을 表하기 위하여 皆至라는 辭를 붙여서 雷電皆至라하니 雷電皆至는 雷電과 雨가 一時에 몰려오는 뜻이 되는 것이다.

刑罰은 雷와 같이 威한 然後에 사람이 그 畏懼할 바를 알고 電과 같이 明한 然後에 罪를 明察할 수가 있으므로 雷電의 卦의 大象에는 刑罰을 말하니 噬嗑의 明罰勅法과 豊의 折獄致刑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噬嗑은 雷電作雨의 卦가 아니오 다만 雷電合而章의 象이므로 罰과 法을 明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戒避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오 豊은 雷電이 皆至하여 雷鳴電閃하는 象이므로 刑罰을 實行하여 獄刑을 斷致하는 것이다.

六五爻의 位에 對하여 彖에는 不當位라하고 爻에는 得當이라 하니 彖에는 明罰勅法하는 雷의 威와 電의 明을 象한 까닭에 六五의 陰에는 明과 威가 없으므로 行罰의 不當位를 말하고 爻에는 陰의 收斂함을 象한 까닭에 用獄의 得當을 말하니 이는 行罰에는 不當하고 用獄에는 當한 것이다.

腊은 日光에 쪼인 肉이다.

胏는 肉을 分切하고 그 속에 骨이 있는 者이다.

賁 山火

賁는 山下에 火가 있으니 山이라 함은 火의 炎上에 依하여 地의 隆起한 것이라 火의 炎上하는 것은 山의 內部에 陽氣의 盛한 象이오 火氣의 炎上하는 山頂은 光彩의 發하는 象이니 이는 賁가 噬嗑과 反易하여 달의 자라는 象이 되는데 달의 속에 陽氣가 盛하여 光彩가 發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賁는 卉(훼)와 貝(패)로 되고 卉는 百草의 總名이오 貝는 貨貝로서 交易의 象이니 草木의 變化한다는 뜻이다. 賁卦는 陽氣가 자라서 上下의 陰陽이 서로 交易하는 것이므로 生長하던 草木이 變化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百草의 變化한다는 뜻의 賁字를 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天地에는 生長과 收斂의 兩作用이 있어 生長하는 것은 陽이 上하고 陰이 下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고 收斂하는 것은 陰이 上하고 陽이 下하여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이며 河圖時運은 生의 時運이므로 아직 收斂中에 있어 地天泰의 象이 되고 洛書時運은 長의 時運이므로 物이 生長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고 后天은 成의 時運이므로 物이 收斂하여 다시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가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 陰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는 所以이다. 噬嗑 賁는 달의 生長卦이오 噬嗑은 午中卦이니 午中에서 午門이 闢하면 달의 外面에 出하여 生長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噬嗑以前은 달이 收斂하여 地天泰의 象이 되고 噬嗑以後는 달이 生長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는데 噬嗑에서 午門이 開하면 스스로 反易하여 賁가 되는 것이므로 賁에서 泰가 變하여 否가 되는 것이다. 泰否의 變化를 賁卦의 象에 맞춰 보면 地天泰의

九二의 陽이 上爻에 上하고 上六의 陰이 二爻에 下來하여 賁가 되는데 陽이 上하고 陰이 下하는 것은 天地否의 象이므로 賁는 天地否의 象이 되어 달이 長하는 것이다. 賁의 彖辭에 「柔來而文剛」이라 함은 泰의 上六의 陰이 二爻에 下來함을 말함이오 「分剛上而文柔」라 함은 泰의 九二의 陽이 上爻에 上함을 말함이니 生의 時運의 泰象의 달이 變하여 長의 時運의 否象의 달이 되므로 彖에는 이것을 「天文」이라 하고「觀乎天文以察時變」이라 함은 泰象의 달이 否象의 달로 變하여 時運이 變化함을 말함이다. 泰象의 달이라 함은 陽이 下에서 長하여 光明의 漸大하는 달이니 이는 朔日부터 十五日까지의 달 卽 先望의 달이오 否象의 달이라 함은 陰이 下에서 長하여 光明의 漸消하는 달이니 이는 十六日부터 晦日까지의 달 卽 後望의 달이다. 坤彖에 「先하면 迷하다」함은 달이 太陽의 先에 있는 後望의 달이니 곧 長의 時運의 否象의 달이오 「後하면 主를 得한다」함은 달이 太陽의 後에 있는 前望의 달이니 곧 成의 時運의 泰象의 달이다. 그러므로 長의 時運이 終하는 때에 또한 長의 時運의 否象의 달이 다시 變하여 成의 時運의 泰象의 달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곧 渙節의 變化이다.

渙節은 收斂卦이오 節은 子中卦이다. 天地의 生成作用은 子午線의 闔闢運動에 依하여 行하는데 物의 生長할 때에는 午中에서 門이 먼저 闢하고 그然後에 萬物이 出하는 것이므로 卦序에 午中卦인 噬嗑이 先하고 달의 變化卦인 賁가 後하며 物의 收斂할 때에는 子中이 되기 前에 먼저 萬物을 藏하고 그 然後에 門이 闔하는 것이므로 卦序에 달의 變化卦인 渙이 先하고 子中卦인 節이 後하는 것이다. 渙以前은 달이 生長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고 渙以後는 달이 收斂하고 여물어서 地天泰의 象이 되는 것인데 物의 收斂하는 者는 物이 먼저 藏하고 門이 後에 闔하는 것이므로 節의 子門이 闔하기 以前에 渙에서 天地否의 달이 變하여 地天泰의 달이 되고 然後에 節의 子門이 闔하는 것이다.

否泰의 變化를 渙卦의 象에 맞춰 보면 天地否의 九四의 陽이 二爻에 下來하고 六二의 陰이 四爻에 上하여 渙이 되는데 陽이 下하고 陰이 上하는 것

은 地天泰의 象이므로 渙은 地天泰의 象이 되어 달이 여무는 것이다. 渙의 彖辭에 「剛來而不窮」이라 함은 否의 九四의 陽이 二爻에 下來함을 말함이오 「柔得位乎外而上同」이라 함은 否의 六二의 陰이 四爻에 上함을 말함이며 噬嗑의 午中에서 節의 子中까지는 三十六卦 二百十六爻이니 이는 乾策數二百十六의 理이다. 貴에는 人文의 象이 있는데 止라 함은 地氣가 上行하여 天을 接함이오 사람이 文明하여 天의 神道를 行한다는 뜻이니 이가 곧 人文이며 사람이 人文을 觀하여 이것으로써 天下를 敎化하여 여물게 하는 것이 곧 化成天下이다. 觀字는 觀卦의 觀示仰觀의 觀이니 天文과 人文에 모두 上에서 觀示하는 象이 있으므로 下에서 또한 仰觀한다 함이다.

六五는 成의 中心에 있어 分剛上而文柔하는 柔의 位이니 乾陽이 上하여 六五의 陰을 文하는 것은 天地否의 달의 象이다. 束帛戔戔이라 함은 束帛은 布에 文飾을 加함이니 이는 坤布의 上에 乾陽이 文飾함을 象함이오 戔戔은 殘傷함이니 布의 文飾의 殘傷은 곧 天地否의 달의 漸消하는 象이다.

初九는 柔來文剛하는 剛의 位이니 車는 輪轉함이오 徒는 足이 地에 着하여 步行함이다. 初九는 本乾體로서 上爻의 坤陰이 來하여 文飾한 것이므로 初九의 趾는 乾體의 車象을 舍하여 輪轉치 아니하고 坤陰에 附하여 行하는 徒步의 象이 된 것이다. 初九의 陽은 六二의 陰에 附하여 陰陽의 義가 있으므로 足이 地에 着하여 徒步하고 輪轉하는 車를 乘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달이 地에 附하여 徒步하는 形態로써 地와 함께 行하고 홀로는 輪轉치 아니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六四의 白馬翰如는 文王八卦圖의 四正生成卦인 屯 睽 噬嗑 節에 馬行의 象이 있음을 因함이니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 天地의 圜行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天으로 圜行함에는 震子인 馬를 乘하는 것이니 屯의 乘馬班如 睽의 傷馬勿逐 貴의 白馬翰如 渙의 用拯馬壯이 곧 그것이며 馬가 噬嗑 節에 있지 아니하고 貴 渙에 있는 것은 噬嗑 節에서 子午線의 闔闢이 생기면서 貴 渙에 剛柔上下하는 變化가 일어나므로 貴 渙에 馬行의 象이 있는 것이다.

皤는 老人의 髮白함이니 黑이 白으로 變함이오 坤陰의 昏黑이 天陽의 文貴를 承受하여 白으로 變함을 말함이다. 匪寇婚媾 (屯卦下參照)도 昏暗과 光明 卽 黑白의 象을 말함이다

泰의 六四는 坤陰의 昏暗의 位로서 失實의 象이 되는데 貴六四는 本泰六四로서 天陽의 文貴를 受하므로 皤와 婚媾의 象이 된 것이다.(皤의 老色은 또 乾坤二老의 相交하는 象이다)

序卦

噬嗑은 달의 陽氣의 極盛한 것을 內部에 收合하는 象이오 貴는 內部의 陽氣가 外向하여 光彩를 生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貴가 噬嗑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噬嗑 貴와 豊 旅는 雷威火明의 象을 取하여 法 政 罰 刑 獄의 象을 말하니 이는 法政罰刑獄은 威하고 明하고 하여야 함을 말함이다. 法이라 함은 社會의 生活秩序의 運用을 規定한 것이오 政이라 함은 法을 施行함이오 罰이라 함은 罪에 對한 制裁이오 刑이라 함은 罰을 執行함이오 獄이라 함은 人身을 拘囚함이다. 法政罰은 規定을 設하여 未來를 戒함이오 刑獄은 旣定한 罪를 執行하는 것이다. 噬嗑은 生長卦이오 生長은 未來를 向하여 進하는 것이므로 未來를 戒하기 爲하여 明罰勅法을 말하고 豊은 收斂卦이오 收斂은 事實이 이미 決定되고 있으므로 折獄致刑을 말한 것이며 貴는 噬嗑의 明罰勅法의 反易이므로 火明은 明庶政이 되고 山止는 無敢折獄이 된 것이다.

九三과 九四에 賁如 濡如 皤如 翰如의 如字가 있으니 이는 兩爻가 剛柔上下하는 中間에 있으므로 上下를 모두 從隨하는 中間性의 象이 있는 것이다.

剝 山地

剝은 一陽의 外現한 卦이다. 一陽卦로서 一陽이 中爻에 있는 者는 師 比 謙 豫의 四卦로서 모두 生의 時運에 物의 始生하는 象이 되고 一陽의 外現한 剝復은 長의 時運에 陽의 長成하는 象이 되므로 剝復에서 長의 時運의 달이 生光하여 復上의 天心月이 되는 것이다.

剝은 草木으로써 보면 下의 五陰은 枝葉이 枯落하여 陽氣의 剝盡하고 上의 一陽은 碩果가되어 世世繼承作用을 行하는 象이며 剝은 彖과 刀로 되어 刀로써 木을 刻함이니 剝卦는 木의 陽氣의 剝盡하는 象이 되므로 刀로써 木을 刻하는 象을 取하여 剝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剝復은 文王八卦圖의 致役乎坤에 當하니 坤은 달의 生하는 位이오 또 乾象의 大明終始六位時成의 位에 當하므로 剝에서 光明이 終하고 復에서 光明이 始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剝에 盈虛消息의 象이 있고 剝復에 모두 天行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辭에 天行을 말한 것은 蠱剝復 三卦인데 天行은 天地運行의 終始하는 象에 말하는 것이므로 乾元資始하는 蠱와 光明의 終始하는 剝復에 天行을 말한 것이오 小人長이라 함은 달의 暗黑面의 長함이다.

彖의 「柔變剛」이라 함은 陰이 長하면서 陽이 剝하여 內部로 들어간다 함

이니 兌卦九五爻의 孚于剝도 또한 陽이 中에 있고 陰이 外에 있음을 象한 것이며 「順而止之觀象也」라 함은 下坤上艮하여 一陽이 外現한 것은 一陽이 永遠不變하는 象을 觀示한다 함이니 觀字에는 觀示와 仰觀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易卦의 彖辭에 「象」字가 있는 것은 剝의 觀象也와 鼎의 鼎象也와 小過의 飛鳥之象焉과의 세 卦인데 繫辭에 「易이라 함은 象이라」하므로 象字를 日月이라는 뜻으로 써서 剝鼎小過에 모두 달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消息과 消長은 同一치 아니하니 消長이라 함은 物의 消하고 長하고 함을 말함이오 消息이라 함은 物이 消하여 休止하고 그의 次世代인 子息이 出生한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息은 休止하고 또 生殖한다는 뜻이다. 消息과 盈虛는 同一事物의 兩面이니 消息은 時間을 말함이오 盈虛는 空間을 말함이다. 달의 消하고 生하고 하는 것을 時間의 流行으로써 보면 消息이 되고 空間의 形狀으로써 보면 盈虛가 되는 것이다.

上九의 一陽은 永遠不滅하는 生命이 되고 있으므로 草木의 碩果가 消滅치 아니하고 世世繼承함과 같은 것이며 下 五陰은 두 一陽의 廬가되니 廬는 寄居함이라 農人이 田中에 寄居할 집을 作하여 春夏에 來居하고 秋冬에 撤去하는 것을 廬라하며 剝의 衆陰은 枝葉의 象이 되어 春夏에 生하고 秋冬에 枯落하니 이는 廬가 春夏에 來居하고 秋冬에 撤去함과 같은 것이며 剝廬는 枝葉의 枯落함을 말함이다 五陰中에 오직 六五는 一陽의 依附하는 宮人이 되고 六三은 一陽과 應하여 이 두 爻는 生命이 있고 그 外의 爻는 모두 生命이 없는 象이다.

序卦

賁는 泰象의 달이 否象의 달로 變하고 剝은 달의 形質이 完成된 象이니 그러므로 剝이 賁에 次하는 것이다.

剝의 初二四의 諸爻에는 剝牀의 象을 取하니 牀은 割木인 巽木의 象이니

巽은 陰木으로서 陽을 順受하는 陰器가 되는 것이므로 陰이 陽을 順承하는 것을 象하여 牀이라 하고 巽字의 丌가 또한 牀의 象이다 剝은 一陽이 上에 있어 天의 象이 되고 있으나 陰이 陽을 順承치 아니하고 도리어 陽을 變하는 象이 되므로 이는 巽卦의 陰順乎陽하는 牀을 剝하는 것이니 이가 剝牀의 뜻이다.

大象

厚는 坤의 厚載의 뜻이오 宅은 所托이니 物의 安定하는 것을 宅이라 한다. 山은 地로써 基를 삼는 것이 곧 厚下이오 山이 地에 安定한 것이 곧 安宅이다.

大象에 上을 말한 것은 오직 剝一卦이니 剝의 一陽은 永遠不滅하는 天行으로서 上에 在하여 法象을 垂示하는 天의 象이므로 社會의 君上의 位를 象한 것이다. 剝卦는 運行으로써 보면 柔가 剛을 變함이오 組織으로써 보면 天과 地의 象이니 彖은 運行의 象을 取하고 大象은 組織의 象을 取한 것이다.

剝卦는 陰이 陽을 剝하는 것이나 乃終에는 陰陽이 함께 剝하는 것이니 이는 一身中에 陰陽이 相衝하여 力으로써 相勝하여 氣를 傷害하면 畢竟一身이 衰虛하여 敗者와 勝者가 모두 그 傷害를 受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剝卦의 陰은 陽을 剝하면 그것이 또 自身을 剝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六三은 衆陰으로 더불어 收斂하여 陽을 剝하고 있으나 獨히 上九와 應하여 陽의 依附하는 宅이 되므로 無咎한 것이다.

魚는 巽陰의 象이오 寵은 陰中의 震子이니 六五는 上九의 依附하는 陰質이 되고 있으므로 巽陰의 속에 震子가 貫入한 象이다.

剝六五에는 貫이 있어 一而貫之의 뜻이니 一而貫之라 함은 自然數가 一로부터 자라서 올라간다 함이오 그 上爻에 碩果不食의 象이 있으며 明夷初九에는 翼이 있어 十而翼之의 뜻이니 十而翼之라 함은 自然數가 十까지 찼다 함이오 그 爻에 三日不食의 象이 있으니 一而貫之하여 碩果不食하는 것은 洛書月의 자라는 象을 말함이오 十而翼之하여 三日不食하는 것은 洛書月의 陰精이 그 長함을 極하여 陽을 承受하는 象을 말함이다.

復 地雷

復은 坤母中에 震子가 生하여 大震의 象이 되므로 易卦中에 上下卦로 보든지 全卦로 보든지 모두 震子의 象이 되는 卦는 오직 復一卦이며 復은 震子의 卦로서 一陽이 外現하여 長의 時運의 陽長하는 象이 되므로 復에는 長의 時運에 달의 光明의 始長하는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復에서 始長하는 달을 復上月 또는 天心月이라 하는 것이오 卦辭의 朋來는 달의 光明의 長함을 말함이다. 剝復은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는데 坤은 牝馬로서 달의 生하는 卦이므로 長의 時運의 달은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는 復에서 長하니 復의 朋來는 곧 坤의 西南得朋이다 復은 또 乾象의 大明終始六位時成의 位에 當하여 光明의 始하는 象이 되고 六位라 함은 三才의 位로서 天과 地와 달의 位를 말한 것이니 달은 三才位의 中心에 있으므로 天地之心이라 한 것이다.

復은 彳과 复으로 되어 彳은 小步이오 复은 故道를 行함이니 步行하여 道程을 往來한다는 뜻이다. 陽氣에는 生滅이 없고 顯藏만 있으므로 그 運動은 一顯一藏하면서 道程을 往來反復하는 것이라 復의 一陽은 달의 光明의 始長함이오 달의 光明은 太陽으로부터 承受하여 顯藏만 있고 生滅이 없으

므로 復卦의 달에도 光明의 反復한다는 뜻을 取하여 復字로써 卦名을 삼고 卦辭에 出入無疾이라 하여 陽氣가 陰中을 出入하여 顯藏하고 있으되 陽이 陰에게 陷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다.

反復其道라 함은 陽氣의 顯藏에 依하여 달의 光明이 一陰一陽하는 道를 往來함이오 七日이라 함은 달의 光明을 象함이니 復은 달의 光明의 始長하는 卦이므로 反復其道七日來復이라 한 것이오 달의 往來가 곧 天行이며 乾九三의 反復道도 또한 달의 反復함을 말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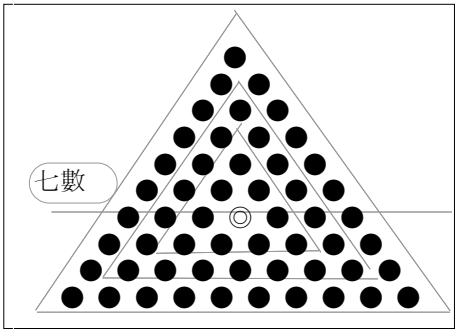
復은 下에서 一陽이 生하므로 一年으로써 보면 太陽의 北歸의 始인 冬至의 象이 되고 草木으로써 보면 繼世作用을 行하는 子仁의 象이 되고 사람의 天性으로써 보면 萬善의 長인 仁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卦爻에는 오직 乾九二와 復初九에 仁이 있는 것이다 天地之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그 하나는 天地의 中心이라 함이오 또 하나는 天地의 心性이라 함이다 天地의 中心이라 함은 大空間의 中心을 말하는 것인데 달은 地의 胎宮으로서 天의 太陽의 氣를 承受하여 光明을 生하므로 女體의 胎宮이 男女生殖의 中心器官이 되고 있음과 같이 달이 天地生生의 中心이 되어 萬物의 씨를 生한다 함이다. 달의 光明을 七日이라 하는데 天地自然數五十五는 天地數의 總數이오 天은 奇하고 地는 偶하여 天地의 形은 三角形으로되고 그 中心數는 七數이므로 天地中心數인 七數가 太陽의 光明을 받아서 七日卽 달의 象이 되니 이 까닭에 七日卽 달의 光明이 天地의 中心이 된다 하여 復卦의 달을 天心月이라 하는 것이다. 天地의 心性이라 함은 心性은 陽氣로서 震子에 根하여 生滅이없고 顯藏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心性도 사람의 死後에도 滅치 아니하고 鬼神이 되며 사람의 心性은 天地의 心性에서 稟受한 것이므로 天地에도 心性이 있으니 이것을 鬼神이라 하며 鬼神은 心性으로써 天地의 生生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復卦의 陽은 永遠不滅하는 一陽으로서 冬至의 象이 되어 顯諸仁 藏諸用의 作用을 行하므로 復卦의 陽을 天地의 心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復卦의 震子는 天地의 心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復卦의 作用에는 時義의

大한 象이 있고 時義의 大한 卦는, 豫 遯 姤 旅의 四卦인데 이 四卦는 모두 震子의 生長成과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豫는 復의 交易이오 復大象의 閉關은 豫의 重門擊柝과 對照되며 遯은 陽이오 復은 陽長이므로 復大象의 一陽의 長하는 至日은 遯의 陰浸長과 對照되며 姤는 復의 變易이오 復大象의 后不省方은 姤의 后以施命과 對照되며 旅는 震子가 陰體의 中宮에 旅하는 것이므로 復大象의 商旅不行과 對照되는 것이다.

初九爻의 一陽은 天地의 心을 出入反復하는 作用을 行하니 이는 天地의 心을 中心으로하여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을 行하는 것이오 中心을 出入反復하되 心에서 遠치 아니하고 向心運動에 依하여 그 道를 反復하니 이가 곧 不遠復이다. 小象의 修身은 反身修德의 뜻으로서 또한 不遠復하는 向心運動을 말함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顔氏의 子가 그 자못 庶幾한저 不善이 있으면 일즉 知치 못하지 아니하고 知하면 일즉 다시 行하지 아니한다 한 것이다.)

六五의 敦은 瓜가 蔓에 繫함이니 六二의 生의 中心에서 下種한 子仁이 六五의 成의 中心에서 열매가 맺는데 衆陰은 草木의 莖蔓의 柔弱한 象이오 莖蔓이 柔弱하고 열매가 土에 맺으므로 敦이라 하니 繫辭에 安土敦乎仁은 復의 敦復의 뜻을 말함이오 臨上六의 敦臨 艮上九의 敦艮이 모두 柔弱한 莖蔓에 열매가 맺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上六의 迷復은 坤象의 先迷의 뜻이니 迷는 달이 先하고 太陽이 後하고 한 洛書의 九二의 象을 말한 것이며 長의 時運의 달은 先迷의 달이다 復卦는 文王八卦圖의 西南 坤에 當하여 洛書의 二의 位가되고 文王八卦圖의 南方 離에는 日中의 象인 噬嗑이 當하여 洛書의 九의 位가되니 이는 달이 先하고 太陽이 後함이라 그러므로 復卦의 天心月은 長의 時運의

先迷한 달이 되는 것이다.

序卦

剝의 一陽이 下에 反하여 復이 되어 長의 時運의 달이 始長하는 것이므로 復이 剝에 次하는 것이다.

休復下仁은 六二가 生의 中心으로서 初九의 震子를 庇蔭하여 子仁을 下種하는 基底가 되는 것이다.

大象

彖辭에는 剛이 長하여 往함이 利하다 하고 大象辭에는 至日에 閉關하여 不行不省한다 하니 이는 彖辭는 地道가 天道를 承함을 말하고 大象辭는 人道를 말한 까닭이다. 天道로써 보면 陽이 往하여 陰을 遇한 然後에 長하는 것이므로 往함이 利한 것이오 人道로써 보면 一陽이 始生하여 微小하므로 往하여 陰을 遇하면 疾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一陽이 長하되 閉하고 行치 아니하고 省치 아니하는 것이다.

中行이라 함은 震子가 陰中에 行함이니 群陰中에 오직 六四가 初九와 應하여 中行이 된 것이오 獨復이라 함은 群陰中에서 홀로 初九와 應하여 復함이니 剝六三의 失上下와 同一한 뜻이다.

至于十年不克征은 復은 先迷의 달이므로 十年에 至할 때까지는 光明을 喪하여 克征치 못하는 것이다.

無妄　　天雷

無妄은 乾이 震子를 包하여 乾父가 陽子를 包有한 象이므로 元亨利貞의 四德이 있으며 萬物의 生生에는 반드시 世世繼承하는 生命과 自體의 任務인 使命이 있으니 이 作用을 天命이라 하므로 天命에는 生命과 使命의 두 作

用이 있는 것이라 無妄은 陽體를 組織한 陽氣가 되어 (臨卦下參照) 乾이 震子를 包하여 永遠繼承하는 生命과 그 物의 맡은 바의 使命과의 두 가지 作用이 있으므로 無妄은 天命卦로 되어 있는 것이다.

無妄은 易經에 无妄이라 쓰고 易經에는 無字를 모두 无字로 쓰고 있으니 이 까닭을 말하면 無妄大畜은 文王八卦圖의 西北의 乾에 當하는데 无字가 또한 无屈西北한다는 뜻이며 無妄卦의 天命이 또한 乾卦의 各正性命의 뜻과 相通하므로 無妄卦가 文王八卦圖의 西北에 있는 乾에 當한다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无屈西北의 象인 无字를 쓴 것이다. 妄은 虛妄함이니 天命이라 함은 사람의 알기 어려운 일이나 이것은 天地의 實理로서 虛妄함이 없다 하여 卦名을 無妄이라고 한 것이다.

天命의 構成에는 네 가지 作用이 合하여야 하니 一은 震子의 陽이 天으로부터 物의 內部에 來하여 物의 生生하는 主宰가 되어야 하며 二는 能動的으로 動하고 健健하여 休息함이 없어야 하고 三은 乾坤生命元이 生成의 中心에 있어 서로 應하여야 하며 四는 元亨利貞의 四德을 具有하여야 하는 것이니 無妄卦에는 이 네 가지 作用이 있으므로 天命卦가 된 것이다.

物의 生生에는 반드시 天性과 天命이 있는데 無妄卦는 乾象의 乾道變化各正性命의 位에 當하므로 天命의 象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도 天性과 天命이 있으므로 說卦에는「理를 窮하고 性을 盡하여 써 命에 至한다」고 한 것이다.

乾의 包有하는 震子는 乾을 繼世하는 씨로 되고 그 究가 乾健이 되어 次代의 乾으로 되는 것이니 震子가 次代의 乾으로 되는 것은 곧 그의 받은 바의 天命이며 그러므로 震子는 外로부터 內에 來하여 乾體中의 主가 되는 것이다. 震子는 形質에 依附되어 있으되 그것은 天과 一氣가 連脉하여 乾元이 되어 運行하고 있으니 사람의 呼吸運動같은 것은 天地의 收斂發散하는 闔闢運動과 連脉하고 사람의 눈의 開閉運動같은 것은 日月의 東西出入하는 晝夜運動과 連脉하고 있어 사람은 이 運動의 圈外로 벗어날 수가 없

는 것이오 이것을 天命이라 하는 것이며 震子가 上으로 乾과 連脉하여 있는 無妄卦에 天命을 말한 것은 이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天命이 있는 것이 아니라 生命과 使命을 가지고 運動하고 있는 萬物에는 모두 天命이 있어 그 運動에는 반드시 天命의 祐를 받는 것이오 만일 天命을 받지 못하면 그 運動은 不正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은 坤體中에 있는 復卦의 心과 같이 坤의 形質에 依附되어 個體의 形質에 屬하므로 거기에는 個人意志의 自由가 있고 天命은 乾의 陽氣에 連하여 天으로 더불어 함께 運行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는 人力의 미치지 못하는 運命이 있으니 天地의 大自然에 對하여 사람의 自由로써 作用을 加하여 그 一部를 變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形質의 象인 空間뿐이오 時間은 사람의 自由力의 全然미치지 못하는 境域이다. 사람의 呼吸으로써 보면 그 呼吸自體는 空間運動에 屬하고 呼吸의 連續은 時間運動에 屬하며 눈의 開閉로써 보면 開閉自體는 空間運動에 屬하고 開閉의 連續은 時間運動에 屬하니 空間에 屬하는 呼吸과 눈의 開閉는 그 形態를 變改할 수가 있으되 時間에 屬하는 連續運動은 그것을 變改하여 中斷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時間에 屬하는 것이 곧 天命에서 오는 運命이오 震子가 乾을 連하여 時間的運動을 行하는 것이 곧 天命이다.

九五는 天命의 中心位이오 天命은 人力의 미치지 못하는 境域이므로 疾에 걸리되 그 疾은 天命의 所致이오 人力에 依한 藥을 試用할 곳이 아니라 함이다.

初九는 彖辭의 「剛自外來而爲主於內」이오 大象의 「天下雷行物與」이니 初九는 天命의 行하는 것이므로 往하면 善이 生하는 것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으로서 九五의 天命을 應하고 있으므로 天命을 承하여 初九의 震子를 包하여 育하니 이가 田을 耕치 아니하되 스스로 種子를 얻어서 穀을 穫함이오 火田을 만들지 아니하되 스스로 火田이 이루어짐이며 이것은 男體의 火卵中에는 스스로 陽子를 育하고 그 陽子는 天命을 受하고

天에서 下來하여 內에 主가되고 있다 함을 象한 것이다.

無妄은 乾이 震子를 包하고 子仁이 여물어서 天命의 下來한 象인데 이 子仁은 乾이 坤體를 交하여 所得한 것이므로 下卦는 本坤體가 震으로 變하고 坤象을 失한 것이오 六三은 坤體의 極이므로 六三에 그 象을 말하여 或繫之牛行人之得邑人之災라고 한 것이다. 或繫之牛라 함은 坤의 牛象을 말함이오 行人之得이라 함은 行人은 天下雷行하는 初九震子이니 震子가 天에서 下來하여 坤體에 入하여 坤象을 變하고 震으로 된 것이 곧 行人得牛이오 邑人之災라 함은 邑은 坤體의 象이오 本坤體가 그 形을 失한 것이 곧 邑人失牛의 災이다. 六三爻辭의 本旨는 母가 子를 生하여 致役하고 自體가 消滅하여 犧牲이 되는 것은 이것이 天命이라는 뜻을 表한 것이오 이 爻辭는 萃卦의 用大牲順天命의 뜻과 相照하는 것이다

序卦

物의 生生에는 반드시 坤의 形質에 依附한 天性과 乾의 氣를 連한 天命이 있는데 復은 形質에 依附한 心性의 象이므로 乾의 氣를 連한 天命의 象인 無妄이 復에 次하는 것이다.

彖에는 無妄之往何之矣리오하고 初九에는 無妄往吉이라 하니 彖은 上九를 말함이라 無妄卦의 天命은 初九에 있는데 上九는 上에 窮하므로 天命不祐가 되는 것이오 初九는 天命自體이므로 往吉이 되는 것이다.

大象

雷行物與라 함은 乾이 震子를 包하여 天命이 되고 天命이 行하여 萬物이 應與함이니 이가 곧 乾의 長子인 震子가 形質의 속에 入하는 無妄의 象이다. 茂는 草와 戊로 되고 戊는 陽이 中宮에 入하여 草木의 枝葉이 茂盛함이니 이는 剛爲主於內의 뜻이오 對時는 時에 맞춤이니 이는 時間의 流行하

는 天命을 좇음이다 育은 子를 養하여 善을 作하게 함이니 民을 養하여 善을 行하게 함이 곧 天命이다.

大畜　　山天

大畜은 乾陽이 山의 形質의 속에 止하고 山上의 陽이 天을 接하여 光明을 生하는 象이니 無妄卦와 同宮하여 內에 天命이 있고 文王八卦圖의 西北의 戰乎乾에 當하여 乾陽이 陰中에 入하고 萬物이 여물어 各其 固有의 性命을 가지고 하는 象이므로 草木으로써 보면 열매의 속에 子仁이 여물어서 次代의 父가 되는 象이오 달로써 보면 陽氣가 長成하여 光明을 發하는 象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中의 陽子가 發育長成하는 象이니 大畜은 互歸妹를 包하고 歸妹는 씨의 象이므로 陽體의 씨인 陽子의 長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大畜은 小畜과 大有를 合한 象이므로 畜字와 大字를 써서 大畜이라 한 것이다. 小畜은 天空에 있는 一陰이 乾陽을 包하여 달의 形質을 畜하는 象이오 大有는 달이 光을 發하고 사람의 精化의 씨의 生하는 象인데 大畜은 달의 光明이 자라서 畜하고 사람의 陽子의 長成한 象이며 그 卦象도 三卦가 모두 乾을 包하고 小畜의 六四와 大有의 六五가 合하여 大畜의 六五六四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大畜은 小畜과 大有를 合한 象이 되는 것이다.

象에 剛健을 말한 것은 需 大有 大畜의 三卦이니 이는 大畜에 需의 養物의 象과 大有의 陽養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日新其德이라 함은 繫辭의 「日新之謂盛德」이라는 易簡作用을 말함이니 달의 形質의 始生하는 小畜과 달의 光明의 始生하는 大有에 富有之謂大業

이 있으므로 小畜과 大有를 合하여 달의 光明의 長成한 大畜에 日新盛德을 말한 것이다. (日新者 光明之每日增長 乃月之象也)(利涉大川者 陽精水之施於陰體之意 故皆在上經之陽體也 下經唯益之 天施地生之卦也)

日은 太陽의 運行함이오 新은 改新함이니 大畜은 달이 太陽의 光明을 承受하면서 不斷히 그 光明을 改新하여 輝光한 달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日新이라 한 것이다. 賢이라 함은 달의 光明을 象함이니 大有卦下에 씌어 있다.

彖에는 그 德을 日新한다 하고 大象에는 前言往行을 多識하여 써 그 德을 畜한다 하니 德을 畜함은 過去의 言行을 多識하는 知이니 이는 繫辭의 「知以藏性」의 뜻이오 德을 日新함은 未來를 前知하는 神道이니 이는 繫辭의 「神以知來」의 뜻이다. 彖에는 未來를 向하여 日新又新하는 神道를 말하고 大象에는 往事를 彰明하여 過去를 察하는 知를 말하니 德을 畜하는 것이 곧 德을 新하는 所以이므로 過去를 識하는 것이 또한 未來를 知하는 所以이며 過去와 未來는 時間의 同一線上에 있는 것이므로 雜卦에는 「大畜은 時이라」 한 것이다.

大畜은 文王八卦圖의 四維卦로서 北方의 坎을 夾하고 또 歸妹의 씨를 互하므로 六五에 豶豕의 牙를 말하니 豶은 羠豕이오 牝을 羠라하며 牙는 牡齒이오 牡는 씨를 保有하는 것이니 豶豕의 牙라 함은 六五의 牝豕가 天의 牡의 氣를 應하여 그 씨를 保有한다 함이오 이는 大畜에서 陰陽이 合德하여 陽子가 長成한다 함을 말함이다.

九三의 良馬와 六四의 童牛는 乾坤을 말함이다. 馬는 火性이므로 上을 向하여 乾의 象이 되어 剛하고 用力하는 때에는 首를 擧하여 天을 向하며 牛는 水性이므로 下를 向하여 坤의 象이 되어 柔하고 用力하는 때에는 首를 俯하여 地를 向하는 것이니 九三의 馬는 上으로 天을 向하는 것이오 六四의 牛는 下로 地를 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牛馬가 서로 制止하여 그 德을 畜하는 것이다.

大畜의 달은 上九에서 光明을 發하여 天空을 運行하니 衢는 通치 아니하는 곳이 없는 行路이므로 달의 行路를 象하여 天의 衢라 한 것이다. 何는 荷와 通하여 負荷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行路는 足底에 있으나 日月의 行路는 天의 經道에 있으니 이는 日月이 天의 經道를 背에 負荷하고 運行함이라 그러므로 天의 衢를 何한다 함은 日月이 天空中을 運行함을 象한 것이다. 荷字를 쓰지 아니하고 何字를 쓴 까닭은 荷字는 物을 肩背에 負한다는 뜻인데 日月이 天의 經道를 背荷하는 것은 肩背에 物을 負荷하는 것이 아니므로 何字를 쓴 것이오 噬嗑의 何校도 또한 天을 何한다는 뜻이므로 噬嗑을 象하기를 天且劓라 한 것이다.

彖辭의 不家食도 또한 上九의 象인데 家는 啄屋으로서 九三의 閑 六四의 牿과 같은 啄의 뜻이오 食은 陰에 가리워 있는 艱의 뜻이니 不家食이라 함은 上九의 달이 啄하거나 艱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光明이 日新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序卦

無妄에서 震子가 內에 來하여 씨의 天命을 受하고 大畜에서 씨가 長成하여 光明을 日新하므로 大畜이 無妄에 次하는 것이다.

大畜은 陽體中에서 陽精水의 畜하는 것이므로 利涉大川의 象이 되는 것이니 六五의 陰質속에 九二 陽氣의 水가 畜하여 있는 것이다. 小畜의 九三은 輿脫輻이 되고 大畜의 九二는 輿脫輹이 되니 輻은 圜轉하는 車輪의 살이오 輹은 車의 構造의 中心인 굴대통이라 小畜 大畜은 모두 陽을 畜하는 陰이 車輿의 象이 되는데 小畜은 風行天上하므로 車의 輪行하는 象이 되고 六四의 陰이 九三의 行을 畜한 까닭에 輿의 圜轉하는 輻을 脫하는 象이 되며 大畜은 天이 山中에 在하므로 車의 構造의 象이 되고 六五의 陰이 九二의 乾 中心을 畜한 까닭에 輿의 中軸인 輹을 脫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良馬는 乾象으로서 下三爻의 乾全體를 畜함을 象한 것이니 閑은 馬廐로서 初九의 陽을 馬廐에 매어둔다는 뜻이오 家人 初九의 閑字도 陽을 매어둔다는 뜻이며 輿는 馬를 메우는 것으로서 九二의 陽을 脫輹한 輿에 매어서 行치 못하게 함이오 衛는 外垂의 邊境을 守함이니 九三은 陽이 陰과 相界한 外垂이오 馬를 追하여 邊垂의 안에 守함이다.

無妄六三에 行人震子가 得牛하여 次世代의 牛가되고 母牛가 喪하였으므로 大畜六四에는 次世代인 童牛가 牿하니 이는 无妄初九의 牛가 大畜六四에서 牿함이오 이가 后天丑運의 始하는 곳이다.

序卦에는 乾에서 大畜까지가 二十六卦이오 乾에서 甲子가 起하면 己丑이 大畜에 當하니 己丑은 后天丑運의 始이다. 大畜初九에 己가 있고 六四에 牛가 있고 牛는 丑이니 이는 大畜에 后天己丑運의 陽씨가 있음을 表한 것이며 童牛는 陽씨이다.

文王八卦圖 互歸妹之大畜은 上爻陽 下爻陽 故男體中包씨之象也

頤　山雷

頤는 生長卦로서 長男震으로부터 少男艮에 이르러 陽의 生長을 極한 象이되고 陽의 生長이 極하면 반드시 陽子를 陰體에 施하여 次世代를 生하여 生生하는 象이 되므로 頤에 天地가 萬物을 養하는 象이 있는 것이오 頤는 言辭를 修하여 精神을 養하고 飮食을 먹어서 形質을 養하고 하는 곳인데 頤卦는 文王八卦圖의 震에서 出하여 艮에서 成하고 震과 艮의 사이에서 精

□

神과 形質을 養하는 것이므로 震艮은 하나의 口頤로 되는 것이오 上艮下震하여 上止下動함이 上下頤와 같으므로 卦名을 頤라 한 것이다.

頤 大過는 文王八卦圖의 勞乎坎에 當하고 乾彖의 保合太和乃利貞에 當하여 陽氣가 陰精의 속에 入하는 象이 되므로 頤 大過에는 陽體의 陽子를 陰體에 施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頤卦가 震에서 艮하는 것은 屯蒙과 相似하나 屯蒙은 反易이 있는 三男生長卦이므로 物의 씨의 發生하는 象이 되고 頤는 陽體의 씨가 生長을 極하고 陰體에 入하는 象이 되는데 陽體의 씨가 陰體에 入함에는 반드시 圓狀으로 되어 顚倒하여도 外形이 變치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頤는 反易이 없고 圓狀으로 顚倒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六二 六四의 顚은 이 뜻을 말함이다.

頤는 反易이 없어서 反生치 못함으로 自體의 變易에 依하여 그 生을 繼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變易하는 大過와 同宮하여 生生하는 것이다.

頤는 言辭를 出하고 飮食을 먹는 곳이라 萬物中에서 複雜한 意思를 通하는 言辭를 쓰고 水火로써 調理한 飮食을 먹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며 言辭를 修하여 精神을 養하고 飮食을 먹어서 形質을 養하고 하는 것은 口實의 重要한 일이다. 頤卦의 頤養하는 道는 人間만이 가지고 있는 言語와 飮食을 正하게 하여 精神과 形質을 養하는 것이니 이가 곧 養正이오 養正의 象은 頤卦와 蒙卦의 震艮卦에 있는데 養正은 모두 聖人의 事業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天下의 長子 震이 聖人으로서 少男을 敎育하는 理를 말한 것이다.

觀頤라 함은 觀에 觀示 仰觀의 두 가지 뜻이 있어 天에서 頤養의 道를 사람에 觀示하고 사람이 天의 頤養의 道를 仰觀하고 함이 곧 觀頤이다. 그 所養함을 觀한다 함은 그 所養함이 精神인가 形質인가 함을 上에서 觀示하고 下에서 仰觀하며 그 自養함을 觀한다 함은 그 自養함이 精神인 때에는 言辭를 修하는 道를 求하고 그 自養함이 形質인 때에는 飮食을 먹는 道를

□

求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上에서 觀示하고 下에서 仰觀하는 것이다. 「天地가 萬物을 養한다」 함은 天地가 萬物을 生養하는 道를 觀示하고 萬物을 生養하는 資料를 産出함이오 聖人이 賢을 養하여 써 萬民에 미친다 함은 聖人이 天地의 道를 본받아서 師傅의 道를 行하여 賢人을 養하고 賢人으로 하여금 天工을 代行하여 物貨를 生産하고 制度를 設하여 民生을 厚하게 하는 일이다.

頤는 文王八卦圖에 震으로부터 艮하는 象으로서 震에서 反生한 物이 艮에서 成終하고 다시 艮에서 成始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頤에는 時運이 變化하여 終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震에서 艮한다 함은 震에서 生하고 震이 倒하면서 艮에서 成하는 象이 되므로 上卦는 正艮이오 下卦는 倒艮이니 그 까닭에 上卦 正艮의 爻는 모두 吉하고 下卦倒艮의 爻는 모두 凶한 것이다. 上卦는 南方에 屬하고 下卦는 北方에 屬하는데 艮은 狗의 象이라 南은 陰方으로서 牝이 되고 北은 陽方으로서 牡가되어 서로 交精하는 것이며 狗의 交精함에는 반드시 倒交하여 牝牡의 首가 서로 反行하니 下卦는 北의 倒艮으로서 牡가되어 施精作用을 行하고 上卦는 南의 正艮으로서 牝이 되어 受精作用을 行하는 것이며 南北의 牝牡交精에 依하여 次世代의 艮이 生하여 成終成始하니 이가 頤卦의 時運變化의 象이다.

時大矣哉

易卦에 時大矣哉를 말한 卦는 解 革 頤 大過의 四卦이니 이는 春夏秋冬의 四時의 變化함을 말함이다 解는 天時가 冬으로부터 春에 推移하고 地氣가 北으로부터 東에 流行하여 春分의 時가되어 寒氣가 解하고 雷雨가 作하고 百果草木이 모두 甲坼하여 春의 生이 되니 이를 春의 解라하여 解의 時가 大하다 한 것이오 革은 天時가 夏로부터 秋에 推移하고 地氣가 南으로부터

□

西에 流行하여 秋分의 時가 되어 鳥獸의 羽毛가 脫落하여 稀革하여 秋의 成이 되니 이를 秋의 革이라 하여 革의 時가 大하다 한 것이다.

十一月 冬至에 太陽이 北歸하면서 一陽이 下에서 生하여 復卦의 象이 되고 陽이 漸長하여 十二月에 臨卦 正月에 泰卦 二月에 大壯卦 三月에 夬卦의 象이 되어 將且 上에 殘存한 一陰을 決하려 하는데 天地의 生生은 一瞬間도 獨陽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四月에는 陰이 終盡하는 것이 아니오 夬와 姤의 中間 形態가 生하여 上下 二陰이 中間의 四陽을 包하여 大過卦의 象이 되니 이는 陽이 過盛하여 스스로 顚倒하여 陰中에 入하면서 夏至 直前의 象이 되며 그러므로 雜卦에 「大過는 顚함이라」 한 것이오 大過는 顚하여 夏至로 되는 까닭에 大過의 時가 大하다 한 것이다.

五月 夏至에 太陽이 南歸하면서 一陰이 下에서 生하여 姤卦의 象이 되고 陰이 漸長하여 六月에 遯卦 七月에 否卦 八月에 觀卦 九月에 剝卦의 象이 되어 將且 上에 殘存한 一陽을 剝하려 하는데 天地의 生生은 一瞬間도 獨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十月에는 陽이 終盡하는 것이 아니오 剝과 復의 中間 形態가 生하여 上下 二陽이 中間의 四陰을 包하여 頤卦의 象이 되니 이는 陰이 過盛하고 스스로 收斂하고 陰의 속에 陽을 胚胎하여 冬至 直前의 象이 되며 그러므로 頤卦에 顚과 拂이 있는 것이오 頤가 顚하고 拂하여 冬至로 되는 까닭에 頤의 時가 大하다 한 것이다.

文王八卦圖의 四正의 理로써 보면 節과 噬嗑은 解 革과 같이 天時와 地氣가 冬夏와 南北으로 流行하는 卦인데 거기에 時大矣의 象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解 革은 다만 天時와 地氣가 春秋와 東西로 流行할뿐만 아니라 또한 頤 大過와 같이 顚倒하는 象이 있으니 解卦의 春의 生은 內로부터 坼出하여 反生하는 것이오 革卦의 秋의 成은 水液이 下로 轉行하여 根으로 歸하는 것이니 反生과 歸根이 모두 顚倒의 象이며 이 顚倒의 象이 있는 까닭에 時大矣가 되는 것이다. 節은 秋로부터 冬하고 西로부터 北하여 子中의 象이 되고 噬嗑은 春으로부터 夏하고 東으로부터 南하여 午中의 象이 되니 子中 午中에는 剛柔分의 象은 있으나 顚倒의 象이 없으므로 時

□

大矣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頤는 養物의 卦이오 上下 二陽은 天地 養物의 位로서 養物의 主가되며 各 陰爻는 二陽의 養을 求하는 것인데 下에 養을 求하는 者는 顚이 되고 上에 養을 求하는 者는 拂이 되니 顚은 顚倒함이오 拂은 逆行함이라 頤에 顚倒의 象이 있으므로 顚과 拂이 있는 것이다.

初九를 養主로 한 것은 初九를 包하는 六二와 初九를 應하는 六四이므로 六二와 六四는 顚이 된 것이오 上九를 養主로 한 것은 上九를 應하는 六三과 上九를 承하는 六五이므로 六三과 六五는 拂이 된 것이다 頤는 文王八卦圖의 震에서 艮하여 地의 八方을 一圜하고 있으므로 日月이 天의 經道를 一圜하는 象이 되니 屯卦 大象의 經도 또한 屯蒙이 震에서 艮하여 地를 一圜하는 象이 있으므로 經의 象을 取한 것이다. 頤에는 顚과 拂의 象이 있으므로 日月의 行度도 從來의 經道를 逆行하는 象이 되니 六二의 生의 中心과 六五의 成의 中心에 拂經이 있는 것은 이 理를 말한 것이다.

六四에 虎視의 象이 있는 것은 頤는 大離로서 달의 生長이 極하여 全面이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虎眼과 같이 火光을 發하는 까닭이다. 虎는 乾陽을 象하는 것인데 頤의 받는 太陽의 光明은 곧 乾陽의 光明이므로 頤 六四의 달의 位에 虎視하는 火光을 말한 것이오 眈眈이라 함은 允은 淫淫히 行함이니 視하기를 淫淫히 한다는 뜻이오 逐逐은 大畜의 良馬逐 睽의 喪馬勿逐 等의 逐으로서 陰陽의 相待함을 말함이니 虎視眈眈 其欲逐逐이라 함은 六四가 初九를 應하여 相交하는 象을 말함이다 初九의 말한 바의 靈龜는 곧 六四이니 龜는 損益의 龜와 같이 달의 離火宮의 象을 말함이오 靈은 神의 精靈이니 虎는 神靈을 接하고 있다 하여 虎에 靈을 말한 것이다 初九는 顚倒하여 上九의 艮果가 되고 自體는 樹木의 下垂한 朶가 되고 있으므로 그 相應하는 靈龜의 속에 胎育되지 못하여 子仁이 없고 形質만 남아 있는 것이다. 初九의 子仁은 六四의 虎에게 噬食되므로 初九는 乾의 貴를 失하고 六四는 乾陽의 虎視가 된 것이다.

□

六四의 虎視는 履卦의 履虎尾 革卦의 虎變과 相照하고 있으니 履의 虎는 生의 時運의 달이오 頤의 虎는 長의 時運의 달이오 革의 虎는 萃의 母胎中에서 胎育되어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胎中의 달이며 履와 萃는 그 卦序가 三十六卦 二百十六爻의 乾策數로 되고 頤는 그 中間에 있는 것이다. 履의 虎에는 사람의 씨의 生하는 理를 말하여 不咥人이라 하고 頤의 虎에는 神靈이 있어 사람의 生成이 神靈의 作用에 依한다 함을 말하고 革의 虎에는 大人虎變 君子豹變이 있어 大人 君子의 出生함을 말하니 사람의 씨가 달에서 生하므로 달과 사람에 모두 虎의 象을 取한 것이며 成의 時運에 出生하는 大人君子는 革의 虎와 같이 眼에서 火光을 發하고 頤의 虎와 같이 神靈을 接하고 하는 것이다.

序卦

大畜은 男體의 陽子의 長成을 極한 象이오 頤는 陽子가 여물어서 顚倒하여 陰體에 發施되는 象이니 그러므로 頤가 大畜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山下有雷는 地의 表土에 雷가 있는 것이니 雷가 表土에 있으므로 養物의 象이 된 것이다.

言語에 愼을 말하니 愼은 心과 眞으로 되어 있으므로 言語를 愼함은 心을 養하는 所以이오 飮食에 節을 말하니 節은 一年中 形質을 生養하는 氣候의 節度이므로 飮食을 節함은 形質을 養하는 所以이다.

上九에 利涉大川의 象이 있는 것은 陽씨가 陰體로 넘어가는 때에는 圓狀을 띠고 水液中에 싸이는 것이므로 頤卦가 無反易한 圓形이 되고 上九의 陽에

□

陽精水를 陰體에 施하는 利涉大川의 象이 있는 것이다.

大過　　澤風

大過는 兌巽으로 된 生長卦로서 四陽이 二陰中에 있어 陽이 生長을 極한 象이 되고 陽의 生長이 極하면 度를 過하여 行하여 陽體로부터 陰體로 넘어가서 陰體中에 들어가는 것이며 陽이 陰體中에 들어가는 때에는 陽子는 반드시 顚倒하는 것이므로 卦名을 大過라하니 大는 陽의 象이라 陽이 度를 過하여 顚入한다 함이다. 大過는 反易이 없어서 反生치 못하고 自體의 變易에 依하여 그 生을 繼續하는 것이므로 그 變易하는 頤와 同宮하여 頤의 陽子가 곧 大過의 顚入하는 陽子이다. 大過는 頤와 함께 文王八卦圖의 勞乎坎에 當하고 乾象의 保合太和 乃利貞에 當하여 陽이 陰中에 入하는 것이므로 大象에 遯世無悶의 象이 있으니 遯世無悶이라 함은 乾卦 潛龍의 象이라 大過는 北方 坎水中에 陽이 潛隱하여 있는 象이다.

棟은 木과 東으로 되어 東方木인 震子를 象함이오 橈는 萬物을 橈하는 巽風을 象함이니 棟橈라 함은 陽이 顚倒하여 震子가 巽陰의 中에 入함을 象함이오 本末은 上下二陰이니 初六은 本이오 上六은 末이라 本末이 柔弱하여 過盛한 四陽을 勝치 못함으로 陽이 顚倒하는 것이다. 陽이 顚倒하되 生成의 中心에 陽이 있고 巽股에 入하여 澤精中을 行하므로 震子가 入胎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時大矣哉　頤卦下

九二와 九五에 枯楊이 있으니 楊은 木과 易으로 되어 陽木이라는 뜻인데 楊은 또 雌木과 雄木의 區別이 가장 明確한 나무로서 澤邊에서 生育하는 것이므로 陰陽相交하는 上澤下木의 象의 大過卦에 楊을 말하고 또 陽의 顚倒하는 象의 卦이므로 生成中心의 木에 枯의 象을 取한 것이다. 大過는 陽體가 陰體를 交하여 陽子를 陰體中에 施하고 陽體의 陽器는 喪亡하는 것이므로 陽體는 枯楊이 되고 陽子는 生稊生華가 되는 것이다.

稊라 함은 新生하는 싹이니 九二는 生長卦의 生의 中心이므로 稊가 生하고 稊는 陰象이다. 老夫라 함은 九二의 枯楊을 말함이오 女妻라 함은 年少한 妻라는 뜻으로서 新生한 稊를 말함이니 이는 九二의 生의 中心에 陽이 入胎되어 싹이 새로 生함을 象함이다. 九五도 枯楊이오 華는 花이니 이는 生長卦의 成의 中心이므로 열매를 맺기 爲하여 花를 生한 것이오 花의 속에는 次世代의 生命인 열매가 있으니 花는 陰이오 열매는 陽이며 花는 열매를 맺은 뒤에 自體가 老衰하여 終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花는 老婦의 象이 되고 열매는 年少한 士夫의 象이 되니 이는 九五의 兌澤의 陰이 陽을 受하여 열매를 맺는 象이오 大象의 澤滅木은 九五의 象을 말함이며 無咎無譽라 함은 坤의 括囊의 뜻이니 九五에서 受胎하고 胎宮을 括囊한다 함이다.

九三은 棟橈가되고 九四는 棟隆이 되니 이는 九三 九四가 四陽의 中央에 있어 가장 盛한 까닭이다. 上下卦를 各卦로써 보면 下卦는 下에 있는 初六은 本이 되어 弱하고 上에 있는 九三은 盛하니 本이 弱하고 上이 盛한 까닭에 九三은 下에 輔가 없어 棟橈가 되고 上卦는 上에 있는 上六은 末이 되어 弱하고 下에 있는 九四는 盛하니 末이 弱하고 下가 盛한 까닭에 九四는 下가 橈치 아니하여 棟隆이 된 것이다. 그러나 九四의 陽이 初六의 巽股와 應하므로 有它吝의 象이 되니 它는 初六의 股를 가리킴이라 九四가 初六을 犯하면 進路가 窮하다 함이다.

大過는 震子가 陰體에 入胎되는 卦이오 入胎됨에는 巽股를 通하는 것인데 初六은 그 巽股의 位에 當하는 것이다. 震子의 入胎에 茅의 象을 取한 까

닭은 泰에서 天地가 交하여 茅茹를 拔하고 否에서 茅茹를 拔하여 包하니 茅茹는 震子를 象한 것이므로 大過의 陰陽相交에도 또한 茅의 象을 取한 것이오 이는 또한 易卦의 三十六卦 二百十六爻數의 理에 泰의 交와 升의 生이 三十六數로 되고 大過는 그 中間數로서 交와 生의 中間인 顚入의 位에 있는 까닭이다.

大過는 茅茹인 震子가 巽股에 入하는데 震巽은 長男長女의 相配하는 것이오 巽의 色이 白하므로 巽股를 白茅라하니 藉用白茅라 함은 巽股와 震茅는 비록 雷風이 相薄하여 相戰하는 象이 되고 있으되 大過의 初六은 柔하고 弱하여 震子와 相戰치 아니하고 愼重하여 白茅로써 茅茹를 交包한다 함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진실로 地에 錯하여도 可하거늘 藉함에 茅를 用하니 무엇이 異各함이 있으리오 愼重함의 至極함이다. 茅의 物됨이 薄하나 그 用은 可히 重하니 이 術을 愼하여 써 陰陽이 相求하면 그가 失하는 바가 없으리라」 하니 錯은 上下로 相交함이오 薄은 雷風의 相薄함이오 失하는 바가 없다 함은 巽이 震子를 包하여 失치 아니한다 함이다.

序卦

頤는 陽體의 陽子를 陰體에 施하는 象이오 大過는 陰體가 陽子를 承受하는 것이므로 大過가 頤에 次하는데 頤大過는 顚倒의 象이므로 모두 發施承受의 過程에 있는 象이다.

大象

澤滅木이라 함은 震子가 兌澤中에 涉入함이다. 獨立不懼는 胎兒가 胎宮에 獨立하여 있음이오 遯世無悶은 乾初九潛龍의 象으로서 震子가 胎宮에 潛隱한 象이다.

過涉滅頂은 陽이 陰을 交하는 象이니 凶은 陽體의 陽器를 말함이오 无咎는 陽씨가 陰體內에 入함을 말함이다.

習坎　　重水

習坎은 重坎을 말하는 것인데 易卦의 八原卦中에서 딴 字를 加하여 卦名을 삼은 것은 오직 習坎 一卦이니 習은 鳥數飛라는 뜻으로서 習坎은 飛水를 象함이다. 習坎은 上水下水로 되어 水가 上으로부터 繼繼下流하는 象이오 水가 繼繼下流하는 것은 震子를 含한 生命水가 陽體로부터 陰體에 施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習坎의 飛水는 天으로부터 地에 下來하는 生命水로서 곧 需訟의 天水이오 習坎의 有孚도 또한 需訟의 有孚이며 乾九五의 飛龍은 需訟의 天水에 依하여 地에 下來하는 것이므로 習坎의 飛水는 또한 乾飛龍의 下來하는 天水이다. 易卦中에 利涉大川이라는 말은 모두 天이 陽精水를 地에 下施한다는 뜻으로서 天地의 陰陽相交함을 象한 것인데 陽精水는 太陽에서 나오는 震子를 含한 生命水를 말하는 것이니 太陽에서 오는 陽精水와 地上을 흐르는 地水와의 重水가 곧 習坎이오 重坎에 이 뜻을 表하기 위하여 特히 習字를 加한 것이다. 또 習字를 加한 理由의 하나는 長의 時運의 사람은 地上을 다니고 成의 時運의 사람은 空中을 飛行한다는 뜻을 表하기 爲함이니 長의 時運의 사람은 虫과 같이 地上을 다니는 것이므로 사람의 男女分化하는 卦에 蠱字로써 卦名을 삼고 사람의 第二世인 后天人의 胚胎하는 卦에는 사람의 飛行하는 象을 取하여 鳥飛를 象한 習字와 離字를 쓰고 사람의 胎育하는 卦인 小過卦에는 飛鳥를 말한 것이다.

習坎水는 上水下水로 되어 天地間을 流行하고 있는데 天地에는 天地之心이 있고 坎卦의 陰中의 陽이 또한 心의 象이 되므로 天地間을 流行하는 上水

下水는 天地의 心을 繫維하고 또한 天地의 心은 水에 運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時運에 變化가 生하는 때에는 水의 變化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習坎은 變易卦로서 離로부터 同宮變易하고 習坎의 水는 陽子를 含한 陽精水로서 그것을 離의 陰體에 施하고 離는 陰體의 離火宮으로서 習坎의 陽精水를 承受하여 文王八卦圖의 成言乎艮에 當하니 艮은 萬物의 所成終所成始이라 習坎은 陽精水를 施하는 것이므로 所成終이 되고 離는 陽精水를 承受하고 次世代의 胎育을 始하는 것이므로 所成始가 되는 것이며 坎離에서 飛水가 陰體에 飛越하는 것이 곧 水火通明이룬 곳에 絶處逢生함이다. 習坎은 또 乾象의 首出庶物 萬國咸寧에 當하므로 陽首에서 生命水를 施하여 庶物을 生하고 王公이 設險하여 그 國을 守하고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時用大矣哉

時用이라 함은 物의 險難한 者는 그 險難自體는 體가되고 險難한 體는 어느 時를 當하면 스스로 그 險難을 濟하는 用으로 化한다 함이니 體는 비록 險難하나 萬物의 生生에는 모두 時가 있으므로 時를 맞춰서 用하는 것이 곧 時用이다. 時用의 卦는 習坎 睽 蹇의 三卦이니 習坎의 險 睽의 睽異 蹇의 難이 易卦中에 가장 險難한 것이므로 이 三卦에 時用을 말한 것이다. 習坎은 陽精水의 發施함이오 睽蹇은 三八線의 陰精卦로서 受精의 象이 되는데 陽精의 施受에는 陰陽相戰하는 恒易知險 恒簡知阻의 險阻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習坎 睽 蹇이 비록 險阻하되 이 險阻가 도리어 時의 用이 되어 三八線 相交의 功을 이룬다 함이다.

萬物의 生生하고 있는 이 地上에 가장 險難한 것은 水의 阻와 南北의 極地와 氣候의 寒과의 세 가지인데 習坎의 地險은 水의 阻이오 睽의 南北極은 兩極의 睽異이오 蹇의 難은 氣候의 寒이다. 習坎의 上水下水는 天險과 地

險인데 天險은 可히 升치 못하는 것이오 地險은 山川丘陵이니 山川丘陵은 地의 險阻한 것이니 地가 險阻한 까닭에 그것을 利用하여 要塞를 設하면 도리어 國家의 守備로 化하는 것이니 이가 險의 時用의 大함이다. 升은 升卦의 뜻으로서 月이 空中에 升하는 象이니 習坎水의 上卦는 太陽에서 오는 陽精水이오 달이 아니므로 달이 아니라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不可升이라 한 것이다. 同人卦의 升其高陵이 또한 下卦의 달의 象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物의 生生하는 面으로써 보면 習坎은 陽體의 陽精水가 陰體에 飛越하여 用九의 象이 되며 乾陽의 作用은 至健하되 또 險을 行하니 이가 또한 險의 時用이다.

睽의 火上澤下는 南北兩極으로 되고 兩極은 地의 兩極端에 나뉘어 있어 至極히 睽異한 것이나 地의 兩端이 兩極으로 나뉘어 있는 까닭에 北極의 發揚하는 陽氣와 南極의 收斂하는 陰氣卽 陰陽磁氣의 例와 같이 相互作用하여 地의 生生運動을 調和하는 것이니 이가 睽의 時用의 大함이다 이것을 物의 生生하는 面으로써 보면 睽는 離宮中의 陰子로서 用六의 象이 되며 男女는 睽하되 그 志는 通하니 이가 또한 睽의 時用이다.

蹇의 水山은 冬寒中의 열매로서 열매가 冬寒의 險을 만나서 止하여 行치 못하고 蹇하니 蹇은 氣候의 至難한 것이나 열매는 冬寒을 만난 까닭에 굳게 收斂하여 生命의 源을 養하고 다음의 發生하는 作用이 强한 것이니 이가 蹇의 時用의 大함이다. 이것을 物의 生生하는 面으로써 보면 蹇은 坤陰이 乾陽을 承受하여 用九와 用六의 象이 아울러 있고 乾陽의 大始하는 作用이 知하니 이가 또한 蹇의 時用이며 易卦中에 爻辭에 利見大人이 있는 것은 오직 乾卦 九二 九五와 蹇卦 上六뿐이니 이는 蹇卦에 乾의 用九하는 象이 있으므로 그 뜻을 表하기 爲하여 上六에 利見大人을 말한 것이다.

習坎은 水의 上下의 理에 依하여 流行하여 盈치 아니하고 恒時 水平을 이루는 것이니 이가 天水의 中心인 九五爻의 象이다. 生의 時運의 終에 謙卦에는 「天道下濟而光明」「地道變盈而流謙」「君子稱物平施」의 象이 있으

니 이는 乾陽의 生命水가 地에 下來하여 사람을 始生하는 象이라 習坎은 長의 時運에 乾陽의 生命水가 地에 飛來하는 卦이므로 九五爻에 또한 謙卦의 象이 있으니 坎不盈은 謙의 變盈流謙의 뜻이오 祗旣平은 謙의 稱物平施의 뜻이오 中未大는 序卦 謙의 有大者 不可以盈 故受之以謙의 뜻이다. 謙과 習坎의 水는 모두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 水의 變化가 行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序卦

大過는 陽體의 陽子가 陰體에 顚入하는 過程의 象이오 習坎은 陽子가 陽精水中에 包含되어 陰體로 飛流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習坎이 大過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水洊至라 함은 水가 再至又至하여 中斷치 아니함을 象함이다. 常德行이라 함은 乾의 德行이 恒易하여 險함을 知하고 坤의 德行이 恒簡하여 阻함을 知하니 習坎의 天險地險은 險과 阻이므로 德行을 恒易恒簡하여 險阻를 知하는 것이 곧 常德行이다. 習敎事라 함은 敎는 神道의 敎이오 事는 變通이오 習은 鳥數飛이니 神道와 變通을 習行하여 險阻를 易簡하게 하는 것이다.

水는 上에서 下로 流下하는 것이오 習坎은 上의 水가 地로 飛下하는 것이므로 習坎卦의 飛下하는 先端이 곧 初六이니 그러므로 諸爻中에 오직 初六에 鳥飛의 象을 取하여 習坎이라 한 것이오 習坎水가 地險의 最底에 入하므로 入于坎窞의 象이 되어 一陰一陽하는 道를 失한 것이다.

六二는 地險의 中心이오 設險守國하는 收斂處이니 求小得이라 함은 收斂하면 守國함을 得한다 함이다.

六三은 上水下水의 界로 天에서 水가 洊來하므로 坎坎이라 하니 震卦 六三의 洊雷가 蘇蘇함과 같은 것이다. 且는 地에 藉함이오 枕은 薦首함이니 下와 上이 모두 險하므로 險함이 且하고 枕한다 한 것이다.

習坎卦의 陽水中心은 九五이므로 六四는 陽水의 器의 象이다. 樽은 酒器이오 酒는 精水의 興奮作用의 象이오 簋는 外圓內方하여 天이 地를 包한 象의 器이오 貳는 副함이니 簋貳는 損卦 二簋의 뜻이오 缶는 坤土의 器이오 納約은 糸와 內勺으로 되어 酒勺을 繫維한다는 뜻이오 牖는 日光의 射入하는 壁窓이다. 이것을 合하여 말하면 坤土缶로써 陽精水를 盛하는 器를 삼고 乾陽의 氣를 受入하여 繫維한다 함이니 小象의 剛柔際는 이 뜻을 말함이다.

徽는 三合繩이오 纆은 二合繩이오 棘은 疊束으로서 苦棘의 많은 木이니 序卦에 「陷必有所麗」라 하므로 三合繩 二合繩은 重險에 麗하는 象을 말함이오 叢棘은 疊棘의 重險한 木을 象함이다.

八原卦 以人身觀之則 乾坤父母也 坎離水火通明之作用也 故上經首以乾坤 終以坎離 以象父母之構精也 序卦六子中 唯坎離同宮者 以其水火構精也 震艮巽兌則 非二長二少之同宮 故后天之艮兌 不生於下經之末 而生於下經之首之咸恒 所以正易言 咸兮 恒兮 十兮 五兮也

離 重火

離는 上火下火로 되어 日月의 象이 되는데 陰卦의 火象인 까닭에 離火陰宮에 習坎의 陽精水를 承受하여 第二世의 生命을 胚胎하는 象이다. 離는 中虛한 火宮으로서 陰體의 陰宮의 象이 되고 習坎으로더불어 同宮變易하여 陽精水를 承受하고 文王八卦圖의 成言乎艮에 當하여 成終成始하는 象이 되

는 것이다. 離는 兩麗와 鳥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離는 陰體의 子宮의 象이 되므로 陽精水가 飛來하여 附麗하는 兩麗의 象이 되어 兩物이 各分하면서 또한 相麗하는 것이오 또 離는 習坎의 飛水를 承受하는 것이므로 陰宮에도 또한 飛鳥의 象이 있으니 이 兩麗와 鳥의 두 象을 取하여 卦名을 離라 한 것이다. 離는 黃鳥의 名이라 陽을 受하는 陰宮인 까닭에 地色의 黃을 象한 것이오 또 離字는 离와 隹로 되어 离는 獸이오 隹는 鳥이니 사람은 長의 時運에는 地上을 다녀서 獸와 같고 成의 時運에는 空中을 飛行하여 鳥와 같다 하여 長의 時運의 离와 成의 時運의 隹를 合한 離字로써 卦名을 삼아 長의 時運의 獸에서 成의 時運의 鳥로 化한다 함을 象한 것이다.

離의 上火下火는 日月의 象인데 下卦九三은 日昃의 位가되고 上卦六五는 習坎水를 承受하는 달의 位가 되는 것이며 習坎의 上水下水에 天地의 象이 있으므로 離의 上火下火에 또한 天地의 象이 있어 日月이 天에 麗하고 百穀草木이 土에 麗한다고 하니 上下卦를 日月로 나누어 보면 上卦는 달의 生하는 位가되고 下卦는 太陽의 終하는 位가 되며 上下卦를 天地로 나누어 보면 上卦는 日月의 麗하는 天이 되고 下卦는 百穀草木의 麗하는 地가 되는 것이다. 무릇 天地라 함은 位이라 上卦六五는 日月의 麗하는 天의 位가 되고 下卦六二는 百穀草木의 麗하는 土의 位가되니 이는 上卦六五의 달의 位에서 太陽의 陽精水를 受하여 萬物의 씨를 作成하고 그 萬物의 씨를 地의 位인 六二에서 繁殖한다 하는 日月의 生生作用을 말한 것이다.

上經은 乾에서 始하여 離에서 終하는데 乾에 大明이 있고 離에 重明한 日月麗天이 있으니 乾의 大明은 곧 離의 重明이라 乾에서 大明이 終始하여 달이 生하여 六位가 時成하므로 離에서 또한 坎離가 相交하여 后天月의 씨를 胎育하는 것이다.

日月麗天者 씨之麗於天也 百穀草木 麗土者 씨之播種之意也

離에는 百穀草木이라 하고 解에는 百果草木이라 하니 穀은 續함이라 離는

穀의 씨가 土에 麗하여 繼世相續함을 象한 까닭에 穀이라 하고 果는 木實이니 果實이 坼하여 芽를 生함을 象한 까닭에 果라 한 것이니 穀은 陽體의 씨를 象함이오 果는 씨의 結實함을 象한 것이다.

坤의 牝馬는 달의 象이오 달을 牝馬라 한 것은 乾을 馬라하고 乾에 太陽의 象이 있으므로 太陽과 달을 相對시켜서 달을 牝馬라 한 것이오 離는 坤의 中氣를 受하여 坤의 胎宮을 繼世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離火宮에 坤陰의 繼世하는 象이 있고 坤을 牛라 하므로 離를 坤과 相對시켜서 牝牛라 한 것이니 馬는 달을 象함이오 牛는 時運을 象함이다. 畜은 小畜 大畜과 같이 陰속에 乾陽을 畜하는 것이니 離는 陰宮의 속에 乾陽의 習坎水를 承受하여 精氣를 畜하여 后天時運의 繼世作用을 行하므로 畜牝牛라 한 것이오 離의 牝牛는 大畜의 童牛와 相照하는 것이다.

六五는 日月麗天의 位로서 習坎水가 離火陰宮에 飛來하고 太陽의 震子와 달의 兌精이 相合하는 象이 되어 南北坎離의 水火와 東西震兌의 乾元坤元이 總會한 곳이다. 涕는 目汁의 出함이니 目은 離의 象이오 沱는 大雨함이니 雨는 坎의 象이오 戚字는 戊와 朩으로 되어 土中에서 豆가 始萌하는 形이니 震子의 象이오 嗟는 口의 氣가 呼하여 傷歎함이니 兌口의 象이며 이가 곧 坎離 震兌의 象으로서 文王八卦圖의 四正이 되고 大象의 照于四方은 이 四正의 뜻을 取한 것이다.

六五의 涕沱戚嗟는 水火와 乾元坤元이 相合하여 次世代의 新生命을 胚胎하는 象이다.

序卦

上經의 天道는 陽體의 陽子의 成熟으로써 終을 삼고 陽子가 成熟하면 陰體로 넘어가는 것이며 陽子가 陰體로 넘어감에는 그 形이 圓狀으로 되어 비

록 顚倒하되 그 形이 變치 아니하고 水通火明의 作用에 依하여 空間을 飛越하는 것이니 이가 곧 坎離의 水火作用이다. 그러므로 陽體의 陽子는 頤大過에서 反易없는 圓狀으로 行하고 또 坎離에서 反易없는 圓狀으로 陰體에 飛越하는 것이다. 習坎은 陽精水의 飛來하는 것이오 離는 陽精水를 承受하는 陰宮이므로 離가 習坎에 次하는 것이다.

上九는 上經의 天道最終의 陽爻로서 下經의 坤道에 接觸하는 곳이므로 乾의 陽施의 象을 取하여 王用出征이라 하니 坎離는 乾象의 首出庶物萬國咸寧의 位에 當하므로 上九에 王出正邦의 象이 있는 것이다. 折首라 함은 折은 兌의 毁折이오 首는 成言乎艮首出庶物의 艮首이오 有嘉折首라 함은 艮兌가 離火宮中에서 嘉會한다 함이니 이는 上九에서 坎離의 水火가 相逮하여 離火宮의 兌澤과 首出庶物하는 艮首가 嘉會하여 下經의 地道로 넘어가는 것이며 兌와 艮의 相合이 바로 下經首卦의 澤山咸이다

大象

明兩作은 重明의 뜻이오 繼明은 日月이 相推하여 明이 生함이다. 習坎에는 水洊至라하고 離에는 明兩作이라 하니 水는 就下하는 것이므로 至라하고 火는 炎上하는 것이므로 作이라 한 것이다. 大象의 大人以는 오직 唯一卦이니 이는 明한 者가 곧 大人인 까닭이다. 사람의 諸德中에 明이 最大한 것이다.

大象 言大人者 乾五之 先天天不違 后天而奉天時之大人也 離在上經之終 而越於下經之后天 故言乾九五之大人也

九三은 下離의 極이므로 終日의 象이 되어 日昃이라 한 것이다. 耋은 老의 極함이니 自然數의 陽數는 九에 極하고 九九八十一은 陽의 生長의 極數이므로 人生八十을 耋이라 하는 것이며 離는 上經陽長의 終卦이오 離 九三은

日昃의 象이므로 日昃에 耋의 象을 말한 것이다.

鼓는 鼓之以雷霆하는 鼓로서 震子의 象이오 缶는 坤土의 器이니 鼓缶는 雷地豫의 作樂의 뜻이다. 歌와 嗟는 兌口의 象인데 和悅하면 聲이 發하여 歌가되고 傷歎하면 氣가 呼하여 嗟가 되는 것이다. 鼓缶而歌라 함은 豫卦의 震子가 兌를 隨하여 歌하여 長의 時運의 始가 되는 것이오 大耋의 嗟라 함은 陽이 長을 極하여 西方의 兌中에 沒하여 嗟하는 것이니 九三은 陽長의 極이 되므로 다시 鼓缶而歌하는 豫隨의 和悅이없고 前程不久한 老衰의 嗟歎이 된다 함이다.

九四는 九三을 承하여 火의 炎上하는 象인데 九三의 日昃하는 象은 九四에서 陽이 施精하고 喪亡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突은 倒子로 되어 不孝子가 忽出한다 함이니 九四의 陽의 施精이 곧 坤初의 子弑其父의 象이 되므로 不孝子가 突出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焚如死如棄如는 모두 被弑의 象이다.

離火宮은 胎宮의 象이므로 困井革鼎의 胎宮이 革鼎의 離火에서 胎兒가 成하는 것이오 胎宮의 父母宮인 夬姤萃升도 姤는 夏至의 象으로서 離火의 時期이오 升은 南方의 象으로서 離火의 位이다. 그러므로 先天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時期도 每攝 離火의 時와 關聯되어 있으니 三八線의 戰亂이 庚寅年의 夏至直後에 일어나고 戰亂의 終熄이 甲午年이오 易經의 未濟卦가 丙午에 當하는 것이다.

咸 澤山

坤包乾=月體 月體以太陽之雷風運行也

咸은 恒과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二少相交하는 澤山의 卦로서 內乾外坤하니 澤山은 모두 形質이오 內乾外坤은 天地組織의 象이라

(二少二長爲正交 故夫婦卦也-以月體) 天地가 形質로써 組織된 것은 陰體이니 그러므로 咸은 陰體의 象이 되는 것이다. 物의 組織體는 固定하고 運動이 없는 것인데 咸은 山澤이 通氣하고 二少가 相感하므로 組織體이면서 또한 運動이 行하고 있으니 彖의 二氣感應以相與라 함은 感應과 相與가 모두 運動이다. 咸은 天地의 組織이로되 泰否와 같은 天地의 原形이 아니라 天地의 變形한 艮兌로써 組織되고 艮兌는 달의 組織이니 그러므로 咸은 달의 形質의 卦이다.

艮兌의 여무는 것이 곧 달의 여무는 것인데 咸은 艮兌가 夫婦로 되는 것이므로 少男少女의 여무는 象이 되어 달이 여무는 것이오 달의 여무는 것이 곧 后天달이니 그러므로 咸에서 后天달이 生하며 正易에 萬曆而圖兮咸兮恒兮는 后天달의 生함을 말함이다 (咸無心者 精神尙未成而幼也 恒則二長 故从(從)心者 天性之成也)

咸은 艮兌의 少男少女로서 男이 女에 下하니 少男少女는 感應함이 가장 速한 것인데 男이 女에 下하여 男이 先하고 女가 說하므로 男女感應의 象이 되어 夫婦의 卦로 되는 것이다. 艮兌는 少男少女로서 感應함이 速하나 아직 未成하므로 艮字와 兌字가 모두 半字로 되고 있는 것이오 艮兌의 合한 咸卦도 또한 半字를 쓰게 되어 感應의 感字의 心을 省하여 咸字를 써서 卦名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咸卦의 艮兌의 心을 憧憧이라 하니 憧은 童心이라 아직 未成하여 童心이 되고 成人의 心이 되지 못한다 함이다.

咸恒은 文王八卦圖의 說言乎兌에 當하니 兌는 坤元이므로 또한 坤彖의 至哉坤元 萬物資生乃順承天에 當하여 咸에 萬物化生의 象이 있는 것이오 上經의 隨蠱는 乾元에 當하므로 長의 時運의 陽長하는 始가되고 下經의 咸恒은 坤元에 當하므로 長의 時運의 陰長의 始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咸恒은 陰長하는 地道의 始가되어 下經의 首卦가 된 것이다.

咸卦에 天道가 地道로 變化하는 象이 있고 天地의 變化하는 때는 陰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으므로 咸에 柔上剛下의 象이 있는 것이다.

咸恒二卦가 모두 天地變形의 組織으로서 地道가 되는데 長男長女인 恒卦가 下經의 首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下經의 咸은 上經의 乾과 對照되는 것이니 上經은 天道이오 天道는 陽에 屬하므로 純陽의 乾을 首로 하고 純陽인 乾은 純陰인 坤의 形質에 依附하는 것이므로 乾坤이 同宮하는 것이며 下經은 地道이오 地道는 形質이므로 形質의 象인 澤山의 咸을 首로 하고 形質인 澤山은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되는 것이므로 咸恒이 同宮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澤山의 咸은 달이 되고 雷風의 恒은 太陽의 運行하는 氣가되며 人事로써 보면 咸은 形質의 組織인 夫婦가되고 恒은 氣의 運行인 夫婦의 道가 되는 것이다.

上	輔頰	배
五	□	등
四	心臟	등
三	股	등
二	腓	배
初	拇	배

易卦中에 六劃이 모두 人身의 象으로 된 것은 오직 咸一卦이다. 人身에는 등과 배가 있으니 발에는 발등과 발바닥(배)이있고 다리에는 등성이(정강이)와 다릿배(종아리)가 있고 軀幹에는 뒷등과 앞배가 있고 낯에는 콧등과 낯바닥(배)이 있으며 등은 陽에 屬하고 배는 陰에 屬하는 것이다.

咸卦는 人身을 後面에서 본 것이니 初六은 발가락인 拇의 位인데 陰爻이므로 발가락의 배이다.

六二는 다리인 腓의 位인데 陰爻이므로 다릿배이다.

九三은 股의 位인데 陽爻이므로 股의 相對便인 엉덩이이다.

九四는 心의 位인데 陽爻이므로 心臟의 位의 뒷등이다.

九五는 心臟의 上의 位인데 陽爻이므로 心臟의 上位의 등심이다.

上六은 낯의 位인데 陰爻이므로 낯의 배인 輔頰이다.

咸卦의 六劃은 사람을 後面에서 본 것이니 이것을 人生의 行路로써 보면 사람이 처음으로 出生한 때에는 無形한 神으로부터 有形한 人間이 出來하며 有形한 人間은 다시 未來를 向하여 無形한 神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來하는 者는 全面이 보이고 往하는 者는 後面이 보이는 것이라 咸卦에서 人身의 後面이 보이는 것은 咸卦가 有形한 澤山으로서 이미 出生한 人身의 象이 되어 無形한 神에게로 돌아가는 行路에 있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咸卦에는 入神窮神의 象이 있고 同宮한 恒卦의 雷風이 地道에 屬하여 또한 雷地豫 風地觀과 같이 神道가 되고 있는 것이다.

天地萬物之情

情이라 함은 天性의 한 作用으로서 個體의 形質이 生生하기 爲하여 生氣가 動하여 스스로 發하는 本能이니 易經에 天地萬物의 情을 말한 卦는 咸恒萃의 三卦이오 天地의 情을 말한 것은 大壯 一卦이니 이는 天地의 上下秩序인 天風山地에 震子와 兌澤을 各各 合한 卦이다. 天風山地는 天地否卦와 및 그의 互卦인 風山漸의 理에서 나온 것이다.

天風은 天에 屬하고 山地는 地에 屬하여 文王八卦圖의 四維가되고 震과 兌는 文王八卦圖의 東西에 있어 天地間을 出入하는 日月運行의 象이 되는데 이 四維의 사이를 太陽의 震子는 天層의 天風을 運行하고 달의 兌澤은 地層의 山地를 運行하는 것이 곧 四情의 象이다. 地가 兌澤을 合한 澤地萃는 天地秩序의 最低位에 있어 形質을 聚凝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萃聚의 情이 되고 生物에 있어서는 營養을 聚하여 形質을 生育하는 生育本能이 되니 이는 모든 生物이 그 體를 維持하기 爲한 가장 基本되는 情이다. 山이 兌澤을 合한 澤山咸은 地의 高起한 位에 있고 形質에 屬하는데 陰陽이 相感하여 運動을 일으키는 作用이 있으므로 感應의 情이 되고 電氣나 磁氣가 陰

陽의 相引相斥하는 等이 모두 感應의 情이오 生物에 있어서는 子孫을 繁殖하는 生殖本能이 되니 生殖本能은 비록 生長本能과 같이 形質의 欲求에 依한 것이로되 山의 一陽이 上으로 天을 接하여 光明의 作用이 있으므로 心이 感치 아니하면 男女間의 情이 動치 아니하는 것이다.

風이 震子를 合한 雷風恒은 天氣가 地에 接하는 位에 있는데 氣에 屬하고 氣는 生命의 連續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恒久의 情이 되고 生物에 있어서는 生命을 恒久히 維持하려는 長壽本能이 되니 모든 生物은 그 生命을 連續하기 爲하여 飮食을 取하고 氣를 呼吸하여 形質을 補强하고 있는데 地에 接한 形質에는 死生이 있고 雷風의 氣는 恒久하여 神의 作用이 行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長壽는 飮食呼吸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는 神의 作用하는 힘이 또한 加하고 있는 것이다. (九三 爲剛下之位 故所執下也)(上六爲柔上之位 故上於面上也勝也)

天이 震子를 合한 雷天大壯은 天上의 位에 있어 天이 씨의 繼承作用을 行하는 震子를 保有하고 萬物의 씨의 發生하는 源이 되고 있으므로 正大의 情이 되니 正大라 함은 偏치 아니하고 局치 아니한 것이며 萬物은 天地의 一部分을 稟受하여 出生한 까닭에 各其 自體의 씨만을 保有하고 있고 오직 天地는 萬物의 씨의 元을 全部 保有하고 있으므로 正大의 情이 되는 것이다.

九四는 內乾外坤하는 乾의 中心에 있고 人身의 心의 位에 當하여 感應의 主가 되고 있으므로 咸卦六爻中에 오직 九四爻에 一感字가 있는 것이다. 憧은 心과 童으로되고 童은 艮兌의 少男少女를 象함이니 九四의 心位에서 艮兌가 相感하므로 憧憧往來라 한 것이다. 朋從爾思라 함은 朋은 陰이니 兌를 말함이오 爾는 陽이니 艮을 말함이라 咸은 陽이 先하고 陰이 後하므로 兌가 艮의 思慮를 從한다 함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天下가 何를 思하며 何를 慮하리오 天下가 同歸하되 殊塗하고 一致하되 百慮하는 것이니 天下가 何를 思하며 何

를 慮하리오 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日月相推而明生焉 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往者屈也 來者信也 屈信相感而利生焉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神以致用也 利用安身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하니 朋從爾思의 思는 何思何慮의 思이오 何思何慮라 함은 無思無爲의 뜻이 아니라 天下의 同歸一致할 수 있는 思慮가 무엇인가 함을 말함이오 그 思慮는 入神窮神하는 思慮이니 이는 咸卦의 向하여가는 行路가 바로 神에게로 돌아가는 길인 까닭이며 그러므로 艮兌의 相感하는 思慮는 곧 神에 入하여 神을 窮하고 化를 知하는 神化思想이다.

尺蠖의 屈信은 曲直이오 曲直은 木이며 頤 大過에는 棟木의 顚橈하는 象이 있고 木의 顚橈는 曲直의 象이 되므로 頤 大過에 東方木인 桑의 木上의 尺蠖의 屈信함을 象하고 龍蛇는 乾의 飛龍이오 坎離의 習坎水는 生命水中에 飛龍의 象인 震子를 含하여 龍蛇의 象이 되고 飛龍은 離宮中에 麗하므로 坎離에 龍蛇의 蟄存함을 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尺蠖 龍蛇는 天道의 頤大過와 坎離에서 地道인 咸恒에 넘어가서 咸乾陽이 坤陰中에 屈蟄하여 그 飜生할 時를 待한다 함을 말함이다.

序卦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天地 萬物 男女는 上經의 天道를 말함이오 夫婦 父子 君臣 上下 禮義는 下經의 地道를 말함이니 咸은 夫婦卦이므로 下經의 首가 된 것이다.

離는 上經末의 日月麗天의 象이오 咸은 乾坤으로 組織된 艮兌의 달이므로 咸이 離를 繼한 것이오 人身으로써 보면 咸恒以後 蹇解에 이르기까지는 女體組織의 象이 되어 文王八卦圖中에서 陰卦만을 逆行하여 兌로부터 巽에

이르는 것이오 또 坤象의 順序가되는 것이다.

咸恒 = 說言乎兌 =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遯大壯 = 致役乎坤 = 坤厚載物 德合無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晉明夷 = 致役乎坤 相見乎離 =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 君子攸行

家人睽 = 相見乎離 = 先迷失道 後順得常

蹇解 = 齊乎巽 = 西南得朋 乃與類行 東北喪朋 乃終有慶

大象

山의 組織에는 虛가 있으므로 能히 澤을 山上에 引上하는 것이오 사람은 心에 私가 없는 것을 虛心이라 하고 虛心한 者가 能히 사람을 受하는 것이다.

初六은 足의 拇指의 象인데 拇指의 배가 보이는 것은 足이 動하여 外出하는 象이므로 志在外라 한 것이다.

六二는 止의 中心이 되는데 또한 腓가 感하여 動하니 止함은 吉한 것이오 動함은 止의 旨에 違하여 凶한 것이다.

咸卦象辭는 感應의 象을 말하여 萬物化生하고 天下和平하여 모두 善한 것인데 爻辭는 純善한 것이 없으니 이는 象辭는 卦의 全象을 말하여 感의 全한 象이오 爻辭는 部分을 말하여 感의 偏한 象이니 感의 全은 咸感이 되는 까닭에 善하고 感의 偏은 周徧치 못한 까닭에 純善치 못한 것이다.

九五의 晦는 末과 關聯되고 末은 大過의 本末과 같이 上六을 末이라 한다.

滕은 水의 超湧함이니 上六이 山上의 澤으로 되어 水의 湧出하는 곳이므로 滕의 象이 된다. 咸의 艮兌 二少는 上六에서 成하여 口舌을 滕하니 이는 兌의 說言과 艮의 成言의 成한 象이오 九五는 男下女의 義에 依하여 上六의 末과 相感하여 口舌을 滕하여 言語를 出하니 九五의 晦는 곧 言語의 出하는 바의 聲音器이다.

恒 雷風

恒은 咸과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二長相交하는 雷風卦이니 雷風은 氣로서 雷風은 天地의 生命元을 運行하는 力인데 陽이 上하고 陰이 下하여 二長이 保合하고 內乾外坤하여 天地組織의 象이 되니 이는 陰體組織의 象이다. 物의 組織은 固定하여 運動이 없는 것인데 恒은 雷風의 氣가 相與하고 陰陽이 서로 應하여 入하면서 動하므로 組織體이면서 또한 運動이 行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天地의 一陰一陽하는 道가 恒久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恒은 咸으로 더불어 同宮하여 咸의 有形한 山澤은 無形한 恒의 雷風에 依하여 運行되고 恒의 無形한 雷風은 有形한 咸의 山澤에 依附하여 作用을 行하는 것인데 이는 또한 山澤으로 된 달이 太陽의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恒字는 心으로 되니 心은 雷風의 氣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雷風은 自體가 心性의 作用을 行하고 山澤은 雷風의 氣를 得하여 心性의 作用이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六十四卦中에 心으로 된 卦는 오직 恒 一卦이다. 咸恒의 心을 人身으로써 보면 人身은 咸卦 山澤의 形質의 象이오 恒卦의 雷風自體의 心性은 神의 象이니 咸卦의 感應하는 心이 恒의 雷風에서 得한 것임과 같이 人身의 心性도 또한 恒의 神에서 得한 것이니 이 까닭에 咸과 恒은 人과 神과의 關係로 되어 있으며 또 山澤과 雷風은 形과 氣의 反易하는 것이므로 人과 神이 또한 形과 氣의

反易한 象이 되는 것이다.

山澤은 形으로서 能히 氣를 通하는 것은 山澤의 形이 雷風의 氣로써 運行의 用을 삼는 까닭이오 雷風은 氣로서 能히 一定한 常道를 따라서 動靜하는 것은 雷風의 氣가 山澤의 形으로써 依附의 體를 삼는 까닭이다.

恒久라 함은 恒久不變하는 것이 아니다 萬物은 하나도 變化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또 暫時도 變化치 아니하는 것이 없어서 天地間에는 恒久라는 것이 없으나 物에는 體와 用이 있어 體는 恒久하고 用은 變化하는 것이니 萬物의 自體는 恒久한 體이오 그 生하고 長하고 成하고 하는 것은 變化하는 用이다 萬物의 體가 恒久한 까닭에 그 固有의 性을 가지고 能히 生長成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萬物의 用이 變化하는 까닭에 能히 時와 處에 適應하여 恒久한 體를 維持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恒久와 變化는 體用關係로써 서로 作用하여 恒久히 生生하는 것이다 恒卦에 「日月得天而能久照」는 恒久한 光明의 體를 말함이오 「四時가 變化하여 能久成」은 變化하는 用을 말함이다. 恒卦는 雷風의 卦로서 內乾外坤한 組織體이므로 雷風의 氣가 長存하여 恒久한 組織의 象이 되고 雷風의 氣는 一定한 形이 없고 流動變轉하므로 變化하는 作用의 象이 되는 것이다.

終則有始의 象은 蠱와 恒의 二卦에 있으니 蠱의 終則有始는 生의 時運이 終하고 長의 時運이 始함을 말함이오 恒의 終則有始는 長의 時運中에서 天道의 陽運이 終하고 地道의 陰運이 始함을 말함이다 隨蠱가 同宮하되 蠱에 終則有始의 象이 있는 것은 蠱에서 幼虫이 비로소 長하는 까닭이오 咸恒이 同宮하되 恒에 終則有始의 象이 있는 것은 恒에서 久成化成하는 陰運의 作用이 비로소 行하는 까닭이니 恒에 久成化成의 象이 있는 것은 또한 恒久하면서 變化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天地의 變化가 있는 때에는 陰陽의 上下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恒에도 終則有始하는 時運의 變化가 있으므로 剛上柔下하는 變化의 象이 있는 것이다.

日月四時

乾九五文言下

風이 震子를 包하므로 恒久의 情이 된 것이다.

天地萬物之情　　咸卦下

六五는 成의 中心으로서 恒久의 體와 變化의 用의 兩象이 있으므로 또한 夫婦道의 卦로서 婦人과 夫子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婦人은 體에 屬하여 組織의 象이 되는 까닭에 一德을 從하여 恒久한 것이오 夫子는 用에 屬하여 運行의 象이 되는 까닭에 陰陽을 義로써 和하여 恒久하면서 變化하는 것이니 이가 곧 義를 制함이다 그런데 六五는 剛上柔下하는 卦旨에 어그러져서 陰이 衆陽의 上에 居하고 夫子가 婦人을 從하여 變化의 用을 行치 못하는 象이 되므로 陽이 陰中에 陷한 것이다.

恒의 初六은 巽股이오 九四는 震子가 巽股를 應하니 九四의 陽이 巽股를 應하면 生命水中의 震子를 喪失하는 것이므로 九四는 田無禽이 되고 初六은 雷風의 相薄에 依하여 震子를 害하므로 스스로 陷中에 入한 것이다.

初六 爲柔下之位 故浚深也 應陽而陷陽 故凶也

九四 爲剛上之位 而下犯股也 田爲柔下也

序卦

咸은 山澤의 形質로서 달의 象이오 恒은 雷風의 氣로서 太陽의 氣의 運行하는 象인데 달이 內部에 乾陽을 含하고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하는 것이므로 恒이 咸에 次하는 것이다.

咸恒은 長의 時運中에서 長의 時期에 當하여 陰體가 陽氣를 受하여 자라는 象이 되는 것이다.

大象

恒에는 時間과 空間의 兩象이 있으니 彖의 天地之道恒久而不已는 時間의 恒이오 大象의 立不易方은 空間의 恒이다. 雷風은 氣로서 神道의 象이오 神은 方이 없는 것인데 恒의 大象은 立不易方을 말하니 이는 氣와 形質의 相互依附하는 理이다. 咸은 山澤의 形質이므로 雷風의 氣를 通하는 虛를 말하고 恒은 雷風의 氣이므로 山澤의 形質인 方을 말하니 이가 相互依附의 象이다.

恒은 雷風의 夫婦卦인데 九三은 入而動의 界에 있으므로 巽은 躁하고 震은 決躁하여 躁動하니 躁動이 곧 不恒其德의 象이다.

振은 振動하는 뜻으로서 그 本根은 一處에 定着하고 그 末端이 홀로 動하는 것을 振이라 하는데 卦는 恒하되 上六은 動體의 極에서 動하고 있으므로 振恒이 된 것이다.

遯　天山

遯은 天下에 山이 있는데 山은 地의 聳高한 것이오 地가 聳高할수록 天이 地로 變하는 것이니 이가 陰의 浸長하는 理이다.

陽體陰用 故爲陰體之長也 臨爲陰體陽用也

遯은 二陰이 下에서 浸長하고 陽이 退하여 內部에 入하므로 陰精組織의 象이 되고 文王八卦圖의 致役乎坤에 當하여 陰이 陽氣를 含하고 保合하는 것이다. 陽氣는 發揚하는 것이 곧 長함이오 陰精은 陽氣를 含하고 保合하는 것이 곧 長함이니 그러므로 遯은 陰質의 長하여 女體의 陰子의 發生하는 卦이다. (달의 陰長하는 卦이므로 九五의 陽이 當位하여 與時行하는 것이다)

遯은 豚과 ㅊ으로되고 豚은 中孚卦의 豚과 같이 巽卦의 象이오 巽은 天의 陽氣가 下降하여 地의 陰中에 行함이니 遯卦는 大巽으로 되어 陽이 陰中에 退하는 것이므로 豚行의 뜻을 取하여 遯으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며 乾初九 大過 大象의 遯世無悶이 모두 陽이 陰中에 入함을 象한 것이다.

臨은 陽의 浸長의 卦이오 遯은 陰의 浸長의 卦인데 臨은 卦名에 陽氣의 長하는 象을 取하고 遯은 卦名에 陰精의 長하는 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陽氣의 遯退하는 象을 取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면 陽氣는 顯藏만 있고 生滅이 없어서 世世繼承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陰質은 生滅이 있는 것이라 易學은 生生의 學이오 生生이라 함은 物이 生하고 長하고 成하고 하여 世世繼承하는 것이므로 二陰의 浸長하는 遯卦에 陰精의 長함을 主하지 아니하고 陽氣의 遯함을 主한 것이며 陽氣가 遯하되 딴 곳으로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陰長하는 體의 內部로 들어가는 것이다.

遯을 달로써 보면 陽이 內部에 들어가서 달의 陰精의 자라는 것인데 易理에 陰質이 자란다 함은 陽體陰用의 作用이 자란다는 것이니 臨卦의 二陽浸長은 陰이 體가 되고 陽이 用이 되므로 陽氣의 자라는 것이오 遯은 陽이 體가되고 陰이 用이 되므로 陰精의 자라는 것이다.

時義大矣哉　豫卦下

陰이 浸長하고 陽이 遯退하여 女體의 陰子가 發生하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니 陰子는 陽體陰用이다.

九五는 遯退하는 乾陽의 中心으로서 六二의 浸長한 陰과 相應하여 陰陽의 嘉會하는 象이 되므로 彖에는 與時行이라 하고 爻에는 嘉遯이라 한 것이다. 六二는 陰의 浸長하는 爻로서 用黃牛之革의 象이 있으니 遯卦以外에 用黃牛之革의 象이 있는 것은 革卦인데 革卦는 天時가 夏의 離로부터 秋의 兌로 移行하는 象으로서 그 中間에 坤이 있으므로 坤의 黃牛와 秋의 羽毛稀革의 뜻을 取하여 用黃牛之革이라 한 것이오 遯卦도 二陰이 浸長하여 夏로부터 秋로 移行하는 象이 있고 또 文王八卦圖의 坤에 當하므로 用黃牛之革의 象을 取하여 遯卦에 革卦와 같은 陰陽消長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오 六二는 陰의 長하는 中心이므로 六爻中에 오직 六二에 遯字가 없는 것이다.

九四에 君子吉小人否의 兩象이 있는 것은 遯에는 上三爻의 乾陽과 下三爻의 艮體가 天地否卦의 象으로 되어 遯退하는 乾陽은 內部에 入하여 生育되고 浸長하는 陰은 收閉되는 것이니 이는 天地否卦의 內小人外君子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君子小人의 兩象을 取한 것이다.

序卦

咸恒은 陰體組織의 象이오 遯은 陽氣가 陰體의 內部에 退入하여 陰體의 자라는 象이 되므로 遯이 恒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下에서 二陰이 浸長하니 陰은 昏暗한 小人의 象이다 不惡而嚴이라 함은 不惡는 繫辭의 「言天下之至賾而不可惡」의 뜻으로서 厭惡치 아니한다 함이오 嚴은 嚴君의 뜻으로서 嚴父母가 不善한 子息을 待하듯이 한다 함이니 小人은 狎近치 아니하여 諂言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곧 遠함이다.

陽退의 卦에 九三은 陽爻이므로 乾陽으로 더불어 함께 退하는 것이나 卦體로써 보면 艮에 屬하여 二陰으로 더불어 同體가되니 이는 九三이 陰에 係하여 病든 것이다.

肥는 肉이 多하되 適節하다는 뜻이니 物의 生長함에 肉이 厚하고 또 陽氣가 實한 然後에 肥가 되는 것이다. 遯의 上九는 遯의 終이므로 陽이 陰中에 入하여 肥한 象이 되는 것이다.

大壯　　雷天

大壯은 震子가 天上에 있는데 震子는 萬物의 씨의 元이오 震子가 天上에 있는 것은 天이 萬物의 씨를 모두 保合하고 있는 象이며 또 大壯은 文王八卦圖의 致役乎坤에 當하고 또 坤彖의 坤厚載物德合無疆含弘光大品物流形에 當하므로 坤이 萬物을 厚載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大壯에 天地正大의 情이 있는 것이다.(咸卦四情下) 陽은 大의 象이오 陽을 保合함은 正의 象이니 大壯은 坤位에 當하여 二陰이 四陽의 大를 保合하므로 正大의 象이 있는 것이다.

大壯은 四陽이 天位의 二陰下에 있고 大兌의 象이 되어 陽이 前進치 못하

므로 陰陽消長의 象이 없고 다만 陽의 彊壯한 象이 되니 陽의 壯한 象을 取하여 卦名을 大壯이라 하고 陽이 止하여 進치 못하므로 雜卦에 「大壯은 止한다」고 한 것이다.

天地之情 (咸卦下) 天이 震子를 合하므로 正大의 情이 된 것이다.

大壯은 上四爻에 羊의 象을 取하니 이는 上下卦를 合하여 大兌로 되고 兌에 羊象이 있는 까닭이니 마치 大壯의 同宮인 遯卦에 大巽의 豚象을 取함과 같은 것이다. 大壯에 羊의 象을 取한 것은 羊은 善觸하되 前進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大壯의 四陽은 觸하기 만하고 前進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羊觸의 象을 取한 것이다. 九三의 陽은 乾陽의 先頭에 있어 羝羊이 外掩한 陰의 藩을 觸하되 上六과 應하는 까닭에 角이 陰에게 繫纍되어 藩을 決치 못하며 九四의 陽은 外掩한 陰이 夬卦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陽이 陰을 決하는 象이 되어 藩이 決하고 繫纍되지 아니한 것이며 六五는 비록 大兌의 羊體로 되어 있으나 陰이 成의 中心에서 萬物의 씨를 保合하는 位에 있으므로 下四陽의 觸藩하는 것과는 陽이 陰中에 入하여 그 位가 相易하여 (六爻之義易而貢)도리어 下四陽을 保合하는 象이 되는데 羊은 兌로서 卵子의 象이오 陽이 卵子를 決入하면 卵子가 喪하는 것이니 이가 羊을 易에서 喪한 것이라 함이며 이는 大壯의 四陽이 萬物의 씨로서 保合되어 있음을 象한 것이다.(大輿者 坤象之坤厚載物之意也)

九三에 小人用壯 君子用罔의 兩象이 있는 것은 遯九四의 君子小人兩象과 같은 것이다. 大壯에는 下三爻의 乾陽과 上三爻의 震體가 있는데 九四의 陽도 陰中에 保合되어 地天泰卦의 象으로된 것이오 地天泰卦에 內君子外小人의 象이 있고 九三이 上六의 陰罔에 繫纍되어 있는 까닭에 上卦의 陰을 小人用壯이라 하고 下卦의 陽을 君子用罔이라 한 것이다. 이것을 달로써 보면 二陰이 四陽을 保合하여 大兌가 되고 文王八卦圖의 致役乎坤에 當하므로 달의 陰質이 자라고 있는 象이 되는 것이다.

序卦

遯은 陰體가 陽氣를 包하여 자라고 大壯은 陰體가 자라서 萬物의 씨를 載하므로 大壯이 遯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卦辭에 利貞 二字만 있는 것은 오직 大壯이오 利貞은 性情이라 陽이 陰中에 入하여 義가 和한 然後에 利貞하여 性情이 成하는 것이다 利貞은 亨으로부터 發展하고 亨은 嘉會하는 禮이니 그러므로 陰陽이 嘉會하여 禮에 合한 然後에 利貞하여 義가 和하여 性情이 成하여 天地正大의 情이 되는 것이니 이가 非禮弗履의 뜻이다.

禮는 天地의 生生하는 秩序이오 生生하는 秩序가 定한 然後에 性情이 正大한 것이며 人間社會도 生生秩序인 禮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 것이므로 사람은 禮不可廢이오 이가 사람이 非禮弗履하는 所以이다.(宇宙의 自然法則의 秩序를 履行함이다)

大壯은 陽의 止하는 卦인데 陽氣는 初九에 뭉쳐 있는 것이다.

上六은 九三과 應하여 羝羊觸藩의 象이 되는데 上에 極하므로 能히 後退치 못하고 또 大壯은 止하므로 能히 遂行치 못하니 遂라 함은 自意를 從하여 行함이라 上六은 大壯則止의 象이 되므로 不詳이 되니 詳은 兌羊 兌言으로서 兌의 剛鹵의 氣의 發함이다.

晉　火地

晉 明夷者 陰體之受陽之組織也 需訟相對 需訟爲太陽 故晉明夷爲月受日光

晉은 離火가 坤上에 있어 光明이 地上에 出한 象이오 離火의 光明은 달의 光明이니 이는 달이 太陽의 大明한 光을 受하여 光明을 發함이오 彖의 柔進而上行이라 함은 달의 陰精을 말함이다. 晉은 離坤의 合한 純陰卦로서 太陽의 光明을 受하는 象이 되므로 陰體組織의 長成한 象이 되는 것이다.

晉은 晉와 日로 되고 晉는 到함이니 太陽光明의 進하는 象이다. 晉은 古代 中國의 國都이오 夷는 中國外의 東夷와 西夷이니 晉과 夷는 地理的으로 東西로 相對하고 있으므로 明이 地上에 出하는 때에는 光明이 晉國을 照明하고 明이 地中에 入하는 때에는 光明이 夷國을 照한다 하여 明의 出하는 卦에는 晉字를 쓰고 明의 入하는 卦에는 夷字를 쓴 것이니 晉과 夷는 또한 明晦의 表示가 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에 北은 陽方이오 南은 陰方인데 坎은 正北이오 離는 正南이니 그러므로 乾과 坎水의 合한 需訟은 陽精水를 發施하는 陽體의 象이 되고 坤과 離火의 合한 晉明夷는 需訟의 陽精水를 承受한 陰體의 離火宮의 象이 되는 것이며 이 까닭에 序卦에 需訟과 晉明夷는 三十數로써 北과 南에 正相對하고 있는 것이다. 需訟에서 發施되는 陽精水는 곧 乾陽의 震子를 含한 習坎水이므로 晉에는 康侯의 象이 있으니 康은 蠱라는 뜻이오 侯는 震子라는 뜻이라 震子를 蠱한다 함은 需訟에서 震子를 씨로 하여 晉에 發施한다 함이오 文王八卦圖에 晉明夷는 相見乎離와 致役乎坤에 當하고 또한 坤彖의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 君子攸行에 當하니 晉에 牝馬의 象이 있으므로 需訟의 乾陽이 馬의 씨인 震子를 晉에 錫하여 蕃庶케 한 것이다. 蕃은 震子의 象이므로 震에 蕃鮮의 象이 있고 庶는 乾의 子孫의 衆多함이니 乾卦의 首出庶物은 이 뜻을 말함이다.

晝日三接은 訟上九의 終朝三褫와 相照하여 終朝와 晝日이 相照하고 三褫와 三接이 相照하니 이것은 晉明夷가 需訟의 陽精水를 承受함을 表示하기 爲하여 兩卦에 終朝三褫와 晝日三接의 象을 말한 것이다. 需訟과 晉明夷가 水火로써 相交하므로 太陽의 속에는 水가 있고 달의 속에는 火가 있고 萬物의 體는 모두 水火로써 本을 삼는 것이다.

晉明夷는 序卦에 三十六數로 되어 있는 蠱先甲三日後甲三日과 庚先庚三日後庚三日과의 中間에 있어 晉에 康侯와 日三接이 있고 明夷에 三日不食이 있으니 甲은 長의 時運中의 生의 時期이오 庚은 長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인즉 그 中間에 있는 晉明夷는 長의 時運中의 長의 時期에 當하여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하여 陰體의 長成을 極하고 있는 것이다.

麗乎大明이라 함은 上卦가 離火로 되고 下卦가 地山澤의 形質로 되는 때에 麗大明이나 麗明의 象이 되는 것이다. 上卦 離는 모두 달의 陰精이 太陽의 光을 받는 象인데 下卦의 地山澤의 形質은 반드시 太陽의 引力에 麗하여 運行되는 것이며 下卦坤에는 坤이 乾과 相配하므로 乾의 大明의 象을 取하여 麗乎大明이라 한 것이오 山과 澤은 地에 屬하여 單獨으로 大明에 麗하는 일이 없고 오직 女體의 陰子가 離火宮에 麗하고 胎兒인 艮童이 離火宮에 麗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睽旅의 麗乎明은 陰子나 艮童이 離火宮에 麗함을 말한 것이다.

六五爻에 失得이라 함은 坤卦의 先迷失道 後順得常의 뜻이니 六五는 달의 陰精이 順하여 太陽의 光明에 麗하고 있으므로 長의 時運의 달이 비록 先迷失道의 象이 되고 있으나 晉의 달은 後順得常의 旨에 合하므로 失得을 恤치 말라고 한 것이다.

序卦

遯大壯은 陰體의 자라는 象이오 陰體가 자라면 반드시 陽氣를 받은 然後에 여무는 것이므로 坤이 大明의 光明을 받는 晉이 大壯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明德이라 함은 德은 사람의 心體이오 心體는 日月光明에서 受來한 것이므로 本質이 明하니 이가 明德이다. 心體는 形質에 蔽한 바가 되어 外가 暗하므로 能히 光明을 發치 못하는 것이니 그 蔽한 바를 除하는 것이 곧 自昭이다.

摧는 莝와 同하여 馬薦의 뜻이니 晉에 錫馬蕃庶의 象이 있으므로 初六의 地下爻에 馬薦의 象을 말한 것이다.

六二는 蕃庶하는 生의 中心이므로 王母의 三接하는 象이 있어 受茲介福이라 하니 茲는 草木의 益多함이오 介는 豫卦의 介于石의 介로서 艮月의 反生하는 象이오 福은 光明을 受한다는 뜻이다.

鼫는 石과 鼠로 되어 모두 艮의 象이오 陰穴中의 文彩있는 動物을 象함이다 晉은 北方需訟의 水를 承受하여 晝日三接하여 次世代의 달을 形成하는 象이 되는데 次世代의 달은 艮象의 달의 反生하는 것이므로 晉에 艮月의 象을 말한 것이다.

角이라 함은 頭上의 陽이 陰에 觸하여 硬化한 者이니 晉은 陰이 上進하여 盛하므로 上九의 陽이 硬化하여 角이 된 것이오 維는 車蓋維로서 陰이 盛하여 陽을 掩覆함을 象한 것이다.

明夷　　地火

明夷는 離火가 坤中에 있어 光明이 地中에 入한 象이니 이것을 地上에서 보면 明의 傷한 象이 되고 地中에서 보면 明을 得한 象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달의 陰精이 光明을 包藏하여 陰體組織의 完全成熟하여 北極需訟의 陽精水를 承受하는 象이다. 明夷라 함은 晉의 相對方인 夷를 光明케 한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彖辭에 西夷의 君 文王과 東夷의 君 箕子가 있는 것이며 文王과 箕子는 同時代의 聖人으로서 文王은 易學을 中興시키고 箕子는 洛書洪範을 周武王에게 傳하니 文王과 箕子는 明夷의 時代에 當하여 易學과 洛書洪範으로써 夷國을 光明케 한 것이오 이는 易學과 洛書洪範이 바로 日月의 明이 되는 까닭이다.

文王과 箕子는 殷과 周의 史實에서 나온 것이나 明夷卦에 또한 文王箕子의 象이 있으니 文은 文明의 뜻이오 王은 乾陽의 象으로서 乾陽의 光明한 것을 文王이라 한 것이오 箕는 二十八宿의 하나로서 萬物의 生하는 根基가되는 東方星宿이니 그러므로 一陽이 生하는 冬至日에 太陽이 箕星座에 있는 것이오 子는 子仁이니 箕子는 萬物의 씨의 元이 되는 震子를 말함이니 文王은 卦名의 解釋이오 箕子는 六五爻의 解釋이다.

初二三의 三爻에 먼저 明夷를 말한 것은 離火가 地中에 入함을 象함이다. (四五爻 明夷在下句者 上卦陰體蔽明故也) 初爻는 처음에는 飛하고 내종에는 그 翼을 垂하니 飛하는 것은 上六의 初登于天의 뜻이오 垂翼하는 것은 上六의 後入于地의 뜻이다. 飛와 垂翼은 鳥의 象이니 震子가 習坎水中에 包含되어 陰體로 飛越하는 象의 곳에 鳥의 象을 말한 것인데 明夷는 乾의 飛龍인 震子가 需訟의 陽精水에 包含되어 習坎의 鳥數飛로 되어 明夷의 離火宮에 飛來한 것이므로 初九의 陽爻에 鳥가 飛하여 翼을 垂하고 上으로부터 下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天地 自然數에 一은 生長하여 下로부터 上하는 것이므로 一로부터 生長하여 上하는 것을 一以貫之라 하니 剝卦六五의

貫魚는 一로부터 上하여 生長의 極한 것이오 十은 收斂하여 上으로부터 下하는 것이므로 十으로부터 收斂하여 下하는 것을 十以翼之라하니 明夷의 垂翼은 十으로부터 下하여 收斂作用의 始하는 것이다. 明夷는 乾의 大明으로부터 三十六卦 二百十六爻의 乾策數에 當하여 乾道가 終하고 坤道가 始하는 象이므로 上六에 初登于天後入于地의 象이 있고 明夷의 다음 卦인 家人 睽가 비로소 收斂卦가 되는 것이다. 三日이라 함은 震子가 生成하여 달의 形을 生함을 象함이오 三日不食이라 함은 달이 地中에 入하되 震子의 生長하고 있는 달의 形은 蝕치 아니한다 함인데 明夷는 蠱甲三日과 巽庚三日의 中間位序에 있으므로 三日不食의 象이 된 것이다.

六五에는 箕子가 夷國을 光明케 한다 하고 小象에는 明을 可히 息치 못한다 하니 이 明不可息은 달을 말한 것이므로 明夷卦에 스스로 箕子의 象이 있고 箕子는 萬物을 生하는 根基로 되는 東方震子를 말함이오 震子는 곧 乾大明으로부터 晉明夷의 離火宮에 飛入한 飛龍이며 六五는 달을 包有하고 있는 中心位이다.

晉明夷에서 乾策이 終하고 坤策이 始하는 象을 文王八卦圖로써 보면 序卦에 需訟의 乾坎이 北에 居하고 晉明夷의 坤離가 南에 居하는데 需訟은 天水의 生하는 곳이므로 文王八卦圖의 西北의 乾이 먼저 闢戶한 然後에 坎水가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乾이 먼저 西北에 居하여 闢戶하고 다음에 坎이 正北에서 生한 것이며 晉明夷는 火가 地에 包藏되어 成하는 곳이므로 文王八卦圖의 正南의 離火가 먼저 生한 然後에 坤이 闔戶하여 包藏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離가 먼저 正南에서 生하고 다음에 坤이 西南에서 闔戶하는 것이다. 乾策은 乾의 闢戶에서 始하고 坤의 闔戶에서 終하는 것이므로 序卦에는 需訟의 由來한 乾大明에서 乾策이 始하고 晉明夷의 明入地中에서 乾策이 終한 것이다.

序卦

明夷

晉은 大明의 光明을 받고 明夷는 大明의 光明을 받아서 陰體의 속에 包藏하여 陰體가 여무는 것이므로 明夷가 晉에 次하는 것이다. 咸 恒 遯 大壯 晉 明夷는 地道 三宮으로서 陰體의 長成하는 象이다.

大象

明夷는 內明外暗한 卦이니 이가 用晦而明의 뜻이다. 사람이 衆을 待함에 明을 盡用하면 太察하여 도리어 明이 傷하는 것이니 明夷는 明傷의 象이라 明을 傷치 아니하기 爲하여는 衆에 莅함에 內는 明하면서 外로는 晦를 用하는 것이다.

明夷에는 坤象의 象이 있으니 坤象에 柔順이 있고 坤 以外에 柔順의 辭가 있는 것은 오직 明夷의 外柔順이며 坤象에 君子 有攸往이 있고 明夷 初九에 君子于行 有攸往이 있으며 坤象에 後得主가 있고 明夷 初九에 主人有言이 있으니 有言은 또한 需訟의 有言이며 坤象에 牝馬가 있고 明夷에 用拯馬壯이 있는 것이다.

馬壯은 震子의 象이오 用拯馬壯은 后天月의 씨인 震子가 水中에서 生한다 함이니 이는 陰體와 震子가 合體하여 陰體의 여무는 象이다.

明夷는 明이 地中에 入한 것이오 上六이 明入하는 主爻이므로 不明晦라 한 것이오 諸爻中에 오직 上六에 夷가 없는 것은 上六 自身이 곧 夷인 까닭이다.

六三의 南狩는 明夷가 蠱甲巽庚의 中間인 丁에 있음을 象함이니 丁은 南方이오 離의 終爻이므로 丁을 말한 것이다.

大首는 乾象이니 明夷의 丁의 속에 乾陽을 得하여 자라고 있는 것이오 이

것이 여물어서 巽庚이 되는 것이다.

左腹은 坤象이니 六四 坤體가 離火宮을 包하므로 坤腹의 象을 取하고 또 明夷의 辭가 爻辭의 中間에 있는 것이다. 心이라 함은 陽氣가 陰中을 出入함이니 明夷의 心은 坤陰 中을 出入하는 陽氣이므로 六四에 獲明夷之心이 있는 것이다. 意(억)은 蠱 初六과 明夷 六四에만 있는데 意은 心音이오 音은 陽體가 陽氣를 發宣함이니 明夷 六四가 初九와 應하므로 初九의 有言이 곧 六四의 獲心意이다. 門은 日月出入하는 乾坤門이오 庭은 兌口의 象이니 于出門庭은 坤陰의 달이 乾坤中을 運行함이며 節 九二의 不出門庭과 相照하니 節의 不出門庭은 先天月의 消終함이다. 六四는 后天月을 受胎할 坤陰宮의 象이다.

家人　　風火

家人은 三女卦이오 收斂卦이니 陰體의 股와 離火宮의 收斂하는 것이므로 陰體組織의 長成하는 象이다 (家人은 陰精의 卦로서 陽體陰用하므로 陰精의 長成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萬物의 體는 乾元과 坤元의 二元組織으로 되어 陽氣와 陰精으로써 構成되는데 陽體는 四德卦인 臨觀의 天之道와 無妄大畜의 天之命으로써 組織되어 臨觀은 陰精이 되고 無妄大畜은 陽氣가 되어 陽體의 陽子에서 男女가 分化되는 것이오 陰體는 三女와 三男의 收斂卦로써 組織되니 家人睽는 三女의 收斂한 것이므로 陰精이 되고 蹇解는 三男의 收斂한 것이므로 陽氣가 되는 것이다. 陰體와 陽體는 모두 陽氣와 陰精의 二元組織으로 되어 있으되 陽體는 陰體陽用하고 陰體는 陽體陰用하는데 收斂卦는 모두 陽體陰用이 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陰體는 三女卦와 三男卦의 收斂卦인 家人睽와 蹇解로

써 組織되는 것이오 이 陰體組織이 또한 달의 組織이며 易卦名에 人字를 쓴 것은 同人과 家人인데 同人은 天의 乾陽이 離火宮을 應하는 것이오 家人은 天氣가 離火宮에 下降하는 것이니 兩卦가 모두 上天下火로 되어 있으며 火는 반드시 炎上直立하여 天을 向하는 것이오 사람에게 火氣가 있으므로 사람이 또한 火와 같이 直立하여 天을 向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火가 天을 向하고 있는 同人과 家人에 모두 人의 象을 取한 것이며 同人은 生의 時運에 天의 光明이 離火宮을 應하므로 달에서 사람의 씨의 生하는 象이 되니 이는 天下人이 모두 同一한 人類라는 뜻이므로 同人이라 한 것이오 家人은 長의 時運에 天氣가 離火宮에 下降하여 三女收斂하는 달의 陰精中에서 사람을 生하는 象이 되니 이는 女體가 사람을 生하여 家庭人이 된다는 뜻이므로 家人이라 한 것이다.

家人은 上九 一爻를 除하고는 모두 陽이 陽位에 있고 陰이 陰位에 있어 各其 位를 正하고 收斂하여 內向하므로 家人의 象이 되는데 또한 序卦에 家人은 坤으로부터 三十六卦에 當하고 坤에 積善之家 積不善之家의 家象이 있고 또 君王 父子 臣妾의 象이 있으므로 家人에 家字를 쓰고 君王 父子 夫婦의 象을 말한 것이다.

家人의 三女收斂 組織은 달의 陰精의 象이므로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에 當하고 坤象의 先迷失道 後順得常에 當하는데 象辭에 女正位乎內는 달이 太陽의 後에 있음이오 男正位乎外는 太陽이 달의 先에 있음이니 이는 後順得常하는 後得主의 象이며 長의 時運의 달은 先迷가 되고 있는데 家人은 序卦의 收斂卦의 始로서 陰體가 成熟하여 成의 時運을 向하고 있으므로 그 卦象에 後得主의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오 男女 正位를 天地의 大義라고 하는 것은 「陰陽之義配日月」의 理와 利者義之和也의 理에 依하여 달이 收斂하여 得主하는 義이라 함이다.

家人卦는 下五爻가 모두 陰陽의 位가 正하고 오직 上九 一爻가 陽이 陰位에 있으니 이는 一陽이 天으로 되어 圜行하는 象이 되므로 尊嚴한 君의 뜻을 取하니 이것을 一家로써 보면 父母의 象이 되고 天地로써 보면 天地의

大父母인 天祖의 象이 되는 것이다 家人卦는 卦全體로써 보면 父母와 子女의 象이 되는 것이오 下五爻만으로써 보면 모두 一陰一陽이 交錯羅列하여 靜的으로는 兄弟姊妹의 象이 되고 動的으로는 夫婦交合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父母 子女 兄弟 夫婦를 말한 것이오 一陰一陽함을 道라 이르는 것이므로 家人卦의 一陰一陽의 交錯羅列된 것을 家道라 한 것이다. 또 父子의 傳承은 時間推移의 象이오 兄弟의 繁殖은 空間擴大의 象이오 夫婦의 交合은 空間의 互相連結의 象이니 여기에는 世界가 一家이오 全人類가 兄弟이라 하는 뜻이 있는 것이오 그 까닭에 家를 正하매 天下가 定한다고한 것이다.

家人은 小하기는 父母를 모시고 있는 一家이오 大하기는 天祖를 모시고 있는 全世界이라 그러므로 同人은 世界人類의 同原임을 말한 것이오 家人은 世界人類의 同一家族임을 말한 것이다.

九五는 天氣의 下降하는 中心으로서 男正位乎外의 位가 되고 乾陽의 氣가 달의 陰精에 假居하여 사람의 씨를 生하는 것이므로 王假有家라하니 王은 乾陽의 象이라 乾陽이 一家의 夫가 된다 함이다. 繫辭에는「安土敦乎仁故能愛」라하니 이는 土에 安居하여 열매가 여무는 것을 愛라고 하는 것인데 九五小象에 王假有家는 交相愛함이라 하니 天氣의 下降하는 風은 神의 象이라 神이 世界人類를 生하여 家庭을 이루고 安하고 여물고한 生活을 하게 하므로 이것을 愛이라 한 것이다.

六爻中에 오직 九三에만 家人의 辭가 있으니 이는 人을 象한 家人卦에 九三이 人位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九三의 陽은 六四의 巽股와 接하므로 犯股의 戒가 있는 것이니 嗃嗃는 嚴肅이오 嘻嘻는 樂聲이라 九三의 陽이 嚴肅自戒하면 그生을 失치 아니하는 것이오 六四 九三의 婦子가 喜樂相與하면 家庭의 禮節을 失하는 것이다. 大象은 人道를 말하는 것이므로 家人大象에는 九三爻의 人位의 象을 말하여 言有物而行有恒이라 하니 物은 等分이오 恒은 恒卦의 夫婦之道 不可以不久이라 九三이 嗃嗃하여 家節을 지켜서 夫婦의 道를 恒久케 하는 것이 곧 大象의 言有物行有恒이다.

初九는 六四의 巽股를 應하므로 閑有家의 象이 되어 志가 變치아니 하고 防閑하면 後悔가 없다고 한 것이다.

上九의 有孚威如는 달의 陰精의 成熟함이니 有孚는 陽氣의 뭉침이오 威如는 陽氣가 內向하여 陰精中에 入함이라 陽氣가 뭉치고 內向하여 陰精에 入하는 것이 곧 달의 陰精의 成熟함이다.

六二는 女正位乎內의 位로서 家庭主婦가 食生活을 主하는 象이오 饋는 物로써 사람에게 供한다는 뜻이니 家庭主婦가 사람을 饋하는 飮食을 짓고 家事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神道이므로 小象에 順以巽이라 하니 順以巽은 觀卦神道의 象이다. 九五의 王假有家가 神道의 象이므로 九五를 順하여 下로부터 上에 올리는 象의 六二에 또한 神道가 있는 것이다.

序卦

晉明夷는 陰體가 大明의 光明을 받아서 여무는 象이오 家人은 陰體가 여물면서 陰精組織의 收斂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家人이 明夷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風自火出이라 함은 火의 起하는 곳에 風이 生한다 함이니 風은 磁氣의 힘의 動함이라 磁氣가 太陽에서 出하는 것이 곧 風自火出이다. 家人卦에 있어서는 風은 巽이니 臭이오 火는 陰宮이라 陰體에 生殖의 情이 發하면 發情한 臭가 陰宮으로부터 發散되고 動物이 臭에 依하여 交接하는 것이니 臭自火宮出은 家人의 生殖作用을 行하는 象이다.

下卦 火는 直立한 人의 火氣의 上向함이오 上卦 風은 사람이 天氣를 鼻로써 呼吸함이니 이는 火는 上하고 天氣는 下하여 神人圜行하는 象이며 그러므로 五爻에 王假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呼吸器가 病하여 天氣를 呼吸함이 不調한 者는 神과 相通치 못하는 象이다 不正腐敗者 不能通神 此肺病之象이다.

言出乎身加乎民 行發乎邇見乎遠하는 것이니 言行은 內에서 出하는 것이므로 風自火出하는 家人卦에 言行을 말한 것이다. 物은 等分이니 言有物은 家庭內의 尊卑를 別하는 秩序이오 恒은 夫婦道의 久함이니 行有恒은 家庭內의 夫婦道의 久함이다. 雜卦에 睽外也家人內也라하니 이는 坤卦六二의 敬以直內義以方外의 뜻이다. 家人睽는 三女收斂卦이므로 坤象이 있는 것이다.

敬以直內는 禮인데 家人은 家庭內에서 男女의 秩序가 正하여 禮를 차리는 것이 곧 直內이오 義의 方外는 義의 和함인데 睽는 男女의 志가 通하여 義가 和하는 것이 곧 方外이다.

六四의 富는 人間社會의 生活資料를 말함이니 長女 巽의 陰爻에 富의 象이 있는데 이것을 特히 家人六四에 말한 것은 家人은 三女의 陰卦로서 下經最初의 收斂卦가되어 形質을 生養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閑은 馬廐에 매어 둔다 함이니 大畜 九三의 閑과 같고 志未變은 股를 犯치 아니함이니 中孚 初九의 志未變과 같은 것이다.

中四爻가 陽劃이 陽位에 있고 陰劃이 陰位에 있는 者는 모두 正의 象이 되니 家人의 正家 蹇의 正邦 漸의 正邦 旣濟의 剛柔正이 모두 그 뜻이다.

睽 火澤

睽는 三女收斂卦로서 離火宮에서 女體의 陰子의 生하는 象이므로 또한 달에서 달의 陰子인 兌澤이 生하는 象이다. 文王八卦圖의 四正生成卦의 理에 兌澤은 西에 있으므로 南의 火에서 生하고 北의 水에서 成하니 그러므로 火와 兌澤의 合한 家人睽는 兌澤의 生하는 象이 되어 序卦의 收斂卦의 始가되고 水와 兌澤의 合한 渙節은 兌澤의 成하는 象이 되어 序卦의 收斂卦의 終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睽는 三女가 收斂하여 달의 陰火宮에서 兌澤의 生하는 象이 되고 離火宮에서 兌澤이 生하므로 說而麗乎明이라 한 것이다.

睽는 火가 動하여 上하고 澤이 動하여 下하여 서로 睽異하고 人事로써 보면 中女 少女의 二女만이 同居하고 長女의 없는 者는 그 志가 同行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睽가 된 것이다. 睽字는 目과 癸로 되어 目은 離火의 象이오 癸는 水가 四方으로부터 地中에 流入하는 澤의 象이라 睽는 離火와 兌澤으로 된 까닭에 目과 癸로된 睽字로써 卦名을 삼고 水火가 相乖하여 反目한다는 뜻을 表한 것이다.

睽는 火와 澤이 上下에 相對하는데 上은 南의 象이오 下는 北의 象이므로 南極과 北極의 相對하는 象이 되고 있다. 水火로된 旣濟未濟는 南北極의 象이 되지 아니하고 火澤의 睽가 南北極의 象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旣濟未濟는 水火가 運行하여 相逮相濟하는 것이므로 南北兩極에 固定된 것이 아니며 睽는 火上澤下하여 上下의 方向이 定하여 있는 水火인 까닭에 南北極의 象이 된 것이며 澤에 水의 象을 取한 까닭은 火와 澤이 同居하는 때는 澤도 또한 水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澤火革에도 水火의 象을 取하여 水火相息이라고 한 것이다.

睽는 南北極의 相睽한 象이 되는데 睽에는 目의 象이 있고 또 文王八卦圖의 相見乎離에 當하여 物의 相見하는 象이 되므로 南北極의 相見하는 象이

있어 北極에서는 南極의 水火流行과 南方噬嗑의 象을 見하고 南極에서는 北極의 北方解와 水火流行의 象을 見하는 것이다. 南北極은 비록 相睽하되 그것은 一物의 兩端에 不外하므로 마침내 睽異가 變하여 同類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彖에는 天地睽而 其事同也 男女睽而 其志通也 萬物睽而 其事類也라하여 모든 事物이 睽異하되 그 事功은 同一하고 또 事物이 睽異한 까닭에 서로 用을 삼아 合一한다고 한 것이다. 睽卦에 南北極相對의 象이 있으므로 女體의 離火宮과 陰子와의 사이에도 반드시 上하고 下하고 하는 南極의 相睽作用이 있어 睽하면서 同하고 달에도 또한 南北極의 相睽作用이 있어 그 作用에 依하여 運動이 일어나서 睽하면서 同하는 것이다.

時用大矣哉　　習坎卦下

睽는 收斂卦로서 六五가 上行하여 달의 陰精의 中心이 되어 九二의 陽과 應하므로 九二의 陽이 六五의 陰中에 入한 것이오 이것을 象하여 噬膚라하며 六五와 九二가 生成의 中心에서 相應하는 까닭에 睽異한 者가 同行하게 된 것이오 그러므로 小事가 善하니 小事라 함은 收斂하여 合同하는 일이다.

六三은 北極의 爻로서 그 望見하는 바는 南極의 輿曳其牛掣하는 旣濟卦의 象과 其人天且劓하는 噬嗑卦의 象이니 噬嗑이 보이는 것은 噬嗑은 南方午門의 開門한 卦인 까닭이오 上九는 南極의 爻로서 그 望見하는 바는 北極의 豕負塗하는 解卦의 象과 載鬼一車하는 未濟卦의 象이니 北方子門의 節卦가 보이지 아니하고 解卦가 보이는 것은 節卦는 子門의 閉門된 象이오 解卦는 天地의 凍結된 것이 解坼된 象인 까닭이다.

初九에는 喪馬自復의 象이 있으니 天地에는 달의 乘龍御天하는 理에 依하여 文王八卦圖의 四正生成卦인 屯賁睽渙에 時運의 變化하는 象이 있어 陰이 馬를 乘하고 天으로 圜行하는 理가 있으므로 (屯卦下 參照)睽初九에 馬

行의 象이 있는 것이오 睽卦가 先에 睽하고 後에 同하므로 先에 馬를 喪하고 後에 馬가 自復한 것이다,

序卦

家人은 股와 離火宮의 陰體組織이 收斂하는 象이오 睽는 陰體의 離火宮이 여물어서 陰子가 生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睽가 家人에 次하는 것이다.

睽는 序卦의 乾으로부터 第三十八에 當하는데 易學의 四象策數에 또한 三十八數의 象이 있다. 四象策數에 老陽餘策은 十三이오 老陰餘策은 二十五이오 少陽餘策은 二十一이오 少陰餘策은 十七인데 老陽老陰의 餘策이 合하여 三十八이 되고 少陽少陰의 餘策이 또한 合하여 三十八이 되니 餘策이라 함은 閏餘의 數로서 曆法에 十九歲七閏이라는 閏法數 十九도 이 三十八의 平均數에서 나온 것이다. 閏餘의 策은 生生閏殖하는 象이 되는 것이므로 物이 새로 生殖하는 것을 象하여 閏이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殖을 主하는 陰體의 生殖宮인 家人睽는 序數의 第三十八 卽 十九宮의 閏法數에 當하여 序卦의 閏宮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家人睽는 生生의 閏宮으로 되어 있으므로 家人卦는 父子 兄弟 夫婦가 生生分岐하고 睽는 天地 男女 萬物이 모두 睽하여 生生하고 있어 長의 時運의 象이 되고 있는 것이오 이 까닭에 閏法의 數인 三十八數에 當하는 것이다 家人睽가 變하면 交易하여 后天出生하는 胎宮의 革鼎으로 되어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데 成의 時運에는 日月度數가 變하여 閏曆의 法이 變하여 閏이 없어지는 것이니 革卦의 治歷明時는 이 閏曆의 變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大象

同而異라 함은 同하되 異함이니 繫辭의 「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의 뜻이다. 彖에는 睽의 中에 同이 있는 理를 말하고 大象에는 同의 中에 異가 있는 理를 말하니 睽는 同一地球의 兩極이므로 睽한 中에 同이 있고 同한 中에 異가 있는 것이다.

晉明夷의 陰體는 乾으로부터 馬를 受하고 그 馬를 受하는 곳은 睽의 陰體의 兌澤이니 그러므로 睽下卦兌에 馬自復의 象이 있는 것이오 先睽后同하는 까닭에 先에 喪하고 後에 自復하는 것이다. 惡人은 上卦噬嗑象의 사람이니 噬嗑에 惡積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二는 彖의 應乎剛이오 六五의 明에 麗하고 있으니 九二와 六五는 爻로써 보면 九二는 陽이오 六五는 陰이며 卦로써 보면 九二는 澤水形質인 陰이오 六五는 太陽光明인 陽이다. 巷은 골목 小路이다. 九二의 遇主는 相遇하여 相合함이오 相交生殖함은 아니다.

六三은 下卦澤水의 極에 있으므로 北極의 象이 되며 北極上에 立하여 四方을 보면 四方이 모두 南이므로 南方만이 보인다. 輿曳는 南方火上에 坎輿曳가 있는 旣濟卦의 象이오 其牛掣가 또한 旣濟의 東鄰殺牛와 相照하여 旣濟의 下卦 離火中에 后天牛運의 牛가 있는 것이다.

睽는 火動上 澤動下하여 先睽后同하는 卦이므로 또한 水火卦가 水就下 火炎上하여 水火相濟하는 旣濟卦를 보는 것이다.

天且劓는 天은 上爻의 뜻이오 劓는 滅鼻의 뜻으로서 모두 噬嗑의 象이니 噬嗑 上九의 何校가 天의 象이오 九二의 滅鼻가 劓의 象이다. 睽는 火澤의 先睽后同卦이므로 또한 午中의 火에서 先分后合하는 噬嗑卦를 보는 것이다.

無初有終은 六三의 陰이 上九의 陽을 遇함을 말함이다. 自然數는 一의 陽數에서 始하여 十의 陰數에서 終하므로 陽은 始가 있고 終이 없으며 陰은

終이 있고 始가 없는 것이니 六三의 無初有終은 陰體의 여무는 것은 陽으로써 始를 삼으므로 六三의 陰은 初가 없는 것이오 陰體의 陰子는 物의 終을 作成하므로 六三의 陰은 終이 있는 것이다. 巽九五의 先庚後庚의 無初有終도 睽六三과 同一한 理이다. 그런데 無初有終의 象은 어느 陰陽相交의 象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物의 여무는 때에만 있는 것이니 睽의 陰體는 陽을 受하여 收斂하여 여무는 것이며 巽의 庚은 또한 陽을 承受하여 여무는 것이니 이는 物의 여무는 것은 반드시 神作用을 受하여 여무는 理이다.

孤라 함은 坤六二의 敬義立而德不孤의 孤이니 九四 上九의 火性이 動하여 上하고 外에 異居하므로 敬義가 立치 못하여 孤한 것이다.

宗은 震의 象이오 震이 陰精中에 入한 것이 곧 宗噬膚이니 噬嗑卦의 噬膚가 곧 그것이오 噬嗑六二의 陰精속에 震子가 噬膚하여 入하면 卦가 變하여 火澤睽가되니 그러므로 睽六五가 九二의 陽을 應하는 것은 곧 九二의 속에 있는 噬膚하는 震宗을 應함이다.

睽는 文王八卦圖 互旣濟의 卦이니 互旣濟는 水火變化 旣成萬物之意也 睽互旣濟는 上爻陽下爻陽 故女體中之火氣之坤作成物之作用也

上九는 上卦離火의 極에 있으므로 南極의 象이 되며 南極上에 立하여 四方을 보면 四方이 모두 北이므로 北方만이 보인다. 豕負塗는 坎豕가 震塗를 負하고 있는 解卦의 象이니 睽는 火澤의 先睽后同한 卦이므로 또한 北方의 水卦가 雷雨가 作하여 先凍后解하는 解卦를 보는 것이다.

載鬼一車는 鬼方의 坎輿에 鬼獸인 小狐를 載한 未濟의 象이오 弧는 坎의 弓輪이라 下卦坎이 張弧하고 上卦離가 說弧하는 것이 또한 未濟의 象이니 睽는 火澤의 先睽后同한 卦이므로 또한 先張弧后說弧한 未濟를 보는 것이다.

匪寇婚媾는 上九와 六三의 相遇하는 象이니 解가 先凍后解하고 未濟가 先張弧后說弧하므로 先暗后明하여 匪寇婚媾의 象이 된 것이다.

家人 睽 蹇解의 變易現象

家人睽는 南極作用이오 蹇解는 北極作用이다. 地球는 南北이 모두 收斂作用을 行하므로 家人睽 蹇解가 된 것이나 南北極은 서로 反對方向으로 動하고 있어 함께 天의 陽氣를 承受하니 女體의 生殖器도 同一히 收斂하면서 한便으로는 形質이 內向하고 한便으로는 火氣가 外向하는 作用이 있다. 三八線에도 이러한 作用이 있으므로 이 四卦가 三八線 象이 된 것이다.

金火正易圖에 中間의 地의 位에 東西南北은 內向하고 (女體生殖器의 形質) 戊己日月은 外向하니(女體生殖器의 火氣)이것이 또한 家人睽蹇解의 理이다. (金火正易圖에 三八線의 象이 있다)

易學의 씨의 生長하는 象은 三男生長卦인 屯蒙의 象이오 基督敎의 胎宮保血의 象은 三女收斂卦인 家人睽의 象이며 序卦 乾으로부터 睽卦까지는 三十八卦로서 地上 三十八度線의 象이오 三十八度線의 睽蹇은 地球의 胎宮의 象이며 乾元震과 坤元兌는 이 地球의 胎宮인 三十八度線에서 相交하는 것이며 地球의 胎宮은 달이므로 三十八度線은 달의 受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睽蹇에서 天地相交하는 損益卦는 陽精을 承受하는 달이 十朋之龜로 되어 있는 것이다. 睽蹇의 三十八線에 달이 밝고 있으므로 蹇의 乙酉年에 韓國에서 日暮月明한 것이오 損益의 天地相交는 夬姤萃升으로써 行하는데 姤에 天地相遇의 象이 있으므로 姤의 庚寅年에 震兌相交의 作用이 行하는 것이오 震은 中國이오 兌는 美國이라 그러므로 庚寅年에 韓國의 三十八度線에서 中國과 美國의 大師가 相遇한 것이다.

震兌相遇한 韓國三八線은 달의 象이오 달은 예수의 象이므로 三十八度線은

예수의 主管하는 곳이니 三十八線의 大師相遇는 后天을 生하기 爲한 天之所使이오 그러므로 三八線의 統一은 또한 예수의 主管에 있는 것이다.

三八線에서 后天이 生하고 后天의 象徵은 艮兌가 成道하는 것이므로 正易에는 八艮三兌가되어 艮兌가 三八數로 되는 것이다.

蹇 水山

蹇은 三男收斂卦 (三女生長卦와 相對)이니 陽氣가 收斂하여 陰精과 함께 陰體의 組織이 되는 象이므로 陰體의 組織中에는 蹇解의 陽氣가 들어 있고 陰體는 蹇解의 陽氣를 得하여 長成하는 것이다. 三男卦의 收斂이라 함은 收斂은 陰의 象이므로 陰이 陽을 受하여 收斂한다는 뜻이므로 蹇解는 坤受乾의 象이 된다.

蹇은 文王八卦圖의 齊乎巽에 當하고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는 象이니 이는 또한 달의 坤陰이 乾陽을 承受하는 象이다. 蹇은 水와 山으로 되어 水는 險하고 山은 止하므로 險을 見하고 能히 止하는 象이 되니 艮은 果實의 象이오 坎은 冬寒의 象이라 果實이 冬寒을 만나서 收斂하여 止한다는 뜻이다. 蹇字는 足과 寒으로되고 足은 果實中의 震子의 象이니 果實中의 震子가 冬寒을 만나서 그 行함이 蹇難한 것이므로 蹇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知라 함은 三顯一藏의 理에 依하여 冬에 陽氣가 內部에 藏하여 乾以易知의 作用을 行하여 生命의 發하는 源이 되는 것이니 蹇의 陽氣收斂에는 一藏의 作用이 있으므로 이것을 知矣哉라고 한 것이다.

달에 知를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知라 함은 사람이 神明의 光明에서 天性을 稟受하고 天性에 知와 能이 있으니 知는 사람의 天性이 그 稟受한 光明을 다시 物에 照射하는 作用이다. 地와 달도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光明을 生하고 그 光明을 다시 物에 照射하면 그것을 知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坤六三의 知와 蹇의 知는 모두 달의 光明의 象이다.

蹇解는 坤象의 西南得朋 乃與類行 東北喪朋 乃終有慶에 當하므로 蹇解에 西南東北의 辭가 있는 것이다.

蹇은 달의 陰精이 陽氣를 受하여 그 體를 여물게 하는 象이므로 坤陰이 乾陽을 受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陽은 坤中劃이 乾陽을 受하여 坎이 된 것이오 九三의 陽은 坤上劃이 乾陽을 受하여 艮이 된 것이다. 그런데 九五의 陽은 成의 中心에 있어 坎月의 象이 되므로 月生의 象이 되어 陰陽의 義가 和하고 九三의 陽은 中을 得치 못하여 將消하는 艮月의 象이 되므로 月消의 象이 되어 陰陽의 義가 和치 못하니 西南이 利하다 함은 西南은 月生의 方이므로 九五의 月生함을 象하여 西南이라 한 것이오 九五爻의 朋來가 곧 月生한 것이며 東北이 利치 못하다 함은 東北은 月消의 方이므로 九三의 月消함을 象하여 東北이라 한 것이오 九三爻의 往蹇來反이 곧 艮月이 消하고 震月이 反生하는 것이다.

時用大矣哉　習坎卦下

蹇의 諸爻는 生成中心의 九五와 六二를 除하고는 모두 往來의 象이 있으니 往은 外向함이오 來는 內向함이라 蹇은 陽氣가 陰體中에 內入하는 卦이므로 모두 外에 往치 아니하고 內에 來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九五는 象의 利西南往得中의 爻이다. 朋은 달이니 朋來라 함은 坤體가 乾陽을 受하여 달의 光明을 生함을 말함이오 乾陽이 陰精中에 蹇하고 있으므

로 大蹇이라 한 것이다. 節은 子中卦로서 水가 收斂하고 天地가 節하여 달이 다시 生하는 卦인데 蹇이 또한 水가 收斂하고 果實이 冬寒의 水中에 있어 그 象이 節卦와 相似하므로 中節이라 한 것이니 그러므로 節의 後에 中孚의 合朔緩死가 있고 蹇의 後에 解의 天地解緩이 있는 것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에서 乾陽을 受하므로 王臣이라 한 것인데 王臣字를 쓴 것은 蹇은 本坤體로서 或從王事하는 臣道라 하는 뜻을 表하기 爲함이오 또 蹇은 中四爻가 모두 當位하여 正邦의 象이 있으므로 邦과 王臣을 關聯시켜서 말한 것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에 있어 往來할 곳이 없으므로 往來의 象이 없고 往하여도 蹇하고 來하여도 蹇하다 하여 蹇蹇이라 한 것이다. 躬은 身의 行動을 말함이오 下卦 艮身의 뜻이며 故는 弊故함이니 匪躬之故라 함은 六二가 蹇蹇하고 있는 것은 艮果의 弊故함이 아니라 時가 冬寒中에 있는 까닭이라 함이다.

上六은 蹇의 極에 處하므로 剝上九의 碩果의 象이 되어 來碩이라 한 것이니 이는 艮果의 成終成始하는 位이며 剝이 窮하면 復으로 反하는 것이므로 蹇上六이 碩하고 內에 反生하여 解卦의 來復이 된 것이니 이는 小象의 志在內의 뜻이다.

序卦

家人睽는 달의 陰精의 收斂하여 자라는 象이오 陰精은 收斂하는 陽氣를 얻은 然後에 여무는 것이므로 陽氣의 收斂卦인 蹇이 睽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蹇

彖의 見險能止 知矣哉가 곧 反身修德이다.

蹇에는 彖과 上六爻에 利見大人의 象이 있으니 爻에 利見大人이 있는 것은 오직 乾九二 九五와 蹇上六뿐이다. 蹇彖의 利見大人은 九五爻의 象이오 九五의 利見大人은 九五는 本坤體로서 坤六五 坤元이 乾陽을 受하는 象을 蹇九五에 말한 것이오 上六의 利見大人은 坤上六의 龍의 象을 蹇上六에 말한 것이니 小象의 從貴라 함은 貴는 乾씨의 象이라 乾陽의 長子인 震龍을 從함을 利見大人以從貴라 한 것이다.

解 雷水

解는 三男收斂卦이니 陽氣가 陰體의 陰精中에 入하여 陰精의 凍蹇함을 解緩하고 陰體가 長成하는 象이다. 雷가 險을 出하여 屯으로 더불어 交易하므로 動하여 險을 免한 象이 되니 이가 解의 象이다.

解字는 刀와 牛角으로 되어 刀로써 牛角을 解剖한다는 뜻이니 角이라 함은 陽氣가 陰에 觸하여 硬化한 者인데 解卦는 陽氣가 陰體中에 入하여 陰氣를 散하고 硬化한 角을 消하는 象이 되므로 解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解는 蹇과 함께 本坤體로서 乾陽을 受하는 象이니 九四의 陽은 上卦坤의 初爻에 陽이 往하여 震이 된 것이므로 震子가 坤衆을 得하고 달의 光明의 生한 象이 되며 그러므로 九四에 朋이 至한다 한 것이오 蹇卦에서 달의 光明의 生한 것을 利西南이라 하므로 解卦 九四에서 달의 光明의 生한 것도 또한 利西南이라 한 것이다.

彖의 天地解而雷雨作은 蹇卦의 冬寒이 解卦에서 解함이오 雷雨作 而百果草

木 皆甲坼은 蹇卦의 艮果가 解卦에서 生育함이니 이는 모두 陰精이 陽氣를 受하여 陰陽이 義和하여 달의 陰體가 長成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時大矣哉 頤卦下

六五는 解의 成의 中心이므로 雷雨作의 象이 되어 陽氣의 繫維된 것이 解緩되고 陽氣가 陰精中에 뭉쳐서 陰氣가 退한 것이오 生의 中心인 九二는 乾陽의 來復한 位이므로 百果草木이 모두 甲坼하는 것이다.

上六은 달의 陰精이 乾陽을 射獲하여 光明을 生하여 陰陽의 相悖함을 解하는 象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隼은 禽이오 弓矢는 器이오 射하는 者는 人이니 君子가 器를 身에 藏하고 時를 待하여 動하면 무엇이 不利함이 있으리오 動하여 括치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出하여 獲함이 있으니 器를 成하여 動함을 말함이라」하니 禽은 震子이오 器는 形而下한 器로서 陰體의 陰精이오 高墉은 同人卦의 高陵其墉이오 射하는 人은 달의 陰精이 乾陽을 承受하는 象의 同人卦이니 이는 解卦의 坤體의 陰精이 乾陽의 陽氣를 承受하기를 同人卦의 陰精과 같이하여 動하므로 乾陽의 震子를 獲하여 陰陽의 義가 和한다 함이오 成器而動이라 함은 달의 陰精이 陽氣를 受한 然後에 動하여야 陰體가 長成하여 括囊이 되지 아니하고 天地가 相交하여 震子를 獲하여 次世代를 胎育한다 함이다.

序卦

蹇은 陽氣가 收斂하여 冬寒의 陰精中에 止하여 行치 못하는 象이오 解는 陽氣가 陰精을 解緩하여 陰體가 長成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解가 蹇에 次하

는 것이다.

大象

雷雨作은 凍을 解하는 象이니 雷는 刑獄의 威이오 雨는 恩澤이라 人間社會의 刑獄은 사람의 自由를 拘束하여 凍의 象이 되고 刑獄을 免하는 것은 恩澤을 施하여 凍을 解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雷雨가 作하여 百果草木이 甲坼하는 것은 刑獄의 威의 中에 恩澤이 있는 것이므로 赦過宥罪의 象이 되는 것이다.

九二의 三狐는 彖의 其來復으로서 百果草木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狐는 解九二와 未濟彖에 있는데 解와 未濟는 下五爻가 一陰一陽의 交互한 卦로서 모두 不當位하여 安定치 못하니 이는 狐性이 一進一顧하여 狐疑不定한 象이며 解는 百果草木의 卦이오 未濟는 果實滋味의 卦인데 狐는 犬과 瓜로 되고 艮에 狗와 果蓏의 象이 있으며 狐는 또 艮의 黔喙의 屬이므로 狐는 艮果의 象으로서 解의 百果 未濟의 果實滋味를 象한 것이오 三狐는 艮果의 씨의 象이다.

田은 田土이니 田獲三狐는 彖의 其來復의 뜻으로서 坤地에 陽體의 씨가 來함을 말함이다.

解는 文王八卦圖 互旣濟이니 上爻陰 下爻陰 故女體中之水氣凝成 作物體之象也 睽解二卦以女體言也

損 山澤

損은 益과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二少相交하는 山澤卦로 되고 또한 乾이 坤을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 되는데 山과 澤은 모두 上行性이 있어 山도 地의 聳上한 것이오 澤도 山上으로 上升하는 것이므로 天地가 圜行하면서 山澤이 모두 上行하여 損下益上의 象이 되는 것이다. 山澤損과 澤山咸의 同異한 바는 損咸이 모두 山澤으로서 上行性이 있으되 咸은 外坤內乾한 天地組織의 象이므로 上行치 아니하는 것이오 損은 內坤外乾하여 天地의 運行하는 象이 되므로 上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또 物의 運行에는 能動하는 陽이 主하고 陰은 受動하는 것인데 咸은 三陽이 坤陰中에 聚居하여 上下하는 運動이 없으므로 上行치 아니하고 損은 上下의 陽이 坤을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 되므로 山澤의 氣가 上行하여 彖에 그道가 上行한다고 한 것이다.

損益은 그卦自體에만 天地圜行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損益兩卦의 사이에도 天地圜行의 象이 있으니 損의 山澤의 形은 地道이오 損의 道의 上行은 곧 地道의 上行이며 益의 雷風의 氣는 天道이오 益의 道의 下行은 곧 天道의 下行이니 그러므로 損의 地道는 上行하여 陰體의 象이 되고 益의 天道는 下行하여 陽體의 象이 되어 天地가 相交하는 것이다.

損은 乾坤의 圜行卦로서 艮兌로 되어 있으니 이는 乾의 九三의 陽이 坤의 上六에 往하여 艮이 되고 坤上六의 陰이 乾九三에 來하여 兌가 되고 한 象이다.

그런데 陰陽이 上下로 往來하는 現象은 乾陽의 能動하는 運行을 因하여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損卦의 陰陽往來도 九三의 陽을 損하여 上六의 陰을 益하는 損下益上이 되는 것이다. 卦名을 損이라 하여 損下의 뜻을 取한 것은 物의 生生은 下卦의 地의 位에서 行하는 것이므로 下卦의 物을 爲主하여 下를 損하여 上을 益하는 까닭에 損의 象을 取한 것이다.

損字는 手와 口와 貝로 되니 手는 艮象이오 口는 兌象이오 貝는 貨貝로서 交易의 象이라 損은 艮兌가 서로 交易하는 卦이므로 艮手兌口의 相交하는 損字를 쓴 것이다.

損은 乾坤卦로서 六三의 陰에서 陰陽이 往來하니 이는 坤卦六三과 같이 用六宮의 象이 되므로 損益은 坤象의 用六宮의 安貞之吉應地無疆에 當하고 또한 文王八卦圖의 坤離에 當하여 陰體의 生殖作用의 象이 있는 것이다.

時運의 變化하는 때에는 陰陽의 上下하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니 損益의 損下益上과 損上益下도 또한 陰陽上下의 한 形態이다. 長의 時運에 家人睽蹇解에서 陰體가 이미 長成하였으므로 損益에서 陰陽이 相交하여 第二世를 孕胎하는 作用이 行하는 것이니 이는 時運變化의 前兆이오 陰陽의 上下損益은 陰體와 陽體의 相交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損 卦		
鼻	ㅡ	등
胸	--	배
腹	--	배
股	--	배
脚	ㅡ	등
足	ㅡ	등

損과咸이 모두 山澤의 有形한 形質로서 人身의 象이 되는데 咸은 人身의 後面의 象으로서 有形한 사람이 無形한 神에게로 돌아가는 象이 되고 損은 人身의 前面의 象으로서 無形한 神으로부터 有形한 사람이 出來하는 象이 되며 人身의 前面이 보이는 損은 股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男女가 構精하여 사람을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損益乃文王八卦圖之震兌 故帝出震 而有二簋享帝之象[1]

享이라 함은 獻하고 受하고 하는 뜻이오 神에게 獻하여 올리는 것이 곧 享이다. 神은 사람의 始祖이니 사람이 上으로 始祖神을 繼하는 것은 또한 自身을 마디로 하여 下로 子孫에게 傳하는 일이며 이는 始祖神으로부터 生命을 受하고 그 生命을 繼承하여 子孫에게 傳하는 까닭에 始祖神과 子孫과의 사이에는 繼繼不絶하는 生命의 줄이 있는 것이다. 物의 運行의 理로써 보면 始祖神을 中心으로하여 下로 子孫에게 傳하는 것은 遠心運動이오 子孫

이 上으로 始祖神을 모시는 것은 向心運動이라 向心運動은 반드시 始祖神에게 獻하여 올림이 있는 것이오 子孫이 始祖神에게 獻하여 올림이 있으면 始祖神으로부터 또한 子孫에게 賜하여 내림이 있는 것이니 이가 곧 獻하고 受하고 하는 享이다. 享에 獻受의 두 가지 象이 있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損이라 함은 下가 自身을 損하여 上을 益함이라 下에서 上을 益하면 天地圜行의 理에 依하여 반드시 上으로부터 下에 내리는 것이므로 下가 그 益을 다시 受하게 되는 것이니 이가 享에 獻受의 兩象이 있는 所以이다. 그러므로 易經에는 上으로 始祖神을 繼하고 下로 子孫에게 傳하고 하는 象이 있는 卦爻에 모두 享의 象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始祖神을 享하는 것은 向心運動이니 向心運動은 收斂하는 象이오 遠心運動은 生長하는 象이라 序卦로써 보면 乾으로부터 明夷까지의 三十六卦는 乾策의 數로서 生長하는 遠心運動이 되고 家人睽가 비로소 收斂卦로 되어 向心運動으로 轉換하는데 遠心運動을 하는 卦爻의 中에는 享이라는 것이 全然없고 家人睽蹇解의 收斂卦를 지나서 비로소 享이 있으니 損彖의 二簋可用享 益六二의 王用享于帝 萃彖의 致孝享 鼎彖의 以享上帝 渙大象의 享于帝가 모두 始祖神을 享하는 向心運動의 形態를 말한 것이다.

簋는 外圓內方한 祭器이니 外乾內坤이 곧 外圓內方의 象이오 二簋는 咸의 二氣와 相照하여 艮兌를 말함이다. 曷은 止함이니 曷之用二簋는 夫婦의 二人相配의 뜻이다. 感應은 氣로써 하는 까닭에 咸에는 二氣라하고 相交는 形質로써 하는 까닭에 損에는 二簋라 한 것이오 祭器인 簋字를 쓴 것은 祭와 享의 뜻이 相照하는 까닭이다.

彖에 有時를 두 번 말한 것은 艮兌相交의 段階를 말함이니 二簋應有時는 艮兌는 달의 象이오 달에는 盈虛가 있으므로 二簋를 用하여 交合하는 生殖作用에는 時가 있다 함이오 이미 交合하면 陽體의 剛을 損하여 陰體의 柔를 益하는 것도 또한 時가 있다 함이다. 그러므로 損하고 益하고 하여 盈하고 虛하고 함은 時로 더불어 함께 行하는 것이니 損에는 時運變化의 前兆가 있으므로 損益盈虛의 時를 말한 것이다.

六三은 男女構精의 象이오 自身을 損하여 上을 益하는 主爻이다. 三人이 行하면 一人을 損한다 함은 乾三劃에서 陽一人을 損하여 上을 益함을 말함이오 需上六의 三人도 또한 下卦의 乾三劃을 말한 것이며 一人이 行하면 그 友를 得한다. 함은 六三의 一陰은 곧 一人의 行함인데 上九를 得하여 應을 삼는 것이 곧 그 友를 得함이니 陽을 友라하고 陰을 朋이라 한다. 三인 때는 一을 損하여 二를 만들고 一인 때는 一을 得하여 또한 二를 만들고 하는 것은 二는 陰陽相配의 致一하는 數이오 이가 一夫一婦의 原理이다. 卦辭의 曷之用二簋可用享은 六三爻의 原理를 말함이니 止하여 二簋를 用한다 함은 二人相配하는 一夫一婦라는 뜻이오 一人을 損하여 上六에 올리고 上九로부터 友를 得하고 하는 것은 獻하고 受하고 하는 享의 뜻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生生의 象으로써 말하여「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이라 하니 絪縕은 陰陽相交의 象으로서 一索 再索 三索하는 索의 뜻이오 醇은 穀을 釀하여 酒를 만드는 것이니 化學作用으로써 異質의 物을 生함을 象함이다. 坤文言과 繫辭 各爻文言中 噬嗑上九와 損六三에 子曰이 없으니 子曰은 師傳의 말이라는 뜻이라 子曰이 없는 것은 모두 女陰에 關한 일이오 女陰은 十數의 象이니 長의 時運에는 數가 九에 止하고 十이 열리지 아니하므로 師傳가 十數의 象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損은 損下益上하는 象이므로 上卦의 成의 中心인 六五에도 或益하는 象이 있으니 或이라 함은 象의 有時의 뜻이다. 六五는 天地相交하는 陰精의 中心으로서 달의 長成한 象이 되니 十은 數의 成함이오 朋은 달의 陰精에 光明의 照하는 象이오 龜는 離火宮의 象인데 損의 大離의 象과 文王八卦圖의 坤離의 象을 아울러 取한 것이다. 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라 함은 乾陽이 或來施하여 益하는데 달의 長成한 陰精宮이 그것을 違치 아니하고 承受하여 天地가 相交한다 함이다.

損六五에 十數를 말한 것은 長의 時運에는 九數까지를 쓰는 것인데 損益은 后天의 第二世를 孕胎하는 象의 卦이므로 그 母體인 달에 十數를 말하여 后天의 前兆를 表하니 이가 損益에 時運變化의 象이 있는 所以이다.

上九는 六三과 함께 損下益上의 爻이오 得臣無家는 六三의 損人得友와 相照하니 六三이 乾上劃의 陽을 損한 것은 損人이 되고 上九가 坤上劃의 陰을 損한 것은 無家가되며 六三이 上九를 應하는 것은 得友가되고 上九가 六三을 應하는 것은 得臣이 되니 人과 友는 乾의 象이오 臣과 家는 坤의 象이다. 陰과 陽이 六三 上九와 같이 서로 損하고 서로 得하는 것이 損道의 原理이다.

序卦

上經에 小畜離에서 달이 生한 然後에 泰否의 天地가 相交하고 下經에 家人睽 蹇解에서 달이 長成한 然後에 損益의 天地가 相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損이 解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損은 艮兌의 男女交合하는 卦이므로 忿이라 함은 男女間의 愛惡하는 感情이오 欲이라 함은 男女間의 情欲의 發露이니 忿과 欲은 모두 火氣의 動함이다. 損은 그 道가 上行하여 火의 炎上하는 象이므로 男女間의 炎上하는 火를 象하여 忿欲이라 한 것이다. 懲은 心을 收斂함이오 窒은 上行하는 氣를 反下케 함이다. 사람은 同人과 家人의 火로써 構成된 까닭에 火氣의 動하는 忿과 欲이 있는 것이니 愛惡하는 感情을 收斂하고 情欲의 發함을 反下케 하는 것이 곧 損의 象이다.

九二는 澤의 中爻로서 山을 上潤하는 主爻가되는데 澤을 損하면 涸하는 것이므로 出하면 陽이 陷하는 것이며 生의 中心에 있으므로 損하되 損치 아니하고 益하여 그 道가 上行하는 것이니 이는 井의 無喪無得 居其所而遷의

뜻이다.

益之는 自身을 益함이니 九二는 上을 益하는 中心이므로 自身을 益하는 것이 또한 上을 益하는 所以이다.

遘은 耑과 辶으로 되어 耑은 物의 初生하는 首이오 辶은 行함이니 遘이라 함은 物의 初生하는 首가되어 行한다 함이다.

損六爻中에 오직 六五에 損字가 없으니 이는 六五에 損益盈虛를 時로 더불어 偕行하는 作用이 있는 까닭이다.

龜는 頤初九의 靈龜와 相照하니 龜는 離火宮의 象이라 陽氣를 承受하는 陰宮을 象함이오 上經의 頤의 極長한 陽氣가 大過의 陰宮에 涉施되는 것이 곧 下經損益의 陰宮이 陽氣를 承受하는 일이니 그러므로 頤와 損益에 龜字를 써서 그 뜻을 表한 것이다.

益 風雷

益은 損과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二長相交하는 風雷卦로 되고 또한 乾이 坤을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 되는데 風과 雷는 모두 下行性이 있어 風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는 것이오 雷는 太陽의 光이 下에 下하여 電氣로 되는 것이므로 天地가 圜行하면서 風雷가 모두 下行하여 損

上益下의 象이 되는 것이다. 益은 天地가 圜行하여 乾陽의 陽을 달에 施하여 后天달을 孕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六二에 十朋之龜의 象이 있는 것이다.

風雷益과 雷風恒의 同異한 것은 益恒이 모두 風雷로서 下行性이 있으되 恒은 外坤內乾한 天地組織의 象이므로 下行치 아니하는 것이오 益은 內坤外乾하여 天地의 運行하는 象이므로 下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또 物의 運行에는 能動하는 陽이 主하고 陰은 受動하는 것인데 恒은 三陽이 坤陰中에 原居하여 上下하는 運動이 없으므로 下行치 아니하고 益은 上下의 陽이 坤을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 되므로 雷風의 氣가 下行하여 彖에 「上으로부터 下에 下하여 그 道가 大光하다」고 한 것이다. 益은 그 卦自體에만 天地圜行의 象이 있는 것이 아니라 損益의 사이에도 天地가 圜行하여 相交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損卦下 參照)

益은 乾坤의 圜行卦로서 風雷로 되어 있으니 이는 乾九四의 陽이 坤의 初六에 來하여 震이 되고 坤初六의 陰이 乾九四에 往하여 巽이 되고 한 象이다. 그런데 陰陽이 上下로 往來하는 現象은 乾陽의 能動하는 運行을 因하여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益卦의 陰陽往來도 九四의 陽을 損하여 初六의 陰을 益하는 損上益下가 되는 것이다. 卦名을 益이라 하여 益下의 뜻을 取한 까닭은 物의 生生은 下卦의 地의 位에서 行하는 것이므로 下卦의 物을 爲主하여 上을 損하여 下를 益한 까닭에 益의 象을 取한 것이다.

益字는 橫水와 皿으로되고 皿은 器이니 益의 天施地生에는 天의 陽精水가 器에 橫溢하는 象이 되므로 水 皿의 益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益은 乾九四의 陽이 坤初六의 陰에 來하여 相交하는 것인데 乾陽은 乾元震子로 되므로 坤陰은 坤元兌澤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坤陰에 坤元兌澤을 象하여 民이 說한다 하고 益은 文王八卦圖의 離坤用六宮에 當하여 乾坤이 相交하고 또 坤彖의 安貞之吉應地無疆에 當하므로 民說無疆이라 한 것이다.

木道라 함은 河圖와 洛書의 東方三八木의 道이니 八卦中에 震은 陽으로서 三木이 되고 巽은 陰으로서 八木이 되는데 震巽의 益卦는 文王八卦圖에 東에서 出하고 東南에서 齊하여 木의 生長하는 象이 있고 六二와 九五의 生成中心에서 三木과 八木이 天施地生하여 一陰一陽하고 있으므로 木道라 한 것이다. 木道는 神道이니 震巽의 雷風이 모두 氣로서 神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震木의 着地한 豫卦와 巽木의 着地한 觀卦에 神道의 象이 있는 것이오 益 六二의 享于帝도 또한 神道의 뜻이다.

天地自然數에 三木은 生數의 中이오 八木은 成數의 中인데 易學에 爻는 三劃으로되고 卦는 八卦로 되니 伏羲氏가 비로소 八卦를 作하여 써 神明의 德을 通한 것은 이 三八木의 生成에 神道가 있음을 象한 것이다. 神과 萬物과의 關係를 보건대 八卦中에서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하는 巽風과 太陽光明이 地로 下向하는 震雷가 天에서 地로 下來하는 象이 있고 震巽은 모두 木의 象이니 이는 神이 처음으로 地에 下하여 草木으로 現形한 象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動物은 自由意志가 있어 自然法則에 어그러지는 일도 있으되 오직 草木은 自然法則에 順應하여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으니 이는 草木의 生理가 바로 神의 表現인 까닭이며 그러므로 風雷로된 益卦의 木道는 곧 神道이다.

益에는 天氣가 下降하여 震子를 地에 施하는 象이 있으니 이가 彖의「動而巽日進無疆 天施地生 其益無方」의 뜻이다. 이것을 卦象으로써 보면 益은 東方震으로부터 震子가 動하여 東南方의 巽股에 入하고 그 卦體는 大離로 되고 坤을 內包하니 離는 日進이오 坤은 無疆이며 天施는 九五에서 震子를 下施함이오 地生은 六二에서 民說하는 兌澤이 震子를 承受하여 第二世를 孕胎함이니 (益自震而離而坤而兌 故爲帝出乎震之象 而六二言帝以此也)이는 震에서 巽하고 離하고 坤하고 兌하여 震子가 文王八卦圖의 陰方을 順行하는 象이며 無方은 神無方의 뜻이니 其益無方이라 함은 그 益함이 神道와 같이 方이 없어 益치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함이다. 與時偕行이라 함은 損彖의 與時偕行과 同一하니 陰陽의 生殖作用에는 時가 있다 함이오 時는

木道乃行하는 時이다.

九五는 天施의 位로서 陽氣가 뭉쳐 있으니 이가 陰體에 乾陽의 氣를 下施하는 惠心이오 惠心을 萬物에 普施하여 問辨取捨함이 없는 것이 곧 勿問이다. 六二는 달의 陰精으로서 地生의 位가되고 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는 損六五와 同一하니 九五의 惠心勿問이 곧 六二의 或益之이다. 九五에는 陽氣가 뭉쳐서 我의 生生의 德을 陰體에 施하는 것이오 六二는 子를 生하는 位이므로 上으로 帝를 享하여 獻하고 受하고 하는 것이니 九五의 惠我德이 곧 六二의 享于帝이다.

初九와 六四는 陰陽의 損上益下하는 位이오 利用은 一陰一陽하는 神道이니 初九는 一陰一陽하여 乾이 大始하고 (初九는 益下의 位也故爲大作也) 坤이 作成한다 하여 大作이라 하고 六四는 一陰一陽하여 初六의 坤土가 九四에 올라갔다 하여 國을 遷한다 한 것이며 六四에 巽股의 戒가 있는데 (告公者公之着生也) 初九의 震子는 巽股로 더불어 雷風相薄하는 象이 있으므로 下不厚事라하니 不厚는 곧 薄의 뜻이다.(雷風相薄者陽入陰中也)

上九는 益卦의 上에 居하니 全卦로써 보면 上九는 益의 極이오 益이 極하면 損하는 것이며 上下卦로써 보면 上卦가 下卦를 益하여 上九는 受損의 地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上九는 益할 이가 없는 것이다(上九는 益이 極하여 先天달의 傷하는 象이 되며 先天달은 天心月이라 立心勿恒은 天心月의 恒久치 못함이다) 益의 極은 衰의 始이므로 或 外로부터 來擊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天灾와 같은 時運所關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君子는 그 身을 安한 然後에 動하고 그心을 易한 然後에 語하고 그 交를 定한 然後에 求하나니 君子는 이 三者를 修하는 者인 故로 全한 것이다. 危하여 써 動하면 民이 與치 아니하고 懼하여 써 語하면 民이 應치 아니하고 交함이 없이 求하면 民이 與치 아니하는 것이다. 與할 이가 없으면 이를 傷하는 者가 至하는 것이라」하니 益은 天地가 相交하여 震子와 兌精의 相合하는 象이라 動은 震子의 象이오

語는 兌口의 象이오 求는 同氣相求의 뜻으로서 震子와 兌澤의 相交하는 象이오 全은 第二世를 成함이오 與와 應은 恒卦의 雷風相與와 剛柔皆應의 뜻이므로 不與 不應을 立心勿恒이라 한 것이다 上九는 益할 이가 없으므로 危以動 懼以語 無交以求의 象이 되어 民이 不與不應하는 것이니 不與不應이 곧 勿恒의 象이다.

序卦

損은 地道로써 山澤이 上行하여 天을 享하는 象이오 益은 天道로써 損의 上行하는 것을 受하고 天地圜行의 理에 依하여 다시 下施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益이 損에 次하는 것이다. 損益의 上下圜行하는 運動은 第二世를 孕胎하는 것이므로 天施地生의 象이 다음 四卦에 나타나서 夬姤의 乾의 作用은 天施가되고 萃升의 坤의 作用은 地生이 되는 것이다.

大象

益은 天이 地를 包하고 運行하여 風雷가 모두 上으로부터 地에 下하여 地를 益하는 象이다. 見善則遷이라 함은 善을 益함이오 有過則改라 함은 過를 改하면 또한 善이 益하는 것이니 物은 繼之者善하여 善은 萬物生生의 地가 되는 것이므로 善을 益하는 것이 곧 人生의 益이다.

六二爻에 吉을 再言한 것은 그 相應하는 九五에 有孚를 再言함과 相照하니 六二의 十朋之龜弗克違 永貞吉은 陽氣가 陰體中에 入하는 것으로서 九五의 有孚惠心勿問과 相照하는 것이오 王用享于帝吉은 萬物을 生生하는 것으로서 九五의 有孚惠我德과 相照하는 것이다.

圭는 封侯에 쓰는 瑞玉으로서 上圜下方한 것이니 損卦에는 簋의 外圓內方

한 象을 取하고 益卦에는 圭의 上圜下方한 象을 取한 것은 損의 天地絪縕은 內外의 뜻이 되고 益의 天施地生은 上下의 뜻이 되고 하는 까닭이다.

告公者 公之着生也

六四 損上之位 故遷國也

夬 澤天

夬姤者 戰乎乾也 萃升者 致役乎坤也 於損益天地相交 而乾入兌中 坤孕乾而乾坤終也

夬는 一陰의 外現한 卦이다. 一陰卦로서 一陰이 中爻에 있는 者는 小畜履同人大有의 四卦로서 모든 生의 時運에 物의 始生하는 象이 되고 一陰의 外現한 夬姤는 長의 時運에 陰의 長成하는 象이 되므로 夬姤에서 長의 時運의 달이 여물어서 第二世의 달을 入胎하는 것이다.

夬는 乾陽이 兌澤을 決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一陰이 主가되어 五陽을 裂하니 人身으로써 보면 男體의 陽子가 女體의 陰子속에 決하고 들어가서 入胎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夬姤는 益卦의「天施」의 象이다.

夬는 決字의 省함이니 易卦名에 半字를 쓴 것은 艮兌咸夬의 四卦인데 艮兌는 모두 少男少女로서 아직 未成한 까닭에 半字를 쓴 것이오 咸과 損은 또한 少男少女이로되 咸卦만이 艮으로부터 兌하여 六子出生의 順序대로 되어

未成한 象이 되므로 半字를 쓴 것이오 夬는 父母가 六子를 生함에 乾으로부터 始하여 兌에서 終하니 諸卦中에 夬가 最少하므로 또한 未成한 象이 있어 決字의 半字인 夬를 쓴 것이다.

健而說이라 함은 乾이 兌澤에 入함이오 決而和라 함은 乾이 兌澤에 決入함에는 乾陽의 씨인 震子가 入하는 것이오 震子와 兌澤은 太陽과 달과의 關係로 되어 陰陽의 義가 和하므로 決而和라 한 것인데 이는 또한 兌는 正秋의 象이오 乾陽이 兌中에 入하는 것은 利이오 利者義之和이므로 和를 말한 것이다.

揚은 眉의 美함을 象함이니 乾陽이 兌澤에 入하고 上의 一陰이 五陽을 乘하고 있어 마치 動作없는 兩眉가 兩目 兩鼻孔 및 口의 動作하는 五竅의 上에 擧揚함과 같으니 이는 上一陰의 象이오 王庭은 乾陽의 通行하는 宮中地이니 이는 五竅의 象이다 사람의 顔面의 五竅는 兩目은 離卦의 象이오 兩鼻孔은 巽卦의 臭의 象이오 口는 兌卦의 象이니 이는 顔面의 三陰卦이오 三陰卦는 乾陽이 坤陰을 得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三陰卦의 五竅는 乾陽의 通行하는 길로 되어 있는 것이라 夬는 陽氣가 內로부터 發宣하여 陰精을 決함이 마치 人身中의 陽氣가 五竅를 通하여 出入함과 같으므로 夬에 五竅의 뜻을 表하기 爲하여 揚眉의 象을 取한 것이다.

夬는 乾陽이 兌口를 決하므로 陽氣가 發宣하여 言語의 象이 되고 있으나 또한 一陰이 五陽을 蔽하여 言語가 發聲되지 못하는 象이다. 言語는 있으되 그것이 發聲되지 못하고 다만 形象으로만 表示되고 있는 것은 文字이니 그러므로 夬에 文字의 象이 있어 이것을 書契라 한 것이다.

夬는 上一陰이 五陽을 蔽하고 乾陽이 西方兌에 入하여 日暮의 象이 되므로 九二 九五의 生成中心에 모두 陰暗의 象이 있어 九五에는 陽이 陰中에 行하는 中行의 象이 있고 九二에는 날이 저무는 暮夜의 象이 있는 것이다. 彖의 孚號有厲는 九五이니 陽氣가 뭉치고 震子가 號하는데 陰中을 涉하여 危하다 함이오 告自邑不利卽戎은 九二이니 自邑에 着生하여 上六과 對決하

지 말라 함이오 利有攸往은 初九이니 初九의 前趾가 곧 有攸往의 뜻이다. 夬는 五陽이 陰中에 決하여 陽의 長함이 終하는 것이므로 그終하는 象을 前趾의 位인 初九에 말한 것이다.

五陽中에 一陰을 決하는 것은 上六을 接하는 九五와 上六을 應하는 九三이므로 이 兩爻에 夬夬의 象이 있으니 夬夬라 함은 決去한다는 뜻이다 九五의 莧은 山羊細角이오 陸은(규)土性의 强梁함이니 大壯卦의 羊이 藩을 觸하여 決하는 象이 있는데 夬卦의 象이 大壯과 相似하여 陽이 陰中에 入함이 大壯의 陽의 止함과 같으므로 九五에 羊角觸決의 象을 取하고 初九와 九三에 壯의 象을 取한 것이다.

上六은 象의 揚于王庭의 爻로서 乾陽이 決하고 入한 것이나 乾陽의 入胎하는 位는 上六이 아니오 成의 中心인 九五이니 그러므로 上六은 長成치 못하고 空殼으로 되어 마침내 消滅하는 것이며 이가 陽氣에는 顯藏이있고 生滅이 없어서 剝의 一陽이 下에 反하여 復의 一陽이 되고 陰質에는 生滅이 있어서 長하는 者는 반드시 消한다 하는 理이다.

序卦

益은 天地가 相交하여 陽精水를 陰體에 施하는 象이오 夬는 乾陽이 陰體의 陰子에 入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夬가 益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澤이 天에 上하면 반드시 潰決하여 下로 流하는 것이다. 施祿及下라 함은 上의 恩德이 下에 及함이오 居德則忌라 함은 功德의 地에 居치 아니함이다. 祿을 施하여 下에 及하면 財가 聚치 아니하여 滿溢潰決의 患이없고 功

德의 地에 居치 아니하면 스스로 卑下하여 顚倒墜落의 慮가 없는 것이다.

大象에 祿과 德을 말한 것은 否와 夬이니 兩卦가 모두 陽이 陰中에 胎育되는 象이므로 陽을 生養하는 祿과 德을 말한 것이다 否는 陽이 否閉되어 있으므로 陽을 主하여, 陽은 德을 收斂하고 祿으로 榮華치 아니한다 한 것이오 夬는 陽이 陰을 決하는 것이므로 陰을 主하여, 陰은 祿을 下의 陽에 施하고 功德에 居하기를 忌하는 것이다.

頄는 九와 頁로 되어 九는 陽의 極長數이오 頁은 首로서 乾象이니 壯于頄라 함은 夬姤는 序卦의 乾終의 卦이오 夬의 九三이 乾陽體의 終으로서 上六의 一陰과 應하여 陰中에 入하므로 九三에 乾陽의 終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衆陽中에 오직 九三이 上六과 相應하므로 獨行遇雨라 한 것이니 剝六三의 剝之와 復六四의 獨復과 同一한 象이다.

臀은 體軀의 後底이니 乾陽이 兌澤을 決하고 入함에 그 後底를 決하는 것이므로 兌體의 後底인 九四를 臀이라 한 것이다. 九四는 上卦의 兌體에 屬하여 下卦乾陽의 決을 受하면서 또한 下卦로 더불어 五陽의 一團이 되어 上六을 決하고 있으니 이는 兌體의 臀이 決하여 膚가 없고 下卦乾과 合體되어 上進하는象이다. 次且는 머뭇거린다는 뜻이니 九四는 兌體의 臀으로서 諸陽과 함께 上進하여 自身을 決하는 것이므로 上進치 아니할 수도 없고 또 上進할 수도 없어서 그 行함이 次且하는 것이다. 夬九四는 先天의 달이 太陽의 뒤로 돌아가서 달의 裏面인 臀이 太陽의 光을 受하는 象이므로 臀을 말한 것이다.

夬와 大壯은 大兌로 되어 羊의 象을 取한 것인데 大壯의 當前한 陽은 九四이오 夬의 當前한 羊은 九五이니 그러므로 大壯九四는 藩決不羸가되고 夬九五는 莧陸夬夬가되며 大壯의 九三은 壯이 未及한 까닭에 그 角을 羸하고 夬의 九四는 夬가 未及한 까닭에 牽羊이 되는 것이다.

夬姤 以後의 序卦

夬姤〔乾〕 萃升〔坤〕=父母之役終而爲地道七宮之神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夬姤는 乾坤의 終으로서 神이 되고 夬姤의 속에 胎宮이 있는 것이다.

姤 天風

姤는 夬와 함께 一陰의 外現한 卦로서 長의 時運의 달이 여물어서 第二世의 달을 入胎하는 것이다. 姤는 一陰이 下에 있어 乾陽을 遇하니 이는 陰精이 乾陽을 承受하여 益卦의「天施」의 象이 되는 것이다. 姤卦의 乾巽相遇에 對하여 剛遇柔라 하지 아니하고 柔遇剛이라고 하는 것은 男體의 陽子가 往하여 女體의 陰子를 決하는 것은 夬의 象이오 陰子가 內에 居하여 陽子의 來함을 受하는 것은 姤의 象이므로 姤는 柔遇剛의 象이 되는 것이다.

姤字는 女와 后로 되어 后는 女主라는 뜻도 되고 또 繼體하는 君主라는 뜻도 되니 이는 女主는 달의 象이오 繼體하는 君主는 先天時運의 달을 繼體하는 后天時運의 달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며 姤卦에는 先天의 달이 后天의 달을 入胎하는 象이 있으므로 姤字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序卦에는 夬姤에서 乾이 그 施精의 任務를 다하여 終하는 것이며 달의 始生한 小畜에서 姤까지는 三十六數의 乾策數로 되고 小畜이 交易하여 姤가 되는 것이다.

巽이 上卦에 있는卦의 六四는 天氣가 下降하여 空中에서 地에 接하므로 이러한卦의 六四에는 달의 象이 있는 것이며 小畜은 六四의 巽股가 乾陽과 接하고 股는 人身의 前面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달의 前面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地上에 비치는 象이 되는 것인데 姤는 巽股의 後面에 있는 臀이 乾

陽과 接하니 이는 달의 後面이 太陽의 光을 받아서 地上에 비치는 象이니 그러므로 先天의 달은 前面이 光을 비치고 后天의 달은 後面이 光을 비치는 것이다. 前面은 股인데 股는 陰이오 後面은 背인데 背는 陽이니 后天의 달은 背의 陽이 光을 비치므로 先天달의 股陰이 光을 비치는 때보다 더 淸明하고 光華한 것이다. 달의 組織은 陰이 陽을 藏하고 있으므로 後面은 陽이 되고 前面은 陰이 되는 것이다.

品物은 太陽 地球 및 달의 三圓物을 象한 것이므로 天地創造의 元이 있는 乾에 品物流形이 있고 坤에 品物咸亨이있고 그 外는 오직 姤에 品物咸章이 있으니 章이라 함은 物이 成終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라 姤에는 后天의 달의 入胎되는 象이 있으므로 天地創造의 象과 物의 열매의 象을 아울러 取하여 品物咸章이라 한 것이다.

勿用取女 不可與長者 陽娶於股則 陽爲陰蔽 而陰長也 陰不可與長 故不可娶也

姤는 上下卦로 보든지 全卦로 보든지 모두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는 巽卦의 象이 되므로 天地가 相遇하는 象이 되고 九五의 陽은 달의 陰精中에 入하는 陽이므로 九五의 陽이 中正한 位를 遇한다 한 것이오 天下大行이라 함은 陽氣가 下降하여 天下에 行한다 함이니 이는 第二世의 달을 入胎하는 때에 天氣의 行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時義大矣哉 豫卦下

姤는 女體가 乾陽을 遇하여 胎兒가 入胎되는 象이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다.

九五는 天地相遇의 主爻로서 달의 陰精中에 入하는 陽이다. 杞는 木과 己로 되고 己는 中宮에 陽을 包하여 草木의 열매의 形이 맺는 것이다. 姤는 夏至의 象으로서 열매의 形이 맺는 때이므로 杞字를 쓴 것이오 또 杞는 柳의 屬으로서 柳器를 만들어 物을 盛하는 것인데 姤는 陰陽消息의 象으로써 보면 四月卦 大過로부터 顚來하고 大過九五에는 楊의 生華하는 象이 있으니 杞와 楊이 모두 柳의 屬이오 大過의 生華가 또한 姤의 包瓜와 相照하는 것이다 瓜는 蔓草로서 瓜實을 結하여 本이 弱하고 末이 實한 象이라 大過는 本末이 모두 弱한 것이나 姤는 初六의 本만 弱하고 末은 實하므로 蔓草에 맺는 瓜의 象을 取한 것이며 또 瓜는 艮의 象이니 大過에서 震子가 陰體中에 入하였는데 大過가 顚하여 姤가 된 것이므로 大過生華中의 震子도 또한 顚하는 것이오 震子가 顚하면 艮이 되는 것이니 이가 姤 九五에 艮瓜의 象이 있는 所以이다.

姤는 夏至一陰生의 象으로서 陽이 體가되고 陰이 用이 되니 初六一陰은 姤卦用事의 主爻이며 그러므로 大象에는 一陰爲主의 뜻을 取하여 后를 말한 것이니 易卦大象에 后를 말한 것은 오직 泰와 姤이다 (躑躅(척촉)者彳亍也 行也 姤初爲月行之位 而自先天 越后天者也彳左足也亍은 右足也 有左右足者月行 自先迷越於後得主也)

初六은 巽木으로서 上卦乾陽의 圜行을 따라서 함께 圜轉하고 또 天氣下降하여 地를 接함에는 繩索의 下垂하는 象이 되는데 木과 繩索과 圜轉과의 三象을 合하여보면 실을 감는 木製 자새의 象이 되니 이가 柅이오 柅가 乾金과 合하므로 金柅라하고 乾陽을 따라서 圜轉하므로 金柅에 繫한다고 하니 이는 달의 陰精이 乾陽을 따라서 圜行함을 象함이다.

初六에는 柔道牽이라 하고 九三에는 行未牽이라 하여 모두 牽字를 쓰니 牽은 乾金과 巽風의 磁氣의 相牽하는 作用을 말함이오 이는 小畜卦의 牽復과 同一한 뜻이다.

九四의 陽은 初六의 巽股를 應하는 位에 있고 股는 陽陷의 地이므로 包함에 魚가 없다 하니 魚는 陰中에서 사는 生物의 象이다. 初六에는 豕와 魚의 兩象이 있으니 이것을 初六의 陰自身으로서 볼 때에는 初六은 陰이 陽을 含한 坎卦의 豕의 象이 되는 것이오 이것을 初六과 相接한 九二의 陽과 初六과 相應하는 九四의 陽으로서 볼 때에는 初六은 生物을 含한 陰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九四와 九二에 包魚의 象을 말한 것이며 剝의 貫魚와 中孚卦의 豚魚도 巽卦初六과 같이 生物을 含한 陰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魚를 말한 것이다.

序卦

夬는 乾陽이 陰體의 兌澤에 決入하고 姤는 陰體가 乾陽을 承受함이니 그러므로 姤가 夬에 次하는 것이다. (姤之后以卽 泰之后以也 泰爲后天之卦 而姤亦后天之卦也)

大象

姤는 一陰이 用事하고 달의 陰體가 乾陽을 受하여 光明을 發하므로 女王繼體의 뜻을 取하여 后라 한 것이다.

羸豕는 陰中에 陽을 繫纍함이오 躑躅은 足을 멈춰서 行치 못하게 함이다.

九三의 臀無膚其行次且는 夬九四의 象이니 乾三陽이 巽二陽과 相連하여 五陽이 一團이 되어 天氣가 下降하는 것이므로 乾과 巽의 兩體가 合하여 一體가 되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夬九四의 臀無膚其行次且의 象을 말한 것이다. 달이 太陽의 뒤로 돌아가서 裏面이 太陽의 光을 받는 것인데 臀이 上卦乾陽과 行未牽한다 함은 日月이 合朔치 아니하고 달과 太陽의 사이가 牽

着되지 아니하고 後得主의 象이 된다 함이다.

九四는 初六의 股를 應하므로 陽이 陷하여 包함에 魚가 없는 것이다. 起는 震의 象이니 (雜卦震起也) 乾體各爻는 震子의 象인 까닭에 九四도 震子의 象이다. 九四起凶은 初六의 有攸往見凶과 相照하니 九四의 凶이 곧 初六의 見凶이다.

角이라 함은 頭上의 陽이 陰에 觸하여 硬化한 者이다. 姤의 諸爻中에 오직 上九에만 姤字가 있으니 이는 天地相遇하는卦에 初六이 地가되고 上九가 天이 되어 初六과 上九가 天地相遇하므로 上九에만 姤字가 있고 上九의 陽이 上窮하여 初六의 陰과 相觸하므로 硬化하여 角이 된 것이다.

姤月 言母體孕月 故月之體也 乾月 言父氣施光 故月之用也 此坤道八宮言母體 坤道七宮 言胎兒故也

六十甲子 姤月乾月 皆當丁未 此亦 姤爲月之體 乾爲月之用也

萃 澤地

萃는 坤이 兌澤을 合한 純陰卦로서 兌澤의 成의 中心에 陽을 內包하니 이는 女體의 陰子가 陽子를 承受하여 孕胎하는 象이오 달의 陰精이 乾陽을 承受하여 第二世의 달을 孕胎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萃升은 益卦의 地生의 象이오 序卦에는 坤이 萃升에서 그 受胎의 任務를 다하여 終하는 것이다. 萃라 함은 聚함이니 陽氣가 內部에 聚하여 孕胎된 胎兒가 生長하는 象이다. 物의 聚함에는 順하고 說하고 中心에 陽이있고 應하고 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逆하며 順치 아니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오 心이 說從치 아니하

면 聚치 못하는 것이오 中心의 運行力이 柔弱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오 聲氣가 同一치 아니하여 서로 應치 아니하면 聚치 못하는 것이다. 萃에는 坤이 順하고 兌가 說하고 九五의 陽이 中하고 六二가 應하므로 陽이 聚하여 胎兒가 生長하는 것이다. 臨卦에도 이 네 가지가 있으나 臨의 陽은 內部에 있지 아니하므로 浸長하는 象이 되고 聚하는 象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萃는 草와 卒로 되고 卒은 繫辭의 「卒成之終」과 같이 成終의 뜻이니 草木이 長을 極하여 여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곧 萃의 뜻이다. 萃卦는 母體가 여물어서 終을 成하고 第二世를 孕胎하는 象이 되므로 萃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易理에는 모든 生物中에 神의 自然法則을 順應하여 조금도 어김이 없는 것은 草木이라 하여 易象에 主로 草木의 象을 取하고 序卦에는 乾坤이 처음으로 所生한 屯蒙도 모두 草木의 象을 取한 것이며 坤의 成終하는 萃卦에 草木의 象을 取한 것도 또한 이 理에 依한 것이다.

사람의 生生하는 것은 神의 分身으로 된 鬼神의 作用에 依하여 生하는 것이오 사람이 鬼神을 奉享하는 곳을 廟라 하는데 天上에서는 鬼神이 달에 依附하고 있으므로 (이 理는 序論에 씌어있다) 天上의 달은 人間의 廟의 象이 되는 것이오 人間에서 鬼神의 依居하는 廟를 새로 세우는 것은 天上에서 鬼神의 依附하는 달이 새로 生하는 것과 同一한 象이다. 萃卦에 王假有廟라 함은 乾陽이 坤體인 달에 假居하여 第二世의 새달로 孕胎되어 自身이 先天月의 子로 되고 鬼神은 달에 依附한다는 理에 依하여 祖上神이 새달에 依附하니 이는 사람이 廟를 세우고 祖上神을 거기에 奉安하는 象과 같다 하여 달을 象하기를 廟라고 한 것이다.

乾陽이 先天月에 假居하여 第二世의 달로 孕胎되고 거기에 鬼神을 依附케 하는 것은 사람이 胎兒를 孕胎하고 祖上과 子孫의 生命의 줄을 連繫시키기 爲하여 祖上神을 奉享하는 廟를 세움과 같으며 祖上의 廟를 세우는 것은 곧 祖上에게 孝하고 祖上을 享하기 爲함이므로 致孝享이라 한 것이다. 孝

는 老와 子로 되어 子가 父母를 繼承한다는 뜻이오 享은 神에게 獻하고 受하고 한다는 뜻이니 이는 모두 祖上과 子孫과의 生命의 줄을 連繫하는 일이다.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여 사람의 生生하는 原理는 달에서 내려온 것이므로 第二世의 달의 生하는 萃卦에 사람의 孝享하는 理를 말하여 사람과 달의 生理의 相似하다는 뜻을 表한 것이다.

大牲이라 함은 神을 享함에 쓰기로 定한 生牛이니 用大牲이라 함은 坤母가 第二世를 胎育하는 것이 곧 生牛를 祭物로 쓰는 象이라 함이오 母體가 子를 生産한 後에 自身이 消滅하는 것은 또한 牲을 神에게 獻하는 象이니 萃升은 序卦最終의 坤으로서 第二世를 胎育하고 있으므로 用大牲의 象을 取한 것이오 이는 先天달이 后天달을 胎育하고 自身이 消滅되는 象이다. 萃의 用大牲 順天命은 無妄의 牛 및 天命과 相照하는 것이니 上經의 無妄大畜과 下經의 萃升은 서로 變易하여 無妄大畜은 陽體中의 震子의 長成함을 象한 것이오 萃升은 陰體中에 震子를 胎育함을 象한 것이다. 萃의 用大牲의 牛는 無妄의 行人所得한 牛이오 萃의 所順하는 天命은 無妄의 自外來한 天命이다. 無妄六三의 牛는 本是 下卦坤體의 牛인데 震子가 坤體內에 來한 까닭에 坤이 變하여 震으로 되니 이는 震이 坤牛를 得함이오 震이 坤牛를 得한 것이 곧 行人이 牛를 得하고 邑人이 牛를 失하여 灾(災)한 것인데 萃는 無妄으로부터 震子를 受한 것이므로 萃下卦坤이 震子를 受하면 또한 無妄의 下卦坤과 같이 自身을 犧牲하여 震子를 胎育하고 自身을 喪하게 되는 것이니 이가 用大牲順天命의 象이다. 萃와 無妄에 牛와 天命을 相照하여 말한 것은 母體가 胎兒를 胎育하는 것은 第二世의 繼承을 爲하는 犧牲인 同時에 또한 그것이 天命이라 함을 表示하기 爲함이다.

天地萬物之情　咸卦下

地가 兌澤을 合하므로 萃聚의 情이 된 것이다.

九五 元永貞은 坤元과 用六作用으로써 乾陽을 承受하여 새달을 孕함이오 匪孚라 함은 月體中에 陽氣를 뭉치는 것이 아니라 乾子를 孕하여 第二世의 달을 胎育한다 함이다. 九五는 王假有廟의 位로서 달의 胎育되는 位이니 聚有位라 함은 上으로 天命을 順하고 下로 坤母를 犧牲하고 그 中間에서 달이 生하여 乾象의 말한 바의 六位를 이룬다 함이오 陰體中에 胎育되고 있으므로 志가 未光한 것이다.

六二의 孚乃利用禴은 象의 用大牲의 뜻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으로서 거기에 陽氣가 뭉쳐서 胎兒가 胎育되면 이에 生牛를 神에게 祭享하는 祭物로 定하는 禴祭를 지내게 되는 것이니 이는 坤母를 犧牲하여 子孫을 生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序卦

姤는 陰體가 乾陽을 承受하여 달의 入胎하는 象이오 萃는 第二世의 달을 孕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萃가 姤에 次하는 것이다.

萃는 序卦의 第四十五卦로서 洛書의 數가되어 自然數의 九에 當하고 渙은 五十五數로서 河圖의 數가되어 自然數의 十에 當하니 萃는 陽數의 終이므로 先天月에서 后天月의 孕胎되는 象을 取한 까닭에 子가 父母를 繼함을 象하여 孝를 말하고 渙은 物의 成終하는 十數이므로 달이 母體의 第十竅에서 十朔만에 出生함을 象하고 渙의 달은 后天月이오 乾陽自身이 곧 后天月인 까닭에 胎兒自身이 곧 乾陽임을 象하여 王乃在中을 말한 것이다. 萃는 洛書數의 終하는 卦로서 母가 亡하고 第二世달의 胎育하는 象이 되고 胎中卦 革에 治歷의 象이 있으니 이는 萃卦에서 后天이 生한다 함을 말함이오 升에서 二百七十六日만에 胎兒가 生하는 것이다.

大象

萃는 生長本能의 卦이오 生長本能에는 반드시 生長競爭이 있는 것이므로 鬪爭에 쓰는 兵器를 除去하고 사람의 天性의 여물지 못한 것을 警戒하는 것이다.

咨는 歎하는 聲이니 口에 屬하고 涕는 目液의 出함이니 目에 屬하고 洟는 鼻液이니 鼻에 屬하는데 卦象으로써 보면 口는 兌이오 目은 離이오 鼻는 巽으로서 口目鼻는 三女卦의 象이다. 萃의 上爻는 內에 陽氣를 包하고 陰竅가 上에 開하여 澤聚의 極에 澤溢下流하는 象이 되는데 上六의 陰竅의 上開는 顔面上의 口目鼻의 象이니 그러므로 澤流下溢을 咨涕洟의 齎送으로써 象한 것이며 未安上이라 함은 上에서 安定치 못하고 溢流함을 象한 것이다.

澤이 天에 上한 夬는 上六이 五陽을 乘하여 顔面上의 目鼻口의 象이 되고 澤이 地에 上한 萃도 上六에 顔面上의 口目鼻의 象이 있으니 夬는 內에 乾陽의 氣를 包하므로 內部의 陽氣가 目口鼻를 通하여 外로 發하는 象이 되고 萃는 內에 坤陰의 形質을 包하므로 內部의 水液이 口目鼻를 通하여 外로 出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夬와 萃의 兌澤에 胎兒의 胚胎하는 象이 있으므로 上六에 顔面의 象을 말한 것이다.

升 地風

升은 坤陰이 巽의 陰精을 合하고 天氣의 下降하는 陽을 內包하므로 달이 第二世를 孕胎한 象이 되니 益卦의 「地生」의 象이오 그러므로 下經에는

오직 升卦와 胎宮의 革鼎에만 元亨의 象이 있는 것이다.

物의 始生함에는 下로부터 上升하니 草木의 生長이 모두 下로부터 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의 生함을 象하여 升이라 하고 彖에는 陰이 時로써 升한다 하니 陰은 달의 體를 象함이오 달에는 盈虛消長이 있는 까닭에 時를 말한 것이다.

升은 文王八卦圖의 四維卦로서 南方離를 夾하므로 南征의 象이 있으니 이는 달이 南의 離火方으로 出하여 光明을 받는다 함을 말함이다.

升은 序卦에 泰의 天地交로부터 三十六數로 되어 있으므로 泰에 拔茅茹가 있고 그 中間인 大過에 藉用白茅가 있고 升에 地中生木이 있어 이에 天地交의 任務를 다하고 終하는 것이며 또 乾으로부터 升까지는 四十六卦 二百七十六爻가 되는데 二百七十六數는 사람이 受胎됨으로부터 出産하기까지의 大體의 日數이니 이는 升卦에서 달이 生하므로 사람의 出生하는 日數로써 달의 生함을 象한 것이다. 卦自體內에 달의 胎育하여 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用見大人이라 한 것이다.

六五의 階는 下에서 高로 登하는 바이니 節卦에 言語以爲階가 있는데 節卦는 先天月이 終하고 日月이 合朔하면서 后天月이 生하기 始하는 곳이므로 階의 象이 되는 것이오 이 升卦가 또한 后天月의 生하는 始가 되므로 달이 時로써 升하는 것을 升階라고 한 것이다.

九二의 孚乃利用禴은 萃六二의 象과 同一한 것이오 六四의 王用亨于西山이라 함은 乾陽이 달의 兌澤을 岐山에서 嘉會한다 함이니 山澤은 달의 體이오 이는 달의 體가 六四爻에서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長의 時運의 달은 隨卦上六에서 王用亨于西山하여 艮兌가 長하는 것이오 后天月은 升卦六四에서 王用亨于岐山하여 艮兌가 成하는 것인데 長의 時運의 달은 蠱甲이 달의 始가 되므로 隨卦上爻에 艮兌의 長하는 象이있고 后天月은 升五爻에서 升階하는 것이므로 四爻에 艮兌의 成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隨卦上爻는 兌

澤인 까닭에 西山이라 하고 升卦四爻는 地의 四支인 山이므로 支와 山을 合하여 岐山이라 한 것이다.

序卦

文王八卦圖 互歸妹之升卦 上爻陰下爻陰 故女體受陽씨之象也 文王八卦圖 互歸妹之卦泰蠱大畜在上經 爲男體之씨 唯升一卦 在下經 爲陰體受陽씨之象也

萃는 坤母가 第二世의 달을 胎育하는 象이오 升은 第二世의 달을 生하는 段階에 升한 것이니 그러므로 升이 萃에 次하는 것이다.

地道五皇極宮에서 天地의 相交하는 后天胎育의 事功이 萃升에서 終하고 胎宮인 困井革鼎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雜卦에 升은 不來也라하니 升은 序卦 最終의 坤으로서 陰의 成한 것이므로 升字가 十으로 되어 自然數의 成함을 表한 것이오 十에서 成한 后天은 다시 生長으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成의 時運이 그대로 繼續하는 것이므로 十數의 成한 象이 되는 升은 다시 來치 아니하는 것이다.

大象

后天月의 胚胎하는 卦이므로 地中生木의 象이 되는 것이니 易卦大象에 「生」字가 있는 것은 오직 升一卦이다.

順德은 坤德이오 積小는 陰精의 聚함이오 高大는 陽氣의 高升함이니 이는 胎兒가 陰精中에서 生長하는 象이오 사람이 坤順의 德으로써 以小成大하는 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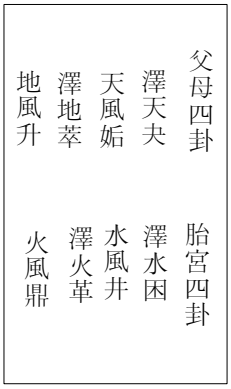
升은 序卦의 乾坤最終卦로서 盈虛消長의 象이 있으므로 下卦의 終인 九三에 虛를 말하고 上卦의 終인 上六에 消字를 쓰니 盈虛는 空間의 象이오 消長은 時間의 象이라 上卦는 天으로서 時間의 象이 되므로 上六에 消長을 말하여 消不富라하고 下卦는 地로서 空間의 象이 되므로 九三에는 盈虛를 말하여 升虛邑이라 한 것이다. 升은 下經咸으로부터 第十六卦에 當하므로 上經 第十六卦인 豫와 같이 달의 虧하는 象을 取하여 上六에 冥升이라 하니 升의 冥은 長의 時運의 달의 冥함이오 이는 上六의 消不富와 同一한 뜻이다.

胎宮　夬姤萃升괘 困井革鼎

夬姤萃升은 父母卦의 終함이오 다음에는 震子卦인 震艮이 繼하는데 父母와 震子는 胎宮으로써 連結되고 있으므로 夬姤萃升의 다음에 胎宮인 困井革鼎이 次하는 것이오 地의 胎宮은 곧 달이므로 困井革鼎은 巽兌의 陰精이 水火를 合하여 生長組織으로 된 달의 陰精의 象이니 이는 胎宮은 胎兒를 生하기 爲하여 반드시 生長作用을 行하기 때문이다.

胎宮之水火 自夬姤萃升之乾坤來 此乾坤之子也 水火歷 地道七宮而成形 至旣濟未濟而水火之合 爲乾坤之合 越於后天 爲乾坤 乾坤者 夬姤萃升之 成道者也

夬姤萃升은 天施地生의 象으로 되어 乾坤이 巽兌를 合한 것인데 陰陽의 施受作用은 陰體의 陰精火가 陽體의 陽精水를 承受하여 陽精水中의 震子를 胎育하면서 水火의 烹湯作用으로써 胎兒의 體를 生하는 것이니 이는 火는 生生의 原이오 水는 生生의 始이라 火가 物의 生生의 原이 되는 까닭에 萬物의 씨의 元인 震子는 太陽의 光明에서 오는 것이오 水가 物의 生生의 始가 되는 까닭에 萬物의 씨는 水液中에 싸여 있는 것이며 이가 陽精水와 陰精火가 合하여 胎兒를 生하는 所以이다.



그러므로 夬姤의 乾陽에서는 陽精水가 나오고 萃升의 坤陰에서는 陰精火가 發하여 胎兒를 生하는 것이오 이 理에 依하여 澤天夬는 澤水困이 되고 天風姤는 水風井이 되고 澤地萃는 澤火革이 되고 地風升은 火風鼎이 되니 이는 水火는 乾坤에서 生하는 것으로서 乾中劃이 坤에 入하여 水를 生하고 坤中劃이 乾에 入하여 火를 發하는 까닭이며 困井革鼎의 胎宮四卦는 地道의 收斂하는 中에 홀로 生長卦로 되어 있는 것이다.

父母四卦와 胎宮四卦의 聯聯生生하는 象을 보건대 夬는 乾陽이 兌澤을 決하고 入한 것이므로 乾陽에서 坎水가 生하여 澤水困이 된 것이니 困은 地下水의 象이오 姤는 陰精이 乾陽을 遇하는 것이므로 乾陽에서 坎水가 生하여 水風井이 된 것이니 井은 地를 掘하여 井을 作하고 地下水를 汲上하는 象이다.

萃는 坤陰의 兌澤이 乾陽水의 震子를 受胎하면서 坤陰에서 離火를 發하여 澤火革이 된 것이니 革은 水火相息의 象이오 升은 坤陰中의 陰精이 乾陽水의 震子를 胎育하면서 坤陰에서 離火를 發하여 火風鼎이 된 것이니 鼎은 鼎中에서 水火를 烹湯하는 象이다.

胎宮은 乾坤의 第二世의 出生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物을 製作함에 사람이 天工을 代行하는 象을 取하여 人工으로써 製作하는 井과 鼎의 象을 말하니 乾은 生의 時運의 天道이오 坤은 長의 時運의 地道인즉 사람이 天工을 代行하는 胎宮은 成의 時運의 人道이라 后天의 成의 時運은 人道의 行하는 時運이라 하여 胎宮의 井鼎에 人工製作物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니 이는 天工의 未成한 것을 사람이 人工으로써 代行하여 製作한 然後에 天地人 三才의 道가 具備하여 天地生生의 功이 大成하는 것이다.

胎宮은 地道이니 胎兒가 胎宮에 있는 동안까지는 地道에 依하여 生하고 있

으나 胎宮에서 出生하는 때로부터 始祖神을 向하여 나가면서 神으로 더불어 相和하는 人道가 行하는 것이다.

下經地道의 序卦로써 보면 下經은 收斂作用을 主하는데 三十四卦中에서 咸恒父母를 除하고 그 나머지 三十二卦의 中央部에 生長作用을 行하는 胎宮四卦가 있으니 이는 天地自然數에 二四六八十의 地數五位의 中央에 用六宮이 있는 理이므로 胎宮은 用六宮의 象이 되는 것이다.

胎宮의 數가 四卦로 되는 까닭은 乾은 父象으로서 用九가되고 坤은 母象으로서 用六이 되고 九六父母가 相交하여 子一數를 生하니 이는 九六十五가 一을 生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父母와 子의 數는 十五對一로서 合하면 十六이오 易卦六十四를 父母子의 生生數에 맞춰 보면 父母의 數는 六十卦가되고 子의 數는 四卦가되니 이 子數四卦가 곧 胎宮四卦의 數이다.

困 澤水

困井 陽精水之施也 革鼎 陽精水 附於陰精而生長也

困은 澤天夬에서 變來하여 陽精水가 兌澤을 決하고 入한 象이오 陰精이 陽精水를 合한 生長卦이므로 胎宮卦가 된 것이다.

困字는 木과 圍로 되어 木이 圍中에 生하는 象이오 木은 震子의 象이니 困은 陽精水가 澤底에 入하므로 陽掩의 象이 되고 震子가 澤底의 圍中에 入하므로 困이라 하니 이는 乾陽의 震子가 入胎하는 象이다. 陽이 陰에 掩蔽되고 있어 困하되 兌澤과 震子의 嘉會하는 바를 失치 아니하니 이는 第二世의 달의 入胎하는 象이다. 有言不信은 九二의 陽이 內部에서 陰에 掩蔽

되어 發宣치 못한다 함이다.

九五는 震子入胎의 位이오 劓刖은 噬嗑卦의 滅鼻滅趾이니 震子가 陰中에 入함을 象함이다. 九五에는 祭祀의 象이 있는데 易理에는 사람이 神에서 生하므로 子孫을 生하는 象의 卦에 神에게 祭祀하여 上으로 祖上을 繼하고 下로 子孫에게 傳한다는 뜻을 表한 것이니 祭는 人과 神의 相接함이오 祀는 敬慕하여 記念함이라 九五는 震子와 兌澤이 相遇하여 第二世의 入胎하는 象이므로 祭로써 神明을 接하고 祀로써 祖上을 敬慕하고 함을 말한 것이다.

九二의 酒食은 飮食으로써 物을 生養하는 象을 말함이니 이는 生의 中心에서 入胎한 震子를 生養함이오 亨祀라 함은 亨은 嘉會함이오 祀는 敬慕記念함이니 이는 第二世의 入胎하는 生의 中心에서 神과 人이 相和하여 사람이 神에 生한다는 뜻을 表한 것이다. (有言不信 尙口乃窮 = 九二之征凶)

胎宮은 달의 胎育의 宮이오 困은 달의 始生하는 卦인데 六三은 無水하고 또 乘剛하여 生命과 光明이 없으므로 先天달의 消하는 象이 되어 凶한 것이다.

六三은 上으로 剛鹵한 澤底를 負하니 이는 石에 困한 象이오 下로 陽을 乘하여 陽水를 掩하니 이는 蒺藜에 據한 象이다. 蒺은 草와 疾로 되고 疾은 陽이 陰에 陷하여 病한 것이니 蒺의 刺가 사람을 傷함을 象함이오 藜는 旱草로서 旱害가 있는 때에 蒺藜가 먼저 生하는 것이니 六三은 陽水를 掩하여 澤에 水가 없으므로 旱草의 象을 取한 것이다. 兌澤은 女體의 陰子의 象이오 陰子는 妻의 象인데 澤에 陽水가 없어서 陰子가 生치 못하니 이는 그妻를 見치 못하는 象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困할 바가 아닌 데에 困하니 名이 반드시 辱되고 據할 바가 아닌 데에 據하니 身이 반드시 危할지라 이미 辱되고 또危하여 死期가 將至하거니 妻를 그 可히 見함을 得하리오 하니 이는 六三에 物의 生生하는 象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初六은 剛揜卦의 最底에 있어 暗昧不明한 象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行하면 臀이 體軀의 中間에 있고 坐하면 臀이 底에 있는 것이니 夬姤는 乾陽이 陰中에 入하는 行人의 象이므로 臀이 卦의 中間에 있고 困은 夬에서 生한 卦이므로 그 뜻을 表하기 爲하여 臀의 象을 取하고 胎宮의 胎兒는 坐하는 것이므로 臀이 底에 있는 象을 取한 것이며 困卦의 底는 初六이므로 初六에 臀의 象을 말한 것이다.

株는 木과 朱로 되고 朱는 赤心木이다. 坎은 木의 堅多心의 象이 되고 內에 陽을 含함으로 朱木은 坎의 象이며 初六은 胎兒가 木圍中에서 生하고 있으므로 臀이 朱木에 掩蔽되어 있다고 한 것이오 九二의 朱 九五의 赤이 모두 朱木의 뜻이다.

幽는 光明이 가려서 隱微함이오 谷은 水가 半見하여 山間口에 出함이니 幽谷은 山間에 泉이 始出하는 隱微한곳이오 胎宮의 最底를 象한 것이다.

酒食은 需九五의 酒食과 同一하니 困九二에 需九五의 生命水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金車는 剛鹵의 뜻이니 車는 鹵簿이므로 車에 鹵의 象을 말한 것이다.

葛藟는 旱田에 生하는 蔓草로서 蔓纏上覆하는 것이니 困은 無水의 澤에 草木의 生하는 象이있고 上에 纏하여 九五를 覆하고 있으므로 旱田에 生하는 葛藟를 象한 것이다. 臲은 隉의 뜻으로서 阜의 毁함이오 卼은 扤의 뜻으로서 木의 枝가 傷하여 없음이니 上六은 澤無水한 곳이므로 阜가 毁하고 木이 無枝하고 한 象이다. 上六은 六三과 함께 陽을 掩蔽하는 爻이므로 上六의 葛藟는 六三의 蒺藜와 같고 上六은 臲卼은 六三의 石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六三은 入하므로 澤이 涸하여 凶하고 上六은 行하므로 水가 來하여 吉한 것이다.

困하기를 于葛藟하고 于臲卼하니 이는 曰하기를 動悔하고 有悔하고 한 것

이다. 動悔는 困하기를 葛藟에 함이오 有悔는 困하기를 臲卼에 함이다

大象

澤無水는 剛揜의 뜻이다. 險中에서 困하므로 天命을 致하여 自己의 意志를 遂行하는 것이 곧 困을 變通하는 길이니 致命은 繫辭의 「盡性至命」의 뜻이다.

井 水風

井은 天風姤에서 變來하여 陰精이 陽精水를 遇하여 生命水를 汲上하는 象이오 陰精이 陽精水를 合한 生長卦이므로 胎宮卦가 된 것이다.

井은 困의 反易이오 人工으로써 地를 穿穴하여 澤中의 水를 汲上하는 것인데 또한 水가 樹木의 根으로부터 가지에 上升하여 樹木을 養하는 象이있어 마치 井水가 사람을 養함과 相似하므로 井에 또한 木上有水의 象을 取한 것이다.

邑이라 함은 人居의 地이오 改邑이라 함은 사람의 移來移居가 있다 함이오 不改井이라 함은 사람의 移來移居는 있으되 井의 位는 變치 아니하여 모두 그井을 井으로한다 함이니 이것을 胎宮의 理로써 보면 胎宮에 居하는 胎兒는 前者가 出産하고 後者가 來居하고 하여 그 居人은 반드시 다른 邑人의 新來하는 者이니 이는 改邑하는 象이오 胎兒는 前者가 往하고 後者가 來하고 하되 모두 그 胎宮을 胎宮으로 하니 이는 不改井의 象이다. 井卦는 洛

書의 象이오 洛書는 胎宮의 象이다. 洛書東北의 一六水 三八木은 水風井卦의 坎水巽木으로서 그 方位가 河圖의 方位를 變치 아니하니 이가 不改井의 象이오 洛書西南의 二七火 四九金은 胎宮의 萃卦의 離火兌金으로서 그 方位가 河圖의 方位를 變改하니 이가 改邑의 象이라 그러므로 洛書의 一六三八은 胎宮不改의 象이오 二七四九는 胎兒來往의 象이다.

洛書의 中宮五土는 生數의 生命體로서 胎兒의 象이다.

澤底에 흐르는 地下水는 限度가 있어 그 限度에서 더 上하지도 아니하고 더 下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穴穿한 井水도 또한 限度가 있어 汲치 아니하여도 더 上하지 아니하고 汲하여도 더 下하지 아니하니 汲하여도 더 下하지 아니함은 無喪이오 汲치 아니하여도 더 上하지 아니함은 無得이다. 井은 그 處所에 固定되어 있으므로 人居에는 往來함이 있으되 井에는 往來가 없어 모두 그 井을 井으로하는 것이다. 사람이 來하여 汲上하되 더 喪함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汲上치 아니하되 더 得함이 없고 物을 養하여 窮치 아니하니 無喪無得은 井의 體이오 往來井井은 井의 用이라 繫辭에 「井은 그所에 居하여 遷한다」 함은 井의 體와 用을 말한 것이다.

汔至未繘井 羸其甁은 九二와 初六의 象을 말함이니 井은 生命水가 地中으로부터 出來하는 卦인데 初六에 巽股가 있어 陽을 害하는 象이있고 九二가 初六과 接하여 陽의 陷하는 象이 있으므로 九二의 井水는 下로 漏하여 汔至가되고 下로 汔至하여 上行치 못하므로 未繘의 象이 되고 初六의 陰은 汲水器의 象인데 巽股가 陽을 害하므로 汲水器가 繫纍되어 用치 못하는 象이 되니 爻辭에 甕敝漏와 舊井은 井器의 敝함을 말함이오 無禽은 水中에 生命이 없음을 말함이다.

九五는 彖의 不改井의 位이오 寒은 乾의 象이다. 乾은 純陽이오 乾이 陰精에 入하면 陽氣가 뭉쳐 있고 그 外廓이 寒하여 收斂하는 것이니 이가 乾에 寒象이 있는 所以이오 사람의 頭가 陽氣의 뭉쳐 있는 乾象으로서 寒한 것도 또한 이理에 依한 것이다. 井九五는 姤九五의 乾에서 變來한 것인데 井

泉中에는 陽氣가 뭉쳐 있고 外가 收斂하는 까닭에 寒泉이 된 것이니 上六의 收와 孚는 九五의 泉의 收斂하고 陽氣의 뭉쳐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上六은 井面의 汲水하는 位에 있어 無喪無得하는 곳이며 大成이라 함은 乾知大始坤作成物의 뜻이니 上六에서 養物不窮의 功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乾坤大成의 象이 된 것이다.

胎宮四卦는 陰精이 水와 火를 合하여 된 것인데 水는 就下하는 形質의 象이오 火는 上發하는 天性의 象이다. 이것을 사람의 一身으로써 보면 사람에게도 形質과 天性의 兩面이 있어 形質은 水의 象이 되고 天性은 火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困井의 水에는 主로 形質을 養하는 象을 말한 것이오 革鼎의 火에는 主로 天性을 養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또 이것을 달로써 보면 困井의 水는 달의 陰精이 乾陽의 陽精水를 承受하여 第二世의 陰精을 養하는 象이 되고 革鼎의 火는 달의 陰精이 乾陽의 火氣를 承受하여 第二世의 陽氣를 養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第二世의 달이라 함은 사람과 같이 母體가 子를 生하여 母體와 胎兒가 따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蠱의 幼虫이 蛹化하여 成蟲으로 飜生함과 같은 것이니 胎宮四卦는 달의 蛹化飜生하는 宮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大象

木上有水라 함은 樹木에 水液의 上升함이니 이가 井水上行하는 象이며 그러므로 井의 地中水가 上行하는 것은 地中土에 木根과 같은 組織이 있어 木根이 地中水를 吸上함과 같은 것이다.

勞는 勞乎坎의 뜻이니 井水는 民을 勞養한다 함이오 相은 도움이니 共同으로 井을 穿하여 서로 돕는다 함이다. 勞民勸相은 國家가 民衆을 勞養하고

民衆相互間에 서로 돕게 한다 함이다.

渫은 治井함이다. 九三은 巽乎水而上水하는 界에 있어 泉의 湧出하는 位이다. 困은 九四에 困于金車의 象이 있어 乾陽이 陰中에 掩蔽되고 井九三은 困九四의 反易으로서 乾陽의 水가 外로 出하는 象이있어 可用汲王明이라 한 것이다.

井의 初六 九二의 舊 敝는 胎宮의 經水의 濁하고 敗한 象이오 九三 六四의 渫 甃는 經水가 通하여 胎宮이 淨化하는 象이오 九五 上六은 胎宮의 成한 象이다.

革 澤火

革은 澤地萃에서 變來하여 陰精中에 火를 包하고 陽氣가 뭉치는 象이오 陰精이 火를合한 生長卦이므로 胎宮卦가 된 것이며 三女生長卦로서 兌澤이 있으므로 元亨利貞의 四德이 있으니 下經에 四德이 있는卦는 오직 胎宮의 革一卦이므로 革에는 第二世가 孕胎되어 世代의 變革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革은 兌澤中에 火를 包하고 水火가 沸湯하여 相息하는 象이니 이것을 文王八卦圖에 南의 離에서 西의 兌로 向하는 象으로써 보면 天道가 夏에서 秋로 變하여 鳥獸의 羽毛가 脫落하여 稀革하는 象이 되므로 卦名을 革이라 하니 그러므로 革字는 變革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三女卦의 生長이라 함은 (蹇解와 相對)生長은 陽의 象이므로 陽이 陰體에 附하여 生長한다는 뜻이 된다)

또 胎宮의 理로써 보면 胎宮에는 水火가 調和되어 沸湯作用이 行하므로 胎兒의 一身이 皮毛가 없이 革으로되고 오직 首에 毛髮이 있으니 이는 首는 乾象이오 乾은 內部에 陽氣가 뭉치고 外廓이 寒하여 金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首에는 毛髮이 있는 것이니 이는 首는 熱함을 싫어하는 곳인 까닭이오 그 外에 部分的으로 毛髮이 있는 것은 모두 熱함을 싫어하고 寒함을 必要로 하는 곳이며 人體部分의 寒은 井卦의 井寒泉의 作用이다. 動物의 몸이 毛皮에 싸여 있는 것은 動物의 胎宮에는 火氣가 不足하여 沸湯作用이 行치 못하는 까닭이다.

己日乃孚라 함은 胎宮의 兌澤中에 太陽의 陽氣를 包하여 陽氣가 뭉쳐서 沸湯作用을 行한다 함이다. 澤火의 卦는 睽와 革으로서 모두 水火의 象이 되는데 睽는 火上水下하여 水火가 不同行하므로 睽가 되는 것이오 革은 水上火下하여 水가 火를 滅하고 火가 水를 涸하여 水火가 相息하므로 革이 되는 것이다. 睽와 革에 모두 二女를 말한 것은 三女의卦에 中女少女가 同居하는 때는 반드시 相睽相息하는 作用이 行하는 것이오 長女中女가 同居하는 때는 家人鼎이 되어 家道가 正하고 和平한 것이다.

天地革이라 함은 天時가 夏로부터 秋에 移하여 物이 變化한다 함을 말함이오 四時成이라 함은 秋에 物이 成熟한다 함을 말함이다.

革命이라 함은 天命을 變改하는 일이니 生長時運에 있어서는 生長하는 것이 天命이오 成의 時運에 있어서는 成熟하는 것이 天命이라 革卦는 萃卦에서 變來한 것인데 萃卦의 用大牲은 天命을 順하는 象이오 萃卦에서 坤이 終하고 革卦에서 夏로부터 秋하여 次世代로 될 子가 母體內에서 成熟하는 것은 天命의 變改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革에 革命의 象이 있는 것이다.

易經의 彖辭에 實際人物을 말한 것은 오직 明夷의 文王 箕子와 革의 湯武이다. 明夷는 地가 太陽의 陽精을 承受하여 胎育하는 象이오 革은 兌澤이 太陽의 陽精을 承受하여 胎育하는 象이니 明夷와 革에 胎宮의 象이 있음을

表하기 爲하여 明夷와 革에 實際人物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湯武라 함은 殷國의 湯王과 周國의 武王의 史實에서 나온 것이나 또한 革卦에 湯武의 象이 있으니 湯이라 함은 熱水이니 澤中에 火가 있고 水가 火를 因하여 沸하고 함이 곧 湯의 象이오 武라 함은 用武의 뜻이니 離는 戈兵의 象이오 兌는 金革의 象으로서 戈兵과 金革은 모두 用武의 器이니 이는 武의 象이다. 順乎天而應乎人이라 함은 天命을 順하고 人心에 應한다는 뜻인데 革卦에 天의 天命과 사람의 天性의 象이 있다. 乾彖에 「乾道가 變化하여 各各性命을 正한다」 하니 이는 物이 長으로부터 成으로 向하는 秋節이 되면 物이 여물어서 天命과 天性이 天賦한대로 正한다 함이오 天命과 天性이 天賦한대로 正하는 것이 곧 天의 天命을 順하고 人의 天性에 應하는 것이며 革卦는 夏로부터 秋하여 乾道變化하여 各正性命하는 象이 되므로 順乎天而應乎人이라고 한 것이다.

時大矣哉　　頤卦下

大象에 治歷明時가 있으니 歷은 曆으로서 日月의 行度를 말한 것인데 달이 變革하면 曆이 또한 變改되는 것이니 胎宮은 달의 象이오 革은 變革한다는 뜻으로서 革卦에 달의 變革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革卦에 治歷明時를 말한 것이다. 또 胎宮二十四爻는 閏日의 數이니 一年의 正日數는 乾坤合策數인 三百六十日이오 閏月의 드는 해의 十三月 總日數는 三百八十四日이므로 三百八十四日에서 正日數三百六十을 除하면 나머지 二十四日은 閏日數가 되는 것이며 易卦爻의 數가 모두 三百八十四爻로서 閏歲의 日數와 相同하니 이는 三百八十四爻中에 父母數인 六十卦 三百六十爻와 子數인 胎宮四卦 二十四爻가 合하여 있는 것이오 前記한 正閏日數의 理로써 보면 子數인 胎宮二十四爻는 閏數로 되는 것이다. 胎宮中의 胎兒는 長成하면 반드시 出産하는 것이오 胎兒가 出産하고 父母가 終하면 거기에는 先天乾坤은 없고 第二世의 后天乾坤이 새로 나오게 되고 后天乾坤에는 胎宮이 없으므로

乾坤正策數 三百六十만이 있어 이것이 一年의 日數로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后天에는 閏日없는 曆이 나오는 것이며 이 曆이 달의 變革하는 象의 革卦에서 나오는 것이다. (占은 天下의 疑를 斷하는 것인데 革에서 曆을 治하여 日月行度를 豫知하고 있으므로 疑가 없어서 占치 아니하는 것이다.)

革卦各爻에는 中四爻에 모두 孚가 있으니 (二爻는 己日乃孚) 孚는 陽氣가 뭉쳐서 新生命의 孵化함이라 이는 物의 變革되는 때는 반드시 自體의 內部에 陽氣가 뭉쳐서 孵化한 然後에 그 變革된 生命이 長壽하는 것이오 萬一 他力에 依하여 變革되면 그 生命은 完全치 못한 것이다.

九五에 大人虎變이 있으니 虎는 眼에 火光의 發하는 動物이라 革은 달의 陰精에 火光의 發하는 象이므로 陰物인 動物의 眼에 火光이 發하는 虎의 象을 取한 것이오 大人은 形質을 가지고 있으되 心性이 光明을 發하여 事物을 通觀하는 明이 있는 것이므로 또한 大人에 虎의 象을 말한 것이오 革卦의 火는 成의 中心인 九五에서 發하므로 九五에 大人과 虎象이 있는 것이다. 革卦는 萃卦에서 變來한 것이오 履卦에서 萃卦까지가 三十六卦이오 그 中間에 頤卦가 있는데 履에 履虎尾不咥人이 있고 革에 大人虎變이 있고 頤에 虎視眈眈이 있으니 履는 달의 生하는 象의 卦이오 頤는 달의 生長을 極한 象의 卦이오 革은 달의 變革되는 象의 卦이라 이 三卦에 모두 달과 人事를 말한 것은 履卦의 달에는 사람의 씨의 始하는 象이 있고 頤卦의 달에는 眼視의 象이있고 革卦의 달에는 사람의 形質에서 火光의 發하는 象이 있다 하여 달의 長成함을 따라서 사람의 天性에도 長成하는 象이 있다 함을 말한 것이다.

大人虎變은 그 文이 炳하니 이는 九五의 陽氣가 스스로 光明을 發함을 象함으로 炳이라 한 것이오 君子豹變은 그文이 蔚하니 이는 上六의 陰精이 陽氣를 受하여 光彩를 發함을 말함인데 君子는 火光의 發함이 없고 마치 草木이 日光을 받아서 光彩를 生함과 같이 火光을 反映하여 光을 發하므로 蔚이라 한 것이다.

小人革面이라 함은 小人은 그 心性이 動物의 愚와 같아서 動物과 같이 顔面이 毛皮로된 象인데 小人의 心性이 愚를 變하여 賢明으로 되면 이는 水火의 沸湯作用에 依하여 그 皮毛가 脫落하여 革이 되어 人間性을 가진 人面이 된다 함이다. 이 大人 君子 小人은 모두 달이 變革하여 后天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 사람에도 虎變 豹變 革面과 같은 變化가 일어난다 함을 말한 것이며 革卦에 사람의 身體의 沸湯하는 象이 있으므로 上六의 面位에 革面의 象을 말한 것이다.

革鼎은 三女卦이므로 革上爻에 面의 象이 있으니 離는 目의 光明의 象이오 巽은 鼻로서 鼻의 嗅香의 象이오 兌는 口味의 象이니 그러므로 面上에는 三女卦의 象이 있는 것이며 이 三女卦는 또한 花의 象으로 되어 花의 色은 離의 目光의 象이 되고 花의 香은 巽鼻의 嗅臭의 象이 되고 花의 蜜은 兌의 口味의 象이 되어 面上의 目鼻口는 花의 色香蜜과 그 象이 相通하니 그러므로 사람의 面이 和한 것은 花의 開함이오 面의 愁함은 花의 萎함이오 面의 毒함은 花의 腐敗함이다.

遯六二에 夏로부터 秋하여 陽의 遯退하는 象이 있으므로 執之用黃牛之革이라 하고 革初九에 또한 南方火가 西方陰中에 包入되는 象이 있으므로 鞏用黃牛之革이라 하니 文王八卦圖의 夏秋의 間에 坤이 있고 坤은 黃牛의 象이오 坤의 胎宮에서 水火가 革하여 胎兒를 胎育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이 兩卦에 黃牛之革을 말한 것이다.

象의 己日乃孚는 六二의 己日乃革之이다

革言이라 함은 九三의 火의 陽氣가 外에 發宣함이오 三은 一水二火가 相交하여 物의 씨로 됨이오 就는 火就燥의 就로서 火는 炎上하는 象이니 革言三就라 함은 九三에서 陽氣가 發宣하고 水火가 沸湯하여 胎育作用을 行한다 함이다. (水火相息의 卦에 九三은 火의 極이오 上六은 水의 極으로서 兩爻가 相應하는데 內에서 出하면 水火가 相息하여 滅하므로 兩爻에 모두

征凶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四는 彖의 革而當의 爻이므로 모두 悔亡의 辭가 있는 것이다. 彖에는 革命이라 하고 九四에는 改命이라 하며 下三爻는 모두 革이라 하고 九四는 改라하고 九五 上六은 變이라 하니 이는 下卦는 夏로부터 秋로 越하는 時이므로 羽毛의 脫落하는 革을 말하고 九四는 上卦 秋의 位에 移하여 革이 이미 成하므로 改라하고 九五上六은 秋時에 새로운 革이 成하여 文이 生하므로 變을 말한 것이다.

革卦는 달의 陰精인 兌澤이 太陽의 陽氣를 包하고 陽氣의 뭉친 位에서 光明을 生하는 것이므로 九五에 달의 光明의 象이 있는 것이다. 九五는 陽位陽爻이므로 달의 光明의 象이 되어 大人과 虎를 象하고 上六은 陰位陰爻이므로 달의 陰精의 象이 되어 君子가 豹를 象하니 이는 大人은 離大象의 大人과 같이 日月의 光明을 象하고 君子는 形質이 光을 受하여 光明을 發함을 象하며 虎는 눈에 火光을 發함을 象하고 豹는 虎와 相似하되 그 形이 小하고 文이 圜한 것이므로 虎는 달의 光明을 象하고 豹는 달의 形質의 圜文을 象한 것이다.

上六의 革面은 面이 革한 것이므로 巽의 廣顙寡髮의 象이다. 革上六은 兌인데 거기에 巽의 廣顙의 象이 있고 鼎初六은 巽인데 거기에 兌의 妾의 象이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면 革鼎은 三女의 生長卦이오 또한 胎宮生殖卦이라 그 卦序는 水火相息하는 革이 先하고 烹飪하는 鼎이 後하는 것인데 三女卦의 生殖作用은 먼저 巽股에 入한 然後에 離를 過하여 兌澤을 遇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革上六의 革面作用은 巽股中의 離火宮에서 行하여 巽에 廣顙의 象이 있는 것이오 또 巽股에 入하여 離火宮의 兌澤을 遇한 然後에 胎兒의 形質이 成하여 子가 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鼎初六의 得妾作用은 兌澤에서 行하여 兌에 妾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上六은 달의 陰精이오 革이라 함은 皮毛가 脫落하고 草木의 水液이 下降하여 物의 顚倒하는 象이니 陰精의 顚倒는 곧 先天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

면서 表裏의 面이 顚倒하여 從來의 裏面이 地를 向하니 이가 面을 바꾸는 革面의 뜻이오 小人은 陰精의 象이다. 달이 顚倒하여 裏面이 地를 向하면 兌가 顚倒하여 巽이 되니 이가 巽의 廣顙의 뜻이오 姤卦의 巽臀의 象이다.

順以從君은 順은 坤卦의 後順得常의 뜻으로서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감을 말함이오 從君은 太陽을 따라감이니 坤卦의 後得主의 뜻이다.

鼎 火風

鼎은 地風升에서 變來하여 陰精에서 火氣가 發하여 上升하는 象이오 陰精이 火를 合한 生長卦이므로 胎宮卦가 된 것이다.

鼎은 革의 反易이오 人工으로써 鼎을 作하여 革卦의 相息하는 水를 鼎中에 넣고 火를 焚하여 烹湯하는 것이니 井과 鼎은 水火의 器이오 胎宮이 또한 胎兒를 生養하는 水火의 宮이므로 井과 鼎으로써 胎宮卦의 卦名을 삼은 것이다.

사람의 胎宮에 水火烹湯作用이 있으므로 사람의 씨의 發生한 달의 속에 또한 水火烹湯作用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鼎卦는 烹湯作用을 行하는 달의 象이다.

鼎卦는 離와 巽으로 되니 이는 目象이오 巽은 木象인데 木字를 쪼개면 爿(장)과 片(편)으로되고 目에 爿片을 合하면 鼎이 되니 그러므로 巽木과 離火로된 卦에 鼎字를 쓰고 象에는 「鼎은 象이라」한 것이다. 繫辭에 「易에 聖人의 道가 四가 있으니 器를 制하는 者는 그 象을 尙한다」 하니 鼎은 器이라 聖人이 天工을 代行하여 火風卦의 象을 取하여 養人하는 器를

制하니 그것이 곧 鼎이며 또 「易이라 함은 象이라」하니 易은 日月이라는 뜻이오 日月이 곧 象이라 鼎을 象이라고한 것은 鼎에 달의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地上動物의 體는 水氣가 勝하여 生食을 主하는데 오직 사람의 體는 水火가 調和되어 있어 不斷히 火氣를 補給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사람은 主로 火食을 하니 이가 鼎의 烹飪하는 所以이다.

鼎에는 次世代인 子가 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始祖神인 上帝를 享하여 始祖와 子孫의 生命의 줄을 連繼시키는 것이며 鼎은 水火烹飪의 器이오 水는 流下하고 火는 炎上하는 것이므로 水火를 烹하는 水火相合한 氣는 一上一下하여 上下圜行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神을 享함에는 반드시 水火의 氣로써 上下하여 獻하고 受하고 하며 또 그 水火에 人工으로 된 井水를 汲하고 人工으로 된 飮食을 備하여 人工으로 된 鼎에 넣고 人工으로 된 火를 焚하여 烹飪하면 거기에는 水火의 氣와 人工의 功이 合하여 사람의 誠이 神에게로 올라가는 것이니 이가 飮食으로써 神을 享하는 原理이다. 그러므로 聖人이 水火를 烹하여 上帝를 享하면 天地圜行의 理와 水火의 圜行作用에 依하여 上帝는 그 水火를 大烹하여 사람에게 내려서 聖人과 賢人의 心性을 養하는데 聖人이 上帝를 享할 때에는 誠이 올라가고 上帝가 聖賢을 養할 때에는 神의 作用인 靈이 내려오는 것이다. 巽而耳目聰明이라 함은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함이오 耳目은 水火의 作用이오 聰明은 水火의 烹湯에 依하여 水火가 여물어서 心性의 聰明이 열리는 것이라 天氣가 下降하여 神의 靈이 사람에게 接하면 사람의 聰明이 열려서 聖人도 되고 賢人도 된다 함이다.

易理에는 坎水에 血象이 있는데 水中에 火氣를 含한 것이 곧 血이며 革鼎의 本卦인 萃升의 禴은 母體를 犧牲하여 그 血을 神에게 올리는 祭이라 水火의 氣로된 母體의 血로써 上帝를 享하면 上帝는 水火를 大烹하여 地上의 사람에게 神의 靈을 내려서 사람들의 心性을 聰明케 하는 것이니 이가 곧 鼎의 烹享原理이오 이는 또한 母體의 犧牲한 血이 그 子를 聖賢케 하는理

이다.

巽而耳目聰明을 胎宮의 理로써 보면 胎兒가 胎中에 있을 때에는 耳目이 開치 아니하여 聰明이 閉하는 것이오 母腹을 出하면 耳目이 開하여 이제까지 相見치 못하던 父母의 얼굴을 對面하게 되는 것이니 이가 耳目聰明의 象이다. 長의 時運의 사람은 胎兒의 象이오 革鼎에서 胎兒가 出生하면 后天時運의 사람이 되어 聰明이 열리는 것이오 聰明이 열리면 이제까지 相見치 못하던 始祖神을 靈的으로 對面하게 되는 것이니 이가 胎兒가 母腹을 나와서 父母의 얼굴을 上面하는 理이다.

六五는 烹飪의 中心이니 黃은 鼎卦의 母體인 升卦의 坤土象이오 耳는 坎水의 象이오 金은 內部에 胎育되는 乾陽의 象이오 實은 烹飪하는 草木의 果實이니 黃의 土와 耳의 水와 金鉉의 金과 果實의 木과 烹飪의 火는 五行의 象이오 五行은 無形에서 有形의 生하는 理를 말한 것이라 鼎六五는 胎兒의 出生하는 位이오 胎兒의 出生은 無形에서 有形의 生하는 象이므로 六五에 五行을 말하여 無形에서 有形한 新生命의 出生함을 表한 것이다. 鼎에는 四德의 象이 없으나 后天月의 出生하는 卦로서 四德의 理가 있으므로 彖辭에는 六五爻의 位에 卦辭의 元吉亨의 吉字를 除하여 元亨이라 하고 또 六五爻에 利貞을 말하여 合하여 元亨利貞의 四德이 된 것이다.

六五에 金鉉이 있고 上九에 玉鉉이 있으니 鉉은 金과 玄으로되고 金은 乾陽의 象이므로 鉉은 天玄한 大空의 뜻이다. 金과 玉이 모두 乾陽의 象인데 金은 自體가 光彩를 發하므로 太陽光明의 象이 되고 玉은 石質로서 光明을 받아서 光彩를 發하므로 달의 象이 되니 金鉉玉鉉은 大空中을 運行하는 日月光明의 뜻이며 鼎上九에서 后天의 달이 太陽의 光明을 받아서 生하고 先天의 乾坤이 節하여 限度한다 함이다. 金과 玉은 또한 革卦의 虎豹와 相照하고 聖과 賢은 革卦의 大人君子와 相照하여 金과 虎는 大人과 聖의 象이 되고 玉과 豹는 君子와 賢의 象이 되는 것이다.

九四는 鼎의 中心의 位에 있는데 下로 巽股를 應하여 陽이 陷한 까닭에 烹

飪한 飮食을 顚覆한 象이 되는 것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德이 薄하면서 位가 尊하고 知가 小하면서 謀가 大하고 力이 少하면서 任이 重하면 鮮하여 及치 못하는 것이니 그 任을 勝치 못함을 말함이라 하니 鮮이라 함은 德知力의 적다는 뜻이오 鮮不及矣라 함은 德知力이 적어서 位謀任에 勝及치 못한다 함이다. 不及은 곧 悔吝의 吝이다.

序卦

胎宮의 事功이 革鼎에서 終하고 胎兒의 生成을 象하는 地道七宮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大象

鼎은 胎宮에서 사람의 出生하는 卦이므로 사람이 世上에 出하여 三才의 位를 正하고 天命을 受하여 凝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趾는 震子의 行止한다는 뜻이오 顚은 大過의 顚과 같이 陽이 陰體에 入하는 것이오 悖는 雷風不相悖의 悖로서 雷風相薄의 뜻이다. 顚趾라 함은 震子가 巽股에 入하여 生하는 象이오 未悖라 함은 震子와 巽股가 相悖치 아니하고 陰이 陽에 順한다 함이다.

否는 天地否이오 以從貴는 蹇上六의 以從貴의 뜻이니 利出否는 陰精이 天地否閉의 속에서 出하여 乾陽의 씨를 從하여 受胎함이다. 得妾以其子라 함은 震子가 兌澤中에 入하여 次世代의 子로 된다 함이다.

九二의 有實은 六五의 以爲實과 相照하니 六五가 九二의 陽을 應하여 鼎中의 實을 삼는 까닭에 九二에 實이 있는 것이며 胎宮卦는 木象을 取하므로

乾陽의 씨에 實의 象을 取한 것이다.

仇는 初六의 象이니 配를 仇라 한다. 胎宮卦의 巽股에는 陽이 陰에 陷하는 象이 있으므로 井九二에는 甕敝漏의 象이 있고 鼎九二에는 我仇有疾의 象이 있는데 井九二는 上에 應함이 없으므로 無與라하고 鼎九二는 上에 得中한 應이 있으므로 終無尤라 한 것이다.

九三은 鼎腹烹飪의 位에 있으므로 水火가 沸湯하여 革한다 한 것이며 耳는 坎象이니 鼎中의 水火相息이 곧 鼎耳革이다. 火는 鼎下에서 炎하고 水가 鼎中에서 沸함으로 그 陰陽의 義를 失한다고 한 것이다. 雉는 離火의 象이오 膏는 屯九五의 膏로서 坎水의 象이니 雉膏는 水火烹飪의 象을 말함이다.

震 重雷

震艮은 損益의 天施地生에 依하여 胎育되는 것이므로 震에도 震兌의 象이 있고 艮에도 艮兌의 象이있다. 地生은 坤元 兌의 象이다.

震은 三劃卦로는 다만 震子의 象이 되고 있으나 上震下震의 上下卦로 되는 때는 震子의 動行하는 象이 되어 乾陽으로부터 달에 下施하는 震子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震字에는 雷動과 娠娠의 두 가지 뜻이 있어 天地間의 雷動作用은 또한 萬物의 陰體에 震子를 施하는 交精運動이며 震艮은 文王八卦圖에 動萬物者莫疾乎雷의 震에 當하는 것도 또한 震雷의 動行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震來虩虩笑言啞啞(액액)은 同人九五의 先號咷而後笑로서 歸妹의 象이 되어 씨의 生하는 象이오 彖과 初九爻에 特히 後字를 쓴 것은 後笑의 뜻을 表한 것이다. 震來虩虩은 震의 象이오 笑言啞啞은 兌의 象이니

이는 震子와 兌澤의 嘉會함을 말함이오 (號號虎象 笑言人象此言人씨自虎씨變來也) 震卦에 兌澤이 있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震은 艮과 同宮하여 艮果의 속에 震子가 生하고 震子가 成하여 反易하면 艮身이 되는 것이니 神也者章에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라 한바 이는 乾坤의 神이 六子를 用하여 萬物을 生成하는 象인데 文王八卦圖에는 帝出乎震하여 萬物이 生하고 說言乎兌하여 萬物이 實하고 成言乎艮하여 萬物이 成하니 妙萬物은 帝出乎震이오 爲言은 說言乎兌와 成言乎艮이다. 震艮은 萬物을 生하고 成하고 하는 始終인데 震의 生에서 艮의 成으로 圜行함에는 반드시 震子가 東으로부터 西로 돌아가서 兌澤과 合하여 形質을 生하여 說言하고 兌澤中의 震子가 反易하여 艮果로 되어 形質을 成하여 成言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震艮의 속에는 반드시 兌澤이 있는 것이다. 이 理를 文王八卦圖로써 보면 乾父의 陽器인 東北艮이 東의 震子를 含하고 東南의 巽股를 接하면 艮은 終하고 震子는 巽股를 由하여 南方의 離火宮에 入하여 兌澤을 決하며 震子가 兌澤을 決하면 坎象이 되어 水中에서 生育되고 震子가 反易하여 艮童의 身이 되니 艮童은 第一世의 艮을 繼承한 第二世의 始가되며 이것이 艮의 成終成始의 象이오 艮兌가 后天의 用으로 되는 所以이다.

震艮을 달로써 보면 震艮은 胎宮中에서 震子의 자라는 象이오 兌澤은 달의 陰精이니 震子가 달의 胎中에서 자라는 것이 곧 震子와 兌澤의 相合함이다. 號은 虎威이오 震子를 象함이니 이는 革九五의 虎變과 相照하여 말함이오 啞啞은 雌雄相和하는 笑聲이니 이는 兌口를 象함이며 (震來笑言의 象이 彖辭와 初九爻辭가 同一한 것은 初九가 震子의 象이 되는 까닭이다) 百里라 함은 地의 全面積을 象함이니 自然數는 十에 極하고 地廣의 縱과 橫을 모두 極數의 十으로하면 그 面積이 百이니 그러므로 全地面을 百里라 한 것이며 이는 震子가 本是 上下坤體에 震子가 來하는 象이 되고 있으므로 上下卦를 모두 極數인 十으로하여 平方한 것이다. 震은 太陽光明의 下向하여 震雷로 變한 것이라 太陽光明中의 震子가 地에 來施하면 地의 全面이 雷動作用을 受하여 妊娠하는 것이니 이가 震響百里의 象이다 不喪匕(시)鬯은 卦辭에만 있고 彖辭에는 없으니 이는 彖辭의 出可以守宗廟社稷

以爲祭主의 속에 不喪匕鬯의 뜻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驚은 敬以直內하는 馬이니 乾陽의 씨의 象이오 懼는 收斂함이다. 遠은 天의 象이오 邇는 地의 象이니 乾陽의 씨인 震子가 天에서 驚來하면 地가 承受하여 收斂한다 함이다)

匕는 匙이오 鬯은 香草이니 匕鬯이라 함은 匙로써 香草인 鬯과 秬를 合하여 香酒를 釀造하여 神에게 祭한다는 뜻이라 易理에 子孫을 生하는 일과 神을 祭하는 일은 生命의 줄을 連繼하는 同一한 일이므로 震子의 生하는 震卦에 祖上을 祭하는 象이 있는 것이며 또 震艮은 神也者妙萬物而爲言의 卦로서 震子의 出生과 兌澤의 說言과 艮童의 成言은 모두 乾坤의 神의 作用이므로 乾坤神의 象을 表하기 爲하여 匕鬯과 宗廟社稷의 象을 말한 것이다.

六二는 震子를 包하고 있는 달의 陰精의 位인데 陰이 陽을 乘한 象이 되어 스스로 昏暗하므로 달의 光明을 喪한 것이니 喪貝라 함은 貝의 珠胎는 與月盈虧 月虧則珠胎亦虧 喪貝者 珠胎之虧也 以乘剛昏暗 爲月虧之象也 七日은 달의 光明의 象이다. 달의 陰精인 兌澤은 生殖作用에 盈虛하는 時가 있으므로 지금에는 비록 달의 光明을 喪하고 있으나 時가 到來하면 스스로 得하게 되는 것이며 이가 勿逐七日得의 뜻이다.(貝는 兩殼의 偶形中에 陽이 生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六五의 無喪은 彖의 不喪匕鬯의 뜻이니 震子가 반드시 生하여 달의 光明을 得함을 말함이오 有事라 함은 變通함이 있다 함이니 生의 中心에서 喪하였으되 그것이 成의 中心에서 變通되어 七日을 得하는 時機가 있다 함을 말함이다.

序卦

胎宮은 后天의 여무는 달을 胎育하는 곳이오 后天의 달은 艮兌가 여물어서 組織되는 것인데 艮兌는 震子가 兌澤을 合하면서 反易하여 艮身이 되어 여무는 것이니 그러므로 震이 胎宮에 次하는 것이다.

震艮以後는 坤道七宮으로서 胎宮에서 第二世의 달의 長成하는 宮이 되는데 乾坤은 이미 終하여 神이 되고 文王八卦圖의 六子의 位를 順行하는 것이다. 胎宮以前의 地道五宮은 母體로서본 后天의 여무는 달의 孕胎의 象이오 地道七宮은 胎兒로서본 后天의 여무는 달의 孕胎의 象이다.

震艮　　= 動萬物者莫疾乎雷

漸歸妹　= 橈萬物者 莫疾乎風　　= 收斂卦

豊旅　　= 燥萬物者 莫熯乎火　　= 收斂卦

巽兌　　= 說萬物者 莫說乎澤

渙節　　= 潤萬物者 莫潤乎水　　= 收斂卦

中孚小過 =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 = 收斂卦

旣濟未濟 = 能變化 旣成萬物

易卦의 收斂卦中 三陰三陽의 陰陽調和된 收斂卦 八卦가 모두 地道七宮에서 巽兌를 中心으로하여 一處에 總集하니 이는 胎兒의 成하는 宮인 까닭이오 第二世의 달은 여기에서 成하는 것이다.

大象

震

震은 神의 威의 象이다. 恐과 懼는 受動하여 스스로 收斂함이오 修와 省은 警飭하여 스스로 察視함이니 사람은 神의 威嚴함을 알아야 한다 함이다.

躋는 足과 齊로 되어 足은 震象이오 齊는 齊乎巽의 巽象이니 文王八卦圖는 震이 東에서 西로 圜行하여 兌를 遇하는 것이므로 震子가 圜行하여 東南의 巽에 行하는 것이 곧 躋이다.

蘇는 死하여 다시 生함이오 蘇蘇는 雷의 生滅함을 象한 것이다. 六三이 上下卦의 洊雷의 界에 있으므로 蘇蘇라 한 것이다. 二震字는, 上의 震蘇蘇는 雷의 震이오 下의 震行은 姙娠의 震이니 이는 卦辭의 上文의 震來는 雷이오 下文의 震驚은 姙娠임과 같은 것이다.

泥는 水가 土를 和함이니 震遂泥는 震子가 坤의 水土와 合하여 있으되 光明이 없다 함이다.

索은 雷의 往來相交함이니 六子의 一索 再索 三索의 索이오 索索은 陰陽絪縕의 象이다. 矍은 鳥가 脫走하고자 하여 左右를 驚顧함이니 矍矍은 震子가 內에서 脫出하려는 象이다. 震索索의 上震은 雷의 震이오 震不于其躬의 下震은 姙娠의 震이다. 其躬은 上六의 位이오 其鄰은 陰陽의 鄰이니 곧 兌이다. 震之虩虩과 兌之啞啞은 上六에서 行하는 것이 아니라 震이 兌에 圜行하여 行하는 것이니 이가 곧 不于其躬于其鄰이다. 婚姻有言은 震兌가 上六에서 相婚하면 陽氣의 發宣함이 있다 함이다.

艮 重山

艮은 震子가 胎宮에서 發育하면서 反易하여 胎兒로 되는 象이니 胎兒는 또한 草木의 果의 象이다. 艮은 地上의 一陽이 山頂으로 되어 天을 接하고 二陰이 下體로 되어 兩麓을 列하고 있으니 이것은 山의 象인데 山은 上峰으로부터 行하여 또 峰을 이루고 그峰이 또 行하여 다시 峰을 이루고하는

것은 山의 行하는 象이니 이는 山이 止하면서 또한 行함이라 그러므로 艮에는 時止則止하고 時行則行하는 象이 있는 것이오 果가 生할 때에 生하고 여물 때에 여물고 하는 것도 또한 時止時行의 象이다. 艮에 成終成始의 象이 있는 것은 果를 因함이니 木의 幹枝는 生滅이있어 生한 者가 死하고 長한 者가 消하고 하되 오직 果는 世傳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의 存在하는 果는 天地開闢初부터 傳來하는 者이니 이는 天의 運行은 恒久不已하고 艮도 上劃의 一陽이 天을 接한 象이 되는 까닭에 艮果는 成終成始하면서 永遠히 世傳하는 것이다.

艮字는 果의 半字이니 長의 時運에 艮兌二少는 아직 未成하므로 艮兌咸夬가 모두 半字를 쓴 것이며 艮이 成熟하면 萬物을 終하고 萬物을 始하고 하는 果가 되는 것이다.

艮山은 萬物의 體로서 그 性이 止하여 背의 作用을 行하고 있다. 사람 一身의 上下前後의 頭脚腹背中에서 頭脚腹은 홀로 運動하되 오직 背는 止하여 홀로 運動치 못하니 易象의 三顯一藏의 理로써 보면 頭脚腹은 三顯의 位이오 背는 一藏의 位이다. 人身內部의 主要器官은 모두 背에 附着하여 一身의 生理를 主管하여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하는 것이니 艮은 背의 作用을 行하므로 時止時行하여 萬物의 成終成始하는 作用을 行하고 있는 것이며 其道光明이라 함은 艮은 달의 體가되고 上의 一陽이 天을 接하여 天으로 더불어 一陰一陽하여 光明을 發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上下敵應不相與라 함은 上下에 陰과 陰 陽과 陽이 서로 對敵하면서 相與치 아니한다 함이다. 八原卦는 모두 陰陽의 相與가 없는데 오직 艮에만 敵應不與의 象을 말한 것은 乾坤은 陽物과 陰物을 表示함이니 本是 純陽純陰으로 되어 있는 것이오 雷風水火澤은 모두 動하고 있어 서로 應與하는 機가 있는 것이로되 홀로 艮山은 止하여 動치 아니하므로 敵應하여 相與치 아니한다 함이다. 그러나 이 敵應不相與가 바로 胎宮의 不獲其身不見其人의 生理가 되는 것이다.

胎宮의 胎兒는 兌澤中에 止하여 獨自한 行動이 없고 서로 對敵하되 그 身을 私有치 못하니 이가 그 身을 獲치 못함이다. 庭은 宮中地로서 兌澤의 象이니 胎兒가 兌澤中에서 發育하고 있는 것이 곧 行其庭의 象이오 其人이라 함은 艮身과 함께 사람의 形質을 이루고 있는 兌澤을 象함이라 胎兒가 兌澤中에 行하고 있으되 그것이 사람의 形質임을 見치 못하니 이가 그 庭을 行하되 그 人을 見치 못함이다. 胎兒인 艮身은 自身도 私有치 못하고 兌澤의 人임도 見치 못하면서 艮兌가 서로 合體하여 長成하고 있으니 이는 人力의 所加가 아니라 神이 震에서 妙萬物하고 艮兌에서 爲言하고 하는 作用에 依하여 生成하고 있는 것이다.

六五는 成의 中心으로서 神의 妙萬物而爲言의 位이므로 言有序의 象이 있는 것이니 言有序라 함은 兌의 說言과 艮의 成言의 序로서 곧 艮兌의 體의 生成하는 序이다.

長의 時運에는 艮兌가 幼少하여 言語를 用치 못하였는데 地道七宮은 長의 時運의 成의 時期에 當하여 震子가 胎宮에서 形質을 成하니 形質은 곧 山澤이며 乾坤父母의 神은 萬物을 妙하게 하여 그 形質을 成하고 艮兌二少를 여물게 하여 言語의 說言과 文字의 成言을 發하게 하니 이가 言有序의 뜻이다.

九三은 艮의 中心一陽의 位로서 上下敵應의 限界에 있으므로 艮其限이라 한 것이다. 列은 陰陽의 位序이오 夤은 夕과 寅으로 되어 夕은 西方 日終의 뜻으로서 兌를 象함이오 寅은 東方陽氣의 上出하는 뜻으로서 震을 象함이니 列其夤이라 함은 九三의 限을 中心으로하여 震과 兌가 列하고 있다 함이다. 薰은 炎炎히 灼함이오 心은 陰體中을 出入하는 陽氣이니 九三은 震兌相列하는 地의 重陰中에서 接天하는 陽이 있어 地의 中心의 薰灼하는 象이 되고 地의 中心에 薰灼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그 氣가 宣出하여 山이 되는 것이며 艮은 달의 體이므로 달의 中心에도 또한 地中과 같이 薰灼하는 作用이 있어 陽氣를 宣出하는 것이다.

序卦

震은 胎宮에 入胎되는 震子의 象이오 艮은 震子가 反易하여 人身이 되는 象이니 그러므로 艮이 震에 次하는 것인데 震艮은 原卦이므로 달에서 震艮이 第二世를 生한 것이 아니라 震子와 艮身이 第二世로 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大象

兼山이라 함은 山의 重疊함이니 山은 各各 그 자리에 止하여 分하지도 아니하고 合하지도 아니하므로 兼의 象이 된 것이다. 山은 各各 그 자리에 止하여 物의 生生의 功을 이루고 있음과 같이 사람도 各各 그 자리가 있어 父子의 자리에서는 父子의 道를 行하고 夫婦의 자리에서는 夫婦의 道를 行하고 官民의 자리에서는 官民의 道를 行하고 人類의 자리에서는 人類의 道를 行하여 各各그 本職을 守하는 것이니 이가 思想이 그 位를 出치 아니함이다.

敦은 瓜가 蔓에 繫함이니 艮의 果蓏의 象이다. 繫辭에 安土敦乎仁이라 艮果가 結하여 子仁이 生한 것이 곧 敦艮의 象이오 이가 成始하여 成의 時運의 主가 되는 것이다.

艮의 諸爻는 震子의 形化組織을 人身으로써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人身의 組織은 咸卦와 같이 初拇 二腓 三股 四心 五脢 上輔로 되어 있는데 艮卦의 組織은 初趾 二腓 三心 四身 五輔 上敦으로 되어(六四의 躬은 自己自身이다) 咸보다 股의 位가 없고 敦의 位가 더 있으니 股는 一定한 時에 達한 然後에 用하는 것이므로 震子의 構造에 股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敦

은 臨上의 敦臨 復五의 敦復과 같이 씨를 庇護하는 果實이므로 震子의 組織에는 그것을 厚終하는 敦이 있는 것이다.

漸 風山

漸은 歸妹와 同宮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陰陽相交하는 收斂卦로서 艮陽과 巽陰이 相交하여 艮陽의 主爻九三과 巽陰의 主爻六四가 三四의 人位에서 相接하므로 男女婚姻의 象이 되는 것이오 文王八卦圖의 「撓萬物者 莫撓乎風」의 巽에 當하니 撓라 함은 大過卦의 棟橈와 같이 震子가 顚倒하여 巽股의 陰精中에 入하는 象이므로 漸卦에는 震子가 巽股中에 入하여 孕胎되는 象이 있어 爻辭에 孕育의 辭가 있는 것이다.

天地의 相交함에는 陽精水가 下施되는 것이므로 卦象에 水의 象이 없으되 또한 水의 字로써 表示하는 것이니 天地交의 泰가 大水로 되고 天施地生의 益이 溢水로 되고 女歸의 漸이 浸漸의 水로 되고 한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天地에는 尊卑의 秩序가 있으므로 天地否卦의 속에는 互卦風山漸이 있어 天風山地의 等位로 되니 이가 곧 天地의 秩序이며 風山漸은 天地의 中間인 人居하는 位의 秩序로 되니 그러므로 水의 浸漸하는 뜻과 秩序의 漸進하는 뜻을 取하여 卦名을 漸이라 한 것이다.

天風山地의 上下秩序는 萃聚 感應 恒久 正大의 四情의 順序로 되는데 天地間의 風과 山은 感應과 恒久의 情이 되니 感應은 咸卦의 夫婦의 道이오 恒久는 恒卦의 夫婦恒久의 道이라 그러므로 漸卦에 夫婦의 道와 漸進하는 夫婦恒久의 道가 있는 것이다.

漸之進이라 함은 之는 草가 地上에 出하여 枝莖이 益大하여 上行한다는 뜻이므로 之進은 草木의 漸長함을 말함이니 漸卦가 山上에 木이있어 草木의 漸長하는 象이 되므로 之進이라 한 것이다. (中四爻가 모두 陽이 陽位에 있고 陰이 陰位에 있어 進以正의 象이 되므로 正邦이라 한 것이다)

六爻에는 모두 鴻의 象을 取하니 鴻은 水鳥로서 時候의 寒暑를 隨하여 移動하고 水邊으로부터 高陵에 이르기까지 居치 아니하는 데가 없고 또 鴻은 夫婦의 義를 尊重하여 夫婦和合의 象이 되고 그 飛行함이 極히 整列하여 秩序가 있으니 漸卦는 水가 浸漸하고 男女의 婚姻에 時期가 있고 夫婦가 秩序를 尊重하고 하는 象이 있으므로 鴻의 象을 取한 것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理가 있으니 漸은 后天胎兒의 孕胎되는 象이라 易理에 先天時運의 蠱의 幼虫이 長成하면 后天時運에는 蠭生하여 飛鳥의 象이 되는 것인데 漸에는 后天蠭生하는 飛鳥를 孕胎하는 象이 있으므로 隨候往來하는 水鳥인 鴻을 取하여 雌雄相交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鴻의 漸進하는 地는 干磐陸木陵陸의 順으로 되니 이는 人居하는 風山의 境域을 말함이며 六三의 陸은 海陸이라는 陸이오 上九의 陸(규)은 土塊가 聚聚하여 土性의 强梁한 高燥의 地라는 뜻이다.

九五는 陽爻이로되 女婦卦인 까닭에 婦의 象이 되고 陽配가 없는 까닭에 孕胎치 못하는 象이나 文王八卦圖에 風山이 地를 夾하고 있으므로 動不窮의 象이 되어 마침내 震子가 자라는 것이며 莫之勝이라 함은 之는 草木의 長大한다는 뜻이라 六五는 后天月의 入胎되는 中心이므로 草木의 長大함을 勝할 이가 없어서 마침내 震子를 孕胎한다 함이다.

六四는 象의 進得位往有功이니 巽陰이 艮陽을 承受하는 位이오 上卦巽의 六四는 天空中에서 달의 行하는 位이며 順以巽은 觀卦의 神道의 뜻이니 男女가 婚姻하여 子息을 孕胎하는 것은 神道이므로 女歸卦의 巽陰에 神道를 말한 것이오 또한 달에 鬼神이 依附한다는 理에 依한 것이다.

九三은 艮陽이 六四의 巽股를 接하므로 陽陷의 象이 되어 夫征不復이라 한 것이오 陽이 陷하여 一陰一陽하는 道를 失한 까닭에 婦孕不育이라 한 것이다 復은 震子의 來反이오 群은 陰의 象이오 離는 兩者가 麗함이오 醜는 男女의 相交함이다.

序卦

震艮은 胎兒의 象이오 漸은 男女가 婚嫁하여 第二世를 孕胎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漸이 艮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居는 木이 山에 根着하는 象이다. 賢과 善이 모두 仁의 象인데 賢이라 함은 仁으로써 自體를 修함을 말함이오 善이라 함은 仁으로써 世에 施用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德에는 賢을 말하고 俗에는 善을 말한 것이다.

賢德은 山을 象하고 善俗은 木의 長함을 象한 것인데 漸의 收斂卦에 木長의 象이 있는 것은 이것을 蠱와 漸으로써 比較하여 보건대 蠱는 生長卦로서 巽木上에 艮果가 있으니 이는 木이 生長하여 次世代의 果를 結하는 象이오 漸은 收斂卦로서 艮果上에 巽木이 있으니 이는 果가 收斂하고 거기에서 次世代의 木이 生하는 象이다. 漸은 木長卦이므로 果實의 子仁을 말하지 아니하고 仁의 作用인 賢과 善을 말한 것이다.

干은 水涯이니 天地秩序인 天風山地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水가 있는 것이므로 山下에는 水가 있어 初六에 干을 말한 것이다. 小子는 陰中에 있는 震子이니 漸의 艮巽이 震을 夾하므로 初六에 震子를 말한 것이오 이는 蠱初六의 子와 同一한 理이다. 震子는 陰中에 있으되 之進의 卦이므로 陽氣

가 內로부터 外에 發宣하여 有言의 象이 된 것이다.

磐은 넓게 펴진 大石이다.

陸은 高平한 地이다. 九三은 艮男이 巽股에 陷한 것인데 坤初六에 其所由來者漸이라 함은 漸九三의 夫征不復의 象을 말함이다.

爻辭에는 利禦寇라하고 小象에는 利用禦寇順相保也라 함은 蒙上六爻辭에 利禦寇라하고 小象에 利用禦寇上下順也라 함과 그 辭가 相似하니 禦寇라 함은 陰의 陷陽함을 防함인데 利用禦寇라 함은 神道를 用하여 寇를 禦함을 말함이니 蒙六五의 順以巽과 漸六四의 順以巽이 모두 神道이므로 漸九三의 順相保와 蒙上九의 上下順의 順이 또한 모두 神道이다.

六四는 山上木의 位이므로 漸于木이라 한 것이다. 桷은 木과 角으로되고 角은 頭上에서 陰이 盛하여 陽의 硬化한 者이니 九三의 艮首의 陽이 陰中에 硬化한 것이 곧 角이니 得桷은 六四의 木이 艮陽을 得함을 말함이다.

羽는 鴻의 飛함이 秩序가 있음을 象함이오 儀는 兩儀의 儀로서 陰陽의 義를 象함이니 漸은 風山의 自然秩序卦이므로 그 飛함이 秩序가 있어 陰陽이 和合한다 하여 其羽可用爲儀라 한 것이다.

歸妹　　雷澤

歸妹者 震兌之收斂 乃씨之組織也 隨爲씨之發育也

歸妹는 漸과 同居하여 天地日月의 變形한 雷風山澤의 陰陽相交하는 收斂卦

로서 震陽과 兌陰이 相交하여 震陽의 主爻 九四와 兌陰의 主爻 六三이 人位에서 相接하므로 男女婚姻의 象이 되는 것이다. 歸妹는 兌少女가 震長男에게 歸하여 泰六五의 帝乙歸妹와 같이 달이 陽光을 受하는 象이 되므로 卦名을 歸妹라 한 것이오 兌女를 震男에서 歸妹시킨 것은 女의 得主의 象이 되어 달이 太陽에게로 歸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歸妹에 月幾望의 象이 있는 것이다.

天地之大義는 家人과 歸妹에 있는데 陽이 陰中에 入하여 收斂하여 義가 和하고 하는 때에 天地의 大義가 되는 것이니 歸妹는 收斂卦로서 兌女를 震男에게 歸嫁시켜 씨의 組織의 象이 되므로(六五爻) 天地의 大義라 한 것이다.

男女相交의 象이 없으므로 四爻는 天地不交가되고 萬物은 光明하면 興하고 昏暗하면 興치 못하는 것인데 歸妹는 上下卦의 爻가 모두 陰이 陽을 乘하여 昏暗하므로 萬物이 興치 못하는 것이다. 萬物의 씨는 모두 震子와 兌澤으로써 構成되어 收斂한 것인데 歸妹는 震兌의 收斂卦이므로 씨의 象이 되니 同人卦의 先號咷而後笑는 사람의 씨인 歸妹卦를 말함이다. 文王八卦圖의 四維卦는 泰 蠱 大畜및 升인데 모두 歸妹를 互하니 歸妹는 天地의 속에 日月의 作用이 行하여 달의 씨가 生하는 象이오 이 四維卦가 모두 歸妹를 互한 것은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을 象한 것인데 長의 時運의 天地의 속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后天의 달의 씨가 生한다 함을 象한 것이다.

興이라 함은 物이 光明을 受하여 興起한다는 뜻이니 萬物은 一日中에는 朝에 興하고 一年中에는 春에 興하는 것이라 歸妹의 兌는 日入方이오 震은 日出方이므로 夕으로부터 朝하여 그 中間에 夜가 있고 秋로부터 春하여 그 中間에 冬이 있으니 夜와 冬은 萬物의 興起치 아니하는 時이므로 不興이라 한 것이다. 夜는 日의 終함이오 冬은 歲의 終함이니 그러므로 下卦 兌는 終의 象이 되는 것이며 朝는 日의 始이오 春은 歲의 始이므로 上卦震은 始의 象이 되는 것인데 歸妹는 婚嫁의 卦로서 사람의 象이 되고 또 兌의 主爻六三과 震의 主爻九四가 모두 사람의 位로서 거기에 兌終震始의 象이 있

으므로 歸妹를 사람의 終始라 한 것이다. 이 終始의 理를 六子의 象으로써 보면 六子의 生함은 震에서 始하고 兌에서 終하는데 歸妹는 下卦兌의 人位에서 終하고 上卦震의 人位에서 始하므로 또한 人의 終始의 象이 되는 것이다. (人之終始는 九二爻이니 故有幽人之辭也)

終始의 象을 序卦로써 보면 乾으로부터 歸妹까지는 五十數이오 五十은 大衍數로서 陽의 推衍의 極數이라 乾에서 大明이 終始하여 日月의 終始하는 象이 있고 歸妹가 또한 乾元坤元이 收斂相合하여 달이 陽光을 받는 象으로서 兌로부터 震하여 終始하는 象이 있으니 이는 곧 달의 終始하는 象으로서 先天의 生長하는 달이 終하고 后天의 成하는 달이 始하는 것이며 六十四卦中에는 歸妹卦에 先後天의 달의 終始하는 象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六五爻에 先天月과 后天月을 말한 것이다.

사람은 달에서 生하여 사람과 달의 生理가 相似하므로 달의 終始는 또한 사람의 終始가 되는 것이며 女體가 大體로 五十歲에 月經의 行함이 終하는 것도 또한 大衍數의 五十에서 사람이 終始하는 理에 依한 것이니 그러므로 雜卦에는 歸妹는 女의 終함이라 한 것이다.

六五에 帝乙歸妹의 象이 있고 初九와 九二에는 履卦의 跛能履眇能視의 象이 있다. 帝乙歸妹는 泰卦의 乾陽이 先하고 坤陰이 後하여 달의 後得主하는 象이니 이는 歸妹의 六五와 九二의 象으로서 九二의 陽이 先하고 六五의 陰이 後하므로 달의 後得主의 象이 되어 月幾望의 象이 있는 것이오 跛能履眇能視는 履卦의 六三의 陰精이 先하고 乾陽이 後하여 달의 先迷의 象이니 (娣=동서제) 이는 歸妹의 下卦兌陰의 象으로서 兌陰이 先하고 震陽이 後하므로 달의 先迷의 象이 되어 跛와 眇의 象이 있는 것이다. 歸妹는 六五와 九二爻로써 보면 後得主의 象이 되고 上下卦로써 보면 先迷의 象이 되니 이는 歸妹가 달의 先后天變化하는 過程에 있으므로 先迷와 後得主의 兩象이 있는 것이다.

袂는 乾衣의 決한 것으로서 乾의 上劃이 缺한 兌의 象이니 달의 陰精을 象

함이오 其君의 袂는 乾君과 兌袂를 合한 天澤履의 달이오 其娣의 袂는 兌妹巽娣의 理에 依하여 巽娣와 兌妹를 合한 風澤中孚의 달이니 履의 달은 生의 時運에 生한 달이오 中孚의 달은 后天의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기 爲하여 中宮에서 合朔하는 달이오 艮은 乾陽의 具全한 象이니 이는 生의 時運의 履의 달은 成의 時運의 中孚의 달의 圓全한 것만 같지 못하다 함이오 歸妹는 胎宮에서 第二世의 달의 入胎되는 卦이므로 歸妹에 先天后天의 달을 比較하여 말한 것이다. 娣를 巽이라 하는 것은 初九에 歸妹以娣以恒也라하니 恒은 雷風의 合이라 娣를 震에 歸嫁시켜서 雷風恒이 되는 것이므로 娣는 巽의 象이 되는 것이다.

歸妹는 文王八卦圖의 巽에 當하므로 上卦震이 兌妹를 遇함에는 반드시 巽陰中에 入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初九에 歸妹하기를 巽娣로써 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跛能履眇能視는 履卦 六三의 象인데 履와 歸妹를 比較하건대 履는 兌澤이 乾陽을 應하고 光明을 受하는 것이므로 天空中을 行하는 달이 된 것이오 歸妹는 兌澤이 乾陽中의 震子에 歸하는데 地道七宮에는 乾이 終하고 震이 始하는 것이므로 이는 先天月이 終하고 后天月이 始하는 象이며 履는 달의 始生하는 象이므로 六三의 陰精에 眇能視跛能履의 象이 있고 歸妹는 已生한 달에서 第二世의 달이 生하는 것이므로 陽爻에 光明의 象이 있어 初九의 陽에 運行이 있어 跛能履가되고 九二의 陽에 光明이 있어 眇能視가 된 것이다.

序卦

漸은 夫婦가 婚嫁하여 第二世의 孕胎되는 象이오 歸妹는 孕胎되는 씨의 象이니 그러므로 歸妹가 漸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永終은 그 終을 永久히 하여 窮치 아니함이오 知敝는 物이 舊하면 敝한다 함을 知함이니 이는 歸妹에 先天달의 蔽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愆期는 時期를 過한다 함이다. 九四는 震의 始生하는 位이니 一日로는 夕에서 朝하는 사이이오 一年으로는 秋에서 春하는 사이이므로 아직 光明이 生치 아니하여 婚姻의 象이 없는 것이다. 遲歸有時라 함은 歸하는 時期가 遲하되 또한 그 時가 있다 함이니 이는 時를 待하여 行함을 말함이다.

上六은 歸妹의 終爻이므로 女之終이 되는 것이다. 女는 震子에 歸하는 兌妹이오 士는 成人한 震子이며 筐은 竹器로서 震의 蒼筤竹의 象이오 羊은 兌妹의 象이다. 女承筐無實이라 함은 兌妹가 震士를 承하되 震에 果實이 없다 함이니 이는 震의 生殖이 終함이오 士刲羊無血이라 함은 震이 兌를 決하되 兌에 經血이 없다 함이니 이는 兌의 生殖이 終함이다.

小象에 女承筐의 象만을 말하여 承虛筐이라 한 것은 歸妹는 女歸卦이오 上六이 陰位陰爻이므로 女의 承陽하는 象만을 取하여 震에 實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歸妹者 文王八卦圖之四維卦之互也 歸妹等四正卦之互 乃水火旣濟也 四維地天之中有四正 火水此地天之間日月運行也 四維地天之互爲雷澤(乾元坤元)之歸妹 四正火水之互 爲水火(水火相息之革)之旣濟 此乃文王八卦圖者 乾元坤元相交 爲以而因胎宮水火革之作用 日月變化爲后天之象也

歸妹는 文王圖互旣濟이니 上爻陰下爻陽 故陰陽相交而成胎兒之形之象也 歸妹未濟二卦以胎兒言也

豊 雷火

豊은 雷火의 收斂卦이니 雷에는 炎上하는 火가 上劃이 陰으로變하면서 下向하여 雷로 되는 象이 있는데 豊卦는 重離卦의 上劃이 陰으로 變하여 上卦의 火가 下向하면서 雷火로 된 象이니 이는 下向하는 火의 震子가 離火宮에 入하는 象이다. 火가 下向하여 離火宮에 入하는 것은 太陽의 光明속의 震子가 달의 陰精에 入하는 것이오 震子가 離火宮에 入함에는 반드시 雷電雨下의 作用이 起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豊에 雷電雨下의 作用이 있으며 雷電雨下의 作用을 人事로써 보면 男體의 陽精水가 陰體의 陰宮에 入하는 象이다.

豊旅는 文王八卦圖의 燥萬物者莫熯乎火의 離에 當하므로 日光의 下向하는 豊에는 日中의 象이 있고 燥와 熯은 日光이 天下를 照하는 象이 되며 王假之는 乾陽이 달의 陰精에 來하여 假居하는 象이다.

豊에는 日光이 下向하여 日中하는 象이 있는데 그 日光이 달의 陰精의 속에 入하므로 昏暗의 象이 되니 이는 日이 中하여 昃하고 달이 盈하여 食하는 象이다. 天地의 盈虛도 時로 더불어 消하고 息하고 하므로 乾陽이 달에 假來하여 달이 變할 때에는 달은 사람의 씨의 發源地인 까닭에 사람도 終하고 始하고 하는 變化가 있는 것이니 이가 況於人乎의 뜻이오 사람이 終하고 始하고 할 때에는 사람이 死하여 鬼神이 되기도 하고 鬼神이 사람으로 生하기도하여 달에서 鬼神의 變化作用이 行하는 것이니 이가 況於鬼神乎의 뜻이다.

豊에 上卦離의 上爻陽이 陰으로 變하는 象을 取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

면 火가 變하는 때에는 炎上하는 火가 下向하여 雷로 되는 것이오 水가 變하는 때에는 流下하는 水가 上行하여 澤으로 되는 것이라 六劃卦에서 炎上하는 重離火가 下向하는 象은 오직 豐卦이오 流下하는 重坎水가 上行하는 것은 오직 節卦이니 그러므로 豊과 節에 水火의 變化하는 象이있고 이 水火의 變化作用으로써 胎兒를 生育하는 것이니 이 胎兒는 곧 后天의 달이다.

豊字는 豆器이니 飮食器의 豊滿하다는 뜻이다. 離火宮이 雷電雨下하는 陽精水를 承受하는 것은 豆器에 豊滿한 飮食을 盛함과 같으므로 豊字를 쓴 것이오 乾陽이 假來한 것이므로 乾의 大를 象하여 豊은 大하다고 한 것이다.

繫辭에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 知鬼神之情狀이라 하니 日月이 運行하여 晝夜를 生하는 幽明의 故는 豐卦의 天地의 消息함이오 始하고 終하고 하는 死生의 說은 豐卦의 사람의 消息함이오 物과 魂의 變化하는 鬼神의 情狀은 豐卦의 鬼神의 消息함이니 이는 사람과 鬼神의 消息함이 모두 日月의 幽明을 因하여 行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生의 時運이 長의 時運으로 變할 때에 謙卦에 天道下濟地道上行하여 天道地道 鬼神 人道의 謙盈의 象이 있고 長의 時運이 成의 時運으로 變할 때에 豐卦에 日中則昃 月盈則食하여 天地人鬼神의 盈虛의 象이 있으니 이는 時運의 變하는 때에는 반드시 天地의 變化가 있고 天地의 變化를 因하여 사람과 鬼神에도 變化가 生하는 까닭이다.

六五는 天의 日中의 位이오 王假하는 位이며 章은 雷電의 合而章함이니 來章이라 함은 王이 假居하고 雷電作用에 依하여 陰精이 陽精水를 受한다 함이다.

豊의 日昃月食은 上六의 陽이 陰으로 變한 象으로서 上六에 明夷의 明傷의

象이 있으니 그러므로 豊上六의 天際翔은 明夷上六의 初登于天의 뜻이오 豊上六의 自藏은 明夷上六의 後入于地의 뜻이다. 豊九四에는 遇其夷主의 象이 있으니 明夷六四의 陰이 陽을 得하여 豊九四가 된 것이므로 여기에 또한 豊과 明夷와의 關聯性을 말한 것이다. 豊의 王假는 家人의 王假有家와 같이 乾陽의 生殖作用인데 上六이 昏暗하여 家人의 道에 合치 아니하므로 蔀其家 闃其無人이 된 것이다.

卦中諸爻의 豊其蔀 豊其沛 豊其屋은 上六의 陰이 陽光을 掩蔽함을 말함이오 日中見斗 日中見沫는 六五에 日中의 象이 있어 日中의 日光이 天下를 照하고 있으되 天下는 陽光이 掩蔽되어 昏暗하고 있음을 말함이니 이는 豊卦에 乾陽의 光明이 陰精中에 入하는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序卦

歸妹는 孕胎되는 씨의 象이오 豊은 씨의 元인 震子가 太陽에서 下向하여 달의 離火宮에 入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豊이 歸妹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雷威電明의 卦이므로 威明의 象을 取하여 折獄致刑하는 刑獄을 말한 것이다.

豊에는 陽이 陰中에 入하여 受胎되는 象이 있으므로 明入地中하는 明夷의 象과 相照하는 것이니 初九의 遇其配主는 九四의 遇其夷主와 相應하는데 九四는 明夷의 六四가 陽을 受하여 變한 것이므로 遇其夷主의 象이 된 것이다.

蔀는 草와 部로 되고 部는 星辰의 布列함이니 蔀라 함은 星光을 草蔽한 것으로서 天의 光明을 掩蔽한 象이며 諸爻中에 二四上에 蔀가 있는 것은 二四上이 모두 陰位로서 光明을 蔽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日中이라 함은 六五爻의 象이니 中爻의 二三四에 모두 日中의 象이 있는 것은 六五의 日中光明이 來照하는 것이오 이가 象에 말한 宜照天下이다 斗는 斗星이오 斗星은 陰中에 居하여 陽光을 發揚하는 것이니 豊은 天地盈虛의 象이 있는 天地日月卦이므로 諸爻에 또한 星辰 斗星等天體의 象을 말한 것이다.

沛는 雨의 下함이오 沫은 水의 噴함이다. 九三은 雷電皆至卦의 雷電相際處에 있어 雷雨의 來하는 象이므로 雨下와 水噴의 象이 되는 것이오 豊其沛日中見沫이라 함은 雷電이 下로 至하여 震子를 含有한 陽精水를 陰體에 施하는 象을 말함이다. 右肱은 明夷의 左股와 相對되는 것이니 左股가 女陰이므로 右肱은 男陽이다.

上六은 日昃月食의 位이다. 屋은 人居로서 室의 覆蓋이오 翔은 兩翼을 布함이니 上六은 陽이 變하여 陰으로 되어 上을 覆하므로 豊其屋의 象이 되며 豊에 사람의 消息의 象이 있으므로 上六에 屋家戶人等 人居의 象을 말하고 또 易理에 달에는 烏의 象을 取하는데 豊에는 月食의 象이 있으므로 烏의 天際翔의 象을 말하니 豊의 天際翔은 旅의 鳥焚其巢 小過의 飛鳥以와 같이 先天月의 消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闃은 門과 昊으로되고 昊은 鳥가 兩翼을 張하고 搖動하는 것이니 闃이라 함은 門內에서 鳥가 兩翼을 張하고 搖動하되 飛치 못한다 함이다. 闚其戶闃其無人이라 함은 室의 闔闢하는 口인 戶를 闚視한즉 門內에는 鳥가 兩翼을 張하고 搖動하되 飛치 못하고 사람은 없다 함이니 이는 上六에 天地盈虛의 象이 있어 先天달은 運行치 못하고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함이다.

生之時運之末 有水之審判 初出者着生 再三者濆 長之時運之末 有火之審判

實稔者成 不實者焚 豐卦爲先庚三日之卦而 天地盈虛與時消息 人有雷電之刑火焚之灾也

旅 火山

旅는 艮童이 離火宮에 止麗하니 이는 豊에서 震子가 離火宮으로 下向하고 旅에서 震子가 反易하여 少男의 艮童이 되어 離火宮에 止하는 것이며 離火宮에 止하는 艮童은 太陽의 陽精水가 달의 陰精에 下施되어 所生하는 后天月이다.

旅라 함은 旅人이 外宮에 假居하고 外宮에서 旅人을 受容하고 하는 것이 곧 旅이니 震子가 陽體로부터 外에 出하고 外의 陰宮이 成의 中心에서 震子를 受容하여 止麗하고 하는 것이 곧 旅의 뜻이다.

陰이 外에 得中한다 함은 震子가 陽體로부터 出外하므로 陰이 또한 外의 中心에서 陽을 承受함이오 陰이 陽에 順한다 함은 陰이 入胎되는 震子를 順承함이오 明에 麗한다 함은 山澤의 形質은 光明의 引力에 麗하여 運行되는 것인데 艮童이 離火宮에 止하고 있으므로 陰子가 離火宮에 麗하고 있는 股와함께 麗乎明이라고 한 것이다.

時義大矣哉 豫卦下

旅는 震子가 離火宮에 入하여 艮童이 되는 象이므로 時義가 大한 것이다.

六五의 射는 水火相射의 뜻이오 相逮가 또한 水火相逮의 뜻이다. 雉는 離火의 象인데 鼎九三에 雉象이 있는 것은 水火烹湯의 뜻을 取한 것이므로 旅六五의 射雉도 또한 離火宮에서, 豐卦에서 오는 陽精水를 承受하여 水火가 相逮하는 것을 象한 것이다. 一矢라 함은 陽의 動直의 象이오 一矢亡이라 함은 陽體가 陽精水를 施하고 自身이 喪亡한다는 뜻이며 旅卦에 親寡의 象이 있는데 親이 寡婦가 된 것은 父가 喪亡한 까닭이니 그러므로 一矢亡은 陽體의 喪亡한 象이다. 雉字는 矢와 隹로 되는데 矢가 亡하면 隹만 남으니 隹는 鳥이라 이는 父가 喪亡하고 震子만이 胎宮에 入胎된다 함이다. 旅火宮에 入胎되는 鳥는 곧 漸卦의 鴻의 씨이니 鴻은 水鳥이라 水鳥의 씨가 離火宮에 入하므로 水火相逮가 된 것이다.

上九는 施精卦의 離火炎上의 極에 있는 陽이므로 陽의 自焚하는 象이 되니 鳥焚其巢라 한 것이오 易理에 鳥는 달을 象한 것인데 旅는 豐卦月食의 反易으로서 先天달의 消하는 卦이므로 鳥焚其巢는 先天달이 그 居를 失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同人之先號咷后笑者 言人自虎變來也 旅上火焚 而滅無火光故人滅 而反變於動物也 此失所附之陰體 而失火光也 易者陰陽交媾之際也

旅人先笑後號咷는 同人卦의 先號咷而後笑를 뒤집은 것이다. 先號咷而後笑는 震卦의 震來虩虩後笑言啞啞으로서 震子의 姙娠되는 象인데 上九의 先笑後號咷는 姙娠의 理에 어그러져서 旅人이 容納될 곳이 없는 것이다.

旅는 水火相逮의 卦이므로 上經에 習坎水가 離火宮에 施精하는 象이 되고 旅上九는 離九四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旅上九에 鳥焚其巢가 있고 離九四에 焚如死如가 있으며 旅에 旅而無所容이 있고 離九四小象에 無所容이 있는 것이며 旅上九의 喪牛于易은 곧 離의 畜牝牛와 相照되는 것이다. (旅人先笑後號咷者 隨之씨也 旅人之씨喪也)易理에 后天은 丑運인 牛運이므로 先天의 水火通明하는 離卦에 畜牝牛의 象이있어 이것이 后天牛運이 되는 것

인데 旅上九는 水火相逮하는 位를 過하므로 離火가 滅하여 母體를 喪하여 姙娠치 못하고 牛를 喪失한 象이 되어 后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旅는 先后天의 終始하는 卦이므로 上九에 달의 象인 鳥와 時運의 象인 牛를 말한 것이다.

遯六五는 陽이 卵子中에 入하므로 羊을 喪하되 無悔하고 旅上은 陽이 陰體를 喪하므로 容納할 곳이 없어서 凶하다.

六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乾坤의 資始資生의 資를 懷하여 童僕을 得하는 것이오 六三은 中치 못하고 止하되 또旅하니 이는 그 止舍하는 離火宮을 失함이오 離火宮에서 止舍할 곳을 失하므로 焚次의 象이 되어 童僕을 喪한 것이다.

童은 艮少男의 象이오 僕은 車馬를 御하는 者이오 資始하는 乾에 車와 馬의 象이 있고 資生하는 坤에 大輿와 牝馬의 象이 있으니 童僕이라 함은 資始資生하는 事를 御하는 震子를 말함이다.

資斧는 資는 乾坤의 資始資生의 뜻이오 斧는 父와 斤으로 되어 木을 斫하여 器를 制하기를 始하는 用具이다.

序卦

豊은 太陽의 震子가 달의 離火宮으로 下向하는 象이오 旅는 震子가 離火宮에 入하여 艮童으로 되는 象이니 그러므로 旅가 豊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豐旅가 反易하여 豊의 雷威電明에 折獄致刑의 象이 있으므로 旅의 火明에

明愼用刑이 있고 山止에 不留獄이 있는 것이다.

巽 重風

巽은 上巽下巽으로 되어 天의 陽氣의 下施하는 象이 되니 彖의 重巽以申命이라 함은 天의 陽氣가 地에 下하고 또 다음의 天氣가 地에 下施하는 象이다.

巽은 天氣가 地에 下하고 또 다음에 天氣가 地에 下하는데 天氣의 下降은 天命의 下施하는 象이며 天命의 거듭 下施하는 것이 곧 申命이니 이는 革命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長하는 物이 天의 陽氣를 受하여 여물어서 變通된다 함이며 剛巽乎中正而志行이라 함은 天의 陽氣인 震子가 巽의 陰精의 中心인 成의 中心에 入함이오 柔皆順乎剛이라 함은 上下二陰이 모두 陽氣의 來入함을 順承한다 함이다.

巽은 文王八卦圖의 「說萬物者莫說乎澤」의 兌에 當하므로 陰精이 陽氣를 順受하여 內部에 包하고 여무는 것이니 이는 달이 陽氣를 包하여 后天月의 씨가 入胎되는 象이다.

巽의 本字는 巟으로 되어 諸物을 具하여 丌로써 薦한다 함이오 丌는 下器이니 이는 陰精이 陽에 順하여 上奉함을 象한 것이다.

巽은 天의 陽氣中의 震子가 巽股中에 入하면 巽股中의 兌澤이 震子를 遇하여 合하는 것이므로 巽卦에 震子와 兌澤이 있고 또 剛이 來하여 柔에 下한다 하여 隨風의 象을 取한 것이오 生의 中心인 九二에 巫의 象이 있는 것도 또한 兌澤의 象을 말함이니 巫는 兌의 象이다.

九五는 象의 剛巽乎中正의 位로서 달의 體를 成하는 位이다. 本陰體中에 天의 陽氣의 來入한 것이니 陽氣의 來入하기 以前은 山風蠱卦이라 그러므로 蠱에 先甲三日 後甲三日의 象이 있고 巽九五에 先庚三日後庚三日의 象이 있는 것이다.

巽은 陰精이 震子를 受하는 卦로서 地道七宮의 收斂八卦의 中心에 있어 胎兒를 入胎하여 여물게 하는 象인데 이것을 蠱卦와의 關係로써 보면 巽은 陽氣가 蠱卦의 六五에 來入하여 巽으로 變한 것이오 巽은 蠱卦로부터 三十六數의 乾策數에 當하여 變化의 象이 있고 巽은 또 文王八卦圖의 西方兌에 當하여 蠱의 東方震과 相對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甲庚相對의 理에 依하여 蠱에 甲의 象을 取하고 巽에 庚의 象을 取한 것이다. 蠱는 生의 時運에서 長의 時運으로 變하여 甲의 始長하는 象이 되므로 終則有始라하고 巽은 長의 時運의 成의 時期에 當하여 陰精이 陽氣를 承受하여 여무는 것이므로 無初有終이라 한 것이다.(蠱卦下參照)

三日이라 함은 달의 形의 生함인데 蠱甲과 先甲三日 後甲三日을 合하면 七日이 되니 七日은 달의 光明의 象이라 蠱甲七日은 長의 時運의 달의 光明의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巽庚과 先庚三日 後庚三日을 合하면 七日이 되니 巽庚七日은 長의 時運의 成의 時期에 달의 光明이 陰精中에 入하여 藏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巽庚의 三日은 蠱甲의 三日과는 그 形態가 相異하여 蠱의 三日은 달의 長하는 形의 生함이오 巽의 三日은 달의 여무는 形의 生함이다.

巽兌에는 달의 光明의 藏하는 象이 있으므로 剝卦의 月消하는 象을 取하여 巽에는 剝卦의 牀字를 써서 巽在牀下라하고 兌에는 孚于剝이라 한 것이다.

牀이라 함은 割木이니 巽卦陰木의 下偶한 丌의 象이오 陽을 順受하는 陰器의 뜻이다. 九二의 巽在牀下는 陽이 生의 中心의 陰中에 入함을 象함이오 上九의 巽在牀下는 上九가 巽入의 極에 있어 天의 陽氣가 모두 陰中에 入

하므로 牀下의 象이 되니 이 까닭에 上九는 上에 窮하여 陽器인 資斧를 喪하여 生命의 陷한 象이다.

序卦

旅는 太陽의 震子가 달의 陰精中에 入胎되는 象이오 巽은 달의 內部에 震子를 順受하고 달의 여무는 象이니 그러므로 巽이 旅에 次하는 것이다.

六四는 上卦巽의 得位한 位로서 달의 行하는 象이 있는데 巽兌는 地道七宮의 中心宮으로서 달의 入胎되는 位이므로 入胎宮의 六四爻에는 새달의 生하는 象이 있는 것이며 三品이라 함은 乾의 品物流形 坤의 品物咸亨 姤의 品物咸章으로서 모두 天地가 相交하여 달을 生하는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田獲三品은 새달의 씨를 承受하여 獲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初六의 武人은 先祖를 繼迹하는 後人이니 先天月에서 后天月의 生하는 것이 곧 武人의 象이오 震子가 巽陰에 入하여 第二世의 달로 되고 있음을 象한 것이다.

大象

申命은 命을 거듭 내리는 것이오 行事는 變通을 行함이니 時運의 變하는 때에 時運에 맞춰서 變通함을 말함이다.

兌 重澤

兌는, 巽股에 入한 震子는 반드시 兌澤을 合하는 것이므로 兌에 說의 象이 있으니 說이라 함은 陰體의 속에 陽을 受하여 嘉會함이 곧 說이며 兌는 陽

이 中에 있고 陰이 外에 있어 震子가 陰精中에 入하므로 陽이 陰中에 뭉쳐서 孕胎되고 있는 것이다.

兌는 說의 半字이니 少女로서 아직 未成한 까닭에 艮少男과 함께 半字를 쓴 것이다.

順乎天而應乎人은 乾彖의 乾道變化各正性命의 뜻이니 正命이 順乎天이오 正性이 順乎人이다. 乾彖의 乾道變化各正性命은 秋의 成하는 象이오 革과 兌가 또한 秋의 成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이 二卦에 順乎天 應乎人을 말한 것이다.(革卦下參照)

兌澤은 陰體의 陰子이니 陰은 民의 象이오 勞는 坎의 象이오 難은 陰이 陽을 蔽하는 象이오 死는 生의 終함이다. 震子가 陰體의 兌澤에 入하니 이는 嘉會하여 써 民에 先함이오 震子가 陰體의 兌澤에 入하면 陰中에 陽을 包하는 坎象이 되는데 陰體는 그것이 坎象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嘉會하기만 하니 이는 民이오 그 勞함을 忘함이오 震子가 陰體의 陰子에 入하면 陰이 陽을 蔽하니 이는 嘉會하여 써 難을 犯함이오 震子가 陰體의 陰子에 入하면 陰子는 決하여 그生을 終하는데 陰體는 陰子의 生의 終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嘉會하기만 하니 이는 民이 그 生을 終하여 死함을 忘함이다. 이것을 달로써 보면 西方의 兌에서 陽氣가 陰中에 入하여 坎의 象이 되고 다시 文王八卦圖를 順行하여 兌가 北方坎에 行하여 水澤節의 子中에 이르면 달이 光을 失하여 終하는 것이니 이가 勞와 死의 象이오 그러므로 節九二에 달의 極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兌는 陰陽의 嘉會하는 作用이 大하므로 民이 勞와 死를 忘하고 勸勉하며 民이 勸勉하므로 陰中에 陽이 뭉쳐서 大한 것이니 이가 說之大民勸矣의 뜻이다.

달의 運行軌道의 變하는 象을 序卦로써 보면 乾卦에 大明終始의 象이 있는데 大明은 日月이오 太陽의 晝夜와 달의 晦朔은 곧 大明의 終始이며 大明

終始의 理는 周天三百六十度의 日月運行에서 나온 것이다. 周天三百六十度는 晝夜의 平均한 春分秋分의 때에 晝夜가 各 百八十度로 되어 있으되 日出前 十八度의 朝景과 日入後 十八度의 暮景은 모두 晝에 屬하므로 晝는 百八十度에 朝暮의 景 合三十六度를 添加한 二百十六度가되고 夜는 百八十度에서 朝暮의 景 合三十六度를 除減한 百四十四度가 되는 것이니 이는 곧 乾策二百十六數와 坤策百四十四數의 根據이며 晝의 度數가 二百十六이 되므로 易經序卦에는 乾卦로부터 二百十六爻의 數에 當하는 明夷卦의 上爻에 日沒의 象이 있어 「初登于天後入于地」라하여 晝가 끝나고 夜가 始함을 말한 것이다.

달의 運行에도 또한 三百六十度의 理가 있으니 달은 每月에 한번씩 太陽과 合朔하는데 前述한 朝景暮景 各 十八度의 理에 依하여 太陽前 十八度以內와 太陽後 十八度以內 合 三十六度以內의 사이는 太陽의 光때문에 달의 光이 發치 못하는 것이므로 달은 三百六十度에서 太陽을 中心한 前後 三十六度를 除하고 그 나머지 三百二十四度의 사이에서만 光을 發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序卦에는 乾으로부터 兌까지의 三百二十四度는 달의 光을 發하는 最終度(胎宮四卦를除함)로서 兌九五爻에 陰이 陽을 變하는 「剝」의 象이 있고 그 上爻에 「未光」의 象이 있는 것이다. 臨卦의 至于八月有凶도 兌卦의 三百二十四度線을 말한 것이니 臨으로부터 兌까지가 또한 三十六卦 二百十六爻의 乾策數에 當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兌에서 달이 光을 失하여 八月有凶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兌卦以後의 十八度는 序卦의 中孚小過에 當하므로 中孚小過에 日月의 合朔하는 象이 있으니 中孚는 中宮에서 合朔하여 달의 內部에 陽氣가 뭉침이오 小過는 달이 太陽의 앞으로부터 太陽의 뒤로 지나감이다. 中孚小過 以後의 十八度는 序卦의 終한 後인 乾의 大明終始에 當하니 乾은 天의 象이라 后乾에서 달이 生하는 까닭에 后天이라 하는 것이다.

九二와 九五는 生成의 中心이므로 陽氣가 뭉쳐 있으니 九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陽氣가 뭉쳐서 陰陽이 嘉會하고 九五는 成의 中心이므로 陽氣가 內에

뭉치고 陰氣가 外를 蔽하여 剝卦의 陰變陽의 象이 된 것이다.

序卦

巽은 달의 陰精이 陽을 受하여 后天달의 入胎하는 象이 되고 兌는 陰精이 陽을 蔽하여 달이 光을 失하고 그 內部에 陽氣가 뭉쳐서 后天의 달이 孕胎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兌가 巽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麗澤은 上澤下澤이 相附하는 것인데 또한 麗는 離卦의 象이오 兌澤은 陽이 離火宮中의 兌澤에 胎育되므로 麗澤이라 한 것이다. 朋은 陰이오 友는 陽이오 講은 學問을 論議함이오 習은 學問을 實踐함이니 朋友講習은 澤이 物을 滋益하는 象을 取한 것이다.

和兌라 함은 兌는 正秋이오 陽이 陰中에 入하는 象이 되어 四德의 利가되니 利者義之和이므로 和兌라 한 것이다.

來라 함은 外로부터 內에 來함이다. 兌는 剛中柔外하여 嘉會하는 것인데 六三의 陰은 內로 下卦에 來한 象이니 이는 柔外의 旨에 違하고 陰이 內하면 陽이 外하는 것이므로 陽이 陷하여 凶한 것이다.

商은 復卦의 商旅의 商이니 外에 出하는 象이다. 未寧은 陽이 陰을 遇치 못함이니 屯比의 不寧의 뜻이다. 九四는 六三의 外에 있으므로 商旅의 象이 되어 未寧한 것이다.

諸爻中에 九五에 兌가 없으니 이는 陰陽의 嘉會하는 域을 넘어서 內部에 陽氣가 뭉쳐 있는 까닭이다.

渙 風水

渙은 天의 陽氣가 下來하여 北方坎水의 陰이 散하고 陽이 內에 入하여 收斂하는 象이니 天의 陽氣와 水가 合하고 否泰變化의 理에 依하여 陰이 空中에 上行하므로 달의 體의 象이 되는 것이다. 否泰變化의 理라 함은 長의 時運의 달은 貢卦의 陰陽上下에 依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어 先迷의 달이 되고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달은 渙卦의 陰陽上下에 依하여 地天泰의 象이 되어 後得主의 달이 되는 것이니 彖의 剛來而不窮 柔得位乎外而上同은 모두 陰陽이 上下하여 地天泰의 象이 됨을 말함이며 貢卦下에 씌어있다.

渙節은 文王八卦圖의 「潤萬物者 莫潤乎水」의 坎에 當하여 달이 北方坎에 入하여 晦의 象이 됨을 말함이다.

渙字는 水와 奐으로되고 奐은 大하고 文采가 章明하다 함이니 水가 大하고 天의 陽氣를 受하여 文采가 章明한 것은 달이므로 渙字로써 卦名을삼고 거기에 散과 離의 뜻을 寓하니 散은 天의 陽氣가 陰을 散하고 그 속에 入한다 함을 말함이오 離는 相麗하면서 또한 各分한다는 뜻으로서 天의 陽氣와 달의 陰精이 各分하여 있으면서 또한 相麗하고 있다 함을 말함이다. 王假有廟의 象은 萃卦와 同一하니 乾陽이 坤體인 달에 假居하여 第二世의 새달로 孕胎되어 自身이 先天月의 子로 되고 鬼神은 달에 依附한다는 理에 依하여 祖上神은 새달에 依附하니 이는 사람이 廟를 세우고 祖上神을 거기에 奉享하는 象과 같다 하여 달을 象하기를 廟라고 한 것이다. 渙은 胎宮에서 새달의 體가 成하는 卦이므로 새달에 鬼神이 依附하는 象을 取하여 王이 假하여 廟를 有한다 한 것이며 萃卦에는 致孝享이라 하고 渙卦에는 王乃在

中이라 하니 萃卦는 母體中에 乾陽이 來假하여 새달이 된 것이므로 父母와 子의 兩象을 因하여 子가 父母에게 孝하고 子孫이 祖上을 享하고 하는 뜻을 取하여 致孝享이라 한 것이오 渙卦는 胎宮內의 胎兒自身의 胎育되는 象을 말한 것이므로 乾陽인 王이 곧 胎兒自身인 새달이라 하여 王이 이에 中에 있다고 한 것이다.

九五의 渙汗其大號는 漸初六의 鴻漸于干小子와 相照하는 것이다. 地道七宮은 收斂八卦가 一團이 되어 달이 天의 陽氣를 承受하여 새달의 體를 成하는 象이 되고 天의 陽氣의 下降하는 卦는 風山漸 重風巽 風水渙 風澤中孚의 四風卦인데 上卦巽은 九五가 달의 體로 되고 六四가 天空中의 달의 位로 되고 初爻가 天에서 下來한 震子의 位로 되는 것이다. 地道七宮의 最初의 上卦巽은 漸이오 漸初六에는 天의 陽氣로부터 震子를 承受하는 象이 있으므로 小子라하고 漸의 初六은 山下에서 水가 出하는 것이므로 干이라 한 것이오 水와 干을 合한 것이 곧 汗이니 渙九五의 汗은 漸初六에서 鴻의 씨인 小子의 出生한 곳이며 汗에 漸한 鴻의 小子가 旅六五의 雉로 되어 巽兌의 陰宮에 入胎되고 渙九五에서 長成하여 大號하니 易理에 號는 震子의 象이오 大號는 震子의 長成한 象이라 渙汗其大號는 漸의 干에서 出生한 鴻의 小子가 渙九五에서 長成하여 새 달의 體를 成한다 한 것이며 渙九五는 王乃在中의 位이므로 王居라하니 王은 곧 漸의 小子의 大號하는 者이다. 渙九五에 漸鴻干의 象을 말한 것은 漸과 渙이 모두 水卦로 되어 小子와 大號가 모두 水中에서 生育하는 沈水潛月의 象이 되는 까닭이다.

兌에서 月光이 終하므로 다음 卦인 渙에 明入地中하는 明夷의 象이 있으니 渙初의 用拯馬壯吉은 곧 明夷 二의 用拯馬壯吉이오 渙의 夷는 곧 明夷의 夷이오 渙의 渙其血은 곧 明夷의 誅이다.

六二는 剛來不窮의 爻인데 卦에 木象이 있으므로 陽이 來하여 不窮하는 것을 木實로써 象한 것이다. 机는 桑實이오 奔은 物의 方生함에 貴然한 文이 있음이니 天地否卦에 苞桑이있고 渙卦가 否卦로부터 變하여 陽이 二爻에 來하므로 九二에 苞桑의 씨가 來하여 貴然한 달의 文采를 生한다 함을 말

한 것이다.

初六의 用拯馬壯은 明夷의 六二爻辭와 同一한 것인데 馬壯은 震子의 象이오 用拯馬壯은 水中에서 震子가 出한다 함이니 이는 后天月의 씨가 水中에서 生하고 있음을 말함이며 다만 明夷六二의 用拯馬壯은 小象에 順以則이라 하여 陰體와 震子가 合體하여 陰體의 여무는 것을 象함이오 渙初六의 用拯馬壯은 小象에 順함이라 하여 陰體가 震子를 承受하여 胎育하는 것을 象함이다.

渙六爻中에 오직 初六에만 渙字가 없는 것은 初六은 陰精이 散치 아니하고 震子를 順承하는 까닭이다.

六四는 柔得位乎外의 爻이오 渙有丘는 上卦巽의 收斂卦로서 六四는 天空中의 달의 位로 되고 있으므로 六四에서 后天月의 體가 丘聚하고 있는 것이다. 渙과 明夷는 모두 光明의 晦하는 卦인데 同一한 晦의 象이로되 明夷는 天의 陽氣를 受하여 다만 陰體를 여물게 하는 象이 되고 渙은 天의 陽氣를 受하여 后天月을 胎育하는 象이 되니 그러므로 渙六四의 有丘는 明夷의 意思不到하던 바이라 함이다.

序卦

兌는 달의 兌精이 震子를 承受하여 胎育하고 달의 光明을 失하는 象이오 渙은 晦가되어 새달의 體가 成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渙이 兌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帝는 萬物의 化育을 主宰하는 神이오 無形에서 有形이 創生되는 것은 帝의 主宰하는 바이므로 易理에는 物의 創生하는 象에 帝를 말하니 履의 履帝位는 달의 生함이오 泰의 帝乙歸妹는 사람의 씨의 生함이오 豫의 殷薦之上帝는 長의 時運에 사람의 生함이오 益의 王用亨于帝는 后天月의 受胎함이오 鼎의 以享上帝는 后天月의 胎育함이오 歸妹의 帝乙歸妹는 人의 終始함이며 渙大象의 享于帝立廟는 달의 속에서 后天月의 胚胎함이다.

享于帝立廟는 物의 創生을 爲하여 上帝에게 獻하여 福을 求하기 爲함이다.

渙其血去逖出이라 함은 渙은 北方의 潤萬物하는 坎水의 位로서 晦의 象인데 天의 陽氣가 下降하여 坎陰의 血을 散하고 있으므로 上九에 坎血이 散去하고 쭉정이(害)가 되는 陰氣가 遠出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渙과 小畜은 그 象이 相似한 것인데 小畜六四에는 血去惕出이라 하고 渙上九에는 渙其血去逖出이라 하니 이는 小畜은 달이 처음으로 生하는 象이므로 卦主로 되어 있는 六四의 陰속에 陽氣가 뭉쳐서 陰血이 去하고 惕의 暗昧가 出함을 말한 것이오 渙은 生長을 極한 달의 속에 震子가 入하여 新月이 生하는 象이므로 그 終爻에 陰血이 去하고 北方의 陰氣가 出하여 쭉정이를 멀리함을 말한 것이다.

節 水澤

節은 水와 澤으로되고 易卦中에 流下하는 重坎水가 上行하는 것은 오직 節卦이니 (豐卦下參照)이는 水는 流下하는 것인데 下에서 陽氣가 推上하면

水가 上으로 行하여 澤이 되는 것이므로 重坎水의 最下劃이 陽으로 變한 것은 節卦이다. 節은 水의 上行하는 象이오 坎水와 兌澤이 合하여 上行하는 것은 달이므로 節은 달의 象이 되는 것이다.

節은 文王八卦圖의 坎에 當하고 그 卦象의 水澤은 秋로부터 冬하여 一年의 節이 成하고 西로부터 北하여 一月의 晦와 一日의 夜中이 되니 이는 物의 終하는 象이오 節은 四正生成卦圖의 理에 依하여 下經 收斂卦의 終으로서 兌澤의 成하는 象이므로 先天의 달은 節에서 終하는 것이다.

彖에 剛柔分이라 함은, 節은 兌로부터 坎하는 子中卦이오 地球의 子午線의 理에 依하여 子中은 陰陽의 分하는 곳이라 하여 剛柔分이라 한 것이니 이는 噬嗑卦가 震으로부터 離하는 午中卦이므로 또한 剛柔分의 象이 됨과 같은 것이며 節은 子中卦이므로 一年의 冬至 一月의 晦 一日의 夜半 節이 되는 것이다.

節字는 竹節의 뜻이오 震은 蒼筤竹이니 節卦는 物의 長成過程의 節限이 되어 物의 成하는 때이며 物이 成하고서 다시 出發하는 것이 곧 節의 뜻이니 坎水中의 震子는 節에서 달의 形質을 成하고 다시 새로운 달로 出發하는 것이므로 震子의 成하는 象에 竹의 象을 取하여 節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說以行險이라 함은 陰陽이 嘉會하여 坎水의 晦中을 行함이오 當位以節中正以通이라 함은 陽이 陽位에 있어 子中의 中正의 位에 節度하고 다시 通行하는 九五甘節의 象이다. 甘節은 水의 通하는 象이오 若節은 水의 塞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水가 土中을 通하여 行하는 者는 그 味가 甘하고 水가 土中을 通行치 아니하는 者는 그 味가 苦한 것이며 苦節不可貞이라 함은 保合하여 水가 通치 못하면 新月이 生치 못하여 一陰一陽치 못하고 그 道가 窮한 것이다.

天地에 節이 있으므로 사람의 生活하는 制度에도 節이 있다. 天地는 圜行

하여 窮함이 없으되 그 圜行하는 속에 스스로 節이 있어 日行하는 北至의 夏至 南至의 冬至 赤道를 通行하는 春分 秋分같은 것이 모두 節이오 一月中의 晦朔弦望 一日中의 晝夜朝夕이 또한 節이다. 天의 氣候에 度數가 있는 까닭에 地의 生産力에 또한 度數가 있어 山海의 自然物生殖에는 스스로 限度가 있고 사람의 生活資料의 産出에도 또한 限度가 있어 物의 生産은 無制限 無盡藏한 것이 아니다. 易卦에는 午中卦의 噬嗑과 子中卦의 節에 生活資料의 理가 있어 噬嗑에는 貨를 말하고 節에는 財를 말하니 財라 함은 사람의 生活에 必要한 物資이오 貨라 함은 財가 아니라 財의 價의 表示이므로 化라하니 곧 지금의 貨幣이다. 貨財의 象이 噬嗑과 節에 있는 것은 噬嗑과 節은 剛柔分의 卦로서 噬嗑에는 分하고 合하고 하는 象이 있고 節에는 行하고 止하고 하는 象이있는 까닭이다. 噬嗑의 下卦 雷는 天下에 行하여 萬物이 應與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上卦離는 萬物에 明照하여 그 光을 받지 아니함이 없고 火는 變化의 原으로서 萬物이 火의 氣의 動함을 隨하여 變化하는 것이므로 噬嗑에는 貨의 象이 있는 것이오 節의 下卦澤은 形質을 成하고 瀦止하여 萬物의 體의 津液膏血이 되고 上卦水는 萬物에 通行하여 津液膏血을 運行하는 것이므로 節에는 財의 象이 있는 것이다. 噬嗑의 火는 明하고 節의 水는 通하여 貨財의 象이 되니 貨財는 곧 火明水通의 象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貨財生活도 또한 水火通明의 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噬嗑은 貨이므로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라하고 節은 財이므로 「天地節而四時成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이라 하니 傷財라 함은 消費의 過多함이오 害民이라 함은 生産의 不足이다.

九二는 子中에 及치 못하고 陽이 陰位에 있어 當位치 못하므로 節치 못하고 生의 中心에 있으면서 日月運行의 口를 出치 못하여 不出門庭이 된 것이니 陽이 當出할 때에 出치 못하므로 失時極이 되며 明夷六四의 于出門庭같은 것은 달이 日月運行의 口를 出함을 말함이다. 節은 달의 形質의 成함을 象한 卦인데 天地의 節에서 달의 晦하는 象이 있어 舊月이 終하는 것이니 이는 臨卦九二의 至于八月有凶의 象이 節九二에 나타나는 것이다. 臨은

先天의 달의 光明이 形質에 依附하여 浸長하는 卦이오 이는 臨九二의 象이니 形質의 長한 者는 반드시 消하는지라 그러므로 臨九二에 至于八月有凶의 象이 있는 것이며 節의 九二에는 舊月의 終하는 象이있고 節九二의 終하는 달은 兌卦의 說以犯難 民忘其死의 달이니 臨卦의 九二 兌卦의 民 節卦의 九二가 모두 兌澤의 終하는 것이므로 節九二의 失時의 달은 곧 臨九二의 至于八月의 달이다.

初九는 本重坎水의 初六이 陽으로 變하여 流下하는 水를 止하여 澤을 삼은 것이므로 澤의 基底가되어 節의 成하는 始初가 되는 것이니 이가 陽氣를 發宣치 아니하여 不出戶庭의 象이 되는 것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亂之所生也 言語以爲階 君不密則失臣 臣不密則失身 幾事不密則害成 是以君子愼密而不出也라하여 달이 內部의 陽氣를 發宣치 아니하는 것을 人事의 言語에 비져서 말한 것이다.

序卦

渙은 달의 體의 成함이오 節은 先天月이 終하고 后天月의 始하는 마디이니 그러므로 節이 渙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數度라 함은 萬物의 運行하는 數爻와 限度이니 國家官員의 數 財政의 豫算 같은 것이 모두 數度이오 德行이라 함은 사람의 道德과 行動이니 그 사람의 道德과 行動을 議하여 그 位를 맡기는 것 等이 모두 議德行이니 制數度 議德行이 곧 節의 뜻이다.

中孚　　風澤

中孚는 巽兌陰精의 收斂卦로서 陰이 內에 있어 陽을 承受하는 象이 되고 陽이 得中하니 이는 陽이 內部에 뭉쳐서 陰體를 形成한 것이오 全卦가 大離의 象으로 되니 離는 陰火宮의 象이며 反易없는 圓狀卦로 되어 自體의 變易에 依하여 그生을 繼續하는 것이니 陰體의 圓狀으로되고 陰火宮이 內에서 陽을 承受하여 陽이 中心에 뭉치는 것은 달이 太陽과 合朔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孚는 文王八卦圖의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의 艮에 當하여 先天의 舊月體가 終하고 日月이 中宮에서 合朔하여 后天의 新月體가 生하는 象이다.

中은 易學에 가장 善한 것으로서 日月의 相遇하는 中宮이라는 뜻이오 孚는 陽氣가 뭉쳐서 新生命의 孵化한다는 뜻이니 中孚는 日月의 合朔하는 象이므로 中孚로써 卦名을 삼은 것이다.

中孚는 后天달의 始生하는 象의 卦이므로 乾彖에 말한 大明終始의 象이 있으니 이제 日月光明의 始終하는 象을 보건대 太陽은 東方震에서 出하되 그 光明의 始現하는 것은 東北艮이니 이는 文王八卦圖에 艮이 萬物成始하는 곳이 되는 까닭이오 달은 西南坤에서 生하되 (太陽의 沒하는 것이 西方兌이므로 달의 生하는 것을 그 後方인 西南坤이라고 한다) 그 光明이 始現하는 것은 東南巽이니 이는 文王八卦圖에 巽이 陰卦의 始가 되는 까닭이다. (달은 太陽後 十八度以外에 있어야 光을 生하는 것인데 初一日에 日月이 合朔하면 初二日의 日月距離는 十二度餘이오 初三日 正午에 이르러 日月의 距離가 十八度餘가되어 달이 비로소 光을 生하니 初三日正午는 太陽의 位가 南方離에 있고 달의 位가 東南巽에 있는 때이며 東南巽에서 달이 生하는 것은 中孚卦의 巽에서 月幾望하는 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太陽의 光明은 東北艮에서 始現하여 西方兌에서 終하고 달의 光明은 東南巽에서 始現하여 東北艮에서 終하니 이는 太陽光明의 始現하는 곳이 곧 달의 光明의 終하는 곳으로 되는 까닭이오 太陽光明의 終하는 西方兌와 달의 光明의 生하는 東南巽은 또한 文王八卦圖로본 大明終始의 象이다. 그런데 中孚는 兌로부터 巽하여 兌는 太陽의 終하는 位가되고 巽은 달의 始하는 位가되니 이는 中孚의 巽兌에 太陽이 終하고 달이 始하고 하는 大明終始의 象이있어 兌의 終爻인 六三에서 太陽이 終하고 巽의 始爻인 六四에서 달이 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三의 或鼓或罷或泣或歌는 離九三의 不鼓缶而歌則大耋之嗟의 象으로서 日昃의 象이 되며 六四의 月幾望은 달의 始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大明이 終하고 始하면 太陽 地球 달의 六位가 時로 成하여 사람이 또한 三才의 位를 成하는 것이니 孚乃化邦은 乾象의 六位時成의 뜻이오 乃應乎天은 乾象의 以御天의 뜻이다. 御天이라 함은 달이 馬의 象으로서 天을 달린다는 뜻인데 六四의 달이 幾望하여 先天의 달인 馬匹이 亡하고 馬匹의 所生한 新月이 絶類하고 上하니 이가 곧 御天의 象이다.

化邦이라 함은 人間社會를 化成함이니 中孚에서 新月이 生하면 六位가 時成하고 사람도 三才의 位를 成하여 人間社會가 化成된다 함이오 豚魚吉이라 함은 豚魚는 姤卦初六의 象으로서 陰體가 乾陽을 承受함을 象한 것이니 中孚의 豚魚는 달이 太陽의 光을 受함을 말함이오 豚魚吉은 달에서 朔日의 光이 生함을 말함이오 位及豚魚는 太陽의 陽氣의 뭉침이 달에 及함을 말함이다.

九五의 有孚攣如는 小畜卦 九五의 象이니 달의 陰精에 陽氣의 뭉침을 말함이다.

九二의 鶴은 澤邊에 居하여 鳴聲이 天에 聞하는 陽鳥이니 兌澤에 뭉쳐 있는 陽氣가 太陽과 合朔하는 때에 日月에서 律呂聲이 나는 것을 象함이오 鳴鶴在陰이라 함은 鳴鶴이 달에 있다 함이니 易卦에는 乾坤의 初爻 小象과 泰否의 象以外에 陰陽을 말한 것은 오직 中孚의 九二뿐이니 이는 中孚에

后天달이 生하여 새 乾坤이 되는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其子라 함은 太陽에서 오는 震子이오 和之라 함은 달에 뭉쳐 있는 陽氣와 달의 承受하고 있는 震子가 相應하여 律呂聲을 내고 있음을 象함이다. 我는 우리라는 뜻으로서 全體를 말함이오 吾는 나라는 뜻으로서 自己를 말함이오 爵은 位이니 六位時成의 位를 말함이오 靡는 屋下로 飛下하는 象이니 我有好爵吾與爾靡之라 함은 우리 달에는 天과 地와의 사이에 六位라는 好位가 있으니 나는 너 震子를 包하고 后天달이 되어 陰의 時運下로 飛下하리라 함이며 이 爻辭는 九二의 生의 中心에서 달에 뭉쳐 있는 陽氣가 太陽과 合朔하여 律呂聲을 내면서 震子를 承受하여 鳥象의 后天달이 되어 太陽 地球로 더불어 六位를 이룬다 함을 말함이다. 中孚의 鶴은 漸의 鴻 旅의 雉와 同一한 뜻이오 다만 卦象에 따라서 그象을 달리한 것이다.

繫辭에는 이것을 人事로써 말하여 「君子居其室 出其言 善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出其言 不善則 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加乎民 行發乎邇見乎遠 言行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君子之 所以動天地也 可不愼乎」아 하니 이는 君子의 言行이 天地를 動하는 것은 鳴鶴의 소리가 天을 應함과 같다 함을 말함이다.

鶴兌象而月之陰精也 陰者无極之中之月位也 鳴者合朔時之律呂聲也 其子者自太陽來之震子也 和之者 陽入於陰中也 鳴鶴在陰 其子和之者 日月合朔 太陽之震子 入於月精中也

初九의 虞는 震子의 象이오 他는 六四爻의 巽股이니 初九는 달의 震子의 生하는 位로서 달의 時를 따르는 것인데 巽股를 應하면 陽이 陷하여 燕과 같이 時를 따라서 往來치 못한다 함을 말함이다.

上九의 翰은 天鷄이다. 中孚에는 鳥鳴의 象이 있으므로 諸爻에 鳥의 孵化하는 象과 孵化함에 時가 있다는 象을 取하여 時를 知하는 鳥를 말하니 初九의 燕은 春秋의 時를 知하여 往來하는 候鳥이오 九二의 鶴은 夜半의 時를 知하여 鳴하는 陽鳥이오 上九의 翰은 晨의 時를 知하여 鳴하는 天鷄이

다.

翰音者 白馬翰如之翰 而白馬之音也 白馬者 巽馬而卽牝馬先天月也 與六四之馬匹亡相照也 中孚合朔之時 有律呂聲而上九則 已亢之先天月 故先天牝馬月之登天而亢也

中孚는 陽氣의 뭉치는 卦이므로 陽爻에 모두 動物의 象을 取하는데 오직 九五에는 鳥의 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豚魚의 象을 取하니 이는 九五는 成의 中心에서 陽氣의 뭉치는 位이므로 六爻中에 오직 九五에만 孚字가 있고 또 陰中陽의 坎象인 豚魚를 象한 것이다.

翰音의 音은 發宣하는 言이 大始하는 一을 含하여 陽體의 씨의 象이 되는 것으로서 蠱初六의 意(억)承考 明夷六四의 獲心意(억)의 意(억)과 同一한 것인데 蠱와 明夷는 사람의 象을 取한 까닭에 音에 心을 加하여 意(억)이라 하고 中孚와 小過의 音은 鳥鳴의 象을 取한 까닭에 音이라 한 것이다.

登于天이라 함은 明夷上六의 初登于天後入于地의 뜻인데 中孚上九는 天鷄의 씨가 天에서 孵化하고 있는 象이니 이것은 반드시 下로 下하는 것이므로 登于天의 象을 말한 것이오 小象의 何可長也는 上에서 下로 轉하여 變한다는 뜻이니 中孚는 反易이 없는 卦로서 自體의 變易에 依하여 生生을 繼續하는 것이므로 上에서 變하여 中孚가 小過로 되고 上九의 翰音은 小過의 飛鳥遺音으로 되는 것이다.

序卦

節卦는 晦의 象이오 中孚卦는 合朔의 象이므로 中孚가 節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議獄緩死는 獄事에 死刑을 쓰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이는 兌의 民忘其死와 相照한다. 兌의 死는 달의 死하는 것인데 中孚에서 달이 다시 生하니 이가 緩死의 象이다.

小過　　雷山

小過는 震艮의 陽卦로된 收斂卦로서 四陰의 收斂함이 極하고 陰의 收斂이 度를 過하여 下에 下하는 象이니 이는 先天달의 陰精의 收斂이 過度하여 太陽의 先에 있던 것이 太陽의 後로 過하여 后天달이 되는 象이오 그러므로 小過의 收斂하는 陰에 與時行하는 象이 있으며 文王八卦圖의 終萬物始萬物者莫盛乎艮의 艮에 當하여 舊體가 終하고 次世代가 始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易卦에 小字로써 卦名을 삼은 것은 小畜과 小過인데 小畜은 陰이 畜하여 달의 體의 生하는 象이오 小過는 陰의 收斂이 度를 過하여 스스로 下에 下하면서 自體의 質이 變易하여 새달로 生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小畜과 小過에 모두 密雲不雨自我西郊의 象이 있는 것이다.

飛鳥는 先天달이오 遺之音은 后天달의 씨를 남김이며 不宜上宜下라 함은 上하면 處地의 宜를 얻지 못하고 下하면 處地의 宜를 얻는다 함인데 上하는 것은 逆이 되어 달이 太陽의 先에 있어 先迷의 象이 되는 것이오 下하는 것은 順이 되어 달이 太陽의 後에 있어 後得主의 象이 되는 것이니 後

得主가 곧 後順得常이므로 下하면 順하다고 한 것이며 后天달은 後得主의 달이므로 小過에서 나오는 달은 順하여 太陽의 後에 있는 것이다.

上은 先天密雲之位 先迷之位 密雲已上也의 뜻이다.

飛鳥가 音을 遺한다 함은 先天月에서 律呂聲이 出하여 日月合朔하여 太陽의 震子를 受함이다.

先天月爲終 故言遺也 先天月遺之音而終 故不宜上也 宜下者 越於太陽之後也 宜下하여 大吉하다.

易卦의 飛字는 乾의 飛龍 明夷의 于飛 및 小過의 飛鳥이니 이는 乾은 父의 象이오 明夷의 坤은 母의 象이오 坤母의 所生하는 小過의 震艮은 子의 象인 까닭에 父母 및 子에 모두 飛字를 말한 것이다.

易卦의 彖辭에 「象」字가 있는 것은 剝 鼎 및 小過인데 易이라 함은 象이오 易은 日月이니 小過彖에 象字를 쓴 것은 小過卦에 달의 象이 있다 함을 表한 것이다.

六五의 密雲不雨自我西郊는 小畜卦의 卦辭로서 달의 體의 生하는 象을 말한 것인데 小畜에는 卦辭에 있고 小過에는 爻辭에 있으니 이는 小畜은 密雲이 天空中에 上하여 처음으로 달의 體를 生하는 것이므로 卦辭에 말하고 小過는 旣成한 달의 속에서 次世代의 달이 繼生하는 것이므로 爻辭에 말한 것이다. 이 卦辭와 爻辭의 區別은 마치 蠱卦의 先甲后甲은 果實에서 樹木의 幹이 生함을 象한 까닭에 卦辭에 말하고 巽卦의 先庚後庚은 旣成한 樹木의 가지에서 果實이 生함을 象한 까닭에 爻辭에 말하고 함과 同一한 理이다.

密雲不雨已上也라 함은 小畜에서 生한 先天달은 已上한 달로서 上逆하여 先迷의 象이 된 것이라 함이오 公弋取彼在穴이라 함은 上逆한 달을 弋取하

여 穴에 두어 下順케 한다 함이니 이는 小過卦의 後順得常의 달을 말함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飛鳥의 所遺한 音을 胚胎하고 있는 것이다. 祖妣라 함은 乾과 坤을 말함이니 乾은 乾父의 卦로서 飛龍이 있고 明夷는 坤母의 卦로서 于飛가 있고 小過는 遺音의 卦로서 飛鳥가 있는데 六二의 祖妣君臣의 關係는 이 三飛字로써 表示되는 것이다. 乾의 飛龍은 天에 在하여 萬物을 創造하는 始祖의 象이 되므로 乾의 飛는 祖가 되는 것이오 明夷의 飛는 地道의 象으로서 母가되는데 明夷의 坤母는 萃升에서 終하여 妣가 되는 것이오 小過의 飛鳥遺音은 六二의 生의 中心에서 胚胎되고 있는데 遺音의 生成順序를 보면 먼저 乾飛의 祖를 過하여 來한 것이므로 그 祖를 過한 象이 되는 것이오 다음에 明夷于飛의 母를 遇하여 胚胎되니 小過의 生의 中心의 六二는 곧 明夷于飛하는 母體이오 明夷의 母體는 이미 妣가 된 것이므로 小過의 遺音은 六二에서 妣를 遇한 象이 되는 것이다.

君臣은 乾의 太陽과 坤의 달의 象이다. 六二의 陰은 坤의 달의 象으로서 臣의 象이 되고 달의 承受하는 乾陽의 光明은 君의 象이 되는 것인데 六二의 生의 中心에서 달의 體가 始生하고 달의 體는 坤의 臣道이므로 이는 그 臣을 遇한 象이 되는 것이오 달은 반드시 太陽의 後에 있은 然後에그 光明이 生하는 것이니 이는 坤卦의 後得主의 뜻으로서 臣이 君의 後에 있어 그 君에 及치 못한 象이 되는 것이다.

祖妣君臣關係를 合朔의 象으로써 보면 달이 太陽의 後로 지나온 것은 復上月의 象인 先天의 乾을 過하여 온 것이니 이는 그 祖를 過함이오 달이 太陽의 後에 있으니 이는 그 君에 及치 못함이오 后天달이 先天의 陰精에 附하여 生하니 이는 달이 已死한 妣를 遇함이오 太陽은 君의 象이오 달은 臣의 象이므로 달의 生한 것이 곧 그 臣을 遇함이다. 그러므로 過其祖遇其妣라 함은 乾의 飛龍이 明夷의 坤에 胚胎되어 그것이 小過의 飛鳥遺音으로 된 것임을 말함이오 不及其君遇其臣이라 함은 달이 太陽의 後에 있어 그 光明을 生함을 말함이며 六二에 祖妣君臣의 象이 있는 것은 小過는 新舊의

달의 終始하는 卦이므로 六二의 生의 中心에 달의 生成하는 系統 및 配偶關係를 말한 것이다.

初六과 上九의 飛鳥는 모두 陷하니 이는 卦辭의 可小事不可大事의 뜻이다. 小事라 함은 收斂하는 事이오 大事라 함은 發用하는 事인데 陰이 得中한 까닭에 六二 六五의 陰이 收斂하여 后天달을 生하는 일은 可한 것이오 陽이 失位하여 不中한 까닭에 陽이 發動하여 飛行하는 일은 不可한 것이다. 小過는 飛鳥의 象이오 初六과 上六은 飛行하는 兩翼의 象이오 兩翼의 飛行은 發動하는 象이므로 이 兩爻는 飛하여 陷하는 것이다.

序卦

中孚는 合朔하는 象이오 小過는 달이 太陽의 後로 돌아오는 象이므로 小過가 中孚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山上에 雷가 行하여 終萬物始萬物의 象이 되는 것이오 時候로써 보면 大寒立春의 節에 雷가 鳴動하여 收斂하는 속에 生長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行의 恭과 喪의 哀와 用의 儉은 모두 收斂하는 象이오 過恭過哀過儉은 모두 收斂의 過함이니 이는 終萬物의 象이오 過恭의 속에 行이있고 過哀의 속에 繼世가 있고 過儉의 속에 用이 있으니 이는 始萬物의 象이다.

九三은 東北艮의 달로서 太陽을 過치 못함으로 先天月이 되어 消하는 것이다.

九四는 太陽을 過치 아니하고 遇하여 合朔하는 것이다.

旣濟　　水火

旣未濟者 胎宮水火(乾坤之水火)之相合 而爲乾坤之合者 故越於后天乾坤也

旣濟는 水火卦이니 萬物의 組織은 모두 有形의 始인 水火로써 體를 삼는 것이므로 次世代를 生하는 生生作用에는 水火通明 絶處逢生의 理에 依하여 水火로써 相交하고 物을 胎育하는 胎宮이 水火로써 構成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后天달이 中孚小過에서 太陽의 後로 넘어와서는 또한 水火가 相濟하여 體를 成하는 것이니 旣濟未濟는 달의 體를 成하는 象이며 萬物의 體에는 모두 首尾가 있으므로 萬物의 體의 象이 되는 兩卦의 上爻에는 首를 말하고 初爻에는 尾를 말한 것이다.

달이 后天으로 넘어감에는 또한 水火運行의 力에 依하는 것이니 旣濟는 火가 下에서 推上하는 象이오 未濟는 火가 上에서 牽引하는 象이다. 또 旣濟는 水가 火上에 있어 光明이 掩하므로 夜의 象이 되고 未濟는 火가 水上에 있어 光明이 現하므로 晝의 象이 되는데 中孚에서 日月이 合朔한 後에 小過에서 달이 太陽을 過하여 太陽의 後로 돌아오고 旣濟未濟에서 晝夜를 反復하면서 小過旣濟未濟 三卦의 十八爻 卽 太陽의 後의 十八度以外로 벗어져 나간 然後에 달이 비로소 光明을 生하는 것이오 十八度以外는 곧 다시 乾坤으로 돌아가는 度數이니 달이 다시 乾坤度數로 돌아가서 光明을 生하는 까닭에 이것을 后天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旣濟라 함은 時間的으로 이미 濟한다 함이니 이는 長의 時運이 終盡하고 萬物이 모두 成하여 成의 時運으로 넘어감을 말함이다.

九五의 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는 歸妹六五의 其君之袂不如其娣之袂良과 同一한 象이니 이는 文王八卦圖의 四正卦의 互卦가 모두 旣濟로 되어 旣濟와 歸妹에 先后天달의 變化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先天달인 復上月이 生하는 때에 無妄卦에 天命의 象인 震子가 坤體에 下來하여 坤牛가 灾하니 震은 文王八卦圖의 東方이라 이는 東鄰殺牛의 象이오 東鄰殺牛는 先天달의 生함을 象한 것이다. 后天달의 生할 때에는 萃卦의 坤母가 大牲이 되어 禴祭에 用하니 萃卦는 天命을 順하여 兌澤의 속에 后天달을 孕胎하는 象이오 兌澤은 文王八卦圖의 西方이라 이는 西鄰禴祭의 象이오 西鄰禴祭는 后天달의 生함을 象함이며 小象의 吉大來는 朔日의 큰 달이 來한다 함이다. 旣濟九五는 合朔後에 太陽의 後의 十度를 넘는 成의 中心이므로 여기에 先后天달의 象을 말하여 先天의 復上月은 后天달의 大來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旣濟九五에 牛의 象을 말한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后天의 달은 幼虫이 蠶生하여 鳥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그 形象은 鳥를 象한 것이오 后天은 物의 成하는 坤陰의 時運으로서 坤牛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그 時運은 牛를 象한 것이니 그러므로 九五의 속에 있는 달은 大牲의 子인 童牛이며 이 童牛는 또한 先天에 無妄卦의 東鄰牛의 子인 大畜卦 童牛의 胎育된 者이다.

初九는 火가 下에서 推上하는 基底이므로 圓月을 推上함을 象하여 曳其輪이라 한 것이다.

娣는 巽娣이니 易理에 婦는 모두 巽의 象이며 六二의 婦는 歸妹卦에 말한 中孚卦의 月幾望하는 巽娣이다. 茀은 草와 弗로 되어 草가 動하여 下로부터 逆生함이니 震子의 象이다. 六二는 生의 中心에서 달의 生하는 位인데 旣濟는 夜의 象으로서 光明이 掩蔽되고 있으므로 巽娣가 震子를 喪失한 象이 되는 것이며 勿逐七日得이라 함은 七日은 달의 象이니 逐치 아니하여도 달의 光明은 저절로 얻어진다 함이오 彖의 初吉柔得中은 이 六二爻의 象을 말함이다. 終止則亂其道窮이라 함은 上爻의 濡其首를 말함이니 새달이 生하고 舊體는 終하고 止하여 一陰一陽하는 道가 窮하므로 小象에 何可久也

라 한 것이다.

사람의 死後에는 游魂이 鬼神으로 되니 生前에 物質生活을 하는 生長本能은 鬼가되고 天性의 여문 것은 神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死後에는 반드시 鬼神이 있는 것인데 오직 生長本能이 强하여 天性이 여물지 못하고 物質生活을 爲主하던 사람은 死後에 神作用이 거의 없고 鬼만 있으며 物質生活을 主하는 사람들의 居하는 곳에는 神이없고 鬼만 있으므로 그러한 地方을 鬼方이라 하는 것이다. 高宗은 震巽이니 震巽은 長男長女로서 五行의 宗이므로 高宗이라 하는데 易理에 雷風은 神의 作用을 行하고 鬼方을 伐하는 것은 雷風의 神이니 그러므로 旣濟九三의 高宗과 未濟九四의 震은 곧 雷風의 神이다. 旣濟에 雷風을 모두 말하고 未濟에 雷만을 말한 것은 雷는 時間的 繼承作用을 行하고 雷風은 모두 空間的擴大作用을 行하는데 旣濟에는 水火衝擊하는 空間的變化가 있으므로 空間的作用을 行하는 雷風을 아울러 말하고 未濟에는 易經의 最終卦로서 先后天을 連繼하는 時間的變化가 있으므로 時間的作用을 行하는 雷만을 말한 것이다.

鬼神을 水火로써 보면 鬼는 水의 象이오 神은 火의 象이니 그러므로 鬼方은 北方坎水의 象이며 坎水에 相接한 神이 鬼方을 伐하는 것이므로 旣濟에는 坎水에 相接한 九三의 火에 高宗伐鬼方이 있고 未濟에는 坎水에 相接한 九四의 火에 震用伐鬼方이 있는 것이다.

易卦의 互卦의 理에는 旣濟未濟에 易子而敎하는 師傳道의 象이 있으니 師傳道는 곧 神道로서 雷地豫의 聖人刑罰淸의 制度와 風地觀의 聖人神道設敎의 敎가 모두 師傳道이며 그러므로 旣濟未濟의 伐鬼方은 雷風神이 師傳道를 行하는 象이오 成의 時運에는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서 神道가 行하는 까닭에 先后天을 連繼하는 旣濟未濟에 神道를 말한 것이다.

旣濟未濟는 文王八卦圖의 地方의 位는 없고 妙萬物而爲言하는 乾坤의 神에 當하여 能變化旣成萬物의 象이 되니 旣濟未濟에 雷風의 神이 있는 것은 乾坤神의 所使이며 易卦에 「變化」의 辭가 있는 것은 오직 乾象의 乾道變化

와 坤文言의 天地變化와 雷風恒의 四時變化이니 乾坤雷風에 神의 象이 있어 變化作用을 行하는 까닭에 이 三卦에만 變化의 辭가 있으며 繫辭에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라 한 것도 乾坤雷風의 變化作用이 곧 神의 所爲이라 함을 말함이며 그러므로 后天달의 生하는 旣濟未濟에는 神의 變化作用이 行하고 있는 것이다. 旣濟未濟는 天地水火의 相合한 反易 變易 交易의 三易卦이므로 이 神作用은 文王八卦圖의 어느 一地方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天地水火의 運行하는 곳에 神의 作用이 行치 아니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序卦

小過는 달이 太陽의 後로 돌아오는 象이오 旣濟는 后天의 成의 時運으로 넘어와서 萬物을 모두 成하는 象이니 그러므로 旣濟가 小過에 次하는 것이다.

大象

旣濟는 水가 火上에 있어 水火의 衝擊하는 象이므로 水火變動의 患이 있는 것이다. 豫卦는 生의 時運의 終卦인데 旣濟가 또한 未濟와 함께 長의 時運의 終宮이므로 豫字로써 旣濟에서 長의 時運의 終하는 象을 表示한 것이다.

繻는 關門을 出入하는 때에 包帛을 裂하여 符信으로 쓰는 帛邊이오 衣袽는 弊衣이니 六四는 水火의 界와 日入의 界에 있는 關門의 象이므로 布帛의 符信을 말한 것이오 弊衣의 象을 取한 것은 乾은 衣象이라 先天의 終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旣濟未濟는 文王八卦圖에 南北水火의 卦로서 上下를 圜行하는 象이 있어 旣濟는 南에서 北하여 南卦의 初는 尾가되고 北卦上은 首가되며 未濟는 北卦의 初는 尾가되고 南卦의 上은 首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旣濟未濟의 初爻와 上爻에 모두 首尾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上經에서 下經으로 넘어가는 卦에는 頤 大過 坎 離가 있어 모두 反易이 없는 圜轉卦로서 顚倒하되 形이 變치 아니하는 卦인데 下經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卦는 中孚 小過는 頤 大過와 같은 圜轉卦인데 旣濟未濟는 圜轉卦가 아니오 顚倒하면 形이 變하는 것이다. 그러나 旣濟未濟가 運行하는 때에는 水火가 南에서 北하고 北에서 南하여 循環함이 端이없어 首尾가 相聯하여 圜轉卦의 形態가 되는 것이니 旣濟未濟의 初爻와 上爻에 首尾를 말한 것은 兩卦에 圜轉하는 形態가 있음을 表한 것이다.

未濟　　火水

未濟가 夬와 相照하는 것은 夬의 所施한 陽精水가 未濟의 水가되어 后天乾이 되는 까닭이다.

未濟는 火水의 卦이니 그 要旨는 旣濟卦下에 씌어있다. 旣濟는 「이미 濟한다」는 뜻인즉 未濟는 「아직 濟치 아니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濟한 속에 아직 濟치 아니한 次世代가 있다 함이니 또한 未來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草木으로써 보면 草木의 生長이 極하여 收斂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旣濟의 象이오 열매가 여물어서 次世代의 繼承者가되는 것은 未濟의 象이며 달로써 보면 先天달의 體가 終하면서 后天달의 始하는 것은 旣濟의 象이오 后天달이 始生하여 后天으로 건너가서 여무는 것은 未濟의 象이다. 그러므로 未濟에는 새로 맺힌 六月열매가 아직 未成한 채로 가을로 건너가

는 象이 있으니 未字는 木의 枝葉이 重疊하여 老하고 열매가 맺힌다는 뜻으로서 六月열매의 象이므로 六月을 未月이라 하는 것이며 未成한 六月열매가 가을로 건너가는 것은 艮兌二少로써 構成된 未成한 달이 成의 時運으로 건너가는 것과 同一한 象이다.

狐는 犬과 瓜로 되고 犬과 瓜는 모두 艮의 象이오 狐가 또한 艮의 黔喙의 屬이니 小狐라 함은 艮果의 幼少함을 象한 것이오 이는 生의 中心인 九二爻의 象이며 解卦에도 百果草木의 象이 있으므로 九二爻의 生의 中心에 狐象을 말한 것이다. 小狐汔濟라 함은 草木으로서는 未成한 열매가 가을로 건너가는 象이오 달로서는 未成한 艮兌의 달이 成의 時運으로 건너가는 象이다. 汔은 水의 下漏하는 象으로서 井卦에 汔至의 象이 있고 井은 胎宮卦인데 地道七宮은 胎兒가 胎宮에 있음을 象한 것이오 未濟의 달도 아직 胎宮에 있는 것이므로 汔字를 써서 未濟의 달이 아직 胎宮의 井水中에 잠겨 있는 沈水潛月이라 함을 表한 것이다.

易卦中에 六爻가 모두 不當位하여 陽이 陰位에 있고 陰이 陽位에 있는 것은 오직 未濟一卦이니 全卦의 不當位는 不安定한 象이며 비록 不安定하되 六爻의 剛柔가 모두 應하므로 圜轉하면서 濟하는 것이다.

六五君子之光은 달의 光明의 暉이니 六五는 달의 陰精의 成의 中心이므로 그暉가 비로소 生한 것이오 九二曳其輪은 火가 上에서 牽引하는 象이다.

六三은 坎水가 離火로 건너가는 分界이니 이는 上經에 習坎에서 離로 넘어가는 象과 同一하므로 六三에 六月열매의 건너가는 未濟를 말한 것이오 그러므로 旣濟未濟의 兩卦에 爻辭에 卦名을 말한 것은 오직 未濟六三一爻뿐이다. 未濟는 陽體의 坎水를 陰體의 離火宮에 施하여 長하는 陽運에서 成하는 陰運으로 넘어가는 象이 되므로 雜卦에 「未濟는 男의 窮함이라」 한 것이오 六三의 利涉大川은 陽運의 陽精水가 陰運의 坤川으로 흐르는 것을 象한 것이다.

九四의 震用伐鬼方은 旣濟卦下에 씌어 있다.

上六의 是字는 光明과 直의 兩象이 있는데 乾初九의 文言에 또한 不見是而無悶이라 하여 一是字를 써서 未濟上六爻辭의 終端의 是字와 相結하니 이는 未濟의 終端에 있는 光明이 다시 乾에 連하여 始한다 함을 表한 것이다.

序卦

旣濟는 長의 時運의 萬物이 이미 濟한 象이오 未濟는 萬物의 이미 濟한속에 아직 濟치 아니한 次世代의 열매가 있어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고 있는 象이니 그러므로 未濟가 旣濟에 次하는 것이오 이 열매는 다시 乾에 連繼되어 永續不窮하는 것이다.

大象

物은 等分이오 方은 方所이며 辨物은 火의 明한 象이오 居方은 水의 聚하는 象이니 繫辭의 方以類聚物以群分이 곧 辨物居方의 뜻이다. 未濟는 天地日月水火의 大變化하는 卦로서 人間生活에 또한 大變化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分하고 聚하고 함을 愼한다고 한 것이다.

未濟는 文王八卦圖互旣濟이니 上爻陽下爻陰故 天地間에서 胎兒가 成하여 人體가 된 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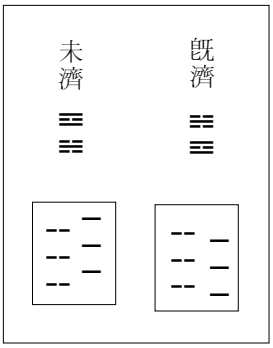
初六의 濡其尾는 象의 不續終이다. 旣濟와 未濟는 서로 圜轉하는 卦이므로 未濟의 濡其尾가 곧 旣濟의 濡其首이오 旣濟의 首가 可久치 못하므로 未濟의 尾가 또한 續終치 못하여 時運의 極함을 知치 못하는 것이다.

未濟上九의 濡其首는 곧 旣濟의 濡其尾이오 旣濟의 尾가 無咎하므로 未濟의 首가 또한 無咎한 것이다.

上九의 有孚于飮酒는(需于酒食) 需卦의 象이니 未濟는 沈水潛月로서 需卦의 天이 水中에 있는 象이 되므로 需卦의 象을 取한 것인데 需는 乾이 剛健하여 陷치 아니하므로 濡字에 水가 없는 需의 象이 되고 上九는 剛健치 못하므로 陽이 醉倒하여 濡首失是의 象이 되는 것이며 이가 未濟男之窮也라 함이다.(濡其首有孚失是는 訟卦의 象이다.)

初六에 亦不知極이라 하고 上九에 亦不知節이라 하니 이는 先后天의 달의 變化하는 節卦의 象을 因하는 것으로 極은 節九二의 失時極의 極이오 節은 節卦의 節이다. 初六은 續終치 못하여 終하니 이는 또한 節 九二의 失時極함을 알지 못하고 되풀이 함이오 上九는 濡首하여 男의 窮이 되니 이는 또한 節卦의 其道窮함을 아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雜卦終段의 旣濟未濟의 理에 依하여 旣濟는 火가 下에서 推上하고 未濟는 火가 上에서 引上하는 것이다. 旣濟는 乾在坤下而推上 未濟乾在坤上而引上也



未濟當於丙午 而物之運行於終點疊?步 故丁未亦當於未濟 未濟者丁未之濟也 丁者 後甲三日之終 先庚三日之始 故自長之時運越於成之時運之象 所以丁未當未濟也

繫辭 上

繫辭는 사람의 成道함을 主하여 지은 글이다.

一. 天尊地卑章

天尊地卑乾坤定矣 ----在地成形變化見矣

易卦의 六十四卦는 모두 乾坤에서 生한 것이므로 繫辭의 첫머리에 乾坤의 作用을 말한 것이다. 天尊地卑는 乾坤이 上下에 定位함이오 地는 卑하고 天은 高하여 上下에 陳하니 陳은 列함이오 貴賤은 乾坤의 尊卑의 象으로서 乾을 貴하다 하고 坤을 賤하다 하는 것이오 動靜은 乾坤의 作用으로서 動은 能動함이오 靜은 受動함이며 有常이라 함은 坤이 乾을 承하여 主를 得하여 常이 있다 함이오 斷이라 함은 剛柔는 下文의 剛柔相摩의 乾剛坤柔이오 陰陽이 異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決한다 함이니 이는 乾의 能動과 坤의 受動이 常道가 있으므로 乾剛坤柔의 動靜이 一로 決하여 分하면 一하고 一하면서 分하고 하는 것이다.

方以類聚는 坤의 作用이오 物以群分은 乾의 作用이다. 方은 陰의 偶하여 靜한 象이오 類聚는 同類의 物이 聚居함이니 地는 靜하여 形을 凝하는 것이므로 同一類의 形이 同一한 地宜에 聚하여 同居하는 것이며 物은 等位를 말함이오 群은 陰의 象으로서 各自派分하는 것이니 天은 動하여 聚散分合하는 것이므로 各其上下의 等位를 따라서 서로 群을지어 分居하는 것이다. 萬物의 聚分作用은 聚가 있는 곳에 分이있고 分이 있는 곳에 또한 聚가 있으며 또 聚에서 分이 生하고 分에서 聚가 生하니 그러므로 聚分의 際에는 반드시 愛惡의 情이 相攻하고 또 物이 相雜하여 合當치 못한 部面이 있어서 或은 繼生하고 或은 陷死하고 하는 吉凶이 生하는 것이니 이가 類聚와 群分이 吉凶을 生하는 所以이다.

卑高 動靜 聚分은 乾坤의 作用이로되 乾坤이 六子를 生하는 것이므로 이것

은 또한 六子의 作用도 되는 것이다. 卑는 地에 屬하는 兌澤이오 高는 天에 屬하는 艮山으로서 物의 形質을 成하는 것인데 天地의 生生은 有形에서 始하므로 乾坤의 다음에 山澤을 말한 것이다. 動은 震雷이오 靜은 巽風으로서 震雷는 能動하고 巽風은 受動하므로 動靜이라 한 것이오 物의 有形의 속에는 반드시 無形한 雷風의 氣가 作用하므로 山澤의 다음에 雷風을 말하니 이는 澤山咸의 다음에 雷風恒이 序하고 山澤損의 다음에 風雷益이 序하는 理이다. 方聚 物分은 未濟卦大象의 辨物居方의 뜻으로서 方聚는 水의 凝聚하는 作用이오 物分은 火의 發散하는 作用이며 水의 속에 生命을 包하고 火의 속에 神의 作用을 含하여 萬物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으므로 物의 聚分은 모두 水火의 作用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天地 卑高 動靜 聚分의 八卦의 象은 說卦의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와 相照하여 生의 時運에 씨에서 싹이 坼出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在天成象은 天의 日月이오 在地成形은 地의 萬物이니 天에 在한 日月은 그 形質을 接觸할수가없고 그 光熱같은 象만을 懸하여 地上에 垂示하는 것이므로 成象이라 한 것이오 地의 萬物은 地上에서 形質을 生成하고 있으므로 成形이라 한 것이다. 天上에서 日月이 運行하고 地上에서 萬物이 生成하여 모든 變化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生의 時運의 象이다.

是故剛柔相摩 ---- 坤道成女

剛柔는 乾陽과 坤陰이니 剛柔相摩라 함은 陰陽의 交互作用하는 象이오 盪은 皿上에 沸湯이있어 湯이 對流함이니 八卦가 上下로 交流하는 象이다. 雷霆은 震雷와 離火이오 風雨는 巽風과 坎水이니 雷風은 氣이오 水火는 精이라 乾坤生命元이 雷風의 氣를 生하여 氣化하고 水火의 精을 生하여 精化하는 것이 곧 鼓之潤之의 作用이다. 日月은 坎離이오 寒暑는 艮兌이니 艮에서 萬物이 止하는 것은 寒의 象이오 兌에서 萬物이 說하는 것은 暑의 象이며 澤山咸卦에 寒暑相推의 象이 있는 것은 이 까닭이오 寒暑는 物을 形

化하는 作用이다.

男女라 함은 萬物의 雌雄牝牡를 總言한 것이다.

男女는 陽과 陰의 象인데 或은 男이 되고 或은 女가 되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萬物은 男女가 모두 陰과 陽으로 組織되어 있으되 다만 相異한 바는 坤體가 乾陽을 受하여 男을 生하는 까닭에 男은 陰體陽用이 되고 乾體가 坤陰을 受하여 女를 生하는 까닭에 女는 陽體陰用이 되어 그 體用關係를 달리한 것뿐이며 乾道라 함은 陰體陽用의 一陰一陽하는 道이오 坤道라 함은 陽體陰用의 一陰一陽하는 道이다. 이 一節은 說卦의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暄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와 相照하여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에 天地가 最初로 男女를 生하여 地上에서 男女가 비로소 分化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雷霆의 鼓와 風雨의 潤은 震雷巽風의 氣가 相應하고 離霆坎雨의 水火의 精이 相聚함이오 日月의 運行은 太陽의 震子와 달의 兌澤이 合體하여 씨로 되어 生命體를 生함이오 一寒一暑는 生命體가 艮山兌澤의 質과 寒暑의 止說에 依하여 形이 成함이다. 여기에 日月과 寒暑를 말한 것은 物의 生生에 生命과 形質의 두 가지가 있음을 因함이니 物의 生生함에는 生命은 光明에서 오는 까닭에 萬物의 씨는 日月에서 生하는 것이오 形質은 寒暑로써 養育되는 까닭에 春夏에 長育하고 秋冬에 收藏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月이 相推하여 明이 生하고 明이 生하는 까닭에 生命이 生하는 것이오 寒暑가 相推하여 歲가 成하고 歲가 成하는 까닭에 形質이 成하는 것이다. 乾坤은 生命元이 되어 乾道가 男을 成하고 坤道가 女를 成하니 乾坤에는 日月의 光明이있고 그 光明에 運動하는 힘이 있는 까닭에 生命元이 되는 것이다.

乾知大始 ---- 成位乎其中矣

乾知大始라 함은 知는 光明의 發射함이오 大는 大哉乾元이오 始는 萬物의 資始함이니 乾은 光明의 속에 씨의 元인 震子가 있어 萬物에 周遍하여 資始作用을 行하는 것이오 坤作成物이라 함은 作은 制作함이오 成物은 物의 形體를 成함이니 坤은 乾의 씨를 承하여 그것을 制作하여 物을 形成하는 坤元資生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易簡이라 함은 日月의 陰陽作用이니 易는 平易함이오 簡은 簡約함이다. 太陽의 發施作用은 易하므로 日로된 易字를 쓰고 달의 承受作用은 簡하므로 月로된 簡字를 쓴 것이다. 乾以易知라 함은 乾의 發施는 易의 作用으로써 光明을 發射하여 知하다 함이니 知는 光明을 發하여 萬物에 射함이오 坤以簡能이라 함은 坤의 承受는 簡의 作用으로써 乾의 光明을 受하여 物을 作成하는 能이 있다 함이니 能은 才能이라는 뜻이다.

乾은 易하므로 光明을 發하여 遠射하기가 쉽고 坤은 簡하므로 光明을 承하여 應從하기가 쉬우며 知하기가 쉬우면 親함이 있으니 親이라 함은 萬物을 生하는 父母가됨이오 應從하기가 쉬우면 功이 있으니 功이라 함은 萬物을 作成하는 功業이다. 親함이 있으면 可히 久하니 이는 萬物의 父母가되면 恒久히 繼承한다 함이오 功이 있으면 可히 大하니 이는 作成하는 功業이 이루면 富有의 大業이 된다 함이다. 可히 恒久하면 이는 賢人의 德이니 德이라 함은 物을 生生하는 光明한 體를 말함이오 可히 富大하면 이는 賢人의 業이니 業이라 함은 物을 生生하는 事業을 말함이다.

易簡의 德業에 對하여 或은 聖人의 崇德廣業을 말하고 或은 君子의 進德修業을 말하고 或은 賢人의 可久之德 可大之業을 말하니 崇德廣業은 天의 崇과 地의 廣을 象한 것이므로 聖人의 일이 되는 것이오 進德修業은 사람의 修養을 말한 것이므로 用事하는 位에 있는 君子의 일이 되는 것이오 賢人은 人品의 賢함을 말함이라 可久之德과 可大之業은 天地間에 三才의 位를 成하는 사람의 일이므로 用事하는 位를 取하지 아니하고 그 人品의 賢함을 取하여 賢人이라 한 것이다.

理라 함은 對待를 調和함이니 萬物은 모두 對待의 二元組織으로 되어 있으므로 對待를 調和한 然後에 生生作用이 行하는 것이다. 天地間에는 日月이 運行하여 易簡의 道로써 萬物의 對待를 調和하고 人間社會에서는 賢人이 易簡으로써 社會生活의 모든 對待를 調和하는 것이니 社會의 對待를 調和함이 곧 天下의 理가 得함이오 社會의 對待를 調和하는 賢人은 天地의 中에서 三才의 位를 成하는 것이다.

二. 聖人設卦 章

聖人設卦觀象 ---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聖人이 易을 作하여 設卦 觀象 繫辭하는 것은 吉凶을 밝히기 爲함이오 卦와 爻에는 剛柔가 相推하여 變化를 生하니 明吉凶 生變化는 前章의 吉凶生矣 變化見矣를 承하여 말한 것이다. 明吉凶이라 함은 方以類聚物以群分하는 吉凶을 밝힘이니 卦爻中의 吉凶은 或은 聚하고 或은 分하고 하는 愛惡의 情을 因하여 生하는 것이오 生變化라 함은 在天 成象 在地成形하는 變化를 말함이니 卦爻中의 變化는 陰陽이 或은 進하고 或은 退하여 成象成形함을 因하여 生하는 것이다.

吉凶은 聚分하는 失得의 象이니 分은 失하여 凶함이오 聚는 得하여 吉함이다. 悔는 陽이 過動하여 陰中에 陷하여 心의 疾하는 것이오 吝은 陰이 收縮함이 過하여 吝嗇하여 進路가 窮한 것이다. 悔는 過함이오 吝은 不及함이다. 憂는 吝의 象이오 虞는 悔의 象이니 憂는 頭가 下垂함이오 虞는 虎가 大口 出聲하는 것으로서 震子의 鼓動하는 象이다. 悔는 陽이 陰에 陷하여 心의 疾하는 것인데 陽에는 能動作用이 있으므로 中途에서 懺悔하여 震子의 鼓動作用으로써 陷中에서 出하여 常道에 復하면 吉이 되는 것이오 吝은 陰이 收縮하여 吝嗇한 것인데 陰의 收縮이 過度하여 吝嗇에서 出치 못하고 進路가 窮하면 凶이 되는 것이니 事物의 聚分함에는 悔吝의 憂虞過程

을 거쳐서 失得이 生하여 得한 者는 吉이 되고 失한 者는 凶이 되는 것이다.

變化라 함은 剛柔가 相推하여 進하고 退하고 하는 象이오 剛柔相推라 함은 日月晝夜의 相推하는 象이니 萬物의 變化는 모두 日月이 運行하고 晝夜가 交代하여 光明의 消長하는데서 生하는 것이므로 卦爻에도 光明의 消長하는 象이 있는 곳에 變化가 生하는 것이다.

三極이라 함은 天의 太極과 地의 無極과 人의 皇極이니 六爻에는 上五의 兩爻가 天이 되고 三四의 兩爻가 人이 되고 初二의 兩爻가 地가 되는데 六爻를 靜的으로 보면 六爻는 天人地의 三才의 道가되고 動的으로 보면 六爻에 成象成形하는 變化가 있어 太極 皇極 無極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六爻의 動하여 變化를 生하는 것은 三極의 道이다.

三極의 道를 物의 生生으로써 보면 太極은 陽體의 象이오 無極은 陰體의 象이오 皇極은 太極과 無極이 相交하여 사람을 生하는 位의 象이니 天地가 相交하여 사람을 生하는 것이 곧 成象成形하는 變化이므로 六爻가 動하여 變化를 生하고 사람이 三才의 位에 있는 象에 三極의 道를 말한 것이오 三極의 道는 곧 사람의 生하는 道이다.

是故君子所居而安者 --- 自天祐之吉無不利

易의 序라 함은 六十四卦의 卦序이오 卦序는 三極의 道로써 天地萬物의 生長成하는 象을 表示한 것이니 이는 사람이 天地中에 生하여 皇極의 位에 居하는 象이므로 君子가 居하여 安하는 것이오 爻의 辭라 함은 三極이 一陰一陽하는 道로써 動하는 六爻의 辭이니 六爻의 辭는 사람이 皇極의 位에서 動하고 있는 길을 指示하는 것이므로 君子가 樂하여 遊心하는 것이다.

觀象 觀變 玩辭 玩占의 象變辭占은 聖人의 四道이오 이 四道는 至精 至變

至神한 神道이므로 君子가 이것을 觀玩하면 天祐神助를 받는 것이다. 自天祐之吉無不利는 大有上九爻辭로서 달에서 賢人의 씨가 生할 때에 天祐를 받고 있음을 말함이니 聖人의 四道가 또한 天祐를 받는 神道이므로 大有上九爻辭를 引用하여 말한 것이다.

三. 彖者言乎象 章

彖者言乎象者也 --- 無咎者善補過也

彖者言乎象이라 함은 前章의 設卦 觀象 繫辭를 말함이오 爻者言乎變이라 함은 前章의 剛柔相推生變化를 말함이다. 吉凶者言乎其失得이라 함은 物의 聚하고 分하고 하여 失하면 凶하고 得하면 吉하고 함을 말함이다. 悔吝者言乎其小疵라 함은 吝은 小이오 悔는 疵이며 小는 陰의 收縮吝嗇함이오 疵는 疾이니 陽이 過動하여 陰中에 陷하여 心의 疾함이다. 無咎라 함은 咎는 人과 各으로 되어 사람이 서로 異各함이니 陰陽이 서로 異各치 아니하는 것이 곧 無咎이니 善으로써, 過度하는 悔를 補하면 서로 異各치 아니하는 것이다. 悔와 咎는 모두 物의 聚分作用의 過程에 그 度를 過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是故 列貴賤者存乎位 --- 辭也者 各指其所之

列貴賤이라 함은 第一章의 貴賤位矣의 뜻을 承함이니 貴는 天의 象이오 賤은 地의 象이라 卦爻에는 天位를 貴라하고 地位를 賤이라 함으로 「三多凶五多功 貴賤之等」이라 한 것이오 齊小大라 함은 第一章의 方聚物分의 뜻을 承함이니 小는 收斂하여 聚하는 象이오 大는 生長하여 分하는 象이라 收斂卦와 生長卦가 均齊히 配置된 것이 곧 齊小大이다.

辨吉凶이라 함은 第二章의 繫辭焉而明吉凶을 承함이오 憂悔吝이라 함은 第二章의 憂를 말함이오 震無咎라 함은 第二章의 虞를 말함이다. 介는 界의 뜻이니 陽의 發動하는 度와 陰의 收縮하는 度가 곧 介이므로 悔吝을 憂하는 것은 介를 過치 아니하기 爲함이오 震은 大口出聲하는 虞虎의 象이니 震이 陰과 異各치 아니하는 것은 懺悔하여 常道에 復한 까닭이다.

險易라 함은 乾의 德行이 恒易하여 險함을 知한다는 뜻이니 易는 乾의 易簡이오 險은 易簡치 못한 險阻이다. 卦에는 聚하고 分하고 하는 小大가 있고 辭에는 易簡하고 險阻하고 함이 있으니 그러므로 卦爻의 辭는 各各 그 進出하는 길의 易簡하고 險阻하고 함을 指示한 것이다.

之라 함은 草木이 出하여 莖枝가 長한다는 뜻이니 卦爻의 辭는 草木의 出하여 長함과 같이 物의 生長하는 길을 말한 것이다.

四. 易與天地準 章

易與天地準 --- 知鬼神之情狀

이 章은 前章의 辭也者各指其所之를 承하여 易의 辭의 所指를 말한 것이다.

準이라 함은 水平으로 行한다 함이니 易學은 天地의 模寫圖로서 天地로 더불어 水平으로 行하여 함께 推移하는 까닭에 能히 天地의 一陰一陽하는 道를 彌縫織組하는 것이다. 天文이라 함은 太陽의 晝夜 달의 晦望等이오 地理라 함은 地의 四方 地上地下等이오 幽明이라 함은 달의 光明의 顯藏함이다. 달의 面은 太陽의 光을 받으면 明하고 太陽의 光을 받지 못하면 幽하니 이가 幽明이오 明은 生의 象이오 幽는 死의 象이라 달의 光明은 前面과 裏面을 循環하여 顯藏은 있으되 生死는 없는 것이며 달의 陰質은 太陽의

光을 받으면 明하여 生하는 象이 되고 光을 받지 못하면 幽하여 死하는 象이 되니 明과 幽는 生과 死의 象이다.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한 것인데 달에 幽明의 象이 있으므로 달의 陰質의 象인 사람의 形質에는 死生의 象이 있고 달의 光明의 象인 사람의 精神에는 顯藏만 있고 生滅이 없는 것이다. 仰과 俯는 上天下地의 象이오 幽明은 上天下地의 關係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仰觀俯察하면 幽明의 事故을 知하는 것이다. 原始라 함은 始하여 生하는 곳을 推原함이오 反終이라 함은 死하여 終하는 곳을 뒤집음이다. 사람은 生命의 元에서 始하여 生하고, 生이 다시 生命의 元으로 圜行하면 終하여 死하는 것이니 이는 死의 속에 生의 原이있고 生의 속에 死의 本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始를 推原하면 거기에는 死가 있고 終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生이 있어 死生이 互根하니 이가 사람의 死後에 鬼神이 存在하는 原理이다.

說이라 함은 死生에 對한 論爭이라는 뜻이니 知死生之說이라 함은 從來로 紛紛相訟하는 死生論爭을 判斷할 수 있다 함이다. 精氣爲物 游魂爲變이라 함은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하여 有形한 精과 無形한 氣로써 組織되는데 그 有形한 것은 形質이 되고 無形한 氣는 天性이 되는 것이며 形質은 有形하고 有形은 다시 無形으로 되어 生滅이 있으므로 肉體에는 死生이 있고 天性은 無形하고 無形은 生滅이 없으므로 天性에는 顯藏이있고 死生이 없어 사람의 死後에는 天性이 藏하여 游魂이 되는 것이니 이 游魂이 곧 鬼神의 情狀이다.

情은 鬼의 作用이오 狀은 神의 作用이니 生前의 本能인 情은 鬼의 作用으로되고 生前의 心의 光明은 神의 作用인 狀으로 되는 것이다. 이 一節은 易의 辭에 依하여 幽明 死生 鬼神의 理를 知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與天地相似故不違 --- 安土敦乎仁故能愛

易學은 天地의 模寫圖로 되어 天地로 더불어 相似한 까닭에 天地와 相違치 아니하여 天地에 知와 仁이 있어 知崇禮(仁의 發展한 것)卑함과 같이 易理에 또한 知와 仁이 있는 것이다.

知는 光明의 發射함이니 곧 乾의 易知의 知이며 知가 萬物에 周遍하여 一陰一陽하여 天下의 生生을 濟하므로 陰陽이 道를 過치 아니하여 咎하는 過가 없는 것이오 이는 天의 事이다. 旁行이라 함은 中心으로부터 圓形으로 外向하여 行함이오 流라 함은 下로 陷하여 垂流함이오 樂天이라 함은 上으로 天의 光明을 向하여 喜함이오 知命이라 함은 天의 賦與한 命을 따라서 行함이오 不憂라 함은 憂悔吝하는 憂가 없다 함이니 光明이 中心으로부터 四方으로 旁行하여 乾陽의 光明을 順承하여 運行하므로 悔吝하는 過不及의 憂가 없는 것이니 이는 달의 事이다.

安土는 地의 象이오 敦은 열매의 象이오 仁은 열매의 子仁의 象이오 愛는 陰陽이 和合하여 陰이 陽을 包育하는 象이니 安土敦乎仁이라 함은 地가 安定하여 萬物을 生하고 기르고 여물게 하여 子仁을 包育하는 것은 곧 仁의 象이니 이는 地의 事이다. 이 一節은 易의 辭에 天의 知와 달의 順天命과 地의 仁의 象이 있다 함을 말함이다.

範圍天地之化而不過 --- 神無方而易無體

範圍라 함은 規模包括함이니 圓狀의 속에 物을 包括하는 象이다. 範圍天地之化而不過라 함은 天地의 化生 化成하는 作用을 規模하여 圓狀의 속에 包括하여 咎하는 過가 없는 것이다. 曲은 曲盡하다는 뜻으로서 또한 圓狀의 範圍라는 뜻이니 曲成萬物而不遺라 함은 萬物을 남김없이 天地의 圜運動의 속에 包하여 여물게 한다 함이다.(過過度也遺不及也過遺者悔吝也)

晝夜之道라 함은 日月이 相推하여 一陰一陽하여 變化를 生하는 道이니 第二章의 「剛柔相推而生變化 剛柔者 晝夜之象也」의 뜻을 承한 것이다. 晝夜가 相推하여 變化를 生하고 變化의 道를 知하는 者는 神의 所爲를 知하는 것이니 天地間萬物의 變化는 모두 晝夜의 道로서 神의 所爲이며 晝夜의 道를 通하여 知한다 함은 變化의 道를 知하여 神의 所爲를 知한다 함이다. 萬物은 日月의 相推運動에 依하여 不斷히 變化하여 一定한 方所도없고 一定한 形體도 없으므로 變化를 行하는 神도 一定한 方이없어 無所不在하는 것이오 天地와 準似한 易도 萬物의 變化하는 狀態를 象하여 또한 一定한 形體가 없는 것이다. 이 一節은 易의 辭에 日月變化의 道와 神의 所爲의 象이 있다 함을 말함이다.

五. 一陰一陽 章

一陰一陽之謂道 --- 君子之道鮮矣

本章以下는 사람이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天性이 여물고 神의 作用이 生함을 말한 것이다.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은 天地의 道이니 易學에 道라 한 것은 모두 一陰一陽하는 天地運行의 道를 말함이다.

繼之者善이라 함은 사람은 天地의 子로서 天地를 繼하여 生하는데 物의 生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의 子仁에서 繼生하는 것이오 子仁은 四德의 一인 仁의 象이오 仁의 發用하는 것이 곧 善이다. 그러므로 物의 繼生하는 者는 모두 善함이오 사람의 善言善行같은 것은 모두 여문 열매의 子仁에서 繼生하는 象이며 子仁의 없는 열매는 發用하는 善이 없으므로 쭉정이가 되어 繼生치 못하는 것이다.

成之者性이라 함은 善이 天地를 繼하여 生하면 自體의 生生法則에 依하여 生하는 者는 반드시 長成하는 것이오 善이 長成하면 그것이 子仁으로 되어 바로 사람의 天性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에는 天地의 作用이 있으므로 또한 天性의 作用인 仁과 知가 있는 것이며 仁은 地의 象이오 知는 天의 象인데 萬物은 地에서 生하여 天을 向하여 上進하는 것이므로 善이 成하여 天性이 仁하면 仁은 스스로 知를 得하게 되는 것이니 이 仁과 知가 곧 天性組織의 바탕이다.

天性의 仁知한 者는 天地의 仁知한 作用을 보고 거기에 共感하여 그 仁知를 稱揚하는 것이오 百姓은 天地의 仁知를 日用하되 그것이 仁知인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鮮은 震爲蕃鮮의 鮮인데 蕃鮮이라 함은 震子가 胎中에서 始生하여 微小하다 함이니 君子之道鮮矣라 함은 多數한 百姓은 君子의 道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君子의 道가 微小하다 함이다. 百姓은 君子와 對稱한 말로서 多數한 民이라는 뜻이다.

顯諸仁 ..... 日新之謂盛德

一陰一陽하는 天地運行의 道는 地의 仁을 顯하고 仁의 用으로 되는 天의 知를 藏하여 萬物을 鼓動하여 生生하니 顯諸仁이라 함은 秋冬에 收藏한 草木의 子仁을 春夏에 發顯함과 같음이오 藏諸用이라 함은 春夏에 發顯한 草木이 열매를 맺으면 秋冬에 그 속에 光明한 神의 作用을 收藏함과 같음이며 이 一顯一藏하는 것이 곧 一陰一陽하는 鼓動作用이다. 不與聖人同憂라 함은 聖人이 易을 作함에 度를 過하는 悔吝을 憂하여 物의 終始하는 介를 戒하였는데 天地의 運行은 一陰一陽하여 스스로 過치 아니함으로 天地는 聖人으로 더불어 憂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盛德은 乾陽의 德의 盛함이오 大業은 坤簡의 業의 大함이니 盛德大業은 天地의 易簡의 效이므로 盛大의 象을 말한 것이오 至矣哉라 함은 天에서 地에 飛下함을 象한 것이

니 天地의 德業은 地上의 萬物을 生生하고 있으므로 그 德業을 至하다고 한 것이다.

富有라 함은 物의 有함이 富多하여 有치 아니함이 없다 함이니 이는 物이 空間的으로 擴大하는 象을 말함이오 日新이라 함은 物이 날마다 舊弊를 버리고 生新한다 함이니 이는 物이 時間的으로 生長成하는 象을 말함이다. 富有의 大業은 坤簡의 달의 作用이므로 有字와 簡字가 모두 月로 된 것이오 日新의 盛德은 乾易의 太陽의 作用이므로 日新과 易字가 모두 日로 된 것이다.

生生之謂易 ..... 陰陽不測之謂神

生生之謂易이라 함은 前章의 易無體의 뜻을 承함이니 生生은 時間的으로는 日新이 되고 空間的으로는 富有가 되는데 生生하는 物은 不斷히 變化하여 日新又新하고 有之又有하는 것이므로 易은 生生이 되고 또 一定한 體가 없는 것이다.

成象之謂乾이라 함은 天上에서 日月의 象이 成하는 것은 乾의 成象作用이라 함이오 效法之謂坤이라 함은 地上에서 萬物의 形이 成하는 것은 坤의 效法作用이라 함이니 日月의 象이 天上에서 變化하면 萬物의 形이 地上에서 變化하는 것이 곧 成象效法의 뜻이며 이는 第一章의 在天成象在地成形變化見矣의 뜻을 承한 것이다.

乾이 象을 成하고 坤이 法을 效하여 萬物의 形이 成하면 象에는 반드시 數가 있는 것이오 그 數라 함은 天地의 數 五十五數이오 五十五數는 變化를 成하고 鬼神을 行하는 것인데 數의 여문 것이 五十五數이오 物이 여물면 神하여 來事를 知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天地의 數가 여물어서 鬼神을 行하여 未來事를 知하는 것이 곧 極數知來之謂占이오 占이라 함은 未來事를 豫

知하는 일이다.

通變이라 함은 乾坤의 一闔一闢하는 變과 往來不窮하는 通을 말함이오 事라 함은 現狀을 變한다는 뜻으로서 人間의 千萬事는 모두 現在의 狀態를 變하여 新事態를 만드는 것이므로 通變하는 것이 곧 事이니 乾卦文言에 貞者事之幹也라 한 것도 또한 貞은 變通의 幹이 된다 함이다.

陰陽不測之謂神이라 함은 前章의 神無方과 上文의 一陰一陽之謂道의 뜻을 承한 것이니 神은 陰陽生命元의 作用이오 道는 神의 由行하는 길이오 不測은 無方이니 一陰一陽하는 道를 由行하여 測할 수 없는 無方한 生生作用이 곧 神이다.

六. 易廣矣大矣 章

夫易廣矣大矣 ... 是以廣生焉

夫易이라 함은 前章의 生生之謂易을 指함이다.

廣은 坤의 象이오 大는 乾의 象이며 遠은 天의 成象의 象이오 邇는 地의 效法의 象이오 天地之間은 萬物의 生生의 象이다.

易學은 天의 遠을 말하면, 天은 大空中에 象을 成하여 際限이 없으니 이가 不禦함이오 地의 邇를 말하면, 地는 天을 順承하여 形을 凝하니 이가 靜而正함이오 天地의 間을 말하면 天地의 間은 萬物이 生生하여 富有日新하니 이가 備함이다.

夫乾夫坤이라 함은 前章의 成象의 乾과 效法의 坤을 指함이다. 乾의 作用은 그 靜함에 專一하여 何等의 私邪가없고 그 動함에 剛直하여 何等의 歪曲이 없으니 그러므로 發施作用이 平易하여 萬物에 周遍하여 能히 天의 大

를 生하는 것이오 坤의 作用은 그 靜함에 保翕하여 自然히 斂藏하고 그 動함에 闢通하여 自然히 收斂하니 그러므로 承受作用이 簡約하여 萬物을 包涵하여 能히 地의 廣을 生하는 것이다.

廣大配天地 .... 易簡之善配至德

易의 廣大함은 天地의 廣大에 當하고 易의 變通함은 四時變化의 序에 當하고 易의 陰陽의 義는 日月의 陰陽關係에 當하고 易의 易簡의 善은 天地生生의 至德에 當하니 至德이라 함은 天이 日月의 象을 地上에 垂示하여 萬物을 日新하는 盛德을 말함이다.

七. 易其至矣 章

子曰易其至矣乎 ... 成性存存道義之門

至矣라 함은 日月易簡의 法則이 天으로부터 地上에 效함이다. 夫易이라 함은 上文의 至矣한 易을 指함이니 저 至矣한 易은 聖人이 易簡의 德을 崇하고 易簡의 業을 廣하고 하는 所以이라 함이다.

第五章의 成之者性에는 知와 仁을 말하고 이 章의 成性에는 知와 禮를 말하니 仁의 發展한 것이 곧 禮이오 仁과 禮가 모두 地에 屬하는 것이다. 知와 仁은 天性의 時間的 生成을 말함이오 知와 禮는 天性의 空間的秩序를 말함이다.

知는 光明하여 天의 崇에 屬하고 禮는 謙讓하여 地의 卑에 屬하는데 聖人이 崇德廣業함에는 知의 崇은 天을 效하고 禮의 卑는 地를 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은 知의 崇으로써 易簡의 德을 崇하고 禮의 卑로써 易簡의 業

을 廣하는 것이다. 知와 禮가 上下에 秩序를 定하니 이는 天地가 位를 設한 象이오 知와 禮의 사이에서 易簡의 善이 行하니 이는 日月이 天地의 中을 行하는 象이다.

存存은 生生과 對稱함이니 生生은 變化함이오 存存은 恒久함이라 物은 恒久로써 體를 삼고 變化로써 用을 삼아 恒久한 體가 있은 然後에 變化하는 用이 生生하고 또 變化하는 用이 있은 然後에 恒久한 體가 存存하는 것이니 性의 成함은 恒久한 體로 되는 까닭에 存存이라 한 것이다. 天地의 設位는 恒久하므로 日月이 그 中을 行하는 것이오 知禮의 性도 成하여 恒久하므로 易簡의 善이 그 中을 行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存存은 天性設位의 象이다.

道는 一陰一陽하는 것이오 義는 陰陽의 和하는 것이니 道와 義가 모두 陰陽不測하는 神의 作用이다. 그러므로 知와 禮로써 性을 成하여 恒久히 存存하면 神의 作用이 그 門을 出入하여 易簡이 行하는 것이니 이가 天地가 位를 設하고 日月의 法則이 그 中을 運行하여 萬物을 生成하는 象이다.

八. 擬言議動 章

聖人有以見天下之賾 … 擬議以成其變化

賾은 嘖과 通하여 말이 많고 서로 다툰다는 뜻이다. 사람은 各自의 思慮를 가지고 있으므로 말이 많고 서로 다투며 그 行動이 混雜하고 서로 어긋나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調和가 적은 것이다. 人間社會의 生生은 그 社會를 構成한 사람들의 말과 行動으로써 運營되는 것인데 그 말이 많아서 서로 和치 못하고 相互의 行動이 서로 헝클어지면 社會의 生生은 完遂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이 易을 지음에 天下 사람들의 말의 많은 것을 보고 그 形容을 模擬하여 卦를 設하고 卦名을 붙여서 그 物의 事宜를 象으로써 表示하니 이것을 象이라 하는 것이오 天下 사람들의 行動의 混雜

한 것을 보고 卦의 各爻에 그 嘉의 會不會와 志의 通不通을 觀하여 典常과 禮節을 行하고 辭를 繫하여 그 吉凶을 判斷하니 이것을 爻라 하는 것이며 象에는 天下의 至極한 賾言을 말하되 모두 事宜에 合하여 可히 厭惡치 못하고 爻에는 天下의 至極한 動態를 말하되 모두 秩序에 合하여 可히 混亂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은 象에 擬한 然後에 言하고 爻의 辭에 擬한 然後에 動하며 擬하고 議하여 事物의 變化를 成하는 것이다.

第一章에는 在天成象在地成形變化見矣라하고 第二章에는 剛柔相推而生變化라하고 本章에는 擬議以成其變化라하니 變化見矣는 生의 時運의 象을 말함이오 生變化는 長의 時運의 象을 말함이오 成變化는 成의 時運의 象을 말함이니 擬言議動하는 것은 사람이 天性을 成하는 所以이다.

鳴鶴在陰其子和之 …

中孚卦九二爻의 辭로서 言과 動을 말한 것이다.

中孚는 太陽의 앞에 있는 象의 달이 后天의 成의 時運에 太陽의 뒤로 넘어가는 過程에 中宮의 中位에서 太陽과 合朔하는 象인데 日月의 合朔하는 때에는 中宮의 中位에서 律呂聲이 發하는 것이니 이가 鶴의 鳴聲의 象이며 陰이라 함은 易學에는 天地卦인 乾坤과 泰否에 陰陽을 말한 以外에는 他卦에 陰陽을 말한 것이 없고 오직 中孚九二爻에 一陰字가 있으니 이는 乾坤에 日月의 象이 있고 泰否에 日月相交의 象이 있고 中孚에 后天달의 始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이 五卦에만 陰陽字를 쓴 것이며 中孚에는 달의 生하는 象이 있음을 表하기 爲하여 九二의 生의 中心에 陰字를 쓴 것이다.

子는 震子이니 日月이 合朔하여 새달이 生하는 것이 곧 子의 和하는象이니 和라 함은 陰體中에 陽氣가 入하여 義로 和함이다. 我는 우리라는 뜻이니 全體를 말함이오 吾는 나라는 뜻이니 自己를 말함이오 爵은 位이오 또 雀

이오 또 鳥鳴하는 曲調이니 이는 律呂聲의 發하는 中宮의 中位를 말함이오 靡는 쓰러진다 함이니 我有好爵吾與爾靡之라 함은 우리에게 合朔하는 좋은 位가 있으니 나와 네가 쓰러지듯이 그 位로 들어가서 새달이 된다 함이다. 室은 合朔하는 中宮의 象이오 言行은 鶴鳴子和의 象이오 千里는 天地의 立體의 象이니 天地自然數는 十에 止하므로 十數와 十數로 相乘한 百里는 地面의 平方의 象이오 百里에 다시 十數를 乘한 千里는 天地의 立體의 象이며 遠邇는 地上距離의 遠近을 말한 것인데 또한 言乎遠則不禦言乎邇則靜而正의 理에 依하여 遠은 天의 象이오 邇는 地의 象이다. 樞는 門을 開閉하는 지도리이오 機는 기틀을 發하는 고동이니 樞機는 事物의 發動하는 要所라는 뜻이다. 君子는 달의 象이오 言行은 달의 光明의 象이다. 言行이 天地를 動한다 함은 千里의 外가 應하고 違하고 함이 곧 天을 動함이오 邇者가 應之違之함이 곧 地를 動함이다.

同人先號咷而後笑 …

同人九五爻의 辭로서 言을 말한 것이다.

同人은 上卦乾陽의 震子와 下卦離火宮의 兌澤이 合體하여 사람의 精化의 씨를 生하는 象이니 號咷는 震子의 象이오 笑는 兌澤의 象이다. 出과 處는 震雷의 出入하는 象이오 默과 語는 兌口의 說言의 象이다. 震子와 兌澤이 九二 九五의 生成의 中心에 相應하니 이가 二人同心의 象이다. 利는 陰陽의 義의 和함이오 斷은 異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決定함이오 金은 乾의 象이오 臭는 巽風의 象이오 蘭은 五月香草이다. 震兌의 陰陽의 義가 和하여 二體가 一體로 되어 次世代의 乾의 子를 生하니 이가 其利斷金의 象이다. 同人은 天氣가 下降하여 陰火宮의 中宮을 相應하여 天風姤의 象이 되는데 同人의 互卦가 또한 姤이므로 (姤의 雜卦가 또한 同人)同人에 姤의 象이 있어 乾의 金과 巽의 臭를 말하고 姤는 一陰의 始生하는 五月夏至卦이므로 香臭의 草인 蘭을 말한 것이다. 同人은 先에는 서로 爭鬪하고 後에는 和平

하여 天下人의 大同하는 象이므로 九五爻에 先號咷而後笑의 象이 있는 것이니 이는 天下의 至雜한 人心이 和氣를 띠고 至賾한 言이 香言으로 化함이다.

姤는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는 后天달의 卦로서 同人卦의 互卦로 되고 姤 同人의 卦象이 相似하므로 同人卦의 解釋에 姤卦의 뜻을 引用하여 后天에 새달이 나오고 天下가 同人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初六藉用白茅無咎 …

大過卦 初六爻의 辭로서 動을 말한 것이다.

大過는 陽이 過하여 陰體中에 顚入하여 胎育되는 象이오 初六은 最下爻의 巽股로서 乾陽의 震子가 陰體中에 顚入하는 位이다. 茅는 地下莖의 草로서 節節相承하고 또 繼繼生生하여 生殖作用의 象이 있으므로 天地相交하는 泰否의 震子에 茅茹의 象이 있는 것이오 大過는 震子와 巽陰이 相會하고 巽股가 震子를 包하여 天地相交의 象이있고 또 澤邊의 木은 草木의 象이므로 初六의 巽股에 白茅로써 物을 包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錯이라 함은 上下로 相交함이오 薄이라 함은 震과 巽의 雷風相薄함이오 往이라 함은 陰陽의 相求함이다. 初六의 巽股는 天氣의 下接하는 地의 位이니 震子가 初六의 地에서 巽股와 交錯하더라도 可한 것인데 藉하여 包함에 茅를 用하니 무엇이 異各함이 있으리오 愼함의 至極함이니 愼은 坤六四의 括囊無咎愼不害也의 뜻이다

茅의 物됨이 雷風相薄하는 일이 있으나 그 用은 重巽이 陽에 順함과 같이 震子에 順한 것이니 이 術을 愼하여 陽에게로 往하면 陽을 失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勞謙君子有終吉 …

謙卦九三爻의 辭로서 言을 말한 것이다.

謙은 사람의 씨가 달로부터 地上에 下來하여 止하는 象이므로 謙이라 한 것이오 사람의 謙讓하는 態度는 言辭로써 發表되는 것이므로 言으로 된 謙字를 쓴 것이다.

九三爻는 謙의 主爻로서 人位에 있고 一陽이 衆陰中에 있어 坎의 勞하는 象이 되므로 勞謙이라 한 것이오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하여 謙은 卑下하되 終이 있으니 終이 있다 함은 坤卦六三의 有終의 뜻으로서 物을 作成한다는 뜻이오 이는 사람의 씨가 地에 下來하여 形體를 이루는 것이 곧 有終吉이다.

勞而不伐이라 함은 用力함이 勤勞하되 他人을 伐하여 自己를 稱讚하지를 아니한다 함이오 有功而不德이라 함은 功勞가 있으되 德色을 내지 아니한다 함이니 九三이 勞의 象으로서 謙의 位에 있으므로 不伐不德의 象이 되는 것이오 下에 있어 不伐不德하여 氣를 發散치 아니하고 德을 畜하므로 厚의 至가 되는 것이니 이는 그 功勞로써 사람에게 下하여 남에게 謙讓한다 함을 말함이다.

德은 盛하여야 하고 禮는 恭하여야 하니 德이라 함은 畜하고 日新하여 盛함을 말함이오 禮라 함은 功으로써 사람에게 下하여 恭함을 말함이다. 德이 盛하고 禮가 恭함이 곧 謙이니 그러므로 謙이라 함은 恭을 致하여 사람의 三才의 位를 保存하는 것이다.

亢龍有悔 …

乾上九爻의 辭로서 動을 말한 것이오 乾 文言에 씌어있다.

不出戶庭無咎 …

節初九爻의 辭로서 言을 말한 것이다.

節은 兌로부터 坎하여 秋로부터 冬하는 象이 되므로 一年의 節이 되고 水澤의 收斂卦로서 澤이 上向하여 溢流하므로 水의 節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水澤이 收斂하여 上向하는 것은 달의 象이 되므로 先天의 달이 節하여 終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戶庭이라 함은 乾坤의 闔闢하는 戶의 口를 象함이오 初九는 節의 初에 있으므로 不出戶庭의 象이 되고 兌口를 出치 아니하므로 言語를 出치 아니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亂은 水澤의 分斷됨이오 言語는 陽氣가 外로 發宣함이오 階는 下에서 高로 登함이오 君은 陽氣의 象이오 臣은 陰精의 象이오 幾는 陽이 微動하여 달의 始生함이오 密은 小畜卦의 密雲과 같이 달 體의 凝結한다는 뜻이오 害는 쭉정이로 됨이다. 亂之所生也 言語以爲階라 함은 水澤이 分斷되어 精이 凝結치 못하여 달이 成치 못하는 것은 陽氣가 外로 發宣하는 것이 그 原因의 階로 된다 함이오 君不密則失臣이라 함은 陽氣가 密치 아니하면 陰精을 凝結시키지 못한다 함이오 臣不密則失身이라 함은 陰精이 密치 아니하면 自體를 有치 못한다 함이오 幾事不密則害成이라 함은 陽의動함이 微하여 月光의 生하는 일이 密치 아니하면 달의 成함을 害하여 쭉정이가 된다 함이니 그러므로 달은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고 括囊을 愼하고 密하여 出치 아니하는 것이다. 初九는 節을 成하는 初에 當하므로 陽氣를 愼密하는 것이오 달의 愼密하는 象은 사람의 言語愼密하는 理와 同一하므로 달에 擬하여 人事를 말한 것이다.

子曰 作易者其知盜乎

解卦 六三爻의 辭로서 動을 말한 것이다.

解는 天時가 冬으로부터 春으로 推移하고 地氣가 北으로부터 東으로 流行하는 象이므로 凍氷의 解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六三은 中爻에 있는 陰精으로서 雷雨의 界와 冬春의 際에 있어 凍氷의 消하는 位에 있는 것이다.

負는 九四의 陽을 負함이니 睽卦의 豕負塗가 解六三의 坎이 九四의 震을 負함을 말함이오 乘은 九二의 陽을 乘함이오 器는 九二의 矢이니 解上六의 弓矢者器也라 함이 九二의 矢를 말함이다. 解는 坤體가 乾陽을 承受하여 달의 光明을 生하는 卦로서 陽氣를 陰精에 施하는 象이 되는데 六三은 坎體의 陰精으로서 雷雨의 界에 當하여 陽體의 陽氣를 盜奪하는 象이 있으므로 九二와 九四의 陽氣가 六三의 陰에게 盜奪됨을 말한 것이니 九二와 九四는 太陽의 陽氣의 象이오 六三은 달의 陰精의 象이다.

負也者小人之事라 함은 九四를 負하고 있는 六三을 小人이라 한 것이오 乘也者君子之器라 함은 九二의 矢는 君子의 器라 함이니 泰否의 君子小人이 光明과 陰精을 象한 것임과 同一한 理이다. 六三은 小人으로서 君子를 負하고 또 君子의 器를 乘하고 있으니 이는 六三이 君子의 器를 奪取하기를 思함이오 盜는 곧 六三이다. 上慢下暴라 함은 陰陽相交하는 때의 陽體와 陰體의 動作을 象한 것이니 九四의 陽이 陽氣를 發施하려 하여 放縱하고 있는 것이 곧 上慢이오 九二의 陽이 陷하여 躁動하고 있는 것이 곧 下暴이며 陽의 動作이 慢暴하므로 六三의 盜가 陽氣를 侵伐하기를 思함이다. 上의 陽이 陽氣를 藏할 것을 放漫하는 것은 盜에게 盜奪하라고 가르침이오 下의 陽이 그 容態가 플무질하여 쇳물을 녹이는 것은 盜에게 貪淫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三에는 스스로 盜를 招하는 象이 있어 六三自體가 盜로 되는 것이며 說卦에 坎爲月爲盜는 解卦의 坎에 月과 盜의 象이 아울러 있음을 말함이며 이 一節은 上文의 節卦의 愼密不出과 相照하는 것이다.

擬言議動 一章은 달이 合朔하여 后天달의 成하는 過程을 人事에 擬하여 말한 것이니 言은 陽氣의 發宣함이오 動은 陰陽의 施受함이다. 中孚의 鶴鳴

子和는 日月의 合朔하는 象이오 同人의 先號咷后笑는 日月의 相遇하는 象이오 大過의 藉用白茅는 太陽의 震子가 달의 巽股에 入하는 象이오 謙의 勞謙은 天의 陽氣가 地의 陰體에 下濟하는 象이오 乾의 亢龍은 陽體가 陽氣를 發施하는 象이오 節의 不出戶庭은 陽體의 陽氣密藏의 象이오 解의 負且乘致寇至는 陰體가 陽氣를 承受하는 象이다. 先天달에서 后天달이 生하여 死者復生의 象이 되니 그러므로 中孚에 議獄緩死하는 緩의 象이있고 解에 難을 緩하여 赦過宥罪하는 緩의 象이있어 后天달이 中孚에서 始하여 解에서 成한 것이다.

九. 大衍數 章

天一地二 ..... 成變化而行鬼神也

前章의 擬議以成其變化의 뜻을 承하여 成變化 成易 成卦 小成의 成을 말하고 變化의 道를 知하는 者가 神의 所爲를 知한다 하여 모든 變化는 神의 所爲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天地自然數에 一三五七九의 天數는 二十五이오 二四六八十의 地數는 三十이니 合五十五이다. 洛書數는 一로부터 九까지이오 洛書는 長의 時運이므로 四十五數는 長하는 數로 되는데 物의 長하는 것은 形質의 長하는 것이므로 洛書時運의 사람은 形質의 長함을 主하고 數가 十에 達하지 못하여 變化를 成치 못하므로 사람의 天性이 成치 못하여 마치 草木의 열매가 여물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行鬼神이라 함은 사람의 天性이 여물면 鬼神의 作用이 生하고 草木의 열매가 여물어서 世世繼承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 또한 鬼神의 作用이다. 行鬼神이라 함은 鬼神作用을 行한다 함이니 洛書의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數가 十까지 차서 五十五數로 되는 것이 곧 天地가 變化를 成하여 鬼神을 行하는 것이다.

大衍之數五十 … 當萬物之數也

大衍數라 함은 天數二十五를 衍한 것이다. 物의 組織은 陰속에 또 陰陽이 있고 陽속에 또 陰陽이 있는 것이니 天數가 二十五이오 二十五의 數에 또 各各 陰陽이 있으므로 天數를 衍하면 五十이 되니 이가 大衍數이다. 大衍數 五十은 陽數이오 陽數의 運行은 圜轉하는 것인데 自轉하면서 또한 圜轉하는 物은 그 中心의 一點이 移動치 아니하여 用치 아니하므로 自轉圜轉하여 用하는 數는 四十九이니 이가 大衍數의 用이다. 大衍數의 用四十九는 陽數이오 陽數의 속에 또한 陰陽이 있는데 四十九는 다시 衍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陰陽으로 兩分되는 것이니 이가 곧 兩儀이다.

天數二十五에서 大衍數 五十이 生함과 같이 地數三十에서 또한 六十의 數가 生하니 이가 六十甲子의 原數이다. 地數는 陰數로서 반드시 次世代를 出生하는 것이므로 六十은 父母의 兩作用의 數로 되는 것이니 이는 大衍數用이 兩儀로 分함과 같음이오 父母가 子를 生함에는 父數用九 母數用六의 理에 依하여 父數는 三十六이 되고 母數는 二十四가되니 三十六과 二十四는 乾坤策數의 原이다. 父數九와 母數六의 十五가 相合하여 子를 生하면 子數는 一이며 十五對一은 곧 六十對四이므로 父母數六十과 子數四를 合한 六十四가 곧 父母子의 生生하는 數이니 六十四는 地數六十의 用이오 易學의 六十四卦는 이 原理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易學六十四卦中에는 六十卦가 父母宮으로되고 四卦가 胎宮으로 되는 것이다. 大衍數의 用四十九와 地數의 用六十四는 少陽少陰의 關係를 가지고 있어 四十九는 七七의 積이니 七은 少陽數이오 六十四는 八八의 積이니 八은 少陰數이다. 七八의 少陽少陰은 陰陽運行의 用이 되고 있으므로 陽氣의 極致인 光明은 七數로써 運行하여 달의 光明을 象하여 七日이라 하고 陰精의 極致인 物質은 八數로써 組織되어 달의 形質을 象하여 八月이라 하는 것이다.

李退溪의 大衍數說에 依하면 天數 一三五七九를 各三自乘하여 合하면 一千二百二十五가되고 天數의 中數五를 自乘하면 二十五가 되는데 이 二十五로

써 一千二百二十五를 除하면 四十九를 得하니 이가 其用四十九이오 地數二四六八十을 各 三自乘하면 合一千八百이 되고 地數의 中數六을 自乘하면 三十六이 되는데 이 三十六으로써 一千八百을 除하면 五十을 得하니 이가 大衍數五十이라 하였다 이것을 算式을 써 表하면

$1^3+ 3^3+ 5^3+ 7^3+ 9^3= 1225$

$5^2= 25$

$1225÷25= 49$ 大衍數의 用

$2^3+ 4^3+ 6^3+ 8^3+ 10^3= 1800$

$6^2= 36$

$1800÷36= 50$ 大衍數

이 算法은 任意의 自然數를 天地數로 兩分하여 各三自乘하여 合하고 그 中數의 自乘한 것으로써 除하면 그 所得數는 반드시 陽數가 陰數보다 一이 少하여 五十과 四十九와의 關係와 같은 것인데 이 大衍數는 天地數 五十五를 取하여 算出한 것이므로 成變化行鬼神의 數로 되는 것이다. 또 一千二百二十五와 一千八百을 合한 數는 三千二十五이오 五十五數의 自乘한 것이 또한 三千二十五이니 그러므로 李退溪의 大衍數 및 其用은 天地의 數 五十五의 平方數에서 나온 것이다.

大衍數의用 四十九는 天數에서 나온 것이오 天數는 一로부터 九까지에 이르는 陽數로서 生長을 象한 것이므로 四十九數의 分布는 또한 一로부터 九까지로 되는 것이니 이가 兩物 三品 四時 五歲 및 六七八九의 四象으로 發展하는 所以이오 또 生長은 閏을 生하는 것이므로 洛書時運의 曆에는 閏이 있는 것이다.

四十九數를 一로 하고 一을 分한 것은 天地의 陰陽兩物의 象이오 兩物에서 달이 生하여 三品이 되는 것이므로 掛一은 太陽과 地와 달의 三品의 象이오 日月이 運行하여 物을 生養하는 것은 寒暑의 往來하는 四時이므로 揲之以四는 四時의 象이다. 奇는 閏이오 五歲는 五歲에 陰閏과 陽閏이 一周하는 歲數이다. 再閏이라 함은 再扐의 象이니 一을 分하여 兩儀의 陰陽을 삼고 一을 掛하고 陰儀와 陽儀를 各各四로써 揲하면 陰儀와 陽儀에 各各 奇가 生하고 陰奇와 陽奇를 扐에 歸하니 이가 再扐이오 兩扐은 再閏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閏에는 陰의 閏과 陽의 閏이있고 兩閏이 合하여 五歲를 成하니 五歲再閏이라 함은 한번은 陰閏이 되고 한번은 陽閏이 되어 分하여보면 再閏이 되고 合하여보면 一周閏이 되는 것이며 閏法은 一周閏하는 五歲로써 閏年의 單位를 삼는 것이다.

四十九數의 分掛揲扐의 順序 揲세어가질설 扐끼울륵

【一次】四十九策을 用하여 分掛揲扐하면 그 餘策이 或은 五 或은 九가되고 正策이 或은 四十四 或은 四十이 된다.

【二次】或은 四十四策 或은 四十策을 用하여 分掛揲扐하면 그 餘策이 或은 四 或은 八이 되고 正策이 或은 四十 或은 三十六 或은 三十二가된다.

【三次】或은 四十策 或은 三十六策 或은 三十二策을 用하여 分掛揲扐하면 그 餘策이 或은 四 或은 八이 되고 正策이 或은 三十六 或은 三十二 或은 二十八 或은 二十四가 된다.

이와 같이하여 三次를 分掛揲扐하면 正策의 數는 三十六의 老陽數, 二十四의 老陰數, 二十八의 少陽數, 三十二의 少陰數中 어느 하나로 되는 것이오 老陽老陰을 合하여도 六十이 되고 少陽少陰을 合하여도 六十이 되는데 이 六十數는 平均하면 一月의 三十日數로 되어 一朞三百六十日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餘策의 數는 四十九에서 正策數를 減한 數이니 그러므로 老陽의 餘策은 十三이오 老陰의 餘策은 二十五이오 少陽의 餘策은 二十一이오 少陰의 餘策은 十七이며 二老의 餘策을 合하여도 三十八이 되고 二少의 餘策을 合하여도 三十八이 되는데 이 三十八數는 平均하면 十九로 되어 曆法의 十九歲七閏의 數가되니 그러므로 餘策이 곧 閏數의 象이 되는 것이오 이 十九歲七閏은 또한 五歲再閏의 象이다.

老陽數三十六, 老陰數二十四, 少陽數二十八, 小陰數三十二는 公約하면 九六七八의 四象數가 되는 것이오 九六七八의 四象數는 參天兩地의 理에 基하는 것이니 參은 陽의 象이오 兩은 陰의 象이라 九는 參이 三으로서 純陽이므로 乾父의 象인 老陽이 되는 것이오 六은 兩이 三으로서 純陰이므로 坤母의 象인 老陰이 되는 것이오 七은 參이 一이오 兩이 二로서 二陰一陽이므로 三男卦의 象인 少陽이 되는 것이오 八은 參이 二이오 兩이 一로서 二陽一陰이므로 三女卦의 象인 少陰이 되는 것이다.

分掛揲扐하는 一, 兩儀, 三才, 四時, 五歲의 一二三四五는 生數이오 四象의 六七八九는 成數인데 洛書數는 生長의 時運을 象한 것이므로 그 數가 一로부터 九에 止하고 또 閏餘가 生하니 이가 生長時運에 物의 생생蕃殖하는 象이다.

易은 乾坤이 成列하여 組織된 것인데 乾은 老陽이니 그 策數가 三十六이오 坤은 老陰이니 그 策數가 二十四이며 乾의 六爻策數는 二百十六이오 坤의 六爻策數는 百四十四이니 合하면 三百六十이 되어 이것이 一朞의 日數에 當하는 것이오 一朞 三百六十日은 成의 時運의 一歲日數이므로 后天에는 閏이없는 三百六十日의 正曆이 行하는 것이다.

易의 二篇劃數는 陰劃陽劃이 各 一百九十二이오 陽劃에 老陽數三十六을 乘하면 六千九百十二가되고 陰劃에 老陰數 二十四를 乘하면 四千六百八이 되

니 合하면 一萬一千五百二十이오 이는 萬物의 數에 當하니 物의 最多한 數에 萬物 萬國 萬邦 萬民 萬夫等 萬字를 쓰는 것은 이 二篇의 策數에 基한 것이다.

是故 四營而成易 ... 其知神之所爲乎

四營而成易이라 함은 易은 日月의 運行法則이므로 四營하여 日月의 運行法則이 成하였다 함이니 一營으로 分而爲二以象兩하고 二營으로 掛一而象三하고 三營으로 揲之以四以象四時하고 四營으로 歸奇於扐以象閏하여 이에 閏曆이 成하니 이가 四營而成易이다.

十有八變而成卦라 함은 三劃卦를 成함에 十八變을 한다 함이니 每劃에 三次를 分掛揲扐하고 每次에 陰儀와 陽儀의 變함이 있으므로 每劃에 六變이 있고 三劃卦에 十八變이 있는 것이오 八卦而小成이라 함은 八原卦의 成함을 말함이다. 說卦에 觀變於陰陽而立卦라 하므로 每次에 陰儀陽儀의 變이 있는 것이다.

引은 弓을 開하여 近으로부터 遠에 達하여 十丈의 數가됨이오 觸은 頭上의 角의 받는 象으로서 自然數의 上端에 陰象의 角이 生하여 十數의 象이 된 것이니 引而伸之 觸類而長之라 함은 自然數의 九까지 伸張하여 十에 達한다 함이오 能事는 坤의 簡能의 事이니 自然數가 長하여 十數가 차서 五十五數가 되면 后天의 成의 時運이 되어 坤의 成物하는 簡能의 事가 畢하여 變化를 成하고 鬼神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小成한 八卦가 引伸觸長하여 十數에 達한다 함은 六十四卦의 象이 具하여 萃卦의 引吉과 兌卦의 引兌에는 先天달이 終하고 后天달이 生하는 象이 있고 大壯卦의 羊觸에는 后天달의 成하는 象이 있으니 이가 引伸觸長의 뜻이다.

顯道라 함은 一陰一陽하고 繼善成性하여 仁을 顯함이오 神德行이라 함은

乾의 德行은 恒易하고 坤의 德行은 恒簡하여 易簡의 神道를 行함이니 坤의 簡能의 事의 畢한 后天時運에는 天性이 여물어서 仁을 顯하고 德行이 易簡하여 神의 作用이 行하므로 可히 더불어 鬼神과 酬酌하고 可히 더불어 神을 祐하는 것이다. 鬼神은 神의 分身이오 神의 天地의 主宰이니 可與酬酌은 上文의 行鬼神의 뜻이오 可與祐神은 下文의 其知神之所爲의 뜻이다.

十. 聖人之道四焉 章

易有 聖人之道四焉 … 以卜筮者尙其占

이 章의 辭變象占은 第二章의 象辭變占의 뜻인데 第二章은 君子가 觀象 玩辭 觀變 玩占하여 進德修業하는 뜻을 말함이오 이 章은 聖人이 辭變象占을 實踐하여 崇德廣業하는 뜻을 말함이다.

是以君子將有爲也 … 非天下之至精其孰能與於此

有爲라 함은 身에서 行함이오 有行이라 함은 事業에 措함이오 問焉而以言이라 함은 言으로써 神에게 問한다 함이오 其受命也如嚮이라 함은 神으로부터 命을 受함이 面對함과 같다 함이오 無有遠近 幽深遂知來物이라 함은 이 空間中에 생기는 未來事를 知한다 함이다.

精은 水火의 精으로서 通明하다는 뜻이니 受命 知來는 天下의 至極히 通明한 사람만이 能한 것이며 이 節은 前章의 可與酬酌의 뜻을 承한 것이다.

參伍以變 … 非天下之至變 其孰能與於此

參伍라 함은 十二支의 三元五元의 理이다. 十二支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니 子寅辰午申戌은 陽支이오 丑卯巳未酉亥는 陰支이며 一年十二月과 一日의 十二時가 모두 十二支로 되어 있다. 參伍의 理를 一年十二月로써 보면 先天은 生長時運이오 物의 生長함은 陽의 作用이므로 生長作用은 十二支의 第一支인 陽支子에서 始하여 第三支인 寅에서 頭하니 子에서 寅까지의 子丑寅이 곧 生長하는 三元이며 이는 十一月의 子月冬至에 太陽이 비로소 北歸하여 生長作用이 開하고 正月의 寅月立春에 萬物이 萌動하는 理이다. 先天은 第一支인 陽支子에서 開하므로 第十二支인 陰支亥에서 閉하니 閉는 成하는 象이다. 后天은 成의 時運이오 物의 成함은 陰의 作用이므로 成의 作用은 十二支의 第十二支인 陰支亥에서 始하니 이는 先天의 閉하는 곳이 곧 后天의 始하는 곳이 되는 理이다. 先天에는 陽支에서 始하여 陽支에서 頭함과 같이 后天에는 成의 作用이 陰支에서 始하여 陰支에서 頭하는 것이오 成의 作用은 그 內部에 生長作用을 包하는 것이므로 陽支子의 先인 亥에서 始하여 陽支寅의 後인 卯에서 頭하니 亥에서 卯까지의 亥子丑寅卯가 곧 成하는 五元이며 先天의 三元은 物의 生長을 準備하는 期間이오 后天의 五元은 物의 成實을 準備하는 期間이다. 參伍以變이라 함은 先天의 三元에서 后天의 五元으로 變하여 生成의 時運의 變한다 함을 말한 것이다.

錯綜其數라 함은 九金二火의 錯綜이다. 先天의 洛書九宮은 太陽의 象인 九金이 南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西南에 있으므로 달이 太陽의 앞에 있는 象이 되어 先迷의 달이 되고 后天의 河圖九宮은 九金이 西南에 있고 二火가 南에 있어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는 象이 되어 後得主의 달이 되니 九二가 互易하여 先天의 달이 后天의 달로 된 것이 곧 九二錯綜이오 九二錯綜을 또한 金火正易이라고 한다.

通其變遂成天地之文은 參伍以變의 뜻이니 三元의 時運이 五元의 時運으로

變하여 萬物의 生長作用이 成의 作用으로 變하는 것이 곧 成天地之文이오 文이라 함은 物의 相雜함을 말함이다. 極其數遂定天下之象은 錯綜其數의 뜻이니 九二가 互易하여 日月의 軌道가 變하여 새로운 달을 生한 것이 곧 天下之象이오 象이라 함은 在天成象함을 말함이다. 이 節은 前章의 「知變化之道」의 뜻을 承한 것이다.

參伍以變과 九二錯綜이 곧 天下之至變이오 文과 象은 正易八卦圖와 后天九宮圖와 正易의 后天曆을 말한 것이다.

易無思也無爲也 …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이 節은 上文의 以卜筮者尙其占의 뜻이니 占이라 함은 神을 感하는 것인데 神은 占에 感하는 것이 아니오 그 사람의 德에 感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以此齋戒以神明其德」이라 하고 또 「神而明之存乎其人」이라 한 것이다.

易은 神의 啓示하신 天書이므로 易의 글에는 神意가 通하고 있으니 「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은 이 뜻을 말함이오 사람이 易을 學함에 誠意正心하여 終始無怠하면 神意와 相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易은 思도없고 爲도없고 寂然하여 動치 아니하는 것이로되 사람의 德이 神明하면 스스로 易의 神을 感하여 天下의 事故를 通하는 것이니 이가 天下의 至神이며 至神은 곧 神과 相通하는 境地를 말함이다.

이 節은 前章의 「神德行」을 承한 것이다.

夫易聖人所以極深而研幾也 … 此之謂也

極深이라 함은 未形한 事物을 究極함이오 研幾라 함은 動微한 事物을 研究함이니 至精하여 未形한 事物을 究極하므로 能히 天下의 志氣를 通하는 것이오 至變하여 動微한 事物을 研究하므로 能히 天下의 業務를 成하는 것이오 至神하여 神과 相感하므로 時間을 超越하여 急하지 아니하되 스스로 速하고 空間을 超越하여 行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至하는 것이니 이가 聖人의 四道이다.

十一. 開物成務 章

子曰 夫易何爲者也 … 是故蓍之德圓而神 … 是故闔戶謂之坤 .. 是故易有太極 .. 是故法象莫大乎天地 … 是故天生神物 .. 易有四象 … 易曰自天祐之 …. 是以自天祐之吉無不利

第十一章은 以上의 二章으로부터 十章까지를 包括하여 聖人의 辭變象占의 四道를 總言한 것이다. 夫易은 上章의 易無思也의 易을 指함이다. 開物은 第五章의 繼之者善의 뜻이오 또한 顯諸仁의 뜻으로서 生長의 象을 말함이오 成務는 第五章의 成之者性의 뜻이오 또한 藏諸用의 뜻으로서 成收의 象을 말함이니 生長하는 것은 萬物이므로 開物에는 物을 말하고 成收하는 것은 人工을 加한 것이므로 成務에는 人工의 業務를 말한 것이며 冒天下之道라 함은 冒는 目을 蒙蔽함이라 第五章에 말한 바와 같이 天下의 道는 一陰一陽하는데 그 道를 運行하고 있는 神은 陰하고 陽하고 함을 測할 수 없이 蒙蔽되어 있다 함이다 通天下之志라 함은 上章의 至精하여 天下의 志를 通한다 함이니 또한 善이 繼生하여 物을 開한다는 뜻이오 定天下之業이라 함은 上章의 至變하여 天下의 務를 成한다 함이니 또한 性이 成하여 業務를 成한다는 뜻이오 斷天下之疑라 함은 上章의 至神하다 함이니 또한 陰陽不測하는 神으로서 天下의 道를 冒한다는 뜻이다.

蓍之德圓而神이라 함은 蓍는 天數二十五에 陰陽이 있어 五十이 되고 五十은 大衍數이며 天은 圜行하여 中心의 一이 用치 아니하므로 大衍數의 用은 四十九가되고 四十九는 七七의 積으로서 少陽數 七의 象이 되니 이는 用九하는 乾은 七로써 用을 삼는 까닭이며 七七의 四十九數는 圓하고 固定된 方이 없으므로 神無方의 理에 依하여 이것을 神하다고 한 것이다. 卦之德方而知라 함은 地數三十에 陰陽이 있어 六十이 되고 六十은 天干地支數이며 地는 母體의 象이 되어 반드시 胎宮으로써 用을 삼고 陰陽九六이 交하여 次世代인 一을 生하는 理에 依하여 六十數의 胎宮은 四數로 되는 것이므로 天干地支數의 用은 六十四가되고 六十四는 八八의 積으로서 少陰數八의 象이 되니 이는 用六하는 坤은 八로써 用을 삼는 까닭이며 八八의 六十四數는 方하고 方한 者는 固定하여 前言往行을 收藏하는 知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知하다고 한 것이다.

六爻之義易而貢이라 함은 義는 陰陽의 義이오 易은 剛柔의 相易함이오 貢은 獻功함이니 六爻는 陰陽이 서로 推하고 서로 變易하여 事功에 適合하게 한다 함이다.

聖人이 易을 體하여 洗心하고 密에 退藏하니 洗心은 前章의 無思也의 뜻이오 退藏於密은 前章의 無爲也의 뜻이며 吉凶에 民으로더불어 患을 한가지로 한다. 함은 聖人이 易을 作한 本意가 民을 患難中에서 濟하여 天下를 利케 함에 있다 함을 말함이오 神以知來知以藏往이라 함은 蓍의 圓神한 德을 體하여 未來事를 知하고 卦의 方知한 德을 體하여 前言往行을 識하여 藏한다 함이니 이가 聖人이 天下의 志를 通하고 天下의 業을 定하고 天下의 疑를 斷하는 所以이며 이러한 事業에 與하는 者는 古者에 聰하여 察함이 速하고 明하여 日月과 같이 照하고 叡하여 深한곳까지 穿하여 通하고 知하여 覺함이 矢와 같이 速하고 神하여 陰하고 陽하고 함을 測치 못하고 武하여 威하되 殺치 아니하고 하는 者이다. 이와 같이하여 天의 一陰一陽하는 道에 明하고 民의 事故를 察하여 이에 神物인 蓍를 興하여 先見先知로써 民의 日用에 前하여 敎示하는 것이며 聖人은 易을 體하여 齋戒하니

齋는 齊와 立心으로 되어 上文의 洗心의 뜻이오 戒는 戒愼으로서 上文의 退藏於密의 뜻이며 齋하고 戒하여 그德을 神明케 하니 神明이라 함은 乾坤의 神과 같이 明하다는 뜻으로서 神도 또한 神明이라 하고 사람의 精神도 또한 神明이라 하는 것이다.

不殺者夫 神明其德夫의 夫字는 夫易의 夫로서 上章의 易無思也의 易을 指함이다. 戶를 闔하여 藏하는 것을 坤이라 하고 戶를 闢하여 顯하는 것을 乾이라 하고 한번 闔하고 한번 闢하는 것을 變이라 하고 往하고 來하고 하여 窮치 아니함을 通이라 하니 乾坤變通은 天地의 運行하는 機를 말한 것으로서 上文에 天의 道에 明하다는 뜻이오 見하는 것을 象이라 하고 形의 成한 것을 器라하고 象을 觀하여 形을 制作하여 用함을 法이라 하고 制用하는 法을 利하고 闔闢하는 乾坤의 戶를 出入하여 民이 골고루 感하여 用하는 것을 神이라 하니 象器法神은 사람이 人工으로써 制하는 것으로서 上文에 民의 故를 察하여 民의 用에 前한다는 뜻이다.

易에 太極이 있어 이가 兩儀를 生한다 함은 上文의 闔闢하는 乾坤을 말함이니 戶는 一인데 闔하고 闢하고 하는 兩作用이 있어서 乾坤이 되니 戶의 一은 太極이오 兩作用인 乾坤은 兩儀이라 그러므로 太極이라 함은 乾坤의 生하기 以前에 闔闢의 機를 藏하고 있는 宇宙의 戶를 말함이오 宇宙全體를 말한 것은 아니다. 極은 屋脊의 棟이오 乾坤은 上下로 闔闢往來하는 것이므로 戶는 屋脊의 棟에 있는 것이니 그 까닭에 戶에 極字를 쓴 것이오 太極이라 함은 宇宙太一體의 一極點에 位한 戶라 하는 뜻이다.

太極生兩儀하고 分而爲二象兩하니 大衍數의 一不用이 곧 太極의 位이오 不用하는 一은 大衍數의 中心에서 自轉하면서 鼓動하여 四十九를 用하는 것이니 太極은 自轉闔闢하는 鼓動中心이오 이 中心이 있는 까닭에 分二하여 陰陽兩儀가 生하는 것이다.

兩儀가 四象을 生한다 함은 天地가 水火의 精인 日月을 生한다 함이니 天地日月이 모두 天體로서 天에 在하여 象을 成한 것이므로 四象이라 한 것

이며 四象이 八卦를 生한다 함은 天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하는 風으로써 用을 삼고 地는 地勢가 上升하여 天에 接하는 山으로써 用을삼고 日은 火가 地로 下向하는 雷로써 用을 삼고 月은 水가 天으로 上向하는 澤으로써 用을 삼고 하여 天地日月의 象을 成한 後에 雷風山澤의 作用이 行하니 天地日月과 雷風山澤을 合하여 八卦라 한 것이다. 八卦의 生成의 順序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 出生하는 順序로는 乾坤이 父母로 되고 다음에 長男長女인 雷風의 氣가 生하고 그 다음에 中男中女인 水火의 精이 生하고 내종에 少男少女인 山澤의 形이 生하는 것이며 그 成象하는 順序로는 乾坤兩儀가 있은 然後에 日月이 成象하고 그 다음에 雷風山澤의 作用이 行하는 것이니 兩儀四象八卦의 順은 이 成象하는 順序를 말한 것이다.

八卦가 모두 生한 然後에 吉凶이 定하니 이는 第一章에 天地卑高動靜聚分의 八卦가 있은 然後에 吉凶이 生한다 하는 뜻을 承한 것이오 吉凶이 大業을 生한다 함은 天의 象에는 吉凶이없고 吉凶은 地上의 方과 物에 聚와 分이 있음을 因하여 生하는 것인데 사람이 吉을 趍하고 凶을 避하기 爲하여 坤의 簡能作用으로써 可大한 業을 生하는 것이 곧 吉凶이 大業을 生함이니 이는 人工으로써 器와 法을 制하여 用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兩儀 四象 八卦는 上文의 乾坤變通의 뜻을 承함이오 吉凶大業은 上文의 象器法神의 뜻을 承한 것이다.

法象이 天地보다 大한 이가 없다 함은 上文의 闔戶闢戶하는 乾坤의 뜻을 承함이오 變通함이 四時보다 大한 이가 없다 함은 上文의 闔闢往來하는 變通의 뜻을 承함이오 縣象著明함이 日月보다 大한 이가 없다 함은 上文의 見乃謂之象의 뜻을 承함이오 崇高함이 富貴보다 大함이 없다 함은 貴는 乾의 子인 씨의 象이오 富는 坤의 形質의 長成하는 象이니 萬物은 形而下한 器로서 반드시 씨와 形質로써 成하는데 씨는 天에 屬하므로 崇이라 하고 形質은 地에 屬하여 長成하므로 高라 하는 것이니 이는 上文의 形乃謂之器의 뜻을 承함이오 物을 備하여 用을 致하고 象을 立하여 器를 成하여 天下의 利로움을 삼음은 聖人보다 大한 이가 없다 함은 上文의 制而用之謂之法

의 뜻을 承함이오 賾은 探하고 隱은 索하고 深은 鉤來하고 遠은 致하여 天下의 吉凶을 定하고 天下의 亹亹를 成함은 蓍龜보다 大한 이가 없다 함은 上文의 利用出入民咸用之謂之神의 뜻을 承함이니 亹亹는 業務를 勉勉하는 것이다.

則之와 效之와 象之라 함은 則之는 그것으로써 法則을 삼는다 함이오 效之는 그 法則이나 象을 본뜬다 함이오 象之는 그 形容에 擬한다 함이니 그러므로 神物인 蓍와 河圖洛書는 그것으로써 法則을 삼는 것이오 天의 象은 그의 形容에 擬하여 事物의 事宜를 取象한 것이오 天地의 變化는 그것의 法則과 象을 본뜨는 것이다. 河出圖則之者 則河圖而作文王八卦圖也 洛出書則之者 洛書爲胎宮之象 而東北之一六水三八木 胎宮之井卦也 西南之四九金二七火 胎宮之革卦也 序卦未濟有井象(未汔)乾有萃象(乾道乃萃)此洛書變化越於后天之象也

十二. 易有四象 章

易有四象所以示也 繫辭焉所以告也 ... 不言而信存乎德行

第二章의 觀象繫辭而明吉凶의 뜻과 上文의 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의 뜻을 承한 것이니 이는 第二章으로부터 第八章에 이르는 總七章의 뜻을 結論한 것이며 그러므로 第二章의 末에 自天祐之吉無不利하는 大有上九의 爻辭를 말하고 第八章의 末에 또한 同一한 大有上九爻辭를 말한 것이다.

大有卦는 無로부터 物이 처음으로 生하여 有로 되는 卦이므로 上九에 自天祐之吉無不利의 象을 말한 것인데 第二章에 聖人이 처음으로 設卦한 것은 또한 無로부터 有를 生하는 象이므로 그 章末에 大有上九爻辭를 말한 것이며 第十一章에 易有太極을 말하니 易의 生生의 道는 太極으로부터 始하여 有로 된 것이므로 또한 章末에 大有上九爻辭를 말한 것이다. 繫辭下의 窮變通久에 또한 大有上九爻辭를 말하고 그 象을 乾坤에서 取한 것이라 함은

또한 物이 窮하여 無로 된 뒤에 새로 有를 生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立象而盡意라 함은 象은 上章의 闔戶闢戶하는 乾坤과 乾坤에서 生하는 天地水火雷風山澤이오 意는 思慮가 外에 現하는 것이니 이는 八卦의 象에 聖人의 意가 現하고 있다 함이오 設卦以盡情僞라 함은 卦는 六十四卦이오 情은 四情과 같이 生生本能에서 出하는 것이오 僞는 人爲로서 天眞치 못한 것이니 六十四卦에는 스스로 그 情僞가 나타난다 함이오 繫辭焉以盡其言이라 함은 卦爻에 辭를 繫하여 聖人의 言하고자 하는 바를 모조리 言한 것이라 함이오 變而通之以盡利라 함은 上章의 一闔一闢하는 變과 往來不窮하는 通으로써 器와 法을 制하여 民의 日用을 利롭게 한다 함이오 鼓之舞之以盡神이라 함은 鼓는 萬物을 鼓動하여 顯仁藏用함이오 舞는 萬物의 生長함에 律動을 行하여 氣가 天을 應함이니 이는 上章의 利用出入의 뜻인데 利用出入民咸用之가 곧 神의 象이므로 鼓之舞之가 또한 神을 盡하여 神과 사람이 相和하는 것이다.

乾坤은 緼이라 함은 天地의 絪緼함이오 또한 緼은 索이니 乾坤이 一索 再索 三索하여 子를 生한다는 뜻이다. 乾坤이 絪緼하여 子를 生하므로 乾坤이 列을 成한 然後에 易立乎其中也 前에 天地設位易行乎其中 此則 乾坤이 列을 成하매 易이 그 中에 立한다 한 것은 그 指稱한 바가 同一치 아니한 것이니 天地가 位를 設한다 함은 天地의 位가 上下에 定하고 日月이 그 中을 行한다는 運行의 象을 말함이오 乾坤이 列을 成한다 함은 乾坤이 陰陽의 兩列을 成하고 六十四卦가 그 列中에 立한다는 組織의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各卦의 陽劃陰劃은 모두 乾九坤六으로써 表하는 것이다.

易의 六十四卦는 모두 乾坤으로써 組織되어 있는 까닭에 乾坤이 毁하면 易을 見할수가없고 易을 見할 수가 없으면 乾坤이 或幾히 止息하는 것이니 이는 易에서 乾坤成列의 뜻을 缺하면 易의 聖人의 意를 見할 수가 없는 것이오 易의 聖人의 意를 見할 수가 없으면 乾坤의 易簡作用도 또한 止息하여 行치 못하는 것이라 함이며 그 까닭에 聖人의 意는 列을 成하고 있는 乾坤에서 見한다 함이다.

그러므로 乾坤이 列을 成하고 易이 그中에 立하여 形而上한 것은 一陰一陽하는 道가되어 上章에 말한 바의 闔闢變通의 뜻이 되고 形而下한 것은 形質의 器가되어 上章에 말한 바의 象器法神의 뜻이 되는 것인데 一陰一陽하는 道로써 化하여 裁成함을 一闔一闢하는 變이라 하고 推進하여 行함을 往來不窮하는 通이라 하며 變하고 通하여 器와 法을 制하여 天下의 民에게 擧措함을 事業이라 하는 것이니 事業은 곧 窮을 變通하여 象器法神으로써 民을 利케 하는 일이다.

聖人이 天下의 賾함에 見함이 있어 象으로써 物宜를 象하고 天下의 動함에 見함이 있어 爻로써 吉凶을 斷하니 天下의 賾함을 極함은 卦象에 있고 天下의 動함을 鼓動함은 爻辭에 있고 化하여 裁成함은 變에 있고 推進하여 行함은 通에 있는 것인데 上文에는 鼓之舞之以盡神이라 하여 易道의 極致는 神人相和에 있는 것이므로 變하고 通하여 그 利로움을 盡한 然後에 神하여 明하게 함은 그 人의 鼓之舞之함에 있고 默默하여 成하고 言치 아니하되 信하고 함은 易簡의 德行에 있는 것이다.

聖人의 見賾見動의 辭는 第八章과 第十二章에 있는데 第八章의 辭는 卦象과 爻辭로써 言動을 擬議하여 그 變化를 成하기 爲함이오 第十二章의 辭는 卦象과 爻辭로써 變通을 化裁推行하여 神而明之 默而成之 不言而信하기 爲함이니 第八章은 易簡의 道를 進修하는 段階를 말함이오 第十二章은 易簡의 德行을 實踐하는 段階를 말함이다.

變通에 對하여는 세 가지로 말하니 第十一章의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은 乾坤의 運行을 말함이오 第十二章의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은 사람이 乾坤을 法하여 人事를 行함을 말함이오 化而裁之存乎變 推而行之存乎通은 사람이 天下의 賾과 天下의 動을 化裁推行하여 易簡에 合致케 하는 實踐方法을 말함이다.

繫辭 下

一. 八卦成列 章

八卦成列 ... 剛柔者立本者也 .. 夫乾確然 ... 聖人之情見乎辭

繫辭上編의 第一章 天尊地卑章은 上下編의 總綱領이 되고 下編의 第一章은 上編의 第二章과 相應하니 그러므로 이 章의 八卦成列因重은 上編第二章의 設卦觀象이오 이 章의 剛柔相推變在其中은 上編第二章의 剛柔相推而生變化이오 이 章의 繫辭焉而命之와 吉凶悔吝者生乎動은 上編第二章의 繫辭焉而明吉凶이오 이 章의 動在其中과 生乎動은 上編第二章의 六爻之動三極之道이며 다만 繫辭焉과 剛柔相推의 兩句順序가 相換된 것이오 上編은 失得 憂虞 進退 晝夜 三極等의 變化하는 象을 主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剛柔相推而生變化의 辭와 連結시킨 것이오 이 章은 作易의 序를 主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八卦成列 因而重之 剛柔相推 繫辭焉의 順序로써 象으로부터 辭에 及하고 辭의 中에 動이 있어 吉凶 悔吝이 生함을 말한 것이다.

剛柔는 本을 立함이라 함은 乾剛坤柔로써 作易의 本을 삼는다 함이니 이는 上編末章의 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의 뜻을 承한 것이며 變通은 時를 趣함이라 함은 日月의 運行에 依하여 四時의 變通이 生한다 함이니 이는 上編末章의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의 뜻을 承한 것이며 吉凶은 貞勝함이라 함은 貞은 事의 幹으로서 變通의 機를 保合하고 있는지라 爻의 動하는 中에는 吉凶이 生하고 그것이 스스로 變通되어 凶을 避하고 吉의 一途로 趍向하는 것이 곧 貞勝이니 이는 上編末章의 擧而措之天下之民의 뜻을 承한 것이다.

天地의 道는 貞觀함이라 함은 上文의 剛柔立本의 뜻이니 天地의 道는 스스로 變通되어 常常觀示하는 것이오 日月의 道는 貞明함이라 함은 上文의 變通趣時의 뜻이니 日月의 道는 스스로 變通되어 常常明照하는 것이오 天下

의 動은 貞夫一함이라 함은 上文의 吉凶貞勝의 뜻이니 天下의 動하는 것은 스스로 變通되어 凶을 避하고 常常吉의 一途로 趍하는 것이며 天地 日月 天下의 動함이 스스로 變通되는 것은 모두 乾坤의 易簡의 理에 依한 것이다.

確은 石과 雚으로 되어 石은 堅함이오 雚은 鳥가 上出하려 함이니 이는 乾이 剛하여 飛高하는 象이오 隤는 阜와 貴로 되어 阜는 陸土이오 貴는 高함이니 이는 坤이 土厚하여 萬物을 載하는 象이니 乾은 確然하므로 사람에게 陽의 易함을 示하고 坤은 隤然하므로 사람에게 陰의 簡함을 示하는 것이다.

爻라 함은 이 乾坤의 易簡을 效함이오 象이라 함은 이 乾坤의 易簡을 像함이니 像은 人과 象으로 되어 人事의 象을 말한 것이다.

爻象動乎內라 함은 爻象은 八卦의 成列因重의 속에 있으므로 內라하고 乾坤의 易簡을 效像하므로 動이라 한 것이며 吉凶은 사람에게 明示하여 疑를 斷하는 것이므로 外에 見한다고 한 것이다. 功業見乎變이라 함은 功業은 天下의 民에게 擧措하는 事業이오 變은 化하여 裁함이니 化裁하여 事業을 天下의 民에게 擧措하는 것이 곧 功業이 變에 見함이오 聖人之情見乎辭라 함은 聖人의 情은 聖人이 易의 情을 發揮하여 吉凶利害를 明示하므로 그것을 聖人의 情이라 한 것이니 聖人이 辭를 繫한속에 動함이 있고 動하는 속에 吉凶 悔吝이 있는 것이 곧 聖人의 情이 辭에 見함이다.

上編의 第二章에 象變辭占을 말하였는데 이 章은 그와 相通하므로 또한 象變辭占을 말하니 爻象은 象이오 吉凶은 占이오 功業은 變이오 聖人之情은 辭이다.

二. 天地大德 章

天地之大德曰生 … 古者包犧氏之王天下 … 作結繩而爲網罟 … 是故易者象也象也者像也

이 章은 第一章의 八卦成列象在其中의 뜻을 承하여 十三卦의 卦象으로써 義를 行하는 易簡의 道를 말한 것이다.

天地의 大德은 生生이오 사람은 天工의 未成한 것을 人工으로써 成하여 天地化育의 功으로 贊하는 것인데 聖人은 備物致用하고 立象成器하여 天地의 化育을 贊하여 天下를 利롭게 하는 것이므로 聖人이 利器利法하는 大位에 있어야 하니 이 까닭에 位는 聖人의 大寶가 되는 것이오 上編第十一章의 崇高莫大乎富貴라 함은 聖人大寶의 位를 말함이다.

사람의 道를 立하는 것은 仁과 義이니 그러므로 大寶의 位를 守함은 仁으로써 하는 것이오 사람을 聚함에는 財를 生하여야 하는데 財를 經理하고 言辭를 正하게 하고 民의 非違를 禁하고 함은 義로써 하는 것이니 仁과 義로써 人의 道를 立하면 能히 人工으로써 天工의 未成한 것을 成하여 사람이 三才의 位를 이루는 것이다. 人의 道를 立하는 仁과 義는 四時로써 보면 春과 秋의 象이니 孔子가 春秋를 作한 것도 또한 人의 道를 立하기 爲함이다.

義라 함은 陰陽의 義로서 異質의 物을 和하여 一을 만드는 것이니 理財 正辭 禁民 爲非는 權力으로써 民을 强制하는 것이 아니라 聖人이 大位에 있어 民과 和하여 一하는 것이며 理와 正과 禁이 모두 對立을 調和하여 一하는 易簡의 道이다.

八卦는 包犧氏가 天의象 地의法 鳥獸의文 水土의宜에 合한 蟲魚草木等을 觀하고 近하기는 人身과 遠하기는 萬物에서 取하여 비로소 卦象을 劃한 것이니 이 卦象의 속에는 萬物의 生生하는 情을 包括하고 있는 것이다.

乾坤의 神明한 德을 通하고 神明한 德은 天地의 生生하는 大德이오 萬物의 情은 萬物의 生生하는 本能이다.

作結繩而爲網罟라 함은 繩을 結하여 網罟를 만드는 일을 作興한다 함이며 離는 動하는 陽이 靜한 陰에 麗하는 卦이므로 鳥獸魚鼈이 網罟에 麗하는 漁獵生活의 象을 取한 것이다.

耒耨之利는 益卦의 巽과 震이 모두 木이오 上入下動하므로 耒耨를 使用하는 農業生産의 象을 取한 것이다.

日中爲市는 噬嗑이 震으로부터 離하여 日中의 象이 있고 春夏의 生長期에 營養을 攝取하는 象이 있고 또 分하고 合하고 하는 象이 있으므로 日中의 市場에서 物貨를 交易하는 交換經濟의 象을 取한 것이다.

包犧氏와 神農氏가 網罟를 만드는 일을 作興하고 耒耨의 理를 敎하고 市場을 만들어 交易하게 한 것은 모두 人類始生의 初에 비로소 漁獵農市의 法을 敎한 것이니 이는 人類社會의 生하는 時運의 象이며 아직 人工이 幼稺하여 그 生産이 生活을 充足시키지 못하므로 社會가 窮하여 民心이 倦怠한 것이다. 이에 黃帝堯舜氏가 作하여 社會를 變通하여 民心으로하여금 倦怠치 아니하게 하고 神하고 化하여 民으로하여금 事宜를 얻게 하니 神한다 함은 民이 그 制度를 由行함이 自然스러워서 勉强이 없는 것이오 化한다 함은 民이 스스로 樂從하고 實踐하여 그 規模의 속에 安하는 것이니 이는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이다. 易은 天地와 相似하여 窮한즉 變하고 變한즉 通하고 通한즉 久하므로 大有上九爻辭와 같이 自天祐之吉無不利하니 大有上九는 無에서 有를 生하는 象을 말함이라 黃帝堯舜氏의 作하기 以前에 生의 段階가 終하여 社會가 窮하니 이는 無의 象이오 이것을 通其變 神而化之하여 無의 속에서 新有의 社會를 生하여 長의 段階가 始하니 이가 곧 窮變通久로서 大有上九의 뜻에 合하는 것이오 이것이 洛書의 長하는 時運의 始이다.

이 節에는 大有乾坤의 三卦가 있다.

黃帝堯舜이 衣裳을 垂하매 天下가 治한다 함은 衣는 上衣이오 裳은 下衣이라 萬物中에 衣裳을 입는 것은 오직 사람이오 衣裳은 古代의 가장 優秀한 人工品이니 이는 人工으로써 天工의 未成함을 成하는 것으로서 社會가 長하는 時運을 맞이함을 象하는 것이다. 乾坤에서 取한 것이라 함은 乾坤은 萬物을 妙하게 하는 神이므로 黃帝堯舜氏가 이 象을 取하여 神而化之의 治를 行한 것이라 함이다.

乾坤의 通變以後에는 長하는 時運이 되고 長하는 時運에는 他를 克制하여 自體의 生을 삼으니 이가 곧 洛書五行의 承乃制의 理이다. 그러므로 舟楫은 水險을 克制함이오 服牛乘馬는 牧畜을 하여 動物을 克制함이오 重門擊柝은 暴客을 克制함이오 杵臼는 搗精으로써 穀皮를 克制함이오 弧矢는 不遜을 克制함이다. 渙에 舟楫을 말한 것은 水上에 木이있어 險을 散함을 象한 것이오 隨에 服牛乘馬를 말한 것은 震兌는 乾元과 坤元으로서 서로 係維하고 있으므로 乾馬坤牛의 係維함을 象한 것이오 豫에 重門擊柝을 말한 것은 坤의 括囊의 位에 乾을 得하여 雷와 木이 되어 門과 柝을 象한 것이오 小過에 杵臼를 말한 것은 上木下土하고 上動下止하며 外陰이 消하고 內陽이 存하므로 穀의 搗精을 象한 것이오 睽에 弧矢를 말한 것은 睽는 南北極의 卦로서 南緯와 北緯가 各其 半圓으로되고 그 속에 直한 地軸이 있으며 또 金火에 武器의 象이 있으므로 弧矢를 象한 것이다.

易之以宮室 易之以棺槨 易之以書契의 易는 모두 乾以易知의 易이니 易는 易簡의 뜻이다. 十三卦中에서 오직 宮室 棺槨 書契의 三卦에만 乾象과 四陽以上의 盛陽이 陰中에 싸여 있으므로 大哉乾元 大哉乾乎의 뜻을 取하여 大壯 大過 및 夬等의 大字로된 卦名을 쓰니 이는 易之以가 곧 乾易의 뜻이라 함을 表한 것이다. 또 이 三卦에 모두 後世聖人易之以를 말하니 이는 網罟 耒耨 市場의 三卦에 말한 包犧 神農은 生의 時運인 先世의 王이오 易卦中 大象에 先王以라 한 것은 모두 이 先世의 王을 말한 것이며 窮變通

久 舟楫 牛馬 擊柝 杵臼 弧矢等의 卦는 克制로써 生을 삼는 長의 時運을 말한 것이며 宮室 棺槨 書契의 卦는 上古의 制度를 變通하여 新制度를 만들어 易簡의 道를 行한 것이므로 先世의 王과 對稱하여 後世聖人이라 한 것이다.

大壯에 宮室을 말한 것은 四陽이 陰中에 止하고 上에 東方木의 震이 있어 棟의 象이 되고 棟의 下에 乾이 健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住居하는 宮室을 象한 것이오 大過에 棺槨을 말한 것은 四陽이 顚하여 陰中에 入하고 未濟의 男之窮이 大過의 속에 있어 喪亡의 象이 되고(雜卦參照)乾의 上下에 坤을 得하여 地中에 있고 木이 澤下에 있고 하므로 사람이 죽어서 地中의 木中에 있는 棺槨을 象한 것이오 夬에 書契를 말한 것은 夬卦에 一陰인 兌口가 五陽의 上에 決하고 있는 것은 內部의 陽氣를 口로써 外에 發宣하여 言語의 象이 되니 萬物中에 言語로써 能히 複雜한 事物을 說明하고 서로 그 意志와 思想을 發表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며 言語가 있는 까닭에 또한 文字를지어 書契가 있으니 書契라 함은 人工으로써 文字를 지어 사람들이 서로 約束契合하여 使用한다는 뜻이니 夬卦에 書契가 있는 것은 口로써 意思를 發表하는 象이 있는 까닭이다.

書契는 文字의 記錄으로서 有形한 것이오 그 속에 人間의 無形한 모든 意思가 棲在하니 마치 사람은 肉體로 되어 有形한 것이오 그 肉體의 속에 無形한 精神作用이 있음과 같으니 그러므로 書契와 人身의 象이 相似한 것이오 夬는 精子가 卵子를 決하고 入하여 사람의 形質을 成하고 神明이 肉體中에 入하는 象의 卦이므로 初九의趾 九四의臀 九五의角을 말한 것이오 人身의 象과 書契의 象이 相似하므로 夬에 書契를 말한 것이다.

上古에는 結繩而治하더니 後世聖人이 易簡케 하기를 書契로써 하였다 함은 十三卦의 初頭와 終末을 對稱한 것이니 結繩而治는 人類發生의 初期에 先王이 漁獵으로써 肉體生活을 하기 爲한 政治를 行한 것이오 書契는 後世聖人이 敎育을 施하여 精神生活을 하기 爲한 政治를 行한 것이니 이는 肉體生活로부터 精神生活에로 向上하는 것이며 여기에 后天時運의 師傳道의 뜻

을 寓한 것이다.

易이라 함은 象이라 한 것은 易은 卦象을 取한 글이라 함이오 象이라 함은 像이라 한 것은 像은 人事의 象을 말함이니 이는 易은 사람의 生生을 爲하여 人事의 象을 取한 글이므로 前記한 十三卦도 모두 卦象을 取하여 人事를 말한 것이라 함이다.

三. 彖者材也 章

彖者材也

材는 器를 作하는 木材로서 物을 組成하는 材料의 뜻이니 彖은 卦의 組織을 말한 것이므로 材라 한 것이오 上文의 十三卦는 彖의 材를 말한 것이다. 爻는 天下의 動함을 效한 것이오 그 動함을 因하여 吉凶이 生하고 悔吝이 外面에 著하는 것이다. 著가 著 着 로 變字함

四. 陽卦多陰 章

陽卦多陰陰卦多陽 ... 陰二君而一民小人之道也

三劃卦에는 一이 主가 되는 것이므로 一陽二陰의 卦는 一陽이 主하여 陽卦로 되는 것이오 一陰二陽의 卦는 一陰이 主하여 陰卦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德行은 運行하는 陽을 主하는 것이니 一陽二陰의 卦는 一陽이 君하고 二陰이 民하여 一君을 中心으로하여 聚하므로 統一作用이 行하는 것이오 二陽一陰의 卦는 二陽이 君하고 一陰이 民하여 二君이 分立하여 蔽하므로 서로 分散하는 것이다. 天下의 運動은 統一된 然後에 調和가 되어 이것을 君子의 道라 하는 것이오 運動이 分散되면 調和가 없어서 生生치 못하니 이것을 小人의 道라 하는 것이다.

易學은 震子의 生成史이니 善에 一하여 震子의 生成을 爲하는 者는 君子의 道이오 惡의 쪽으로 分立하여 震子의 生成치 못하는 者는 小人의 道이니 以下 十一卦의 爻는 이 道를 말한 것이다.

易曰憧憧往來朋從爾思 … 窮神知化德之盛也

九四爻 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이는 咸九四爻의 解釋이오 震子의 生成함을 말한 것이다.

咸은 感함이니 少男少女가 相配하고 男이 女에 下하여 感應하는 象이 되고 坤中에 乾을 包하여 物의 組織의 象이 되므로 夫婦感應의 卦로 되는 것이오 九四는 相感하는 心의 位이므로 憧憧이라 하니 憧은 心과 童으로 되어 童心의 象이오 少男少女의 二童의 心을 象한 것이오 往來는 外坤內乾의 陰陽往來함을 象한 것으로서 또한 男女가 相思往來한다는 뜻이오 朋從爾思는 朋은 陰으로서 兌陰이 艮陽의 思를 從한다는 뜻인데 또한 朋은 달의 陰精의 象이오 艮陽은 光明의 象이라 달의 陰精이 光明을 從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咸은 달의 形質의 卦인데 九四는 乾陽의 中心이므로 달이 乾陽을 受하는 象이 되는 것이며 朋은 달의 象이니 朋從爾思는 달이 乾陽의 光明을 受함이다. 艮兌의 여무는 것이 곧 달의 여무는 것인데 咸은 艮兌가 夫婦로 되는 것이므로 少男少女의 여무는 象이 되어 달이 여물고 달의 여문 것이 곧 后天달이니 그러므로 咸에서 后天달이 여물며 正易에 萬曆而圖兮咸兮恒兮는 后天달의 生함을 말함이니 이가 日月變化의 象이다.

何思何慮라 함은 思는 深通함이오 慮는 謀思함이니 咸卦의 山澤通氣는 아무런 造作이 없는 無心의 感이므로 何思何慮라 한 것이다. 塗는 震의 大塗의 象이니 震子는 生命의 原이오 殊塗라 함은 사람마다 各殊한 生命을 所

有하고 있다 함이며 咸卦의 艮은 震의 反易이오 兌는 文王八卦圖에 震으로 더불어 相交하는 것이므로 同歸而殊塗一致而百慮라 함은 震子를 中心으로 하여 艮兌가 同歸一致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咸卦는 外坤內乾한 天地의 象이 있고 또 二少의 夫婦로서 萬物化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그 속에는 스스로 萬物의 生命과 形質을 生成하는 日月寒暑의 象이 있으니 生命은 光明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萬物의 씨는 日月에서 生하고 形質은 寒暑로써 養하는 까닭에 萬物은 四時의 推移에 依하여 生成하는 것이라 日月이 相推하여 明이 生하고 寒暑가 相推하여 歲가 成하고 하는 것은 日月이 無心한 感으로써 서로 往來하여 生命과 形質의 生成하는 것이다.

屈은 退轉함이오 信은 孚로서 陽氣가 뭉치는 것이니 物의 往하는 者는 退轉하고 來하는 者는 新生命의 生하는 것이므로 舊物이 退轉하면서 新物이 生하니 이것을 屈信相感이라 하며 信은 陽이 陰中에 入하여 뭉치는 象이므로 陽이 陰中에 入하여 義로 和하는 利의 象이 되니 利가 生한다 함은 이 뜻을 말함이며 咸은 乾이 坤中에 있어 陽이 陰中에 入하는 象이 되므로 信과 利를 말한 것이오 이것을 時運으로써 보면 天道로부터 地道로 넘어가고 生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象이 되는 것이다.

蠖은 桑上虫이오 桑은 東方神木이니 東方木上의 尺蠖은 震子의 象이오 龍은 震子의 象이므로 龍蛇가 또한 震子의 象이다. 咸卦는 天道로부터 地道로 넘어가서 震子가 內部에 入하여 信하는 것이므로 尺蠖之屈以求信이라 함은 震子가 陰體中에 入하여 뭉침이오 龍蛇之蟄以存身 이라 함은 震子가 冬眠하여 精을 養하고 艮의 形質을 成함이다.

易에는 乾坤에 龍의 象을 말하고 그 以外에는 오직 咸九四에 龍을 말하니 이는 龍은 乾坤을 繼世하는 震子이오 咸卦에 乾坤을 繼世하는 震子의 生하는 象이 있으므로 龍蛇의 蟄을 말한 것이다.

精은 水火의 精의 通明함이오 義는 陰陽의 義이니 精義라 함은 艮山의 光明과 兌澤의 陰精이 義로 和하여 相合한다 함이오 入神이라 함은 形質이 神의 作用에 依하여 運行된다 함이니 精義入神이라 함은 山澤의 形質은 精이오 山澤의 精을 運行하는 것은 雷風의 氣이오 雷風의 氣는 神이니 山澤의 精이 義로 和하여 陽이 內에 入하고 雷風의 神에 依하여 運行되는 것이 곧 精義入神이다. 致用이라 함은 艮陽이 內에 入하여 體로 되고 兌陰이 外에 있어 用이 된다 함이니 이는 成의 時運에 陽이 內에 있어 體로 되고 陰이 外에 있어 用으로 됨을 말함이오 利用安身이라 함은 外에 있는 兌陰의 用을 義로 和하여 內에 있는 艮身을 安한다 함이니 이는 陽體陰用의 象을 말함이오 崇德이라 함은 聖人이 易簡의 道로써 生生하는 德을 崇함이니 이는 艮兌의 形質이 陽體陰用하고 雷風의 神에 依하여 運行되고 하는 成의 時運에는 易簡의 道가 行하여 德이 崇하여 天에 通한다 함이다.

過此以往未之或知라 함은 咸卦의 成의 時運을 過하면 그 以後는 未知의 未來后天이라 함이오 窮神知化라 함은 后天의 成의 時運은 神하여 化하는 時運이므로 神道를 窮하여 天下를 化成함을 知한다 함이니 窮神知化가 곧 人間社會가 神化되어 生生의 德의 盛한 后天時運이라 함이다. 咸卦九四는 天地感應의 中心에 있어 陽이 陰中에 入하는 位로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陽體陰用하는 后天의 象을 말한 것이다.

易曰 困于石據于蒺藜 ... 妻其可得見邪

이는 困六三爻의 解釋이오 陰이 陽을 蔽하여 震子와 兌精이 모두 生成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六三爻辭 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困卦는 巽兌陰精이 水를 合한 生長卦이므로 胎宮卦로 되는 것인데 陰이 陽을 掩하고 水가 澤中에 在하여 澤無水의 象이 되고 六三은 陰이 陽을 掩하

는 爻이므로 六三에 困危한 象이 있는 것이다. 六三으로 剛鹵한 澤底를 負하니 地中水의 上面의 底土는 剛鹵하여 石의 象이 되므로 石에 掩蔽되어 困하다 함이오 下로는 蒺藜에 據하니 蒺은 疾草로 되고 疾은 陽이 陰에 陷하여 病이 된 것이므로 蒺은 陽의 疾病한 草이오 藜는 旱草로서 旱害의 年에 蒺藜가 먼저 生하는 것이니 據于蒺藜는 旱害에 걸린 病草에 據한다 함이오 이는 六三의 陰이 九二의 生의 中心의 生命水를 掩蔽함을 말함이다. 六三이 生命水를 掩하여 澤에 水가 없으니 澤은 陰體陰宮의 卵子의 象이오 卵子는 妻의 象인데 澤에 水가 없어서 卵子가 生치 못하니 이는 陰宮에 卵子가 없는 象이므로 그 陰宮에 入하되 그 妻를 見치 못한 것이며 이미 生命水가 없고 또 物의 資生하는 卵子가 없으므로 凶한 것이다

辱은 辰과 寸으로 되어 辰은 農耕時라는 뜻이오 寸은 法度라는 뜻인데 寸이 辰의 下에 있어 疆土가 農耕의 法度를 失하여 荒蕪한 象이오 疆土의 荒蕪한 것이 곧 辱이니 澤底의 石에 掩蔽되어 疆土가 荒蕪한 것이 곧 名必辱이오 危는 人이 厓上에 있어 危懼함이니 剛을 乘하고 旱草에 據한 것이 곧 身必危이다. 이미 辱하고 또 危하여 農耕이 失時하고 旱害로 因하여 草木이 生育치 못하고 하므로 死期가 將且至한다고 한 것이다.

困은 胎宮卦로서 震子를 胎育하는 象이오 震은 木의 象이므로 困字가 圍의 속에 木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六三의 無水의 位에 農耕 旱草等 草木의 象을 取한 것이오 六三은 陰이 陽을 蔽하여 震子가 生成치 못하므로 이는 小人의 道라 함이다.

易曰公用射隼于高墉之上 … 語成器而動者也

이는 解上六爻의 解釋이오 陰이 震子를 承受함을 말한 것이다.

上六爻辭 解釋에「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解卦는 凍氷이 解하여 百果草木이 甲坼하는 象인데 屯과 함께 雷水의 男卦이로되 屯은 生長卦이므로 씨의 象이 되고 解는 收斂卦이므로 陰精이 陽氣를 承受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上六은 氷解의 成한 位이므로 上六에 陰精의 器가 成하여 陽氣를 承受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公은 乾陽의 王과 對稱하여 坤의 陰精을 象한 것이며 隼은 禽이오 禽은 鳥獸의 胎卵으로서 震子를 含한 陽精을 象함인데 隼의 象을 取한 것은 解上六은 陰精의 器의 成한 것이므로 그 承受하는 禽도 또한 陽精의 成한 것이오 隼字는 隹와 十으로되고 十은 數의 成함이니 그러므로 隼은 禽의 成한 者이다. 解의 陰精은 坤으로서 달의 陰精의 象이오 달의 陰精이 陽氣를 受하여 震子와 兌精의 相遇하는 것은 同人卦九五爻의 先號咷而後笑의 象이오 高墉은 同人卦九三의 高陵과 九四의 墉이니 公用射隼于高墉之上獲之라 함은 달의 陰精이 陽精을 射하여 獲하되 高墉의 上에서 號咷하는 震子를 獲한다 함이오 이는 解卦에 달의 陰精이 있음을 表示하기 爲하여 달의 陰精과 乾陽의 相遇하는 同人卦의 象을 말한 것이다.

弓矢者器라 함은 弓矢는 坎의 弓輪의 象으로서 陰精이 陽氣를 取하는 器라는 뜻이니 解九二爻의 黃矢가 곧 器이오 射之者人이라 함은 射隼하는 곳은 同人의 高墉上의 震子라 함이오 待時而動이라 함은 陰精이 解하여 器의 成하는 時를 待한다 함이오 何不利之有라 함은 陰精과 陽氣가 相遇하여 義가 和한다 함이오 動而不括이라 함은 陰精의 解함이 成하여 括囊치 아니한다 함이다.

解上六은 君子가 器를 成하고 動하여 陽氣를 承受하므로 이는 君子의 道라 함이다.

子曰小人不恥不仁 … 屨校滅趾無咎此之謂也

이는 噬嗑初九爻 解釋이오 震子가 花中의 子仁으로 됨을 말함이다.

初九爻辭의 解釋에 「易曰」의 象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噬嗑卦는 文王八卦圖의 東方震으로부터 南方離를 行하는 生長卦이므로 太陽이 朝로부터 午中하고 四時가 春으로부터 夏하여 生長이 盛하고 震子가 離火의 陰宮에 入하여 草木의 花가 開하고 子仁이 始生하는 象이다. 花가 開하는 것은 生長의 象이오 子仁이 生하는 것은 收斂의 象이니 그러므로 噬嗑에는 分과 合의 兩象이 있는 것이며 物의 生長함에는 반드시 他를 克하여 食物을 삼는 것인데 噬嗑은 震子의 生長의 盛한 象이므로 他를 克하여 食物로 하는 뜻을 取하여 噬嗑이라 하니 噬는 他를 克하여 分解한다는 뜻이오 嗑은 그 分解된 營養을 合한다는 뜻이다.

初九는 震子의 位로서 子仁의 象이므로 陰體인 花中에 入하여 子仁으로 生하는 것이다. 屨는 足을 繫함이오 校는 木囚이오 趾는 震象으로서 足의 行함이오 滅은 沒入함이니 屨校滅趾無咎라 함은 震子를 木에 繫하여 行치 못하게 하고 陰陽이 異各치 아니한다 함이오 이가 곧 花中에서 子仁의 生하는 象이다. 小人은 昏暗하여 形質의 生長만을 主하고 精神生活은 知치 못하는 사람이오 仁은 子仁이오 義는 陰陽이 義로 和함이니 初九는 春夏生長卦의 陽으로서 陰中에 包在한 然後에 世世繼承하는 씨로 되는 것이오 만일 形質이 長하기만 하고 그 속에 震子를 收斂치 아니하면 子仁이 生치 아니하여 不仁이 되고 陰陽이 義로 和치 못하여 不義가 되는 것이니 小人은 이러한 不仁을 自塊反省치 아니하고 이러한 不義를 畏懼收縮치 아니하는 것이다. 利는 物의 收成함이오 勸은 合力함이오 威는 陽이 陰中에 壓入함이오 懲은 徵과 心으로 되어 心의 收斂함이니 小人은 收成하는 利를 見치 아니하면 力을 合하지 아니하고 陰中에 壓入하지 아니하면 心이 收斂치 아니하는 것이다. 小懲而大誡라 함은 小는 陰이니 形質의 象이오 大는 陽이

니 精神의 象이라 形質인 趾를 懲하여 精神을 깨닫게 한다 함이니 形質의 罰을 받고 精神이 覺醒하는 것은 小人의 福이오 福이라 함은 光明의 속에서 生命이 長하고 있음을 象함이니 이 爻는 小人이 君子로 化함을 말함이다.

善不積不足以成名 … 易曰何校滅耳凶

이는 噬嗑上九爻의 解釋이오 震子의 生育치 못함을 말한 것이다.

上九爻辭의 解釋에 「易曰」의 象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小人은 달의 陰精이니 剛柔分의 卦로서 上에 極하여 月虧의 象이 되므로 小人惡의 象이 된 것이다. 解卦는 달의 陰精이 陽光을 受하는 것인데 噬嗑上九는 月虧하므로 解치 못하는 것이며 小人惡은 剝의 小人長의 뜻이다.

木의 生生은 水液이 科條의 上端까지 上昇하여 震子가 生育하는 것인데 上九는 生長의 極으로서 火의 炎上하는 位에 있어 科條의 水液이 枯渴하고 또 陰中에 包在되지 못하여 스스로 枯하는 象이 되어 씨의 原으로 되는 震子가 없는 것이니 이는 木囚의 校를 負하고 있는 象이며 水液은 坎象이오 坎은 耳이니 科條에 水液의 枯渴한 것은 滅耳의 象이 되는 것이다.

小라 함은 形質의 私를 말함이니 小善은 形質의 私慾을 自克함이오 小惡은 形質의 私慾을 自恣함이다. 善은 자주 行하여 積한 然後에 成名할수가있고 惡은 한번 行하고 다시 行치 아니하여 善하지 아니하면 滅身되지는 아니하는 것인데 小人은 形質의 私慾을 自克하는 것을 小善이라 하여 그것은 益함이 없다 하여 行치 아니하고 形質의 私慾을 自恣하는 것은 小惡이라 하여 그것은 傷함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掩은 陽이 陰의 속에 掩蔽되어 發育함이오 解는 雷雨가 作하여 凍氷이 解함이라 上九는 形質

만 長하고 陽이 陰의 속에 掩蔽되지 못하니 이는 小人의 自恣하는 惡이 積하여 掩치 못하는 象이오 科條가 枯하여 水液이 없어서 解치 못하니 이는 小人의 惡한 罪가 長하여 解치 못하는 象이며 이 爻에 「子曰」이 없는 것은 罪積罪大가 모두 男體陽精의 枯渴함을 象한 것으로서 師傳는 이것을 口筆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子曰危者安其位者也 … 易曰其亡其亡繫于苞桑

이는 否九二爻의 解釋이오 震子의 胎育을 말한 것이다.

九五爻辭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달이 下弦을 지나서 光明이 消하므로 日月變化가 되는 것이다.

否卦는 天氣가 上에 在하여 더욱 上升하고 地氣가 下에 在하여 더욱 下降하므로 天地가 相交치 못하고 否閉하는 象이 되는 것인데 否卦의 否閉는 二氣가 相通치 못하는 否閉가 아니라 否卦가 泰卦로부터 震子를 承受하여 胎育하는 것이므로 胎宮의 門이 否閉하고 있는 象이며 九五는 成의 中心에 胎兒를 胎育함에 喪亡하는 일이 있을까 戒懼하여 苞桑에 繫한다 함이니 이는 天地가 上下로 相離하면서 또한 相離치 아니하는 것이 곧 喪亡을 戒懼하여 繫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桑은 東方의 日出方의 木을 象한 것이오 震子는 太陽의 光明에서 오고 震은 文王八卦圖의 東方에 位하여 草木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九五에 震子를 胎育함을 象하여 苞桑에 繫한다 한 것이오 苞는 草로써 包한다는 뜻으로서 震子가 陰體中에 包在하여 生育함을 象한 것이다.

危者安其位라 함은 危懼하는 者가 그 危를 克하여 그 位를 安全케 한다 함이오 亡者保其存이라 함은 亡할 것을 두려워하는 者가 그 生存을 保全한다 함이오 亂할 것을 두려워하는 者가 그 治를 有한다 함이니 이는 否하는 속

에 通함이 있는 理를 말한 것이다.

子曰德薄而位尊 … 言不勝其任也

이는 鼎九四爻의 解釋이니 震子가 巽股를 犯함을 말한 것이다.

九四爻辭 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鼎은 胎宮에서 달이 여물어서 出生하는 象이므로 日月變化의 象이 되는 것이다.

鼎卦는 巽兌陰精이 火를 合한 生長卦로서 胎宮卦로 되므로 水火烹飪의 象이 있어 震子를 胎育하여 成하는 象이 되는데 九四는 初六의 巽股를 應하여 陽이 陰에 陷한 象이 되는 것이다.

足은 震子의 象이오 九四의 陽이 巽股를 應하여 陷하므로 折足이 된 것이며 公은 坤의 象이오 餗은 烹飪한 粥으로서 陽體의 陽精을 象함이니 覆公餗이라 함은 巽股를 應한 까닭에 坤陰에 施할 陽精을 顚覆遺失하였다 함이며 渥은 水와 屋으로 되어 水의 下注하는 象이니 其形渥이라 함은 陽精을 股에 下施함이 水의 下注함과 같다 함이다.

德薄而位尊이라 함은 九四가 乾體로서 震子를 包하여 健德이 있으나 震子와 巽股는 雷風이 相薄하므로 德이 薄하고 그 位는 上卦에 居하여 尊하다 함이오 知小而謀大라 함은 九四는 乾體로서 乾以易知의 知가 있으나 下로 陰股를 應하므로 知가 小하고 그 謀는 乾知大始의 作用을 行한다 함이오 力小而任重이라 함은 九四는 乾體로서 馬의 引重致遠하는 力이 있으나 足이 折하므로 力이 小하고 그 任은 重을 引하고 遠에 致하는 일이라 함이다. 鮮은 震의 蕃鮮으로서 震子가 胎中에 始生하여 微少하다 함이니 鮮不及이라 함은 震子가 微少하고 巽股를 犯하여 德薄 知小 力少하므로 等位大謀 重任에 不及한다 함이오 이가 곧 不勝其任의 뜻이다.

子曰知幾其神乎 … 知微知彰知柔知剛萬夫之望

이는 豫六二爻의 解釋이오 震子의 奮出함을 말한 것이다.

六二爻의 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豫卦는 一陽이 中爻에 있고 震子가 坤母로부터 奮出하여 河圖時運으로부터 洛書時運으로 옮기는 때에 長의 時運의 달의 始生하는 象이 되므로 天地가 順으로써 動하여 日月이 過치 아니하고 四時가 忒치 아니한다 한 것이며 六二는 生의 中心에 있어 달의 幾微하는 位로 되는 것이다.

石은 艮의 象이오 介는 成終成始하는 交界이다. 地中에서 奮出하는 震은 반드시 稼와 같이 反生하고 反生하기 以前은 艮이니 石에 介한다 함은 生의 中心인 六二에 震으로 反生할 艮이 있어 成終成始의 作用을 行한다 함이다.

不終日이라 함은 日이 終치 아니한다 함이니 六二에는 震子의 反生하는 幾가 있고 艮으로부터 震이 反生하는 것은 晦月이 初生月로 反生하는 象이오 이는 九四의 奮出하는 震子는 下로는 互艮이 되어 晦月의 象이 되고 上으로는 震이 되어 初生月의 象이 되는 까닭이며 달은 太陽의 終하는 位에서 生하고 太陽은 三爻에서 終하는 것이므로 乾卦九三에 終日夕惕과 可與幾可與存義의 象이 있는 것이며 豫卦도 六三의 位에서 太陽이 終하고 달이 生하는 것이나 六二에 달의 生하는 幾가 있어 六三의 日終을 俟치 아니하고 이미 달이 生하니 이가 不終日의 뜻이다.

貞吉이라 함은 保合하여 生命의 生한다 함이니 震子가 生의 中心에서 生하고 있으므로 貞吉이라 한 것이다.

幾는 달의 光明의 始生하는 幾微이오 知幾其神乎라 함은 繫辭의 「神以知來」라는 뜻으로서 六二에서 달이 그 生하는 幾微가 있음을 知하는 것이

곧 神한 것이라 함이니 이는 日月의 政이 至神至明한 까닭이다. 諂은 사람의 氣가 坎地에 陷함이오 瀆은 坎의 溝瀆으로서 水土의 混함이니 豫卦는 大坎의 象이 되어 上諂下瀆하는 象이 있으되 雷가 艮石에서 動하여 奮出하고 있으므로 上을 交하되 氣가 諂치 아니하고 下를 交하되 水土에 混瀆치 아니하니 이는 幾를 知함이 神한 까닭이다. 幾라 함은 動하는 幾微로서 朔日의 先現함이오 吉은 朔日이니 이는 震子가 反生하여 朔日이 됨을 말함이오 달은 六二에서 幾微가 動하여 六三의 日終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朔日이 先現한다 한 것이다.

爻辭에는 介于石이라 하고 解釋에는 介如石이라 하니 介于石이라 함은 成終成始하는 艮山에 界한다 하여 그 處位를 말함이오 介如石이라 함은 界함이 成終成始하는 艮山과 같다 하여 그 終始하는 作用을 말함이며 斷이라 함은 異段事를 裁하여 一로 決하는 것이니 終에서 始하는 兩段事를 裁하여 달을 生하는 一事를 決하는 것이 곧 介如石의 뜻이다.

微는 動의 微로서 未來라는 뜻이오 彰은 彰往으로서 過去라는 뜻이니 知微知彰이라 함은 時間의 未來와 過去를 知한다 함이오 柔剛은 地道의 柔剛으로서 天道陰陽의 뜻이니 知柔知剛이라 함은 空間의 陰과 陽을 知한다 함이다. 望은 月幾望의 望으로서 陰精이 陽의 光明을 受함이니 萬夫之望이라 함은 乾卦의 「聖人作而萬物覩」의 뜻으로서 萬人이 君子의 光明을 望함은 달이 太陽의 光明을 望함과 같다 함이다.

君子 知微知彰知柔知剛 萬夫之望이라 함은 豫卦는 河圖의 生의 時運으로부터 洛書의 長의 時運으로 變하는 象의 卦로서 달도 長의 象으로되고 사람의 精化의 씨도 豫卦의 달에서 地로 下來하여 形質을 成하는데 씨는 반드시 男體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豫卦에서 下來하는 씨는 곧 震子로서 精子의 象이 되고 그것이 地에 下來하면서 男女로 分化한 것이니 君子는 달의 象이오 知微知彰은 河圖時運의 過去로부터 洛書時運의 未來로 向한다 함이오 知柔知剛은 陰精으로서 太陽의 光明을 受한다 함이오 萬夫之望은 夫는 男體라는 뜻으로서 달에서 生하는 사람의 씨는 모두 男體의 精子이라 함이오

望은 달의 光明을 受한다 함이니 이 爻는 달의 光明으로써 君子의 光明에 擬하여 말한 것이다.

子曰顔氏之子其庶幾乎 … 不遠復無祗悔元吉

이는 復初九爻의 解釋이오 震子가 陰中에 來復하여 長함을 말함이다.

初九爻辭 解釋에 「易曰」이라 한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復卦는 剝의 一陽이 上에 窮하여 下에 反하는 象이며 草木에 있어서는 子仁의 象이 되고 달에 있어서는 光明의 長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復卦는 洛書時運의 始生하는 달로서 正易에 말하는 「復上月」이며 復卦에 天地之心의 象이 있으므로 또한 天心月이라 하는 것이다.

初九는 復卦의 달의 來復하는 主爻이다. 復卦에는 天地之心이있고 天地之心을 中心으로하여 遠心運動과 向心運動이 있는데 初九는 心의 象으로서 出入往來함이 있으되 中心에서 遠하지 아니하고 向心運動에 依하여 그 道를 反復하고 있으며 悔라 함은 陽의 發動이 過度하여 陰과 異各함을 後悔하는 것인데 初九는 遠心과 向心의 運動을 行하므로 遠치 아니하여 復하여 過度치 아니하고 後悔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元吉이라 함은 陽이 陰에 附하여 生育하는 것이니 初九는 달의 光明의 象으로서 陰精과 異各치 아니하고 反復往來하므로 不遠復 無祗悔 元吉의 象이 된 것이다.

顔氏의 子는 孔子弟子인 顔回를 말함이오 子라 한 것은 震子를 象함이며 庶는 庶物의 뜻이오 幾는 動의 微함이니 이는 震子의 生育하는 象을 말함이다.

不善은 坤初六文言의 不善이니 震子가 巽股를 犯함을 말함이며 顔氏의 子는 不善을 復行치 아니하므로 善의 繼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善의 繼生

은 곧 光明의 象이니 이는 顔回의 心에 光明이 息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天地絪縕萬物化醇 … 言致一也

이는 損六三爻의 解釋이오 陰陽의 致一함을 말함이다.

六三爻辭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損益은 달의 陰精이 乾陽을 承受하여 后天달을 生하는 象인데 六三은 用六爻이므로 달을 受胎하는 象을 말한 것이오 이가 달의 變化의 象이다.

損卦는 內坤外乾한 山澤卦로서 山과 澤이 相應하고 乾이 坤을 包하고 圜行하는 象이며 이것을 乾坤의 象으로 볼 때에는 三爻의 陽을 損하여 上爻의 陰을 益한 象이 되므로 下를 損하여 上을 益하는 損卦로 된 것이며 六三爻는 下를 損한 主爻이오 또한 乾坤卦의 用六宮에 當하므로 男女相交의 象이 있는 것이다.

三人行則損一人이라 함은 下卦는 本乾으로서 三人의 象인데 三爻의 陽을 損하여 上爻를 益하니 이는 三人의 行하던 것을 一人을 損한 象이 되는 것이오 一人行則得其友라 함은 六三의 陰은 一人의 女인데 上九의 陽을 應하여 그 友를 得하여 夫婦가되니 이는 一人이 行하여 그 友를 得한 象이 되는 것이다.

絪縕이라 함은 노끈을 꼰다는 뜻이니 陰陽의 相交함을 象함이오 化醇이라 함은 醇은 穀을 釀하여 酒를 만드는 것으로서 化學的作用에 依하여 異質의 物을 生함을 象한 것이다. 天地가 相交하여 萬物이 精化하고 男女가 精을 構하여 萬物이 形化하니 여기에 男女라 함은 萬物의 牝牡 雌雄을 通稱한 것이며 이는 萬物은 乾元坤元의 二元作用에 依하여 生生하는 것인데 만일 三이 되면 二元作用이 行치 못하고 一이 되면 獨陰獨陽은 生치 못하는 것

이므로 夫婦關係는 반드시 二元組織의 一夫一婦制를 쓴다 함을 말한 것이오 一夫一婦가 곧 陰陽의 致一이다.

六三은 天地卦의 用六의 位이오 天地가 相交하여 震子를 生하는 것이므로 天地의 二元組織과 人間의 一夫一婦制를 말한 것이며 이 解釋에 「子曰」이 없는 것은 師傅는 男女構精에 對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子曰君子安其身而後動 … 立心勿恒凶

이는 益上九爻辭의 解釋이오 上九爻辭解釋에 易曰이 있는 것은 日月變化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上九는 益의 極에 居하므로 先天달의 傷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益卦는 內坤外乾한 雷風卦로서 雷와 風이 相應하고 乾이 坤을 包하고 運行하는 象이며 이것을 乾坤의 象으로써 볼 때에는 四爻의 陽을 損하여 初爻의 陰을 益한 象이 되므로 上을 損하여 下를 益하는 益卦로 된 것이며 上九爻는 益의 極이 되니 益이 極하면 衰하는 것이오 上下卦로써 보면 上卦가 下卦를 益하여 上九는 受損의 地가되니 그러므로 上九는 益할 이가 없는 것이오 益하여 已치 아니하면 溢하여 반드시 決하는 것이므로 或來擊하는 者가 있는 것이오 心이라 함은 陽氣가 陰體의 內外를 出入하는 것이니 內乾外坤한 咸卦九四에 縕과 感의 心이 있고 恒卦의 恒이 心으로되고 復에 天地의 心이 있고 한 것은 이 까닭이며 益上九는 天地圜行하는 卦에 陽의 衰決하는 位에 있어 陰을 得치 못하므로 心을 立함에 恒常한 體가 없어서 陷한 것이다.

益卦는 乾坤卦인데 上卦巽이 天氣下降의 象이 되고 下卦震이 地氣上升의 象이 되어 天이 地를 包하고 圜行하여 天施地生하는 象이 되니 이는 乾卦가 乾의 속에 있는 坤을 包하여 圜行하면서 萬物을 生함과 같은 것이며 그

러므로 乾卦에 文王八卦圖를 圜行하는 象이 있어 彖辭에 그것을 말한 것이오 益卦에 또한 文王八卦圖의 象이 있으니 彖辭에 益動而巽 日進無疆 天施地生 其益無方 凡益之道與時偕行이라 함은 文王八卦圖의 象을 말한 것이다. 益은 正東의 震으로부터 東南의 巽으로 行하여 文王八卦圖를 順行하는 始로 되어 있으므로 動而巽이라한 것이오 그 卦體가 大離로 된 것은 正南의 離이오 內包된 坤은 西南의 坤이니 日進은 離의 象이오 無疆은 坤의 象이다. 天施는 成의 中心인 九五이오 地生은 生의 中心인 六二인데 九五는 天氣의 下施하는 中心이 되어 天施하는 象이 되고 六二는 民說의 位이오 說은 兌의 象이므로 六二는 兌精의 地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天施地生은 正西의 兌이오 無方은 神無方의 뜻으로서 乾의 統天의 象이므로 其益無方은 西北의 乾의 象이다. 益之道與時偕行은 곧 木道乃行이오 木道乃行은 坎水의 大川을 涉하는 것이니 坎은 正北의 大水이오 益에 大水의 象이 있으므로 益字가 皿上에 橫水가 있어 水의 橫溢함을 象한 것이며 大水를 涉하고 이에 木道가 行하니 木道는 艮의 成終成始하여 震巽益의 木을 生하니 文王八卦圖에 震三巽八이 三八木이니 文王八卦圖를 圜行하는 震巽의 天施地生하는 道가 곧 木道이오 三八木은 또한 三劃八卦의 뜻이오 三劃八卦의 三八木은 곧 易이므로 木道는 易道이다.

益卦는 乾卦와 같이 文王八卦圖의 象을 具하는데 乾은 文王八卦圖를 順行하여 物을 生成하는 象이 되고 益은 震子가 陰宮에 入하고 天施地生하여 次世代를 生하는 象이 되니 이는 益卦에 時運의 變化가 있는 象이다.

萬物의 生生은 그 體가 安定한 然後에 그 氣가 平하고 그 氣가 平한 然後에 그 對象과 相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體가 安한 後에 動하고 그 心이 平易한 後에 相語하고 그 交가 定한 後에 同氣가 相求하는 것이며 全은 太陽이 恒常하여 性이 全하다는 全으로서 恒常하다는 뜻이오 이 三者를 修한 然後에 立心함이 全하여 恒常한 것이다. 그런데 上九는 陰을 得치 못하여 그 身이安치 못하고 危以動하는 象이 되며 衰決의 位에 있어 그 氣가 平易치 못하고 懼以語하는 象이 되며 立心함이 恒常치 못하여 交가 定치

못하고 無交而求하는 象이 된 것이며 危以動하므로 民이 應與치 아니하고 懼以語하므로 民이 應從치 아니하고 無交而求하므로 民이 施與치 아니하니 民은 陰의 象이라 民이 應與치 아니하면 獨陽이 되어 全치 못하고 恒常치 못하여 先天의 陽運의 衰決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五. 乾坤易之門 章

子曰乾坤其易之門邪 … 夫易彰往而察來 … 其稱名也 … 并以辨義異以行權

이 章은 第一章의 乾確坤隤의 象으로부터 爻象動乎內吉凶見乎外의 뜻을 承한 것이다. 易의 卦는 모두 乾坤의 相交로써 成하여 乾坤의 속을 出入하는 것이므로 乾坤은 易의 門이라 한 것이며 乾은 陽物이오 坤은 陰物이니 卦는 모두 陰劃과 陽劃이 合하여 成한 것이므로 陰陽이 德을 合하고 剛柔가 體가 있다고 한 것이다. 撰은 巽으로되고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接한 것이므로 天地의 氣의 相接함을 象함이니 體天地之撰이라 함은 모든 卦가 天地의 氣의 相接한 것을 體로 한다 함이오 通神明之德이라 함은 모든 卦는 乾坤의 神明한 德을 通한다 함이다.

모든 卦의 名稱은 天地의 象을 雜合하여 乾確坤隤의 範圍를 越치 아니하니 그 取한 바의 事類로써 보건대 그것이 易簡의 道로써 衰世를 濟하려는 뜻이다. 夫易彰往의 易은 上文의 易之門의 易을 指함이다. 彰往은 知以藏往의 뜻이오 察來는 神以知來의 뜻이오 微顯은 藏諸用의 뜻이오 闡幽는 顯諸仁의 뜻이니 이는 乾坤의 門이 內外로 闔闢하는 象이며 乾坤의 門이 開하여 卦의 名稱을 適當히 하고 爻의 等을 辨하고 擬하는 言을 正하게 하고 辭를 裁하여 一로 決하고 하여 象爻言辭가 備한 것이다.

卦名을 稱함은 小하되 事類를 取함은 大하고 卦象의 旨는 遠하고 卦辭는 物을 雜하여 文하며 그 言은 曲盡하여 的中하고 그 事는 極陳하되 隱蔽한

것이다. 貳는 二君의 二로서 貞夫一의 一과 相對한 것이오 失得은 吉凶의 象이니 民行은 二하면 失하여 凶하고 一하면 得하여 吉한 것이다. 그러므로 易은 衰世의 民行이 二함을 因하여 易簡의 道로써 濟하여 一로 調和하고 吉凶失得의 應報를 明示하여 天下로 하여금 貞一의 道에 歸하게 하는 것이니 이가 곧 乾坤易簡의 門을 出入하는 象이다.

六. 九德 章

易의 興이라 함은 中古의 長의 時運에 文王이 다시 八卦圖를지어 易學을 興함을 말함이며 憂患이라 함은 不與聖人同憂의 憂와 與民同患의 患으로서 人世의 易簡치 못함을 憂患함이다. 그러므로 九德卦는 사람이 易簡의 道를 본받아서 生生의 德을 進함을 말한 것이다.

九德卦는 乾坤易簡의 德이 物을 生生하는 順序를 말한 것이니 乾의 九五天位에 天德이 있어 德의 發源이 되고 履의 달에서 日月이 相交하고 謙에서 天道下濟하여 地上에 사람의 씨가 下來하고 復에서 洛書月이 光을 生하여 陽體의 震子가 復하니 이 上經天道의 三卦는 天德의 發生함을 象한 것이다. 下經地道의 六卦는 陰卦가 陽體의 震子를 受하여 乾陽物과 坤陰物의 陰陽合德함을 象한 것인데 恒卦가 下經의 九德卦의 首가되어 乾九五에 天地 日月 四時 聖人이 있고 恒에 또한 天地 日月 四時聖人이 있으며 乾에 大明終始가 있고 恒에 終則有始가 있으며 乾은 天이 되고 恒은 恒久不已하는 天地의 道가되니 이는 天行健의 理에 依하여 乾卦의 天과 恒卦의 風行雷健이 合하여 天의 運行하는 天行健의 象이 되어 天道는 乾에서 發源하고 天道의 運行은 乾坤의 長男長女인 雷風恒에서 行하는 까닭이다. 恒은 天道가 地上에서 運行하는 象이 되고 損益에서 天地가 絪縕하여 天施地生하고 胎宮의 困井水에서 入胎하고 巽에서 庚實하여 成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九德卦에는 一定한 度數가 있으니 乾으로부터 履까지는 十이오

履로부터 謙까지는 六이오 謙으로부터 復까지는 十이오 復으로부터 下經의 恒까지는 九이며 恒으로부터 損益宮까지는 十이오 損益宮으로부터 困井宮까지는 六이오 困井宮으로부터 巽까지는 十이오 巽으로부터 다시 乾에 還하기는 九이니 上下經이 모두 十 六 十 九의 順으로되고 下經의 恒과 巽의 中央에 있는 損益과 困井은 偶數로 되어 地道의 陰宮의 象이 되니 이는 陰體의 生生組織의 理에 依한 것이다.

第一段은 卦象과 易簡의 德과의 關係를 말한 것이니 履는 上下의 禮가 定하여 德의 基가되니 基는 사람의 立하는 곳이오 사람은 禮가 있은 然後에 또한 世에 立하는 것이며 謙은 謙虛 自卑하여 스스로 人의 下에 處하므로 德의 柄이 되니 柄은 物을 執持하는 權柄인데 坤에 柄의 象이 있는 것은 物을 含載하는 까닭이며 復은 仁의 根着한 것이므로 德의 本이 되니 本은 草木의 根柢이며 恒은 恒久하므로 德의 固가되니 固는 貞固하여 事의 幹으로 되어 恒久할 때에 恒久하고 變化할 때에 變化하는 것이며 損은 忿欲을 去하므로 德의 修함이 되니 修는 不完한 것을 修理하는 것이며 益은 天施地生하므로 德의 裕가되니 裕는 乾의 陽氣를 受하여 生養함이며 困은 剛이揜하므로 德의 辨이 되니 辨은 昏昧한 中에서 光明을 辨別하는 것이므로 光明의 뜻이며 井은 物을 養하여 窮치 아니하므로 德의 地가되니 地는 萬物을 無窮히 生養하는 母體이며 巽은 陰이 陽에 順하여 物을 作成하므로 德의 制가되니 制는 裁制하여 形을 成함이니 곧 成德의 뜻이다.

第二段은 卦德을 말한 것이니 履는 說하여 天을 應하므로 和氣로써 地에 立하는 것이오 謙은 天道가 下濟하므로 天은 尊하되 그 光明은 下施하여 光한 것이오 復은 乾의 光明이 來復한 것이므로 陽이 微小하되 物의 善不善을 明辨하는 것이오 恒은 恒久하여 已치 아니하므로 恒久하고 變化하고 하여 雜錯하되 厭치 아니하는 것이오 損은 不完함을 修理하므로 先에 難하고 後에 安易한 것이오 益은 乾의 陽氣를 受하여 長養하므로 簡約하여 施設치 아니하는 것이오 困은 陰陽이 相遇하므로 困窮하되 通하는 것이오 井은 水가 地中으로부터 出하여 無喪無得함으로 그 處所에 居하되 遷하여 人

에게 及하는 것이오 巽은 物을 制하여 形을 成하는 變通의 象이 있으므로 天氣가 地에 下來하여 稱衡施命하는 象이 있고 天氣가 下하여 地에 入하여 坎象이 되므로 坎의 隱伏의 象이 있고 巽도 또한 伏象이 되는 것이니 이는 柔가 剛에 順하는 象을 말함이다.

第三段은 德을 踐行하는 것이니 履는 和氣로써 禮를 行하는 것이오 謙은 謙虛함이 禮의 實이 되는 것이므로 謙虛한 君子가 能히 禮를 制하는 것이오 復은 一陽이 光明을 陷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知함이 明하여 善에 復하는 것이오 恒은 恒久하므로 德이 一하여 二三치 아니하는 것이오 損은 스스로 修하여 患難을 除去하므로 害를 遠히 하는 것이오 益은 日進하여 그 益함이 方이 없으므로 利로움을 興하는 것이오 困은 身은 窮하되 道는 通하여 怨함이 있지 아니한 것이오 井은 地中의 水가 內로부터 外에 遷하여 坤의 方外하는 義가 있고 또 水가 遷하여 物을 利하는 義가 있으므로 義를 明辨하는 것이오(辨은 光明의 뜻) 巽은 申命行事하여 物을 變通하는 것이므로 權을 行하여 稱平케 하는 것이다.

이 九德卦는 易簡의 德을 말한 卦이므로 易簡치 못한 人世의 憂患을 解決하기 爲하여 特히 이 九卦를 擧한 것이다.

七. 易不可遠 章

易之爲書也不可遠 … 其出入以度 … 道不虛行

이 章은 第一章의 爻象動乎內吉凶見乎外하는 乾坤易簡의 뜻을 承한 것이다.

易의 書됨은 易簡의 道를 行하려는 사람으로서는 可히 遠치 못하는 書이다. 易의 道는 一陰一陽하여 자주 遷하고 變動하여 居치 아니하고 六虛를 周流하니 六虛라 함은 天地人三才의 空間으로서 六爻를 象한 것이며 上下

함이 常이 없고 剛柔가 相易하여 可히 經常歸結한 典要를 삼을 수가 없고 오직 變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니 이는 爻象動乎內의 뜻을 말한 것이다.

一陰一陽하는 道는 그 出入함이 度數로써 하고 內에서 爻象의 動한 것이 外에 吉凶으로 見하여 사람으로하여금 戒懼할 줄을 알게 하고 또 憂患과 事故에 明하여 悔吝過咎의 辭를 明白히 繫하니 이는 吉凶見乎外의 뜻을 말한 것이다. 易에는 敎訓을 施하는 師保는 없으되 慈愛하는 父母에 臨함과 같아서 그 辭는 愛情으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그 辭를 좇고 그 方向을 揆度하건대 典要를 삼을 수 없는 속에 이미 經常한 度數가 있으니 진실로 易을 遠치 아니하여 父母에 臨하듯 하는 사람이 아니면 一陰一陽하는 易簡의 道가 六虛의 天地人 三才로 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八. 原始要終 章

易之爲書也原始要終 … 若夫雜物撰德 … 二與四同功而異位 … 其剛勝邪

이 章은 第一章의 爻象動乎內吉凶見乎外를 이어 功業見乎變聖人之情見乎辭의 뜻을 말한 것이다. 上章에 旣有典常의 辭가 있으므로 이 章에는 典常으로써 말한 것이다.

易의 書됨은 始를 推原하고 終을 歸結하여 質을 삼으니 質은 材의 뜻이오 이는 象을 말함이며 六爻가 서로 雜錯한 것은 이는 그 時와 物이니 物은 爻에 等位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初爻는 事物의 始이므로 아직 隱하여 知하기가 어렵고 上爻는 事物의 終이므로 모두 나타나서 知하기가 쉬우니 이는 本末로서 本은 一이 木의 下에 있어 木의 根柢이오 末은 一이 木의 上에 있어 木의 枝杪이며 그러므로 初爻의 辭는 準擬하고 上爻의 辭는 成하여 終하는 것이다.

卦에 雜錯한 文을 成하고 德을 相交相接하고 是와 非를 辨하고 하는 것은 그 二三四五의 中爻가 아니면 具備치 못하니 이는 初爻는 地下에 있고 上爻는 天上에 있어서 用事하는 位가 되지 못하고 그 二三四五의 中爻가 用事하는 까닭이다. 二三四五의 中爻를 觀하면 存亡吉凶에로 歸結됨을 坐하여 可히 知하는 것이며 知한 者는 그 彖辭를 觀하면 爻의 뜻의 太半을 得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爻에 互卦의 象이 있고 互卦를 모두 歸結하면 乾坤旣濟未濟의 四卦가 되어 乾坤은 易의 始가되고 旣濟未濟는 易의 終이 되니 乾坤은 天地이오 旣濟未濟는 日月의 往來이다. 이는 天地가 位를 設하고 易이 그 中에 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中爻에 二와 四는 모두 陰位로서 事功은 同一하나 位가 異하므로 그 善의 生함이 同一치 아니하여 二는 譽가 多하고 四는 懼가 多하니 이는 二는 生의 中心이므로 譽가 多하고 四는 生으로부터 上升하여 成의 中心에 近하므로 成否未定한 位에 있어서 懼가 多한 것이다. 柔의 一陰一陽하는 道는 成의 中心에 遠하면 利치 못하므로 二爻는 六二보다 九二가 善한 것이오 다만 그 異各치 아니함을 要함에는 六二의 柔中을 用하는 것이며 柔는 成의 中心에 遠하면 利치 못하고 近하면 利하므로 成의 中心에 近한 四爻는 六四보다 九四의 懼가 甚한 것이다. 三과 五는 모두 陽位로서 事功은 同一하나 位가 異하여 三은 凶이 多하고 五는 功이 多하니 이는 貴와 賤의 等位가 不同하여 五는 成의 中心에 있으므로 事功의 成함이 多하고 三은 生으로부터 上升하되 下位에 있어 成의 中心에 達치 못하므로 陷함이 多한 것이다. 三爻는 成의 中心에 達함에 그 柔는 力이 弱하여 危하고 그 剛은 勝하므로 九三보다 六三의 危가 甚하며 五爻도 또한 柔는 危하고 剛이 勝하여 六五보다 九五의 功이 勝한 것이다.

二四의 譽懼와 三五의 凶功은 爻의 變化에 나타난 功業이오 또한 辭에 나타난 聖人의 情이다.

九. 易三才 章

易之爲書也廣大悉備 … 道有變動 … 文不當故吉凶生焉

이 章은 第一章의 乾確坤隤하여 사람에게 易簡을 示하고 爻는 이것을 效함이라 한 뜻을 承한 것이다.

易의 書됨은 地와 같이 廣하고 天과 같이 大하여 모조리 具備하여 天의 一陰一陽하는 道가 있고 地의 一陰一陽하는 道가 있고 人의 一陰一陽하는 道가 있으며 三才를 合하여 陰陽의 兩으로한 까닭에 六爻가되니 六이라 함은 他가 아니라 三才의 一陰一陽하는 道이다.

他는 人과 也로 되고 也는 女陰의 象이니 六은 用六의 象이 되고 用六은 곧 女陰을 用함이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六은 三才를 兩한 六이오 用六의 六이 아니니 그러므로 六者非他라 한 것이다.

一陰一陽하는 道에는 變과 動이 있으므로 爻라하니 變動이라 함은 第一章의 變在其中 動在其中의 뜻이며 爻에 等位가 있으므로 物이라 하니 物은 前章의 時物 撰物의 뜻이며 物이 相雜하므로 文이라 하고 文이 當치 못함이 있으므로 吉凶이 生하니 이는 第一章의 吉凶見乎外의 뜻이다.

十. 殷之末世 章

易之興也其當殷之末世 … 是故其辭危 … 此之謂易之道也

이 章은 第五章의 作易者其有憂患의 뜻을 承한 것이다.

易의 興함은 殷의 末世와 周의 盛德에 當하니 周文王과 殷紂의 일에 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辭가 危하여 危懼하는 者는 平坦하게 하고 慢易하

는 者는 傾側하게 하니 그 一陰一陽하는 道가 甚히 大하여 百物이 廢치 아니하고 物의 終하고 始하고 하는 際를 懼하여 그것이 異各치 아니함에 歸結케 하니 이가 易의 一陰一陽하는 易簡의 道이다.

十一. 易簡險阻 章

夫乾天下之至健也 … 是故變化云爲 … 八卦以象告 … 將叛者其辭慙 … 失其守者其辭屈

이 章은 上下編의 뜻을 通論하여 乾坤易簡의 道로써 愛惡 遠近 情僞의 情을 調和하는데 情은 그 辭에 나타난다 함을 말한 것이다.

易와 險이 相反하고 簡과 阻가 相反하니 乾은 天下의 至健이므로 德行이 恒常 易하되 或 險에 陷하는 일이 있고 坤은 天下의 至順이므로 德行이 恒常 簡하되 或 阻에 塞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能說諸心이라 함은 上編 十一章의 探賾索隱의 뜻이니 說은 喜함이오 心은 事物에 出入하여 探索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므로 賾隱한 것을 探得하여 心에 喜한다 함이오 能研諸侯之慮라 함은 上編 十一章의 鉤深致遠의 뜻이니 研은 窮究함이오 侯는 斥候로서 險阻를 檢行하여 伺候함이오 慮는 未來의 深遠한 일을 謀하는 것인데 乾坤의 易簡에는 險阻가 있으므로 그 險阻를 檢行伺候하는 深遠한 慮를 窮究한다 함이다. 上編의 十一章에는 蓍龜가 天下의 吉凶을 定하고 天下의 亹亹를 成한다 하고 이 章에는 乾坤의 易簡이 天下의 吉凶을 定하고 天下의 亹를 成한다 하니 그러므로 易의 占筮蓍龜는 모두 乾坤易簡의 神道를 말하는 것이다.

變化와 云爲는 變과 辭이오 象事는 象이오 占事는 占이니 이는 象變辭占의 四道를 말한 것이다. 易簡의 道를 行하면 變化하고 云爲하고 함에 善한 事에 祥瑞가 있고 事를 象하여 器를 制함을 知하고 事를 占하여 未來를 知하는 것이니 이는 天地가 位를 設하여 易簡으로써 사람에게 示人하고 聖人은

坤의 簡能을 成하여 亹亹한 業務를 이루고 사람은 善事로써, 鬼는 占으로써 深謀遠慮하여 險阻를 伺候하고 百姓은 簡能의 效에 參與하여 日用하는 것이다.

十二. 八卦以象告 章

八卦以象告는 第一章의 爻象動乎內의 뜻이오 爻彖以情言은 第一章의 吉凶見乎外의 뜻이니 이는 吉凶은 情으로써 生하는 까닭이며 剛柔가 雜錯하여 居하면 情의 相互作用에 依하여 吉凶이 나타나는 것이다. 變動以利言은 第一章의 功業見乎變의 뜻이오 吉凶以情遷은 第一章의 聖人之情見乎辭의 뜻이다.

易은 日月의 運行하는 時이므로 六十四卦는 모두 時이오 時의 속에는 事와 位와 德이 있어 情이 서로 作用하는데 事에는 愛惡가 있고 愛惡가 相攻하여 吉凶이 生하니 家人九五의 交相愛하여 吉함과 같음이오 位에 遠近이있고 遠近이 相取하여 悔吝이 生하니 蒙六四에 獨遠實하여 吝함과 같음이오 德에는 情僞가 있고 情僞가 相感하여 利害가 生하니 咸九四의 貞吉하여 未感害함과 같음이다.

物의 聚分에 分과 失은 凶이오 聚와 得은 吉이며 聚分過程에 過度히 發動하면 悔가 生하고 過度히 收斂하면 吝이 生하니 悔는 反路의 象이오 吝은 吝嗇하여 陰에 掩蔽됨이다. 此乃遠近相取而悔吝生也

相攻 相取 相感이라 함은 모두 爻位의 比와 應으로써 말함이오 爻位는 또한 遠近으로써 말하여 比應하면 近하고 比應치 아니하면 遠함이니 그러므로 下文에 흘로 近而不相得하는 遠近을 擧하여 吉凶 利害 悔吝을 말한 것이다. 近而不相得의 例는 情의 相感의 最强한 男女의 爻에 많으니 巽股와 陽의 比하는 小畜九三의 夫妻反目과 漸九三의 夫征不復과 家人九三의 家

人嗃嗃는 모두 比近하여 不相得함이오 巽股와 陽의 應하는 大過九四의 有他吝과 恒九四의 田無禽과 姤九四의 包無魚와 鼎九四의 折足凶과 小畜初九의 復自道와 家人初九의 閑有家와 中孚初九의 有他不燕은 모두 應近하여 不相得함이다.

將叛者其辭慙一節은 后天의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說言乎兌 成言乎艮의 言辭를 말함이오 說卦의 神也者妙萬物而爲言者也의 節과 相照한다.

叛은 半과 反으로 되어 心을 半하여 離叛하는 뜻이오 易의 情은 辭에 나타나고 있으니 將且 叛하려 하는 者는 良心을 가리우고 있으므로 그 辭가 慙愧하여 明朗치 못하고 中心에 疑惑을 품은 者는 心에 主함이 없으므로 그 辭가 枝하여 一貫치 못하고 善을 行하는 사람은 聞達을 求하지 아니하므로 그 辭가 簡約하고 躁動하는 사람은 自讚하기에 急하므로 그 辭가 多하고(躁는 足과 喿로 되어 足은 動함이오 喿는 鳥群鳴이니 擾動頻急의 뜻이라) 善을 誣陷하는 사람은 隱然히 陰害하는 心을 懷하므로 그 辭가 浮하여 撓動하고 그 操守를 失한 者는 劣等感에 사로잡히므로 그 辭가 屈하여 스스로 低卑하는 것이다. 이 六辭는 情의 發露한 것으로서 上編第三章의 辭有險易辭也者各指其所之의 뜻을 承한 것이니 慙枝寡多游屈이 곧 辭의 所之이다.

說卦

一. 幽贊神明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 … 易六位而成章

이 章은 上編 大衍章의 뜻을 承한 것이다.

幽贊於神明而生蓍라 함은 生蓍는 蓍를 用하는 法을 創出하였다 함이오 神은 能히 言語를 하지 못하고 蓍로써 言하므로 聖人이 幽冥한 속에서 神明을 贊하여 蓍法을 創出하니 이는 大衍章의 祐神의 뜻이다. 贊神祐神은 사람이 神을 돕는다는 뜻이니 이는 人間世上의 모든 事爲는 사람의 自意에서 生한 것이 아니라 모두 神의 事業을 사람의 自由意志로써 贊祐하는 것이며 蓍를 用하는 것도 또한 神의 事業을 聖人이 贊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出贊於神明而生蓍라 한 것이다.

參天兩地而倚數라 함은 參兩은 天地數의 原이오 蓍法의 九六七八의 四象은 參兩의 數에서 來한 것이므로 倚數라하니 이는 大衍章의 分掛揲扐에 依하여 九六七八의 四象을 生하여 卦를 成하는 象을 말함이다.

觀變於陰陽而立卦라 함은 大衍章의 十有八變而成卦의 뜻이니 蓍로써 卦를 立하는 分掛揲扐은 모두 陰陽으로 分하여 十八變을 하는 것이므로 變함을 陰陽에서 觀하여 卦를 立한다고 한 것이오 發揮於剛柔而生爻라 함은 이미 卦를 立하면 그 爻는 모두 剛과 柔로 發揮하는 것이므로 彖辭의 말하는 바의 陰爻陽爻는 모두 剛柔로써 象하니 이가 剛柔로 發揮되어 爻를 生한다고 한 것이다. 蓍로써 卦를 立함은 天道이므로 天의 道인 陰陽을 말하고 卦辭도 또한 天道를 말한 것이며 卦에서 爻를 生함은 地道이므로 地의 道인 剛柔를 말하고 彖辭와 爻辭도 또한 地道를 말한 것이다.

天道에는 陰陽을 말하고 地道에는 剛柔를 말하니 이는 繫辭의 乾陽物也坤

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의 뜻으로서 乾坤이 德을 合하는 것은 形而上의 象이므로 無形한 陰陽으로써 象하고 乾坤이 體가 있는 것은 形而下의 象이므로 有形한 剛柔로써 象하니 天道는 形而上의 象이므로 陰陽의 象을 取하고 地道는 形而下의 象이므로 剛柔의 象을 取한 것이다.

道德이라 함은 一陰一陽하는 것을 道라하고 陰陽이 體를 合한 것을 德이라 하니 大衍章의 顯道神德行은 이 道德을 말한 것이며 一陰一陽하는 道에서 善이 繼生하므로 道는 仁으로써 體를 삼는 것이니 和順於道德而理於義라 함은 人의 道를 立하는 仁義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觀變於陰陽而立卦는 下章의 立天之道曰陰與陽의 뜻이오 發揮於剛柔而生爻는 下章의 立地之道曰柔與剛의 뜻이오 和順於道德而理於義는 下章의 立人之道曰仁與義의 뜻이다.

和順於道德이라 함은 陽이 陰에 和하고 陰이 陽에 順하여 仁의 體를 成하는 것이며 理는 對待를 調和함이오 義는 陰陽의 義의 和一이니 理於義라 함은 陰陽의 對待를 調和하여 一한다 함이다.

性은 乾의 易한 知와 坤의 簡한 能으로 되어 사람의 自由에 屬하고 命은 天의 所賦한 天命으로서 運命에 屬하니 性과 命은 對待하는 것이라 사람이 그 知能의 自由를 다하고 性을 成하여 天命과 一致하는 것이 곧 人道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으로 和順하고 義로 理하며 그 理함을 窮하고 易簡으로써 性의 知能을 盡하여 對待를 調和하면 이에 天命에 一致하는 것이니 이것이 聖人이 易을 作한 所以이다.

二. 順性命 章

順性命之理라 함은 性과 命은 對待하고 있으므로 그 對待의 調和를 順히 한다 함이다. 立天之道曰陰與陽은 上章의 觀變於陰陽而立卦이오 立地之道

曰柔與剛은 上章의 發揮於剛柔而生爻이오 立人之道曰仁與義는 上章의 和順於道德而理於義이오 兼三才而兩之는 天地人三才에 모두 陰陽 柔剛 仁義의 對待가 있다 함이니 그러므로 易은 六劃으로써 卦를 成하는 것이다. 分陰分陽은 卦를 立하는 材를 말함이오 迭用柔剛은 爻를 生하는 動態를 말함이며 章은 物이 成終하고 實을 生하여 章美한다 함이니 易은 六位로서 三才의 道를 다하여 成終하는 것이므로 繫辭에는 初辭擬之卒成之終이라 한 것이다.

三. 天地定位 章

天地定位山澤通氣 ... 數往者順知來者逆 ... 乾以君之坤以藏之

天地定位一節은 씨의 組織의 象이다. 萬物의 生生作用은 씨에서 始하는데 씨의 形成順序는 乾坤生命元이 雷風의 氣를 合하여 無形한 氣化의 씨가 되고 氣化의 씨가 水火의 精을 合하여 精化의 씨가 되고 精化의 씨가 山澤의 形을 合하여 비로소 씨의 形體가 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씨의 組織形態는 生命元인 乾의 陽氣와 坤의 陰精이 合하여 씨의 體를 成하고 山澤의 形이 形質을 成하고 形質의 속에 山澤의 形의 反易한 雷風의 氣가 있어 動靜을 主하고 그 內部에 水火의 精이 있어 生命을 凝收하는 것이니 이 乾坤 山澤 雷風 水火의 順序는 곧 第一節의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의 順序이다. 繫辭上의 初頭에 天尊地卑 卑高以陳 動靜有常 方聚物分은 乾坤의 運動을 말한 것이나 또한 卑高 動靜 聚分은 山澤 雷風 水火의 六子의 作用이 되는 것이니 天地定位 一節은 繫辭의 天尊地卑 一節과 相照하여 씨의 組織形態가 되는 것이오 神也者章에 天地定位節의 六子의 順序를 뒤집어 말하여 水火가 內에서 相逮하고 山澤이 外에서 通氣하고 雷風이 山澤의 속에서 相悖치 아니하고 하는 것은 씨가 長으로부터 成으로 넘어가서 그 形態가 組織되는 過程을 말한 것이며 正易의 金火正易圖에 內 十字에 壬癸丙丁의 水火가 있고 中方에 戊己의 雷風이 있고 外圓에 甲乙庚辛의 金木의

質과 十二支의 地氣가 配列되고 그 속을 山澤이 東西로 運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씨의 組織形態를 말한 것이다.

天地定位節은 物의 發生하는 象을 말한 것인데 物의 發生하는 때에는 天氣가 上에 在하고 地氣가 下에 在하여 天地否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가 天地定位이오 物의 發生하는 때에는 外部의 形質이 開坼하는 것이니 이가 山澤通氣이오 物의 發生하는 때에는 形質의 속에 隱藏한 雷風의 氣가 動하여 相迫相與하는 것이니 이가 雷風相薄이오 物의 發生하는 때에는 內部의 水火가 各其外部로 發散하는 것이니 이가 水火不相射이다.

錯은 上下가 相交함이니 八卦相錯이라 함은 物의 發生하는 때에 乾坤山澤雷風水火가 모두 動하여 서로 交錯하면서 새로운 싹이 坼出한다 함을 말함이니 繫辭上의 初頭에 天尊地卑 卑高以陳 動靜有常 方聚物分의 다음에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를 말한 것이 곧 「八卦相錯」의 뜻이오 그 下文에 剛柔相摩 八卦相盪이 곧 八卦相錯이다.

四. 數往知來 章

往은 旣往이오 來는 未來이니 數往者順 一節은 씨의 組織과 生長의 形態를 말한 것이다. 씨는 旣往에 天에서 下來한 것이오 上함은 逆이 되고 下함은 順이 되는 것이므로 旣往에 씨가 天에서 下한 것을 順하다고 한 것이오 씨에서 싹이 生하는 것은 長의 象이오 싹이 長하면 天을 向하여 上하여 逆이 되는 것이므로 未來에 싹이 長하여 上하는 것을 逆한다고 한 것이니 易經은 長의 時運에 物이 長하여 上逆함을 象한 것이므로 易은 逆數이라 한 것이다.

物이 發生하여 長하는 때에는 長男長女가 먼저 生하고 中男中女가 다음에 生하고 少男少女가 내종에 生하니 이는 六子의 氣精形의 順序이오 萬物은

氣精形의 作用에 依하여 有形化하여 陽體와 陰體 卽 男女가 分化하여 生長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雷以動之 一節은 萬物이 有形化하여 男女의 分化하는 象을 말함이며 繫辭에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乾道成男 坤道成女가 곧 雷動 風散 雨潤 日暄 艮止 兌說 乾君 坤藏의 뜻이다.

그러므로 雷以動之 一節의 八卦는 八卦의 本象을 主하지 아니하고 八卦가 物을 生하고 기르고 하는 作用을 主하여 雷風以外에는 水火山澤天地의 八卦 本象을 取하지 아니하고 雨潤 日暄 艮止 兌說 乾君 坤藏의 作用을 取한 것이다.

五. 帝出乎震 章

帝出乎震 ... 萬物出乎震 ... 故曰成言乎艮

이 章은 洛書의 長의 時運에 文王八卦圖의 流行하는 順序를 말한 것이오 初頭에 出乎震을 말한 것은 上章의 雷以動之의 뜻을 承한 것이다.

帝라 함은 天地의 化育을 主宰하여 萬物을 生成하는 神에게 形體를 附하여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上文에는 帝出乎震이라 하고 下文에는 萬物이 出乎震이라 한 것이다. 出乎震은 上章의 雷以動之의 뜻으로서 天地의 化育을 主宰하는 帝가 日出方인 東方震에서 出한다는 뜻도 되고 또 震子에서 出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帝는 乾元資始하는 震子를 象한 것이다.

齊乎巽이라 함은 物은 震에서 始하여 巽에서 長하며 震은 果實에서 反生하는 木이오 巽은 地에 着根하는 木이니 物이 비로소 着根하여 長함에 모두 潔하여 均齊하므로 齊라 한 것이오 物이 成熟하는 때에 이르면 大小强弱과 實 不實의 差가 生하는 것이니 이가 洛書의 長의 時運의 末에 人間社會에 有萬不齊의 不平等이 있는 所以이다.

相見乎離라 함은 離는 一日中에는 太陽의 位가 最高한 午中이오 一年中에는 晝가 最長한 夏이니 그러므로 明하다 한 것이오 夏에 萬物의 形質이 具치 아니함이 없으므로 모두 相見한다 한 것이오 午中南方은 明하고 相見하는 곳이므로 聖人이 天下를 聽함에 至公大明하기를 期하는 까닭에 그 居室은 반드시 南面하여 明을 向하고 天下民으로 더불어 相見하는 뜻을 取한 것이다.

致役乎坤이라 함은 役은 生養하는 功力이니 坤은 母이오 夏秋의 交에 萬物이 長을 極하여 成으로 넘어가는 때이므로 坤母에 萬物生養의 功力을 極盡한 象을 말한 것이다.

兌에 說言이 있고 艮에 成言이 있으니 이는 山澤은 形으로서 氣를 通하는데 山澤에는 咸艮과 같이 人體의 象이 있고 人體의 속으로부터 氣가 形을 凝하여 發宣하는 것은 言이므로 艮兌에 言을 말한 것이다.

下章에 神이라 함은 萬物을 妙하게 하여 言을 하는 者이라 한바 妙는 少年少女라는 뜻으로서 艮兌의 象이 되고 言은 說言成言의 뜻으로서 또한 艮兌의 象이 되니 妙라 함은 物의 生함을 象하고 言이라 함은 物의 成함을 象함이라 天地定位 章에 먼저 山澤通氣를 말한 것은 物의 生하는 艮兌의 妙를 말함이오 神也者章에 내종에 山澤通氣를 말한 것은 物의 成하는 艮兌의 言을 말함이다.

言은 形質中에서 陽氣가 發宣하여 形(音)이 있음이라 兌는 文王八卦圖에 陰卦의 終이오 內에 陽氣를 積하고 外에 口로써 包하니 이는 陰陽이 嘉會하여 口로써 陽氣를 發宣함이라 그러므로 說言이 된 것이다. 艮은 陽卦의 終이 되고 陰質로써 基를 삼고 一陽이 上出하여 陽氣의 發宣이 되고 成終成始하니 그러므로 成言이 된 것이다.

艮兌에 特히 言을 말한 것은 艮兌는 人體의 象이오 萬物中에 오직 사람에게 言語가 있고 言語가 있는 까닭에 文字가 있고 言語와 文字가 있는 까닭

에 師傳의 道가 있으니 師傳의 道는 易簡의 神道이오 사람이 能히 神으로 더불어 相和하는 것은 師傳의 道가 있는 까닭이다. 神이 萬物을 妙하고 또 사람에게 言을 附與하여 師傳의 神道가 行한 然後에 神也者章의 끝에 말한 바와 같이 能히 變化하여 萬物을 旣成하는 것이니 이가 兌에 萬人所悅하는 說言을 말하고 艮에 成終成始하는 成言을 말하고 한 所以이다.

八卦中에서 오직 坤과 兌에 方位를 말하지 아니하고 坤에는 地라하고 兌에는 正秋라 하니 坤은 萬物을 生養하는 母로서 어느 一方位에 局限한 것이 아니므로 地의 象을 取하고 兌는 萬物이 成熟하여 說하는 것이므로 四時中에서 物의 成熟하는 秋分의 象을 取하여 正秋라 한 것이다. 戰乎乾이라 함은 陽이 陰과 相薄하여 陰中으로 入함이니 坤上六의 龍戰于野와 同一한 뜻이다. 乾은 西北方으로서 秋冬의 交이므로 果實이 成熟하여 陽이 內에 入하고 次代의 父로 되는 象이니 그러므로 乾父의 卦에 果實이 成熟하고 陽이 陰과 戰하는 象이 있는 것이다.

勞乎坎이라 함은 勞는 萬物이 收斂하여 歸勞하는 象이니 草木의 津液이 모두 根에 歸藏하여 越冬하는 것이므로 勞乎坎이라 한 것이다. 坎에는 正北方의 卦라하여 特히 正을 말하니 이는 坎은 天一生水하는 北極의 位로서 天位에 當하고 있으므로 正을 말한 것이며 坎은 勞卦라하여 卦字를 加한바이는 巽의 躁卦 離의 乾卦 坎의 血卦와 같은 것이니 卦라 함은 象의 現示함이라 卦에 反對現象이 있는 때에 特히 卦字를 쓴 것이다. 巽은 躁卦가 되는데 躁는 陽의 象이오 巽은 陰卦로서 陽躁의 象이 있으므로 躁卦라 한 것이오 乾燥는 陽의 象이오 離는 陰卦로서 太陽의 乾燥의 象이 있으므로 乾卦라 한 것이오 血은 陰의 象이오 坎은 陽卦로서 陰血의 象이 있으므로 血卦라 한 것이오 勞는 歸勞하여 收斂하는 陰의 象이오 坎은 陽卦로서 歸勞하는 陰의 象이 있으므로 勞卦라 한 것이다.

方位를 말한 卦에는 震과 巽에는 다만 東方과 東南이라 하고 卦字가 없는데 離는 南方의 卦라하고 乾은 西北의 卦라하고 坎은 正北方의 卦라하고 艮은 東北의 卦라하여 卦字를 加하니 이는 上文의 躁卦 乾卦 血卦 勞卦와

同一한 理이다. 乾坎艮은 모두 陽卦로서 日照時間의 最短한 陰地에 있고 離는 陰卦로서 日照時間의 最長한 陽地에 있으므로 그 陰陽의 象을 取하여 卦字를 加한 것이오 震은 陽卦로서 日出하는 陽地에 있고 巽은 陰卦로서 形質의 長하는 陰地에 있으므로 卦字를 쓰지 아니한 것이다.

艮에 成終成始를 말한 것은 艮은 坤陰의 上에 一陽을 承하여 果實의 象이 되니 果實은 前世代의 終이오 그것이 震으로 反生하여 新芽를 生하면 次世代가 始하는 것이므로 成終成始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六. 神也者 章

神也者妙萬物而爲言 ... 故水火相逮 ... 旣成萬物也

이 章은 洛書의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象을 말한 것이니 物이 成하여 次世代를 生하고 父母인 乾坤은 神이 된 것이므로 乾坤을 神이라 하고 六子만이 文王八卦圖의 順序를 圜行하여 生成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妙萬物而爲言은 生成의 始終을 總言한 것이니 妙萬物은 文王八卦圖의 始인 萬物出乎震이오 爲言은 文王八卦圖의 終인 成言乎艮이다. 萬物出乎震에 妙字를 쓴 것은 妙는 少年少女라는 뜻으로서 艮兌를 象한 것이니 이는 震에서 萬物이 出하면 形質을 生하여 艮兌의 形이 成한다 함이며 成言乎艮에 言字를 쓴 것은 言은 兌의 說言과 艮의 成言이니 萬物中에 오직 사람이 言語를 有하고 艮兌에서 形이 成하여 비로소 言語를 通하는 것이므로 艮兌에서 사람이 成한다 함이다.

第三章에는 風에 散을 말하고 이 章에는 風에 橈를 말하니 이는 第三章은 生의 時運에서 長의 時運으로 移行하는 象을 말하는 것이므로 風이 積陰을 散하고 陽氣가 上進함을 象한 것이오 이 章은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象을 말한 것이므로 大過의 棟橈와 같이 陽이 陰中에 顚하여 成함을 象하기 爲하여 橈라고 한 것이다. 第三章의 離에는 日暄을 말하고

坎에는 雨潤을 말하며 이 章의 離에는 火燥을 말하고 坎에는 水潤을 말하니 이는 第三章은 生長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春夏에 日이 溫暖하고 雨가 下施한다 하여 暄과 雨를 말한 것이오 이 章은 成의 象을 말한 것이므로 秋의 太陽에 火乾의 象이 있고 萬物이 北方水에 歸勞하는 象이 있다 하여 燥과 水를 말한 것이다.

第三章의 艮兌에는 本卦名과 本卦德인 艮止 兌說을 말하고 이 章에는 艮에는 本卦名과 終萬物始萬物을 말하고 兌에는 澤을 말하니 이는 第三章은 長에서 成으로 넘어가는 過程을 말한 것이므로 다만 艮兌에서 形을 成함을 말하기 爲하여 止와 說의 象을 取한 것이며 이 章은 文王八卦圖에서 生長을 極하고 果實을 成하는 것이므로 果實의 象을 말하기 爲하여 艮에는 終萬物始萬物하는 果實의 象을 말한 것이오 艮에 山과 止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山과 止에는 終始하는 象이 없는 까닭이며 兌에 澤을 말한 것은 果實의 內部에 膏澤을 蓄積한 然後에 次世代를 生하는 까닭이다.

水火相逮라 함은 逮는 及함이니 水火는 相息의 象이 있으되 成하는 때에는 相及하는 것이며 雷風不相悖라 함은 悖는 亂함이니 雷風은 相薄하는 象이 있으되 成하는 때에는 相亂치 아니하는 것이니 相逮不相悖는 成하는 때의 保合太和하는 象이다. 이 章은 震子의 動함을 主로 하여 六子가 成의 作用을 行하면서 文王八卦圖의 順序를 流行하고 六子가 成한 然後에는 第三章의 山澤 雷風 水火의 生하는 順序를 反易하여 水火 雷風 山澤의 成하는 順序로 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能變化라 함은 乾彖의 乾道變化와 坤六四의 天地變化의 뜻으로서 生長으로부터 成熟으로 넘어가는 象을 말한 것이오 旣는 時間的으로 盡한다 함이니 旣成萬物이라 함은 生長의 時運이 成의 時運으로 變化하여 時間的으로 萬物을 盡成하였다 함이니 이가 곧 后天時運이다.

이 章의 文王八卦圖의 六子流行順序는 易序卦의 坤道七宮의 順序이니 動萬物의 雷는 震艮宮의 雷이오 橈萬物의 風은 漸歸妹宮의 風이오 燥萬物의 火

는 豊旅宮의 火이오 說萬物의 澤은 巽兌宮의 澤이오 潤萬物의 水는 渙節宮의 水이오 終萬物始萬物의 艮은 中孚小過宮의 艮이다. 六子가 모두 한가지 象을 말하되 艮에 홀로 終과 始를 말하니 이는 文王八卦圖가 震에 起하여 艮에 終한 것은 終萬物의 象이오 艮에서 다시 震으로 圜하고 小過卦가 또한 艮으로부터 震으로 圜하는 것은 始萬物의 象이니 그러므로 東北卦라는 말로써 表示한 것이며 여기에서 文王八卦圖도 終하고 六十四卦의 序卦도 終하고 后天의 始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또 이 章을 坤道七宮의 組織으로써 보면 神也者妙萬物而爲言은 震艮宮의 象이오 動 橈 燥 說 潤 終 始는 六子의 作用이오 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는 巽兌를 中心으로한 漸歸妹 豊旅 渙節 中孚小過의 收斂四宮의 象이오 能變化旣成萬物은 旣濟未濟宮의 象이다.

七. 乾健也 章

乾健也坤順也 … 乾爲馬坤爲牛 … 乾爲首坤爲腹 … 乾天也故稱乎父 … 兌三索而得女故謂之少女

乾健也節은 八卦의 性情을 말한 것이니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의 뜻이다.

八. 乾爲馬 章

乾爲馬節은 遠取諸物하여 觀鳥獸之文한 것이다.

九. 乾爲首 章

乾爲首節은 近取諸身한 것이다. 乾爲首故馬之起也 首先起 坤爲臀部故牛之起也 臀先起

十. 乾天也 章

乾天也節은 觀象於天 觀法於地하여 萬物이 모두 天地를 父母로 함을 말함이며 索은 繩索이니 天地絪縕의 뜻이다.

十一. 乾爲天 章

乾爲天 … 坤爲地 … 震爲雷 … 巽爲木 .. 坎爲水 … 離爲火 … 艮爲山.. 兌爲澤 … 爲羊

이 章은 八卦의 百象을 말한 것이니 이는 卦爻彖象의 辭를 解釋함에 必要한 象만을 擧한 것이오 卦의 全象을 모두 收載한 것은 아니다.

乾

天이라 함은 純陽의 象이니 需九五의 天位 中孚 彖의 應乎天이 모두 乾天象이다.

圜이라 함은 天의 運行의 圜轉하는 象이니 乾卦彖辭가 文王八卦圖를 順行하고 序卦가 生長成으로 圜轉하는 것이 모두 乾圜의 象이다.

君이라 함은 陽의 主宰의 象이니 否初六의 志在君 復上六의 反君道 萃上六의 順以從君은 모두 乾君의 象이다.

父라 함은 生生作用의 陽體의 象이니 蠱의 幹父는 蠱와 家人의 父母는 乾父象이다.

玉이라 함은 石의 美한 者이니 艮에 石象이 있는 것은 地가 天의 剛에 接한 까닭인데 天은 純剛이므로 石이 美한 玉이 된 것이오 鼎上六의 玉鉉은 乾玉의 象이다.

金이라 함은 外가 寒하여 收斂하고 內部에 陽氣가 聚結한 것이므로 乾象이 된 것이오 鼎六五의 金鉉 噬嗑九四의 金矢等은 모두 乾金의 象이다.

寒이라 함은 乾은 內部에 陽氣가 聚結하고 外殼이 寒하여 收斂하여 金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大空中은 寒하여 天의 本象이 되고 金玉의 本象이 또한 寒하므로 寒은 乾象이오 女體의 胎宮에는 澤火革의 象이 있어 沸湯作用이 行하여 毛가 脫하므로 胎兒의 體에는 毛가 없고 革이 되는 것인데 오직 首에는 毛髮이 있으니 首는 乾象이오 乾은 陽氣가 內에 聚結하고 外廓이 寒하므로 首髮은 脫치 아니한 것이다. 井九五의 寒泉食은 乾寒의 象이오 上六의 井收는 乾收斂의 象이다.

氷이라 함은 陰體가 陽氣를 包하고 凝結함이오 乾의 寒象을 因함이니 坤初六의 堅氷은 乾氷의 象이다.

大赤이라 함은 赤字가 大火로 되어 盛陽의 色이니 乾은 純陽이므로 大赤이 되고 坎은 乾의 中劃을 得하므로 赤이 된 것이며 困九五의 赤紱은 乾大赤의 象이다.

良馬라 함은 良은 缺치 아니함이오 馬는 乾象이니 良馬는 善馬라는 뜻인데 大畜九三의 良馬는 下三爻의 乾을 總稱하여 良馬라 한 것이다.

老馬라 함은 老하여 髮이 皤白한 馬이니 乾의 老를 象함이오 賁六四의 賁如皤如白馬翰如는 乾老馬象이다.

瘠馬라 함은 瘠은 病과 脊으로 되어 坎의 病痛美脊을 合한 것이니 乾馬가 險中에 入하면 瘠馬의 象이 되는 것이며 訟上九에서 受服한 乾馬는 車의 服을 受하고 또 坎險中에 있으므로 乾의 瘠馬의 象이다.

駁馬라 함은 駁은 純一치 아니한 雜色이므로 剛柔相交한 乾馬가 곧 駁馬이며 屯의 班如의 馬는 班은 雜色이라 剛柔가 始交하여 天地의 色이 相雜한 馬로서 乾의 駁馬의 象이다.

木果라 함은 木의 根幹 枝葉 果實의 總稱이므로 乾象이 되는 것이오 巽木에 艮果를 生한 蠱는 또한 木果로서 乾의 象이므로 蠱에 乾象이 있어 父와 天下治를 말한 것이다.

坤

地라 함은 純陰의 象이니 益彖의 天施地生 大過初六의 苟錯諸地가 모두 坤地의 象이다.

母라 함은 生生作用의 陰體의 象이니 蠱의 幹母와 家人의 父母는 坤母의 象이다.

布라 함은 衆縷를 布하고 經과 緯로써 織成함이니 地가 天을 交하여 經緯의 象이 生함과 같으므로 坤에 布象을 取한 것이며 賁六五의 束帛은 坤布에 文飾을 加한 것이다.

釜라 함은 飮食을 化熟하는 器이니 坤의 胎宮은 乾의 發施를 承하여 物을 作成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父象을 取한 것이오 胎宮의 鼎은 坤釜의 象이

다.

吝嗇이라 함은 陰의 收斂이 過度하여 愛惜鄙嗇하는 뜻이니 坤이 純陰으로서 收斂의 過度한 象이오 同人六二같은 것이 坤의 吝嗇의 象이다.

均이라 함은 均平함이니 坤은 水土의 宜에 따라서 物을 生成함이 均平하므로 均象을 取한 것이니 謙의 稱物平施는 坤均의 象이다.

子母牛라 함은 子를 生하는 牝牛이니 離가 坤의 中氣를 受하여 牝牛의 象이 된 것이므로 離의 牝牛는 곧 坤의 子母牛의 象이다.

大輿라 함은 輿는 車底의 載物하는 곳이니 坤이 物을載하고 乾을 承하여 轉行하므로 輿의 象을 取한 것이오 大는 乾을 承함을 象한 것이며 大壯九四의 大輿는 六五 上六의 陰이 곧 坤의 象임을 表함이다.

文이라 함은 物의 相雜함이니 坤은 乾을 承하여 陽物과 陰物이 相雜하므로 文의 象이 되는 것이오 小畜大象의 文德, 革九五의 文炳, 上六의 文蔚等은 모두 坤文의 象이다.

衆이라 함은 衆은 橫目과 三人으로 되어 橫目은 數量의 條目이오 三人은 物의 多數한 象이니 이는 地上에 物의 多數한 象을 取한 것이오 師者衆也 大有衆也는 모두 坤衆의 象이다.

柄이라 함은 物을 執持하는 權柄이니 坤은 物을 含載하므로 柄의 象을 取한 것이오 謙卦가 德의 柄이 된 것은 稱物平施하는 權柄이 坤에서 來한 까닭이다.

其於地也爲黑이라 함은 火의 薰灼하는 바의 色이 黑하니 地의 中心에서 火가 炎炎히 薰灼하고 있으므로 坤의 地에 (坤에는 地와 달이 있다)黑의 象을 取한 것이오 艮九三의 薰心은 地의 中心에서 火가 薰灼하는 坤黑의 象이다.

震

雷라 함은 乾坤이 一索하여 所得한 氣로서 天의 陽氣가 地下에 있어 鼓動하고 離火가 下向하는 象이므로 雷의 象이 된 것이다.

龍은 第七章에 씌어 있고 乾諸爻의 龍과 坤上六의 龍은 모두 震龍의 象이다.

玄黃이라 함은 天玄地黃의 象이니 乾坤이 相交하여 長子 震을 生하므로 震에 玄黃의 象이 있고 坤上六의 玄黃은 震玄黃의 象이다.

 旉라 함은 春時에 氣가 至하여 草木이 吐出 旉布하여 生하는 象이며 旉字가 甫와 方으로 되는데 比彖에 輔의 甫와 方來의 方이 있고 또 九五에 仁이 顯하여 旉의 象이 되니 이는 比九五의 顯이 震旉의 象이다.

大塗라 함은 塗에 泥와 旅路의 兩象이 있어 震子가 水土와 和하면 泥가되고 足이 動하여 行하면 旅路가 되는 것이며 睽上九의 見豕負塗는 震塗의 象이다.

長子는 震이니 震에 子仁이 있어 父母를 繼하는 象이 있으므로 長子라 한 것이오 師六五의 長子는 九二에 震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決躁라 함은 躁는 擾動頻急의 뜻이오 決은 陽이 陰을 決함인데 巽에 躁卦의 象이 있으므로 震은 雷風이 相薄하여 決躁의 象이 있어 巽九三의 頻巽吝은 躁의 象이오 復六三의 頻復厲無咎는 決躁의 象이니 이는 巽의 柔가 모두 剛에 順함은 곧 復의 震子가 巽柔의 躁를 決한다 함이다. 그러므로 巽에 躁卦를 말하고 震에 決躁를 말하며 易全體에 오직 巽과 復의 震에만 頻을 말하니 復의 震子가 씨로 되어 巽柔를 決하고 入한다 함을 表한 것이다.

蒼筤竹이라 함은 竹은 冬에도 生하는 靑草이니 四時長靑하여 震子의 世世繼生함을 象한 것이오 蒼은 物老한 色으로서 乾의 象이오 筤은 良으로 되어 또한 乾의 象이니 蒼筤竹은 乾을 繼하여 冬에도 生하는 竹이므로 震을 象한 것이며 節卦가 竹字로 되고 兌에서 坎하여 正北子中의 冬이므로 冬生하는 震의 象이 되는 것이며 竹字로 된 蒙 比의 筮 豫九四의 簪 歸妹上六의 筐等이 모두 震竹의 象이다.

萑葦라 함은 地上莖의 草로서 地下로 延長하면서 繼生하므로 地下의 一陽이 世世繼生하는 震을 象한 것이오 茅茹가 地下莖에서 生하는 象이 萑葦와 相似한 것이니 泰否의 茅茹는 震萑葦의 象이다.

其於馬也善鳴이라 함은 震은 雷鳴의 聲이오 乾馬의 子이오 乾元의 善이므로 馬의 善鳴은 震의 象이 된 것이니 謙豫의 一陽은 모두 震子로서 乾馬坤牝馬의 子가 달에서 繼生한 것이므로 謙의 上六과 六二 豫의 初六의 鳴은 乾馬의 子인 震子의 善鳴하는 象이다. 謙豫의 一陽은 사람의 精化의 씨로서 달에서 下來하는 것이오 달은 牝馬이므로 謙豫의 一陽에 乾馬의 子의 象을 取하는 것이다.

雽足이라 함은 馬의 雽足이오 雽는 馬의 足을 二絆한 것이니 震이 乾馬의 子로서 一陽이 二陰下에 있으므로 足을 二絆한 象이 되는 것이다. 睽初九의 馬는 相睽한 까닭에 喪한 것이나 睽하되 또한 同하여 馬足이 兩便에 絆하여 自復한 것이니 그러므로 睽初九의 馬自復은 震雽足의 象이다.

作足이라 함은 馬의 作足이니 益初九 震子의 大作이 곧 馬의 作足이다. 益初九는 天施地生하는 震子이오 天施地生은 달이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사람의 精子와 卵子를 生育하여 사람을 生하는 것인데 달은 牝馬이므로 益初九 震子는 乾馬 坤牝馬의 子로서 馬의 象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益의 初九에 乾의 大始 坤의 作成한 大作은 震馬의 作足의 象이다.

的顙이라 함은 馬의 的顙이니 的은 明함이오 光의 的然함이니 明夷 六二와

渙 初九의 用拯馬壯은 震馬를 水溺中에서 拯出하므로 그 顙이 的明한 것이니 明夷와 渙의 所拯한 馬는 震馬的顙의 象이다.

其於稼也反生이라 함은 木이 씨로부터 坼出하여 上升하는 것이 곧 反生인데 震은 地中에서 陽이 出하여 上升하므로 反生의 象이 되는 것이오 離象의 百穀草木麗乎土는 震稼의 反生하는 象이다.

其究爲健이라 함은 健은 乾象이오 震은 乾의 長子이므로 生長하여 成하면 그 究極에 乾父를 닮아서 健이 되는 것인데 乾은 圜行統一하여 無始無終하므로 乾大象에는 卦名을 말하지 아니하고 乾의 一德인 健을 長子 震이 代行한 것이니 그러므로 乾의 天行健은 震子의 象이다.

蕃鮮이라 함은 蕃은 物의 生息함이오 鮮은 微少함이니 이는 震子가 胎中에서 生하는 象이며 坤六四의 草木蕃 晉象의 錫馬蕃庶는 모두 震子가 始生하여 微小하다 하는 象이다.

巽

木이라 함은 萬物의 種은 모두 天으로부터 下降하고 天氣가 地에 接하여 最初로 生物을 生하여 形을 成한 것이 木이오 巽은 天氣下降接地하는 卦이오 木은 地에 本하고 그 枝를 天으로 向하는데 巽은 天氣가 地에 下降하고 地가 天을 向應하는 卦이므로 木은 巽象이 되는 것이다.

風이라 함은 乾坤이 一索하여 取得한 氣로서 天氣가 下降接地하여 物을 散하는 것이오 巽에 天의 陽氣가 地의 陰을 散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風은 巽의 象이다.

長女라 함은 乾坤이 一索하여 巽女를 得한 것인데 長女는 已嫁한 女이오 已嫁한 女는 婦이니 그러므로 巽을 合한卦에 婦象이 있고 蒙九二의 納婦와

旣濟六二의 婦喪其茀은 모두 巽婦인 長女의 象이다.

繩直이라 함은 天氣의 下垂함이 垂直으로 되어 繩直의 象이 되므로 巽에 繩直의 象이 있는 것이오 姤初六의 繫柅와 井初六의 繘井이 모두 巽繩의 象이다.

工이라 함은 物을 作成함을 象함이오 巽은 天氣가 地에 下하여 天工을 地에 加하여 物을 成形하는 것이므로 巽은 工이 되는 것이니 胎宮卦의 井鼎은 모두 人工으로써 天工을 成한 것이므로 井鼎은 巽工의 制作한 것이다.

白이라 함은 天의 陽氣의 色이니 巽은 天의 陽氣의 下降하는 卦이므로 白을 象한 것이오 易卦中의 白은 모두 天의 陽氣의 色인 巽白의 象이다.

長이라 함은 天氣가 地에 下降하는 것이 萬物中 最長한 것이므로 天氣下降卦인 巽에 長의 象이 있고 易卦中의 長은 모두 地에서 天을 向하여 延長하는 巽長의 象이다.

高라 함은 地에서 天을 上升하는 것보다 더 高한 것이 없으므로 天氣接地하는 巽에 高의 象이 있고 易卦中의 高는 모두 地에서 天을 上升하는 巽高의 象이다.

進退라 함은 變化의 象이오 繫辭에 變化者進退之象 在天成象 在地成形하여 變化가 見하는 것인데 巽에는 天氣가 下降하여 地上의 物을 成形하는 象이 있으므로 變化하여 進退하는 象이 되는 것이니 乾九四의 進退無恒 上九의 知進退存亡 觀六三의 觀我生進退는 모두 巽進退의 象이다.

不果라 함은 果實을 結치 못함이오 巽娣가 老하면 孕胎치 못함을 象함이니 歸妹上六의 女承筐無實은 巽娣가 震子를 承하되 果實을 結치 못하는 不果의 象이다.

臭라 함은 風으로써 傳하는 것이오 巽에 風象이 있고 또 鼻形이 되고 있으

므로 臭의 象을 取한 것이며 同人九五의 其臭如蘭은 巽象이다.

其於人也寡髮이라 함은 髮은 首上毛이오 乾은 首髮의 象인데 乾이 坤을 得하면 首髮의 缺하는 象이 되므로 巽에 寡髮의 象이 있으며 須字가 또한 首와 毛飾으로 되어 首髮의 象이니 賁六二의 賁其須는 天氣가 下降하여 巽象이 되고 乾의 首髮을 變하여 減少케하고 天氣의 色으로써 賁한 것은 巽의 寡髮의 象이다.

廣顙이라 함은 人의 廣顙이오 顙에 毛髮이 없어서 額이 廣함이니 廣顙은 寡髮의 象과 같으므로 巽象이 되는 것이오 寡髮과 廣顙의 相異한 바는 寡髮은 首의 全體를 말함이오 廣顙은 額上을 말함이다. 革上六에 面毛가 脫하여 革面이 된 것은 額上에 毛가 없어서 巽의 廣顙의 象이다.

多白眼이라 함은 人의 多白眼이오 사람이 서로 白眼視하는 反目의 象을 말함이니 巽卦가 天의 陽氣가 下來하여 光照함은 離目의 象이오 巽의 色이 白하고 陽氣가 盛多하므로 巽은 多白眼의 象이 되는 것이며 小畜九三의 夫妻反目은 巽의 多白眼의 象이다.

近利市三倍라 함은 近은 近取諸身하는 人身의 象이오 利市三倍는 市商을 行하여 得利함이 三倍라 함이니 震子가 巽股에 入하여 胎育하면 形質을 生하고 陽一陰二의 三數의 理에 依하여 一의 震子로서 二의 形質을 得하여 本體의 三培로 增大하는 것이니 이가 近利市三培이오 旅의 商旅와 兌九四의 商兌는 巽의 近利市三倍의 象이다.

其究爲躁卦라 함은 躁는 擾動頻急의 뜻이니 陽氣와 陰股가 接하여 擾動頻急한 象이 있으므로 躁가 된 것이오 躁는 陽의 象인데 巽은 陰卦로서 躁의 象이 있으므로 卦象의 뜻을 加하여 躁卦라 한 것이며 巽九三의 頻巽은 巽의 躁卦의 象이다.

坎

水라 함은 乾坤이 再索하여 得한 精으로서 陽이 陰中에 陷하여 內明外暗하고 精이 流動하므로 水의 象이 된 것이다.

溝瀆이라 함은 溝는 田間이나 谷間을 流하는 水이오 瀆은 濁함이니 水가 土間을 流하여 濁한 것을 溝瀆이라 하고 坎水가 土와 和하여 流하면 溝瀆의 象이 되는 것이오 蒙象의 再三瀆은 坎의 溝瀆의 象이다.

隱伏이라 함은 潛하여 藏함이니 坎은 陽이 陰中에 陷하므로 隱伏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乾初九의 潛龍이 陰中에 隱한 것은 坎의 隱伏의 象이다.

矯輮라 함은 矯는 曲함을 直하게 함이오 輮는 直함을 矯함이다. 太陽系의 運動은, 太陽과 行星間의 引力線은 直하고 行星의 軌道는 曲하니 이가 矯輮의 象인데 坎은 中直하여 外圓의 陰曲을 直하게 하려 하고 外圓의 陰은 曲하여 陽의 中直을 曲하게 하려 하므로 矯輮의 象이 되는 것이며 訟卦의 曲直을 辨하는 것이 곧 坎의 矯輮의 象이다.

弓輪이라 함은 弓은 半圓形에 直弦이 있는 것이오 輪은 圜轉하는 것이니 物의 圜轉하는 者는 中心에 直線이 있는 것인데 坎은 中心에 陽의 直함이 있고 그 外圍를 陰이 圜轉하므로 弓輪의 象이 되는 것이며 地의 南北은 各各半球로서 半圓形의 弧로 되어 南에서 北으로 圜하고 北에서 南으로 圜하는 것인데 睽卦는 上離下兌의 水火로 되어 南北의 離坎의 象이 되고 上九에 弧가 있으니 睽의 弧는 坎의 弓輪의 象이다.

其於人也加憂라 함은 憂는 首와 心으로 되어 愁思하여 首가 低首함이니 이는 陽이 陰中에 陷한 坎의 象이다. 豊彖의 勿憂는 陽이 下向하여 陰宮에 入하고 互卦가 大過로 되어 또한 陽이 顚하여 陰中에 入하여 모두 坎象이 있으므로 憂를 말한 것이니 豊의 憂는 坎의 加憂의 象이다.

心病이라 함은 人의 心病이오 心이 憂愁하여 病함이니 坎에 維心의 象이 있는데 陰中에 陷하면 心病이 되는 것이다. 旅九四의 我心不快는 豊과 같이 陽이 陰宮으로 入하고 또 互卦가 大過로 되어 陽이 顚하여 陰中에 入하므로 心이 陰을 決치 못하여 不快가 된 것이니 그러므로 旅九四의 心不快는 坎의 心病의 象이다.

耳痛이라 함은 人의 耳痛이니 耳는 坎水의 象이오 坎水의 病함이 곧 耳痛이다. 噬嗑은 午中卦로서 離火는 南極이 되어 北極의 坎水와 通하므로 上爻離火의 極에는 반드시 坎水가 있는 것인데 火의 炎上이 極하여 坎水가 涸하여 滅耳의 象이 되니 噬嗑上九의 滅耳는 坎의 耳痛의 象이다.

血卦라 함은 血은 赤色의 水液인데 坎에 水象과 赤象이 있으므로 血象이 된 것인데 坤의 龍戰에 血의 象을 말한 것은 坎은 血卦이오 血이 아니매 坎水의 險이 곧 血이다. 血은 陰의 險의 象인데 坎은 陽卦로서 險의 象이 있으므로 卦象의 뜻을 加하여 血卦라 한 것이오 易卦中의 血은 모두 坎水의 險의 象이므로 坤上六의 其血玄黃 小畜六四의 有孚血去 歸妹上六의 刲羊無血은 모두 坎의 血卦의 象이다.

赤이라 함은 陰中에 乾의 大赤을 承受한 것이므로 陰中受陽한 坎에 赤象이 있는 것이오 困九五의 赤紱은 本是 乾의 大赤인데 上六에 坤을 得하여 陰이 陽을 揜하므로 또한 坎赤의 象이며 困九二의 朱紱은 坎赤이 中心에 入한 象이다.

其於馬也美脊이라 함은 乾의 瘠馬가 病을 免하고 脊呂의 美한 것이니 이는 乾의 中劃을 受하여 馬象이 된 坎象이다. 賁六四의 白馬는 屯으로부터 乾의 老馬가 下來하여 離陰宮에 入하는 象이오 乾馬가 離陰宮에 入하면 坎象이 되니 그러므로 賁六四의 白馬는 屯에서 來하는 때는 乾의 老馬瘠馬이오 賁의 陰中에 入하면 坎의 美脊馬의 象이다.

亟心이라 함은 馬의 亟心이니 亟은 人과 口와 手로 되고 二는 天地이니 天

地는 乾坤이오 口手는 兌艮이므로 亟心은 乾坤兌艮으로 된 咸卦의 感應의 心이며 咸은 陽이 陰宮에 入하는 것이므로 咸의 感應하는 心은 坎象이 되는 것이오 咸卦가 또한 乾이 坤中에 入한 坎象이다. 咸은 地道의 始로 되고 晉明夷는 咸의 成熟體로 되어 錫馬의 象이 있으니 晉明夷는 需訟과 相對하고 乾馬가 需訟의 坎水를 通하여 下來하는 것이 곧 晉의 錫馬와 明夷의 拯馬이다. 그러므로 咸의 陰體인 晉明夷에 來錫하는 馬는 坎의 亟心의 馬의 象이다.

下首라 함은 馬의 下首이니 乾에 首象이 있으므로 乾馬가 坤에 下來하는 것이 下首의 象이며 乾馬가 坤中에 來하므로 坎의 象이 되는 것이니 下首는 乾馬가 用九를 通하여 坎水를 坤陰宮에 下施하는 象이니 乾의 用九의 首가 곧 坎의 下首이다.

薄蹄라 함은 馬의 薄蹄이니 蹄는 足과 帝로 되어 震子의 象이오 薄은 雷風相薄이니 薄蹄는 震子를 包한 馬이므로 陽이 陰中에 入한 坎의 象이다. 中孚는 二陰卦가 內虛하여 陽을 孕胎하므로 坎象이 되고 六四는 巽股와 初九가 應하여 雷風相薄의 象이 되는데 內虛의 속에 孕胎된 坎陽이 곧 薄蹄의 震子이며 六四의 馬匹亡은 薄蹄한 坎馬의 匹偶로 되는 陰精이 喪亡함이니 이는 薄蹄한 坎象의 馬가 新月로 生하고 月體로 되는 兌精인 舊月이 喪亡한다 함이니 그러므로 中孚六四의 馬는 坎의 薄蹄의 象이다.

曳라 함은 馬의 曳이니 坎은 陽이 陰中에 있어 陰을 曳하고 行하므로 坎에 曳의 象이 있는 것이며 睽의 下卦는 坎水의 象이오 初九에 馬의 象이 있는데 九三에 所見한 輿曳는 下卦初九의 坎馬의 曳하는 것이니 이는 睽의 下卦兌는 坎의 象이라 함을 表한 것이다.

其於輿也多眚이라 함은 眚은 災過이니 坤에 大輿의 象이 있는데 坤中에 陽이 入하여 險이 된 까닭에 多眚이 된 것이니 師의 六三 六五의 輿尸가 곧 坎輿의 多眚한 것이다.

通이라 함은 透明함이니 水는 透明하여 物을 映寫하는 것이므로 坎水에 通의 象이 있는 것이오 節의 中正以通의 通은 坎通의 象이다.

月이라 함은 陽이 陰精의 中에 入하여 成하여 그 組織이 水와 같은 것이므로 陰中에 陽을 包한 坎에 月象이 있는 것이오 小畜上九 歸妹六五 및 中孚六四의 月幾望은 모두 坎月의 象이다.

盜라 함은 陽이 陰中에 掩蔽된 것이므로 坎에 盜象이 있는 것이오 盜는 寇이니 賁六四 睽上九의 匪寇婚媾 漸九三의 利禦寇는 모두 坎盜의 象이다.

其於木也堅多心이라 함은 坎에 赤과 心의 象이있고 赤心은 木의 堅心의 象이니 困은 木이 圍中에 生하는 卦이므로 木象과 坎象을 合하여 初六에 朱木의 株가 있고 九二에 朱紱이 있으니 朱는 赤木心의 象이며 그러므로 困初六의 株와 九二의 朱는 坎의 木의 堅多心의 象이다.

離

火라 함은 乾坤이 再索하여 得한 精으로서 陽中에 陰이 入하여 內暗外明하고 陽이 質을 得하여 附麗하고 그 精이 激發하므로 火의 象이 된 것이다.

日이라 함은 陽中에 陰이 入하여 그 組織이 火와 같으므로 離에 日의 象이 있는 것이다.

電이라 함은 雷擊하는 때에 發하는 光이니 그 象이 火의 激發과 같으므로 離에 電象이 있고 噬嗑 豊의 雷電은 모두 離火의 象이다.

中女라 함은 乾坤이 再索하여 離女를 得한 것이니 睽革의 二女同居는 離中女와 兌少女를 말함이다.

甲胄라 함은 甲은 孚甲이오 胄는 金屬製의 투구이니 離는 乾이 坤을 得하여 陰宮이 된 것이므로 乾의 甲始와 孚甲의 象을 因하여 甲이라 하고 乾金의 首를 孚甲하므로 胄라 한 것이니 甲胄는 乾이 離의 陰宮으로 變함을 象한 것이며 解의 百果草木皆甲坼은 陰宮에 保合하던 乾陽이 析出하는 것이므로 解의 甲은 離甲胄의 象이다. 甲析하는 것은 離火의 爆發力에 依함이다.

戈兵이라 함은 乾金이 坤을 得하여 離火로 되어 激發하는 것은 金屬戈兵의 用武하는 象이 되고 또 雷雨卦의 互離는 電擊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離에 戈兵의 象이 있는 것이오 解의 寇盜奪伐하는 戎器는 離의 戈兵의 象이니 甲胄戈兵이 모두 解卦의 離象이다.

其於人也大腹이라 함은 坤爲腹인데 離는 坤中劃을 得하고 二陽이 外部로 擴大하므로 大腹이 된 것이니 明夷六四의 左腹은 下卦 離의 大腹이 九三의 大首를 得한 것이다.

乾卦라 함은 乾은 乾燥함이니 離는 火象이므로 乾燥의 象이 되는 것이오 乾燥는 陽의 象인데 離는 陰卦로서 乾燥의 象이 있으므로 卦象의 뜻을 加하여 乾卦라 한 것이며 噬嗑의 九四 乾胏와 六五 乾肉은 모두 離의 乾卦의 象이다. 特히 乾字를 쓴 것은 乾燥에는 火乾과 日乾의 두 가지가 있는데 噬嗑의 乾은 日乾한 것이오 離의 乾卦는 日乾의 뜻을 表한 것이다. ?日乾 ?火乾

鼈蟹蠃蚌龜 五者는 合하여 離의 陰宮을 象한 것이다. 鼈은 伏하여 太陽을 隨하는데 太陽의 轉行하는 바를 隨하여 朝에는 首가 東向하고 夕에는 首가 西向하는 것이니 이는 離의 陰宮에 兌精이 있어 반드시 太陽光明中의 震子를 向應함을 象함이오 蟹는 그 腹中의 虛하고 實하고 함이 달의 盈虛를 應하여 相異한 것이니 이는 離의 陰宮中의 月經이 달의 盈虛를 따라서 消長함을 象함이오 蠃는 蜾로서 나난이벌이니 桑蟲을 取하여 木空中에 入

하고 거기에 卵을 生하여 化生하는 것이니 이는 離의 陰宮中의 兌精에 震子가 麗하여 化育함을 象함이오 蚌은 蚌蛤의 胎珠가 달로 더불어 虧하고 全하고 하여 달이 望하면 蚌蛤이 實한 것이니 이는 離의 陰宮中의 兌精은 달의 虧全을 따라서 消長함을 象함이오 龜는 陰蟲으로서 甲蟲의 靈長이 되니 이는 離가 陰卦로서 外陽內陰하여 光明을 發함을 象함이다. 中孚는 大離形의 陰宮卦로서 그 柔內의 속에 陰精이 있어 鼈蟹蠃蚌龜의 作用을 行하므로 卦辭에 豚魚라하니 豚은 坎象으로서 豕子를 圈한다는 뜻인데 陰宮이 陽精인 震子를 受함을 象함이오 魚는 水中虫의 稱인데 陰宮에 入하는 陽精水中의 震子를 象함이며 蠃卵도 桑蟲體中에 入하여 水蟲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姤 初六의 蠃豕包魚와 中孚卦의 豚魚는 陰宮이 陽精水中의 震子를 圈한다 함이오 이는 離의 鼈蟹蠃蚌龜의 象이다.

其於木也科上槁라 함은 科는 植禾本이오 槁는 枯木이니 科上槁는 木의 上梢의 槁함이라 離는 南方의 萬物相見하는 卦로서 火가 盛極하면 上梢의 水가 涸하여 枯하는 것이므로 科上槁는 離의 象이니 그러므로 噬嗑上九의 何校滅耳는 離의 科上槁의 象이다.

艮

山이라 함은 地의 高起하여 天에 接한 것이 山이므로 一陽이 地上에 起한 艮은 山의 象이 되는 것이다.

徑路라 함은 徑은 直함이니 巽의 天氣가 下降하여 繩直의 象이 됨과 같이 地氣가 上升하여 天에 接하는 路도 또한 直하므로 徑路는 直路가 되는 것이오 震에 大塗의 象이 있으므로 艮의 徑路는 또한 小道의 象이 되는 것이니 大艮形인 觀初六의 童觀小人道는 艮의 徑路의 象이다.

小石이라 함은 地가 高起하여 下의 二陰은 土의 象이오 上의 一陽은 石의

象이며 山이 上尖하므로 小石이 되니 豫六二의 介于石 困六三의 困于石은 모두 艮의 小石의 象이다.

門闕이라 함은 闕은 門觀이니 宮闕의 門의 兩旁에 있고 中央이 通하여 行道로 되니 艮의 下二陰이 偶하고 上一陽이 下를 觀하므로 門闕의 象이 되는 것이며 또 門闕은 사람의 出入함에 停止하는 곳인데 地가 天을 向하여 高升함이 限界가 있으므로 艮에 門闕의 限界하는 象이 있는 것이니 觀卦의 觀은 門觀으로서 艮의 門闕의 象이다.

果蓏라 함은 果는 木實이오 蓏는 草實이니 艮은 二陰上에 一陽이 있으므로 草木의 結實의 象이 되며 解의 百果는 艮果의 象이오 臨上六의 敦臨 復六五의 敦復의 敦은 瓜가 蔓에 繫한 것으로서 艮蓏의 象이다.

閽寺라 함은 閽은 昏에 閉門하는 人이오 寺는 法度의 뜻으로서 治事하는 者이니 閽寺는 守門人이라는 뜻이며 艮은 地가 天에 接하여 闔戶闢戶의 象이 있고 또 止하는 象이 있으므로 門闕을 守하는 閽寺의 象이 된 것이다. 豫는 一陽이 地上에 있어 正艮倒艮의 象이 되므로 重門의 象이 되고 復은 一陽이 地中에 入하고 坤이 闔하여 反艮이 되므로 閉關의 象이 되니 豫의 重門과 復의 閉關은 艮의 閽寺의 象이다.

指라 함은 物을 執持하는 手指이니 艮은 手의 象이오 또 止의 象인데 手는 指에서 止하므로 艮은 指의 象이 되는 것이오 師六五의 執言 咸九三의 執其隨 遯六二의 執用은 모두 指의 執持하는 것으로서 艮指의 象이다.

狗는 第七章에 씌어 있고 牝牡가 交精함에 兩者의 首가 서로 逆行하는 것은 狗이니 正艮倒艮의 頤卦는 狗의 交精하는 象이므로 艮은 狗의 象이 되는 것이다.

鼠라 함은 陰中에서 動하는 陽으로서 十二支의 首인 子의 象이 되니 子는 씨인즉 鼠도 또한 陰中陽動하는 씨의 象이 되는 것이오 艮은 成終成始하는

果蓏이므로 鼠의 象이 되는 것이며 晉九四는 陰穴中의 씨로 되어 鼫鼠가되니 이는 艮鼠의 象이다.

黔喙之屬이라 함은 易卦象中에 있는 狗狐와 같이 喙의 邊에 黑線이 있는 것이다, 狐는 犬과 瓜로 되고 艮에 狗와 果蓏의 象이 있으므로 艮果를 狐로써 象한 것이니 解九二의 三狐는 百果草木을 象하고 未濟의 小狐는 滋味의 果를 象한 것이며 그러므로 解의 三狐와 未濟의 小狐는 艮의 黔喙之屬의 象이다.

其於木也堅多節이라 함은 節은 物의 生長이 終하여 成으로 되는 것을 節이라 하니 艮은 地가 高升하여 天에 接함을 限界로 하여 節을 成하며 또 艮의 果蓏는 生長의 節로 되어 있으므로 艮에 堅多節의 象이 있는 것이며 蹇六五의 中節은 冬寒中의 艮果가 節하는 것이오 未濟上九의 不知節은 滋味한 艮果가 濡首하여 節을 成치 못함이니 그러므로 蹇의 中節과 未濟의 不知節은 모두 艮의 堅多節의 象이다.

兌

澤이라 함은 水가 下의 陽氣의 上升으로 因하여 下流치 아니하고 上에 凝聚한 것이므로 一陰中에 陽氣를 蓄한 兌는 澤의 象이 되는 것이다.

少女라 함은 乾坤이 三索하여 兌女를 得한 것이니 睽革의 二女同居는 離中女와 兌少女를 말함이다.

巫라 함은 女가 能히 無形을 事하여 舞로써 降神하여 祝하는 것이니 兌는 下의 陽氣가 上升하고 上에 口가 開하는데 文王八卦圖에 陰卦가 兌에 終하고 兌口는 乾을 向應하고 있어 口로써 天에 祝하는 象이 되는 것이므로 巫라 한 것이오 巽九二의 巫는 兌巫의 象이다.

口舌이라 함은 口는 物을 受容하여 闔闢함이오 舌은 物을 口에 入하고 卷舒하고 味를 知함이니 口舌은 飮食과 言語의 用으로 되는 것이며 兌에 口의 象이 있고 說言의 象이 있으므로 口舌을 象한 것이니 頤의 愼言語節飮食은 兌의 口舌의 象이다.

毁折이라 함은 毁折은 缺壞함이니 兌는 一陰이 二陽의 上에 있어 陽의 缺壞한 象이며 序卦에 乾坤卦는 夬姤萃升에서 終하므로 夬姤萃升은 乾坤의 毁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이는 乾坤이 六子의 最終인 兌를 生하고 父母가 終하는 理이니 그러므로 夬姤萃升의 乾坤毁는 兌의 毁折의 象이다.

附決이라 함은 附麗하여 있으면서 決한다는 뜻이니 夬의 上卦兌는 兌精이오 下卦乾은 震子인데 震子와 兌精은 서로 附麗하면서 震子가 兌精을 決하고 入하여 胎育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夬의 剛決柔는 兌의 附決의 象이다.

其於地也剛鹵라 함은 兌는 一陰下에 二陽을 蓄하여 陽은 剛한 것이오 鹵는 西方鹹地로서 澤底에 鹽分이 蓄하여 鹵로된 것이니 그러므로 兌에 剛鹵의 象이 있는 것이오 困六三의 困于石은 兌의 剛鹵의 象이다.

妾이라 함은 妾은 接함이니 兌精은 震子와 相接하여 受胎하는 것이므로 兌를 妾이라 하며 鼎初六의 得妾은 兌妾의 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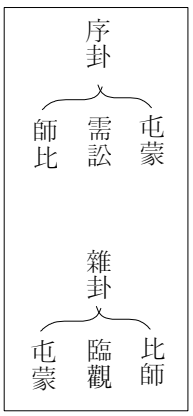
羊이라 함은 第七章에 씌어 있고 大壯의 羝羊과 夬의 牽羊은 모두 大兌의 卦로서 陽이 前進하여 陰을 觸하므로 羊象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大壯夬의 羊은 兌羊의 象이다.

序卦와 雜卦

易經의 序卦에는 成의 時運의 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雜卦의 末에 大過互卦圖가 있고 大過互卦圖의 理에 依하여 天地圜行圖가 生하고 天地圜行圖의 理에 依하여 正易八卦圖가 生하니 이는 正易八卦圖가 雜卦에서 나온 것이다.

序卦雜卦에는 오직 上下經의 首卦인 乾坤과 咸恒이 그 位를 變치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乾坤은 天地의 大父母로서 그 位가 永遠히 變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文王八卦圖는 艮에서 終하는데 乾卦彖辭에는 艮에서 首出庶物이라 하여 艮에 首의 象을 말하니 艮은 成終成始하는 곳이라 이는 先天이 艮에서 終하고 后天이 艮에서 始하여 乾卦에 先后天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오 坤卦彖辭에는 「先하면 迷하고 後하면 主를 得한다」 하니 先迷는 先天月이오 後得主는 后天月이라 이는 坤卦에 先后天의 象이 있음을 말함이다.

后天乾坤의 世에 乾坤의 뒤를 繼할者는 다시 先天序卦의 屯蒙需訟師比이오 곧 雜卦의 比師臨觀屯蒙이다. 先天序卦는 乾坤의 속에서 次世代의 씨인 屯蒙을 生하고 需訟에서 天地가 開闢하고 師比에서 水土가 安定하니 이는 天地創生의 象이다 后天은 天地가 이미 創生되었으므로 水潮南天水汐北地의 變化가 있은 뒤에 比師에서 水土가 平하고 臨觀에서 神道의 敎가 行하고 屯蒙에서 사람이 奠居하는 것이다. 雜卦에 「蒙은 雜하고 著한다」 하니 雜이라 함은 坤文言에 「玄黃이라 함은 天地의 雜함이라」 하고 玄黃은 震子의 象이라 雜하고 著한다 함은 初筮의 象인 震子가 着生함이오 水濆의 變化中에서 오직 天地의 雜인 玄黃한 震子가 着生하는 것이며 雜卦라는 雜字도 天地의 아들인 震子의 着生한다는 뜻을 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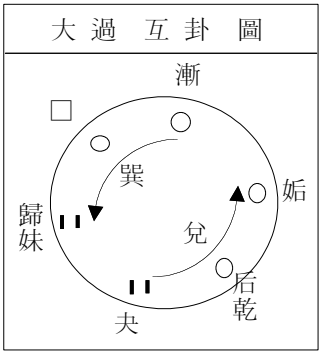
雜卦에 下經咸恒의 位가 變치 아니하니 咸恒은 后天의 始이므로 正易八卦

圖의 東西를 運行하는 艮兌도 咸卦를 말함이오 正易에 「萬曆而圖兮咸兮恒兮」라 한 것도 咸恒이 后天의 始임을 말한 것이며 正易의 十二月 二十四節에 和와 化를 말하니 和는 咸卦의 天下和平이오 化는 恒卦의 天下化成이라 이도 또한 咸恒이 后天曆의 始임을 말한 것이다.

六十四卦中 困井革鼎은 先天에서는 生長卦로서 胎宮이 되었는데 后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后天에는 胎宮이 없고 胎宮의 位에 小過 中孚 豊旅의 四卦가 있어 모두 收斂하니 小過中孚는 日月合朔하는 卦이오 豊旅는 日月盈虛하는 卦이라 그러므로 小過中孚豊旅는 收斂作用을 行하여 다시 胎宮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每月에 晦하여 合朔하고 盈하여 虛하고 하는 作用을 行함을 象한 것이다.

文王八卦圖와 大過互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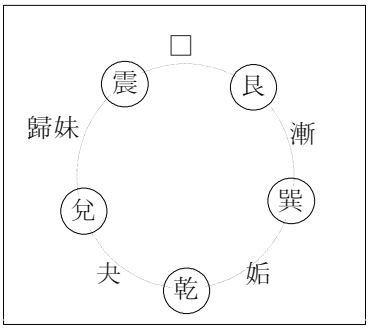
易經의 終에 雜卦가 있고 雜卦의 終에 大過互卦圖가 있으니 이는 大過卦로부터 夬卦로 變하는 過程에 陽이 天地를 圜行하는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오 이것을 圖로써 表하면 다음과 같다.



大過는 兌巽의 合한 生長卦이오 兌巽의 合한 生長卦는 또한 胎宮의 象이 되는 것이므로 大過의 속에 互卦乾이 潛하고 있으며 이 乾은 下卦의 巽股에 入하여 上卦의 兌澤을 決하고 后天의 열매로 되는 것인데 그 巽股에 入하여 兌澤을 決하는 過程에 姤 漸 頤 歸妹 夬의 互卦의 象과 水火通明하는 旣濟未濟의 運行하는 象이 나타나서 雜卦의 大過以下의 姤 漸 頤 旣濟 歸妹 未濟 夬의 八卦次序가 된 것이다.

大過는 天氣가 地를 向하여 下하는 象이라 天氣가 地를 向하여 下하면 陽이 消하는 것이므로 乾의 下劃陽이 消하고 陰으로 變하여 巽風이 되니 乾天과 巽風은 天風姤이다.

巽風이 다시 下行하면 巽의 中劃陽이 消하고 陰으로 變하여 艮山이 되니 巽風과 艮山은 風山漸이다.



艮山이 다시 下行하면 陽이 全消하고 坤이 되는데 大過卦는 陽의 受胎하는 象으로되고 陽의 消하는 것이 아니므로 艮山은 坤地가 되지 아니하고 一陽反復하는 天行의 理에 依하여 艮山이 反易하여 震雷가되니 艮山과 震雷는 山雷頤이오 頤로부터 陽이 다시 天을 向하여 上升하는 것이다.

震雷가 天을 向하여 上升하면 陽이 長하는 것이므로 中劃의 陰이 消하고 陽으로 變하여 兌澤이 되니 震雷와 兌澤은 雷澤歸妹이다. 그런데 震雷가 上升하려 하면 반드시 地上에서 水火가 衝擊하고 火가 下로부터 推進한 然後에 能히 上升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震雷가 兌澤으로 上升하는 過程에는 下에서 火氣의 推進하는 水火旣濟가 있어 頤에 次하는 것이다.

兌澤이 다시 上升하면 또 陰이 消하고 陽으로 變하여 乾天이 되니 兌澤과 乾天은 澤天夬이다. 그런데 兌澤이 上升하려 하면 반드시 天上에서 水火가 通明하고 火의 引力이 上引한 然後에 能히 上升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兌澤이 乾天으로 上升하는 過程에는 上에서 火氣가 上引하는 火水未濟가 있어 歸妹에 次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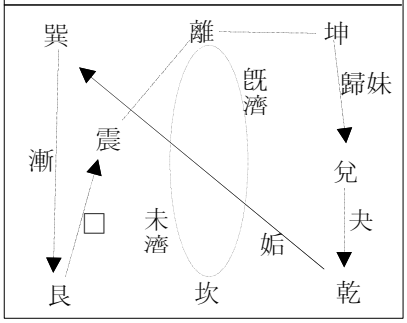
乾陽이 兌澤을 決하여 夬가 되는 때에 달의 裏面인 臀이 乾陽을 接하여 后天달이 되는 것이니 이가 后乾의 象이다.

大過互卦圖는 또한 바로 文王八卦圖가 后天을 生하는 順序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文王八卦圖로써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乾은 太陽의 象이오 巽은 달의 體의 象이라 乾陽의 氣를 巽陰의 달에 施하

면 天風姤가 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의 生生圖



乾의 陽氣를 巽陰에 施함에는 艮陽을 用하는 것이니 巽陰과 艮陽은 風山漸이오 漸에 婚姻의 象이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다. 艮陽이 巽陰을 合하면 震子를 施하는 것이니 艮陽과 震子는 山雷頤이다. 艮陽에서 發施되는 震子는 兌澤과 合하는데 震子가 陰體의 兌澤으로 넘어감에는 반드시 水火가 通明하고 火가 推上하여 絶處逢生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頤의 다음이 火의 推上하는 水火旣濟가되고 그 然後에 震子가 兌澤을 合하는 雷澤歸妹가 되는 것이다. 震子가 兌澤을 合하면 兌澤의 속에는 乾陽이 決入하여 澤天夬가되는데 兌澤이 天으로 上함에는 또한 水火가 通明하여 火의 上引하는 火水未濟가 있은 然後에 決入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歸妹의 다음이 未濟가되고 그 다음이 夬가 되는 것이오 夬는 臀이 乾陽을 向하는 后天의 달이 되는 것이니 이는 夬의 反易한 것이 곧 后天달인 天風姤인 까닭이다.

夬姤는 胎宮卦인 困井의 父體이오 胎宮에서 后天달이 出生하는 것이므로 夬姤에 后天달을 生하는 象이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易經의 終인 雜卦에 大過互卦의 理를 말하여 文王八卦圖에 后天달을 生하는 象이 있음을 表한 것이다.

大過互卦圖는 陽의 消長의 理로써 天地를 順行하고 天地圜行圖는 八卦의 變象으로써 天地를 逆行하니 이는 陽의 消長은 四時循環의 理에 依하므로 順行이 되고 八卦의 變象은 生長에서 成으로 變하는 것이므로 逆行이 되는 것이다. 大過互卦圖의 理에서 天地圜行圖가 生하고 天地圜行圖에서 正易八卦圖가 生하니 그러므로 易經의 最終篇인 雜卦는 正易八卦圖를 生하는 基礎가 된 것이오 이는 序卦大過에서 陽이 陰中에 入하여 后天의 象인 下經首卦 咸이 되고 天地가 圜行하여 生長時運이 成의 時運으로 變하여 咸卦象인 艮兌가 東西를 運行用事하여 正易八卦圖가되어 大過卦와 天地圜行圖가

모두 后天의 咸卦를 生하고 있는 까닭이다.

大過互卦圖가 天風姤에서 始하는 것은 달의 變化에 天風姤의 象이 있음을 因함이니 先天의 달은 風天小畜에서 달의 體가 始生하여 巽의 一陰이 天을 向하였는데 小畜으로부터 序卦三十六卦에 天風姤가 있어 后天달의 生하는 象이 되고 姤는 巽의 臀이 天을 向하니 그러므로 天風姤의 달은 后天의 始가되고 雜卦에 后天時運의 到來를 象한 大過互卦圖가 姤에서 始한 것이다.

字句解

吉

物이 生한다는 뜻도 되고 生命이 繼生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달의 生하는 朔日을 吉이라 한다.

元吉

陽이 陰體에 附하여 生育함이다.

大吉

天地間에 有形의 最大한 것은 光明이므로 光明을 大하다 하고 달의 光明의 生함을 大吉이라 한다.

凶

死地에 陷함이니 生命의 短折함이다.

咎

人과 各으로 되어 사람이 서로 異各함이니 陰陽이 서로 異各함을 말함이오 無咎는 陰陽의 異各치 아니함이다.

悔

悔吝者言乎其小疵 吝은 小이오 悔는 疵인데 悔는 心으로되고 疵는 疾이니 陽이 過動하여 陰中에 陷하여 心疾하는 象이다.

悔亡

悔亡과 無悔와 有悔의 相異한 바는 陽이 陰中에 入하되 疾치 아니하는 것이 悔亡이오 陽이 陰中에 入하되 疾치 아니하고 生育하는 것이 無悔이오 陽이 陰中에 入하여 疾하고 生育치 못하는 것이 有悔이다.

吝

小疵의 小로서 陰의 收縮 吝嗇함이니 嗇하여 進路가 窮한 것이다.

疾

陽이 陰에 陷하여 心中이 昏暗함이다. 喜의 對이다.

喜

陽氣가 內에서 發하여 心中이 光明함이다. 疾의 對

孚

爫와 子로 되고 陰體中에 陽氣가 뭉쳐서 알맹이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孚에는 卵孵의 象이 있고 卵이 孵化함에는 그 期를 失치 아니하고 信이 있으므로 孚를 또한 信이라 한다.

惕

光明이 陰의 蔽한 바가 되어 憂懼하되 그 속에 光明이 있다는 뜻이다.

義

異質의 兩物이 調和하여 一하는 것이니 陰陽之義配日月의 뜻이다. 夫婦之義 君臣之義 義齒 義兄弟 等

利

陰이 陽을 含하여 義의 和함이니 物의 여무는 象이다.

害

利의 對이니 物이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이다.

厲

衣를 걷지 아니하고 물을 건너는 것이니 陽이 陰中을 涉하여 危함이다.

福

示와 畐으로 되어 示는 天에서 光明을 垂함이니 神의 作用을 象함이오 畐은 高厚함이니 福은 神으로부터 祐함을 受함이다.

亂

水를 橫流하여 濟함이니 水流를 가르는 것이오 人間社會의 分斷이 곧 亂이다.

治

水의 順流함이니 人間社會의 對立이 調和되어 動一함이다.

理

治石이니 陰陽이 相摩하여 調和를 얻음이다.

艱

明을 晦하고 時를 待함이다.

難

艱은 心的晦明을 말함이오 難은 外的晦明을 말함이다.

往

陰이 陽에게로 가거나 陽이 陰에게로 가거나 하는 때에 往이라 하는 것이니 이는 往이라 함은 一陰一陽하는 道를 往한다는 뜻이다. 行有尙을 解하기를 往有功이라 한 것은 自體의 行動을 말할 때에는 行이라 하고 陰陽相對하는 뜻이 있는 때에는 往이라 한다.

征

內에서 出하여 往함이다.

慶

善한 子가 生함이다.

譽

善한 子가 繼承하여 稱聲이 있음이다.

尤

內에서 出하고자 하되 外가 閉하여 止함이다.

貞

保合함이다. 貞을 正이라 하는 것도 또한 保合의 뜻이다.

恤

心과 血로 되고 血은 陰에 屬하니 陰氣의 盛함을 憂함이다.

醜

酉와 鬼로 되어 酉는 化醇의 뜻이오 鬼는 陰精의 뜻이니 男女의 相交함을 象함이다.

有終

陰이 陽을 得하여 物을 成終함이다. 代有終 無初有終

酒

먼저 興奮하고 後에 醉倒하는 것이니 陽器의 生殖作用의 象이다.

功

易從則有功 有功則可大 賢人의 業이다.

宜

地를 得하여 安함이다. 事宜에 合함이다.

和

義之和

章

音과 十으로 되어 音樂의 竟함이니 花가 華榮하여 實을 生하는 象이다.

息

休止하고 또 生함이다. 呼吸을 息이라 함은 呼吸하고 休止하고 또 呼吸하고 하므로 息이라 한다. 消長과 消息은 同一치 아니하니 消長이라 함은 消하고 長하고 함이오 消息이라 함은 休止한 後에 次世代가 生함을 息이라 하고 生子함을 또 子息이라 한다.

群

陰의 多함을 群이라 한다. 否의 不亂群 漸의 離群醜 乾의 見群龍 睽의 群疑

祭

神을 事하는 일이니 사람이 神으로 더불어 相接하는 일이다.

祀

神을 事하는 일인데 敬慕하여 記念하는 일이다.

享

神에게 獻하고 神으로 부터 受하고 하는 일이다. 사람이 祖上을 祭享함은 또한 來世를 繼하는 所以이니 祭享祖上은 向心力이오 繼來世는 遠心力이라 向心力과 遠心力은 同一線上의 同一力이므로 上으로 그 所由生을 忘치 아니하는 것은 또한 下로 世世繼承함을 絶치 아니하는 뜻이니 그러므로 易經에 祭享을 말한 곳은 모두 子孫의 繼生하는 象이 있는 곳이다.

離

離는 兩이라는 뜻으로서 麗와 散의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兩이 各散하면

서 또한 相麗하는 것이다. 陰은 偶하고 陽은 奇하므로 陰의 作用에는 各散의 뜻이 있고 陽의 作用에는 相麗의 뜻이 있는 것이다. 離는 鳥인데 鳥의 兩翅가 陰作用으로는 兩쪽에 各散되어 있고 陽의 作用으로는 合一하여 相麗되어 있으니 이가 또한 麗와 散의 뜻이다.

寧

宀 心 皿 丂로 되어 家庭에서 男女가 相從하여 飮食하고 氣가 舒出함이다. 不寧은 男의 獨陽의 뜻이다.

則

天의 垂示하는 法則을 坤이 效法하여 物을 作成하는 것이니 乾이 坤을 交하여 陰陽이 合德함이다.

邦, 國

邦은 丰과 邑으로 되어 地上에 草의 生盛한 象이니 사람이 集團하여 사는 人間社會를 말함이오 國은 圍과 人口 地 戈로 되어 土地의 區域을 定하고 君主를 建함을 말함이다.

故

物의 弊故함이니 隨無故 豊多故 革去故 等이다.

非, 匪

非는 그런 것이 아니다. 匪는 그러함이 아니다.

中行

震子가 陰中에 行함이다.

文

陰物과 陽物이 相雜하여 形質에 文采가 生함이다.

命

震子가 外로부터 來하여 內에 主가 되는 것이니 無妄의 剛自外來而爲主於內는 天命이 되고 巽의 柔皆順乎剛은 申命이 되는 것이다.

災

天火로서 屋이 火災함이니 消滅하는 運을 象함이다.

有言

陽氣가 內로부터 外에 發宣하여 言이 되는 것이 有言이니 사람에 있어서는 心의 音인 意의 發宣이 곧 有言이며 陽體의 陽氣發宣을 象한 것이다.

遂

自意를 從하여 行함이다.

就

高에 就함이니 火就燥는 火의 炎上함이다.

業

 羋과 木으로 되어 草木의 豊盛함이니 物의 形質을 作成하는 功力이다.

憂

頭가 下垂하여 愁함이다. 樂의 對

樂

憂의 對이니 上으로 天을 向하여 喜함이다.

戒

界를 防備함이다.

敗

險阻에 陷함이다.

願

首와 原으로 되어 大頭의 뜻이니 乾元을 象함이다.

穴

土室이니 坎陷中에 사람이 居하고 있음을 象함이다.

來

上으로부터 下에 來하고 外로부터 內에 來하는 것이다.

敬

內에 陽이 動하여 直함이다.

斷

異段의 事를 裁하여 一로 決하는 것이다.

眚

目이 病하여 光이 掩함이다.

乘剛

陰이 陽을 掩蔽하여 自身이 昏暗한 象이다.

常

主를 得함이니 坤의 後得主가 곧 後順得常이다.

告

陽이 陰中에 着하여 生함이다.

庭

宮中이니 陰體의 陰宮에 宮中의 象이 있으므로 兌를 庭이라 한다.

食

食에는 먹는다는 蝕의 뜻이 있고 生養한다는 뜻은 없는 것이다. 不家食 寒泉食의 食은 飮食을 먹는다는 뜻이 되고 碩果不食 三日不食의 食은 虧損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正中, 中正

正中이라 함은 統體組織에서 그 中이 된다 함이오 中正이라 함은 中에서 그 全體에 及한다 함이니 正中은 그 位의 中함을 말함이오 中正은 그 中의

作用하는 範圍를 말함이다.

剛中

陽이 陰中에 入하는 象의 卦에 陽이 得中하여 卦를 主한다는 뜻을 表하기 爲한 用語이다.

妻, 婦, 妾, 女子

妻는 配偶의 뜻이니 夫와 對等한 象을 稱함이오 婦는 女의 嫁한 者를 稱함이니 夫婦라고 稱하는 때에만 妻의 뜻이 되는 것이오 妾은 아직 幼少하여 禮迎할 時期에 達치 못하는 女와 同接함을 稱함이오 女子는 未嫁한 成年女를 稱함이니 婦는 巽卦의 象이오 妾은 兌卦의 象이다.

夫

夫大人者 夫玄黃者의 夫이니 어느 事物을 特히 指稱하여 말하는 것이다. 夫大人者의 夫는 乾九五 小象의 大人造의 大人을 指稱함이오 夫玄黃者의 夫는 坤上六 爻辭의 玄黃을 指稱함이다.

王

一이 三을 貫하여 天地人 三才를 通한 象이니 物을 生生하는 象의 卦에 坤陰을 相交하는 乾陽을 象함이다.

大君

大와 君이 모두 乾象인데 大와 君에는 光明의 象이 있으니 乾陽이 坤陰을 交하는 때에는 그것을 王이라 하고 乾陽이 光明을 發하여 달의 光明을 生하는 때에는 그것을 大君이라 한다.

公

乾陽의 王에 對한 坤陰의 指稱이니 習坎의 王公設險의 例이다.

侯

乾을 繼承하는 長子 震을 象함이다.

帝

萬物은 모두 神의 創造한 것이오 神은 無形한 것인데 帝는 上에서 光明을 施한다는 뜻이오 光明은 無形하면서 有形한 것이므로 無形한 神을 有形化하여 名稱을 부치기를 帝라 한 것이며 그러므로 無形에서 有形한 物이 創造되는 것을 모두 帝의 作用이라 하여 帝出乎震이라 한 것이다. 上帝는 帝에 萬物의 祖上이라는 뜻을 表하기 爲하여 上字를 加한 것이다.

獲, 得

器用을 얻음을 得이라 하고 이미 得하고 또 그것을 用함을 獲이라 한다.

得志

氣의 相合이다.

利用

顯諸仁藏諸用하므로 利用은 神의 作用을 말함이다.

虞

虍와 吳로 되는데 虍는 虎이오 吳는 大聲이니 大聲의 虎가 곧 虞이며 震에

雷聲의 象과 虎號의 虎의 象이 있으므로 震子에 虞의 象을 取한 것이다. 繫辭에 「悔吝者憂虞之象也」라하여 悔에 虞를 말하고 또 「震無咎者存乎悔」라하여 震에 悔를 말하니 이는 虞가 곧 震의 象이라 함을 表한 것이다.

禽

鳥獸의 胎卵으로서 水中에서 生育하는 씨를 말함이니 이는 萬物의 씨는 모두 水中에서 生育되고 水液에 싸여 있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禽字는 모두 水卦에만 있고 恒卦九四의 禽도 初六의 浚 深의 水와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三

陰陽의 天奇地偶가 相交하여 物을 生하는 數이니 奇一偶二가 合 三이다. 物의 體는 水火로써 되고 水火의 數는 一水 二火가 合하여 三이 되므로 三은 物의 始形하는 數가되며 그러므로 水火가 物을 生하는 卦와 씨의 生하는 卦에 三의 象을 말한 것이다.

三日

三은 物의 始形하는 數이오 日은 太陽震子의 運行함이니 三日이라 함은 太陽에서 震子가 發施되어 달의 形의 生함을 象함이다.

三歲

三은 一水二火가 合하여 物을 生하는 數이오 歲는 寒暑가 相推하여 物을 成하는 時間이니 三歲라 함은 水火와 寒暑가 相推하여 物을 生成하는 期間을 象함이오 萬物이 三歲이면 모두 生하여 成하는 것이다. 易經에 三歲를 말한 것은 모두 水火卦에 光明이 陰에 掩蔽되어 物을 生成치 못하는 象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不興 不覿 不得 不孕의 象이 된 것이다.

三年

三은 物의 生하는 數이오 年은 禾穀의 여무는 時이니 三年이라 함은 物의 生하여 成하는 時를 말함이오 易經에 三年을 말한 것은 모두 水火卦에 光明이 發하여 物을 여물게 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十年

天地自然數는 十에서 終하고 十에서 다시 新生命을 生하는 것이므로 易經에는 坤母가 子를 生하는 象의 卦인 屯 復 頤 損 益에 모두 十數의 象이 있는 것이오 年은 禾穀의 여무는 時로서 物의 生成하는 時를 象한 것이니 十年이라 함은 坤母가 子를 胎育하여 出産하는 時間을 말한 것이다.

七日

月의 光明이니 七은 少陽數이다.

牛

后天時運의 象이다.

鳥

后天달의 象이다

六十四卦序圓圖
乾 坤 屯 蒙 需 訟 師 比 小畜 履 泰 否 同人 大有 謙 豫 隨 蠱 臨 觀 噬嗑 賁 剝 復 无妄 大畜 頤 大過 坎 離 咸 恒 遯 大壯 晉 明夷 家人 睽 蹇 解 損 益 夬 姤 萃 升 困 井 革 鼎 震 艮 漸 歸妹 豐 旅 巽 兌 渙 節 中孚 小過 旣濟 未濟
괘 = 夬　구 = 姤　이 = □　서합 = 噬嗑　규

序卦와 六十甲子

易經의 序卦에는 六十甲子의 年數配置의 理가 있으니 乾에서 甲子가 起하여 未濟에서 癸亥가 終하는 것은 (困井革鼎의 胎宮四卦는 不用)序卦의 體이오 蠱의 先甲后甲에서 甲子가 起하여 未濟에서 丙午가 終하는 것은 序卦의 用이다. 六十甲子는 年數의 標準이 되는데 甲子는 六十年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로되 어느 때던지 그 卦의 象이 그 六甲에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易學은 時運變化에 對備하는 글이므로 이 六十甲子는 오직 先天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時運中에만 適用되는 것이다. 또 世界數多한 나라에서 이 六十甲子에 當하는 卦의 象이 어느 나라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은 上帝가 地上에 坐定하실 때는 반드시 艮山의 위에 坐定하시는 것이므로 時運變化의 象은 먼저 艮山의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다. 艮山國의 日暮月明과 三八線 分斷의 象이 貴와 蹇의 乙酉에 나타나고 三八線戰爭의 象이 頤와 姤의 庚寅에 나타난 것이 그 一例이다. 庚寅年에는 頤가 體가되고 姤가 用이 되므로 頤는 陽의 生長이 極하여 陰中에 入하여 入胎되는 象이오 姤는 陰이 陽을 遇하여 女后가 用事하는 象이다.

姤萃升은 先天 地의 終하는 象이오 困井革鼎은 胎兒의 始하는 象이오 未濟에서 乾으로 넘어가는 것은 先天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象인데 夬姤萃升은 六甲의 體인 丙午 丁未 戊申 己酉이다. 六甲의 用은 序卦의 卦序로써 보면 未濟丙午 乾丁未 坤戊申이 되는 것이나 實은 그렇지 아니하여 未濟의 丙午에서 序卦가 終하고 終한 곳에서 始하려 하는 때는 終한 곳에서 다시 一步를 踏步하여 丙午와 丁未가 모두 未濟에 當하고 乾이 萃革의 戊申에 當하고 坤이 升鼎의 己酉에 當하는 것이니 이러한 然後에 胎兒의 象인 革鼎이 后天乾坤에 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甲의 相同한 卦에는 相同한 象이 있어 井에 汔至와 未繘井이 있고 未濟에 未濟와 汔濟가 있으며 革에 革象이 있고 乾에 乾道乃革이 있으

夬	姤	萃	升
䷪	䷫	䷬	䷭
丙午	丁未	戊申	己酉
䷮	䷿	䷯	䷱
困	井	革	鼎
䷮	䷿	䷯	䷱
未濟	未濟	乾	坤

며 鼎에 鼎象이 있고 坤에 鼎의 一類인 釜의 象이 있는 것이며 또 正易의 戊申에 月復이 있고 乾戊申에 달의 反復道가 있는 것이다.

終

易 經 原 文

乾　乾下 乾上

乾 元亨利貞

初九 潛龍勿用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 終日乾乾 夕惕若厲无咎

九四 或躍在淵 无咎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龍有悔

用九 見羣龍 无首吉

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乃統天 雲行雨施 品物流形 大明終始 六位時成 時乘六龍 以御天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乃利貞 首出庶物 萬國咸寧

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 潛龍勿用 陽在下也 見龍在田 德施普也 終日乾乾 反復道也 或躍在淵 進无咎也 飛龍在天 大人造也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用九 天德不可爲首也

文言曰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君子 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乾元亨利貞

初九曰 潛龍勿用 何謂也 子曰 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无悶 不見是而无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

九二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

九三曰 君子 終日乾乾 夕惕若厲无咎 何謂也 子曰 君子 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 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 乾乾 因其時而惕 雖危 无咎矣

九四曰 或躍在淵无咎 何謂也 子曰 上下无常 非爲邪也 進退无恒 非離群也 君子 進德修業 欲及時也 故无咎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上九曰 亢龍有悔 何謂也 子曰 貴而无位 高而无民 賢人 在下位而无輔 是以動而有悔也 潛龍勿用下也 見龍在田時舍也 終日乾乾行事也 或躍在淵自試也 飛龍在天上治也 亢龍有悔窮之災也 乾元用九天下治也 潛龍勿用陽氣潛藏 見龍在田天下文明 終日乾乾與時偕行 或躍在淵乾道乃革 飛龍在天乃位乎天德 亢龍有悔與時偕極 乾元用九乃見天則 乾元者始而亨者也 利貞者性情也 乾始能以美利利天下 不言所利大矣哉 大哉乾乎 剛健中正純粹精也 六爻發揮 旁通情也 時乘六龍以御天也 雲行雨施天下平也 君子以成德爲行 日可見之行也 潛之爲言也 隱而未見 行而未成 是以君子弗用也 君子 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

九三 重剛而不中 上不在天 下不在田 故 乾乾 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

九四 重剛而不中 上不在天 下不在田 中不在人 故或之 或之者疑之也 故无咎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 其唯聖人乎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坤　重地坤

坤 元亨利 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後得主利 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彖曰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无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牝馬地類 行地无疆 柔順利貞 君子攸行 先迷失道 後順得常 西南得朋 乃與類行 東北喪朋 乃終有慶 安貞之吉 應地无疆

象曰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初六 履霜堅冰至

象曰 履霜堅冰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冰也

六二 直方大 不習无不利

象曰 六二之動 直以方也 不習无不利 地道光也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象曰 含章可貞 以時發也 或從王事 知光大也

六四 括囊 无咎无譽

象曰 括囊无咎 愼不害也

六五 黃裳元吉

象曰 黃裳元吉 文在中也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象曰 龍戰于野 其道窮也

用六 利永貞

象曰 用六永貞 以大終也

文言曰 坤至柔而動也 剛至靜而德方 後得主而有常 含萬物而化光 坤道其順乎承天而時行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 由辨之不早辨也 易曰 履霜堅冰至 蓋言順也 直其正也 方其義也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不習无不利 則不疑其所行也 陰雖有美 含之 以從王事 弗敢成也 地道也 妻道也 臣道也 地道 无成而代有終也 天地變化 草木蕃 天地閉 賢人隱 易曰 括囊无咎无譽 蓋言謹也 君子 黃中通理 正位居體 美在其中而暢於四支 發於事業 美之至也 陰疑於陽 必戰 爲其嫌於无陽也 故稱龍焉 猶未離其類也 故稱血焉 夫玄黃者 天地之雜也 天玄而地黃

屯　水雷屯

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彖曰 屯剛柔始交而難生 動乎險中 大亨貞 雷雨之動滿盈 天造草昧 宜建侯而

不寧

象曰 雲雷屯 君子以經綸

初九 盤桓利居貞 利建侯

象曰 雖盤桓志行正也 以貴下賤 大得民也

六二 屯如邅如 乘馬班如 匪寇婚媾 女子貞不字 十年乃字

象曰 六二之難乘剛也 十年乃字 反常也

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 幾不如舍往吝

象曰 卽鹿无虞 以從禽也 君子舍之往吝窮也

六四 乘馬班如 求婚媾往吉无不利

象曰 求而往明也

九五 屯其膏 小貞吉大貞凶

象曰 屯其膏 施未光也

上六 乘馬班如 泣血漣如

象曰 泣血漣如 何可長也

蒙　山水蒙

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再三瀆 瀆則不告利貞

彖曰 蒙山下有險 險而止蒙 蒙亨以亨行時中也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志應也 初筮告以剛中也 再三瀆 瀆則不告 瀆蒙也 蒙以養正 聖功也

象曰 山下出泉蒙 君子以果行育德

初六 發蒙利用刑人 用說桎梏以往吝

象曰 利用刑人 以正法也

九二 包蒙吉 納婦吉 子克家

象曰 子克家剛柔接也

六三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

象曰 勿用取女 行不順也

六四 困蒙吝

象曰 困蒙之吝 獨遠實也

六五 童蒙吉

象曰 童蒙之吉 順以巽也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象曰 利用禦寇 上下順也

需　水天需

需 有孚光亨貞吉 利涉大川

彖曰 需須也 險在前也 剛健而不陷 其義不困窮矣 需有孚光亨貞吉 位乎天位以正中也 利涉大川 往有功也

象曰 雲上於天需 君子以飲食宴樂

初九 需于郊 利用恒无咎

象曰 需于郊 不犯難行也 利用恒无咎 未失常也

九二 需于沙 小有言終吉

象曰 需于沙 衍在中也 雖小有言以吉終也

九三 需于泥 致寇至

象曰 需于泥 災在外也 自我致寇敬慎不敗也

六四 需于血 出自穴

象曰 需于血 順以聽也

九五 需于酒食貞吉

象曰 酒食貞吉 以中正也

上六 入于穴 有不速之客 三人來 敬之終吉

象曰 不速之客來 敬之終吉 雖不當位 未大失也

訟　天水訟

訟有孚窒惕中吉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彖曰 訟上剛下險 險而健訟 訟有孚窒惕中吉 剛來而得中也 終凶 訟不可成也 利見大人 尚中正也 不利涉大川 入于淵也

象曰 天與水違行訟 君子以作事謀始

初六 不永所事 小有言終吉

象曰 不永所事 訟不可長也 雖小有言 其辯明也

九二 不克訟 歸而逋 其邑人三百戶 无眚

象曰 不克訟 歸逋竄也 自下訟上患至掇也

六三 食舊德 貞厲終吉 或從王事 无成

象曰 食舊德 從上吉也

九四 不克訟 復卽命渝安貞 吉

象曰 復卽命渝安貞 不失也

九五 訟元吉

象曰 訟元吉 以中正也

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象曰 以訟受服 亦不足敬也

師 地水師

師貞 丈人吉 无咎

彖曰 師衆也 貞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剛中而應 行險而順 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 又何咎矣

象曰 地中有水 師 君子以容民畜衆

初六 師出以律 否臧凶

象曰 師出以律 失律凶也

九二 在師中吉 无咎 王三錫命

象曰 在師中吉 承天寵也 王三錫命 懷萬邦也

六三 師或輿尸凶

象曰 師或輿尸 大无功也

六四 師 左次无咎

象曰 左次无咎 未失常也

六五 田有禽 利執言 无咎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象曰 長子帥師 以中行也 弟子輿尸 使不當也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象曰 大君有命 以正功也 小人勿用 必亂邦也

比　水地比

比吉 原筮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彖曰 比吉也 比輔也 下順從也 原筮元永貞 无咎 以剛中也 不寧方來 上下應也 後夫凶 其道窮也

象曰 地上有水比 先王以建萬國 親諸侯

初六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終 來有他吉

象曰 比之初六 有他吉也

六二 比之自內 貞吉

象曰 比之自內 不自失也

六三 比之匪人

象曰 比之匪人 不亦傷乎

六四 外比之貞吉

象曰 外比於賢 以從上也

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吉

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舍逆取順 失前禽也 邑人不誡 上使中也

上六 比之无首 凶

象曰 比之无首 无所終也

小畜　風天小畜

小畜亨 密雲不雨 自我西郊

彖曰 小畜 柔得位而上下應之 曰小畜 健而巽 剛中而志行 乃亨 密雲不雨 尚往也 自我西郊 施未行也

象曰 風行天上小畜 君子以懿文德

初九 復自道 何其咎吉

象曰 復自道 其義吉也

九二 牽復吉

象曰 牽復在中 亦不自失也

九三 輿說輻 夫妻反目

象曰 夫妻反目 不能正室也

六四 有孚血去 惕出无咎

象曰 有孚惕出 上合志也

九五 有孚攣如 富以其鄰

象曰 有孚攣如 不獨富也

上九 既雨既處 尚德載婦貞厲 月幾望 君子征凶

象曰 既雨既處 德積載也 君子征凶 有所疑也

履 天澤履

履虎尾 不咥人 亨

彖曰 履柔履剛也 說而應乎乾 是以履虎尾 不咥人 亨 剛中正履 帝位而不疚光明也

象曰 上天下澤履 君子以辨上下 定民志

初九 素履往 无咎

象曰 素履之往 獨行願也

九二 履道坦坦 幽人貞吉

象曰 幽人貞吉 中不自亂也

六三 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凶 武人爲于大君

象曰 眇能視 不足以有明也 跛能履 不足以與行也 咥人之凶 位不當也 武人爲于大君 志剛也

九四 履虎尾 愬愬終吉

象曰 愬愬終吉 志行也

九五 夬履貞厲

象曰 夬履貞厲 位正當也

上九 視履考祥 其旋元吉

象曰 元吉在上 大有慶也

泰　地天泰

泰 小往大來 吉亨

彖曰 泰 小往大來吉亨 則是天地交而萬物通也 上下交而其志同也 內陽而外陰 內健而外順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也

象曰 天地交泰 后以財成 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初九 拔茅以其彙 征吉

象曰 拔茅茹征吉 志在外也

九二 包荒用馮河不遐遺 朋亡得尚于中行

象曰 包荒得尚于中行 以光大也

九三 无平不陂 无往不復 艱貞无咎 勿恤其孚于食有福

象曰 无往不復 天地際也

六四 翩翩不富以其鄰 不戒以孚

象曰 翩翩不富 皆失實也 不戒以孚 中心願也

六五 帝乙歸妹 以祉元吉

象曰 以祉元吉 中以行願也

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自邑告命貞吝

象曰 城復于隍 其命亂也

否　天地否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彖曰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則是天地不交 而萬物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无邦也 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象曰 天地不交否 君子以儉德辟難 不可榮以祿

初六 拔茅茹以其彙 貞吉亨

象曰 拔茅貞吉 志在君也

六二 包承 小人吉 大人否亨

象曰 大人否亨 不亂羣也

六三 包羞

象曰 包羞 位不當也

九四 有命无咎 疇離祉

象曰 有命无咎 志行也

九五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

象曰 大人之吉 位正當也

上九 傾否 先否後喜

象曰 否終則傾 何可長也

同人　天火同人

同人于野亨 利涉大川 利君子貞

彖曰 同人柔得位 得中而應乎乾 曰同人 同人曰 同人于野亨 利涉大川乾行也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爲能通天下之志

象曰 天與火同人 君子以類族辨物

初九 同人于門 无咎

象曰 出門同人 又誰咎也

六二 同人于宗 吝

象曰 同人于宗 吝道也

九三 伏戎于莽 升其高陵 三歲不興

象曰 伏戎于莽 敵剛也 三歲不興 安行也

九四 乘其墉 弗克攻吉

象曰 乘其墉 義弗克也 其吉則困而反則也

九五 同人 先號咷而後笑 大師克相遇

象曰 同人之先 以中直也 大師相遇 言相克也

上九 同人于郊 无悔

象曰 同人于郊 志未得也

大有　　火天大有

大有元亨

彖曰 大有柔得尊位 大中而上下應之曰大有 其德剛健而文明 應乎天而時行 是以元亨

象曰 火在天上大有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初九 无交害 匪咎 艱則无咎

象曰 大有初九 无交害也

九二 大車以載 有攸往 无咎

象曰 大車以載 積中不敗也

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象曰 公用亨于天子 小人害也

九四 匪其彭 无咎

象曰 匪其彭 无咎 明辨晢也

六五 厥孚交如 威如吉

象曰 厥孚交如 信以發志也 威如之吉 易而无備也

上九 自天祐之吉 无不利

象曰 大有上吉 自天祐也

謙 地山謙

謙亨 君子有終

彖曰 謙亨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鬼神害盈而福謙 人道惡盈而好謙 謙尊而光 卑而不可踰 君子之終也

象曰 地中有山謙 君子以裒多益寡 稱物平施

初六 謙謙君子 用涉大川吉

象曰 謙謙君子 卑以自牧也

六二 鳴謙貞吉

象曰 鳴謙貞吉 中心得也

九三 勞謙君子 有終吉

象曰 勞謙君子 萬民服也

六四 无不利撝謙

象曰 无不利撝謙 不違則也

六五 不富以其鄰 利用侵伐 无不利

象曰 利用侵伐 征不服也

上六 鳴謙 利用行師 征邑國

象曰 鳴謙 志未得也 可用行師 征邑國也

豫　雷地豫

豫 利建侯行師

彖曰 豫 剛應而志行 順以動豫 豫順以動 故天地如之 而況建侯行師乎 天地以順動 故日月不過 而四時不忒 聖人以順動 則刑罰清而民服 豫之時義 大矣哉

象曰 雷出地奮豫 先王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初六 鳴豫 凶

象曰 初六鳴豫 志窮凶也

六二 介于石 不終日貞吉

象曰 不終日貞吉 以中正也

六三 盱豫悔遲有悔

象曰 盱豫有悔 位不當也

九四 由豫大有得 勿疑朋盍簪

象曰 由豫大有得 志大行也

六五 貞疾 恒不死

象曰 六五貞疾 乘剛也 恒不死 中未亡也

上六 冥豫 成有渝 无咎

象曰 冥豫在上 何可長也

隨 澤雷隨

隨 元亨利貞 无咎

彖曰 隨剛來而下柔 動而說隨 大亨貞无咎 而天下隨時 隨時之義 大矣哉

象曰 澤中有雷隨 君子以嚮晦入宴息

初九 官有渝 貞吉 出門交有功

象曰 官有渝 從正吉也 出門交有功 不失也

六二 係小子 失丈夫

象曰 係小子 弗兼與也

六三 係丈夫 失小子 隨有求得 利居貞

象曰 係丈夫 志舍下也

九四 隨有獲 貞凶 有孚在道 以明何咎

象曰 隨有獲 其義凶也 有孚在道 明功也

九五 孚于嘉吉

象曰 孚于嘉吉 位正中也

上六 拘係之 乃從維之 王用亨于西山

象曰 拘係之 上窮也

蠱　山風蠱

蠱元亨 利涉大川 先甲三日 後甲三日

彖曰 蠱剛上而柔下 巽而止蠱 蠱元亨而天下治也 利涉大川 往有事也 先甲三

日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也

象曰 山下有風蠱 君子以振民育德

初六 幹父之蠱 有子考无咎 厲終吉

象曰 幹父之蠱 意承考也

九二 幹母之蠱 不可貞

象曰 幹母之蠱 得中道也

九三 幹父之蠱 小有悔无大咎

象曰 幹父之蠱 終无咎也

六四 裕父之蠱 往見吝

象曰 裕父之蠱 往未得也

六五 幹父之蠱 用譽

象曰 幹父用譽 承以德也

上九 不事王侯 高尚其事

象曰 不事王侯 志可則也

臨　地澤臨

臨元亨利貞 至于八月 有凶

彖曰 臨剛浸而長 說而順 剛中而應 大亨以正 天之道也 至于八月有凶 消不久也

象曰 澤上有地臨 君子以教思无窮 容保民无疆

初九 咸臨貞吉

象曰 咸臨貞吉 志行正也

九二 咸臨吉无不利

象曰 咸臨吉无不利 未順命也

六三 甘臨 无攸利 既憂之 无咎

象曰 甘臨 位不當也 既憂之 咎不長也

六四 至臨无咎

象曰 至臨无咎 位當也

六五 知臨 大君之宜 吉

象曰 大君之宜 行中之謂也

上六 敦臨 吉无咎

象曰 敦臨之吉 志在內也

觀　風地觀

觀盥而不薦 有孚顒若

象曰 大觀在上 順以巽 中正以觀天下 觀盥而不薦 有孚顒若 下觀而化也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象曰 風行地上觀 先王以省方 觀民設教

初六 童觀 小人无咎 君子吝

象曰 初六童觀 小人道也

六二 闚觀利女貞

象曰 闚觀女貞 亦可醜也

六三 觀我生進退

象曰 觀我生進退 未失道也

六四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象曰 觀國之光 尚賓也

九五 觀我生 君子无咎

象曰 觀我生 觀民也

上九 觀其生 君子无咎

象曰 觀其生 志未平也

噬嗑　火雷噬嗑

噬嗑亨 利用獄

彖曰 頤中有物曰噬嗑 噬嗑而亨 剛柔分 動而明 雷電合而章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也

象曰 雷電噬嗑 先王以明罰敕法

初九 屨校滅趾 无咎

象曰 屨校滅趾 不行也

六二 噬膚滅鼻 无咎

象曰 噬膚滅鼻 乘剛也

六三 噬腊肉遇毒 小吝无咎

象曰 遇毒 位不當也

九四 噬乾胏得金矢 利艱貞吉

象曰 利艱貞吉 未光也

六五 噬乾肉得黃金 貞厲无咎

象曰 貞厲无咎 得當也

上九 何校滅耳 凶

象曰 何校滅耳 聰不明也

賁 山火賁

賁亨 小利有攸往

彖曰 賁亨柔來而文剛 故亨分剛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天文也 文明以止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象曰 山下有火賁 君子以明庶政 无敢折獄

初九 賁其趾 舍車而徒

象曰 舍車而徒 義弗乘也

六二 賁其須

象曰 賁其須 與上興也

九三 賁如濡如 永貞吉

象曰 永貞之吉 終莫之陵也

六四 賁如皤如 白馬翰如 匪寇婚媾

象曰 六四當位疑也 匪寇婚媾 終无尤也

六五 賁于丘園 束帛戔戔 吝終吉

象曰 六五之吉 有喜也

上九 白賁无咎

象曰 白賁无咎 上得志也

剝　山地剝

剝 不利有攸往

彖曰 剝剝也 柔變剛也 不利有攸往 小人長也 順而止之 觀象也 君子 尚消息盈虛 天行也

象曰 山附於地剝 上以厚下安宅

初六 剝牀以足 蔑貞凶

象曰 剝牀以足 以滅下也

六二 剝牀以辨 蔑貞凶

象曰 剝牀以辨 未有與也

六三 剝之无咎

象曰 剝之无咎 失上下也

六四 剝牀以膚 凶

象曰 剝牀以膚 切近災也

六五 貫魚 以宮人寵 无不利

象曰 以宮人寵 終无尤也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象曰 君子得輿 民所載也 小人剝廬 終不可用也

復 地雷復

復亨 出入无疾 朋來无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

彖曰 復亨剛反 動而以順行 是以出入无疾 朋來无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 利有攸往 剛長也 復其見 天地之心乎

象曰 雷在地中復 先王以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

初九 不遠復 无祗悔 元吉

象曰 不遠之復 以脩身也

六二 休復吉

象曰 休復之吉 以下仁也

六三 頻復厲 无咎

象曰 頻復之厲 義无咎也

六四 中行獨復

象曰 中行獨復 以從道也

六五 敦復无悔

象曰 敦復无悔 中以自考也

上六 迷復凶 有災眚 用行師 終有大敗 以其國君凶 至于十年 不克征

象曰 迷復之凶 反君道也

无妄　天雷无妄

无妄 元亨利貞 其匪正有眚 不利有攸往

彖曰 无妄剛 自外來而爲主於內 動而健 剛中而應 大亨以正 天之命也 其匪正有眚 不利有攸往 无妄之往 何之矣 天命不祐 行矣哉

象曰 天下雷行 物與无妄 先王以茂對時 育萬物

初九 无妄往吉

象曰 无妄之往 得志也

六二 不耕穫 不菑畬則利有攸往

象曰 不耕穫 未富也

六三 无妄之災 或繫之牛 行人之得 邑人之災

象曰 行人得牛 邑人災也

九四 可貞无咎

象曰 可貞无咎 固有之也

九五 无妄之疾 勿藥有喜

象曰 无妄之藥 不可試也

上九 无妄行 有眚 无攸利

象曰 无妄之行 窮之災也

大畜　山天大畜

大畜利貞 不家食吉 利涉大川

彖曰 大畜剛健 篤實輝光 日新其德 剛上而尚賢 能止健大正也 不家食吉養賢也 利涉大川 應乎天也

象曰 天在山中大畜 君子以多識 前言往行 以畜其德

初九 有厲利已

象曰 有厲利已 不犯災也

九二 輿說輹

象曰 輿說輹 中无尤也

九三 良馬逐利艱貞 日閑輿衛 利有攸往

象曰 利有攸往 上合志也

六四 童牛之牿 元吉

象曰 六四元吉 有喜也

六五 豶豕之牙 吉

象曰 六五之吉 有慶也

上九 何天之衢 亨

象曰 何天之衢 道大行也

頤　山雷頤

頤貞吉 觀頤 自求口實

彖曰 頤貞吉 養正則吉也 觀頤 觀其所養也 自求口實 觀其自養也 天地養萬物 聖人養賢 以及萬民 頤之時 大矣哉

象曰 山下有雷頤 君子以愼言語 節飲食

初九 舍爾靈龜 觀我朶頤 凶

象曰 觀我朶頤 亦不足貴也

六二 顚頤 拂經于丘頤 征凶

象曰 六二征凶 行失類也

六三 拂頤貞凶 十年勿用 无攸利

象曰 十年勿用 道大悖也

六四 顚頤吉 虎視眈眈 其欲逐逐 无咎

象曰 顚頤之吉 上施光也

六五 拂經 居貞吉 不可涉大川

象曰 居貞之吉 順以從上也

上九 由頤厲吉 利涉大川

象曰 由頤厲吉 大有慶也

大過　澤風大過

大過棟橈 利有攸往亨

彖曰 大過大者過也 棟橈本末弱也 剛過而中 巽而說行 利有攸往乃亨 大過之時 大矣哉

象曰 澤滅木大過 君子以獨立不懼 遯世无悶

初六 藉用白茅 无咎

象曰 藉用白茅 柔在下也

九二 枯楊生稊 老夫得其女妻 无不利

象曰 老夫女妻 過以相與也

九三 棟橈凶

象曰 棟橈之凶 不可以有輔也

九四 棟隆吉 有它吝

象曰 棟隆之吉 不橈乎下也

九五 枯楊生華 老婦得其士夫 无咎无譽

象曰 枯楊生華 何可久也 老婦士夫 亦可醜也

上六 過涉滅頂凶 无咎

象曰 過涉之凶 不可咎也

坎 重水坎

習坎有孚 維心亨 行有尚

彖曰 習坎重險也 水流而不盈 行險而不失其信 維心亨 乃以剛中也 行有尚 往有功也 天險不可升也 地險 山川丘陵也 王公設險 以守其國 險之時用 大矣哉

象曰 水洊至習坎 君子以常德行 習教事

初六 習坎 入于坎窞 凶

象曰 習坎入坎 失道凶也

九二 坎有險 求小得

象曰 求小得 未出中也

六三 來之坎坎 險且枕 入于坎窞勿用

象曰 來之坎坎 終无功也

六四 樽酒簋貳 用缶納約自牖 終无咎

象曰 樽酒簋貳 剛柔際也

九五 坎不盈 祗既平 无咎

象曰 坎不盈 中未大也

上六 係用徽纆 寘于叢棘 三歲不得凶

象曰 上六失道 凶三歲也

離 重火離

離利貞亨 畜牝牛吉

彖曰 離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 重明以麗乎正 乃化成天下 柔麗乎中正 故亨是以畜牝牛吉

象曰 明兩作離 大人以繼明 照于四方

初九 履錯然敬之 无咎

象曰 履錯之敬 以辟咎也

六二 黃離元吉

象曰 黃離元吉 得中道也

九三 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

象曰 日昃之離 何可久也

九四 突如其來如 焚如死如棄如

象曰 突如其來如 无所容也

六五 出涕沱若 戚嗟若吉

象曰 六五之吉 離王公也

上九 王用出征 有嘉折首 獲匪其醜 无咎

象曰 王用出征 以正邦也

咸 澤山咸

咸亨利貞 取女吉

彖曰 咸感也 柔上而剛下 二氣感應以相與 止而說 男下女 是以亨利貞 取女吉也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 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象曰 山上有澤咸 君子以虛受人

初六 咸其拇

象曰 咸其拇 志在外也

六二 咸其腓 凶居吉

象曰 雖凶居吉 順不害也

九三 咸其股 執其隨往吝

象曰 咸其股 亦不處也 志在隨人 所執下也

九四 貞吉悔亡 憧憧往來 朋從爾思

象曰 貞吉悔亡 未感害也 憧憧往來 未光大也

九五 咸其脢 无悔

象曰 咸其脢 志末也

上六 咸其輔頰舌

象曰 咸其輔頰舌 滕口說也

恒　雷風恒

恒亨 无咎利貞 利有攸往

彖曰 恒久也 剛上而柔下 雷風相與 巽而動 剛柔皆應恒 恒亨无咎利貞 久於其道也 天地之道 恒久而不已也 利有攸往 終則有始也 日月得天而能久照 四時變化而能久成 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 觀其所恒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象曰 雷風恒 君子以立不易方

初六 浚恒貞凶 无攸利

象曰 浚恒之凶 始求深也

九二 悔亡

象曰 九二悔亡 能久中也

九三 不恒其德 或承之羞貞吝

象曰 不恒其德 无所容也

九四 田无禽

象曰 久非其位 安得禽也

六五 恒其德貞婦人吉 夫子凶

象曰 婦人貞吉 從一而終也 夫子制義從婦 凶也

上六 振恒凶

象曰 振恒在上 大无功也

遯 天山遯

遯亨 小利貞

彖曰 遯亨 遯而亨也 剛當位而應 與時行也 小利貞 浸而長也 遯之時義大矣哉

象曰 天下有山遯 君子以遠小人 不惡而嚴

初六 遯尾厲 勿用有攸往

象曰 遯尾之厲 不往何災也

六二 執之用黃牛之革 莫之勝說

象曰 執用黃牛 固志也

九三 係遯有疾厲 畜臣妾吉

象曰 係遯之厲 有疾憊也 畜臣妾吉 不可大事也

九四 好遯君子吉 小人否

象曰 君子好遯 小人否也

九五 嘉遯貞吉

象曰 嘉遯貞吉 以正志也

上九 肥遯无不利

象曰 肥遯无不利 无所疑也

大壯 雷天大壯

大壯利貞

彖曰 大壯大者壯也 剛以動故壯 大壯利貞 大者正也 正大而天地之情 可見矣

象曰 雷在天上大壯 君子以非禮弗履

初九 壯于趾 征凶有孚

象曰 壯于趾 其孚窮也

九二 貞吉

象曰 九二貞吉 以中也

九三 小人用壯 君子用罔 貞厲 羝羊觸藩 羸其角

象曰 小人用壯 君子罔也

九四 貞吉悔亡 藩決不羸 壯于大輿之輹

象曰 藩決不羸 尚往也

六五 喪羊于易 无悔

象曰 喪羊于易 位不當也

上六 羝羊觸藩 不能退 不能遂 无攸利 艱則吉

象曰 不能退不能遂不詳也 艱則吉 咎不長也

晉 火地晉

晉 康侯 用錫馬蕃庶 晝日三接

彖曰 晉進也 明出地上 順而麗乎大明 柔進而上行 是以康侯用錫馬蕃庶 晝日三接也

象曰 明出地上晉 君子以自昭明德

初六 晉如摧如 貞吉 罔孚裕无咎

象曰 晉如摧如 獨行正也 裕无咎 未受命也

六二 晉如愁如 貞吉 受茲介福于其王母

象曰 受茲介福 以中正也

六三 衆允悔亡

象曰 衆允之志 上行也

九四 晉如 鼫鼠貞厲

象曰 鼫鼠貞厲 位不當也

六五 悔亡 失得勿恤 往吉 无不利

象曰 失得勿恤 往有慶也

上九 晉其角 維用伐邑 厲吉 无咎貞吝

象曰 維用伐邑 道未光也

明夷　地火明夷

明夷 利艱貞

彖曰 明入地中明夷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 利艱貞 晦其明也 內難而能正其志 箕子以之

象曰 明入地中明夷 君子以莅衆 用晦而明

初九 明夷于飛 垂其翼 君子于行 三日不食 有攸往 主人有言

象曰 君子于行 義不食也

六二 明夷夷于左股 用拯馬壯 吉

象曰 六二之吉 順以則也

九三 明夷于南狩 得其大首 不可疾貞

象曰 南狩之志 乃大得也

六四 入于左腹 獲明夷之心 于出門庭

象曰 入于左腹 獲心意也

六五 箕子之明夷 利貞

象曰 箕子之貞 明不可息也

上六 不明晦 初登于天 後入于地

象曰 初登于天 照四國也 後入于地 失則也

家人　風火家人

家人利女貞

彖曰 家人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家人 有嚴君焉 父母之謂也 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象曰 風自火出家人 君子以言有物而行有恒

初九 閑有家 悔亡

象曰 閑有家 志未變也

六二 无有遂在中饋 貞吉

象曰 六二之吉 順以巽也

九三 家人嗃嗃 悔厲吉 婦子嘻嘻 終吝

象曰 家人嗃嗃 未失也 婦子嘻嘻 失家節也

六四 富家大吉

象曰 富家大吉 順在位也

九五 王假有家 勿恤吉

象曰 王假有家 交相愛也

上九 有孚威如 終吉

象曰 威如之吉 反身之謂也

睽　火澤睽

睽 小事吉

彖曰 睽火動而上 澤動而下 二女同居 其志不同行 說而麗乎明 柔進而上行 得中而應乎剛 是以小事吉 天地睽而其事同也 男女睽而其志通也 萬物睽而其事類也 睽之時用 大矣哉

象曰 上火下澤睽 君子以同而異

初九 悔亡 喪馬勿逐自復 見惡人 无咎

象曰 見惡人 以辟咎也

九二 遇主于巷 无咎

象曰 遇主于巷 未失道也

六三 見輿曳 其牛掣 其人天且劓 无初有終

象曰 見輿曳 位不當也 无初有終 遇剛也

九四 睽孤遇元夫 交孚厲无咎

象曰 交孚无咎 志行也

六五 悔亡 厥宗噬膚 往何咎

象曰 厥宗噬膚 往有慶也

上九 睽孤 見豕負塗 載鬼一車 先張之弧 後說之弧 匪寇婚媾 往遇雨則吉

象曰 遇雨之吉 群疑亡也

蹇 水山蹇

蹇 利西南 不利東北 利見大人 貞吉

彖曰 蹇難也 險在前也 見險而能止 知矣哉 蹇利西南 往得中也 不利東北 其道窮也 利見大人 往有功也 當位貞吉 以正邦也 蹇之時用 大矣哉

象曰 山上有水蹇 君子以反身脩德

初六 往蹇來譽

象曰 往蹇來譽 宜待也

六二 王臣蹇蹇 匪躬之故

象曰 王臣蹇蹇 終无尤也

九三 往蹇來反

象曰 往蹇來反 內喜之也

六四 往蹇來連

象曰 往蹇來連 當位實也

九五 大蹇朋來

象曰 大蹇朋來 以中節也

上六 往蹇來碩 吉 利見大人

象曰 往蹇來碩 志在內也 利見大人 以從貴也

解 雷水解

解 利西南 无所往 其來復 吉 有攸往夙吉

彖曰 解險以動 動而免乎險解 解利西南往得衆也 其來復吉 乃得中也 有攸往夙吉 往有功也 天地解而雷雨作 雷雨作而百果草木 皆甲坼 解之時大矣哉

象曰 雷雨作解 君子以赦過宥罪

初六 无咎

象曰 剛柔之際 義无咎也

九二 田獲三狐 得黃矢 貞吉

象曰 九二貞吉 得中道也

六三 負且乘 致寇至 貞吝

象曰 負且乘 亦可醜也 自我致戎 又誰咎也

九四 解而拇 朋至斯孚

象曰 解而拇 未當位也

六五 君子維有解 吉 有孚于小人

象曰 君子有解 小人退也

上六 公用射隼 于高墉之上 獲之 无不利

象曰 公用射隼 以解悖也

損　山澤損

損 有孚 元吉无咎可貞 利有攸往 曷之用二簋可用享

彖曰 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損而有孚 元吉无咎可貞 利有攸往 曷之用二簋可用享 二簋應有時 損剛益柔有時 損益盈虛 與時偕行

象曰 山下有澤損 君子以懲忿窒欲

初九 已事遄往 无咎 酌損之

象曰 已事遄往 尚合志也

九二 利貞征凶 弗損益之

象曰 九二利貞 中以爲志也

六三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象曰 一人行三則疑也

六四 損其疾 使遄有喜 无咎

象曰 損其疾 亦可喜也

六五 或益之 十朋之 龜弗克違 元吉

象曰 六五元吉 自上祐也

上九 弗損益之 无咎 貞吉 利有攸往 得臣无家

象曰 弗損益之 大得志也

益 風雷益

益利有攸往 利涉大川

彖曰 益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利有攸往 中正有慶 利涉大川 木道乃行 益 動而巽 日進无疆 天施地生 其益无方 凡益之道 與時偕行

象曰 風雷益 君子以見善則遷 有過則改

初九 利用爲大作 元吉无咎

象曰 元吉无咎 下不厚事也

六二 或益之 十朋之 龜弗克違 永貞吉 王用享于帝吉

象曰 或益之 自外來也

六三 益之用凶事 无咎 有孚中行 告公用圭

象曰 益用凶事 固有之也

六四 中行 告公從 利用爲依遷國

象曰 告公從 以益志也

九五 有孚惠心 勿問 元吉 有孚 惠我德

象曰 有孚惠心 勿問之矣 惠我德 大得志也

上九 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 凶

象曰 莫益之 偏辭也 或擊之 自外來也

夬 澤天夬

夬 揚于王庭 孚號有厲 告自邑 不利卽戎 利有攸往

彖曰 夬決也 剛決柔也 健而說 決而和 揚于王庭 柔乘五剛也 孚號有厲 其危乃光也 告自邑不利卽戎 所尙乃窮也 利有攸往 剛長乃終也

象曰 澤上於天夬 君子以施祿及下 居德則忌

初九 壯于前趾 往不勝爲咎

象曰 不勝而往咎也

九二 惕號莫夜 有戎勿恤

象曰 有戎勿恤 得中道也

九三 壯于頄有凶 君子夬夬 獨行遇雨 若濡有慍 无咎

象曰 君子夬夬 終无咎也

九四 臀无膚 其行次且 牽羊悔亡 聞言不信

象曰 其行次且 位不當也 聞言不信 聰不明也

九五 莧陸夬夬 中行无咎

象曰 中行无咎 中未光也

上六 无號終有凶

象曰 无號之凶 終不可長也

姤　天風姤

姤女壯 勿用取女

彖曰 姤遇也 柔遇剛也 勿用取女 不可與長也 天地相遇 品物咸章也 剛遇中正 天下大行也 姤之時義 大矣哉

象曰 天下有風姤 后以施命 誥四方

初六 繫于金柅 貞吉 有攸往見凶 羸豕孚蹢躅

象曰 繫于金柅 柔道牽也

九二 包有魚 无咎 不利賓

象曰 包有魚 義不及賓也

九三 臀无膚 其行次且 厲无大咎

象曰 其行次且 行未牽也

九四 包无魚起 凶

象曰 无魚之凶 遠民也

九五 以杞包瓜含章 有隕自天

象曰 九五含章 中正也 有隕自天 志不舍命也

上九 姤其角 吝无咎

象曰 姤其角 上窮吝也

萃　澤地萃

萃亨 王假有廟 利見大人 亨利貞 用大牲吉 利有攸往

象曰 萃聚也 順以說 剛中而應 故聚也 王假有廟 致孝享也 利見大人亨 聚以正也 用大牲吉利有攸往 順天命也 觀其所聚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象曰 澤上於地萃 君子以除戎器 戒不虞

初六 有孚不終 乃亂乃萃 若號一握爲笑 勿恤往无咎

象曰 乃亂乃萃 其志亂也

六二 引吉无咎 孚乃利用禴

象曰 引吉无咎 中未變也

六三 萃如嗟如 无攸利 往无咎 小吝

象曰 往无咎 上巽也

九四 大吉无咎

象曰 大吉无咎 位不當也

九五 萃有位 无咎 匪孚元永貞 悔亡

象曰 萃有位 志未光也

上六 齎咨涕洟 无咎

象曰 齎咨涕洟 未安上也

升　地風升

升元亨 用見大人勿恤 南征吉

彖曰 柔以時升 巽而順 剛中而應 是以大亨 用見大人勿恤 有慶也 南征吉 志行也

象曰 地中生木升 君子以順德 積小以高大

初六 允升大吉

象曰 允升大吉 上合志也

九二 孚乃利用禴 无咎

象曰 九二之孚 有喜也

九三 升虛邑

象曰 升虛邑 无所疑也

六四 王用亨于岐山 吉无咎

象曰 王用亨于岐山 順事也

六五 貞吉升階

象曰 貞吉升階 大得志也

上六 冥升 利于不息之貞

象曰 冥升在上 消不富也

困 澤水困

困亨 貞大人吉 无咎 有言不信

彖曰 困剛揜也 險以說 困而不失其所亨 其唯君子乎 貞大人吉 以剛中也 有言不信尚口 乃窮也

象曰 澤无水困 君子以致命遂志

初六 臀困于株木 入于幽谷 三歲不覿

象曰 入于幽谷 幽不明也

九二 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亨祀 征凶无咎

象曰 困于酒食 中有慶也

六三 困于石 據于蒺藜 入于其宮 不見其妻凶

象曰 據于蒺藜 乘剛也 入于其宮 不見其妻 不祥也

九四 來徐徐 困于金車 吝有終

象曰 來徐徐 志在下也 雖不當位 有與也

九五 劓刖 困于赤紱 乃徐有說 利用祭祀

象曰 劓刖 志未得也 乃徐有說 以中直也 利用祭祀 受福也

上六 困于葛藟 于臲卼 曰 動悔有悔 征吉

象曰 困于葛藟 未當也 動悔有悔 吉行也

井　水風井

井改邑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 汔至亦未繘井 羸其瓶凶

彖曰 巽乎水而上水井 井養而不窮也 改邑不改井 乃以剛中也 汔至亦未繘井 未有功也 羸其瓶 是以凶也

象曰 木上有水井 君子以勞民勸相

初六 井泥不食 舊井无禽

象曰 井泥不食 下也 舊井无禽 時舍也

九二 井谷射鮒 甕敝漏

象曰 井谷射鮒 无與也

九三 井渫不食 爲我心惻可用汲 王明並受其福

象曰 井渫不食 行惻也 求王明 受福也

六四 井甃无咎

象曰 井甃无咎 脩井也

九五 井冽 寒泉食

象曰 寒泉之食 中正也

上六 井收勿幕 有孚元吉

象曰 元吉在上 大成也

革 澤火革

革 已日乃孚 元亨利貞 悔亡

彖曰 革 水火相息 二女同居 其志不相得 曰革 已日乃孚 革而信之 文明以說 大亨以正 革而當 其悔乃亡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象曰 澤中有火革 君子以治歷明時

初九 鞏用黃牛之革

象曰 鞏用黃牛 不可以有爲也

六二 已日乃革之 征吉无咎

象曰 已日革之 行有嘉也

九三 征凶貞厲 革言三就 有孚

象曰 革言三就 又何之矣

九四 悔亡有孚 改命吉

象曰 改命之吉 信志也

九五 大人虎變 未占有孚

象曰 大人虎變 其文炳也

上六 君子豹變 小人革面 征凶居貞吉

象曰 君子豹變 其文蔚也 小人革面 順以從君也

鼎　火風鼎

鼎元吉亨

象曰 鼎象也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 以享上帝而大亨 以養聖賢 巽而耳目聰明 柔進而上行 得中而應乎剛 是以元亨

象曰 木上有火鼎 君子以正位凝命

初六 鼎顚趾 利出否 得妾以其子 无咎

象曰 鼎顚趾 未悖也 利出否 以從貴也

九二 鼎有實 我仇有疾 不我能卽吉

象曰 鼎有實 愼所之也 我仇有疾 終无尤也

九三 鼎耳革 其行塞 雉膏不食 方雨虧悔終吉

象曰 鼎耳革 失其義也

九四 鼎折足 覆公餗 其形渥凶

象曰 覆公餗 信如何也

六五 鼎黃耳 金鉉利貞

象曰 鼎黃耳 中以爲實也

上九 鼎玉鉉 大吉无不利

象曰 玉鉉 在上剛柔節也

震 重雷震

震亨 震來虩虩 笑言啞啞 震驚百里 不喪匕鬯

彖曰 震亨 震來虩虩 恐致福也 笑言啞啞 後有則也 震驚百里 驚遠而懼邇也 出可以守宗廟社稷 以爲祭主也

象曰 洊雷震 君子以恐懼脩省

初九 震來虩虩 後笑言啞啞吉

象曰 震來虩虩 恐致福也 笑言啞啞後有則也

六二 震來厲 億喪貝 躋于九陵 勿逐七日得

象曰 震來厲 乘剛也

六三 震蘇蘇 震行无眚

象曰 震蘇蘇 位不當也

九四 震遂泥

象曰 震遂泥 未光也

六五 震往來厲 億无喪有事

象曰 震往來厲 危行也 其事在中 大无喪也

上六 震索索 視矍矍 征凶 震不于其躬 于其鄰无咎 婚媾有言

象曰 震索索 中未得也 雖凶无咎 畏隣戒也

艮 重山艮

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不見其人 无咎

彖曰 艮止也 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艮其止 止其所也 上下敵應 不相與也 是以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也

象曰 兼山艮 君子以思 不出其位

初六 艮其趾 无咎 利永貞

象曰 艮其趾 未失正也

六二 艮其腓 不拯其隨 其心不快

象曰 不拯其隨 未退聽也

九三 艮其限 列其夤厲薰心

象曰 艮其限 危薰心也

六四 艮其身 无咎

象曰 艮其身 止諸躬也

六五 艮其輔 言有序悔亡

象曰 艮其輔 以中正也

上九 敦艮吉

象曰 敦艮之吉 以厚終也

漸　風山漸

漸 女歸吉 利貞

彖曰 漸之進也 女歸吉也 進得位往有功也 進以正 可以正邦也 其位剛得中也 止而巽 動不窮也

象曰 山上有木漸 君子以居 賢德善俗

初六 鴻漸于干 小子厲 有言无咎

象曰 小子之厲 義无咎也

六二 鴻漸于磐 飲食衎衎 吉

象曰 飲食衎衎 不素飽也

九三 鴻漸于陸 夫征不復 婦孕不育凶 利禦寇

象曰 夫征不復 離群醜也 婦孕不育 失其道也 利用禦寇 順相保也

六四 鴻漸于木 或得其桷 无咎

象曰 或得其桷 順以巽也

九五 鴻漸于陵 婦三歲不孕 終莫之勝吉

象曰 終莫之勝吉 得所願也

上九 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吉

象曰 其羽可用爲儀吉 不可亂也

歸妹　雷澤歸妹

歸妹征凶 无攸利

彖曰 歸妹天地之大義也 天地不交而萬物不興 歸妹人之終始也 說以動所歸妹也 征凶 位不當也 无攸利 柔乘剛也

象曰 澤上有雷歸妹 君子以永終知敝

初九 歸妹以娣 跛能履征吉

象曰 歸妹以娣 以恒也 跛能履吉 相承也

九二 眇能視 利幽人之貞

象曰 利幽人之貞 未變常也

六三 歸妹以須 反歸以娣

象曰 歸妹以須 未當也

九四 歸妹愆期 遲歸有時

象曰 愆期之志 有待而行也

六五 帝乙歸妹 其君之袂 不如其娣之袂良 月幾望吉

象曰 帝乙歸妹 不如其娣之袂良也 其位在中 以貴行也

上六 女承筐 无實 士刲羊无血 无攸利

象曰 上六无實 承虛筐也

豐 雷火豐

豐亨 王假之 勿憂宜日中

彖曰 豐大也 明以動故豐 王假之 尚大也 勿憂宜日中宜照天下也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象曰 雷電皆至豐 君子以折獄致刑

初九 遇其配主 雖旬无咎 往有尚

象曰 雖旬无咎 過旬災也

六二 豐其蔀 日中見斗 往得疑疾 有孚發若 吉

象曰 有孚發若 信以發志也

九三 豐其沛 日中見沫 折其右肱 无咎

象曰 豐其沛 不可大事也 折其右肱 終不可用也

九四 豐其蔀 日中見斗 遇其夷主 吉

象曰 豐其蔀 位不當也 日中見斗 幽不明也 遇其夷主 吉行也

六五 來章有慶譽 吉

象曰 六五之吉 有慶也

上六 豐其屋 蔀其家 闚其戶 闃其无人 三歲不覿凶

象曰 豐其屋 天際翔也 闚其戶 闃其无人 自藏也

旅　火山旅

旅小亨 旅貞吉

彖曰 旅小亨 柔得中乎外而順乎剛 止而麗乎明 是以小亨旅貞吉也 旅之時義大矣哉

象曰 山上有火旅 君子以明愼 用刑而不留獄

初六 旅瑣瑣 斯其所取災

象曰 旅瑣瑣 志窮災也

六二 旅卽次 懷其資 得童僕貞

象曰 得童僕貞 終无尤也

九三 旅焚其次 喪其童僕 貞厲

象曰 旅焚其次 亦以傷矣 以旅與下 其義喪也

九四 旅于處 得其資斧 我心不快

象曰 旅于處 未得位也 得其資斧 心未快也

六五 射雉一矢亡 終以譽命

象曰 終以譽命 上逮也

上九 鳥焚其巢 旅人 先笑後號咷 喪牛于易凶

象曰 以旅在上 其義焚也 喪牛于易 終莫之聞也

巽 重風巽

巽小亨 利有攸往 利見大人

彖曰 重巽以申命 剛巽乎中正而志行 柔皆順乎剛 是以小亨利有攸往 利見大人

象曰 隨風巽 君子以申命 行事

初六 進退 利武人之貞

象曰 進退志疑也 利武人之貞 志治也

九二 巽在牀下 用史巫 紛若吉 无咎

象曰 紛若之吉 得中也

九三 頻巽吝

象曰 頻巽之吝 志窮也

六四 悔亡 田獲三品

象曰 田獲三品 有功也

九五 貞吉悔亡 无不利 无初有終 先庚三日 後庚三日吉

象曰 九五之吉 位正中也

上九 巽在牀下 喪其資斧 貞凶

象曰 巽在牀下 上窮也 喪其資斧 正乎凶也

兌 重澤兌

兌 亨利貞

彖曰 兌說也 剛中而柔外 說以利貞 是以順乎天而應乎人 說以先民 民忘其勞 說以犯難 民忘其死 說之大 民勸矣哉

象曰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初九 和兌吉

象曰 和兌之吉 行未疑也

九二 孚兌吉 悔亡

象曰 孚兌之吉 信志也

六三 來兌凶

象曰 來兌之凶 位不當也

九四 商兌未寧 介疾有喜

象曰 九四之喜 有慶也

九五 孚于剝 有厲

象曰 孚于剝 位正當也

上六 引兌

象曰 上六引兌 未光也

渙　風水渙

渙亨 王假有廟 利涉大川 利貞

彖曰 渙亨 剛來而不窮 柔得位乎外而上同 王假有廟 王乃在中也 利涉大川 乘木有功也

象曰 風行水上渙 先王以享于帝 立廟

初六 用拯馬壯吉

象曰 初六之吉 順也

九二 渙奔其机 悔亡

象曰 渙奔其机 得願也

六三 渙其躬 无悔

象曰 渙其躬 志在外也

六四 渙其群元吉 渙有丘 匪夷所思

象曰 渙其群元吉 光大也

九五 渙汗其大號 渙王居无咎

象曰 王居无咎 正位也

上九 渙其血去 逖出无咎

象曰 渙其血遠 害也

節　水澤節

節亨 苦節不可貞

彖曰 節亨 剛柔分而剛得中 苦節不可貞 其道窮也 說以行險 當位以節 中正以通 天地節而四時成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象曰 澤上有水節 君子以制數度 議德行

初九 不出戶庭 无咎

象曰 不出戶庭 知通塞也

九二 不出門庭凶

象曰 不出門庭凶 失時極也

六三 不節若則嗟 若无咎

象曰 不節之嗟 又誰咎也

六四 安節亨

象曰 安節之亨 承上道也

九五 甘節吉 往有尚

象曰 甘節之吉 居位中也

上六 苦節貞凶 悔亡

象曰 苦節貞凶 其道窮也

中孚　風澤中孚

中孚 豚魚吉 利涉大川 利貞

彖曰 中孚 柔在內而剛得中 說以巽 孚乃化邦也 豚魚吉 信及豚魚也 利涉大川 乘木舟虛也 中孚以利貞 乃應乎天也

象曰 澤上有風中孚 君子以議獄緩死

初九 虞吉 有他不燕

象曰 初九虞吉 志未變也

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象曰 其子和之 中心願也

六三 得敵 或鼓或罷 或泣或歌

象曰 或鼓或罷 位不當也

六四 月幾望 馬匹亡 无咎

象曰 馬匹亡 絕類上也

九五 有孚攣如 无咎

象曰 有孚攣如 位正當也

上九 翰音登于天 貞凶

象曰 翰音登于天 何可長也

小過　雷山小過

小過亨利貞 可小事不可大事 飛鳥遺之音 不宜上 宜下大吉

彖曰 小過小者 過而亨也 過以利貞 與時行也 柔得中 是以小事吉也 剛失位而不中 是以不可大事也 有飛鳥之象焉 飛鳥遺之音不宜上宜下大吉 上逆而下順也

象曰 山上有雷小過 君子以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初六 飛鳥以凶

象曰 飛鳥以凶 不可如何也

六二 過其祖遇其妣 不及其君 遇其臣无咎

象曰 不及其君 臣不可過也

九三 弗過防之 從或戕之凶

象曰 從或戕之凶 如何也

九四 无咎 弗過遇之 往厲必戒 勿用永貞

象曰 弗過遇之 位不當也 往厲必戒 終不可長也

六五 密雲不雨 自我西郊 公弋取彼在穴

象曰 密雲不雨 已上也

上六 弗遇過之 飛鳥離之凶 是謂災眚

象曰 弗遇過之 已亢也

旣濟　水火旣濟

旣濟亨小 利貞 初吉 終亂

彖曰 旣濟亨小者 亨也 利貞 剛柔正而位當也 初吉 柔得中也 終止則亂 其道窮也

象曰 水在火上旣濟 君子以思患而豫防之

初九 曳其輪 濡其尾 无咎

象曰 曳其輪 義无咎也

六二 婦喪其茀 勿逐 七日得

象曰 七日得 以中道也

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象曰 三年克之 憊也

六四 繻有衣袽 終日戒

象曰 終日戒 有所疑也

九五 東鄰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實受其福

象曰 東鄰殺牛 不如西隣之時也 實受其福 吉大來也

上六 濡其首厲

象曰 濡其首厲 何可久也

未濟　火水未濟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彖曰 未濟亨 柔得中也 小狐汔濟 未出中也 濡其尾 无攸利 不續終也 雖不當位 剛柔應也

象曰 火在水上未濟 君子以愼辨物居方

初六 濡其尾 吝

象曰 濡其尾 亦不知極也

九二 曳其輪 貞吉

象曰 九二貞吉 中以行正也

六三 未濟征凶 利涉大川

象曰 未濟征凶 位不當也

九四 貞吉悔亡 震用伐鬼方 三年有賞于大國

象曰 貞吉悔亡 志行也

六五 貞吉无悔 君子之光 有孚吉

象曰 君子之光 其暉吉也

上九 有孚于飲酒 无咎 濡其首有孚失是

象曰 飲酒濡首 亦不知節也

繫辭上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是故 剛柔相摩 八卦相盪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而成位乎其中矣 -右第一章-

聖人設卦 觀象繫辭焉而明吉凶 剛柔相推而生變化 是故 吉凶者 失得之象也 悔吝者 憂虞之象也 變化者 進退之象也 剛柔者 晝夜之象也 六爻之動 三極之

道也 是故 君子 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是故 君子 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右第二章-

彖者 言乎象者也 爻者言乎變者也 吉凶者言乎其失得也 悔吝者言乎其小疵也 无咎者善補過也 是故 列貴賤者存乎位 齊小大者存乎卦 辯吉凶者存乎辭 憂悔吝者存乎介 震无咎者存乎悔 是故 卦有小大 辭有險易 辭也者各指其所之 -右第三章-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 知幽明之故 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 知鬼神之情狀 與天地相似故不違 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故不過 旁行而不流 樂天知命故不憂 安土敦乎仁故能愛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通乎晝夜之道而知 故 神无方而易无體 -右第四章-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至矣哉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謂事 陰陽不測之謂神 -右第五章-

夫易廣矣大矣 以言乎遠則不禦 以言乎邇則靜而正 以言乎天地之間則備矣 夫乾 其靜也專 其動也直 是以大生焉 夫坤 其靜也翕 其動也闢 是以廣生焉 廣大配天地變通 配四時 陰陽之義 配日月易簡之善 配至德 -右第六章-

子曰 易其至矣乎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門 -右第七章-

聖人 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 以斷其吉凶 是故謂之爻 言天下之至賾而不可惡也 言天下之至動而不可亂也 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 擬議以成其變化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子曰 君子 居其室出其言 善則千里

之外應之 况其邇者乎 居其室出其言 不善則千里之外違之 况其邇者乎 言出乎身加乎民 行發乎邇見乎遠 言行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愼乎 同人 先號咷而後笑 子曰 君子之道 或出或處或默或語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初六 藉用白茅无咎 子曰 苟錯諸地而可矣 藉之用茅 何咎之有 愼之至也 夫茅之爲物 薄而用可重也 愼斯術也 以往 其无所失矣 勞謙 君子有終吉 子曰 勞而不伐 有功而不德 厚之至也 語以其功 下人者也 德言盛 禮言恭 謙也者至恭 以存其位者也 亢龍有悔 子曰 貴而无位 高而无民 賢人 在下位而无輔 是以 動而有悔也 不出戶庭无咎 子曰 亂之所生也 則言語以爲階 君不密則失臣 臣不密則失身 幾事不密則害成 是以君子 愼密而不出也 子曰 作易者 其知盜乎 易曰 負且乘致寇至 負也者 小人之事也 乘也者 君子之器也 小人而乘君子之器盜 思奪之矣 上慢下暴盜 思伐之矣 慢藏誨盜 冶容誨淫 易曰 負且乘致寇至 盜之招也 -右第八章-

天一地二 天三地四 天五地六 天七地八 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 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一以象三 揲之以四以象四時 歸奇於扐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扐而後掛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二篇之策 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是故 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 八卦而小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顯道神德行 是故 可與酬酌 可與祐神矣 子曰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 -右第九章-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尚其辭 以動者尚其變 以制器者尚其象 以卜筮者尚其占 是以 君子 將有爲也 將有行也 問焉而以言 其受命也如嚮 无有遠近幽深遂知來物 非天下之至精 其孰能與於此 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遂成天地之文 極其數遂定天下之象 非天下之至變 其孰能與於此 易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夫易聖人之所以 極深而研幾也 唯深也 故能通天下之志 唯幾也 故能成天下之務 唯神也 故不疾而速不行而至 子曰 易有聖人之道 四焉者 此之謂也 -右第十章-

子曰 夫易何爲者也 夫易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 是故 聖人 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是故 蓍之德圓而神 卦之德方以知 六爻之義 易以貢聖人以此洗心 退藏於密 吉凶 與民同患 神以知來 知以藏往 其孰能與於此哉 古之聰明叡知神武而不殺者夫 是以 明於天之道而察於民之故 是興神物 以前民用 聖人以此齋戒 以神明其德夫 是故 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制而用之謂之法 利用出入 民咸用之謂之神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是故 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月 崇高莫大乎富貴 備物致用 立成器 以爲天下利 莫大乎聖人 探賾索隱 鉤深致遠 以定天下之吉凶 成天下之亹亹者 莫大乎蓍龜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天地變化 聖人效之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易有四象 所以示也 繫辭焉所以告也 定之以吉凶 所以斷也 -右第十一章-

易曰 自天祐之 吉无不利 子曰 祐者助也 天之所助者順也 人之所助者信也 履信思乎順 又以尚賢也 是以 自天祐之吉无不利也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不可見乎 子曰 聖人 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僞 繫辭焉 以盡其言 變而通之 以盡利 鼓之舞之 以盡神 乾坤 其易之緼耶 乾坤成列 而易立乎其中矣 乾坤毁則无以見易 易不可見則乾坤或幾乎息矣 是故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 擧而措之天下之民 謂之事業 是故 夫象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 以斷其吉凶 是故 謂之爻 極天下之賾者 存乎卦 鼓天下之動者 存乎辭 化而裁之存乎變 推而行之存乎通 神而明之存乎其人 默而成之不言而信 存乎德行 -右第十二章-

繫辭下

八卦成列 象在其中矣 因而重之 爻在其中矣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焉而命之 動在其中矣 吉凶悔吝者 生乎動者也 剛柔者立本者也 變通者趣時者也 吉凶者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 夫乾 確然示人易矣 夫坤 隤然示人簡矣 爻也者效此者也 象也者像此者也 爻象動乎內 吉凶見乎外 功業見乎變 聖人之情見乎辭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何以聚人曰財 理財正辭 禁民爲非 曰義 -右第一章-

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 刳木爲舟 剡木爲楫 舟楫之利 以濟不通 致遠以利天下 蓋取諸渙 服牛乘馬 引重致遠 以利天下 蓋取諸隨 重門擊柝 以待暴客 蓋取諸豫 斷木爲杵 掘地爲臼 臼杵之利 萬民以濟 蓋取諸小過 弦木爲弧 剡木爲矢 弧矢之利 以威天下 蓋取諸睽 上古 穴居而野處 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无數 後世聖人 易之以棺槨 蓋取諸大過 上古 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夬 -右第二章-

是故 易者象也 象也者像也 彖者材也 爻也者 效天下之動者也 是故 吉凶生而悔吝著也 -右第三章-

陽卦多陰 陰卦多陽 其故何也 陽卦奇 陰卦耦 其德行何也 陽一君而二民 君子之道也 陰二君而一民 小人之道也 -右第四章-

易曰 憧憧往來 朋從爾思 子曰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日月相推而明生焉 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往者屈也 來者信也 屈信相感而利生焉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易曰 困于石 據于蒺藜 入于其宮 不見其妻凶 子曰 非所困而困焉 名必辱 非所據而據焉 身必危 既辱且危 死期將至 妻其可得見邪 易曰 公用射隼于高墉之上 獲之 无不利 子曰 隼者禽也 弓矢者器也 射之者人也 君子 藏器於身 待時而動 何不利之有 動而不括 是以出而有獲 語成器而動者也 子曰 小人 不恥不仁 不畏不義 不見利不勸 不威不懲 小懲而大誡 此 小人之福也 易曰 屨校滅趾 无咎 此之謂也 善不積 不足以成名 惡不積 不足以滅身 小人 以小善 爲无益而弗爲也 以小惡 爲无傷而弗去也 故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易曰 何校滅耳凶 子曰 危者安其位者也 亡者保其存者也 亂者有其治者也 是故 君子 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是以 身安而國家可保也 易曰 其亡其亡 繫于苞桑 子曰 德薄而位尊 知小而謀大 力小而任重 鮮不及矣 易曰 鼎折足覆公餗 其形渥凶 言不勝其任也 子曰 知幾其神乎 君子 上交不諂 下交不瀆 其知幾乎 幾者 動之微 吉之先見者也 君子 見幾而作 不俟終日 易曰 介于石 不終日 貞吉 介如石焉 寧用終日 斷可識矣 君子知微知彰知柔知剛 萬夫之望 子曰 顏氏之子 其殆庶幾乎 有不善 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易曰 不遠復 无祗悔 元吉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易曰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言致一也 子曰 君子 安其身而後動 易其心而後語 定其交而後求 君子 脩此三者故全也 危以動則 民不與也 懼以語則 民不應也无交以求則 民不與也 莫之與則 傷之者至矣 易曰 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凶 -右第五章-

子曰 乾坤 其易之門邪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其稱名也 雜而不越 於稽其類 其衰世之意耶 夫易 彰往而察來而微顯闡幽 開而當名 辨物正言 斷辭則備矣 其稱名也小 其取類也大 其旨遠 其辭文 其言曲而中 其事肆而隱 因貳 以濟民行 以明失得之報 -右第六章-

易之興也 其於中古乎 作易者 其有憂患乎 是故 履德之基也 謙德之柄也 復德之本也 恒德之固也 損德之修也 益德之裕也 困德之辨也 井德之地也 巽德之制也 履和而至 謙尊而光 復小而辨於物 恒雜而不厭 損先難而後易 益長裕而不設 困窮而通 井居其所而遷 巽稱而隱 履以和行 謙以制禮 復以自知 恒以一德 損以遠害 益以興利 困以寡怨 井以辨義 巽以行權 -右第七章-

易之爲書也 不可遠爲道也 屢遷變動不居 周流六虛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其出入以度 外內使知懼 又明於憂患與故 无有師保 如臨父母 初率其辭而揆其方 既有典常 苟非其人 道不虛行 -右第八章-

易之爲書也 原始要終 以爲質也 六爻相雜 唯其時物也 其初難知 其上易知 本末也 初辭擬之 卒成之終 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則 非其中爻不備 噫 亦要存亡吉凶 則居可知矣 知者 觀其彖辭 則思過半矣 二與四 同功而異位 其善不同 二多譽 四多懼 近也 柔之爲道不利遠者 其要无咎 其用柔中也 三與五 同功而異位 三多凶 五多功 貴賤之等也 其柔危 其剛勝耶 -右第九章-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 道有變動 故曰爻 爻有等 故曰物 物相雜 故曰文 文不當故吉凶生焉 -右第十章-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邪 當文王與紂之邪 是故 其辭危 危者使平 易者使傾 其道甚大 百物不廢 懼以終始 其要无咎 此之謂易之道也 -右第十一章-

夫乾 天下之至健也 德行恒易以知險 夫坤 天下之至順也 德行 恒簡以知阻 能說諸心 能研諸侯之慮 定天下之吉凶 成天下之亹亹者 是故 變化云爲 吉事有祥 象事知器 占事知來 天地設位 聖人成能 人謀鬼謀 百姓與能 八卦以象告 爻彖以情言 剛柔雜居而吉凶可見矣 變動以利言 吉凶以情遷 是故 愛惡相攻而吉凶生 遠近相取而悔吝生 情僞相感而利害生 凡易之情 近而不相得 則凶或害之 悔且吝 將叛者其辭慙 中心疑者其辭枝 吉人之辭寡 躁人之辭多 誣善之人

其辭游 失其守者其辭屈 -右第十二章-

說卦傳

昔者 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右第一章-

昔者 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 六劃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 六位而成章 -右第二章-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 -右第三章-

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晅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右第四章-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離也者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 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 致役乎坤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 說言乎兌 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 勞乎坎 艮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 成言乎艮 -右第五章-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動萬物者 莫疾乎雷 橈萬物者 莫疾乎風 燥萬物者

莫熯乎火 說萬物者 莫說乎澤 潤萬物者 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故 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然後 能變化 旣成萬物也 -右第六章-

乾健也 坤順也 震動也 巽入也 坎陷也 離麗也 艮止也 兌說也 -右第七章-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鷄 坎爲豕 離爲雉 艮爲狗 兌爲羊 -右第八章-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 -右第九章-

乾天也 故稱乎父 坤地也故稱乎母 震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巽一索而得女故謂之長女 坎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 -右第十章-

乾 爲天 爲圜 爲君 爲父 爲玉 爲金 爲寒 爲冰 爲大赤 爲良馬 爲老馬 爲瘠馬 爲駁馬 爲木果

坤 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爲大輿 爲文 爲衆 爲柄 其於地也 爲黑

震 爲雷 爲龍 爲玄黃 爲旉 爲大塗 爲長子 爲決躁 爲蒼筤竹 爲萑葦 其於馬也 爲善鳴 爲馵足 爲作足 爲的顙 其於稼也 爲反生 其究爲健 爲蕃鮮

巽 爲木 爲風 爲長女 爲繩直 爲工 爲白 爲長 爲高 爲進退 爲不果 爲臭 其於人也 爲寡髮 爲廣顙 爲多白眼 爲近利市三倍 其究 爲躁卦

坎 爲水 爲溝瀆 爲隱伏 爲矯輮 爲弓輪 其於人也 爲加憂 爲心病 爲耳痛 爲血卦 爲赤 其於馬也 爲美脊 爲亟心 爲下首 爲薄蹄 爲曳 其於輿也 爲多眚爲通 爲月 爲盜 其於木也 爲堅多心

離 爲火 爲日 爲電 爲中女 爲甲胄 爲戈兵 其於人也 爲大腹 爲乾卦 爲鼈 爲蟹 爲蠃 爲蚌 爲龜 其於木也 爲科上槁

艮 爲山 爲徑路 爲小石 爲門闕 爲果蓏 爲閽寺 爲指 爲狗 爲鼠 爲黔喙之屬 其於木也 爲堅多節

兌 爲澤 爲少女 爲巫 爲口舌 爲毀折 爲附決 其於地也 爲剛鹵 爲妾 爲羊 -右第十一章-

序卦傳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 唯萬物 故受之以屯 屯者盈也 屯者物之始生也 物生必蒙 故受之以蒙 蒙者蒙也 物之穉也 物穉不可不養 故受之以需 需者飲食之道也 飲食必有訟 故受之以訟 訟必有衆起 故受之以師 師者衆也 衆必有所比 故受之以比 比者比也 比必有所畜 故受之以小畜 物畜然後 有禮 故受之以履 履而泰然後安 故受之以泰 泰者通也 物不可以終通 故受之以否 物不可以終否 故受之以同人 與人同者 物必歸焉 故受之以大有 有大者 不可以盈 故受之以謙 有大而能謙必豫 故受之以豫 豫必有隨 故受之以隨 以喜隨人者必有事 故受之以蠱 蠱者事也 有事而後可大 故受之以臨 臨者大也 物大然後可觀 故受之以觀 可觀而後 有所合 故受之以噬嗑 嗑者合也 物不可以苟合而已 故受之以賁 賁者飾也 致飾然後亨則盡矣 故受之以剝 剝者剝也 物不可以終盡 剝窮上反下 故受之以復 復則不妄矣 故受之以无妄 有无妄然後 可畜 故受之以大畜 物畜然後可養 故受之以頤 頤者養也 不養則不可動 故受之以大過 物不可以終過 故受之以坎 坎者陷也 陷必有所麗 故受之以離 離者麗也 -右上篇-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有君臣然後 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夫婦之道 不可以不久也 故受之以恒 恒者久也 物不可以久居其所 故受之以遯 遯者退也 物不可以終遯 故受之以大壯 物不可以終壯 故受之以晉 晉者進也 進必有所傷 故受之以明夷 夷者傷也 傷於外者 必反其家 故受之以家人 家道窮必乖 故受之以睽 睽者乖也 乖必有難 故受之以蹇 蹇者難也 物不可以終難 故受之以解 解者緩也 緩必有所失 故受之以損 損而不已 必益 故受之以益 益而不已必決 故受之以夬 夬者決也 決必有所遇 故受之以姤 姤者遇也 物相遇而後聚 故受之以萃 萃者聚也 聚而上者謂之升 故受之以升 升而不已必困 故受之以困 困乎上者必反下 故受之以井 井道不可不革 故受之以革 革物者莫若鼎 故受之以鼎 主器者莫若長子 故受之以震 震者動也 物不可以終動止之 故受之以艮 艮者止也 物不可以終止 故受之以漸 漸者進也 進必有所歸 故受之以歸妹 得其所歸者必大 故受之以豐 豐者大也 窮大者必失其居 故受之以旅 旅而无所容 故受之以巽 巽者入也 入而後說之 故受之以兌 兌者說也 說而後散之 故受之以渙 渙者離也 物不可以終離 故受之以節 節而信之 故受之以中孚 有其信者必行之 故受之以小過 有過物者必濟 故受之以既濟 物不可窮也 故受之以未濟 終焉 -右下篇-

雜卦傳

乾剛坤柔 比樂師憂 臨觀之義 或與或求 屯見而不失其居 蒙雜而著 震起也 艮止也 損益盛衰之始也 大畜時也 无妄災也 萃聚而升不來也 謙輕而豫怠也 噬嗑食也 賁无色也 兌見而巽伏也 隨无故也 蠱則飭也 剝爛也 復反也 晉晝也 明夷誅也 井通而困相遇也 咸速也 恒久也 渙離也 節止也 解緩也 蹇難也 睽外也 家人內也 否泰反其類也 大壯則止 遯則退也 大有衆也 同人親也 革去故也 鼎取新也 小過過也 中孚信也 豐多故 親寡旅也 離上而坎下也 小畜寡也

履不處也 需不進也 訟不親也 大過顛也 姤遇也 柔遇剛也 漸女歸待男行也 頤養正也 既濟定也 歸妹 女之終也 未濟男之窮也 夬決也 剛決柔也 君子道長小人道憂也

尾

正　　易

正易 目次

十五一言 ——— 691
盤古化 ——— 691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 ——— 693
體影之道 ——— 694
天地之理三元 ——— 694
易逆也極則反 ——— 696
土而生火 ——— 697
天四地六 ——— 698
十紀 二經 五綱 七緯 ——— 698
戊位 己位 ——— 699
太陰逆生倒成 ——— 701
太陽倒生逆成 ——— 702
易序卦와 日月生成 ——— 704
終 復 成度之年 ——— 705
三十과 三十六 ——— 707
太陰逆生倒成 太陽倒生逆成 ——— 707
復之之理 ——— 707
五日一候 ——— 709
十五分一刻 ——— 709
天地合德 三十二 ——— 710
四象分體度 ——— 710
金火一頌 (后天九宮圖) ——— 711
二頌 (金火互易過程) ——— 712
三頌 正易八卦圖 ——— 715

四頌　天地日月之變化 —— 716
五頌 —— 716
日月之德 天地之分 —— 717
一夫之碁 —— 717
五度而月魂生申 —— 718
月合中宮之中位 —— 719
律呂度數 —— 720
理會本原原是性 —— 720
水土之成道天地 —— 722
后天之道屈伸 —— 723
抑陰尊陽 —— 723
潮汐之理 —— 724
大哉金火門 —— 725
復上起月 —— 726
化翁親視監化事 —— 727
無極體位度數 —— 728
皇極體位度數 —— 728
月極體位度數 —— 728
日極體位度數 —— 729
化翁無位原天火 —— 729
己巳宮 —— 729
戊戌宮 —— 729
第一節 —— 730
地十己土生天九辛金 —— 730

天五戊土生地四庚金 —— 730
第二節 —— 731
地十己土生天九庚金 —— 731
天五戊土生地四辛金 —— 731
第三節 —— 732
地十己土成天一壬水 —— 732
天五戊土成地六癸水 —— 732
丙甲庚三宮 —— 733
丁乙辛三宮 —— 734
子寅午申 —— 734
丑卯未酉 —— 734
上元丑會干支圖 —— 735
二十八宿運氣圖 —— 735
九九吟 —— 737
十五歌 —— 738
先后天正閏度數 —— 740
原天無量 —— 741
先后天周回度數 —— 741
盤古五化元年壬寅 —— 741
蓮潭先生 —— 742
立道詩 —— 742
無位詩 —— 742
正易詩 —— 743
布圖詩 —— 743

金火正易圖 ——— 744
十一一言 ——— 746
奇偶數 ——— 749
先天之易后天之易 ——— 750
原天 先天 后天 ——— 750
后天九宮八卦 ——— 751
洛書九宮生成數　　三元數의 前提 ——— 753
三五錯綜三元數 ——— 753
河圖八卦生成數　　五元數의 前提 ——— 754
九二錯綜五元數 ——— 755
十一歸體詩 ——— 755
中 ——— 756
雷風正位用政 ——— 757
天度九七五三　地德二四六八 ——— 758
四正七宿用中數 ——— 758
易三 ——— 760
乾坤卦八 ——— 760
十一吟 ——— 760
十干原度數 ——— 761
十二月二十四節氣候度數 ——— 761
癸未朔之理 ——— 762
第一章 象과 數의 圖像과 時運 ——— 763
第一節 象의 圖像 ——— 763
第二節 數의 圖像 ——— 764

八卦와 五行의 關係 ——— 764
第二章 生의 時運의 圖像 ——— 765
第一節 河圖 ——— 765
五行相生 ——— 769
第二節　伏羲八卦圖 ——— 770
第三章 長의 時運의 圖像 ——— 776
第一節 洛書 ——— 776
洛書 ——— 776
五行相克 ——— 779
六七八九의 四象 ——— 781
河圖와 洛書와의 關係 ——— 783
第二節 ——— 785
文王八卦圖 ——— 785
第三節　文王八卦圖와 易經組織 ——— 792
第四章 成의 時運의 圖像 ——— 800
第一節 正易八卦圖 ——— 800
正易卦圖의 五行克成 ——— 808
卦圖의 陰陽劃數 ——— 811
第二節　后天河圖九宮圖 ——— 813
十五一言 ——— 815
金火一頌 ——— 817
金火二頌 ——— 817
金火三頌 ——— 818
金火四頌 ——— 818

金火五頌 ——— 818
一歲周天律呂度數 ——— 819
化无上帝言 ——— 821
化翁親視監化事 ——— 822
上元丑會干支圖 ——— 825
二十八宿運氣圖 ——— 825
亢角二宿尊空詩 ——— 827
十五歌 ——— 828
先后天正閏度數 ——— 829
先后天周回度數 ——— 829
立道詩 ——— 829
无位詩 ——— 830
正易詩 ——— 830
布圖詩 ——— 830
洛書九宮生成數 ——— 831
三五錯綜三元數 ——— 832
河圖八卦生成數 ——— 832
九二錯綜五元數 ——— 833
十一歸體詩 ——— 833
雷風正位用政數 ——— 834
四正七宿用中數 ——— 835
十一吟 ——— 835
十二月 二十四節氣候度數 ——— 836

正易

十五一言

十五者 正易八卦圖之 十乾天五坤地也 先天乾用九坤用六 九者 陽數生長之極而長極則 進爲十 故后天乾十也 六者 陰數收斂之極而收極則 退爲五 故后天坤五也

十干之數 己爲十戊爲五 故乾十在己十之位 坤五在戊五之位也 乾在己位 故己位之乾天生太陽 爲太陽之父

坤在戊位 故戊位之坤地 生太陰爲太陰之母也

長子震 代乾天 爲太陽之氣 生於己位 其數爲十 長女巽 代坤母 爲太陰之體 生於戊位 其數爲五而后天 震巽爲十五之理也 后天天地交易 爲地天泰 故巽在己位 震在戊位 此金火正易圖之 巽屬己 震屬戊之理也 故后天之體數則 乾十坤五也 用數則 震十巽五也 三極之數 己位爲無極體位 故無極爲十 戊位爲皇極體位 故皇極爲五也

故十五者 十乾五坤十己五戊 十震五巽 十無極五皇極之通稱也

一言者 「小子明聽吾一言」와 같이 天語라는 뜻이다 十五一言이라 함은 十五에 對한 天語이다

盤古化

盤古는 宇宙의 造物主를 人格化하여 말한 것이오 天皇은 天의 主宰이오 地皇은 地의 主宰이오 人皇은 人類의 主宰이니 이는 無形한 神으로부터 天地

와 人類가 創造된 順序를 말한 것이오 中國에 局限한 것이 아니다 有巢氏以下는 中國 歷代 聖人인데 이는 易學의 淵源을 말하기 爲한 것이다

有巢旣巢 上古穴居而野處也 燧人乃燧火食之始也 伏羲言神哉者 伏羲始劃八卦 以通神明之德 觀八卦之象 以發明人類生活之器 故言神 利用出入 民咸用之 謂之神是也 聖者 設神道之敎 以敎人謂之聖 神農耕市之敎 乃聖人之事也

十聖人은 사람의 生生事業을 行하고 天道와 人間과의 關係를 밝히시기 爲하여 易學을 傳하신 것이다

堯言神者 日月之政 至神至明 帝堯之時始作曆 (三百六旬有六日)

箕子再言聖 箕聖者 指箕子之人格也 乃聖者 指箕子傳洛書洪範九疇之 事功也

有巢 燧人 伏羲 神農 黃帝 神堯 帝舜 大禹 殷湯 箕子 爲十聖人也 十者河圖之數也 箕子傳 洛書洪範於周武王 而始用洛書之九數 箕子以前 長之時運中之生之時期 故當用河圖之數 十聖人은 象河圖時運十數之理也

周之文王武王 周公始用洛書之數 作周易 周德在茲者 周之德在於周易也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 卽是周德也 殷之末世 言箕聖之世也

二南七月者 二七火屬南屬夏 爲長之時運之氣 二七合爲九 洛書之數止於九 爲長之時運之極數 此言周易象長之時運之書也

麟兮我聖孔子也 乾坤中立者 定三百六十日之 正朞之易 天地不傾危也 文王周易 乾坤傾居於西北 西南而爲閏易 正易乾北坤南 爲三百六十日之正易 孔子在文王周易之時運 上以律調 文王周易之閏 下以襲傳正易之正 以至于一夫正易之今日也

今日今日者 上之今日 襲于今日之今日也 下之今日 一乎一夫之今日也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

七 八 九를 各 九乘한 것이다 自然數에서 七八九는 物의 長함을 象하는 成數인데 七은 少陽이니 長의 時運中의 生의 時期이오 八은 少陰이니 長의 時運中의 長의 時期이오 九는 老陽이니 長의 時運中의 成의 時期이며 物의 極長하는 數는 九이므로 七八九에 各各 九를 乘하여 合한 數는 生之時期之極 長之時期之極 成之時期之極을 合한 乾策二百十六이며 二百十六은 物의 極長하는 策數이므로 一元推衍數가 되는 것이다

七八九合數之 策二百十六 乃極長之數 二百十六 以乾之策 而爲長之數 故一乎一夫則 越於坤策爲成之數也 以自然數言之則 九爲極長之數 而越九則擧爲十 十爲后天無極之數 無極之十便是太極之一 一乎一夫者 越九而爲十 十便爲一也(擧者全(온)之意也)

斯儒斯佛又斯仙 誰識一夫眞蹈此 七八九之數 一乎一夫 十之則爲無極 一之則爲太極 無極太極之中有皇極 無極佛敎之象也(神之體之組織言有形之體) 太極儒敎之象也(神之陽氣發出也故易經只有太極) 皇極仙道卽 基督敎之象也(神之體中作成物體) 故一乎一夫 卽一夫眞蹈此之意也

十便是太極一者 十卽一太極也 太極者 非一二三四之一也 乃十之統一之一也 十數를 布之則爲十無極 統之則爲一太極 統一之一은 以布十之十으로 爲體 布十之十은 以統一之一爲用也 布之統之都是十數 故合之則一個十數之土也 合之爲十數之陰土 故其居中之數 乃五數之陽土 此乃皇極也 故歸十數 布之而以無極爲體 統之而以太極爲用 太極無極交合 於中位之皇極也

以열매言之則 秋之열매之成熟 自九而越於十 故爲無極也 至春而芽之坼出者爲一 此非열매中一部之出也 乃열매之全生命之出也 故爲太極統十之一也 故八卦에 乾爲太極 此統天之一故也

五皇極者 在十無極之中 爲胎宮之象也 故胎兒成形 於五皇極之中也 十無極卽

是一太極 而太極無極交精 於皇極宮 故五皇極亦卽是用六宮 而胎兒以五六爲體 所以五六皇中月體成數者也 十無極合一太極 爲十一 五皇極合用六宮 亦爲十一 故十五之中生十一 正易以十五一言爲前編 十一一言爲後編也

太極無極 無先後之別 而以組織則 無極爲先太極爲後 以運行則 太極爲先無極爲後也

體影之道

體는 天地의 組織이오 影은 日月의 光明이니 如皇中月體成數는 體이오 復上月影生數는 影이다

地는 布十之無極也 天은 統十之太極也 地之十則布之 故方正也 天之十則統之 故圓環也 理氣者形而上爲理 形而下爲氣也 理氣者以組織言也 神明者以運行言也 太陽恒常性全理直 太陰消長數盈氣虛 此組織之象 而理言作用氣言氣質也 日月之政至神至明 此運行之象 而神言神之作用 明言光明也

天地之理三元

元者 萬物之所資而始生也 天之元乾元也 地之元坤元也 人之元聖人也 萬物之生生也 必有父母子之三數 故天地之生生 萬物亦有三元 天地之元 降人之元聖人也 以物之生生而言之則 天地聖人爲三元也 以創造萬物之才能 而言之則天地聖人 爲三才也

河圖洛書 天之所啓示 故謂之神物 天地之元降聖人 以神物圖書示之者 聖人亦有神之作用故也 故人之天性成則 皆有神作用也

河圖洛書何爲而示之乎 河圖五十五數而數具全 爲成之象故后天也 洛書四十五

數而數不全爲長之象故先天也 天道主生物 地道主成物 旣濟者生長之濟也 未濟者열매之濟也 故天之生物爲生長之象 而旣濟也 地之成物 爲열매之象而未濟也

龍圖后天 故열매之濟之未濟也 數具全 爲太陽之象也 龜書先天 故生長之濟之旣濟也 數不全爲月之象也

龍圖言象 龜書言數 象者組織體라는 뜻이오 數者運行順序라는 뜻이라 龍圖爲열매組織 故曰組織體之象也 龜書爲生長過程 故曰運行順序之數也

太陽數全爲龍圖之象 而后天也 倒生逆成則 金火正易 太陽在月之前 爲先天也 太陽爲乾象統天故爲太極也 月數不全 爲龜書之象而先天也 逆生倒成則金火正易 月在太陽之後 爲后天也 月成道爲十數爲坤象 布土故爲無極也 龍圖之太陽在月之前 統天之一數爲太極 龜書之月 在太陽之後 成道之十數爲無極也 日月之兩間有中位之五數 乃皇極也 日月合朔於中位之皇極 故后天之月爲皇中月也

先天亦有合朔 而亦有皇極則 先天之月 何不爲皇中月乎 曰先天時運數止於九而不成十故不得爲열매 所以先天月之數不全 只有一八影生數 無五六體成數故爲復上月而不得 爲皇中月也(九數言生長也 十數言收斂而成實也)

太陽爲河圖五十五數 月爲洛書四十五數也 太陰先天而后天 先天三元數 甲己夜半生甲子 甲子爲先天 太陰自甲子起 而度順至戊申復 而爲后天無極 自甲子而至戊申 乃先天而后天 其數四十五之洛書數也 太陽后天而先天 后天五元數己甲夜半生癸亥 癸亥爲后天太陽 自癸亥起而度逆至己巳 本位而爲先天太極自癸亥而至己巳 乃后天而先天 其數五十五之河圖數也 太陽五十五數 太陰四十五數 乃大一元三百數章 五十五點昭昭 四十五點斑斑之理也

易逆也極則反

易逆也라 함은 說卦의 知來者逆故易逆數也의 뜻이다 物이 生長하여 上升하는 것이 곧 逆이며 物의 生長上升하는 者는 未來를 向進하는 것이므로 未來를 知하는 것은 逆이 되는 것이며 物이 生長上升하는者는 반드시 他를 克하는 것이므로 克하는 것은 逆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物이 極하면 反하는 것이니 洛書의 數序에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는 逆인데 逆이 極하면 反하여 土生水 水生火 火生金 金生木 木生土가 되어 克이 生으로 變하는 것이다

克이라 함은 物의 자라는 때는 克制의 作用이 되고 여무는 때는 克成의 作用이 되는 것이니 이는 同一한 克이로되 或은 克制가 되고 或은 克成이 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我가 他를 克하고 我가 他를 繼代하는 것은 長의 象이되고 我가 他를 克하고 他로 하여금 我를 繼代케 하는 것은 成의 象이 되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사람이 生長競爭을 行하여 現權力者를 克하고 自身이 그 權力의 位에 居하는 것은 逆으로서 長의 象이 되는 것이오 師傅가 弟子를 陶冶하기 爲하여 克하고 그 弟子로 하여금 自身의 居하는 位에 居하게 하는 것은 極反으로서 成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師傅의 道는 克하는 것이 곧 成하는 것이오 成한다함은 여문 열매를 生하는 것이므로 成이 곧 生이 되는 것이다 原天火의 節에 土成水 水成火 火成金 金成木 木成土는 極反하여 生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克이 生으로 變하는 것은 孫을 生하는 理이니 土生金金生水則 水는 土의 孫이오 土는 中間의 金을 通하여 水를 生하니 이는 一面으로는 土克水하고 一面으로는 土極生水하여 克成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土가 水를 克하는 것은 또한 子를 通하여 孫을 生하는 理이며 이 理에 依하여 原天의 乾이 先天의 乾을 通하여 后天의 乾을 生하는 것은 一面으로는 克이되고 一面으로는 生이 되니 이가 곧 克成이오 后天은 原天의 孫의 象이며 그러므로 后天은 成의 時運이 되는 것이다

正易八卦圖의 五行에 克成의 象이 있으니 乾坤父母 五十土가 震巽長男長女 一六水를 成하여 生하니 이는 또한 乾坤 生命元이 雷風의 氣를 生하는 理이오 震巽長男長女 一六水가 天地 二七火를 成하여 生하니 이는 또한 無形한 雷風의 氣가 有形한 天地를 生하는 理이오 天地 二七火가 坎離中男中女의 四九金을 成하여 生하니 이는 또한 天地가 有形도 되고 無形도 되고 하는 水火의 精을 生하는 理이오 坎離中男中女 四九金이 艮兌 少男少女三八木을 成하여 生하니 이는 또한 水火의 精이 艮兌의 形을 生하는 理이오 艮兌 少男少女 三八木이 次世代의 乾坤 五十土를 成하여 生하니 이는 艮兌의 形의 속에 生命元을 갈무리하는 理이다 乾坤 震巽 天地 坎離 艮兌 次世代 乾坤은 곧 父母 및 長中少의 序로서 師傅가 弟子를 成하여 生하는 順序이다

土而生火

上文의 土極生水는 后天의 克成하는 理를 말한 것이오 下文의 土而生火는 后天의 克成하는 時運이 되면 十五 戊己土의 己位와 戊位에서 日月의 二七火가 生하여 太陽과 太陰이 倒逆生成하여 金火互易이 된다 함이다

그러므로 極反의 理가 克을 生으로 變한 까닭에 后天克成의 時運이 되어 金火가 互宅하여 太陽은 倒生逆成하여 先天太極이 되고 太陰이 逆生倒成하여 后天無極이 된 것이다

至矣哉라 함은 至哉坤元 知至至之의 至로서 달의 行度를 말함이오 無極之無極은 十數 無極이 后天無極으로 된다는 뜻으로서 달의 逆生倒成 后天無極을 말한 것이다

十以翼之는 無極의 象이오 一而貫之는 太極의 象이니 一以十爲體 十以一爲用 此太陽爲先天太極 太陰爲后天無極 金火互宅 爲萬歲曆之意也

天四地六

天四地六은 參地兩天의 理이오 天六地四는 參天兩地의 理이다 天地의 度는 數가 自然數의 十에 止하는데 天地의 盈虛消長하는 度數는 恒常 參兩으로 되어 있으므로 天이 四이면 地는 六이오 天이 六이면 地는 四이며 이 參兩의 度數는 乾策二百十六과 坤策百四十四에서 나온 것이다

十紀 二經 五綱 七緯

紀者 組織體之本體也 綱者組織體中之벼리줄也 經者組織體之縱線인날줄也 緯者組織體之橫線인씨줄也 十紀者十乾之謂而十 爲組織體之本體 故爲無極也 五綱者五坤之謂而五 爲組織體之中心 故爲皇極也 二經者 二天之謂而太陽之運行也 七緯者七地之謂而月之運行也

太陽東西運行歷經線 故爲二天之經也 月則與日合朔而後에 十五日 望月은 日在北緯則月在南緯 日在南緯則月在北緯 每與日以緯線相對 故爲七地之緯也

正易八卦圖의 十乾五坤二天七地는 天地圜行圖의 震巽相易과 坎離相易에서 由來한 것이다 震巽相易은 天地의 雷風의 氣의 變化이오 坎離相易은 日月行路의 變化이며 雷風의 氣의 變化와 日月行路의 變化는 乾坤의 中宮에서 行하니 이 中宮의 位를 十干으로써 表示하면 戊己가 되는 것이오 戊己는 己十戊五가 十乾五坤의 象이오 乾坤이 長男震 長女巽을 生하고 震巽이 또한 十五의 數가 되므로 天地圜行圖의 十震은 十己位에서 作用하여 震과 己가 東南에 있고 五巽은 五戊位에서 作用하여 巽과 戊가 西北에 있는 것이며 天地圜行圖의 震巽相易하여 震이 西北에 옮기고 巽이 東南에 옮기니 이가 곧 金火正易圖의 震과 戊가 西北에 同居하고 巽과 己가 東南에 同居하는 所以이다 戊己中宮에서 雷風의 變化하는 것이 곧 金火가 正易하여 日月의 變化하는 張本이 되는 것이니 乾坤天地雷風中 天地壯觀雷風宮卦之震巽

中位正易 雷風正位用政數는 모두 中宮의 戊己位에서 雷風의 變化하는 理를 말한 것이다

中宮日月의 位는 天地圜行圖에는 東北의 離가 日位가되고 西南의 坎이 月位가되는데 金火正易圖에는 坎離가 相易하여 離와 月이 西南에 同居하고 坎과 日이 東北에 同居하니 이가 日月行路의 變化이며 先天復上月正明金火日生宮은 달의 行路의 變化함을 말한 것이다

周天의 度數는 三百六十度인 三百六十日인데 三百日은 物이 生長하여 形顯하는 日數로되고 六十日은 物의 作用이 內部에 藏하여 變化를 行하는 日數(藏諸用)로 되므로 그 藏하는 度數가 또한 六十數로되며 이 六十數는 六十甲子를 表示하여 戊己中에 分張되는 것이니 無無位六十數一六宮分張이라함은 中宮의 六十數가 一巽風 六震雷의 一六宮戊己中에 分張됨을 말함이다

戊位 己位

六十甲子를 中宮의 戊己宮에 分張하면 東南巽이 己位에 當하고 東南의 陰支는 巳이므로 己는 己巳宮이되며 己는 無極十數이므로 己巳宮은 無極體位가 되는 것이다 西北震이 戊位에 當하고 西北의 陽支는 戌이므로 戊는 戊戌宮이되며 戊는 皇極五數이므로 戊戌宮은 皇極體位가 되는 것이다 己位는 十數로서 十乾의 象이 되고 十乾은 十紀로서 組織體의 本體인 無極이 되므로 六十甲子全體를 一圜하여 己巳宮으로부터 다시 己巳宮에 돌아와서 六十一度가 되어 度가 成道하고 無極十이 곧 太極一이므로 己巳宮은 太極의 象인 太陽을 生하는 父가 되는 것이오 戊位는 五數로서 五坤의 象이되고 五坤은 五綱으로서 組織體中의 벼리줄인 皇極이 되므로 六十甲子의 中央인 戊戌宮은 月의 生하는 母가 되고 皇極體位는 戊戌宮으로부터 太陽의 生하는 己巳宮의 三十二度에 이르러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度가 成道하는 것이다

度道의 度는 六十甲子이오 道는 東에서 西로 行하는 道程이니 己位는 太陽의 父이오 太陽은 六十甲子의 度는 逆하여 己巳 戊辰으로 行하고 道는 東에서 西로 行하여 順하며 戊位는 月의 母이므로 月은 六十甲子의 度는 順하여 戊戌 己亥로 行하고 道는 西에서 東으로 行하여 逆하는 것이다

己位와 戊位의 組織을 보건대 己位는 四金 一水 八木 七火의 中에있어 庚壬甲丙으로되고 庚壬甲丙은 光明의 政을 行하는 無極의 位이므로 先天火木太陽의 父가되어 太陽은 七火의 氣와 八木의 體로써 되는 것이오 戊位는 二火 三木 六水 九金의 中에 있어 丁乙癸辛으로 되고 皇極의 位이므로 后天水金太陰의 母가되니 月은 皇極의 位로써 母로 삼아 그 體는 母로부터 受하고 있으되 그 光明은 太陽의 父인 己位로부터 受하여 一水 四金으로써 光明을 삼는 것이다

戊位己位에서 雷風의 氣가 變化를 行하여 日月의 父母가 되어 日月의 變化를 生하고 이 戊己日月이 變化하여 正易八卦圖의 中央의 二天七地가 되니 그러므로 金火正易圖의 戊己日月의 開闢은 곧 正易八卦圖의 二天七地이오 이가 또한 十紀二經五綱七緯이다

西北과 東南의 戊己雷風은 地球의 磁氣線이오 磁氣의 있는 곳에 반드시 電氣가 있는 것이므로 地球의 西北 東南은 雷風線이며 先天에는 坎離의 水火線이 地軸이되고 后天에는 磁氣의 雷風線이 地軸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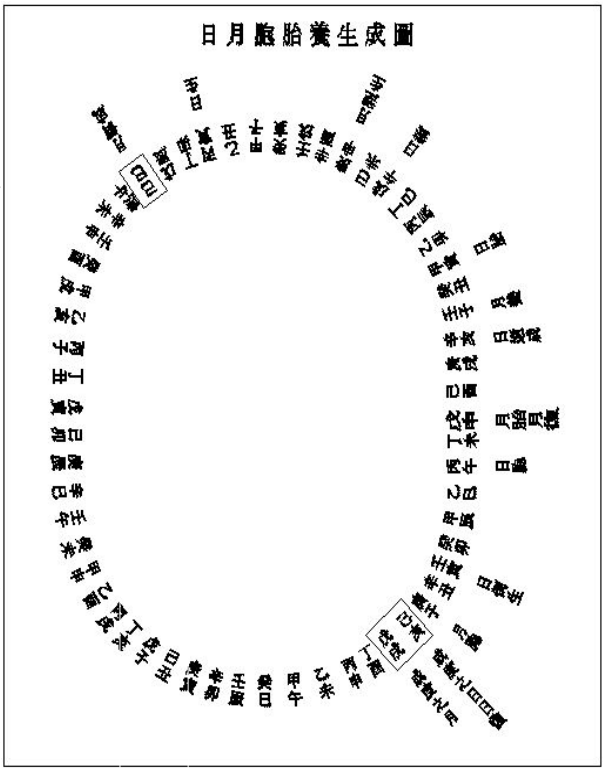
度成道라 함은 日月의 行度가 그 運行을 完成한다는 뜻이니 달은 太陽의 生하는 己巳宮으로부터 一水四金의 光明을 받는 것이므로 달의 母인 戊位皇極은 또한 己巳宮에서 太陽의 光明을 受하여 그 運行을 完成하는 것이니 이가 戊位와 달이 함께 己巳宮에서 度成道하는 所以이다 太陽의 父는 己位인 無極己巳宮이오 己位는 그 光明이 달의 母인 戊位에 비춰서 戊位가 度成道하는 곳에서 己位도 度成道하는 것이므로 己位는 己巳宮에 圜行하는 때에 度成道하는 것이며 이는 母가 子息을 生하는 때에 그 母와 父가 함께

父母의 位가 成함과 같은 것이니 戊位가 己巳宮에 가서 달의 光明을 받는 때에 戊位와 己位가 모두 父母의 度가 成道하는 것이다

己位戊位와 달은 모두 己巳宮에서 度成道하는데 오직 太陽은 달을 遇하여 달에 光明을 施하는 때에 度成道하는 것이므로 太陽은 달의 度成道하는 己巳宮에서 十八度以遠에 있는 辛亥에서 度成道하는 것이다

太陰逆生倒成

戊位는 后天 水金 太陰의 母이므로 太陰은 戊位인 戊戌宮皇極에서 生하니 이것을 成度라 한다 달은 己位로부터 庚壬의 一水四金을 받으니 一水의 精을 魂이라 하고 四金의 質을 魄이라 한다 一水四金인 壬庚의 生함에는 十二支의 陽水陽金인 子申에서 胞胎養生하므로 戊戌宮의 皇極에서 始하여 庚子에서 胞하고 戊申에서 胎하고 壬子에서 養하고 庚申에서 生하니 戊戌에서 六十甲子의 終인 癸亥까지는 先天의 生長하는 過程이오 物의 生長은 逆이 되므로 달은 庚申에 逆生하는 것이며 庚申에서 后天甲子로 넘어가면 이것을 倒라 하는데 달은 己巳宮에 가서 度가 成道하므로 이것을 倒成이라하니 이가 곧 太陰의 逆生倒成이다 逆이라함은 下로부터 上升함이오 倒라함은 上으로부터 下顚함이라 太陰의 逆生이라



함은 太陽의 水金의 陽精을 受하여 生長하여 上升함이오 倒成이라 함은 先天으로부터 后天 己巳宮으로 넘어올때에 그 體가 顚倒하여 表裏가 相易하는 것이다 달이 皇極中에서 生한 까닭에 后天달을 皇中月이라 한다

太陽倒生逆成

己位는 先天火木太陽의 父이므로 太陽은 己位인 己巳宮 無極에서 生하는 것이나 太陽은 恒常하여 終止함이 없고 그 陽精을 皇極宮의 달에 施하는 것으로써 度가 成道하는 것이며 太陽이 달의 生하는 皇極宮에 施精함에는 己巳宮의 相對인 己亥宮에 施하는 것이니 이는 己巳宮의 日光이 그 半圓인 己亥宮에 直射하는 까닭이다

太陽은 七火의 氣와 八木의 體로써 陽精을 施하는데 七火八木인 丙甲의 生함에는 十二支의 陽火陽木인 午寅에서 胞胎養生하므로 己亥宮의 皇極中에서 始하여 丙午에서 胞하고 甲寅에서 胎하고 戊午에서 養하고 先天을 지나서 后天甲子로 넘어가서 丙寅에서 生하니 后天에 넘어가서 生하므로 이것을 倒生이라 하며 太陽의 倒生이라 함은 陽精이 顚倒하여 달에 入함이니 이는 丙寅에서 生한 陽精이 달의 庚子四金胞中의 壬寅一水에 倒入함이오 丙寅陽精이 壬寅에 倒生하는 것은 太陽이 陽精을 달에 施하여 日月의 合朔하는 象이며 太陽은 己巳宮에서 己亥宮에 施精하고 있으므로 그 度의 成道하는 것도 또한 亥에서 하여 太陽이 辛亥에 이른때에 달이 비로소 光을 發하여 太陽의 度가 成道하는 것이다 太陽의 陽精이 壬寅에 倒入하면 辛亥로 逆行하는 동안 生長하여 度成道가 되므로 이것을 逆成이라 하니 이가 곧 太陽의 倒生逆成이다

太陽이 丙寅으로부터 壬寅에 倒生하는 것은 二十四度의 倒行이니 (序卦의 胎宮이 二十四爻로서 二十四度의 象인데 太陽의 二十四度 倒行은 陽精이 胎宮에 入하는 理이다) 이는 日月軌道의 變化의 象이며 皇極宮에서 戊戌

의 달이 앞에 있고 己亥의 太陽이 뒤에 있는 것은 달의 先迷의 象이오 倒逆生成한 後에 辛亥의 太陽이 앞에 있고 己巳의 달이 뒤에 있는 것은 달의 後得主의 象이니 後得主의 달이 곧 金火正易한 뒤의 后天달이다

太陽이 辛亥에 가는때에 달이 비로소 光을 發하는 것은 달은 太陽으로부터 十八度以遠에 있는때에 光을 發하는 것이므로 太陽의 逆成하는 辛亥로부터 달의 倒成하는 己巳까지는 十八度가 되어 달이 光을 生하는 것이다 太陽의 逆成이 바로 달의 倒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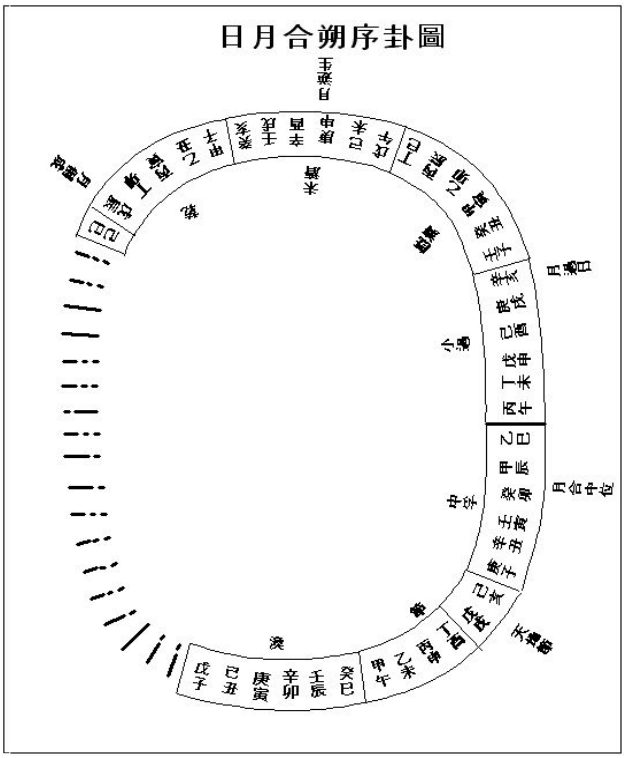
己位四金一水八木七火之中無極卽己庚壬甲丙也 己位有二 無極之己位卽己庚壬甲丙之中之己位 而乃己巳宮也 己位成度之日之己位 乃己亥而太陽 施陽精於皇極宮之己位也 無極之己位己十生陽干 爲先天火木太陽之父 而主光明之政令也 太陽生於己位 故太陽爲七火之氣八木之體也

戊位二火三木六水九金之中皇極卽戊丁乙癸辛也 戊位爲皇極宮 故爲戊戌宮 而戊五生陰干爲后天水金太陰之母 而主律呂也 戊戌宮爲太陰之母 故受己巳宮太陽所施之一水四金爲其魂魄 所以己位之庚壬甲丙中 庚壬之四金一水爲月之魂魄 甲丙之八木七火 爲太陽之氣體也 律呂之二火三木六水九金 皆在戊位皇極宮者也 日月交於皇極之時律呂生聲也

太陰在皇極宮 受太陽之四金一水之陽精 太陽胞胎養生(倒生於丙寅) 施四金一水之陽精於月胞之中 月胞於庚子壬寅의庚壬하니 太陽之施精 乃於月胞之四金庚一水壬也 故太陽之倒生在丙寅而其施精則 於月胞之庚壬之處 所以太陽倒生於月胞之壬寅也 又壬寅屯之水雷之象 而屯之天地之陽子之象也 盤古五化元年壬寅도 달이 太陽의 陽精인 四金一水가 壬寅에서 倒生하는 理를 取한 것이다

太陽之施四金一水는 胞胎養生於乾丙寅하고 丙寅에서 倒生하여 皇極의 月胞의 庚壬에서 施하니 乾丙寅倒生은 乾大明의 施精이오 中孚壬寅倒生은 中孚合朔宮의 皇極宮에 施精함이다

易序卦와 日月生成



乾의 大明은 日月의 光明을 말함이오 乾으로부터 乾策數의 二百十六爻는 明夷上爻인데 乾策數는 陽의 生長의 極數로 되어 있으므로 明夷에 大明의 終始하는 象이 있어 大象에 明入地中이라 하고 上爻에 不明晦初登于天後入于地라 한 것이다 乾坤策數는 周天三百六十度에서 온 것이니 周天三百六十度는 晝夜의 平均한 春分秋分의 때에 晝夜가 各 百八十度로 되어 있으되 日出前 十八度의 朝景과 日入後十八度의 暮景은 모두 晝에 屬하므로 晝는 百八十度에 朝景暮景의 合三十六度를 加한 二百十六度로 되니 이것은 太陽의 光明인 晝를 象한 乾策의 數이오 夜는 百八十度에서 朝景暮景 合三十六度를 減한 百四十四度로 되니 이것은 夜를 象한 坤策의 數이다

달의 消長에 이 三十六度의 理가 있으니 달은 每月에 一次씩 太陽과 合朔하는데 太陽前 十八度와 太陽後 十八度 合 三十六度의 사이에서는 달의 光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달은 三百六十度에서 三十六度를 除한 三百二十四度의 사이에서만 光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므로 달은 乾의 大明으로부터 三百二十四度에 當하는 兌까지에만 光을 나타내고 (胎宮四卦不計) 渙節中孚小過旣濟未濟의 六卦 三十六爻卽 三十六度는 合朔의 前後로서 달이 光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이이며 그러므로 달은 兌에서 十八度를 過하여

中孚에서 太陽과 合朔하고 다시 十八度를 過하여 后天乾에 넘어가서 다시 光을 生하는 것이니 이가 大明終始의 理이다

先天의 달은 어디에서 長하는가 하면 달은 반드시 坤의 달이 乾의 大明의 光을 受하여 初生하는 震下連의 象이 되어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坤震의 合한 復卦가 先天의 자라는 달이 되어 剝卦에 消息盈虛天行의 象과 復卦에 七日來復剛長의 象이 있는 것이오 또 復卦는 乾大明으로부터 二十四卦 百四十四爻의 坤策數에 當하여 坤이 乾大明과 相對하여 光을 受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先天의 달은 復에서 起하고 復에는 天地之心이 있으므로 復上에 起한 先天달을 天心月이라 한 것이며 復上月은 太陽의 앞에 있어 先迷의 象이 되므로 復 上爻에 迷復의 象이 있는 것이다 復上月은 어디에서 終하는가 하면 달은 三十日에 晦하는 것이므로 復으로부터 三十卦가 되는 兌에서 終하는 것이니 이는 前記한 三百二十四度의 理와 相符하는 것이다

終 復 成度之年

終이라 함은 그 政令을 終함이니 달은 戊戌皇極의 母宮에서 生하는데 다음의 己亥는 太陽의 施精하는 곳이므로 己亥는 달의 政令의 終하는 곳이 되는 것이오 太陽은 달에 施精하는 位에서 終하는데 辛亥는 太陽이 달보다 十八度以遠에 있어 달에 施精하고 政令이 終하는 곳이므로 太陽은 辛亥에서 終하는 것이다

復이라 함은 外로부터 內에 入함이니 月復이라 함은 달이 內에 入하여 始生하는 것이므로 月胎의 戊申이 또한 月復이 되고 日復이라 함은 太陽의 陽精이 月體中에 入하는 것이므로 月終하는 己亥가 또한 日復이 되는 것이다

日月은 모두 그 本位에 復하고 그 相對位에서 終하는 것이니 달은 戊位의

母位에서 生하므로 또한 戊位에 復하는데 母位戊戌은 先天月의 尊空되는 곳이므로 月胎의 戊申에 復하고 그 相對되는 己位에서 終하는 것이다 太陽은 己位의 父位에서 生하므로 또한 己位에 復하여 그 施精한 己亥에 復하고 그 相對되는 戊位에서 終하는 것이다

太陽이 己亥에 復하고 달이 戊申에 復하여 太陽이 앞에 復하고 달이 뒤에 復하므로 또한 後得主의 象이 된 것이다

終과 復에는 成度之年을 말하여 胞胎의 成度之月成度之日과 相異하다 胞胎의 理에 있어서는 달의 一水四金은 成度한 月에 胞하고 太陽의 七火八木은 成度한 日에 胞한 것인데 終과 復은 月과 日自體의 終復하는 것이므로 月日은 年의 속에 있다하여 成度之年이라 한것이니 이는 日月의 胞胎 養生成의 干支는 日月을 表示하는 度로 되어있고 終復하는 戊申己亥는 年을 表示하는 度로 되는 까닭이다

胞胎之理에 있어서는 戊位 成度之月의 初初一度가 己亥이오 初一度가 庚子인데 달은 太陽의 施精하는 己亥에서 終하므로 己亥는 달의 度數가 되지 못하고 一水의 곳인 庚子 初一度에서 胞하는 것이니 이가 初初一度의 有而無이오 太陽은 己亥가 成度의 日이오 七火의 곳인 丙午에서 胞하나 初初一度인 庚子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度數는 庚子에서 起하여 一七度인 丙午에서 胞하는 것이니 이가 初初一度의 無而有이다

成度之年은 胞胎의 理와는 相異하여 日月自體의 終復하는 것이므로 戊位는 戊戌이 初一度가되고 己位는 己亥가 初一度가 되는 것이다 太陽은 先에 辛亥에서 終하고 後에 己亥에서 復하니 太陽의 度는 逆하므로 癸亥 壬戌의 序로 逆行하면 辛亥가 先하고 己亥가 後하는 것이다

三十과 三十六

달은 一水四金인 까닭에 스스로 陽水 庚子에서 胞하여 一度가되고 陽金 戊申에서 胎하여 九度가되고 陽水壬子에서 養하여 十三度가되고 陽金 庚申에서 生하여 二十一度가 되고 己巳宮에서 成하여 三十度가되니 三十度는 一個月 三十日의 理이다

太陽은 七火八木인 까닭에 스스로 陽火 丙午에서 胞하여 七度가 되고 陽木 甲寅에서 胎하여 十五度가 되고 陽火 戊五에서 養하여 十九度가되고 陽木 丙寅 - 壬寅에 生하여 二十七度가 되고 辛亥에서 成하여 三十六度가 되니 三十六度는 太陽의 陽精의 자라는 日數로서 六十數中의 三十六數가 乾策數로 되는 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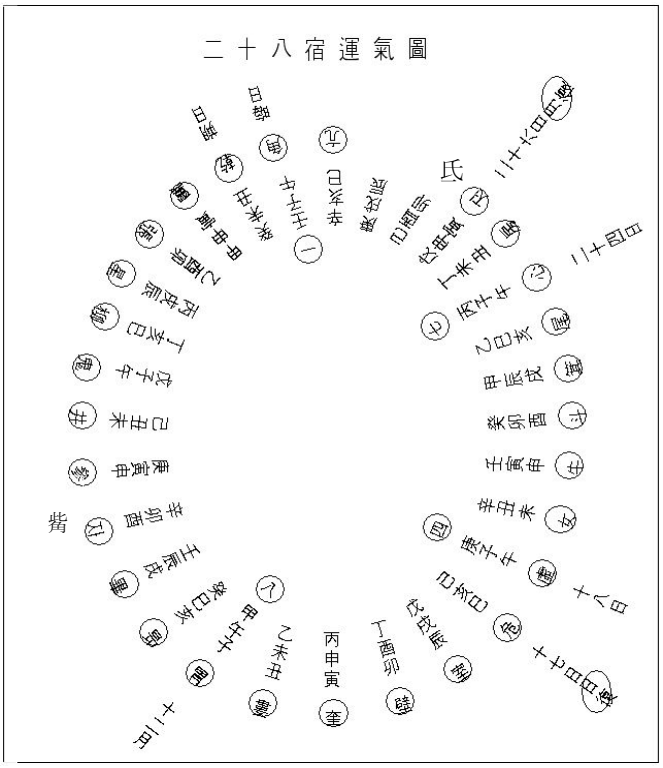
太陽의 成하는 亥位와 달의 成하는 巳位는 先后天境界의 象이 되어 己甲夜半生 癸亥하고 二十四節候의 巳月에 雷和風化가 있고 亥月에 金火의 正和明化가 있는 것이다

太陰逆生倒成 太陽倒生逆成

太陰은 龜書의 象으로서 旣濟의 數이오 先天이므로 逆生倒成하면 太陽의 뒤에 있어 先天而后天 旣濟而未濟가 되는 것이오 太陽은 龍圖의 象으로서 未濟의 象이오 后天이므로 倒生逆成하면 달의 앞에 있어 后天而先天 未濟而旣濟가 되는 것이다

復之之理

復이라 함은 日月光明이 外로부터 內에 入함이니 月復于子晦가 그 一例이다 日月은 水火이오 子午는 水火의 正한 것으로서 陰陽開閉하는 位(噬嗑과 節의 剛柔分의 例)이므로 日月運行의 變化는 子午에서 行하는 것이며 日月



의 光明은 己位에서 生하는 四金一水八木七火의 庚壬甲丙으로써 되고 있으므로 子午가 庚壬甲丙을 合한 庚子午 壬子午 甲子午丙子午에서 行하는 것이다 이것을 四方의 位로써 보면 壬子午는 北이오 甲子午는 東이오 丙子午는 南이오 庚子午는 西이다

太陰의 復之之理 一八七이라 함은 一은 壬子午의 北이오 八은 甲子午의 東이오 七은 丙子午의 南이다 달은 그 數가 全치 못하여 盈虛가 있어 太陽의 運行과 比較하면 太陽의 半밖에 運行치 못하므로 北에서 晦한 後에 東에서 生하고 南에서 望하고 이렇게 天圓을 半周한 後에 虧하기 始하여 母位인 戊位에 復하는 것이니 北은 壬一이오 東은 甲八이오 南은 丙七이라 이가 달이 度順道逆하여 晦日의 壬子午 十二日의 甲子午 二十四日의 丙子午를 行하는 一八七이오 戊位는 月胎의 戊申이다

太陽의 復之之理 一七四라 함은 一은 壬子午의 北이오 七은 丙子午의 南이오 四는 庚子午의 西이다 太陽은 그 數가 全하여 北에서 夜한 後에 南에서 日中하고 西에 日昃하여 天圓을 一周하고 施精하는 位인 己位에 復하는 것이니 北은 壬一이오 南은 丙七이오 西는 庚四이라 이가 太陽이 度逆道順하여 北南西를 行하는 一七四이오 己位는 施精하는 位인 己亥이다 太陽은 施精하는 것이 昃의 象이오 昃의 象이 復이다

五日一候

候는 모두 艮兌의 三八數를 中心하니 이는 艮兌가 달의 體가 되는 까닭이다 初三日月魂生을 中心하여 一二三四五의 五日間 一候가 되고 初八日上弦을 中心하여 六七八九十의 五日間一候가 되고 十八日 化節을 中心하여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의 五日間一候가 되고 二十三日下弦 二十八日 月窟이 모두 一候의 中心이다

十日一氣는 十干이다

十五日一節은 初三日 和와 十八日 化이다 또 晦望과 上弦下弦도 十五日一節의 理이다

三十日 一月은 一合朔日이다

十二月 一朞는 十二月間에 太陽이 一周天함이다

十五分一刻

一歲와 一日은 모두 太陽의 運行을 基礎로하여 그 理가 同一한 것이므로 一歲에 十二月이 있음과 같이 一日에 十二時가 있는 것이다 十二時는 一晝夜의 時間인데 太陽이 一晝夜에 三百六十度를 一周하므로 三十度를 지내는 동안을 一時間이라 하니 三十度는 一個月 三十日의 理이므로 十二時는 十二月의 理이다 달은 一個月에 三百六十度를 一周하여 太陽과 合朔하는데 一日에 十二度를 度順하여 行하므로 一度를 一時間으로 하여 一日 十二時가 되는 것이다

時間以下는 無形한 空에서 有形한 數가 生하는 것인데 數의 圖像이 처음으로 神의 啓示에 依하여 有形化한 것은 洛書九宮圖이오 洛書九宮은 縱으로

나 橫으로나 對角으로나 三數씩을 合하면 十五인 數가 八個이니 十五數는 無形한 空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乾坤生命元의 數이다 時間의 最低單位를 分이라 하여 十五分을 一刻으로하고 八刻을 一時로 한 것이다

또 物象이 처음으로 有形한 圖像으로 化한 것은 八卦이오 每卦를 上卦와 下卦로 因重하면 一卦의 數가 十五이니 八卦는 八刻의 象이오 十五卦는 十五分의 象이며 八刻이라는 刻字는 始劃八卦라는 劃字와 相照하는 것이다

天地合德 三十二

天地合德者 皇極體位度數也 皇極 戊位 在中位而日月合朔 故爲天地合德也

地天合道者 無極體位度數也 無極 己位 地十己土爲太陽之父位 而行天道所謂地十爲天者也 故爲地天合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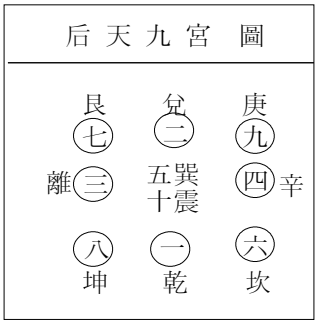
日月同宮者 日月同在戊戌己亥宮 月極體位度數初初一度有而無 日極體位度數初初一度無而有也 日月同度者 太陽與月同度而行 太陽之位在月之前 爲先天月之位在太陽之後爲后天也

三十六宮先天月者 太陽度成道於三十六而三十六度 爲太陽之宮也 先天月與太陽合朔 自三十六宮出而逆生倒成 此三十六宮先天月也 月度成道於三十爲后天之月 此大明后天三十日也

四象分體度

百五十九者 無極體位度數六十一 皇極體位度數三十二 月極體位度數三十 日極體位度數三十六之合算也

一元推衍數二百十六者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之一乎一夫之合算也



政者 日月光明之政也 金火正易 月之後得主乃光明之政也 水火者 旣濟也 火水者 未濟也 后天政於先天水火者 太陽之后天而先天 未濟而旣濟也 先天政於后天火水者 太陰之先天而后天 旣濟而未濟也

此言 太陰在太陽之後爲后天 太陽在太陰之前爲先天 此乃金火之正易也

金火一頌（后天九宮圖）

이는 伏羲卦圖의 數가 后天九宮數로 變한 것이다 金火明은 卦之離乾이니 乾은 金이오 離는 火이며 后天九宮의 東北正位이다

金火明은 乾離로서 聖人南面聽天下의 象이 되므로 聖人垂道라 한 것이다

水土平은 卦之坎坤數之六八이니 坎은 水이오 坤은 土이며 后天九宮의 北東維位이다 水土平은 坤坎으로서 師를 行하는 象이 되므로 將軍運籌라 한 것이다

洗鋤歲功成者 干之庚申 數之九四이니 庚申은 金으로서 西方에 있어 秋節과 鋤의 象이 되므로 秋에 收穫하는 歲功을 말한 것이오 農夫는 秋收를 象한 것이다

畵工却筆雷風生은 卦之震巽數之十五이다 天工의 啓示가 蒼空에 나타난 것을 사람의 人工이 筆로써 畵하여 一張圖畵가되고 雷風이 正位하여 金火互易의 政을 行한다 함이니 이는 布圖詩의 一張圖畵雷風生誰識天工待人成의 뜻으로서 金火正易하는 때에 戊己의 位에서 雷風이 變化를 行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德符天皇은 卦之艮兌數之二七이다 天은 天心이오 皇은 皇心이니 天心月과 皇心月을 말함이오 이는 艮兌의 달이 天心月로부터 皇心月로 變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艮兌는 그 德이 天心月 皇心月과 符合하여 后天月의 體가 되는 것이오 不能名이라 함은 二頌의 吾皇大道의 뜻을 말함이다

喜好는 喜黃河之一淸 好一夫之壯觀의 喜好이오 一曲은 黃河之一淸 一夫之壯觀之歌樂이다 鳳者神靈之鳥而鳥常少似雛者也 故謂瑞鳳而象 艮兌之少男少女也

鳴者震之聲 而震之反艮亦有鳴聲 故謙豫皆有鳴象也 艮兌者震巽之反 而艮兌之所以成形質者 以其有雷風之氣在中也 故后天九宮之中宮有雷風之氣 正位用政而艮兌二少 在中宮之胎中 而長育爲后天之月也

艮兌之山澤爲黃河之一淸 黃河乃山澤也 震巽之雷風爲一夫之壯觀 大壯卦與觀卦乃雷風也 山澤之淸 雷風之生乃喜好之一曲 歌此 山澤淸 雷風生之一曲而瑞鳳鳴也 雷風者太陽之氣也 艮兌者月之形質也 日月合朔하는 二火 三木 六水 九金의 中에 戊位皇極이 있고 거기에서 律呂聲이 發한다 震巽之太陽 艮兌之月이 合朔하는 때에 律呂聲이 發하므로 이것을 瑞鳳鳴이라 한 것이다

二頌 (金火互易過程)

吾皇大道는 皇心에서 皇中月의 生하는 道이다 吾皇大道當天心이라 함은 天心은 洛書中宮의 五인데 后天의 皇極中心月이 先天天心의 位에 當하여 皇心月이 된다 함이다 氣東北而固守라 함은 洛書의 東北 一六三八이 그대로 后天河圖九宮의 東北 一六三八이 된다 함이다 后天九宮의 東北 一乾 八坤 三離 六坎은 곧 天地日月로서 그 卦象이 反易이 없고 顚倒하여도 變치 아니하니 이것도 또한 氣東北而固守의 象이다 理西南而交通이라 함은 理西南

對氣東北而言 東北固守者氣之質也 西南交通者理之作用也 后天九宮圖 中央十五雷風作用於西南 南有二七 西有四九 行金火互位之政也 十五二七者 雷風山澤而亦十紀 二經 五綱 七緯之數 而爲戊己日月之象 故東北之天地日月固守而不變 西南之雷風山澤交通 洛書之南四九西二七 變爲后天九宮之南二七西四九也

庚金九而氣盈者 地十己土生天九庚金之一節 長之時運 生長之象也 庚金 太陽光明之象 故月受之而度成道生光明也 洛書之庚之度數九 而后天原度數爲四今己生陽干之時庚金爲九 此長之時運 太陽之氣 盈於九 而進也 丁火七而數虛者 洛書之丁之度數二 而后天原度數 亦爲二今戊生陰干之時丁火爲七 丁火月之象而今變爲七者 乃月數之過盈者也 太陽無消長 故氣盈則進 月有消長 故數盈則消而虛爲二而退也 故長之時運에 太陽之氣盈九而進於前 月之數虛二而退於後也 太陽之九前進 月之二後退 卽是洛書之南九進 而爲后天九宮之西南九洛書之西南二退 而爲后天九宮之南二 爲九二金火之互易也

化權者 化乃化生 化成 化三碧之化而萬物之씨之元인 雷之作用也 權乃巽以行權 風之作用也 經天地之化權者 雷風在戊己中宮 行金火互易之權也

風雲動於數象 = 以下言雷風山澤之交互作用也

風雲者 巽風艮雲也 歌樂者 兌口之歌震雷之樂也 易理 巽爲陰股 艮爲陽氣而天地相交之象此於己位 地天合道之象也 巽五艮七亦五坤 七地 五綱 七緯之數故爲己位地天之合道也 震爲陽體精子 兌爲陰體卵子而天地絪縕之象 此於戊位天地合德之象也 十震 二兌 亦十乾 二天 十紀二經之數 故爲戊位天地之合德也

數象者 數乃龜書旣濟之數而先天也 象乃龍圖之未濟之象 而后天也 天地以巽艮相動而日月倒逆生成 爲先天太極后天無極也 武文者 武乃武功平胃散之甲午甲子之八也 文乃文德養心湯之丙午丙子之七也

章者 陰體受陽光有文采者也 日月以震兌相章而以一八七爲月復而爲后天之月也

喜黃河之一淸者 黃爲土色 河爲水乃山澤也 山澤之一淸乃后天月之淸明也 一夫者 雷風之謂 一夫先生之諱 恒言雷風也 壯觀者 大壯卦與觀卦也 大壯卦雷在天上而亦爲大兌也 觀卦風行地上而亦爲大艮也 故大壯有兌羊之象 觀有艮門之象也 大壯觀言雷風無形之氣在中 而山澤之形顯於外 雷風太陽之氣山澤月之形也 喜黃河好一夫之一曲 乃雷風太陽之氣 在中宮而行日月之政 於西南金火互易 后天山澤之月淸明也

風三山而一鶴者 風乃天氣下降 接地而陰陽之相交謂之風 乃巽風之象也 山者艮而陽根也 鶴中孚之兌爲鶴也 風三山而一鶴者 巽遇艮而三變爲兌也 天地圜行圖 巽之變兌也에 巽自天降而 於二天顚倒而爲兌(巽股離宮卵子之三段)巽天兌爲三變也 此言風雲動之象也

化三碧而一觀者 化乃震也 碧者深靑而澤色 故碧乃兌澤之象也 觀者 觀卦之艮象而觀亦鳥名也 化三碧而一觀者 震遇兌而三變爲艮也 震之變艮也에 震自地出而於七地 顚倒而爲艮(震刈坎陽精水 艮胎兒之三段)震地艮爲三變也 此言歌樂章也 一鶴一觀者艮兌而 此言因雷風而艮兌相遇爲月也 觀於此而大壯者 觀乃風地而大艮 故風三山之象也 大壯乃雷天而大兌 故化三碧之象也 天地組織之卦 雷風山澤同宮者 澤山咸 雷風恒也 坤中包乾 故爲組織之象也(風雷益 山澤損則天包地而圜行 故非組織之卦也)

咸恒爲收斂組織而自先天之生長 越於后天之成 故咸言禮義有所錯者 禮三千而義一之意也 生長則 枝葉多歧故爲三千 禮屬夏而爲生長之象故三千也 成實則열매結成故爲一 義屬秋而成實之象故一也 禮三千先天也 義一后天也

三頌　正易八卦圖

北窓者 北之十乾之闢戶也 淸風者 乾北之氣 應南坤而下降於地爲風象 乾爲金而后天金淸 故言淸風也 無絃琴者 象震之樂而震之氣無形 故曰無絃也 此言乾與震 同居於北也

東山第一三八峯者 東方之八艮山而兼言 相對方之三兌澤也 次第登臨者 登於艮山臨於兌澤也 山澤通氣故言東西艮兌之相連也

孔子登東山而小魯者 象正東之艮山也 艮爲頭象而脫巾則擧頭之象也 壁者地之側面而艮爲土爲石 故言不壁也

自艮而南望則有巽坤 巽爲長木故曰靑松 坤爲偶土故曰短壑也 此言坤與巽同居於南也

西塞山前者 西之兌澤而兼言相對方之八艮山也 山澤通氣 故言東西艮兌之相連也 白鷺飛者 合兌鶴艮觀而言也

懶搖白羽扇者 四九之坎離也 四九金爲白 離鳥名 坎之習爲鳥數飛 故言羽也 坎離相易 震巽相易 雷風之氣動 坎離之羽 此搖扇之象也

俯瞰赤壁江者 二天七地也 二七火爲赤也 江者天地之氣相通則 爲涉大川之象故曰江也 壁言地之側面 二天之江流於地之側面 此赤壁江也 俯瞰者天之向地也

赤赤白白者 二天七地與四坎九離 交互之謂也 學仙侶者 儒佛仙而一夫眞蹈 此一夫先生諱 雷風恒則學仙侶者 雷風也 正易之中宮 有二天七地之赤赤 四坎九離相易之白白 又雷風相易 此雷風中位正易之象也 雷風之中位 乃皇極宮而皇極宮有律呂聲 此雷風吹簫之象也 雷爲樂器之簫 風爲吹也 明月者 東西運行之艮兌之月也

四頌　天地日月之變化

四九二七金火門은 古人 意思不到處 洛書之南有四九西有二七 乃金火門也 九爲太陽之象 二爲月之象 洛書太陽在後 月在前 此晦間日月之位之象 而先迷之月也 先迷之月 爲先天也 自先天越后天則 太陽進於月前月退於太陽之後 此初生之月 而後得主之象也 而謂之金火門開也 后天九宮圖象金火門之開 故九在西南 二在南爲太陽在前月在後之象也 金火門之理 古人意思之全然不到處 故古人讀易全然不曉易理也

一六三八左右分列者 天地日月如洛書之位 氣東北而固守也

古今天地라 함은 今天古地라는 뜻이니 地는 古地대로 있는데 天에는 日月의 軌道가 變하여 今天이되니 이는 一大壯觀이오 大壯觀은 二頌의 觀於此而大壯의 뜻이다

今古日月이라 함은 古日今月이라는 뜻이니 太陽은 古太陽대로 있는데 달은 變하여 今月이되니 이는 第一奇觀이오 第一은 東山第一三八峯의 뜻으로서 東山의 달을 奇觀이라 한 것이다 七月은 七艮山의 달이라는 뜻이며 周德在茲 二南七月 二南七日者 后天九宮에 二七이 南에 있어 金火가 互易할 것을 豫示한 것이므로 周公聖德을 景慕한 것이다 七月이라함은 二兌七艮에月의 象이 있다는 뜻을 寓한 것이다 夫子之上律下襲至于今日과 無極之無極 夫子之不言과 夫子之不言是今日은 皆金火交易之事也

五頌

晦朔弦望 進退屈伸 律呂度數 造化功用 皆日月之政也 立者 日月之政立也

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 乾坤毁則無以見易 易不可見則 乾坤或幾乎息 易者日月運行之法則 卽日月之政也 乾坤成列者 金火正易也 日月之政立而金火正易

故乾坤不毁而有古今天地 今古日月也

日月之德 天地之分

天地는 統一하여 區分이 없는데 日月運行에 依하여 地上에 四時晝夜의 區分이 生하니 이가 日月의 德으로 因하여 天地에 分이 生한 것이다 宇宙는 無形하여 空한 것인데 처음으로 日月의 運行에 依하여 十五라는 數가 生하니 그러므로 天地의 區分은 十五分에서 始한다

八刻十五分之理 前已言之分生空空無位者 乾坤生命元 無位無形而先天之乾九坤六 后天之十乾五坤 皆是十五之數 此十五之數生於無位之空 而爲時間最初單位之分者也

一夫之朞

三百七十五度者 四象分體度 百五十九 合一元推衍數 二百十六者也

四象分體度는 己位의 無極體位度數 六十一과 戊位의 皇極體位度數 三十二와 太陰의 月極體位度數 三十과 太陽의 日極體位度數 三十六을 合한 것인즉 一朞의 度數中에는 一元推衍數 二百十六 四象의 六十一 三十二 三十 三十六이 合하여 있는 것이니 이 五者가 어떻게 合하여 周天의 三百七十五度가 되는가하면 日月이 運行하여 合德 合道 同宮 同度하는 동안에 스스로 이 五者의 作用하는 數가 있는데 이것을 各其 分類하여보면 이 五者의 數가 區別되고 이것을 合하여 보면 三百七十五度의 一朞度數가 되는 것이다

二百十六은 乾策數이오 四象分體度 百五十九의 속에는 乾策數와 重複한 것이 있으므로 이 重複한 數가 尊空되는 것이다 尊空이라 함은 先天을 不用

하는 것을 말함이니 先天의 尊을 不用하는 까닭에 尊待하기만하고 空位로 둔다는 뜻이다

無極體位度數는 己位의 己巳에서 始하여 度逆하여 一六宮에 分張한 六十數를 一圜한 것이므로 六十一이되고 無極體位度數이므로 乾策數와 重複됨이 없다

皇極體位度數 三十二度에서는 先天의 戊戌一度가 尊空되고 또 乾甲子로부터 乾己巳에 至하는 先天六度가 重複되니 三十二度에서 一度와 六度 合七度가 尊空되면 餘가 二十五度이다

月極體位度數 三十度에서는 乾甲子로부터 乾己巳에 至하는 先天六度가 重複하여 尊空되면 餘가 二十四度이다

日極體位度數 三十六度에서는 乾甲子로부터 乾乙丑에 至하는 先天二度가 重複하여 尊空되면 餘三十四度이다

尊空이 合十五度이니 三百七十五度에서 十五度를 尊空하면 餘三百六十度가 后天의 一周天度數이다 四象體位度數만으로써 보면 百五十九度에서 尊空한 十五度를 除하면 餘가 百四十四로 坤策의 數가되니 그러므로 周天度數에서 陽의 生長하는 作用은 乾策數로 表現되고 無極皇極宮에서 日月의 交合하는 作用은 坤策數로 表現되는 것이다

五度而月魂生申

月之組織 有一水之精 四金之質 一水之精魂也 四金之質魄也 月之生光也에 水精先受光明 光明漸增則 金質之全面受光 故月魂言生 月魄言成也

五度者 月生於太陰之母 故太陰之母之戊位 爲五度 十干原度數 戊度數五 卽

五度也 五度而月魂生申은 달의 復하는 戊申이라는 뜻도되는 것이다

申戌亥子午辰巳者 非地上之方位也 乃月面之方位也 月魂生申 初三日者 初三日 月光始生於月表面之西南申方也 月光漸增 廻於亥方爲上弦 此月弦上亥也 光明又漸增則 自亥方向於中央 月之表面之中央爲午方 裏面之中央爲子方 光明布於中央則 全面皆受光 此月魄之成於午也 此乃望也 望者 月盈而將虧也 月盈而月虛爲先天 故望爲先天也 自十六日 月光又廻於東南方則 西北戌之一邊始虧 此月分于戌也 分生空 月於戌 其光空虛 故言分于戌也 光明又漸廻於東南巳方則 虧缺之面漸大而於巳爲下弦 此月弦下巳也 光明又廻於裏面則 辰方僅有殘光之窟 窟者月光之隱也 此二十八日之月窟于辰也 又漸廻於裏面則 月光隱於裏面之中央 此月復于子也 此乃晦也 晦者月消而將長也 月消而月長爲后天 故晦爲后天也

自望日以後 月在日前 故爲先迷 而月光漸廻於裏面而表面冥 月盈而月虛 此先天也 自晦以後 合朔月在日後 故爲后得主而月光 漸增於表面而月消而月長 此后天也

於亥上弦於巳下弦 亥巳者 后天日月運行之境界線也 弦者月面之中央境界線也 月之上弦下弦於亥巳之境界 亦后天亥巳 爲境界之理也

月合中宮之中位

中宮者 戊位二火三木六水九金之中 中位者 皇極位也 合朔於皇極中也

皇極中 有二火三木六水九金 六水九金收斂而會而潤是爲律也 二火三木 發揚而分而影是爲呂也 律呂者 火木金水一會一分爲開闢之鼓動運動而生聲 此律呂也 一日朔日月合朔之時太陽雷風之氣入於皇極中 二火三木六水九金應之而生律呂聲也

日月合朔 發光明與律呂如電氣衝激俱發光聲也 光明屬於目 律呂屬於耳 耳目者 聰明也 故人之聰明之原 自日月之光明律呂來也 人之天性自皇極中來合之太陽雷風之氣也

律呂度數

日月之合朔後에 每日相離之度數爲十二度 此一日十二時之根據也(先天則十二度十九分之七)

달이 光明을 나타내고 律呂를 生하는 것은 太陽雷風의 氣의 作用에 依한 것인데 光의 作用은 太陽으로부터 十八度까지 及하여 十八度以內에서는 달이 光을 나타내지 못하고 十八度 以遠을 지나간 然後에 비로소 光을 나타내는 것이며 聲의 作用은 太陽으로부터 九度까지 及하여 九度 以內에서는 달이 聲을 發하여 律呂가 되고 九度 以遠에서는 聲을 發치 못하는 것이니 이는 陽全陰半의 理에 依하여 光은 陽이오 聲은 陰이므로 聲은 十八度의 半인 九度에 까지만 及하는 것이오 九度는 九時間이므로 合朔日마다 九時間씩 律呂聲이 生하고 一歲十二朔에 百八時間을 律呂聲이 生하니 百八時間은 日數로는 九日이다

一歲에 律呂聲의 生하는 것이 日로는 九日이오 分으로는 一萬二千九百六十分이니 이것을 三百六十日에 나누면 每日 平均 三十六分間이다 이 每日平均 三十六分間의 律呂聲은 사람의 言語와 서로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理會本原原是性

理가 本原에 會하니 原은 이것이 性이오 性은 乾坤 天地 雷風中에 있는 것이다

理는 陰陽이 交合하여 調和하는 作用이니 日月의 合朔함을 말함이오 本原은 乾坤의 生命元이니 乾坤生命元의 本原에 陰陽이 交合하여 闔闢運動을 行하여 律呂聲을 生하는데 物이 生하면 반드시 性이 있는 것이므로 原은 곧 性이오 性은 乾坤 天地 雷風中에 있어 雷風의 氣로써 運行하는 것이므로 雷風의 行하는 곳에 性이 있는 것이니 이는 天行健의 理이오 그러므로 易卦名中에 心字를 从(從)한 것은 오직 雷風恒一卦이다

日月이 合朔하면서 달이 生하고 달에도 性이 있는데 거기에서 光明이 生하고 律呂聲이 生하는 것이며 사람도 日月에서 生하므로 사람에게는 光明에 擬한 天性과 律呂에 擬하는 言語가 있으니 言語는 곧 달의 律呂이며 이 言語는 天性속의 雷風의 氣에서 發하는 것이다 사람의 天性과 神은 그 原이 同一하므로 사람의 天性에서 言語가 發한즉 神도 또한 言語를 發하는 것이니 神也者妙萬物而爲言者也는 神이 言語를 發한다는 뜻이오 그러므로 神과 사람이 可히 더불어 酬酌하는 것이다 動物天性不全 故不能言語也

달의 律呂聲은 每日平均 三十六分間을 發하는데 사람도 職業的發言以外에 日月合朔과 같은 陰陽調和된 言語는 每日平均 三十六分間이라는 原理가 되는 것이다

宇宙는 乾坤生命元이 無形恒久한 雷風의 氣로써 用을 삼아 變化作用을 行하는 것이므로 易學에 天行健의 理가 있는 것이며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의 卦圖인데 震이 東方에 있고 巽이 東南에 있어 씨와 形質의 生長함을 主하는 것이오 日月은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하는 것이므로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갈 때에는 雷風이 中位에서 用事하여 모든 變化作用을 行하는 것이니 卦之震巽中位正易 雷風正位用政은 모두 이 뜻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日月이 合朔하는 때는 太陽의 雷風의 氣가 皇極宮에 作用하여 光明과 律呂가 生하는 것이오 사람에게도 光明같은 天性과 律呂같은 言語가

있는 것은 또한 雷風의 氣의 作用에 依한 것이다 天地間 生物中에서 처음으로 創造된 것이 植物인데 植物에는 天性도 言語도 없고 다음에 創造된 것이 動物인데 動物에는 天性은 있으되 極히 어둡고 言語는 不完全하여 聲만 있으며 그다음에 創造된 것이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光明한 天性과 音律의 調和한 言語가 있으니 이는 神이 神의 形象대로 사람을 創造하였으므로 神과 서로 通할수 있는 天性과 言語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神도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되고 있으므로 雷가 地上에 出하는 豫卦에 上帝의 象이 있고 風이 地上에 行하는 觀卦에 神道가 있는 것이니 사람의 天性과 言語가 神으로 더불어 서로 通하는 것은 또한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되는 까닭이다

雷風이 代天하여 日月의 政을 用하는데 一夫先生이 그 政을 任하시므로 天命에 依하여 名을 恒字로 고치시니 恒은 雷風이며 이가 斯儒斯佛斯仙一夫眞蹈此의 뜻이다

水土之成道天地

乾坤無形之生命元 而水爲有形之始 有水而後有火 顯形有水火而後有萬物之씨生爲木有씨而後有열매爲金 有水火木金 而後生命體成 而爲土也 天地者 無形之乾坤 爲有形之生命體者也 故取有形之始之水 與生命體之成之土 曰水土之成道天地也

天地合德則 天得地之中氣爲離 離爲日也 地得天之中氣而爲坎 坎爲月也 故日月者 天地之合德者也

太陽以雷風爲運行之氣 性發於雷風 雷風之氣 恒存而無虧 故曰性全也 理者陰陽相交調和之作用也 乾其動也直 而太陽屬乾 故太陽之陰陽調和作用其動也直 此乃理直者也

太陰은 消長하는데 數가 盈하면 氣가 虛하다 太陰盈一定之數則 氣虛而虧이는 長하고서 消함이다

盈하고서 虛함은 氣의 退함이니 先天이다 望爲先天者 自望之盈而後漸虛者氣之虛也 月在日前故盈而後虛 此先迷之先天也

消하고서 長함은 陰이 陽을 遇하여 後得主하여 調和하는 理이니 月在日後故消而後長 此后得主之后天也

后天之道屈伸

屈하고서 伸함은 곧 消하고서 長함이니 屈하고서 伸함은 晦의 後에 月在日後 一陰一陽하는 것이므로 后天의 道라 한 것이다

進하고서 退하는 政은 달이 盈하고서 虛함이니 政이라함은 日月光明의 運行을 말함이며 進하고서 退함은 望에서 光明의 政을 行한뒤에 月在日前爲先迷 故曰先天之政也 進退의 政은 달이 盈하고서 달이 虛함이니 달이 盈하여 望하는 것은 日月光明의 政이므로 進退의 政이라 한것이오 屈伸의 道는 달이 消하고서 달이 長하는 것이니 달이 晦에 消하고 다시 陽을 遇하여 一陰一陽하는 것은 日月의 一陰一陽하는 道이므로 屈伸의 道라 한 것이다

抑陰尊陽

天地間 一陰一陽 無尊抑之偏而人之心法則 向光明避昏暗 故自爲抑陰尊陽也月之光明之政 行於望 望爲先天 故曰 先天心法之學也

陽을 調節하고 陰을 律度하여 一陰一陽하는 것이 性理의 道이다 晦에서 달

이 日後에 있어 다시 자라고 一陰一陽하면서 陰陽調和하는 것이 調陽律陰이다 性은 雷風에서 發하는데 晦에서 日月이 交會하여 合朔이되어 一陰一陽하고 太陽은 雷風의 氣로써 運行하므로 雷風의 性과 日月陰陽의 調和하는 理가 곧 性理의 道이다 사람이 雷風日月의 性理作用을 法하여 天性이 光明과 같이 밝고 言語가 律呂와 같이 和한 것이 后天性理의 道이다

天地匪日月則空殼 故天地合德 生日月也 日月匪至人則虛影 故天地之道三元元降聖人也

潮汐之理

一六壬癸水位北 而宮南之火氣炎上 故水性就下 此水潮南天也 火氣上於北 此水汐北地也

水在北火在南 爲旣濟也 水火衝激 水潮南 火上北 爲未濟也

月之復之之理 一八七 一者壬水而北也 八者甲木而東也 七者丙火而南也 月之復也 自北方之壬方起而行 如四時之序而東流 自北方行乃水汐北地也 東流乃萬折必東也 自東而南乃水潮南天也 月行一八七之經路 自北而東而南則 復於戊申爲后天 此乃水火旣濟兮 火水未濟也 卽旣濟而未濟 乃太陰逆生倒成之理也

地一子水萬折于歸者 子水歸嫁之意也 先天子運歸於后天丑運則子水之于歸乃於丑也故先天月之卯歸於丑也

丁未四月晦 壬寅早 余在香積山夢東方水決溢於南 此豫定之事云

大哉金火門

大聖七元君 = 天地之道三元而元降聖人則天地人爲三元也日月星辰氣影一夫氣影五元門也則天地合日月星辰一夫爲七元一夫乃元所降之聖人也 故一夫爲大聖七元君也 潮汐之變化乃天地日月之政而一夫氣影 故特言七元君之政也 天地日月至人亦七元君之政也

金火門者日月合朔而九二錯綜之門 乃合朔中宮之門也

天地出入者兩也 日月星辰者四也 八風者八也 亦兩儀四象八卦之意也

天地出入者合朔之中宮有乾坤之戊己也 一夫者雷風之謂也 一夫出入者雷風在中宮用政也 三才者天地人也

日月星辰者 宇宙光明之所發也 氣影者氣與光明也

地軸 自水火軸 變於乾巽之磁氣軸 爲五元之世 天地清明日月光華也

風者陰陽相交之意 日月之中宮有一水四金七火八木二火三木六水九金乃八風也 一夫風者 中位之十雷五風 正位用政也 十無門者 八風與十五 乃自一至十 爲十無極之門也 雷風在中位 行無極太極皇極之作用 此十無門也

日月大明乾坤宅者 言日月生於戊五己十之乾坤宮也 天地壯觀雷風宮者 雷風在后天九宮之中位 日月之政生艮兌之月 壯觀者大壯觀也而雷風大艮大兌之作用也

先天復上月因中位雷風之政於乾宮 金火互易而爲后天皇中月 日生宮者日復之己亥宮也月復戊申日復己亥月在後日在前金火互易 此乃太陽復於 己位月復於戊位 日生而月明 此正明金火日生宮也 二十四節度數 亥月爲正和明化者 以亥宮爲正月生宮故也

復上起月

復上起月者 序卦之復卦 爲先天復上月也 坤卦以牝馬爲月象而復卦乃坤受東方太陽之光 故爲月象也 自乾至復 爲百四十四之坤策數 坤策數之卦受乾大明之光 故亦爲月象也 剝卦言 君子尙消息盈虛天行也者 剝之月之消 復爲月之長也 復之卦象 爲天地之心 故復上月爲天心月也

天地之心者 열매之中 有子仁之謂而震爲씨之元 在坤陰之中心故言天地之心也

復上月生於坤震 故取月出東方之理 其影生數爲卯八 以其光明出於東方之卯也

皇中者五皇極之中心也 序卦之中孚爲皇極之位 皇極者在無極之中宮而中孚卦巽兌收斂之內陽得中 故爲皇極之象 於中孚后天月生 故謂皇中月也 皇中月生於皇極之中 故其體成數 爲自然數之中央之五六 以其在皇極中包五含六也

多辭者躁人之辭多 巽爲躁卦則多辭古人月者 生於巽之月也 此言月體初生於小畜之巽體也

推衍者 一元推衍數二百十六也 正倫者 月生於乾坤父母宮也(日月大明乾坤宅) 天理者 父子之倫理也 復上月至未濟 爲一元推衍數二百十六而生長終則 다음의 乾坤에서 皇心月이 生하는 것이 곧 正倫이오 天理이다 倒字는 乾에서 太陽倒生 月倒成함을 말함이니 先天復上月이 金火互易하여 日生宮을 正明하는 것이 곧 不違正倫不喪天理이다

理數는 父母子息의 倫理로되는 天理의 度數이다 安泰父母心은 否往泰來하는 皇心을 말함이다

化翁親視監化事

月在先日在後爲否 此先迷也 日在先月在後爲泰 此後得主也 金火正易而月在日後故爲否往泰來也

己亥宮爲月之終日之復 故親日月之政也 己亥宮爲日極體位親政則 戊戌宮爲先天而尊空也

丑宮得旺者 地政闢丑而爲上元丑會也 子宮退位者 子運之一八 復上月影生數退而爲后天皇中月也 此言先天子運變於后天丑運也

先天三元數 甲己夜半生甲子 丙寅頭 后天五元數 己甲夜半生癸亥 丁卯頭也 丑宮得旺爲后天則自亥至卯 爲五元故先天之寅頭謝位而后天之卯宮用事也 此言年頭之三元變於五元也

五運運 六氣氣者 運氣如二十八宿運氣圖 日月之運行爲運氣也 日極月極之體位 起於戊戌己亥而戊五亥六 爲月之體成數 故五六爲皇中月之體成數也 五陽數主運行 故曰運也 六陰數主氣質 故曰氣也 先天太陰之政 五九而逆而用八 故錯閏中 八爲復上月影生數也 后天太陽之政 十五而順而用六 故合正中 五六爲皇中月體成數也 五六者十一也 皇中月以十一成體 此乃十一歸體也 以其爲體成數 故曰歸體也

五運六氣在黃帝內經 五運者五行之水火木金土也 六氣者君火相火土金水木也 五行加相火者也

五運의 五行數는 一六 二七 三八 四九 五十을 合하여 五十五가되고 六氣의 五行數는 五十五에 相火 二七(九)을 加하여 六十四가되니 五十五는 天地數의 總數이오 六十四는 易卦의 數이다

五運은 天에 屬하여 十干의 理로되고 六氣는 地에 屬하여 十二支의 理로

되므로 天地數 五十五는 所以成變化而行鬼神하는 天道가 되고 六十四卦數는 擬諸其形容象其物宜하는 地道가 되는 것이다

功德無量者 功乃武功平胃散 德乃文德養心湯也 武功平胃散者 月復一八七之八也 文德養心湯者 月復一八七之七也 於壬一 萬折必東 於甲八武功平胃於丙七 文德養心 月復一八七則 爲后天之世 此乃功德無量者也 無量者原天之謂而月復則 爲后天 此乃原天也

無極體位度數

度逆道順六十一

皇極體位度數

度順道逆三十二而實度數二十五

月極體位度數

初初一度 己亥가 有而無한 까닭에 五日에 候하여 그 數가 三十에 되는 것이다

달이 戊戌宮에서 起하는데 初初一度 己亥는 日復의 位이므로 달은 己亥에서 終하고 初一度 庚子에서 胞하니 初初一度 己亥는 有而無하고 行度는 三十이오 實度數는 二十四이다

日極體位度數

太陽이 己亥에서 起하고 丙午에서 胞하므로 初初一度 庚子는 없는듯하나 그 起算은 庚子에서 始하므로 初初一度는 無而有이다

行度는 三十六이오 實度數는 三十四이다

七日而復 = 初初一度 庚子가 無而有한 까닭에 一七四의 七丙에서 四庚까지 七日하고 復하여 그 數가 三十六이 된 것이다

化翁無位原天火

无位者 空無位 無形之謂也 無位詩道乃分三理 自然斯儒斯佛又斯仙則 化翁之體以儒佛仙三道之理 成也

原天火生地十己土者 生自然數之十數也

己巳宮

先天而后天者 己巳爲先天太陽之父 故后天也 己十數 故爲后天也

戊戌宮

后天而先天者 戊戌爲后天太陰之母 故先天也 戊五數 故爲先天也而尊空也

第一節

言原度數也 陰生陰 陽生陽

地十己土生天九辛金

己陰生陰干也 = 己十 辛九 癸六 乙三 丁二 戊五(己十戊五는 不變)

天五戊土生地四庚金

戊陽生陽干也 = 戊五 庚四 壬一 甲八 丙七 己十



이는 戊己의 生生에 依한 十干 原度數이다 自然數는 반드시 陽이 陰을 生하고 陰이 陽을 生한다

이 一節은 己陰이 陰干을 生하고 戊陽이 陽干을 生하여 父傳子受의 象이 되므로 十干原度數가 되는 것이오 己十이 내종에 戊五를 生하고 戊五가 내종에 己十을 生하는 것은 戊己가 五行을 相生하기 一循環한 뒤에는 陰陽이 變하여 다시 五行을 一循環하여 一陰一陽하는 道를 行하는 까닭이다

十干原度數中에서 戊己五十土 壬癸一六水 丙丁七二火의 水土火의 陰陽數는 先天의 洛書五行數와 變치 아니하고 오직 甲乙庚辛의 陰陽數가 先天數와 變하여 甲八 乙三 庚四 辛九가 되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水火로써 體를 삼

고 土로써 生命體를 삼고 있는데 萬物의 變化에는 體는 變치 아니하고 用이 變한다는 體恒久用變化의 理에 依한 것이다 甲乙木은 씨의 生하는 象이오 庚辛金은 열매의 成하는 象이라 先后天의 變化라는 것은 生長과 成과의 變化이오 씨와 열매에 生長成의 變化하는 用이 있으므로 甲乙木 庚辛金의 木金本體는 變치 아니하고 그 用이 되는 陰陽의 數가 相易한 것이며 金火正易圖에 戊己 壬癸 丙丁의 水火土는 內方에 있어 不變하는 體가되고 甲乙庚辛의 木金은 外圓에 있어 變化하는 用이 된 것은 이 까닭이다

第二節

生長을 말함이니 陰生陽 陽生陰이다

地十己土生天九庚金

己陰生陽干也 = 己十 庚九 癸六 甲三 丙二 戊五

天五戊土生地四辛金

戊陽生陰干也 = 戊五 辛四 壬一 乙八 丁七 己十

壬癸一六水는 陰陽數不變 故己宮有癸陰 戊宮有壬陽也

이 一節은 己陰이 陽干을 生하고 戊陽이 陰干을 生하여 生長의 象이되므로 洛書時運의 象이 되어 甲乙木 庚辛金이 모두 洛書五行의 數로 된 것이오 오직 丙丁 二七火가 陰陽이 相易하니 二七은 달의 光明의 象이라 이는 달의 光明의 變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己位는 太陽의 父가되고 庚九金은 太

陽의 象이며 庚金의 原度數는 四인데 己宮의 生長한 庚金은 九가 되니 九는 太陽의 原數이므로 太陽은 氣盈하여 前進하는 것이오 戊位는 太陰의 母가되고 丁七火는 달의 象이며 丁火의 原度數는 二로서 달의 原度數가 되는데 丁火의 數가 七로 된 것은 달이 過盈하여 先迷가되고 이것이 退하여 太陽의 뒤로 넘어가서 后天달이 되는 것이니 庚金九而氣盈丁火七而數虛는 이 뜻을 말한 것이다

第三節

克成을 말함이니 陰成陰 陽成陽이다

地十己土成天一壬水

己陰成陰干也 = 己十 壬一 丁二 辛九 乙八 戊五

天五戊土成地六癸水

戊陽成陽干也 = 戊五 癸六 丙七 庚四 甲三 己十

壬癸一六水는 陰陽數不變 故己宮有壬陽 戊宮有癸陰也

成者 后天之象 故當爲十干原度數也 而水土金火皆爲原度數 唯甲乙木爲洛書生長時運之數하니 이는 物이 成하면 그 體內에 次世代의 씨를 藏하여 홀로 生長作用을 行하는 까닭이며 易序卦下經地道가 收斂作用을 行하되 오직 胎宮四卦가 生長作用을 行하고 있음과 같은 것이다 甲乙三八木은 씨의 象으로서 生長의 理가 있으므로 后天의 成하는 時運에서 홀로 洛書生長時運의

五行數가 된 것이다

이 一節은 后天의 成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甲乙 三八木은 艮兌의 三八數와도 相通하여 甲乙 三八木은 씨의 象이 되고 三八艮兌가 또한 生長過程의 달로서 未成한 열매의 象이 되니 艮兌의 여무는 것이 곧 后天이며 그러므로 易序卦에도 六月의 未成한 열매의 濟하는 象의 未濟卦로써 終한 것이다

生成의 理를 土生金 金生水의 例로써 보건대 土가 金을 生함은 一世父가 二世子를 生함이오 金이 水를 生함은 二世子가 三世孫을 生함이오 一世父인 土가 三世孫인 水를 克함은 祖가 孫을 成함이다 그러므로 一世는 祖이오 二世는 子의 生함이오 三世는 孫의 成함이며 이것을 宇宙로써보면 一世祖는 原天이오 二世子는 先天이오 三世孫은 后天이다

原天은 祖의 世代이오 先天은 子의 世代이오 后天은 孫의 世代이니 그러므로 土가 水를 克한다 함은 相克하는 克이 아니라 祖가 孫을 여물게하는 克成이다

丙甲庚三宮

十干의 陰陽數는 戊己 壬癸의 水土만이 變치 아니하고 丙丁 甲乙 庚辛의 火木金은 變하여 先后天 變化의 象이 되는 것이니 十土六水不易之地 一水五土不易之天은 이 뜻을 말함이다

丙甲庚 三干은 陽이므로 先天이 되고 天이되니 이는 三天의 象이오 이것을 陰陽數로써보면 그 原度數는 丙七 甲八 庚四인데 甲庚 二干은 陰數로서 地가 되니 이는 兩地의 象이다 그러므로 丙甲庚은 先天의 三天兩地로서 先天의 天地가 되는 것이다

丁乙辛三宮

丁乙辛 三干은 陰이므로 后天이되고 地가되니 이는 三地의 象이오 이것을 陰陽數로써 보면 그 原度數는 丁二 乙三 辛九인데 乙辛 二干은 陽數로서 天이되니 이는 兩天의 象이다 그러므로 丁乙辛은 后天의 三地兩天으로서 后天의 地天이 되는 것이다

丙甲庚 三宮과 丁乙辛 三宮은 先天의 參天兩地와 后天의 參地兩天의 理를 말한것이오 이 甲庚乙辛의 數의 變化는 또한 金火正易圖의 外圓排列의 原理가 되는 것이다

子寅午申

丑卯未酉

地의 十二支 方位에는 戌亥와 辰巳가 境界線으로 되어 있으므로 十二支의 先后天表示에는 戌亥와 辰巳가 없다

己巳宮은 太陽의 父가 되고 달도 己巳宮에서 度成道하는데 太陽은 辛亥에서 逆成하니 이는 巳亥가 先后天의 境界가 되고 있음이다 또 太陽은 己巳에서 生하고 己亥에서 復하니 이도 또한 巳亥의 境界이며 后天에는 己甲夜半生癸亥하니 이도 亥가 先后天의 時間의 境界가 되어 있음이다

辰巳戌亥가 十二支의 陰陽方의 境界가 되어 있으므로 子丑寅卯는 陽方이되고 午未申酉는 陰方이 되는 것이며 子寅午申은 陽支이므로 先天이 되고 同一한 先天이로되 子寅은 陽方에 있으므로 先天의 先天이되고 午申은 陰方에 있으므로 先天의 后天이되니 그러므로 子寅과 午申은 先天의 先后天이 되는 것이다

丑卯未酉는 陰支이므로 后天이되고 同一한 后天이로되 丑卯는 陽方에 있으므로 后天의 先天이되고 未酉는 陰方에 있으므로 后天의 后天이되니 그러므로 丑卯와 未酉는 后天의 先后天이 되는 것이다

上元丑會干支圖

己土十 丑土十이므로 己丑이 后天丑會의 始가 되는 것이다

二十八宿運氣圖

圖는「復之之理」에 씌어있다

二十八宿는 本是 周天三百六十五度餘를 表示한 것인데 后天에는 그것을 日月의 行度로 쓰지 아니하고 運氣의 行度로 쓰니 그러므로 달이 每日에 一宿를 行하는 것이오 二十七八兩日에 星宿가 없는 것은 달이 二十六日에 氐에 이르면 光明의 政이 行치 못함으로 二十七日以後 四日間은 달의 光明의 空하는 때이오 角亢二宿는 無光의 位이니 그러므로 亢角은 二十九日과 晦日에 配하여 先天月의 尊空되는 象을 表示한 것이다

日月은 水火이오 水火의 正은 子午이므로 日月의 運行은 子午로써 그 變化하는 位를 삼으니 달의 復하는 一八七은 壬子午의 晦 甲子午의 十二日 丙子午의 二十四日이며 何物能聽角은 一壬이오 武功平胃散은 八甲이오 文德養心湯은 七丙이다

달은 戊申에서 復하고 神明氐不亢은 戊申의 二十六日이니 神明이라함은 日月之政이 至神至明하므로 日月光明의 政을 神明이라 한 것이오 달의 政은 二十六日의 氐에 이르러 戊位의 母胎에 復하므로 달의 光明은 氐에서 終하

고 二十七日로부터는 光이 微하여 能히 用政치 못하니 그러므로 달의 政은 氐에 止하고 그 位는 空하고 亢에 行치 못하는 것이다

室은 十六日에 月分于戌이오 張은 初三日에 月魂生申이니 月分于戌은 先天之始오 月魂生申은 后天之始라 自室之先天之始 至張之后天之始 乃太陽之倒生逆成之三十六度間 而月之沈水潛月之期也 故室張三十六者 乃三十六宮先天月之 神明氐不亢之期間 而大明后天三十日之始初也

正明金火理는 誰識先天復上月 正明金火日生宮之理也 金火日生宮者 日復之己亥宮也 月復於戊申 日復於己亥 月在後日在前 金火互易 故曰正明金火日生宮也 太陽復於己位 月復於戊位 日生而月明也 二十四節氣度數以亥月 爲正和明化者 以亥宮爲正明金火日生宮故也 皇極宮之戊戌己亥는 戊位之月在前 己位之日在後 爲先迷月之先天而日復己亥 月復戊戌則 日在前月在後 爲後得主之后天 此月逆生倒成 后天無極 太陽倒生逆成 先天太極之理也

律呂는 皇極宮의 二火三木六水九金의 分會에 依하여 生하는 것이니 이는 皇中月이 皇極宮에서 生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二十八宿運氣圖는 易序卦와 相照하고 있다 序卦에서 胎宮을 除하고 보면 上經의 首인 乾坤의 大明終始는 初三日이오 泰否는 初八日上弦이오 無妄大畜은 十五日 望이오 頤大過는 十六日 月分이니 月分은 陽이 陰中에 入하는 象이오 下經의 首인 咸恒은 十八日이니 上下經의 首가 모두 和化의 節侯로 되는 것이오 損益은 二十三日 下弦이니 泰否 損益의 乾坤卦가 모두 弦으로 되는 것이오 豐旅는 二十八日 月窟이니 月窟은 月盈則食이오 渙節은 三十日晦이니 晦는 一朔의 節이오 中孚小過는 初一日 朔이니 朔은 日月이 中宮의 中位에서 合朔하는 것이다

坎離는 十七日의 太陽의 復하는 危位이니 坎離가 同宮하여 太陽의 陽精이 陰中에 入하여 다시 生함이오 震艮은 二十六日의 달의 復하는 氐位이니 震艮은 胎宮의 所生이라 달이 震艮에 復하는 것은 곧 胎宮에 復함이오 그러

므로 戊申은 月胎의 宮이 되는 것이다

달의 復之之理 一八七을 序卦로써보면 三十日 晦의 壬一은 渙節에 當하여 沈水潛月이되고 十二日의 甲八은 臨觀에 當하여 陽氣의 浸長이되고 二十四日의 丙七은 夬姤에 當하여 陽이 生長을 終하고 陰中에 入함이다

九九吟

九는 生長을 極한 數이오 九가 長한 위에 또 九가 長하면 十이 되니 九九라 함은 九하고서 十한다는 뜻으로서 洛書九數의 先天에서 河圖十數의 后天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凡百은 洛書 月 四十五와 后天 河圖 太陽 五十五를 合한 數이니 先后天의 儒士를 總稱한 것이다 一夫는 无極十數를 笑而歌하니 笑字가 모두 十數이다

大一元三百數 一節은 立道詩와 相照하니 正理玄玄은 妙妙玄玄 玄妙理와 相照하고 无无位는 无无有有와 相照하고 九九中一六宮은 六九之年과 相照하고 昭昭班班은 萬變一蒼空과 相照하는 것이며 또 大一元三百數 節과 立道詩는 布圖詩와 相照하니 无无位 无无有有는 宇宙无中과 相照하고 五十五點昭昭 四十五點班班은 萬古文章日月明과 相照하고 靜觀萬變은 靜觀宇宙와 相照하고 六九之年始見工은 天工待人成과 相照하고 玄玄은 无中碧과 相照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當朞一節의 理는 布圖詩에 말한 金火正易圖를 말한 것이다

一六宮者 震巽戊己宮 故戊己中有日月 所以五十五 爲太陽之數 四十五爲月之數也

无无位六十數一六宮分張者 一巽宮의 己位와 六震宮의 戊位에 無極體位度數

六十甲子를 列하고 그 度數上에서 太陰이 逆生倒成하고 太陽이 倒生逆成하고 함을 말한 것이다 五十五(后天數)는 六甲의 終인 癸亥(己甲夜半生)로부터 度逆하여 日의 父인 己巳宮에 至하는 數이오 四十五(先天數)는 六甲의 始인 甲子(甲己夜半生)로부터 度順하여 月復하는 戊申宮에 至하는 數이다

昭昭는 自體가 光明을 生함이오 班班은 陰이 陽光을 받아서 光明을 生함이니 昭昭는 太陽之父之宮之光也 班班은 月復之宮之光也

十五歌

水火旣濟兮火水未濟者 水汐北地兮早暮難辨의 다음 一句이다 水潮南天 水汐北地然後에 此十五歌之事適用也

水火旣濟는 龜書之數而乾道也 火水未濟는 龍圖之象而坤道也 旣濟未濟則 爲天地否之先天之象也 未濟旣濟則 爲地天泰之后天之象也

天地三元者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子丑寅爲三元也 地天五元者 先天閉於亥 故后天開於亥 亥子丑寅卯爲五元也

地球之軸有二 文王八卦圖 坎離爲南北之軸 此先天以水火之精之聚散 爲萬物之體 故水火之精爲軸 北極主水 故爲大氷海 南極主火 故高燥而爲大陸也 又西北之乾爲金 東南之巽爲磁氣 而乾巽之西北東南 爲磁氣之軸 故今之磁針盤之子午針 每傾於西北東南也

子丑寅之三元者 十二支之子午 爲南北之軸而太陽至子 爲夜半而天開也 故一日之時間以子爲始也 子爲陽而一日之時間始於陽 故一年之頭 亦始於解春之陽而子以後寅爲陽 故寅爲一年之頭也 其故何也 先天爲生長之時運 而物之生長以陽運行 故先天子 爲一日之始而寅 爲一年之始 以子丑寅 爲三元也 此非人力之所致 而地球以子午之坎離 爲軸天開於子故也

亥子丑寅卯之五元者　西北東南之乾巽磁氣之軸爲后天地球南北之軸也　十二支之亥巳　爲南北之軸而太陽至亥　爲夜半而天開也　一日之時間以亥爲始也　亥爲陰而一日之時間始於陰　故一年之頭　亦始於解春之陰　而先天之子丑寅入於陰中　所以亥卯包三元　爲五元也　正易亥巳爲境界者　亥巳　爲后天南北之軸故也　地球之十二支之方位　以先天之方位　固定不變而言也

伏羲八卦圖		
兌	乾	巽
離		坎
震	坤	艮

文王八卦圖		
巽	離	坤
震		兌
艮	坎	乾

正易八卦		
巽	坤	離
艮		兌
坎	乾	震

后天之地球南北軸　何以變於乾巽之亥巳線乎　曰以八卦圖觀之則

伏羲圖爲生之時運之象　而天地渾沌　乾南坤北爲地軸也　自生之時運　越於長之時運　乾坤相交坤受乾中氣而爲坎　乾受坤中氣而爲離　此文王八卦圖之坎離爲地軸也　長之時運坎離不得不長　坎中之乾氣極長則坎變爲乾　離中之坤氣極長則離變爲坤　故自長之時運越於成之時運則　文王八卦圖之坎離之軸變　爲乾坤之軸爲正易八卦圖也　故后天乾坤　爲地球南北之軸　此水火精之地軸變　爲磁氣之地軸也　何故以乾坤　爲磁氣之地軸乎　曰文王八卦圖之乾巽　乃乾金巽磁之相對　而文王八卦圖　自長之時運　變於成之時運　必自乾之天氣下降於地　而爲巽風始也　然後　爲地天泰之陰運(成之時運)也　乾之天氣下降　爲巽風而天地之氣相接則巽風爲坤之作用於是　爲乾坤之相接　天風姤卦言天地相遇　品物咸章是也　故正易八卦圖之乾北坤南　乃地球以磁氣之軸　爲南北之軸也

乾坤之磁氣軸　爲地球南北之軸則　地上有二大變化　坤牝馬而月也　離日也　文王八卦圖　離日在南　坤月在西南　爲先迷之象而正易八卦圖　坤月在南　離日在西南爲後得主之象　此金火之易也　文王八卦圖　水火之精　爲南北之軸　行生長作用而正易八卦圖　磁氣爲南北之軸磁氣氣也　而爲神作用　故地上人類之生活　亦爲神作用也　故乾亥爲南北軸之五元世界　爲金火正易　神人相和之世也

天地地天者 自先天而爲后天也 三元五元者 自三元而爲五元也 今先天時運 爲上元子會之運 變於后天則 爲上元丑會之運 上元元元者 上元時運中에서 自子運越於丑運하여 三元하고 五元함이다

十五一言者 己位戊位之日月變化也 一言者天語也 天地有言也(水火旣濟兮火水未濟之 水潮水汐之事也)

萬曆者 十易萬曆之意也 后天河圖乃萬曆而圖也

咸之艮兌月也 恒之雷風太陽也 咸日月往來 恒日月得天久照也 咸兮恒兮者 月日卽月在日後也 故咸兮恒兮者 金火正易也 咸天下和平 恒天下化成 咸恒爲日月正易 故曆用和化之節候也

十兮五兮者 十無極五皇極也 月自皇極逆生倒成 爲后天無極也

乾坤先后天 終始之時也 咸恒承先天陽運之末 爲后天之形像也 咸之尺蠖能屈信 如先后天之一陰一陽 又能以口吐之 緳懸於高枝之上 能降於地 又能反上於枝 如咸恒之承先天陽運也

先后天正閏度數

先天은 數止於九而缺十 故爲月象 后天은 數全於十 故爲太陽之象也 달은 組織兩偶 爲陰體 兩偶 故常半面受光 此體方也 圜行하면서 兩偶皆受光 此用圓也 方者併舟의 뜻이다

二十七朔者 二十七日 爲一朔也 달이 周天 三百六十度를 一周하는 日數는 二十七, 三日인데 先天에는 閏度가 있는 까닭에 度와 日이 正合치 아니하여 閏日이 生하는 것이다

太陽組織全一 爲陽體全一 故爲一個之光明體 此體圓也 太陽之光照於地球與月 半面밖에는 비취지 못하니 此用方也 三百六十日은 太陽이 周天三百六十度를 一周하는 日數이니 度와 日이 正合하므로 閏月이없어 正易이 되는 것이다

原天無量

天有原天先天后天 化翁無位原天火 故化翁之體 爲原天也 原天有兩作用 爲先天(陽運)后天(陰運)也

先后天周回度數

先天二百十六者 易序卦自乾大明至明夷也 此一日中 平均太陽光明發揚之期間之象故 言先天 此乾策數也

自家人之收斂 至下經之末 爲一百四十四 自下經復圜於上經 自二世乾坤 至上經之末爲一百八十也 百四十四合百八十 爲三百二十四 此后天也

下經之首咸恒은 經先后天爲原天無量 此乃萬曆而圖兮咸兮恒兮者也 萬里者萬曆行程이라는 뜻이니 先后天의 曆行政은 先天二百十六數 后天三百二十四數 總五百四十數이다

盤古五化元年壬寅

盤古五化라 함은 宇宙의 造物主가 五皇極속에서 人格化함을 말함이니 이는

易序卦乾坤의 創生時代를 말함이오 壬寅이라 함은 乾坤의 長子인 水雷屯卦의 象이니 坎陽水 震陽木이 곧 壬寅이며 屯初九의 盤桓이 盤古五化의 뜻이다

壬寅은 己位에서 太陽이 倒生한 壬寅과도 서로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總年數十一萬八千六百四十三年속에는 盤古의 五化한 年數가 包含되어있고 元年壬寅이라 함은 水雷屯 長子가 生한 때를 元年이라 한다 함이니 이는 易序卦에 屯卦가 人道의 始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 總年數中에는 壬寅以後의 年數와 盤古의 五化한 年數가 合하여 있는 것이다

蓮潭先生

李先生已通天心月之理也 一夫先生在蓮潭先生之門下 與東學敎主崔水雲相逢 蓮潭先生以呪文賜水雲曰「始天地造化定하여시니 永世不忘하면 萬事知하리」 云云

立道詩

與大一元三百數節及布圖詩相照

無位詩

化翁無位 空無位則 無位詩者 化翁施敎之事也 三道者儒佛基督의 三敎이다

化翁이 萬物을 生生하심에 生長成의 三作用이 있으니 佛敎象生作用卽 太陽

中形質之生也 儒敎象 長作用卽 太陽之陽氣之發揚也 基督敎象 成作用卽月之陰體之作成萬物也 故三道之本原 日月之神道也 本於化翁也一夫眞蹈此者三敎之合一也

歲甲申 月丙子 日戊辰者 申子辰三合也 三敎合一之象也 二十八者二十八宿運氣圖之意也 二十八宿運氣圖에 復之之理 一八七의 理가 있는데 甲丙戊는 바로 甲八 丙七 戊五의 一八七과 復之하는 理이니 戊五는 皇極에 復하는 것이오 戊辰(戊空)이 곧 天五生戊土宮의 本象이다

三敎를 合一하여 새 宗敎를 세우고 그 原理에 依하여 后天政治를 行하는 것이 一夫先生의 擔當事業이시다 故后天政治乃神道政治也

甲木은 東方에서 生함이니 佛敎의 象이오 丙火는 南方에서 陽氣가 長함이니 儒敎의 象이오 戊土는 中央에서 成함이니 基督敎의 象이다 佛敎는 生의 組織이니 無極의 象이오 儒敎는 長하는 것이니 太極의 象이오 基督敎는 作成하는 象이오 中央皇極의 象이다 그러므로 基督敎는 后天皇中月의 象이다

正易詩

先天之曆 閏曆也 后天之曆正曆也

布圖詩

與立道詩及大一元三百數相照

萬古文章 以光明久照之時間言也 一張圖畵 以萬象布列之空間言也 先天雷風用事 正易八卦圖雷風相易而生戊己之變化 此雷風生之理也

圖者金火正易圖也 宇宙無中碧한 속에 金火正易하는 天工이 나타나고 있는데 一夫先生이 이것을 靜觀하고 圖를 布하시니 이가 天工待人成한 金火正易圖이다

金火正易圖

圖의 戊己日月은 戊位의 度順道逆 己位의 度逆道順 太陰의 逆生倒成 太陽의 倒生逆成의 理를 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全圖가 모두 內向하되 오직 戊己日月만이 外向하여 戊己日月의 父母生成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后天은 地天泰가되어 天氣는 下하여 收斂하고 地氣는 陽을 包하여 上發하려하므로 天의 象인 外圓은 內向하고 中間에 있는 地의 象인 內方은 外向하는 것이오 中 十字形의 사람은 向心運動으로써 神에게 圜行하므로 收斂作用을 行하여 內向하는 것이다

金火正易圖는 八卦 十干 十二支 日月 四方位로써 組織된 것인데 그 字數는 三十六字이다 外圓은 天象이오 內方은 地 象이오 中心十字는 人象이다

八卦는 宇宙 全體의 象이므로 天圓에 있고 十二支는 地象인데 后天에는 地天泰가 되어 地十爲天故地支는 天圓에 있다 十干은 天道로써 天地人을 圜行하므로 外內中에 分布되고 日月은 地上에 作用하는 理를 取하여 東西南北의 四方과 함께 內方에 있는 것이다

十二支는 地에 屬하나 거기에 四時運行의 象이 있으므로 天圓에 있고 그 方位는 先天의 方位와 相異하다 先天은 天地가 亥에서 閉하므로 亥가 陰陽相薄하는 西北의 終에 있은 것인데 萬物은 閉한 곳에서 開하는 것이므로 后天은 반드시 亥에서 開하여 己甲夜半生癸亥가 된 것이오 后天에는 亥가 物의 始開하는 境界가 되고 있으므로 正北인 乾의 다음에 있으며 亥子는

同宮한 水이므로 亥子가 同居하는 것이다(中央戊己宮爲己巳戊戌配以支故外圓配列以十二支也)亥의 方位가 定하므로 다른 地支도 이 例에 依하여 八卦의 方位를 따라서 寅卯木이 正東인 艮의 다음에 있고 巳午火가 正南인 坤의 다음에 있고 申酉金이 正西인 兌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 辰戌丑未四季는 四時에 寄旺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四維에 있고 四維의 八卦의 다음에 位하여 丑은 東北坎의 다음에 있고 辰은 東南巽의 다음에 있고 未는 西南離의 다음에 있고 戌은 西北震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

先后天은 南北의 開閉로써 境界線을 삼아 噬嗑卦와 節卦에 剛柔分의 象이 있는 것인데 亥가 物의 始開하는 境界가 되고 있으므로 戌이 物의 閉하는 境界가 되어 北의 戌亥와 그 相對方인 南의 辰巳가 先后天開閉의 境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子寅午申先天之先后天에 辰戌의 境界方이 없고 子寅은 陽方에 있어 先天이 되고 午寅은 陰方에 있어 后天이 되며 丑卯未酉后天之 先后天에 巳亥의 境界方이 없고 丑卯는 陽方에 있어 先天이 되고 未酉는 陰方에 있어 后天이 되는 것이다

十干의 排列은 어떠한가 十干의 原度數中에서 壬癸水 丙丁火戊己土의 陰陽數는 洛書五行의 陰陽數와 同一하고 오직 甲乙木 庚辛金의 陰陽數가 變하니 이는 萬物의 生生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土로써 生命體를 삼는 까닭에 先后天의 變化함에는 體가 變하는 것이 아니라 그 用이 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物의 體가 되는 水火土의 陰陽數는 變치 아니하여 水火는 中心十字에 있어 사람의 體가 되고 戊己는 內方에서 日月父母의 位가 되고 오직 天圓에서 甲乙木의 씨와 庚辛金의 열매가 生成作用을 行하여 陰陽數가 變하니 易理에 씨와 열매는 天에서 生成하는 것이므로 甲乙 庚辛이 天圓에 있는 것이다 甲乙木 씨와 庚辛金 열매는 비록 天에 있으되 반드시 生命體인 土에 着한 然後에 能히 生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甲乙은 東北의 土에 着生하고 庚辛은 西南의 土에 着生하여 甲은 戊土의 곳에 있고 乙은 丑土의 곳에 있고 庚은 辰土의 곳에있고 辛은 未土의 곳에 있는 것이다

內方의 戊己는 巽風 震雷의 雷風相易에 依하여 中宮에 雷風이 生하면서 日

月을 生하는 父母의 位가 된 것이니 戊己는 또한 正易八卦圖의 二天七地의 作用이오 그러므로 二天七地가 中宮에 入하여 十乾 二天 五坤 七地의 十紀 二經 五綱 七緯가 되고 또한 乾坤 天地 雷風中의 象이 된 것이다 己位는 己巳宮이되어 無極體位度數의 起하는 곳이되고 戊位는 戊戌宮이되어 皇極體位度數의 起하는 곳이되고 日은 己位에서 生하고 月은 戊位에서 生하여 戊己日月이되고 日月度數는 月이 日의 뒤에있고 日이 月의 앞에있어 金火의 正易이 된것이며 戊己의 一巽 六震 卽無極皇極의 位에는 六十甲子가 排列되어 无无位六十數一六宮分張의 象이 된것이며 戊己日月의 四象體位度數에서 十五를 尊空한 百四十四의 坤策이 이 中宮에 排列되고 있으므로 內方에 坤象의 東北西南이 있는 것이다

中十字之丙丁壬癸者 胎宮卦之革之其文炳也 鼎之烹飪也 炳从(從)丙 飪从(從)壬也 中十字爲胎宮之象 而水火之烹湯作用行也 中宮水火之烹湯作用行故戊己日月 亦外向而戊己日月獨外向者何也 此與十干原度數之內圓之戊五 己十 一水 四金 七火 八木之日月光明 二火 三木 六水 九金之律呂 發用 外向之理也 戊位己位 日月光明 律呂 必發用而後成變化故也 十干原度數 十干內向十數外向 而陰陽調和也 金火正易圖亦 雷風水火內向而 戊己日月 外向亦調陽律陰也

十一一言

上經 十五一言者 十乾五坤 十己五戊 十震五巽 十無極五皇極之通稱也 雷風以乾坤之長男長女代行乾坤之政 雷風之氣無形 故反易以艮兌現形用事 艮兌者三八也 兌三艮八合爲十一 爲后天用事之主 此先天生長 故雷風之氣用事 后天成熟 故艮兌之形用事之理也

又 乾十 以成數之終 生 巽一 生數之始 坤五以生數之終 生 震六 成數之始而乾十巽一爲十一 坤五震六爲十一 此十退一進 包五含六之理 而乾坤震巽之中

生三兌八艮 爲生數成數之中數 三八合爲十一 此后天以十一數成物也而十一一言者也

雷風之十五爲恒 艮兌之十一爲咸 此乃咸兮恒兮之理也 十干原度數唯戊己十五土 壬癸一六水 與洛書數不變者 以其水爲有形之始 土爲生命體 水土之成道爲天地故也 十土六水以陰爲地而不易 一水五土以陽 爲天而不易 天地相交則金火正易圖 東南之土一水之己巽 西北之五土六水之戊震亦各合爲十一也 己巽之己巳宮 爲太陽之父位 戊震之戊戌宮 爲太陰之母位 皆十一之數也

天政開於陽支始之子 地政闢於陰支始之丑 自然數之中 唯一二爲陰陽之基本數者 陽奇之象爲一 陰偶之象爲二故也 故十二支中子丑 爲自然數中之一二而子運 爲陽運之象 丑運爲陰運之象也 故時運非有子運丑運寅運卯運之別 而只有子運丑運之陰陽運 此原天只有先天后天故也

且子丑以五行之運則 天生於一 地成於十 子水爲一 丑土爲十 一與十爲先后天之象也

子運一八者 復上月影生數 爲八也 丑運五六者 皇中月體成數爲五六也 影者天包地而圓環影 體成數者 地載天而方正 體者也 復上月言影(光明)者 先天主生長陽氣發揚 故言光明之發也 皇中月言體者 后天主成熟陰氣收斂 故言形體之成也

八者何也 月屬地而影生 體成皆取地支之數 復上月乃地雷復而雷 爲東方卯木之八數 故復上月之數爲八也 月之復之之理一八七 八爲甲而爲東方之象則 先天月之光明 以支以干皆爲八也

五六者何也 皇極宮戊戌己亥 爲日月成度之位而戌亥 爲月體 戌五亥六 乃皇中月體成數也

卯八爲復上月影生數 而復上月之卯以先天尊空 故代用未八 用未八者何也 先

天五九逆而用八 錯閏中 洛書爲太陰之政 長之時運 中央之五 外向至於九 此二十八宿圖 復於戊位向申之理也(戊五申九)然而洛書極其生長則 陽精逆行發施於陰體 而自申九逆行則用未 申逆而用未者 乃九逆而用八之理也 故未爲八數 月爲戊位而用未 故爲錯閏中也

后天十五順而用六合正中 河圖爲太陽之政 成之時運數之終之十 內向入於中宮至於五 此二十八宿圖 復於己位而至於皇中之戊 爲己十戊五之理也 然而陰體收斂而順承 故自戊順而用亥六 日爲己位而用亥 故爲合正中 中宮之戊亥五六爲體成數也 戊申則逆施 故但用未八而爲一八 己亥則順承 故併用戊五亥六而爲五六也

乾卦大明終始 六位時成者 月始生而與太陽(天)地爲六位也 時乘六龍者月也六位六龍爲三十六數而月之運行之數也 月有盈虛消息而月之運行之數 爲六十之三十六 故易以三十六數 爲消長之數 乾至明夷 蠱至巽 臨至兌 皆三十六宮之數也 三十六者 自一至八之數也 故子運之月爲一八也

子運丑運之月 月之數則不變 而先天月則影生數 爲三十六 后天月則體成數 爲三十六 此先天月之影生之陽氣入於中宮 爲體成也 故一八爲三十六也 自一至五爲十五 自一至六爲二十一 十五合二十一亦爲三十六也 八卽五六也 但影體之異耳六十中에서 三十六 二十四之比乃二百十六 百四十四之比也 朝景暮景屬於光明 故光明爲二百十六 夜爲百四十四也 月之三十六數之理 亦二百十六數之理也 月在消長而光明之數爲三十六 暗黑之數爲二十四 故月之影生數體成數 皆用三十六數也

子運之月八也 丑運之月五六合十一也 參伍錯綜者八也 九二錯綜者十一也(三五合八 九二合十一)

八卽五六而八 爲影生數 五六爲體成數 影八入於內 而爲體之五六者表面之八入於內部爲裏面之五六也 此乃月之表面裏面之相易也

奇偶數

九七五三一爲奇爲天道也 二四六八十爲偶爲地德也

陰陽數發展의 順序는 陽은 一三五七九가되고 陰은 二四六八十이되는데 陽數가 九七五三一이 되는 것은 陽의 生長이 極하면 陽體의 施精作用이 行하여 逆하여 陰體에 施하는 것이므로 그 象이 九七五三一이 되는 것이니 여기에 九七五三一을 말한 것은 雷風正位用政數에 天度圓九七五三(太極一의 陽精을 皇極中의 地數에 施하는 作用)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一三五는 陽의 生數로서 運行의 度가되고 天의 象이되며 七九는 陽의 成數이나 그속에 陰을 包하여 七은 五에 偶數 二를 合한 것이오 九는 五에 偶數四를 合한 것이므로 收斂하는 作用이 있어 組織의 數가 되고 地의 象이 되는 것이다 七九를 地數라 하는 것은 七九에 丁乙癸辛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一三五(天)와 七九(地)는 三天兩地로서 天地의 象이되고 九七(地)과 五三一(天)은 地가 上에 있고 天이 下에 있어 陽精이 陰體에 發施되어 地天의 象이 되니 一三五(天) 七九(地)가 陽精의 生長을 極하여 陰體에 逆行하여 九七(地) 五三一(天)이 된 것이 곧 天地 地天이다

天地 地天은 時運의 變化로써보면 后天의 象이되고 數는 陽數로서 先天의 象이되니 이가 后天의 先天이며 后天의 先天이라 함은 太陽의 倒生逆成한 象이니 이는 陽精을 陰體에 施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后天의 九七五三一의 陽精이 陰數의 二四六八十에 逆施되어 相合하면 九二 七四 五六 三八 十一이 모두 十一로되어 后天의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先天之易后天之易

交易의 易이라 함은 本質은 易치 아니하고 다만 그 位를 易함이니 先天의 달은 그 位는 易하되 그 本質은 變치 아니하므로 先天의 日月은 交易의 日月이 되는 것이다

變易의 易이라 함은 本質의 變함이니 先天月이 后天月로 變하여 今古日月의 變化가 있는 것이 곧 變易의 日月이다

易易九宮이라함은 先天洛書의 九宮이 后天河圖의 九宮으로 變함이오 易易八卦라 함은 伏羲卦圖의 八卦가 后天九宮에 排列되어 古今天地 今古日月이 된 것이다

原天 先天 后天

天에는 原天 先天 后天의 別이 있어 生長成의 象이 되니 原天은 生의 象으로서 生命體의 組織이 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原天은 陰性을 띠고 있는 것이며 先天은 長의 象으로서 陽氣의 發揚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先天은 陽性을 띠는 것이오 后天은 成의 象으로서 陰氣의 속에 陽氣를 包하고 收斂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后天은 陰性을 띠는 것이다 이것을 草木의 生長成으로써 보면 原天은 열매의 組織의 象이오 先天은 열매에서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와 잎이 生하는 象이오 后天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여무는 象이니 原天과 后天은 同一한 열매이오 同一한 陰性이로되 그 相異한 바는 后天은 열매의 여무는 過程이오 原天은 完全히 여문 열매이며 后天은 陰氣가 陽氣를 內部에 包하고 收斂하는 義의 象이오 原天은 陰陽이 太和한 知의 象이다 그러므로 原天은 無量하고 열매는 無窮히 世世繼承하는 것이다

后天九宮八卦

洛書九宮圖		
四	九	二
三	五	七
八	一	六

易易九宮이라 함은 洛書가 九宮으로 되어 있으므로 后天九宮은 洛書九宮에서 變易된 것이다

洛書는 胎宮中에 胎兒를 기르는 象인데 東北의 一六水 三八木은 胎宮 井卦의 改邑不改井의 象이오 西南의 四九金 二七火는 胎宮革卦의 己日乃孚의 象이오 中央의 五土는 生數의 生命體로서 胎兒의 象이다

胎中의 胎兒는 長을 極하면 成하여 母腹外로 出産되는 것인데 洛書는 九數가 차서 胎兒의 長極의 象이되고 九數를 넘어서 十數가되면 成하여 出産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胎兒가 成하는 때는 中央에 十土가 나타나서 河圖中宮의 五十土가 되는 것이다

胎兒가 成하여 出産되는 때에도 改邑不改井의 理에 依하여 一六三八의 方位는 變치 아니하는 것이다

洛書가 長하여 成하는 것은 完成된 열매가 아니오 成의 過程에 있는 것이므로 河圖五方位와 같이는 되지 아니하고 九宮이 九宮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八卦가 配列되는 것이다

洛書胎宮에 胎兒가 入胎되는 때에는 胎兒를 기르기 爲하여 相克의 道가 行하여 河圖의 西金 南火가 洛書의 南金西火로 變改되니 이가 胎宮井卦의 改邑의 象이며 胎宮에서 胎兒가 出産되는 것은 父母와 子息의 道이므로 相生의 道가 行하여 金火가 互易하여 옛 河圖의 西金南火로 되는 것이다

洛書西南의 四九二七은 胎兒의 入胎와 出産의 交通門인데 洛書의 西二南九는 달의 先迷의 象으로서 胎門의 닫혀있는 象이며 胎兒가 出産되어 이 門이 열리는 때에는 반드시 生數와 成數의 定位의 理에 依하여 生數가 四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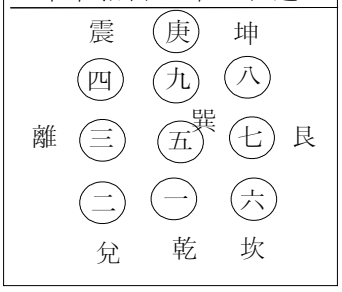
에있고 成數가 四維에 있고 金火가 互易하여 西金南火가 되어 九二가 錯綜하여 後主의 달이되니 이가 곧 金火正易이다

后天九宮圖

七	二	九
三	五十	四
八	一	六

이 여러 原理에 依하여 數를 配列하면 數之三一東北正位 數之六八北東維位 數之二七西南互位 數之十五中位正易 數之九四南西交位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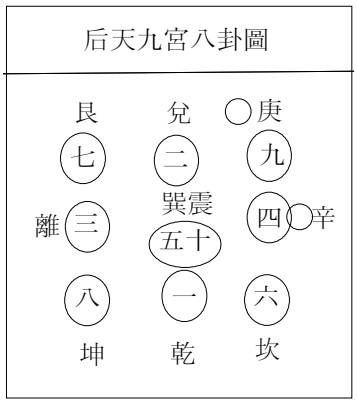
伏羲八卦圖의 數가反易하여 洛書로되는 程過



洛書는 伏羲八卦圖의 數에서 變來한 것이오 后天九宮은 洛書에서 變來한 것이므로 后天九宮의 八卦는 또한 伏羲八卦의 數로 되는 것이다

처음에 伏羲八卦圖의 數가 反易하여 洛書로 變할때에 八坤까지만 있고 九에는 卦가 없으므로 四九金의 理에 依하여 天干의 庚金을 配하니 이는 九에 太陽의 象이 있는데 太陽은 또 乾象이되고 庚金에 또한 乾陽金의 象이 있는 까닭이다

后天九宮八卦圖



그런데 長의 先天으로부터 成의 后天으로 넘어갈때에는 十乾五坤의 理에 依하여 震巽이 乾坤을 代行하여 十震五巽이되어 中宮에서 太陽의 政을 行하므로 震이 十數로되고 四數에는 卦가 없는 것이다 后天九宮八卦는 열매의 여무는 것을 象한 것이오 五行數의 四九金은 秋의 여무는 일을 主하고 또 庚金이 九金에 配列되어 있으므로 四金은 스스로 辛金이 되는 것이니 農夫洗鋤歲功成은 九四에 秋의 象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洛書는 二火의 달이 西南에 있고 九金의 太陽이 南에 있어 달이 太陽에 先하므로 先迷의 先天月이 된 것이오 后天九宮은 九金이 西南에 있고 二火가

南에 있어 달이 太陽에 後하므로 後得主의 后天달이 된것이니 이것을 九二錯綜 金火正易이라 한 것이다

后天九宮에 伏羲八卦를 配하는 것은 先天에서 后天으로 變함에는 雷風이 中位에서 用政함을 因함이오 雷風의 中位는 오직 伏羲八卦의 象에만 있는 것이다

洛書九宮生成數　　三元數의 前提

洛書는 生長하는 陽運을 象하므로 陽數의 極數인 九로써 表하여 九宮이라 한것이오 또 九宮이 있는 까닭에 三五錯綜이 된 것이다

生長하는 陽運에는 天의 陽數 一三七五九가 陽干 壬甲丙戊庚을 生하고 地의 陽數一三七五九가 陽支子寅午辰申을 成하는 것이며 生長時運에는 陽이 먼저 作用하므로 天이 生하고 地가 成하는 것이다 (己位親政戊位尊空故戊戌宮尊空地五戌土空)陽支의 戌은 空하니 이는 戊戌宮이 先天달의 位가되어 后天에서 尊空되는 까닭이다

天이 生하고 地가 成한다함은 生長하는 時運에는 天에서 씨를 生하고 地가 씨를 受하여 形을 作成하는 것이 곧 生長의 象이다

三五錯綜三元數

先天地球는 子午軸이되어 夜半이 子에서 起하는데 子는 陽支로서 生長의 象이되므로 다음의 陽支인 寅까지 子丑寅의 三元이 된 것이다

九二錯綜이 成의 時運의 달이 여물어서 金火互易하는 象을 말한 것인즉 三五錯綜은 長의 時運의 달이 胎宮에서 자라는 象을 말한 것이다

先天의 復上月은 東方震에서 生하니 洛書東方은 三數이오 復上月은 胎宮인 中宮에서 자라고 있는데 洛書中宮은 五數이니 이는 三이 五로 變하는 것으로서 곧 三五錯綜이오 繫辭의 「參伍以變通其變遂成天地之文」이니 天地之文은 日月을 말하는 것이다

復上起月當天心 天心者 洛書中宮之五也 復上月長於天心之五宮然後 九二錯綜爲后天月也

甲爲木生之始爲十干之首 子爲陽水之動 爲十二支之首 故長之時運以甲子 爲始甲己夜半生甲子也

一日之時始於子 一年之月始於寅 日者以光明之明暗 爲準而北方之子中 爲夜半兩日之境界 南方之午中 爲嚮明之時 故日以子午 爲準而時起於子時也 年者以寒暑之顯藏 爲準而寅月之立春草木水液 上升之始萌動而始顯申月之 立秋草木水液下降之始 收斂而始藏也 故年以寅申爲準而月起於寅也 日以光明爲準年以寒暑 爲準者因繫辭「日月相推而明生 寒暑相推而歲成」之理也

時起子 月起寅 子丑寅爲三元也

河圖八卦生成數　　五元數의 前提

河圖有二 原天河圖有五方而未開坼也 后天河圖有九宮八卦之分布 此言河圖八卦者 非原天河圖오 后天河圖의 成하는 象을 말한다는 뜻이다

成하는 陰運에는 地의 陰數十四六八二가 陰干己辛癸乙丁을 生하고 天의 陰數十四六八二가 陰支 丑酉亥未巳를 成하는 것이며 成의 時運에는 陰이 먼저 作用하므로 地가 生하고 天이 成하는 것이다 陰支의 卯는 空하니 이는 天八卯가 一八復上月의 影生數가 되어 后天에서 尊空되는 까닭이다

卯가 空하고 卯木의 代로 未를 用하니 未는 六月令에 當하여 木의 열매의 象이되므로 卯八木이 空하고 그 열매인 未가 八木으로되어 后天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未濟卦는 未八의 열매가 后天으로 넘어감을 象한 卦이다

地가 生하고 天이 成한다 함은 成의 時運에는 地에서 幹枝를 生하고 天에서 열매를 成熟시키는 것이 곧 成의 象이다

九二錯綜五元數

九二錯綜은 金火의 正易함이오 后天地球는 亥巳軸이되어 夜半이 亥에서 起하는데 亥는 陰支로서 成의 象이되므로 三元의 陽을 內包한 다음의 陰支인 卯까지 亥子丑寅卯의 五元이 된 것이다

一日之時始於亥 一年之月始於卯 后天太陽 成於辛亥 復於己亥 己甲夜半生癸亥 月成於己巳 故后天日月光明之運行 以亥巳之度 爲準而時起於亥時也 后天之年以調和爲準 卯月春分酉月秋分乃晝夜之平均 陰陽之調和 故年以卯酉 爲準而月起於卯也

時起亥 月起卯 爲五元也

十一歸體詩

火金先天也 金火后天也 先天하고 后天하고 함이 原天道이다

龍華者 龍國之運日月光華之世界也 歲月今者 今日之歲月也

政令光明也 己庚壬甲丙者 己位之四金一水八木七火之無極也 呂律聲樂也 戊

丁乙癸辛者 戊位之二火三木六水九金之皇極也 此非五行之生成 而乃雷風正位用政數로서 天道圓之陽精 施於地數方之中 有政令之光明律呂之聲也 呂律者丁乙之二火三木爲呂 癸辛之六水九金爲律也

己十爲地數而后天地數在上 故爲天而有庚壬甲丙之陽干也 戊五爲天數而后天天數在下 故爲地而有丁乙癸辛之陰干也

卯者八而復上月之影生數 此子運之月也 子運之月越於丑運則 卯尊空而歸於丑此卯歸丑也 戊戊爲太陰之母而戊五以天五 變爲地則戊尊空 太陰復於戊申 此戊依申也 卯戊尊空越於后天則 卯歸丑 戊依申 申丑爲今歲月也 自卯至丑爲十一也 自戊至申爲十一也 此十一歸體也

中

己位庚壬甲丙之中 爲無極 戊位丁乙癸辛之中 爲皇極 雷風正位於己位戊位之中 用日月之政而金火正易故中者 雷風用政之中位也

自然數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皆爲一三五七九十一十三十五十七十九之中也 自一至十九之數 合之則爲百 百者河圖洛書之總數也 河圖洛書者 物之 生長成之總數也 故河圖洛書百數之中 卽日月相交之範圍內之空卽是中也

十 十九之中而一 一一之中則 自一至十無非中也 自然數十 布之則爲十 全之則爲一 一外無十 十外無一也 十을 十으로 布함이 곧 十十이오 十을 一로 全함이 곧 一一이다 布十全一이 都無一定之位 十을 十하고 一을 一하고하는 데두리 속은 空이오 이 空이 곧 中이다

十하고 一하고 하는 空의 속에는 中心에 包五含六하고 데두리는 十이 退하고 一이 進하는데 退한 十無極의 속에 統十한 一太極이 進하니 中心의 包含한 五六도 十一이오 데두리의 進退한 十一도 또한 十一이다 雷風은 十一

의 空한 位의 中에 位한 것이다

包五含六者 皇中月體成數也 十退者逆生倒成后天無極之月也 一進者倒生逆成先天太極之太陽也 十退一進而五六之月體成 此十一歸體也

雷風正位用政

己位는 太陽의 父이므로 四金一水八木七火의 庚壬甲丙의 陽干이 있고 十無極이다 無極十은 또한 太極 一이다

雷風은 太陽의 運行力으로서 無極太極의 十一中에位하여 陰陽相交의 政을 行하는 것이다

十은 地德이오 方하여 二四六八이니 달이오 陰體의 象이다 一은 天道이오 圓하여 庚壬甲丙이니 太陽이오 陽體의 象이다 天道에 己가없고 地德에 十이 없으니 이는 己와 十은 父母의 位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戊位는 太陰의 母이므로 二火三木六水九金의 丁乙癸辛의 陰干이 있고 五皇極이다

皇極 五는 無極十의 속에 있어 陰體의 胎宮의 象이오 律呂聲의 生하는 곳이다

五는 天度이오 圓하여 九七五三이니 陽體의 陽精이 달에 施함이오 十은 地數이오 方하여 丁乙癸辛이니 달이 陽精을 受함이다 天度에 一이 없고 地數에 戊가 없으니 이는 太極 一이 五皇極中의 戊位에 入하는 까닭이다

己位와 戊位가 天道 地德 天度 地數로써 日月이 相交하는데 十己五戊의 속에는 十震五巽의 雷風의 氣가 運行하여 合朔하면서 金火正易의 作用을 行

하니 이가 雷風의 正位用政이다

天度九七五三　地德二四六八

九二 七四 五六 三八 皆爲十一 此亦十一歸體也 諸十一之中三八 爲生成中數之十一 故后天三兌八艮用事也

四正七宿用中數

四正七宿라함은 一(北) 八(東) 七(南) 四(西)의 四正方에 二十八宿를 排列하여 一方에 各 七宿씩으로 한것이니 이 一節은 「后天政於先天水火 先天政於后天火水」와 「二十八宿運氣圖」와 「 復之之理一八七 一七四」와 「先天體方用圓閏 后天體圓用方正」와 「洛書의 五九 河圖의 十五」의 理를 綜合하여 金火正易하는 原理를 總言한 것이다

先天五九는 洛書의 政이니 洛書는 數가 缺하여 太陰의 象이므로 太陰의 政이라 한 것인데 洛書는 陽氣가 生長하여 生長의 極인 九에 達하니 太陰의 政이라함은 生長의 政이라는 뜻이오 그러므로 先天이라 한 것이며 陽氣가 生長의 極數인 九에 達한 것은 陽體가 用九하여 陽精을 陰體에 施하는 象이다

五九라함은 洛書中宮의 五가 皇極의 象이되고 生長하여 九까지 發展하니 이것은 戊五位에서 申九位까지 發展한 것이므로 太陰의 復하는 戊申이 된 것이오 陽의 生長이 極에 達하면 반드시 精을 陰體에 施하고 陽精이 陰體에 下施되는 것은 逆의 象이라 戊位의 申九에서 逆施하면 未八이되니 이가 先天 달의 復上月影生數가 八이 되는 所以이오 또한 卯八이 尊空되고 未八數를 用하는 所以이다 戊申의 五數와 九數는 體가 合하여 方의 象이 되는

데 戊五에서 未八에 施하면 陽이 陰에 圜行하여 用이 圓하므로 錯하니 錯한 까닭에 中에 閏이 生하는 것이다

后天十五는 河圖의 政이니 河圖는 數가 全하여 太陽의 象이므로 太陽의 政이라 한것인데 河圖는 陰氣가 收斂하여 (河圖八卦生成數의 例)成數의 終인 十에 達하니 太陽의 政이라 함은 成收의 政이라는 뜻이오 그러므로 后天이라 한 것이며 陰氣가 成收의 極에 達한 것은 陰體가 用六하여 陽精을 承受하는 象이다

十五라함은 河圖十數는 無極의 象이오 五數는 皇極의 象이니 十五는 無極의 속에 皇極이 있는 것이며 이는 皇極宮中의 己十位에서 戊五位로 收斂한 것이오 陰의 收斂이 極에 達하면 반드시 陽精을 承受하고 陰이 陽精을 承受하는 것은 順의 象이라 己位의 戊五에서 順承하면 亥六이되니 己와 戊의 十數와 五數는 陰이 陽에 圜行하여 體가 圓의 象이 되는 것인데 己十에서 亥六을 順承하면 用이 方하여 合하니 合한 까닭에 中이 正하여 正易이 되는 것이다

五九太陰의 政은 先天에서는 生長을 極하여 陽精을 陰體에 施하여 逆而用八하여 戊申(달의 復하는 位)이 戊未로되어 錯한 것이나 后天에서는 太陰이 逆生倒成하여 后天無極이되고 陽精을 逆施하는 일이 없으므로 后天달은 戊申에 復하는 것이다 十五太陽의 政은 陰體가 陽精을 承受한 것이므로 己亥가 復하는 位가 되니 이가 后天日月의 復하는 理이다

달이 戊申에 復하고 太陽이 己亥에 復하면 己亥에서 戊申까지 그 數가 十인데 十은 無極이오 또한 全一한 太極이니 이는 己亥의 太陽은 一太極이되고 戊申의 달은 十無極이 되는 것이며 이가 곧 太陽이 倒生逆成先天太極太陰이 逆生倒成后天無極이다

易三

三易者 閏易 正易 原易也 先天體方用圓而閏 后天體圓用方而正 原天無量 原天者 先后天合計也 原易何常用閏曆者 閏曆正易之合計爲原易也

乾坤卦八

乾坤卦者 乾之大明 坤之牝馬皆日月 故以乾坤組織 而爲日月之象者 乃乾坤卦也

否泰者 乾坤之相交也 損益者 外乾內坤也 咸恒者內乾外坤也 旣濟未濟者 乾坤之交互也 而此八卦皆有日月之象 故言乾坤卦也

否泰者 金火正易 否往泰來也 損益者 天地壯觀雷風宮也 損益以天地卦 有雷風山澤 天地網縕 天地壯觀雷風宮之大壯觀 亦有天地雷風大艮大兌 故此宮而損益象之也 咸恒者 萬曆而圖兮 咸兮恒兮也 旣濟未濟者 天地之道旣濟未濟也

旣順者 順而用六 三百六旬而正也 旣逆者 逆而用八 二十七朔而閏也 克終者先天之善終也 克始者 后天之善始也 旣逆爲克終 旣順爲克始也

十易者十數而易也 萬曆者 曆之無量也

易三 乾坤卦八者 三八之數也 三兌八艮爲后天月 卽十一歸體之月 此特言三八者 表示后天艮兌之月也 故此節卽言十一吟也

十一吟

乙酉 癸未 乙未者 未酉也而未酉 后天之后天也 未酉之象 后天之時運也 二十

八者 二十八宿運氣圖也 乙酉大明終始之初三日 故大明乙酉 爲歲象也 癸未爲月之始朔 故朔癸未 爲月象也所以言 乙酉歲癸未月也

十一歸體者 皇中月以五六之十一成體也 皇中月成體則 先天之卯戊五八尊空也 先天月之數尊空則 九二錯綜而金火互易也 火居南 金居西 各居本位 故火明而金清也

世界世界者 天人圜行之 天界地界而卽神界人界也

咏歎之五行音 于于水音也 而而火音也 于于而而則水火而「先天政於后天水火」故于于而而者稱后天無極月之政也 無極月政於后天 故無閏而正正方方也

十干原度數

外圓之己一庚二之數 乃己甲夜半庚乙夜半之順序也 外圓之數 與十干內向收斂者 天地之運收斂也 內圓之五行數外向者 內藏陽之象也 后天之物之組織 陰氣外斂而陽氣內藏 乃成收也 十干爲體原度數 爲用原度數外向者 藏諸用之理也 (金火正易圖之戊己日月外向條參照)

十二月二十四節氣候度數

節日의 時間이 子日子時 午日午時 卯日卯時 酉日酉時로 되는 것은 先天曆에 月建과 同一한 日辰에 建星이 있음과 같이 后天曆에는 日辰과 同一한 時辰에 節建이 있는 것이다

一時間은 百二十分이오 百二十分을 八刻으로 나누어 一刻을 十五分으로하고 또 八刻을 初와 正에 各 四刻씩 나누어 初一刻 初二刻 初三刻 初四刻과 正一刻 正二刻 正三刻 正四刻으로한 것이다 先天曆의 節候에 節氣와 中氣

가 있음과 같이 后天의 時刻에 初와 正이 있는 것은 初刻은 節氣의 象이오 正刻은 中氣의 象이다 先天曆에 節氣와 中氣가 있으되 日月度數의 變化는 中氣에 行하니 例컨대 太陽이 冬至日에 南至에 至하고 夏至日에 北至에 至하고 春分日과 秋分日에 赤道를 넘는데 冬至 夏至 春分 秋分은 모두 中氣日이다

이 理에 依하여 后天曆의 節候는 모두 時刻의 中氣의 象인 正刻에 들고 十一分이라 함은 十一歸體의 뜻으로서 十一의 數가 되는때에 節候가 드는 것이다

自乙酉日 酉正一刻十一分 至庚子日子正一刻十一分 = 十四日三時間

自庚子日 子正一刻十一分 至乙卯日卯正一刻十一分 = 十五日三時間

自乙卯日 卯正一刻十一分 至庚午日午正一刻十一分 = 十五日三時間

自庚午日 午正一刻十一分 至乙酉日酉正一刻十一分 = 十五日三時間

節候의 名稱은 모두 初三日은 和가되고 十八日은 化가되니 이는 后天曆은 萬曆而圖兮咸兮恒兮의 뜻에서 取한 까닭에 咸卦의 天下和平과 恒卦의 天下化成의 뜻을 取하여 和와 化를 쓰니 이는 后天에는 陰陽이 調和하고 人心이 感應하여 天下가 和平하고 또 化成하는 까닭이다

癸未朔之理

天一壬水兮 萬折必東 地一子水兮 萬折于歸 故壬子有潮汐之變 一六壬癸水位北 二七丙丁火宮南 故 壬干 午支 有潮汐之變 日月之胞胎養生 皆於陽干陽支 故潮汐之變亦於壬子午壬日之次爲癸日 己甲夜半生癸亥 故癸爲朔

子午之次爲丑未 故癸未癸丑爲朔

歲甲申六月二十六日戊戌校正書頌　月合中宮

歲甲申流火六月七日大聖七元君書　水潮水汐

歲甲申七月十七日己未不肖子 金某感泣奉書　安泰父母心

歲甲申月丙子日戊辰二十八書正　道乃分三

乙酉歲癸未月乙未日二十八 不肖子 金某謹奉書　十一吟

第一章 象과 數의 圖像과 時運

第一節 象의 圖像

象의 圖像이라함은 八卦를 말하는 것이니 八卦는 그 個個體로는 天地 雷風 水火 山澤이 宇宙構成의 原體가되고 그 作用으로는 生命氣精形이 萬物을 生生하는 順序가 되는 것이며 萬物에 生長成의 理가 있으므로 萬物의 生生을 象한 八卦에도 또한 生長成의 象이 있는것이오 이 生長成의 象은 八卦의 自然스러운 圖像組織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곧 八卦圖像에 나타나는 時運이다

八卦는 萬物을 生生하는 原體로 되어있으나 八卦의 個個로서는 萬物을 生生하지 못하고 반드시 八卦가 交互作用하여 하나의 生生法則으로 되는때에 비로소 萬物을 生生하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 八卦의 交互作用하는 生生法則을 圖像化한 것이 지금 易學에 있는 八卦圖이다 八卦圖에는 伏羲八

卦圖 文王八卦圖 正易八卦圖가 있으니 伏羲八卦圖는 天地가 渾沌하여 組織體의 象이 되므로 生의 時運의 象이되고 文王八卦圖는 四時가 流行하여 物의 자라는 象이 되므로 長의 時運의 象이되고 正易八卦圖는 生長한 物이 天으로 還行하여 여무는 象이 되므로 成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다

第二節 數의 圖像

數의 圖像이라함은 一로부터 十까지의 天然自然數의 排列을 말한것이니 自然數에는 一六水 二七火 三八木 四九金 五十土의 五行이 있고 五行은 萬物을 生成하는 氣로되는데 五行의 個個로서는 萬物을 生生하지 못하되 五行이 一定한 圖像으로 排列되는때는 萬物生生의 法則이 되는 것이다 五行圖에는 河圖 洛書 后天九宮圖가 있으니 河圖는 十數가 모두 五位에 保合되어 開坼되지 아니한 組織體로 되어 있으므로 生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오 洛書는 數가 九位로 開坼되어 生長數의 極數인 九까지 發展하므로 長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오 后天九宮圖는 數가 開坼하고 十數까지 具全하여 있으므로 成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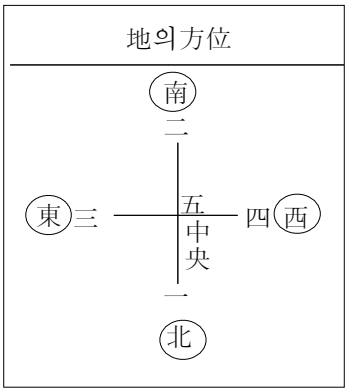
八卦와 五行의 關係

天地間의 生命은 自體가 永遠히 生生하기 爲하여 씨를 作成하는 것이므로 씨에는 八卦의 象과 五行의 數가 아울러 있으니 八卦의 象은 無形에서 始하여 無形한 生命이 有形으로 化함을 象함이오 五行의 數는 形의 發生에서 始하여 形의 속에 無形한 生命을 갈무리하여 生命體로 됨을 象함이다

그러므로 八卦와 五行은 그 本源이 同一하여 모두 生命의 生生運動에서 出發하고 다만 그 發展이 象과 數의 둘로 나뉘운 것이다

第二章 生의 時運의 圖像

第一節 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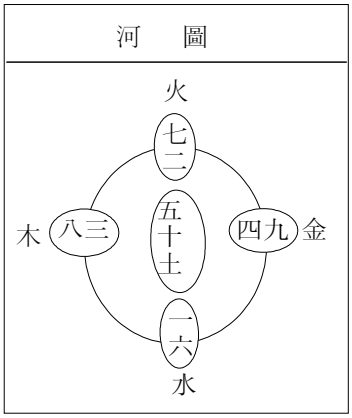


河圖數는 天地組織의 原理를 말한것이니 地球에는 北極과 南極을 連結하는 直軸이 있어 縱線이되고 縱線에는 始端과 終端이 있는데 地의 北極은 天과 通하고 萬物은 天에서 始하는 것이므로 北極은 始端이되어 一이되고 그 相對方인 南極은 終端이 되어 二가 되는 것이다

地球에 이미 南北極의 縱線이 있으면 또한 그 縱線과 交叉하는 日月運行의 橫線이 있고 그 橫線에도 始端과 終端이 있는 것인데 太陽은 東에서 나와서 西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東方은 始端이 되어 三이되고 그 相對方인 西方은 終端이되어 四가 되는 것이다 縱線과 橫線의 兩端은 마치 磁石에 兩端이 있어 하나는 陽極이 되고 하나는 陰極이 되고 함과 같이 하나가 陽數가되면 다른 하나는 陰數가 되는 것이므로 北端이 一의 陽數가 되면 南端은 스스로 二의 陰數가 되는 것이오 東端이 三의 陽數가 되면 西端은 스스로 四의 陰數가 되는것이며 縱線과 橫線이 있으면 반드시 兩線의 交叉하는 中央點이 있으니 이 點이 五가 되는 것이다

北南東西 및 中央의 一六 二七 三八 四九 五十의 數는 地의 五方位가 되는데 一二三四五는 生數이오 生이 있으면 반드시 成이 있는 것이므로 이 生數는 스스로 六七八九十의 成數와 配合하여 北의 一六 南의 二七 東의 三八 西의 四九 中央의 五十이되니 이가 河圖의 原理이오 河圖數는 또한 龍馬가 등에 그림을 지고 河水에서 나온 天의 啓示로서 原理와 啓示가 서로 符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一六 二七 三八 四九 五十의 數에는 水火木金土라는 五行性이 있다 天地는 乾元生命元의 氣化 精化 形化하는 八卦의 順序를 따라서 無形에서 有形을 生하며 萬物의 씨는 有形의 始인 精化에서 始하여 天地自然數의 水火木金土의 五行順序를 따라서 生命體를 이루는 것이니 八卦는 物의 形象이오 五行은 物의 數이다 萬物은 반드시 象과 數가 있고 無形에서 象이 먼저 나타난 然後에 有形이 되어 數가 나타나는 것인데 八卦는 天地의 組織된 形象이오 五行은 天地의 運行하는 數이므로 無形한 生命元의 形化順序는 八卦組織의 形象에 依하고 有形한 씨의 生成順序는 五行運行의 數에 依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五行의 數는 八卦象 속의 有形의 始인 坎水離火에서 始하는 것이다



天地의 처음에는 無形한 氣化의 씨가 生하고 氣化의 씨는 有形한 水精을 얻어서 비로소 體를 이루니 水精은 天地間에 有形한 第一次이므로 自然數의 一을 水라 한것이오 이것을 象으로써보면 水는 凝收하여 聚合하는 作用이 있고 一이라는 數가 또한 聚合하는 象이 되므로 水는 一數가 되는 것이며 水는 반드시 生命을 含하여 萬物을 生養하고 있으므로 이 生命水가 有形의 始로 되는 것이다

天地間에는 原天火가 流行하고 있으나 火는 依附할 體가 없으면 氣가 聚치 못하여 形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水의 形이 먼저 生하고 氣化의 씨가 水精을 얻어서 體를 삼은 然後에 그 依附한 火氣가 비로소 形을 生하니 이가 곧 火精이오 火精은 有形한 第二次이므로 自然數의 二를 火라 하는 것이오 이것을 象으로써보면 火는 發揚하여 分散하는 作用이 있고 二라는 數가 또한 兩分發散하는 象이되므로 火는 二數로 되는 것이며 火는 燒着할 物만 있으면 無限無窮히 퍼져나가는 作用이 있으니 이것은 神作用이다 生命과 神은 一體二元이되고 水와 火가 또한 對待하고 있으므로 水는 生命을

含하고 火는 神作用을 含하여 五行有形의 始로 되는 것이다

水는 風의 冷極凝收에 依하여 비로소 形을 生하고 火는 雷의 相擊發散에 依하여 形을 生하므로 水에는 合一의 뜻을 取하고 火에는 兩分의 뜻을 取한 것이다

一水二火의 精이 生한 然後에 氣化의 씨가 水火를 體로하여 水中의 生命과 火中의 神作用을 合하여 비로소 精化의 씨가 되고 이것이 有形한 第三次이므로 自然數의 三을 씨라하고 地上에서 씨가 最初로 나와서 生物이 된 것이 곧 植物이므로 三을 또한 木이라 하는 것이며 이것을 象으로써보면 木은 生物의 始가 되어 發生分枝하는 作用이 있고 三이라는 數가 또한 一水二火를 合體하여 水火의 聚散作用으로써 新物을 生하는 象이되므로 木은 三數로 되는 것이다

三木은 精化의 씨이오 精化의 씨가 金石의 形質을 合하여 內部에 剛健한 陽氣를 含하고 外部가 收斂하여 外寒內溫하여 形化의 씨로되니 이는 곧 씨를 含한 열매 形質이오 열매 形質은 有形한 第四次이므로 自然數의 四를 金이라하니 金은 內部에 剛健한 陽氣가 있고 外部가 收斂하여 그 組織이 열매와 같으므로 金으로써 열매를 象한 것이오 열매 形質은 外寒內溫한 까닭에 오래 貯藏할 수가 있고 또 溫熱을 加하면 內에서 坼出하는 것이다

이것을 象으로써 보면 金은 形體를 成하는 作用이 있고 四라는 數가 또한 四圍를 包한 方形으로되어 하나의 個體를 成하는 象이 되므로 열매 形質의 組織인 金은 四數로 되는 것이다

自然數의 一二三四의 水火木金이 合하면 物을 生育하는 生命體로되니 씨의 氣精形을 總合한 生命體는 生物이오 地上에서 水火木金을 總合한 生命體는 土이라 그러므로 生物은 土의 象이 되어 모든 生物의 生命은 반드시 土의 生命體에서 生成하는 것이오 이것은 有形한 第五次이므로 自然數의 五를 土라 한 것이다 이것을 象으로써 보면 土는 萬物을 生하는 生命體의 作用

이 있고 五라는 數가 또한 四圍를 成한 形體의 속에 一水가 聚合하여 精化의 씨를 包한 象이되므로 生命體인 土는 五數로 되는 것이다

一水二火三木四金五土는 氣化의 씨가 形化하여 生命體로 됨을 象한 것이므로 이것을 始生하는 生數라하고 物은 自體의 生成法則에 依하여 生한 者는 반드시 여무는 것이므로 生數는 다시 五土의 生命體數를 合하여 物의 여무는 成數로 되는 것이니 一水에 五土를 合한 것은 六水로서 水精의 여문 成水이오 二火에 五土를 合한 것은 七火로서 火精의 여문 成火이오 三木에 五土를 合한 것은 八木으로서 씨의 象인 木의 여문 成木이오 四金에 五土를 合한 것은 九金으로서 열매의 象인 金의 여문 成金이오 五土에 五土를 合한 것은 十土로서 生命體의 象인 土의 여문 成土이니 이가 곧 一六水 二七火 三八木 四九金 五十土이며 그러므로 自然數의 五行生成數에는 萬物의 씨와 및 生物體의 生成變化하는 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河圖의 五方位는 모두 生數와 成數가 合하고 있으니 이는 萬物에는 各其自體의 生成法則이 있어 生한 者는 반드시 여무는 것이므로 生數와 成數가 合하여 있는 것이오 이 生數와 成數의 五行이 서로 作用하여 萬物의 數의 變化를 일으키는 것이다

五行의 作用을 四方과 四時로써 分別하여 보면 水는 北方 冬에 屬하여 生命力을 含有하고 씨를 生養하고 있는 生命水의 象이오 火는 南方 夏에 屬하여 光明과 溫熱로써 分布作用을 行하면서 그 分布가 또한 合成作用으로 되어 物을 키우는 象이오 木은 東方春에 屬하여 새싹이 發生하는 象이오 金은 西方 秋에 屬하여 內部에 陽氣를 聚하고 成實하는 象이오 土는 中央에 屬하여 生命體의 原體의 象이다

五行相生

河圖의 五行은 四時의 順序를 따라서 圜行하면서 物을 相生하고 있으니 相生이라 함은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이오 五行은 自體의 生生을 爲하여 他를 相生하는 것이다 水生木이라 함은 水는 生命作用을 含하고 있어 그 生命作用을 發宣하여 씨를 生養하는 것이 곧 生命의 生生하는 것이므로 水는 自體의 生을 爲하여 木을 生하는 것이오 北方一六水가 겨울의 水로서 東方三八木을 生하여 봄에 씨가 發育케하는 것이 또한 水生木의 象이다 木生火라함은 木은 씨의 象이오 火는 神作用을 含하고 있는 것이라 씨가 光과 熱을 發하여 神作用을 生하는 것이 木의 生生하는 것이므로 木은 自體의 生을 爲하여 火를 生하는 것이오 東方三八木이 봄에 發生하는 씨로서 南方二七火를 生하여 여름에 싹이 長育케 하는 것이 또한 木生火의 象이며 水의 生命作用과 火의 神作用은 一物의 兩作用이다 火生土라함은 土는 生命體이오 火는 神作用이라 火의 光熱이 神의 作用을 生하여 土의 生命體中에서 萬物을 養하는 것이 火의 生生하는 것이므로 火는 自體의 生을 爲하여 土를 生하는 것이오 南方二七火가 여름의 火로서 中央에서 나온 西南五十土를 生하는 것은 여름의 火氣가 生命體를 生養하고 夏秋의 交에 스스로 中宮에 入하는 것이 또한 火生土의 象이니 火는 外에 있으면 스스로 焚燒하여 消盡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生命體를 生하면서 그 生命體의 中宮에 包藏되어 自體가 生하는 것이다 中央五十土가 西南으로 나가서 作用하는 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中央의 土가 生生作用을 行함에는 水火木金으로 더불어 함께 圜行하여 外部에 나타나서 生命體가 되는 것이오 一年中에 夏秋의 交는 열매가 맺혀서 生命體를 이루는 때이므로 河圖의 中央五十土는 夏秋의 交의 位인 西南으로 나가서 生成作用을 하는 것이니 이는 物이 夏秋의 交에 여물기 始作하는 까닭이오 冬春의 交에는 열매가 터져서 싹이 나기 始作하므로 洛書의 中央五土는 冬春의 交의 位인 東北으로 나가서 生生作用을 하는 것이니 이는 物이 冬春의 交에 生하기 始作하는 까닭이다

河圖의 中央에는 五土의 生土와 十土의 成土가 함께있으므로 夏에 자라고 秋에 여물고하는 夏秋의 交에 作用하여 夏秋의 位인 西南으로 나가서 生命體를 이루는 것이오 洛書의 中央에는 五土의 生土만 있으므로 冬에 閉藏하고 春에 始生하고하는 冬春의 交에 作用하여 冬春의 位인 東北으로 나가서 열매의 싹이터서 자라는 것이다

土生金이라 함은 土는 生命體이오 金은 열매 形質이라 生命體는 陽이 聚結하여 열매 形質을 生하는 때에 生命體 自體가 生하는 것이므로 土는 自體의 生을 爲하여 金을 生한 것이오 中央五十土가 西方 四九金을 生하는 것은 夏秋의 交에 生命體에 열매 形質을 生한 것이 또한 土生金의 象이다 金生水라 함은 열매 形質은 陽이 聚結하고 收斂作用을 行하여 內部에 生命水를 包하는 것이 열매 形質의 生하는 것이므로 金은 自體의 生을 爲하여 水를 生하는 것이오 西方 四九金이 北方一六水를 生하는 것은 가을의 열매 形質이 內部에 水를 包하여 子仁을 勞養하는 것이 또한 金生水의 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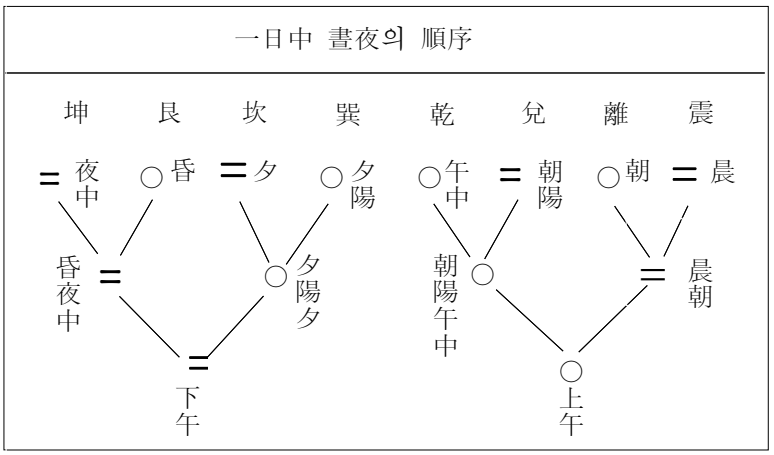
河圖五行의 相生은 物이 世世로 相生하고 繼繼承承하여 窮치 아니하는 象이오 生을 受하는 者가 世代를 繼承하는 것이므로 木이 水를 繼하고 火가 木을 繼하고 土가 火를 繼하고 金이 土를 繼하고 水가 金을 繼하여 生의 時運의 象이되고 人間社會에서는 父子가 相生하여 父傳子承하는 父子道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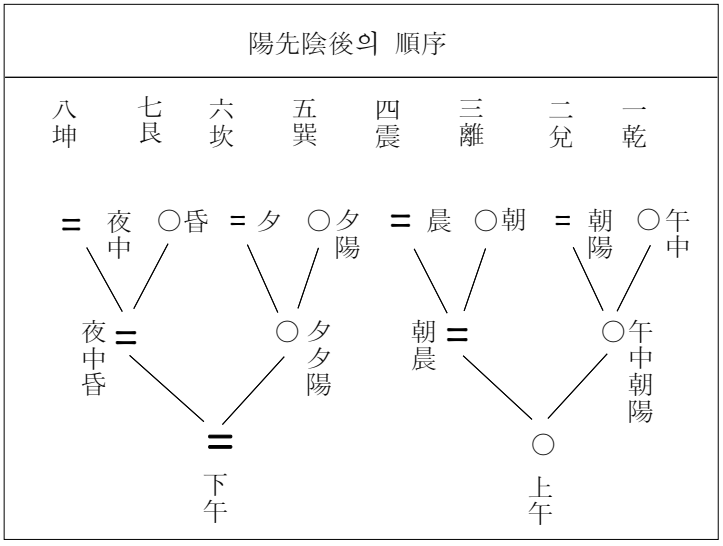
第二節　伏羲八卦圖

伏羲八卦圖는 生의 時運의 象으로서 天地의 生生組織을 圖示하여 天道를 象한 것이다 그 卦圖는 陰陽劃의 排列로써 一日의 象 一月의 象 一年의 象을 排列하여 卦圖를 組織한 것이니 一日 一年의 組織은 太陽의 運行에 依한 것이오 一月의 組織은 달의 運行에 依한 것이며 그러므로 伏羲八卦圖는 日月行度의 組織이다 伏羲八卦圖는 組織의 象인 까닭에 一二三四의 數가

逆行하고 五六七八의 數가 順行하여 東西兩半球로되어 콩짜개의 象이 된 것이다 이제 一日의 象을 例示하건대 一日에는 晨 朝 朝陽 午中 夕陽 夕 昏 夜中의 八時分이 있고 이것을 다시 光明의 度를 標準하여 陰陽으로 나누면 上午는 陽이오 下午는 陰이며 다시 上午를 陰陽으로 나누면 晨과 朝는 陰이오 朝陽과 午中은 陽이며 下午를 陰陽으로 나누면 夕陽과 夕은 陽이오 昏과 夜中은 陰이며 이것을 다시 陰陽으로 나누면 晨은 陰이오 朝는 陽이며 朝陽은 陰이오 午中은 陽이며 夕陽은 陽이오 夕은 陰이며 昏은 陽이오 夜中은 陰이다

이 晨 朝 朝陽 午中과 夕陽 夕 昏 夜中을 圖로써 表示하면 一日中의 晝夜의 順序로 되는 것과 陽先陰後의 順序로 되는 것과의 두가지 圖像이 나온다





一日中의 晝夜의 順序라 함은 晨으로부터 夜中까지의 晨 朝 朝陽 午中 夕陽 夕 昏 夜中의 順序이오 陽先陰後의 順序라 함은 陰陽의 運動

은 本是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고 하여 先後라는 것이 없는 것이나 組織으로써보면 陰이 먼저 存在하고 陽이 뒤에 發하며 運行으로써보면 陽이 먼저 動하고 陰이 뒤에 承하는 것이니 이는 物이 發生할때에는 스스로 能動과 受動이 있어 能動이 先하여 陽이되고 受動이 後하여 陰이 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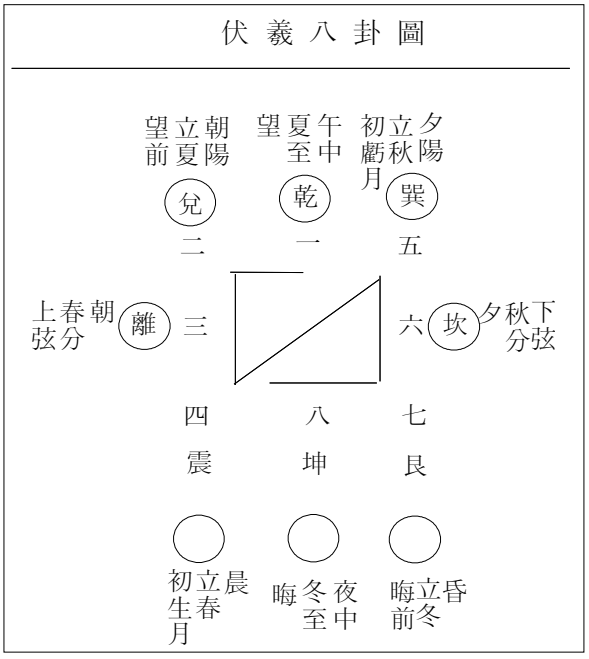
그러므로 모든 事物이 그 動作을 일으키는 때에는 반드시 陽이 先하고 陰이 後하여 一日中에는 上午의 陽이 先하고 下午의 陰이 後하며 一年中에는 春夏의 陽이 先하고 秋冬의 陰이 後하며 陰體와 陽體의 生殖作用에는 陽體의 施精이 先하고 陰體의 受胎가 後하며 自然數에는 陽數 一이 最先하고 陰數 十이 最後하고 하는 것 等이 그 一例이다

伏羲氏는 비로소 八卦를 作하고 또 卦圖를 그려서 一日의 晝夜 一月의 晦朔弦望 一年의 四時를 象하니 이는 陰陽劃의 多少로써 配置한 것이다

伏羲八卦圖는 一日 一月 一年의 日月運行하는 組織體로 된것이오 이것이 組織體로서 아직 發動치 아니하는 象이므로 生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오 一日 一月 一年의 始는 모두 東北의 震에서 起하니 이는 震의 一陽이 下에서 生하여 乾元이 되는 張本이다

震은 一陽이 下에서 生하고 物의 始動하는 象이 되고 있으므로 光明의 始生하는 東北에 있어 一日의 始인 晨이되고 一月의 始인 初生月이되고 一年의 始節인 立春이 되는 것이오 離는 陽이 陰을 體로하고 發顯하여 物의 生長하는 象이되고 天地의 中氣가 되고 있으므로 日出하는 正東에 있어 一日의 朝가 되고 一月의 上弦半月이되고 一年의 晝夜平均한 春分이 되는 것이오 兌는 下의 陽이 陰을 밀고 올라오는 象이 되고 있으므로 陽進하는 東南에 있어 一日의 朝陽이되고 一月의 望前이되고 一年의 立夏가 되는 것이오 乾은 純陽이므로 日中하는 正南에 있어 一日의 午中이되고 一月의 望이되고 一年의 晝間最長한 夏至가 되는 것이다

巽은 一陰이 下에서 生하여 萬物收斂의 始가 되고 있으므로 日昃하는 西南



에 있어 一日의 夕陽이되고 一月의 初虧月이되고 一年의 陰進陽退하는 立秋가 되는 것이오 坎은 陰이 陽을 包藏하고 凝結하여 收斂하는 象이되고 天地의 中氣가 되고 있으므로 日入하는 正西에 있어 一日의 夕이되고 一月의 下弦半月이되고 一年의 晝夜平均한 秋分이 되는 것이다 東의 上弦의 달과 西의 下弦의 달은 同一한 半月인데 東離는 陽多陰少하고 西坎은 陰多陽少하니 이는 東離는 陽의 生長하는 달이므로 火의 象인 離卦가되고 西坎은 陽의 收藏하는 달이므로 水의 象인 坎卦가 된 것이다

艮은 陰이 陽을 消剝하는 象이 되고 있으므로 陽이 退隱하는 西北에 있어 一日의 昏이되고 一月의 月窟이되고 一年의 立冬이 되는 것이오 坤은 純陰이므로 萬物의 歸藏하는 正北에 있어 一日의 夜中이되고 一月의 晦가되고 一年의 夜間最長한 冬至가 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는 生의 時運을 象하여 二老 二長 二中 二少가 各其相對配合하여 그 組織이 正하고 晝夜晦望四時의 組織을 말하므로 天道의 象이 되는 것이다

伏羲八卦의 一乾 二兌 三離 四震 五巽 六坎 七艮 八坤의 數는 五行의 數가 아니오 陰陽消長하는 順序로 되니 이는 生의 時運에 陰陽이 渾沌한 까닭에 五行의 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陰陽消長하는 順序의 數만이 나타난 것이며 그 內容에 있어서는 陰陽消長의 數의 順序가 곧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는 五行數의 根據로 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數는 八坤까지만 있어 八에 止하고 八은 씨를 胚胎한 열매의 象이 되므로 生의 時運에 사람이 始生함을 象한 것이오 이 時運의 사람은 原始人으로서 現地運의 人類의 씨로 되는 것이며 伏羲氏의 劃卦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六千餘年에 當하므로 伏羲氏가 八卦를 劃하고 八卦圖를 지은 것은 伏羲氏의 時代를 象한 것이아니라 人類創生初期를 象한 原圖를 作成한 것이다

生의 時運中에 있는 者는 自體의 生長成法則에 依하여 반드시 長하는 것이라 伏羲八卦圖의 運行하는 數는 그 自體內에 八로부터 九數로 發展하는 機를 包藏하고있어 八卦의 數가 그 相對方끼리에 서로 合하여 一乾과 八坤 二兌와 七艮 三離와 六坎 四震과 五巽이 모두 九로 되는 것이니 이가 生의 속에 長의 機를 包하고 있는 것이며 伏羲八卦圖가 生에서 長으로 넘어간 것이 곧 洛書九宮의 九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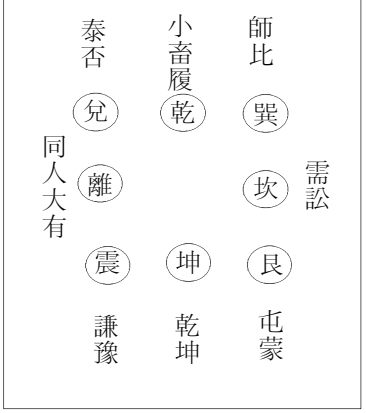
伏羲八卦圖는 天地의 生生組織을 象한 것이오 易經序卦의 初頭八宮이 또한 天地創生의 象으로서 陰體의 作用이되므로 易經初頭는 伏羲八卦圖에서 나와서 伏羲八卦圖를 逆行하는 것이다

坤은 北極에 있는 純陰卦로서 陽을 包하고 天地가 渾沌한 象이오 乾坤은 生命元으로서 宇宙創生의 父母의 象이므로 乾坤은 正北 坤에 當하는 것이오 天地의 運行은 陽이 陰中에 있고 陰이 陽中에 있고할때에는 逆行하는 것인데 生의 時運은 陰運이오 天地의 生成運動을 行하는 序卦는 陽의 作用이므로 陽이 陰中에 있어 正北 坤으로부터 逆行하는 것이다 艮은 西北에서 모든 열매가 여물어서 次世代의 씨를 包有하는 象이오 屯蒙은 生長卦로서 乾坤을 繼世하는 씨가 童蒙이 되어 出生하는 象이므로 屯蒙은 艮에 當하는 것이오 坎은 西方月生의 位에서 陽이 陰中에 陷하여 水流濕하는 象이오 需訟은 天地渾沌中에서 天과 水가 나뉘어서 光明이 上에 나타나고 水가 下로 流行하는 象이므로 需訟은 坎에 當하는 것이오 巽은 西南에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交接하는 象이오 師比는 水土가 비로소 定하고 地球가 天과 相應하는 象이므로 師比는 巽에 當하는 것이오 乾正南에 있는 純陽卦로서 大明의 象이오 小畜履는 달이 始生하여 日月의 光明이 始現하는 象이므로 小畜履는 乾에 當하는 것이오 兌는 東南에서 달의 陰精이 始凝하여 坤元이 되는 象이오 泰否는 天地日月로써 相交하여 帝乙歸妹의 象이므로 泰否는 兌에 當하는 것이오 離는 正東에서 日月光明의 出하는 象이오 同人大有는 달에서 日月의 陰陽이 相交하여 사람의 씨가 始生하는 象이므로 同人大有는 離에 當하는 것이오 震은 東北에서 陽氣가 始動하여 萬物이 始生하는 象이오 謙豫는 달에서 生한 사람의 씨가 地上에 내려와서 사람의 形體가 始生하는 象이므로 謙豫는 震에 當하는 것이다

序卦初頭八宮이 伏羲八卦圖를 逆行하는 序는 또한 陰陽消長의 序에 依한 것이다 伏羲八卦圖가 東北의 震으로부터 正南의 乾에 이르기까지는 陽의 生하는 象이오 西南巽으로부터 正北의 坤에 이르기까지는 陰의 生하는 象이라 陰陽의 消長하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陽의 生하는 方의 震離兌乾을 逆行하여 乾兌離震의 序로 바꾸면 이는 陰의 生하는 것이오 陰의 生하는 方의 巽坎艮坤을 逆行하여 坤艮坎巽의 序로 바꾸면 이는 陽의 生하는 것이다 序卦의 乾坤屯蒙需訟師比의 四宮은 天地渾沌한 中에서 陽의 生하는 象이므로 伏羲八卦圖의 坤에서 起하여 巽까지 逆行하는 것이오 師比로부터 謙豫까지의 五宮은 天上에서 發生한 萬物의 씨가 地上에 내려와서 陰中에서 生育하고 있는 象이므로 泰否의 天地를 中心으로하여 一陰一陽이 中爻에 있어 아직 外現치 아니하고 있는 四宮八卦가 總集한 것이니 이 五宮은 天地의 中宮에서 씨의 形質인 陰이 生하는 象이므로 伏羲八卦圖의 巽에서 起하여 震까지 逆行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와 序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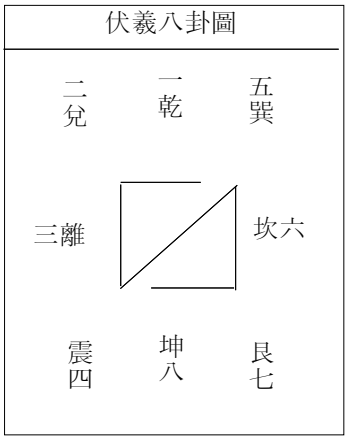
序卦의 乾坤屯蒙需訟은 太初에 陽의 生하는 象이므로 이것을 乾道三宮이라 하고 師比小畜履泰否同人大有謙豫는 中宮에서 陰의 生하는 象이므로 이것을 乾道五宮이라하며 乾道三宮과 五宮을 合한 八宮은 모두 生의 時運의 象이다

第三章 長의 時運의 圖像

第一節 洛書

洛書

物의 生生함에는 象과 數가 生하여 象이 있으면 數가 나타나고 數가 있으면 象이 나타나며 또 生한 者는 반드시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의 時運을 象한 伏羲八卦圖에서 長의 時運을 象한 洛書數의 原理가 나오는 것이다 洛書數는 또한 거북이 등에 그림을 지고 洛水에서 나온 天의 啓示로서 原理와 啓示가 서로 符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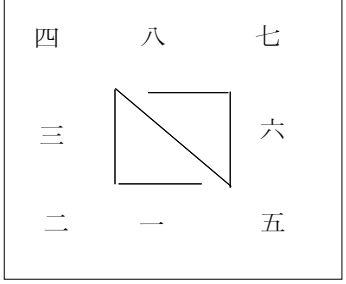


伏羲八卦圖는 卦의 象인데 卦의 象에 數가있고 그 數는 陰陽의 消長하는 數로서 八에 그치고 있으므로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八數로부터 九數로 發展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伏羲八卦圖에서 洛書의 九宮이 나오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八數는 열매의 맺히는 數이오 洛書의 九數는 열매가 터져서 싹이 자라는 數인데 禾穀이 出生하는 때에는 반드시 反易하여 反生함과 같이 八數가 터져서 九數로 자라는 때에도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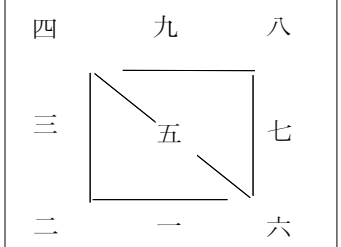
反易의 象이 있는것이오 伏羲八卦圖의 數가 反易하면 天의 位에있는 數와 地의 位에 있는 數가 서로 바뀌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反易數



그런데 數가 八에서 九로 發展하려고하면 스스로 數가 中央에 들어가서 九宮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고 中央에 들어가는 數는 河圖의 中央五十土의 理에 依하여 반드시 五十土가 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反生한 數로써 五十土를 中央에 配定하고 그 行路의 序를 따라서 九宮을 채우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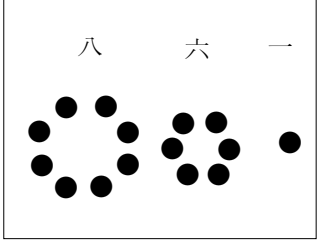
洛書九宮數의 前身



이 九宮圖는 三段으로되고 三段은 天地人의 象이되니 北段은 天의 位이오 南段은 地의 位이오 中段은 人의 位이다 數를 天地人의 形態로써 나타낼 때에는 天은 圜行하므로 圓形의 數는 天의 象이되고 地는 偶하여 方하므로 方形의 數는 地의 象이되고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 直立하여 머리와 발이 三角形을 이루고 있으므로 三角形의 數는 사람의 象이 되는 것이며 自然數中에서 一로부터 九까지의 一二三四五六七八九의 九宮數를 圓形 方形 三角形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數의 方圓三角의理는 易學折中에서 取한 것이다)

圓形의 數는 一六八이니 一은 統一하여 圓의 根이되고 六과 八은 六角과 八角이되고 九宮數의 속에서 오직 六角과 八角이 規劃에 맞는 圓形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一六八을 圓形의 數라 한다

圓形 의 數



方形의 數는 二四九이니 二는 偶하여 方의 根이되고 四와 九는 二와 三의 平方이되고 九宮數의 속에서 오직 四와 九가 平方의 數로서 規劃에 맞는 方形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二四九를 方形

의 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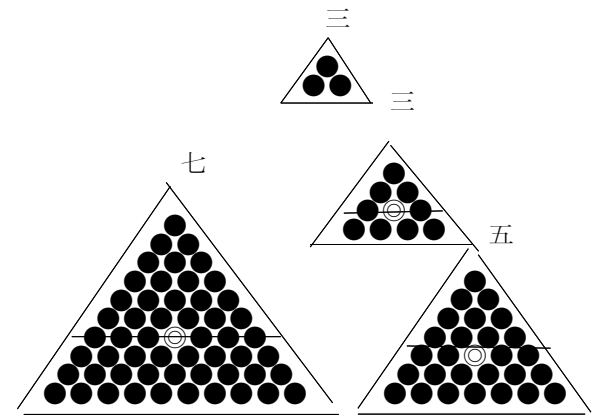
方形의 數

九 四 二



三角形의 數는 三五七이니 三은 三角의 根이되며 또 自然數全體로써 마르재어 三角을 만들면 內三角 中三角 外三角의 셋이 되는데 內三角은 三이 그 中心이오 中三角은 五가 그 中心이오 外三角은 七이 그 中心이니 그러므로 三五七을 三角形의 數라 한다

三角形의 數



伏羲八卦圖에서 反生한 九宮數는 東北의 二가 地의 象인 方形의 數로서 天의 位에 있고 西南의 八이 天의 象인 圓形의 數로서 地의 位에 있으니 이는 九宮中에서 홀로 天地의 位가 定치 못한 것이므로 二와 八은 스스로 그 位를 바꾸는 것이오 그 位를 바꾼 것이 곧 洛書九宮數의 原理이며 洛書의 數는 또한 龜가 그림을 등에지고 洛水에서 나온 天의 啓示로서 原理와 啓示가 서로 符合하는 것이다

洛書九宮數

四	九	二
三	五	七
八	一	六

東北은 萬物의 成終成始하는 方位이오 西南은 萬物이 生長을 極하는 方位이므로 生의 時運이 長의 時運으로 變하는 때에는 東北과 西南에 變化하는 象이 일어나는 것이며 河圖에는 南에 二七火가 있고 西에 四九金이 있었는데 洛書에는 南에 四九金이 있고 西에 二七火가 있어 金火가 서로 바뀌우고 河圖의 五方相生의 順序가 變하여 洛書의 五方相克의 順序로 되니 이는 二와 八의 相易에 依한 天地

의 變化이다

書經의 洪範은 箕子가 洛書의 數를 推衍한 글인데 거기에는 二五事와 八度徵에 모두 肅乂哲謀聖의 五事五徵이 있으니 이는 洛書의 二와 八이 中央의 五를 中軸으로하여 그 位를 變한 까닭에 二와 八에 모두 同一한 五數가 있는 것이다 (洪範二八의 理는 李星湖說에서 取한 것이다)

九宮數의 圖는 數가 九까지 發展하여 長의 時運의 象이되고 物의 자라는 때는 자라는 象의 組織이 되어 陽이 上에있고 陰이 下에 있는 것이므로 洛書九宮의 天地人의 數도 또한 陽이 上하고 陰이 下하여 天의 象인 圓形의 數는 天의 位에 있고 地의 象인 方形의 數는 地의 位에 있고 사람의 象인 三角形의 數는 天地의 사이인 사람의 位에 있는 것이다

洛書는 長의 時運의 象이오 長한 者는 自體의 生長成法則에 依하여 반드시 여물고 物이 여물면 九數로부터 十數로 發展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洛書는 그 自體內에 十數로 發展할 機를 包藏하여 그 數가 相對方끼리에 서로 合하여 北一과 南九 東三과 西七 東南四와 西北六 西南二와 東北八이 모두 十으로 되는 것이니 이가 長의 속에 成의 機를 包하고 있는 것이다

五行相克

洛書는 五行이 四時의 序를 따라서 四方을 圜行하면서 相克으로써 그 生을 營爲하니 相克이라 함은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이오 萬物이 他를 克制하여 그 生을 營爲하는 것은 長의 時運에 自體의 長함을 爲함이오 相克의 理를 生生으로써 보면 物의 對待의 理에 依하여 相克의 속에 또한 相生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克이라 함은 他를 克制하여 自體의 長함을 營爲하는 作用이다

水克火라함은 水는 生命을 含하고 火는 神作用을 含하는데 水는 火를 克制

하여 自體中에 神作用을 保有하여 씨를 養하는 것이 곧 水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水는 自體의 자람을 爲하여 火를 克하는 것이오 火克金이라 함은 火는 神作用으로써 씨를 養成하는 것이오 金은 內部에 陽氣가 聚結하고 外殼이 收斂하는 열매 形質이니 火가 열매 形質을 克制하여 收斂하고 열매 形質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火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火는 自體의 자람을 爲하여 金을 克하는 것이오 金克木이라함은 金은 열매 形質이오 木은 씨이니 열매 形質이 씨를 克制하여 內部에 包有하는 것이 곧 金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金은 自體의 자람을 爲하여 木을 克하는 것이오 木克土라 함은 木은 씨이오 土는 生命體이니 씨는 土에 根着하여 土를 克制하여 生命體의 生命을 얻는 것이 곧 씨 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木은 自體의 자람을 爲하여 土를 克하는 것이오 土克水라함은 土는 生命體이오 水는 生命水이니 土는 生命水를 克制하여 自體中에 包含하는 것이 곧 土 自體의 자라는 것이므로 土는 自體의 자람을 爲하여 水를 克하는 것이다

洛書五行의 相克은 長의 時運의 象으로서 他를 克하는 者가 世代를 繼承하는 것이므로 南方四九金이 東方三八木을 克하여 金이 木을 繼하고 西方二七火가 南方四九金을 克하여 火가 金을 繼하고 北方一六水가 西方二七火를 克하여 水가 火를 繼하고 中央五土가 東北에 나와서 北方一六水를 克하여 土가 水를 繼하고 東方三八木이 東北의 五土를 克하여 木이 土를 繼하는 것이다 中央의 五土가 東北에 나오는 것은 五는 陽土로서 生長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東北의 冬春의 交에 나와서 生長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洛書는 長의 時運의 象이므로 萬物이 모두 自體가 더자라기 爲하여 生長競爭과 勢力鬪爭을 行하고 人間社會에서는 勢力의 强한 者가 社會를 支配하는 君主의 道가 行하는 것이니 所謂 民主社會에서 選擧方法에 依하여 政權을 잡는것도 또한 勢力으로써 相勝하는 君主道의 變形에 不過한 것이다

六七八九의 四象

自然數의 一二三四五는 生數가 되고 六七八九十은 成數가 되는데 洛書數는 長의 時運의 象으로서 九에 그치고 十에 이르지 못하므로 成數中의 六七八九에 四象의 象이 生한 것이다 七九는 陽의 成數이오 六八은 陰의 成數이라 陽은 生長을 主하고 生長이 極하면 九로 되는 것이므로 九는 老陽이되고 生長過程에 있는 七은 少陽이되며 陰은 收斂을 主하고 收斂이 極하면 六으로 되는 것이므로 六은 老陰이되고 收斂過程에 있는 八은 少陰이 되는 것이니 老陽九 老陰六 少陽七 少陰八이 곧 四象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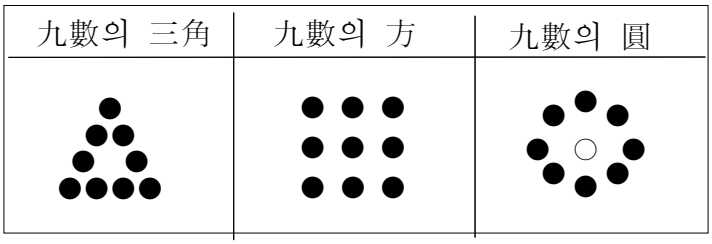
自然數의 生數는 生하는 過程이므로 變化가 없고 成數는 長成하여 여무는 것이므로 變化가 있으며 成數中에서도 老陽은 生長을 極하고 老陰은 收斂을 極하므로 老陽老陰에 變化가 있는 것이다 九는 老陽이 되어 반드시 變하고 陽이 變하면 陰의 收斂作用으로 轉化하여 少陰八을 生하는 것이며 八은 陰의 收斂의 始이므로 少陰이되고 少陰의 收斂이 더욱 發展하면 六의 老陰이 되는 것이다 老陰은 반드시 變하고 陰이 變하면 그 內部에 陽을 受胎하는 것이오 老陰의 受胎한 것은 少陽七이며 七은 陽의 生長의 始이므로 少陽이되고 少陽의 生長이 더욱 發展하면 九의 老陽이 되는 것이다 九에서 八이 生하고 六에서 七이 生하는 것은 陽에서 陰이 生하고 陰에서 陽이 生하는 理이며 老陽老陰은 父母의 象이오 少陽少陰은 子女의 象이라 九六의 老陽老陰이 七八의 少陽少陰을 生하고 七八의 少陽少陰이 發展하여 九六의 老陽老陰이 되는 것은 父母가 子女를 生하고 子女가 長成하여 次代의 父母가 되는 象이니 이는 四象의 聯聯生生이다

易經에는 陽爻에 乾을 象하여 九數를 用하고 陰爻에 坤을 象하여 六數를 用하여 乾坤에 用九用六의 象이 있으니 乾은 陽으로서 生長作用을 行하고 草木의 生長點이 先端과 表皮에 있음과 같이 物의 生長作用은그 先端에 있어 陽數 一三五七九의 先端인 九에 當하므로 乾에 用九의 象이 있는것이오 坤은 陰으로서 收斂作用을 行하고 草木의 收斂部가 中央의 木心에 있음과

같이 收斂作用은 그 中央部에 있어 陰數 二四六八十의 中央인 六에 當하므로 坤에 用六의 象이 있는 것이니 이는 陰陽體 生殖器가 陽體는 先端인 陽根을 用하고 陰體는 中央인 股를 用하고함과 同一한 理이다

九는 陽의 極한 數이오 六은 陰의 極한 數인데 陽의 極은 火가 되고 陰의 極은 水가 되는지라 그러므로 火의 聚結한 太陽은 九數의 象으로서 赤 朱黃 黃 草綠 靑 藍 紫의 七色과 赤外 紫外의 兩線을 合하여 九線이 되는 것이오 水의 凍結한 雪은 六數의 象으로서 모두 六花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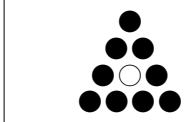
九數는 七數의 生長한 것이오 六數는 八數의 收斂한 것인데 易經에는 陽의 生하는 象에 七日을 말하고 陰의 生하는 象에 八月을 말하며 또 物의 運行을 象한 大衍數의 用은 四十九가되고 物의 組織을 象한 八卦의 因重은 六十四가되니 四十九는 七七의 數이오 六十四는 八八의 數이다 그러므로 太陽에는 七數의 發揚하는 理가 있고 달에는 八數의 凝收하는 理가 있어 七數가 發展하여 九線이되고 八數가 發展하여 六花가 된 것이다



九數는 陽數의 極으로서 生長의 極數이므로 九數를 天地人 三才에 準하여 보건대 天의 象은 圓하므로 九數로서 圓을 作하면 外圍는 八이오 圓의 속에 스스로 一數의 中心이 生하는 것이며 地의 象은 方하므로 九數로써 方을 作하면 外圍는 八이되고 方의 속에 또한 스스로 一數의 中心이 生하니 이는 天地는 生長이 極하면 그 中心에 一數의 알맹이가 生하여 天道와 地道가 成하는 것이오 天道와 地道는 八數로써 外圍를 삼고 一數로써 알맹이를 삼는 것이므로 易學의 八卦圖는 天地의 外圍數로서 天道地道의 成한 象이되고 八卦의 속에 通하고 있는 神明의 德이 神의 作用으로되어 一數의 알맹이가 되는 것이며 洛書九宮圖의 속에 있는 五土는 生命體로서 一數의 알맹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天地를 連結하여 三角形을 이루고 있으니 生長의 極數

인 九數로써 三角을 作하면 外圍가 九로되고 中心이 生치 아니하는 것이오 이는 사람은 長의 時運의 生長만으로서는 外圍만 생기고 中心이 生치 아니하여 알맹이의 없는 쭉정이로 되는 象이다 그러므로 長의 時運으로부터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서 그 數가 十에 至하는때에 비로소 完全한 三角形이되어 中心에 神의 作用이 生하여 人道가 成하는 것이다

十數의 三角



圓과 方은 九數에서 成하고 三角은 十數에서 成하는데 天地間에 出生한 動物은 體가 橫平하여 三角이 되지못하므로 그 竅는 九에 止하고 死後에 사람과 같은 鬼神의 作用이 없고 오직 動物種類에 따라서 鬼의 作用만이 있는 것이다

河圖와 洛書와의 關係

洛書는 伏羲八卦圖의 數에서 生한 것이로되 伏羲八卦圖와 河圖가 同一히 生의 時運의 象과 數로 되어 있으므로 河圖와 洛書가 또한 生의 時運과 長의 時運과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河圖는 中央과 四方과의 五方이되고 洛書는 中央과 八方과의 九宮이되며 河圖數는 相生順序로되고 洛書數는 相克順序로되니 相生은 生의 時運의 象이오 相克은 長의 時運의 象이라 河圖는 生의 時運에 當하여 열매 組織의 開坼되지 아니한 象이므로 그 數는 十數가 具全하여 五方이 保合되어있고 洛書는 長의 時運에 當하여 싹이나고 枝葉이 分布되는 象이므로 그 數는 生長數의 終인 九가되고 九宮으로 擴大되는 것이다

河圖는 十數가 具全하여 太陽의 象이되므로 四時順行의 序로써 運行하지만 洛書는 十數가 缺하여 달의 象이되므로 順行과 逆行의 兩象이 있어 四正의

一三九七은 陽數로서 太陽과 같이 順行하고 四維의 二四八六은 陰數로서 달과 같이 逆行하는 것이다 陰陽數의 參天兩地의 理에 依하여 四正의 陽數에 參을 乘하면 北方 一은 一三이 三하여 東方三이되고 東方三은 三三이 九하여 南方九가되고 南方九는 三九가 二十七하여 西方七이되고 西方七은 三七이 二十一하여 다시 北方一이되니 이는 陽數의 順行함이오 四維의 陰數에 兩을 乘하면 西南二는 二二가 四하여 東南四가되고 東南四는 二四가 八하여 東北八이되고 東北八은 二八이 十六하여 西北六이되고 西北六은 二六이 十二하여 다시 西南二가되니 이는 陰數의 逆行함이다 陽數가 四正을 順行함은 太陽의 行道이오 陰數가 四維를 逆行함은 달의 行道이라 陽數와 陰數가 나뉘어서 順行逆行하는 것은 長의 時運의 日月行道의 象이다 그런데 河圖가 開坼하여 洛書로 되는때에 西方의 四九金과 南方의 二七火가 그位를 바꿔서 金火가 相易하니 이것을 日月行道의 理로써보면 九金은 太陽의 象이오 二火는 달의 象이라 九金이 南에있고 二火가 西南에 있는 것은 달이 太陽의 앞에있는 象이 되는 것이오 달이 太陽의 앞에 있는 것은 後望의 先迷의 달이 되는 것이니 先迷의 달이 곧 長의 時運의 先天달이오 그러므로 洛書는 長의 時運의 달의 行道를 象한 것이다

洛書九宮數

四	九	二
三	五	七
八	一	六

物의 長하는 것은 胎育中의 胎兒의 象이라 洛書는 長의 時運이므로 胎兒가 母胎中에서 자라는 象이 되는것이오 易經의 困井革鼎四卦가 또한 胎宮의 象이니 그러므로 洛書東北의 一六水와 三八木은 胎宮卦의 水風井의 坎水巽木이오 洛書西南의 四九金二七火는 胎宮卦의 澤火革의 兌金離火이다 井卦에 改邑不改井이라함은 胎宮은 變改되지 아니하고 胎兒의 入胎와 出生의 變改가 있다함을 말함이오 正易에 氣東北而固守라함은 洛書의 東北 一六三八의 方位가 河圖東北의 一六三八의 方位를 變改치 아니하여 不改井의 象이 됨을 말함이며 革卦에 己日乃孚라함은 陰體의 兌澤이 太陽의 陽氣를 承受하여 胎兒를 胎育한다함을 말함이오 正易에 理西南而交通이라 함은 洛書

의 四九二七의 方位가 河圖西南의 四九二七의 方位를 變改하여 胎宮의 門이 通하면서 胎兒가 入胎됨을 말함이며 洛書의 中宮에 있는 五土는 生數의 生命體로서 胎兒의 象이니 그러므로 洛書는 長의 時運에 胎宮에서 第二世를 胎育하는 象이오 先天의 復上月도 또한 洛書中宮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胎宮에서 胎兒가 生하면 父母의 世代는 終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易經의 序卦에 夬卦의 剛長乃終이라함은 父가 陽精을 陰體에 施하고 그 任務를 終하는 象을 말함이오 萃卦의 用大牲이라함은 母가 胎兒를 胎育하고 그 任役을 終하는 象을 말함이며 胎宮中의 革卦에 大人虎變君子豹變小人革面이라함은 胎兒가 자라서 形을 成하는 象을 말함인데 母卦인 萃卦는 序卦의 第四十五卦이오 洛書九宮의 自然數總合이 또한 四十五數이니 이는 洛書가 胎兒를 胎育하는 母體이라 함을 말함이다 洛書의 九數가 十數로 發展하여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때는 第四十五卦가 또한 第四十六卦의 升卦로 發展하여 여기에서 胎兒出産하는 것이니 이는 洛書九宮이 사람을 胎育하는 胎宮이라 함을 말함이며 胎兒가 出産하면 洛書의 九數時運이 終하고 后天의 十數時運이 오는 것이니 이는 易經에「洛에서 書가 出하매 聖人이 則하였다」한 一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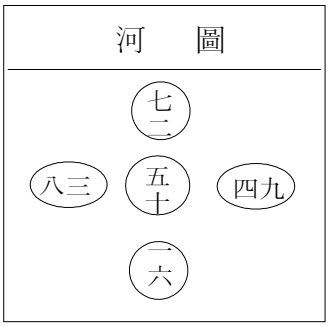
序卦終之未濟卦有井象(未字汔字가 井과 未濟에 있다) 乾卦有革象(乾道乃革이 與革同象) 故序卦自未濟 越后天之乾 有井革之象 此乃洛書之東北西南爲正易之氣 東北而固守理西南而交通而越於后天之象也

第二節

文王八卦圖

物의 生한者는 반드시 자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의 時運을 象한 河圖의 數에서는 반드시 長의 時運을 象한 文王八卦圖의 象이 나오는 것이며 長의

時運은 物이 地上에서 자라는 것이므로 文王八卦圖는 地上에서 萬物이 자라서 將且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地道를 말한것이니 그러므로 晝夜四時 晦望의 象을 말한 伏羲八卦圖는 天道의 象이되고 地上萬物의 生長하는 象을 말한 文王八卦圖는 地道의 象이 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河圖의 開坼한 五行數로써 卦圖를 構成한 것이니 이는 易經에 河에서 圖가 出하매 聖人이 則하였다 한 一例이다

河圖는 南北의 縱線과 東西의 橫線이 交叉하여 四方과 中央의 數를 生한 것인데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갈때에는 그 數가 스스로 發展하여 開坼치 아니할 수가 없고 그 開坼하는 形態는 中央의 五十은 土의 生命體로서 內部에 있으면서 生命을 發宣하고 水火木金이 四方으로 分布하되 生數는 幼少하여 그 자리를 變치 아니하고 오직 成數만이 자라서 그 자리를 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數 一二三四는 그대로 本자리에 있고 成數가 자리를 옮겨서 順布하여 四維에 開坼되어 北의 六은 東北으로 옮기고 東의 八은 東南으로 옮기고 南의 七은 西南으로 옮기고 西의 九는 西北으로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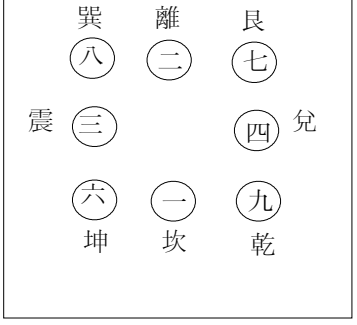


河圖의 開坼된 數에는 그數의 五行과 同一한 五行인 卦가 있다 乾은 內部에 剛健한 陽氣를 含하고 外部가 收斂하여 外寒內溫하며 金의 性이 또한 內部에 剛健한 陽氣가 있고 外部가 收斂하여 그 組織이 乾과 같으므로 乾은 金이 되는 것이오 兌는 內部가 剛鹵하고 一陰이 外에 있어 收斂하므로 또 金이 되는데 乾은 純陽이므로 陽性의 金이 되고 兌는 陰中에 있으므로 陰性의 金이 되는 것이다 坤은 地이오 艮은 山이니 地와 山이 모두 土에 屬하나 地는 卑濕하므로 水를 含한 土가되고 山은 高起하므로 火를 藏한

土가 되는 것이다 震은 陰中에서 陽이 動하여 씨의 象이되고 地上에 最初로 씨가 나서 生物이된 것은 植物이므로 震은 木이 되는것이오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에 入하고 그와 反對로 地의 陽氣가 上向하여 倒行하니 이는 樹木의 根이 地에 着하고 幹枝가 天을 向하여 上升하는 象이 되므로 巽은 木이되는데 震은 싹의 始生하는 것이므로 陽木이되고 巽은 幹枝의 茂盛한 것이므로 陰木이 된 것이다 坎水와 離火는 卦의 本象이 그러한 것이다 乾兌金 震巽木 坤艮土 坎水離火는 物의 자라는 때의 五行이다

數와 卦를 同一한 五行끼리에 配置하면 一은 陽水이므로 陽水卦인 坎이 되고 二는 陰火이므로 陰火卦인 離가되고 三은 陽木이므로 陽木卦인 震이 되고 八은 陰木이므로 陰木卦인 巽이되고 四는 陰金이므로 陰金卦인 兌가 되고 九는 陽金이므로 陽金卦인 乾이 된 것이다 六은 陰水이오 七은 陽火이니 八卦中에는 陰水卦와 陽火卦가 없으며 또 陰水는 地中으로 흐르는 水이오 陽火는 外部에 나타나면 스스로 燒盡하는 것이므로 土中에 숨어서 爆發하여 山이 되는 火이니 그러므로 陰水六은 陰土卦인 坤이되고 陽火七은 陽土卦인 艮이되어 高燥한 山은 火의 炎上하는 象이되고 卑濕한 地는 水의 潤下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數에配置한 五行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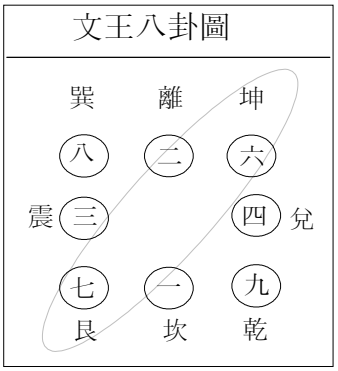


物이 生의 時運에는 아직 開坼치 아니하므로 陰陽이 渾沌하여 서로 保合하고 있으나 이것이 開坼하여 長의 時運이되면 陰陽이 上下에 定位하여 陽이 天의 位에 있고 陰이 地의 位에 있어 마치 伏羲八卦圖가 洛書로變할때에 圓形의 天數 一六八이 天의 位에 있고 方形의 地數 二四九가 地의 位에 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河圖가 開坼하여 文王八卦圖로 變할때에는 一三七九의 陽數와 乾震坎艮의 陽卦가 모두 天의 位인 北半球에 있게되고 二四六八의 陰數와 坤巽離兌의 陰卦는 모두 地의 位인 南半球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開坼한 河圖에는 六坤의 陰數陰卦가 天의 位에 있고 七艮의 陽數陽卦가 地의 位에 있으니 이것은 그 位가 스스로 轉變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오 그 轉變된 卦圖가 곧 文王八卦圖이다

伏羲八卦圖의 數가 洛書로 變할때에 東北의 二와 西南의 八이 相易하고 河圖가 文王八卦圖로 變할때에 또한 東北의 六坤과 西南의 七艮이 相易하니 이는 生의 時運으로부터 長의 時運으로 넘어가는때에 天地의 變化가 일어나는 象이다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에 物의 자라는 象이므로 伏羲八卦圖의 八卦가 老長中少의 各其正配함과는 달라서 坎離의 中男中女以外에는 그 相對配合하는 陰陽이 모두 老長少가 混合하여 乾巽이 相對하고 坤艮이 相對하고 震兌가 相對하여 正치 못하고 陰陽의 消長으로써 相對作配하고 있는 것이다



陽卦의 性은 上升하고 上升하는 作用은 卦의 上劃에 있으니 그 上劃을 떼어내어 上升함을 抑制하고 그 反對되는 一劃을 아래에 添加하여 下降作用을 行케하면 陽卦가 陰卦로 轉化하는 것이오 陰卦의 性은 下降하고 下降하는 作用은 下劃에 있으니 그 下劃을 떼어내어 下降함을 抑制하고 그 反對되는 一劃을 위에 添加하여 上升作用을 行케하면 陰卦가 陽卦로 轉化하는 것이다

이 原理에 依하면 乾은 陽卦이므로 上劃陽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陰劃을 아래에 添加하면 陰卦巽으로 되는것이오 巽은 陰卦이므로 下劃 陰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陽劃을 위에 添加하면 陽卦 乾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西北乾과 東南巽의 相對이다

坤은 陰卦이므로 下劃陰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陽劃을 위에 添加하면 陽

卦艮으로 되는 것이오 艮은 陽卦이므로 上劃 陽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陰劃을 아래에 添加하면 陰卦坤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西南坤과 東北艮의 相對이다

震은 陽卦이므로 上劃陰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陽劃을 아래에 添加하면 陰卦兌로 되는 것이오 兌는 陰卦이므로 下劃 陽을 떼어내고 그 反對되는 陰劃을 위에 添加하면 陽卦震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東震과 西兌의 相對이다

坎離는 中男中女의 正配이면서 또한 陰陽의 消長으로써 相配하니 坎은 陽卦이므로 上劃陰을 떼어버리고 그 反對되는 陽劃을 아래에 添加하면 陰卦離로 되는 것이오 離는 陰卦이므로 下劃陽을 떼어버리고 그 反對되는 陰劃을 위에 添加하면 陽卦坎으로 되는것이니 이는 北坎과 南離의 相對이다 이와같이 文王八卦圖는 陰陽消長으로써 相對하므로 水火가 中軸이되어 水火의 精으로써 聚한즉 形을 成하고 散한즉 無形이되니 水火의 聚散은 物의 長하는 象이며 그러므로 長의 時運에는 陰陽이 서로 往來聚散하면서 生殖本能의 發露가 가장 盛行하고 또 老長中少의 相對하는 陰陽秩序가 正치 못하므로 男女의 陰陽關係가 가장 複雜한 것이다 物의 長함은 地道이오 地上에서는 사람이 萬物을 다스리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男女關係가 複雜하고 人口의 크게 蕃殖하는 것이 長의 時運의 特徵이며 人口가 너무 늘어서 地力으로써 그 生活을 維持하기 어려운때가 오면 그것이 長의 時運의 末期가 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을 象한 것이므로 八方의 卦에는 四時가 流行하여 物의 長하는 象이 나타나있는 것이니 陽卦는 震子에서 始하여 陰卦를 順歷하는 동안에 巽股에 入하고 離火宮에 麗하고 坤母의 자리에 이르러 兌卵子를 合하여 形質이 자라고 乾의 生命元과 坎의 水精과 艮의 土形에서 精形이 合하여 열매가 되는 것이니 이는 震子가 陰卦에서 形質이 자라고 陽卦에서 열매를 이루는 象이며 그러므로 文王八卦圖의 長하는 作用은 震에서 始하는 것이다 東方震은 帝出乎震이니 帝는 萬物을 生하는 神이오 震은 씨

의 元인 震子이오 東方은 太陽의 나오는 方으로서 正春의 節에 當하므로 震은 神이 正春에 萬物을 生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東南巽은 齊乎巽이오 齊는 萬物의 潔齊함이니 巽은 天氣가 下降하여 地를 接하고 春夏의 交에 當하므로 씨에서 나온 萬物의 形質이 淨潔齊一히 자라는 象이 되는 것이다

易理에 乾坤은 長男長女인 雷風으로써 用을 삼고 雷風의 氣에 依하여 運行하여 天行健의 象이되며 雷風의 氣가 水火의 精을 生하여 日月의 體가되니 그러므로 日月은 雷風에서 生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長男인 震子가 東方에서 始出하여 씨의 生하는 象이되고 長女인 巽陰이 東南에서 潔齊하여 形質의 生하는 象이되니 이는 太陽이 東에서 出하여 四時를 流行하는 象이며 太陽은 雷風의 氣로써 運行하여 物을 자라게하는 作用을 行하는 것이므로 文王八卦圖는 乾坤의 長男長女인 雷風이 用事하여 天行健의 生長作用을 行하고 無形으로부터 有形을 生하여 長의 時運의 象이 되는 것이다

先天으로부터 后天으로 넘어갈때에도 雷風이 宇宙의 中位에 있어 日月變化의 作用을 行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文王의 지은 易經의 基礎理論이 되고 있으므로 易經全體가 震子의 生成史로되고 震子와 巽陰이 陰陽相配하여 萬物을 자라게하는 象을 말한것이니 序卦에 主器者莫若長子라한바 長子는 震이니 이는 長子震이 乾坤의 繼世子가 되고 있음을 말함이오 中女少女의 同居하는 睽卦와 革卦는 그 志가 不同行 不相得이 되고 있으되 長女와 中女가 同居하는 家人卦와 鼎卦는 家事和合의 象이되니 이는 長女巽이 家道를 主하고 있음을 말함이며 易卦中에 震이 下卦에 있는 初九爻가 모두 씨의 象이되고 巽이 上卦에 있는 六四爻가 모두 得位의 象이 되는 것은 文王八卦圖의 長의 時運에 雷風이 用事하고 있는 까닭이다

南方離는 相見乎離이니 南은 日中하는 位로서 光明한 方이오 正夏의 節에 當하므로 萬物의 形質이 자라서 陽氣를 包하고 枝葉花實이 모두 나타나서 相見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西南坤은 致役乎坤이니 坤은 地이오 夏秋의 交

에 當하므로 形質의 자람을 마치고 열매를 맺아서 씨를 胎養하여 母의 役을 다하는 象이오 西方兌는 說은 陰陽의 嘉會함이라 正秋의 節에 當하므로 陰質의 收成한 속에 씨를 包하고 內部에 陽氣를 蓄하고 陰陽이 嘉會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言이라함은 形質의 속에서 陽氣가 發宣하여 聲音을 내는 것인데 兌는 陰質中에서 乾陽의 發宣하는 象이되므로 陰陽의 嘉會하는 言이라 한것이오 西北乾은 戰乎乾이니 戰은 陰陽의 相薄함이라 秋冬의 交에 當하여 天道의 變化하는 時節이므로 陰陽이 相薄하여 陽이 陰中에 入하고 열매가 固有의 性命을 具하여 次代의 父의 象이 되는 것이오 北方坎은 勞乎坎이니 勞라함은 萬物이 그 原體인 根이나 씨에 歸하여 水液中에서 精氣를 蓄하는 것이라 正北의 冬節에 當하여 水液中에 潛하여 다음에 出顯할 精氣를 養하는 象이 되는 것이오 東北艮은 成言乎艮이니 冬春의 交에 當한 土이므로 萬物의 成終하고 또 成始하는 곳이되며 成言이라함은 陽氣가 여물어서 外에 發宣한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艮은 열매가 맺히고 또 열리고 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八卦中에 特히 艮兌에만 言을 말한 것은 言이라함은 妙萬物而爲言하는 神의 言이오 艮兌는 半字로된 少男少女로서 后天에 넘어가서야 여무는 것인데 艮兌의 여무는 것은 神의 作用이니 艮兌에 言을 말한 것은 艮兌가 后天에 넘어가서 神의 作用을 行한다함을 말한 것이다

文王八卦圖의 長하는 組織原理는 伏羲八卦圖의 生의 組織에서 由來한 것이니 伏羲八卦圖의 北坤南乾이 자라기 爲하여 相交하면 乾은 坤의 中氣를 얻어서 離火가되고 坤은 乾의 中氣를 얻어서 坎水가 되니 이가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이오 北坎南離는 地球가 坎水離火로써 地軸을 삼고 水火의 聚散作用을 行하여 物을 기르는 象이다

伏羲八卦圖의 東離는 太陽의 生하는 象이오 西坎은 달의 生하는 象인데 日月이 자라기 爲하여 相交하면 太陽의 震子와 달의 兌澤이 相合하여 物의 形質이 자라는 것이니 이가 文王八卦圖의 東震西兌로서 震子와 兌澤이 合하여 地上의 萬物이 生에서 長으로 發展하는 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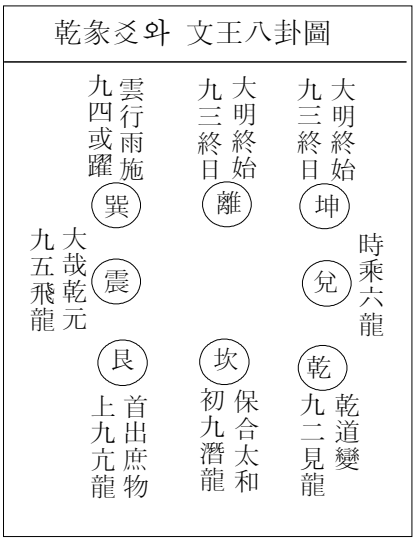
伏羲八卦圖의 西北艮은 地가 上으로 天을 接하여 陽體의 生하는 象이오 西南巽은 天이 下로 地를 接하여 陰體의 生하는 象인데 陽體가 자라면 乾父가되고 陰體가 자라면 坤母가 되는 것이니 이가 文王八卦圖의 西北乾과 西南坤으로서 地上의 萬物이 陽體와 陰體가 자라서 父母로 되는 象이다 文王八卦圖의 乾坤은 萬物의 父母로서 一方에 傾居하여 있는 것은 長의 時運의 象이니 水는 乾體中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乾이 먼저 西北에 位한 然後에 順行하여 正北의 水를 生하는 것이오 火는 坤體中에 藏하는 것이므로 離火가 먼저 正南에 居한 然後에 西南에 位한 坤이 火를 藏하여 生하는 것이니 이는 乾坤이 長의 時運에 物을 기르기 爲하여 自身은 西北과 西南에 傾居하여 水火를 生하고 그 水火로 하여금 發用하여 萬物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東北震東南兌는 陽體의 震子와 陰體의 兌澤인데 震이 자라면 反生하여 陽體艮이되고 兌가 자라면 反生하여 陰體巽이 되는 것이니 이가 文王八卦圖의 東北艮東南巽으로서 長의 時運에 陽體와 陰體가 中間에 東方의 震子를 包하고 陰陽이 相交하여 萬物을 生生하는 象이다

第三節　文王八卦圖와 易經組織

易六十四卦中에서 乾坤은 天地萬物의 生命元이되고 物의 生長成原理가 이두 卦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므로 文王八卦圖는 乾坤으로 더불어서로 表裏가 되어 文王八卦圖로써 乾坤의 原理를 밝히고 乾坤의 卦爻象象으로써 文王八卦圖의 原理를 밝힌 것이다

乾卦彖辭는 文王八卦圖를 順行하되 乾元에서 始하여 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은 震이오 雲行雨施品物流形은 巽이오 大明終始六位時成은 離와 坤이오 時乘六龍以御天은 兌이오 乾道變化各正性命은 乾이오 保合太和乃利貞은 坎이오 首出庶物萬國咸寧은 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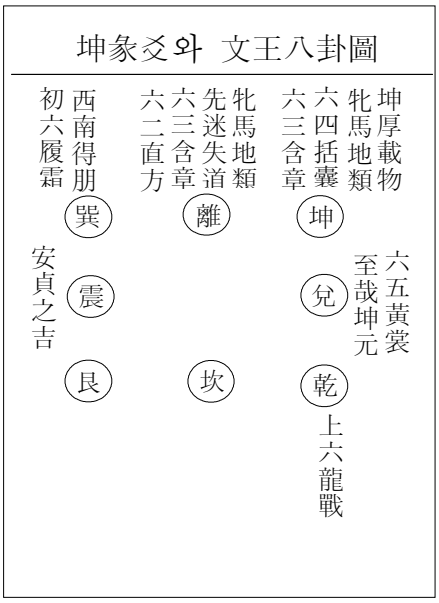
乾爻辭는 文王八卦圖를 逆行하여 初九가 坎에서 始하여 初九潛龍은 坎이오 九二見龍은 乾이오 乾爻辭에는 兌의 象이 없으며 九三終日은 坤과 離이오 九四或躍은 巽이오 九五飛龍은 震이오 上九亢龍은 艮이며 乾爻辭에는 特히 用九가 있는데 用九는 九五飛龍의 震이다

坤卦의 象辭 爻辭의 運行은 乾卦와 相異하니 陰陽의 運行함이 陽은 陰을 統하되 陰은 陽을 統치 못하므로 乾卦의 象辭 爻辭는 陽의 象으로서 文王八卦圖의 全體를 運行하되 坤卦의 象辭爻辭는 陰의 象으로서 文王八卦圖의 陰卦만을 運行하는 것이며 또 乾卦는 象辭가 順行하고 爻辭가 逆行하는데 坤卦는 象辭가 逆行하고 爻辭가 順行하는 것이다

坤卦象辭는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逆行하되 陰의 終하는 坤元兌에서 始하여 至哉坤元萬物資始乃順承天은 兌이오 坤厚載物 德合無疆 含弘光大 品物咸亨은 坤이오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君子攸行은 坤과 離이오 先迷失道後順得常은 離이오 西南得朋乃與類行東北喪朋乃終有慶은 巽이며 安貞之吉은 震이니 震은 陽卦이로되 坤陰은 반드시 震子를 承受하는 것이므로 象의 天道에 震子生育의 象을 말한 것이다

坤爻辭는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順行하되 陰의 始하는 巽에서 始하여 初六履霜은 巽이오 六二直方은 離이오 六三含章은 離와 坤이오 六五黃裳은 兌이며 上六龍戰은 乾이니 乾은 陽卦이로되 坤上六의 속에 乾의 子인 震龍을 包하고 있으므로 上六이 乾으로 順行하는 것이다

坤卦는 象의 終에 震을 말하고 爻의 終에 또 震을 말한 것은 地가 天을 順承하여 陽을 生하는 象을 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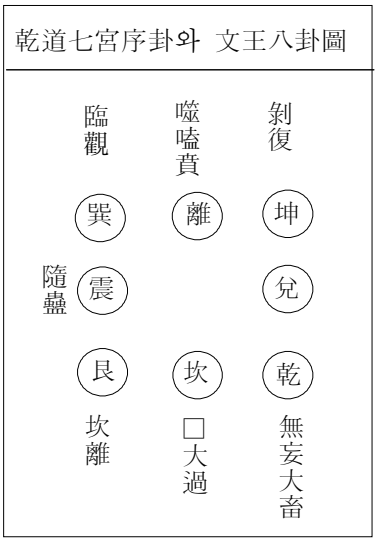
乾坤象爻의 順逆하는 理는 무엇인가하면 萬物을 生生하는 作用의 源은 日月인데 太陽의 軌道는 順行하고 달의 軌道는 逆行하므로 萬物의 生生은 陽은 順行의 象이되고 陰은 逆行의 象이되는 것이다 乾은 陽體이오 乾象은 天道中의 陽이므로 乾象은 太陽의 行道와 같이 文王八卦圖를 順行하는 것이오 象과 爻는 天道와 地道의 關係로서 그 軌道의 運行이 相反하므로 象이 順行하면 爻가 逆行하고 象이 逆行하면 爻가 順行하는지라 乾象이 文王八卦圖를 順行하므로 乾爻는 그것을 逆行하는 것이다 坤은 陰體이오 坤象은 天道中의 陰이므로 坤象은 달의 行道와같이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逆行하는 것이오 坤爻는 坤象과 그 軌道가 相反하므로 그것을 順行하는 것이다

乾坤象爻의 大意를 보건대 乾象은 太陽이 四時의 序로 運行하는 象이오 乾爻는 달의 光明의 消長하는 象이오 坤象은 달이 太陽을 承受하여 盈虛하는 象이오 坤爻는 달의 陰精이 萬物을 生成하는 象이다

序卦는 天地의 生長成運動을 象한 것인데 거기에도 陰陽의 別이 있어 陽은 順行하고 陰은 逆行하는 것이다 乾道八宮은 生의 時運의 陰體作用이므로 伏羲八卦圖를 逆行하고 乾道七宮과 坤道七宮은 長의 時運의 陽體作用이므로 文王八卦圖를 順行하고 坤道八宮은 長의 時運의 陰體作用이므로 文王八卦圖의 陰卦를 逆行하는 것이다

乾道七宮은 長의 時運의 始로서 文王八卦圖를 順行하는 것이니 隨蠱는 生長卦로서 地上에 萬物이 始出하는 象이므로 萬物의 出하는 震에 當하고 臨觀은 形質의 자라는 象이므로 巽에 當하고 噬嗑賁는 生長卦로서 萬物이 모

두자라서 光을 生하는 象이므로 離에 當하고 剝復은 萬物이 長育을 마치고 陽이 陰中에 入하는 象이므로 坤에 當하고 兌는 陰體의 卵子의 象이므로 陽體作用인 乾道七宮에는 當하는 卦가없고 無妄大畜은 열매가 맺혀서 次代의 씨가 되는 象이므로 乾에 當하고 頤大過는 生長卦로서 陽體의 씨가 完全히 자라서 陰體에 發施하는 象이므로 坎에 當하고 坎離는 陽體의 씨가 水火通明作用에 依하여 陰體에 넘어가서 絶處逢生하는 象이므로 艮에 當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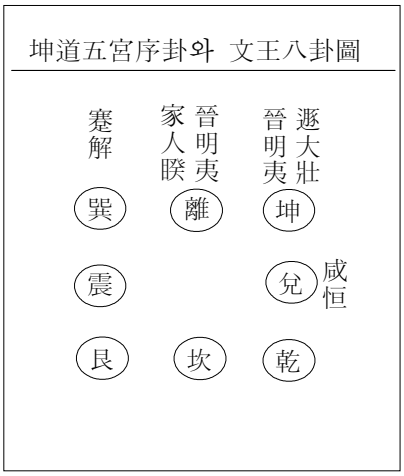


噬嗑賁는 日中卦로서 太陽의 象이되어 正南離에 있고 剝復은 달의 盈虛消息하는 象으로서 西南坤에 있으니 이는 달이 太陽의 앞에있어 先迷한 先天月이 되는 것이오 이 까닭에 復卦에 迷復의 象이 있는 것이며 正易에 先天月을 復上月이라 하는것도 이 復卦의 달의 先迷함을 말한 것이다 長의 時運의 洛書가 太陽의 象인 九金이 正南離에 있고 달의 象인 二火가 西南 坤에 있어 先迷의 달의 象이 되고 있으므로 洛書에서 나온 文王八卦圖가 또한 先迷의 달이되어 長의 時運의 象이 된 것이다

坤道八宮은 陰體의 生成하는 陰作用이므로 序卦가 文王八卦圖를 逆行하는 것이니 咸恒은 坤이 乾을 包하고 天地가 感應하는 象이므로 坤元에서 始하여 兌에 當하고 遯大壯은 陰이 陽을 包하고 浸長하는 象이므로 坤에 當하고 晉明夷는 大明이 地上을 出入하는 象이므로 坤과 離에 當하고 家人睽는 收斂卦로서 陰質이 明에 麗하는 象이므로 離에 當하고 蹇解는 收斂卦로서 陰質이 發育하여 陽光을 承受하는 象이므로 巽에 當하는 것이다

晉明夷는 大明인 太陽의 象으로서 正南離에서 西南坤으로가서 入地하는 象이오 家人睽는 明에 麗한 달의 象으로서 正南에 있으니 이는 晉明夷의 太陽이 西南에 있고 家人睽의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서 金火가 正易하여

後得主한 后天달이 된것이오 正易에 金火正易兮 萬曆而圖 萬曆而圖兮 咸兮恒兮라 함은 下經의 咸恒五宮에서 晉明夷와 家人睽의 金火正易하는 理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上經의 乾道宮은 乾坤屯蒙需訟을 乾道三宮이라하고 師比小畜履泰否同人大有謙豫를 乾道五宮이라하여 合八宮이되고 隨蠱以下를 乾道七宮이라하여 三五七數의 順序로되는데 下經의 坤道宮은 咸恒遯大壯晉明夷家人睽蹇解를 坤道五宮이라하고 損益夬姤萃升을 坤道三宮이라하여 合八宮이되고 震艮以下를 坤道七宮이라하여 五三七의 順序로되니 三은 씨의 生하는 數이오 五는 中宮의 數이오 七은 陽氣의 자라는 數이라 乾道는 陽體의 象으로서 먼저 씨가 生하고 다음에 씨의 精氣가 中宮에서 蓄하고 그다음에 씨가 자라서 陰體에 施하는 것이므로 그 宮數가 三五七의 數序로 되는 것이오 坤道는 陰體의 象으로서 먼저 陰體의 中宮에 精氣가 蓄하고 다음에 陽體의 씨를 承受하여 生育하고 (胎宮生長卦의 理)그 다음에 胎兒가 자라서 出生하는 것이므로 그 宮數가 五三七의 數序로 되는 것이다

損益은 天地가 相交하여 精을 構하는 卦이므로 乾元震과 坤元兌의 相交하는 象을 말하여 動而巽 日進無疆 天施地生이라하니 이는 乾元震이 文王八卦圖의 陰宮을 順行하여 施精하는 象인데 動은 震이오 巽은 巽이오 日進은 離이오 無疆은 坤이오 天施는 乾元이오 地生은 坤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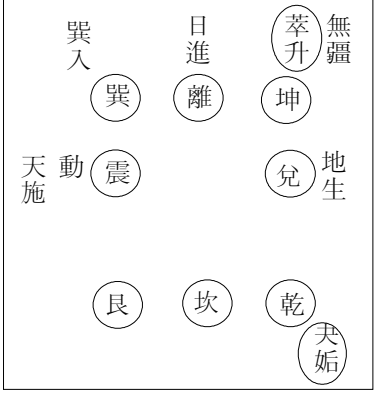
夬姤는 損益의 天施의 卦로서 乾陽의 體가 坤陰에 施精하는 象이므로 乾에 當하고 乾陽이 施精한 뒤에는 그 任務를 終하는 것이므로 序卦에는 夬姤以後에 다시 乾이 없는 것이다 萃升은 損益의 地生의 卦로서 坤陰이 乾陽의 施를 承受하는 象이므로 坤에 當하고 坤陰이 受精한 뒤에는 그 임무를 終

하는 것이므로 序卦에는 萃升以後에 다시 坤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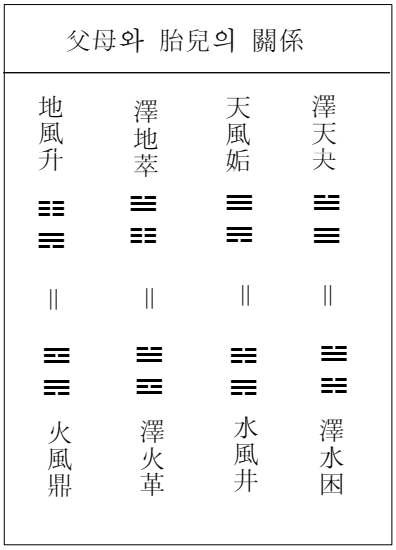
陰陽의 施受作用은 水火로써하여 火는 生生의 原이되고 水는 生生의 始가 되는 것이므로 乾陽에서는 陽을 調和하는 水가 나오고 坤陰에서는 陰을 調和하는 火가 發하여 水火의 烹湯作用에 依하여 胎兒를 生하는 것이니 이 理에 依하여 澤天夬는 澤水困이되고 天風姤는 水風井이되고 澤地萃는 澤火革이되고 地風升은 火風鼎이되니 夬姤萃升의 父母가 困井革鼎의 胎兒를 生한 것이며 그러므로 序卦에는 夬姤萃升만 나타나고 困井革鼎은 아직 胎中에 있어 外面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下經은 坤道로서 陰體의 收斂을 象한 것인데 오직 困井革鼎 四卦가 生長卦로서 序卦의 中央에 一團이되어 胎兒의 象이 되고있는 것이다

震艮以後 坤道七宮은 비록 收斂八卦가 一團이되어 收斂作用을 行하고 있으되 그것은 모두 三陰三陽卦의 陰陽調和하는 作用이오 胎兒의 자라고 있는 胎宮은 生長하여 陽體作用이므로 震艮이 文王八卦圖의 乾元에서 始하여 順行하니 震艮은 胎兒原體의 象으로서 動萬物者莫疾乎雷가되어 震에 當하고 漸歸妹는 收斂卦이오 婚姻과 娃娠의 象으로서 橈萬物者莫橈乎風이되어 巽에 當하고 豊旅는 收斂卦이오 陰精火가 陽精水를 承受하는 象으로서 燥萬物者莫熯乎火가 되어 離에 當하고 巽兌는 陰精이 胎兒를 生育하여 陰陽이 嘉會하는 象으로서 說萬物者莫說乎澤이되어 兌에 當하고 渙節은 收斂卦이오 胎兒가 水液中에서 자라고 있는 象으로서 潤萬物者

損益三宮과 文王八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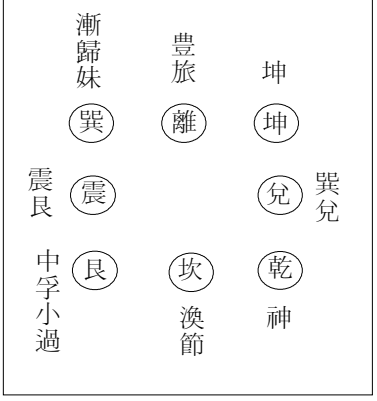


父母와 胎兒의 關係



莫潤乎水가 되므로 坎에 當하고 中孚小過는 收斂卦이오 胎兒가 成體하여 第二世가 되는 象으로서 終萬物始萬物者莫盛乎艮이 되므로 艮에 當하는 것이며 이 序卦中에 乾坤卦가 없는 것은 乾은 夬姤에서 終하고 坤은 萃升에서 終하여 모두 神이되어 妙萬物而爲言하는 까닭이다

坤道七宮序卦와 文王八卦圖



旣濟未濟는 天地日月卦인데 乾坤은 이미 終하였으되 乾坤의 神은 旣濟未濟의 속에서 神作用을 行하여 鬼方을 伐하고 長의 時運에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가는 象이다 震艮以後 旣濟未濟까지는 胎兒의 生成하는 象이오 이것을 坤道七宮이라하며 旣濟未濟는 文王八卦圖에 神으로되어 있으니 이는 先天에서 后天으로 넘어가는 때에 神의 作用이 行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北坤南乾이 變하여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가되고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가 變하여 正易八卦圖의 北乾南坤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易經序卦의 變化順序이다 序卦初頭의 乾坤은 伏羲八卦圖의 北坤에 當하여 天地가 創生하여 渾沌한 象이오 序卦坤乾이 相交하면서 자라서 上經 末의 坎離가되어 文王八卦圖의 東北艮에 當하니 이는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로서 水火의 聚散作用에 依하여 萬物을 자라게하는 象이오 坎離가 相交하면서 下經末의 旣濟未濟가되어 萬物을 여물게하고 그속에 乾坤卦를 互하고 神作用을 包하여 后天의 二世乾坤으로 넘어가니 이는 正易八卦圖의 北乾南坤이며 旣濟未濟에서 乾坤으로 넘어가는 것이 곧 后天의 始이다

地球는 時運의 變化함을 따라서 그 生生하는 作用을 달리할뿐만 아니라 同一한 時運에도 八方의 氣候地宜에 따라서 또한 生生하는 作用을 달리하는 것이며 萬物에는 生長成하는 作用이 있으되 그 物의 體는 長하는 동안에 어떠한 型으로 定하여지고 그 物의 成하는때에는 天性이 여무는 것이다 文

王八卦圖는 萬物이 地에 依着하여 長하고 있는 長의 時運의 象이므로 그 卦圖의 卦位에는 그 方位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旣定한 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여러 地方의 人種이 相異하고 文化發達過程이 相異하고 各地方人이 各其 獨特한 陰陽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까닭이다

이것을 全世界 人類를 通하여 古來로 人間生活의 가장 主要한 政治制度의 發生으로써보면 政治라함은 能動性을 띠고 있는것이므로 그 制度는 반드시 能動性을 띤 陽卦方에서 發生하는 것이니 乾은 統天의 卦로서 宇宙를 圜行하여 自由와 普遍의 象이 되는데 西北에 있어서 陰陽이 相戰하고 陰이 陽을 包하므로 民衆의 自由制度의 象이 되는 것이오 震은 帝出의 卦로서 東方에서 萬物을 始生하는 象이 되는데 長子로서 建侯의 象이되므로 君主制度의 象이 되는 것이오 坎은 陽이 陰中에 陷한 卦로서 隱伏 病痛 赤勞의 象이 되는데 北方에 隱伏하여 勞民 赤盜가 되므로 赤勞의 共産制度의 象이 되는 것이오 艮은 上으로 天의 光明을 接한 卦로 東北에 있어 成終成始하여 長의 時運의 政治가 終하고 成의 時運의 政治가 始하는 象이 되고 있으나 幼少한 少男이되므로 자라서 成의 時運으로 넘어간 然後에 天政奉行의 象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文王八卦圖의 方位의 順序로써 보면 처음에 東方震은 君主制度의 發生地이오 中國의 方位이므로 古代의 伏羲 神農 黃帝 堯舜 및 夏殷周는 理想的 君主政治이었으며 다음에 西北乾은 民衆의 自由制度의 發生地이오 歐洲의 方位이므로 近世의 佛蘭西革命은 民主政治의 始發이었으며 그다음에 北方坎은 赤勞秘密政治의 發生地이오 蘇聯의 方位이므로 蘇聯의 共産制度는 秘密帳幕속에서 夜間執務하는 赤勞政治이며 그다음에 東北艮의 天政은 后天社會에 나와서 이 地上에 天國을 建設하는 것이다

第四章 成의 時運의 圖像

第一節 正易八卦圖

物의 生한 者는 반드시 자라고 자란者는 반드시 여무는 것이니 그러므로 生의 時運을 象한 伏羲八卦圖가 있으면 반드시 長의 時運을 象한 文王八卦圖가 있는 것이오 長의 時運을 象한 文王八卦圖가 있으면 또한 반드시 成의 時運을 象한 后天八卦圖가 있는 것이다

天地가 物을 生生하는 順序를 草木의 例로써보면 처음에 씨가 天에서 生하여 地上으로 내려오고 다음에 地가 그 씨를 承受하여 줄기와 가지를 기르고 다음에 地上에서 자란 草木이 열매를 맺고 여물어서 처음의 씨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는 物의 生長成하는 者는 天에서 生하여 地에와서 자라고 여물어서 다시 天으로 돌아가는 理이다 그러므로 伏羲八卦圖는 씨의 組織의 象이오 文王八卦圖는 줄기와 가지의 자라는 象이오 后天八卦圖는 씨의 여무는 象이며 伏羲八卦圖와 后天八卦圖는 同一한 씨의 象 이므로 伏羲八卦圖의 여문 것이 곧 后天八卦圖이오 后天八卦圖는 正易八卦圖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坤北乾南이 자라기 爲하여 乾坤이 相交하면 乾은 坤의 中氣를 얻어서 離火가되고 坤은 乾의 中氣를 얻어서 坎이되니 이는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로서 天地가 水火를 生하여 地上의 萬物을 生으로부터 長으로 發展케하는 象이 된 것이다 北坎南離는 地球가 水火의 精으로써 南北軸을 삼아서 北極은 大氷海가되고 南極은 高燥한 大氷陸이되고 中軸에서 水火의 聚散作用을 行하여 物을 기르는 象이 되는 것이다 物의 자라는者는 반드시 여무는 것이라 文王八卦圖의 北坎中劃은 本是 乾의 中氣이므로 坎 中劃이 자라서 여물면 乾으로 되는 것이오 文王八卦圖의 南離中劃은 本是 坤의 中氣이므로 離中劃이 자라서 여물면 坤으로 되는 것이니 이가 文王八卦圖의 北坎南離가 자라서 后天八卦圖의 北乾南坤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伏羲

八卦圖의 天地中軸인 北坤南乾은 生의 時運에 陰陽組織의 渾沌한 象이오 后天八卦圖의 天地中軸인 北乾南坤은 成의 時運에 物의 여무는 象이며 天地의 中軸인 乾坤에 物의 여무는 象이 있으므로 그 八卦圖의 六子에 모두 여무는 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

兌	乾	巽
離		坎
震	坤	艮

后天八卦圖

巽	坤	離
艮		兌
坎	乾	震

雷風은 氣이오 氣가 자라서 여물면 氣精形生成의 理에 依하여 水火의 精이 되는 것이므로 伏羲八卦圖의 東北震 西南巽의 雷風의 氣는 后天八卦圖의 東北坎 西南離의 水火의 精이 되는 것이오 水火는 精이오 精이자라서 여물면 形이 되는 것이므로 伏羲八卦圖의 東離西坎의 水火의 精은 后天八卦圖의 東艮西兌의 山澤의 形이 된 것이오 山澤은 形이오 形이 자라서 여물면 그 內部에 神作用의 氣를 包하는 것이므로 伏羲八卦圖의 西北艮 東南兌의 山澤의 形은 后天八卦圖의 西北震 東南巽의 雷風의 氣가 된 것이다

伏羲八卦圖가 后天八卦圖로 變할때에 震巽이 坎離로되고 艮兌가 震巽으로 되어 모두 陽卦가 陽卦로 變하고 陰卦가 陰卦로 變하였는데 오직 離坎이 艮兌로되어 陽卦가 陰卦로 變하고 陰卦가 陽卦로 變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는 南北軸의 坤이 乾으로되고 乾이 坤으로된 理와 같은 것이다 乾坤은 天地이오 離坎은 日月이니 天地가 相交하고 日月이 相交하면 相交는 곧 陰陽의 氣의 相易이라 그러므로 乾坤의 天地가 相交하는때에 坤地가 坎陽을 얻고 乾天이 離陰을 얻어서 乾坤이 相易한 것이오 離坎의 日月이 相交하는 때에 陰卦離日에서 陽卦震子가 자라고 陽卦坎月에서 陰卦兌澤이 자라서 文王八卦圖의 東震西兌가 되고 그것이 여물어서 后天八卦圖의 東艮西兌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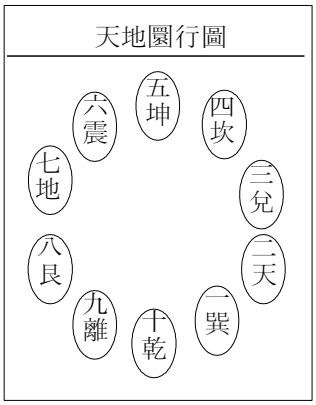
后天八卦圖는 正易八卦圖의 基礎가 되고 있으나 物의 生長成하는 者는 天에서 生하고 地에서 자라고 여물어서 다시 天으로 圜行하는理가 있으므로 天地圜行圖에 正易八卦圖의 理가 具全히 나타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는 晝夜 晦望 四時를 말하여 天에서 씨가 生하는 天道를 象한 것이오 文王八卦

圖는 太陽과 달의 運行하는 理를 말하여 地上에서 萬物의 자라는 地道를 象한 것이오 正易八卦圖는 日月의 行度가 變易함을 말하여 사람의 天性이 여물어 天으로 圜行하는 人道를 象한 것이니 이것이 正易八卦圖는 天地人의 生長成하는 全象을 表示한 天地圜行圖에 나타나는 所以이다

物의 生長成의 象을 自然數로써 보면 一二三四五의 生數는 生의 象이오 六七八九十의 成數는 成의 象인데 成數中에서 六七八九는 長의 數로되고 十은 成의 數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長을 象한 洛書數와 文王八卦圖의 數는 九數까지만 있는 것이오 다만 洛書數가 相對方끼리에 서로 合한 數는 모두 各各 十이되니 이는 物의 長함은 九數에서 極하고 物의 成함은 十數에서 合成한다는 理이며 그러므로 天地圜行圖는 自然數의 十數가 具全한 것이다

物의 陽體作用은 太陽行度와 같이 順行하고 陰體作用은 달의 行度와 같이 逆行하는데 天地圜行圖는 生長에서 成으로 變하여 陰體作用이되고 있으므로 天地의 사이를 逆行圜轉하는 것이다 草木의 例로써보면 씨의 組織은 生의 象으로서 水液을 收斂保合하므로 陰體作用이되고 草木의 자라는 것은 水液이 發揚上升하므로 陽體作用이되고 여무는 때에는 水液이 收斂하여 下降하므로 陽體作用에서 陰體作用으로 變하여 逆行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가 天地圜行圖의 逆行하는 所以이다

天地圜行圖는 十數가 具全하고 또 逆行하여 天地人의 生長成하는 全象을 表示하는 것인데 八卦中에서는 乾卦가 用九하여 여물어서 十數가되고 또 統天의 象이 十數가 되는 것이므로 乾이 北方天位에 當하여 그 數가 十이되고 거기로부터 圜行運動이 始하는 것이다



乾은 十이되어 統天의 位에 있고 乾으로부터 氣가 下降하여 地를 向하면 下劃이 地陰으로 變하여 巽

風이되며 十에서 始生하는 數는 一이므로 十乾天의 다음은 一巽이 되는 것이다

巽風이 天으로부터 下行함에는 반드시 上乾下坤의 界가 되는 天을 通過하는 것이므로 自然數의 順을 따라서 一巽風의 다음은 二天이 되는 것이다

物이 上乾下坤의 界를 通過함에는 반드시 反顚의 象이 있으니 大過卦의 陽이 陰體에 入하는 것을 顚이라 하는 것은 이 上乾下坤의 界를 通過하는 象을 말함이며 巽風이 天을 通過하여 下行하면 스스로 反顚하는 것이오 巽風이 反顚하면 兌澤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二天의 다음은 三兌澤이 되는 것이다

兌澤은 水이로되 下劃의 陽氣가 推上하는 까닭에 下流치 아니하고 上溢하는것이며 兌澤이 下行하여 地上을 流行하려하면 下劃의 陽이 地陰으로 變하여 坎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三兌澤의 다음은 四坎水가 되는 것이다

水의 流行하는 底面은 地이오 坎水는 坤이 乾陽의 中氣를 承受하여 所生한 것이므로 四坎水의 다음은 五坤地가되고 이에 坤陰의 속에 乾陽을 含하여 陰陽相交의 象이 되는 것이니 이는 乾數十은 十無極 곧 一太極의 象이되고 坤數五는 五皇極의 象이되어 乾坤이 相配하는 것이다

坤으로부터 地氣가 上行하는데 地氣가 上行하여 天을 向하면 下劃이 陽으로 變하면서 推上하여 震雷가 되니 그러므로 五坤地의 다음은 六震雷가 되는 것이다

震雷가 上行함에는 반드시 上乾下坤의 界로 되어있는 地를 通過하는 것이므로 六震雷의 다음은 七地가 되는 것이다

震雷가 上乾下坤의 界를 通過함에는 또한 反顚의 象이 있는 것이오 震雷가 地를 通過하여 上行하면 反顚하여 艮山이 되는 것이므로 七地의 다음은 八

艮山이 되는 것이니 이는 頤卦의 陽이 天을 向하여 震이 艮으로되는 것을 顚頤라하는 理에 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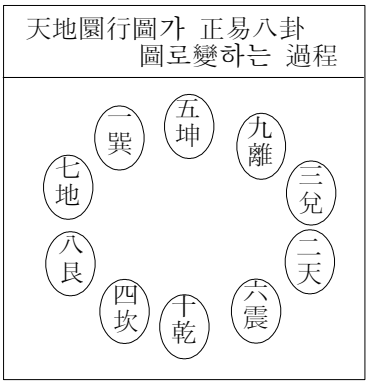
艮山이 위로 솟아올라서 天을 向함에는 下劃이 陽으로 變하면서 山에 갈무리한 火氣가 炎上하여 離火가 되는 것이므로 八艮山의 다음은 九離火가 되는 것이다

火의 炎上하는 上面은 天이므로 九離火의 다음은 十乾天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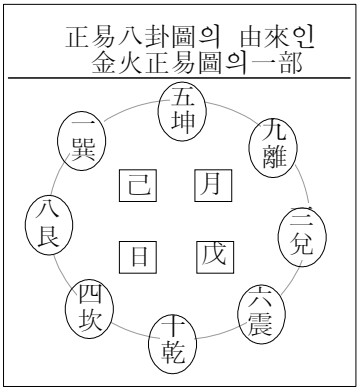
이 圜行圖는 乾陽이 巽兌의 陰體中에 入하여 坎水를 發施하여 乾坤이 相交하고 坤은 震子를 胎育하여 艮의 열매가되고 열매속에 火의 神作用을 갈무리하여 여물어서 第二世乾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人道로써보면 十乾天 一巽風은 天에서 사람의 씨를 地에 내림이오 五坤地 六震雷는 地가 사람의 씨를 받아서 生養함이오 九離火 十乾天은 사람이 九까지 자라서 離火의 神作用을받고 十數에서 여물어서 后天으로 넘어가서 人道가 成하는 象이다

物의 成하는 것은 長에서 變來하는 것이라 天地圜行圖의 成하는 象은 반드시 文王八卦圖의 長하는 象에서 變來하는 것이며 그 變化하는 理를 보건대 文王八卦圖의 卦象과 數는 모두 陽卦 陽數 陰卦 陰數로서 乾이 陽金九 兌가 陰金四 震이 陽木三 巽이 陰木八 坎이 陽水一 離가 陰火二 艮이 陽火七 坤이 陰水六이 되는데 天地圜行圖의 卦象과 數는 모두 陽卦陰數 陰卦陽數로서 乾十 震六 坎四 艮八 坤五 巽一 離九 兌三이되니 이는 文王八卦圖는 長의 時運에 陰陽의 流行함을 象한것이므로 陰이 陰끼리에 陽이 陽끼리에 各分發顯하는 象이 된것이오 天地圜行圖는 成의 時運에 陰陽의 調和함을 象한 것이므로 陰陽和義의 象이 된 것이다

時運이 變하여 長의 時運이 成의 時運으로되면 陰陽의 作用인 陰陽數는 變하면 陰陽의 體인 陰陽卦와 陰陽方位는 一定하여 變치 아니하는 것이다 文王八卦圖는 陽卦인 乾坎艮震이 모두 北半球의(自西北至正東)陽方에 있고 陰卦인 巽離坤兌가 모두 南半球(自東南至正西)의 陰方에 있으므로 天地圜



行圖도 이것의 時運을 表示하는 境遇에는 地道인 陰陽의 體인 陽卦陰卦의 方位는 文王八卦圖와 同一하여 陽卦가 北半球에 있고 陰卦가 南半球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天地圜行圖는 一巽九離의 陰卦가 北半球의 陽方에 있고 四坎六震의 陽卦가 南半球의 陰方에 있어 陰陽方位의 理에 合치 아니하므로 天地圜行圖의 八卦는 스스로 卦의 交易이 생겨서 西北의 一巽과 東南의 六震이 交易하고 東北의 九離와 西南의 四坎이 交易하는 것이다



一巽六震은 雷風이오 四坎九離는 日月인데 雷風은 氣로서 戊己의 土에 갈무리하여 있어 天行健의 作用으로써 日月을 運行하고 있으므로 天地圜行圖의 一巽의 곳에 戊가 있고 六震의 곳에 己가 있으니 이는 六震은 地에서 生하므로 地十己土는 坤의 方에 있고 一巽은 天에서 生하므로 天五戊土는 乾의 方에 있으며 日은 天에서 生하므로 乾의 方에 있고 달은 地에서 生하므로 坤의 方에 있는 것이니 이 卦圖는 正易八卦圖의 由來를 說明하는 金火正易圖의 一部이다

十乾五坤의 中宮에 戊位와 己位가 있고 戊己의 中位에 雷風의 氣가 正位하여 日月運行의 作用을 行하니 戊己中位의 雷風의 氣라함은 곧 太陽의 天行健의 作用이며 이는 바로 日月合朔運動이다 日月의 合朔運動에 依하여 軌道的으로 달의 뒤에 있던 太陽이 달의 앞으로 오고 太陽의 앞에 있던 先迷의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와서 後得主의 달이되어 金火가 正易하여 后天의 달이되며 戊己와 日月의 變化作用에 依하여 二天과 七地가 內部에 入하여 十乾 二天 五坤 七地의 象이 되고 이것이 正易에 말하는바의 十紀 二經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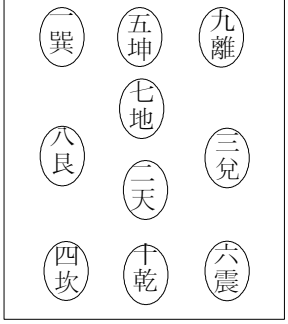
綱 七緯라는 后天의 天地日月의 秩序가되니 이가 곧 正易八卦圖이다

正易八卦圖는 近世에 우리나라의 易學者 金一夫先生이 天의 啓示에 依하여 劃圖한 것으로서 長의 時運의 學問인 易經을 後繼하여 成의 時運에 日月軌道의 變化하는 象을 豫示한 學問이니 伏羲 文王의 두 八卦圖에 正易八卦圖를 合한 然後에 時運의 生長成의 象이 나타나는 것이며 后天에 日月의 軌道가 正하게 易하여 從來의 閏易이 變하여 一歲三百六十日의 正易이 된다는데서 正易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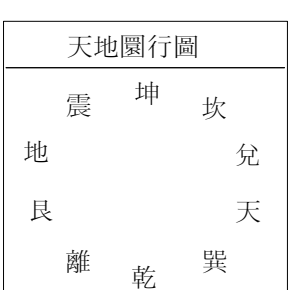
正易八卦圖는 伏羲八卦圖의 여문것이오 또한 天地圜行圖에서 由來한 것이므로 天地圜行圖의 속에는 스스로 伏羲八卦圖의 象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物의 生하는때는 無形에서 有形으로 化하는 것이오 物의 여무는 것은 無形한 神의 妙言作用에 依한 것인데 正易八卦圖는 成의 時運을 象하므로 無形한 乾坤神이 中軸이되고 天地가 그에 屬하며 伏羲八卦圖는 生의 時運을 象하므로 有形한 地天이 中軸이되어 天地圜行圖의 上下八方의 位가 變하고 乾坤神이 地天의 속에 갈무리하는 것이며 地天은 卦가 아니므로 伏羲八卦圖의 地天中軸은 坤乾으로 表示된 것이며 生의 時運은 天地가 渾沌한 陰運의 象이므로 地가 上에 있고 天이 下에 있는 것이오 生의 時運의 各方位는 天地組織의 象으로서 東北에서 南까지는 陽生의 方이되고 西南에서 北까지는 陰生의 方이 되는 것이므로 東坎西離는 스스로 交易되어 陽을 生하는 象의 離卦가 東에 오고 陰을 生하는 象의 坎卦가 西에 와서 이에 伏羲八卦圖가 된 것이니 天地圜行圖에는 生의 時運의 伏羲八卦圖의 象과 成의 時運의 正易八卦圖의 象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伏羲八卦圖가 여물어서 正易八卦

正易八卦圖



天地圜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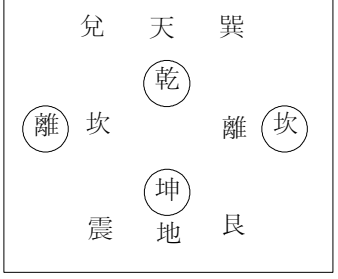
天地圜行圖의地天軸



圖의 基礎인 后天八卦圖가 된 것이다

正易八卦圖는 天地가 圜行하고 收斂하여 成하는 象인데 이것을 宇宙로써보면 乾坤은 天地의 位가 定하고있으되 坤이 天五의 數로되고 乾이 地十의 數로되어 天氣가 下降하고 地氣가 上行하여 后天의 成의 時運이 되는 象이오 震巽의 雷風의 氣가 中宮의 戊己土中에서 作用하여 地球의 雷磁軸이 되는 象이오 坎離는 日이 月位에 옮기고 月이 日位에 옮기어 金火가 正易하는 象이오 艮兌는 달의 體인데 先天의 少男少女가 長成하여 后天의 여문 달이되어 光明이 光華한 象이다

伏羲八卦圖로 變하는 過程



伏羲八卦圖

兌	乾	巽
離		坎
震	坤	艮

사람의 씨는 달에서 生한 것이오 또 不斷히 달의 作用을 받아서 長成하는 것이므로 后天의 달이 여물면 사람이 또한 여무는 것이니 그러므로 正易八卦圖는 人道의 成하는 象이다 이제 人道의 成하는 象을 卦圖로써 보건대 卦圖의 中軸이되는 乾坤은 神의 妙言作用을 行하고 東西運行하는 艮兌는 澤山咸의 象이되고 咸은 人身의 象이되어 그속에 神作用을 含하고 있으니 이는 艮은 成言하고 兌는 說言하고 神은 萬物을 妙言하고 言語는 오직 神과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艮兌가 人身의 象으로서 運行하는 것은 그 中心에 神作用을 包含하고 있는 까닭이며 그러므로 正易八卦圖는 사람의 成道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八卦의 一巽 三兌 四坎 五坤 六震 八艮 九離 十乾의 總數는 四十六이오 四十六은 序卦의 升卦까지의 卦數로서 母體가 胎兒를 生産하는 象의 卦이며 四十六卦를 每卦六爻로써 計算하면 二百七十六爻가되고 이는 바로 胎兒가 胎中에서 生成하는 大體의 日數二百七十六日의 數이며 中宮의 二天七地는 九數이오 九數는 사람의 九竅의 象이오 二天七地는 사람의 面上의 七竅와 下體의 二竅의 數이다 動物中에도 九竅로된者가 없지아니하나 오직 中宮의 九數를 사람의 九竅라

고 하는 것은 사람은 直立하여 天地를 貫하므로 二天七地의 象이 되는것이오 動物은 體가 橫하여 天地의 象이 없으므로 그 九竅는 正易八卦圖의 二天七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正易八卦圖는 伏羲八卦圖의 坤乾이 자라서 文王八卦圖의 坎離로되고 文王八卦圖의 坎離가 여물어서 后天八卦圖로되고 后天八卦圖가 正易八卦圖의 基礎로 된것인데 이 順序는 易經序卦와 서로 表裏하여 時運變化의 象을 나타낸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北方坤은 序卦初頭의 乾坤에 當하고 乾坤이 相交하여 上經末의 坎離로되고 이것이 文王八卦圖의 東北艮에 當하니 坎離는 序卦의 中間 上下經의 境界에있어 水火의 聚散作用으로써 萬物을 자라게하고 있는 것이다

坎離가 자라면서 相交하여 下經末의 旣濟未濟가되어 萬物을 여물게 하는 것이므로 旣濟未濟의 속에는 乾坤卦와 神作用을 包含하고 萬物이 여물어서 二世의 乾坤으로 넘어가서 正易八卦圖의 乾坤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序卦初頭의 乾坤은 伏羲八卦圖의 生의 時運의 乾坤인 同時에 또한 正易八卦圖의 成의 時運의 后天乾坤이니 이는 乾坤은 宇宙生命元으로서 그 作用이 時運을 따라서 生하고 成하고 할뿐이오 그 原體는 如一한 것이니 이가 原天無量의 뜻이다

正易卦圖의 五行克成

正易八卦圖의 自然數는 震巽이 一六水이오 天地가 二七火이오 艮兌가 三八木이오 坎離가 四九金이오 乾坤이 五十土이니 이는 生長한 物이 여물어서 成하면 그 象과 數가 變하는 까닭이다 乾坤은 生命元이오 五十土는 生命體이므로 生命元이 成하여 生命體인 五十土가 된 것이오 震巽은 生命元을 運行하는 氣이오 一六水는 生命力을 含有한 精이므로 氣化體가 成하여 精化한 生命力인 一六水가 된 것이오 天地는 光의 비치는 光明體이오 二七火는

光明의 原이므로 光이 成하여 有形한 二七火가 된 것이오 艮兌는 生命이 形化하되 아직 稗少한 것이오 三八木은 精化始形의 씨이므로 艮兌의 形이 成하여 씨의 始形한 三八木이 된 것이오 坎離는 生命의 有形한 始인 精이오 四九金은 열매 形質의 成한 것이므로 坎離의 精化의 씨가 成하여 열매 形質의 四九金이 된 것이다 正易八卦圖 五行은 生命元 氣精形 光明으로써 되어 乾坤生命元이 成하여 五十土의 生命體가 되고 雷風의 氣가 成하여 一六水의 精이되고 水火의 精이 成하여 四九金의 形質이되고 艮兌의 形이 成하여 三八木의 씨가 되고 天地의 光明이 成하여 二七火의 火光이 된 것이니 長과 成의 象이 서로 同一치 아니하므로 正易八卦圖의 五行은 자라는 象의 文王八卦圖 五行의 乾兌金 坤艮土 震巽木 坎水離火와 相異한 것이다

五行克成이라함은 五行이 相克하여 여물게한다는 뜻이니 五行의 克成과 五行의 相克은 그 象은 同一하면서 그 運行이 同一치 아니한 것이다 相克이라함은 長의 時運에 自體가 자라기 爲하여 他를 克하여 自體의 자라는 資料를 삼고 自體가 被克者의 世代繼承者가 되는 것이오 克成이라함은 成의 時運에 他를 克하여 抑制하여 他를 여물게하고 他로 하여금 克者의 世代를 繼承하는 者를 삼는것이니 이는 長의 時運에는 사람이 自由意志를 가지고 生長競爭을 行하여 他를 克하고 自體의 生長을 圖하는 것이오 成의 時運에는 神이 사람의 天性을 여물게하는 때이므로 그 克이라는 것은 自體의 生長을 爲함이 아니라 他의 自由意志를 克制하여 그 天性의 속에 神의 作用을 갈무리하게 하는 까닭이다

草木의 例로써보면 草木이 여름에 자라면서 한便으로는 열매를 맺은 然後에야 가을이되어 여물고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이 곧 自由를 克制하는 일이오 만일 자라는 自由를 그대로 放任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쭉정이가 되는 것이며 噬嗑卦에 小懲而大誡此小人之福이라함은 이 克成하는 象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成의 時運의 相克은 곧 克成으로되어 土成水 水成火 火成金 金成木 木成土가 되는 것이오 克成은 또한 여무는 것을 生한다는 뜻으로서 克

成이 곧 極生으로 되는 것이니 「易은 逆함이니 極하면 反하는지라 土가 極하면 水를 生하고 水가 極하면 火를 生하고 火가 極하면 金을 生하고 金이 極하면 木을 生하고 木이 極하면 土를 生한다」 함은 相克이 곧 相成이오 相成이 곧 極生이라함을 말한 것이다

土가 水를 克成한다함은 土는 生命體이오 水는 生命水이라 成의 時運에 土가 生命水를 克制하여 自體中에 包含하여 水土가 同體하는 것은 土 自體가 여물기 爲하여 生命水를 內部에 包含하는것이오 土가 極하면 水가 生하여 水가 土의 世代를 繼承하는것이며 水가 火를 克成한다함은 水는 生命水이오 火는 神作用이라 成의 時運에 生命水가 神作用의 火를 克制하여 自體中에 包含하여 水火가 同體하는 것은 水自體가 여물기 爲하여 神作用을 內部에 包含하는것이오 水가 極하면 火가 生하여 火가 水의 世代를 繼承하는것이며 火가 金을 克成한다함은 火는 神作用이오 金은 열매 形質의 象이라 成의 時運에 火의 神作用이 金象의 열매 形質을 克制하여 陽氣가 內部에 聚結하고 外殼이 收斂하여 火金이 同體하는 것은 火自體가 여물기 爲하여 열매 形質을 結成하는것이오 火가 極하면 金이 生하여 金이 火의 世代를 繼承하는 것이니 曆法의 三伏의 理에 火가 盛하면 金이 伏하고 火가 內에 處하면 金이 生하고하는 것이 곧 火金克成의 理이다

金이 木을 克成한다함은 金은 열매 形質의 象이오 木은 씨의 象이라 成의 時運에 열매 形質이 씨를 克制하여 自體中에 包含하여 金木이 同體하는 것은 열매 形質 自體가 여물기 爲하여 씨를 內部에 包含하는 것이오 열매 形質이 極하면 씨가 生하여 씨가 열매 形質의 世代를 繼承하는 것이며 木이 土를 克成한다함은 木은 씨의 象이오 土는 生命體이라 成의 時運에 씨가 生命體를 克制하여 自體中에 生命을 包含하여 木土가 同體하는 것은 씨 自體가 여물기 爲하여 生命을 內部에 包含하는 것이오 씨가 極하면 生命體가 生하여 生命體가 씨의 世代를 繼承하는 것이다

五行克成의 象은 正易八卦圖의 長幼의 序에 나타나고 있으니 乾坤父母의 五十土가 震巽長男長女의 一六水를 克하는 것은 父母가 長幼의 序로써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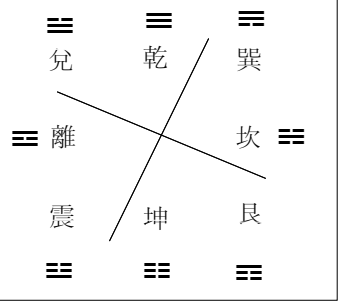
男長女를 克制하여 成하는 것이오 震巽의 一六水가 天地의 二七火를 克하여 成하는 것은 震巽은 無形한 氣이오 天地는 無形에서 有形이 生하는 位이라 이는 無形에서 有形을 生하는 것으로서 無形이 有形을 克制하여 成한 것이다 天地의 二七火가 坎離中男中女의 四九金을 克하는 것은 天地는 有形의 始로서 坎離의 水火를 克하여 有形한 精을 成한것이오 또한 震巽의 長男長女가 形化하는 過程에 長幼의 序로써 中男中女를 克制하여 成한것이며 坎離中男中女의 四九金이 艮兌少男少女의 三八木을 克하는 것은 坎離가 長幼의 序로써 中男中女가 少男少女를 克制하여 成한 것이며 艮兌少男少女의 三八木이 乾坤第二世의 五十土를 克하는 것은 艮兌가 長幼의 序로써 次世代를 克制하여 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克成이라함은 成의 時運에 長幼의 序로써 父母가 長男長女를 成하고 長男長女가 中男中女를 成하고 中男中女가 少男少女를 成하고 少男少女가 次世代를 成하고 하는 師傅의 道이니 師傅의 道라함은 師傅가 敎育으로써 弟子를 克制하여 그 天性을 여물게 하고 天性의 여문 弟子가 師傅의 世代를 繼承하는 制度이다

卦圖의 陰陽劃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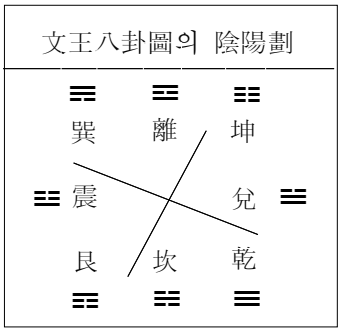
八卦圖에는 그 方位를 따라서 東西半球와 南北半球의 象이 있고 時運의 變化에 따라서 各半球의 卦의 陰陽劃數에 또한 變化가 生하는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陰陽劃數를 보건대 東半球의 乾兌離震은 陽劃이 八이오 陰劃이 四이며 西半球의 巽坎艮坤은 陰劃이 八이오 陽劃이 四이며 南半球의 兌乾巽坎은 陽劃이 八이오 陰劃이 四이며 北半球의 艮坤震離는 陰劃이 八이오 陽劃이 四이니 이는 生의 時運의 組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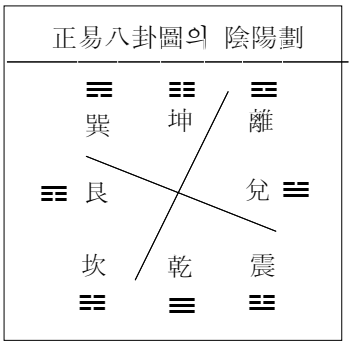
伏羲八卦圖의 陰陽劃



文王八卦圖의 陰陽劃



東半球와 南半球는 陽多陰少하고 西半球와 北半球는 陰多陽少함을 象한 것으로서 地球各地方의 本性을 말한 것이다



文王八卦圖의 東西半球와 南北半球의 陰陽劃數는 모두 同一하여 東半球의 艮震巽離와 西半球의 坤兌乾坎과 北半球의 乾坎艮震과 南半球의 巽離坤兌가 모두 陰劃陽劃이 各六이니 이는 長의 時運에 物의 長하는때는 陰陽이 均齊히 分布되어 物이 자라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陰陽의 均齊라함은 그 分布가 均齊한 것이므로 本性의 陽多한 地方은 如前히 陽이 多하고 本性의 陰多한 地方은 如前히 陰이 多하여 이 地上의 各地方은 寒暑의 差가 甚하고 陰性陽性의 別이 또한 顯著한 것이다

伏羲八卦圖와 正易八卦圖는 同一한 열매의 象이로되 前者는 열매의 組織의 속에 生意가 動하는 象이오 後者는 열매가 여무는 過程에 있는 象이니 그러므로 陰陽劃의 分布가 서로 同一치 아니한 것이다 伏羲八卦圖는 東半球에 陽劃이 八이오 陰劃이 四인데 正易八卦圖는 東半球에 陽劃이 四이오 陰劃이 八이며 伏羲八卦圖는 西半球에 陽劃이 四이오 陰劃이 八인데 正易八卦圖는 西半球에 陽劃이 八이오 陰劃이 四이니 東半球는 陽方이오 西半球는 陰方이라 이는 生의 時運에는 東의 陽方에 陽多陰少하고 西의 陰方에 陰多陽少하여 天地運氣의 流行하는 象이 된 것이오 成의 時運에는 東의 陽方에 陰多陽少하고 西의 陰方에 陽多陰少하여 天地氣運의 調和한 象이 되는 것이며 正易八卦圖의 南北半球는 長의 時運의 文王八卦圖와 같이 陰劃과 陽劃이 各各 六이되어 陰陽이 均齊하니 이는 文王八卦圖와 正易八卦圖가 모두 陽卦가 北에 있고 陰卦가 南에 있고 한 까닭이다

第二節　后天河圖九宮圖

生의 時運에는 數에 河圖가 있고 象에 伏羲八卦圖가 있으며 長의 時運에는 數에 洛書가 있고 象에 文王八卦圖가 있으니 成의 時運에는 象에 正易八卦圖가 있으므로 또한 數에 어떠한 圖像이 있는 것이오 그것은 곧 洛書九宮의 變化한 后天河圖九宮圖이니 이는 河圖에서 生한者가 여물어서 다시 河圖로 돌아가는 理이다

洛書는 胎宮中에서 胎兒를 기르는 象인데 東北의 一六水 三八木은 序卦의 胎宮 井卦의 改邑不改井의 象이오 西南의 四九金 二七火는 胎宮 革卦의 己日乃孚의 象이오 中央의 五土는 生數의 生命體로서 胎兒가 胎中에서 자라는 象이다 胎中의 胎兒는 자람을 極하면 여물어서 母腹外로 出産되는 것인데 洛書는 九數가 차서 胎兒의 長極한 象이되고 九數를 넘어서 十數가되면 여물어서 出産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胎兒가 여무는 때는 中央에 十土가 나타나서 河圖中宮의 五十土가 되는 것이다

胎兒가 여물어서 出産되는 때에도 改邑不改井의 理에 依하여 洛書東北의 一六三八의 方位는 變치 아니하는 것이오 또 洛書가 자라서 여무는 것은 生의 時運의 河圖와는 同一치 아니하고 여무는 過程에 있는 것이므로 河圖와 같은 五方位는 되지 아니하고 洛書와 같은 九宮이 되는 것이다

洛書胎宮에 胎兒가 入胎되는 때에는 胎兒가 자라기 爲하여 相克의 道가 行하여 河圖의 西金南火가 洛書의 南金西火로 變改되고 洛書의 五土가 東北의 水木中에 寓하여 자라는 것이니 이가 胎宮井卦의 改邑의 象이며 胎宮에서 胎兒가 出産되는 것은 父母와 子息의 道이므로 相生의 道가 行하여 金火가 互易하여 옛 河圖의 西金南火가 되는 것이다 物의 자라는 것은 相克으로써 하므로 洛書는 相克의 象이되고 物의 始生하는 것은 相生으로써 하므로 后天河圖는 河圖와 같은 相生의 象이 되는 것이다

洛書 西南의 四九二七은 胎兒의 入胎와 出産의 交通路이므로 이것을 四九

二七金火門이라 하는 것이오 二火는 달의 象이오 九金은 太陽의 象이라 洛書는 二가 西南에 있고 九가 南에 있어 달이 太陽의 앞에 있으므로 달의 先迷의 象이되니 이는 娠娠中에 胎門의 닫혀있는 象이오 胎兒의 出産期에 이 門이 열리는 때에는 金火가 互易하는데 그 互易하는 方法은 옛 河圖와 같이 生數의 位는 四正에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二가 正南에 있고 四가 正西에 있고 七이 東南에 있고 九가 西南에 있어 이에 后天河圖九宮圖가 되는 것이며 后天河圖九宮은 九가 西南에 있고 二가 正南에 있어 달이 太陽의 뒤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後得主의 달이 되니 이가 곧 后天달이오 后天달은 金과 火가 正하게 互易된 象이라하여 이것을 金火正易이라 하는 것이니 正易이라는 이름은 이 后天달의 象을 말하는 것이오 金火正易의 象은 后天河圖九宮의 金火門의 理에서 明確히 나타나는 것이다

洛書九宮圖

四	九	二
三	五	七
八	一	六

后天河圖九宮圖

七	二	九
三	五十	四
八	一	六

后天이라함은 달의 여무는 時運이오 달의 여무는 것은 곧 少男少女인 艮兌의 여무는 것인데 正易八卦圖에는 艮兌가 三八數로서 東西를 運行하고 后天九宮圖에는 艮兌가 二七數로서 金火正易하는 南方에 位하고 있다 그런데 艮兌는 東方에서는 三十八度線을 지키고 南方에서는 十七度線에서 싸우고 있으니 九는 十七의 中으로서 十七度線에는 九數로써 자라는 象이있고 十은 十九의 中으로서 三十八은 두 十九가 陰陽의 義로써 合하여 여무는 象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后天의 氣運은 十七度線에서 자라고 三十八度線에서 여물고 있는 것이다

尾

正易原文

十五一言

嗚呼 盤古化 天皇无爲 地皇載德 人皇作 有巢旣巢 燧人乃燧 神哉伏羲劃結 聖哉神農耕市 黃帝甲子星斗 神堯日月甲辰 帝舜七政玉衡 大禹九疇玄龜 殷廟可以觀德 箕聖乃聖 周德在茲 二南七月 麟兮 我聖乾坤中立 上律下襲 襲于今日

嗚呼 今日今日 六十三 七十二 八十一 一乎一夫

擧便无極十

十便是太極一 一无十无體 十无一无用 合土居中 五皇極

地載天而方正體

天包地而圓環影

大哉 體影之道 理氣囿焉 神明萃焉

天地之理 三元

元降聖人 示之神物 乃圖乃書

圖書之理 后天先天 天地之道 旣濟未濟 龍圖未濟之象 而倒生逆成 先天太極

龜書 旣濟之數 而逆生倒成 后天无極

五居中位皇極

易逆也 極則反

土極生水 水極生火 火極生金 金極生木 木極生土 土而生火

金火互宅 倒逆之理

嗚呼 至矣哉 无極之无極 夫子之不言 不言而信 夫子之道

晚而喜之 十而翼之 一而貫之 儘我萬世師

天四地六 天五地五 天六地四

天地之度 數止乎十

十紀二經 五綱七緯

戊位 度順而道逆 度成道於三十二度 后天水金 太陰之母

己位 度逆而道順 度成道於六十一度 先天火木 太陽之父

太陰逆生倒成 先天而后天 既濟而未濟 一水之魂 四金之魄 胞於戊位 成度之月初一度 胎於一九度 養於十三度 生於二十一度 度成道於三十

終于己位 成度之年初一度 復於戊位 成度之年十一度

復之之理 一八七

五日一候 十日一氣 十五日一節 三十日一月 十二月一朞

太陽 倒生逆成 后天而先天 未濟而既濟 七火之氣 八木之體 胞於己位 成度之日一七度 胎於十五度 養於十九度 生於二十七度 度成道於三十六

終于戊位 成度之年十四度 復於己位 成度之年 初一度

復之之理一七四

十五分一刻 八刻一時 十二時一日

天地合德三十二 地天合道六十一 日月同宮有无地 月日同度先后天 三十六宮先天月 大明后天三十日

四象分體度 一百五十九

一元推衍數 二百一十六

后天政於先天水火

先天政於后天火水

金火一頌

聖人垂道 金火明 將軍運籌 水土平 農夫洗鋤 歲功成 畵工却筆 雷風生 德符天皇 不能名 喜好一曲 瑞鳳鳴 瑞鳳鳴兮 律呂聲

金火二頌

吾皇大道當天心 氣東北而固守 理西南而交通 庚金九而氣盈 丁火七而數虛 理金火之互位 經天地之化權 風雲動於數象 歌樂章於武文 喜黃河之一清 好一夫之壯觀 風三山而一鶴 化三碧而一觀 觀於此而大壯 禮三千而義一

金火三頌

北窓清風暢和 淵明无絃琴 東山第一三八峯 次第登臨洞得吾 孔夫子小魯意 脫巾掛石壁 南望青松架短壑 西塞山前 白鷺飛 懶搖白羽扇 俯瞰赤壁江 赤赤白白互互中 中有學仙侶 吹簫弄明月

金火四頌

四九二七金火門 古人意思不到處 我爲主人次第開 一六三八左右分列 古今天地一大壯觀 今古日月第一奇觀 歌頌七月章一篇 景慕周公聖德 於好夫子之不言 是今日

金火五頌

嗚呼 金火互易 不易正易 晦朔弦望 進退屈伸 律呂度數 造化功用立 聖人所不言 豈一夫敢言時命

嗚呼 日月之德 天地之分 分積十五刻 刻積八時 時積十二日 日積三十月 月積十二朞

朞生月 月生日 日生時 時生刻 刻生分 分生空 空无位

帝堯之朞 三百有六旬有六日

帝舜之朞 三百六十五度 四分度之一

一夫之朞 三百七十五度 十五尊空 正吾夫子之朞 當朞三百六十日

五度而月魂生申 初三日月弦上亥 初八日月魄成午 十五日望先天

月分于戌 十六日 月弦下巳 二十三日 月窟于辰 二十八日 月復于子 三十日晦后天

月合 中宮之中位 一日朔

六水九金會而潤而律

二火三木分而影而呂

一歲周天律呂度數

分 一萬二千九百六十

刻 八百六十四

時 一百八

日 一九

理會本原 原是性 乾坤天地雷風中

歲甲申 六月二十六日 戊戌 校正書頌

水土之成道天地 天地之合德日月

太陽恒常 性全理直

太陰消長 數盈氣虛

盈虛氣也 先天

消長理也 后天

后天之道屈伸 先天之政進退

進退之政 月盈而月虛

屈伸之道 月消而月長

抑陰尊陽 先天心法之學

調陽律陰 后天性理之道

天地匪日月空殼 日月匪至人虛影

潮汐之理一六壬癸水位北 二七丙丁火宮南火氣炎上 水性就下互相衝擊 互相進退 而隨時候氣節 日月之政

嗚呼 日月之政 至神至明 書不盡言

嗚呼 天何言哉 地何言哉 一夫能言

一夫能言兮 水潮南天 水汐北地

水汐北地兮 早暮難辨

水火既濟兮 火水未濟

大道從天兮 天不言

大德從地兮 地從言

天一壬水兮 萬折必東

地一子水兮 萬折于歸

歲甲申流火六月七日 大聖七元君書

嗚呼 天地无言 一夫何言 天地有言 一夫敢言

天地言 一夫言 一夫言 天地言

大哉 金火門 天地出入 一夫出入 三才門 日月星辰氣影 一夫氣影 五元門

八風風 一夫風 十无門

日月大明乾坤宅 天地壯觀雷風宮 誰識 先天復上月 正明金火日生宮

化无上帝言

復上起月 當天心 皇中起月 當皇心 敢將多辭古人月 幾度復上 當天心

月起復上 天心月 月起皇中 皇心月 普化一天 化翁心 丁寧分付 皇中月

化无上帝重言

推衍无或違正倫 倒喪天理父母危

不肖敢焉 推理數 只願 安泰父母心 歲甲申 七月十七日 己未 不肖子 金恒 感泣奉書

化翁親視監化事

嗚呼 金火正易 否往泰來

嗚呼 己位親政 戊位尊空

嗚呼 丑宮得旺 子宮退位

嗚呼 卯宮用事 寅宮謝位

嗚呼 五運運六氣氣 十一歸體 功德无量

無極體位度數 己巳 戊辰 己亥 戊戌 度逆道順 而數六十一

皇極體位度數 戊戌 己亥 戊辰 己巳 度順道逆 而數三十二

月極體位度數 庚子 戊申 壬子 庚申 己巳 初初一度 有而无 五日而候 而數三十

日極體位度數 丙午 甲寅 戊五 丙寅 壬寅 辛亥 初初一度 无而有 七日而復 而數三十六

化翁无位 原天火 生地十己土

己巳宮 先天而后天

地十己土 生天九辛金

天九辛金 生地六癸水

地六癸水 生天三乙木

天三乙木 生地二丁火

地二丁火 生天五戊土

戊戌宮 后天而先天

天五戊土 生地四庚金

地四庚金 生天一壬水

天一壬水 生地八甲木

地八甲木 生天七丙火

天七丙火 生地十己土

地十己土 生天九庚金

天九庚金 生地六癸水

地六癸水 生天三甲木

天三甲木 生地二丙火

地二丙火 生天五戊土

天五戊土 生地四辛金

地四辛金 生天一壬水

天一壬水 生地八乙木

地八乙木 生天七丁火

天七丁火 生地十己土

地十己土 成天一壬水

天一壬水 成地二丁火

地二丁火 成天九辛金

天九辛金 成地八乙木

地八乙木 成天五戊土

天五戊土 成地六癸水

地六癸水 成天七丙火

天七丙火 成地四庚金

地四庚金 成天三甲木

天三甲木 成地十己土

丙甲庚三宮 先天之天地

丁乙辛三宮 后天之地天

先天 三天兩地

后天 三地兩天

子寅午申 先天之先后天

丑卯未酉 后天之先后天

上元丑會干支圖

己丑宮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宮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宮 庚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宮 庚申 辛酉 壬戌 癸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宮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戊寅

己卯宮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二十八宿運氣圖

癸未　軫　癸丑

甲申　翼　甲寅

乙酉　張　乙卯

丙戌　星　丙辰

丁亥　柳　丁巳

戊子　鬼　戊午

乙丑　井　己未

庚寅　參　庚申

辛卯　觜　辛酉

壬辰　畢　壬戌

癸巳　昴　癸亥

甲午　胃　甲子

乙未　婁　乙丑

丙申　奎　丙寅

丁酉　壁　丁卯

戊戌　室　戊辰

己亥　危　己巳

庚子　虛　庚午

辛丑　女　辛未

壬寅　牛　壬申

癸卯　斗　癸酉

甲辰　箕　甲戌

乙巳　尾　乙亥

丙午　心　丙子

丁未　房　丁丑

戊申　氐　戊寅

己酉　　己卯

庚戌　　庚辰

辛亥　亢　辛巳

壬子　角　壬午

亢角二宿尊空詩

何物能聽角 神明氐不亢 室張三十六 莫莫莫无量

武功平胃散 文德養心湯 正明金火理 律呂調陰陽

九九吟

凡百滔滔儒雅士 聽我一曲放浪吟 讀書學易先天事 窮理修身后人誰 三絶韋編吾夫子 不言无極有意存 六十平生狂一夫 自笑人笑恒多笑 笑中有笑笑何笑 能

笑其笑笑而歌

三百六十當暮日　大一元三百數 九九中排列 无无位六十數 一六宮分張 單五歸空 五十五點昭昭 十五歸空 四十五點斑斑 我摩道正理玄玄眞經 只在此宮中 誠意正心 終始无怠 丁寧我化化翁 必親施教 是非是好吾好

十五歌

水火旣濟兮 火水未濟

旣濟未濟兮 天地三元

未濟旣濟兮 地天五元

天地地天兮 三元五元

三元五元兮 上元元元

上元元元兮 十五一言

十五一言兮 金火而易

金火而易兮 萬曆而圖

萬曆而圖兮 咸兮恒兮

咸兮恒兮兮 十兮五兮

先后天正閏度數

先天 體方用圓 二十七朔而閏

后天 體圓用方 三百六旬而正

原天无量

先后天周回度數

先天 二百一十六萬里

后天 三百二十四萬里

先后天合計數 五百四十萬里

盤古五化元年壬寅 至大清光緒十年甲申 十一萬八千六百四十三年

余年三十六 始從蓮潭李先生 先生賜號 二字曰 觀碧 賜詩一絶曰

觀淡莫如水 好德宜行仁 影動天心月 勸君尋此眞

立道詩

靜觀萬變一蒼空 六九之年始見工 妙妙玄玄玄妙理 无无有有有无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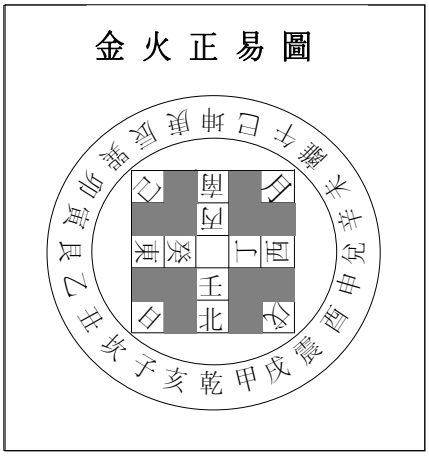
无位詩

道乃分三理自然 斯儒斯佛又斯仙 誰識一夫眞蹈此 无人則守有人傳

歲甲申 月丙子 日戊辰 二十八 書正

正易詩

天地之數數日月　日月不正易匪易　易爲正易易爲易 原易何常用閏易



布圖詩

萬古文章日月明 一張圖畫雷風生 靜觀宇宙无中碧 誰識天工待人成

十一一言

十土六水 不易之地

一水五土 不易之天

天政開子 地政闢丑

丑運五六 子運一八

一八復上月影生數 五六皇中月體成數

九七五三一 奇

二四六八十 偶

奇偶之數二五 先五天道 后五地德 一三五次度天 第七九次數地 三天兩地

天地地天后天先天

先天之易交易之易

后天之易變易之易

易易九宮易易八卦

卦之離乾 數之三一 東北正位

卦之坎坤 數之六八 北東維位

卦之兌艮 數之二七 西南互位

卦之震巽 數之十五 五行之宗 六宗之長 中位正易

干之庚辛 數之九四 南西交位

洛書九宮生成數

天一生壬水 地一成子水

天三生甲木 地三成寅木

天七生丙火 地七成午火

天五生戊土 地五成辰土 戌五空

天九生庚金 地九成申金

三五錯綜三元數

甲己夜半生甲子 丙寅頭

乙庚夜半生丙子 戊寅頭

丙辛夜半生戊子 庚寅頭

丁壬夜半生庚子 壬寅頭

戊癸夜半生壬子 甲寅頭

河圖八卦生成數

地十生己土 天十成丑土

地四生辛金 天四成酉金

地六生癸水 天六成亥水

地八生乙木 天八成未木 卯八空

地二生丁火 天二成巳火

九二錯綜五元數

己甲夜半生癸亥 丁卯頭

庚乙夜半生乙亥 己卯頭

辛丙夜半生丁亥 辛卯頭

壬丁夜半生己亥 癸卯頭

癸戊夜半生辛亥 乙卯頭

十一歸體詩

火入金鄉金入火 金入火鄉火入金 火金金火原天道 誰遣龍華歲月今

政令己庚壬甲丙 呂律戊丁乙癸辛 地十爲天天五地卯兮 歸丑戌依申

十十九之中

九十七之中

八十五之中

七十三之中

六十一之中

五一九之中

四一七之中

三一五之中

二一三之中

一一一之中

中十十一一之空 堯舜之厥 中之中

孔子之時 中之中

一夫所謂包五含六 十退一進之位

小子明聽吾一言小子

雷風正位用政數

己位 四金一水八木七火之中 无極

无極而太極十一

十一地德而天道

天道圓庚壬甲丙

地德方二四六八

戊位二火三木六水九金之中 皇極

皇極而无極五十

五十天度而地數

地數方 丁乙癸辛

天度圓 九七五三

四正七宿用中數

先天五九逆而用八 錯閏中

后天十五順而用六 合正中

五九太陰之政 一八七

十五太陽之政 一七四

易三 乾坤卦八 否泰損益咸恒既濟未濟 嗚呼 既順既逆 克終克始 十易萬曆

十一吟

十一歸體兮 五八尊空

五八尊空兮 九二錯綜

九二錯綜兮 火明金清

火明金清兮 天地清明

天地清明兮 日月光華

日月光華兮 琉璃世界

世界世界兮上帝照臨

上帝照臨兮于于而而

于于而而兮 正正方方

正正方方兮 好好无量

乙酉歲 癸未月 乙未日 二十八 不肖子 金恒謹奉書

十二月 二十四節氣候度數

卯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 十一分 元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 十一分 中化

辰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大和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布化

巳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十一分 雷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十一分 風化

午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立和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行化

未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十一分 建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十一分 普化

申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清和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平化

酉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十一分 成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十一分 入化

戌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咸和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亨化

亥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十一分 正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十一分 明化

子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至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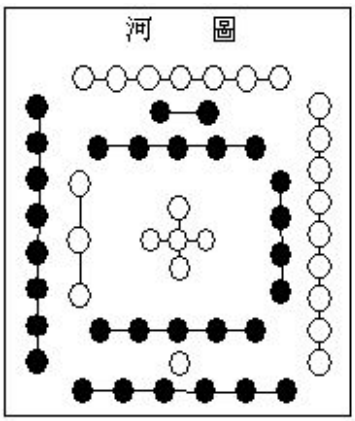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貞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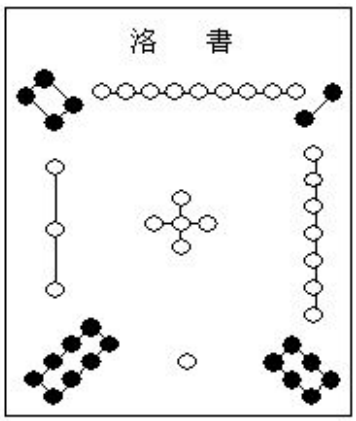
丑月初三日乙酉 酉正一刻十一分 太和

十八日庚子 子正一刻十一分 體化

寅月初三日乙卯 卯正一刻十一分 仁和

十八日庚午 午正一刻十一分 性化













尾